





#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4

## 대정읍 구억리

### 목 차

I. 사업 개요 .....	5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연구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	8
II. 구술 자료 .....	11
1. 조사 마을 .....	11
2. 제보자 일생 .....	32
3. 밭일 .....	68
4. 들일 .....	112
5. 바다일 .....	152
6. 의생활 .....	177
7. 식생활 .....	223
8. 주생활 .....	394
연구 참여자 .....	432



# I.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 발간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2. 사업 기간

2020년 3월 10일~2020년 12월 31일

## 3. 연구 참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가급적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조사한 대정읍 구역리와 애월읍 봉성리, 2015년 조사한 한림읍 대림리의 구술 채록 보고서는 자료의 양이 적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조사하였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제보자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보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과 그 역할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진 현황과 역할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돈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역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용,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철,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욱,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역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 5. 사업 추진 과정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한 차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하였다.
-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였다.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하였다.
-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하였다.
- ‘하다’의 경우 ‘ㅎ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했다. ‘허는구나, 헛구나’처럼 ‘ㄴ’로 통일했고,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하였다.
- 제보자의 발음이 표기와 다르게 나는 경우는 발음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하였다.
- 보고서의 번호는 2019년에 이어 제주시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주시 외도동’ 구술 자료가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가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조사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이는 제보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랐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 안에 넣었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맥에 맞게 의역할 경우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예: ‘바령팻’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두었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

##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각주 번호를 부여하였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하였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간한 《제주어구술자료집》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연구자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연구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성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량,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혜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홍,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운삼, 고원방	김보향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은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옥,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용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역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 II. 구술 자료

(@ 김성룡, #1 강영지, #2 임춘자)

### 1. 조사 마을

101001 @ 그 여기 와신디양, 이 마을 형성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줍서.(그 여기 왔는데요, 이 마을 형성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1001 #1 아이 계난 뭐 형성과정, 나 뭣이 그런 박사도 아니고 그런 뭣 거 자세이 모르는데 우리 동네가 원래 구역리가 구역리<sup>1)</sup>가 아이라. 구석밭<sup>2)</sup>, 구석밭. 구석밭이엔 흐여, 여기가 본래, 구석밭이 여기가 아니고 조금 올라간 디, 상동이엔 헌 디, 구역리. 켜 이 구석밭이 거 옛날, 지금 마을로는, 지금 이름으로는 구역리. 옛날은 구석밭. 저 거의 다 여긴 뭐 뉘밭<sup>3)</sup>, 구석밭, 선남밭<sup>4)</sup>, 무신 뉘 산밭구석<sup>5)</sup> 이런 전을 해 가지고 이 집을 지은 거라, 명칭이. 경 험 우리도 동네가 구석밭, 경 뉘 거고.(아니 그러니까 뭐 형성과정, 나 뭣이 그런 박사도 아니고 그런 뭣 거 자세이 모르는데 우리 동네가 원래 구역리가 구역리가 아니야. ‘구석밭’, ‘구석밭’. ‘구석밭’이라고 해, 여기가 본래, ‘구석밭’이 여기가 아니고 조금 올라간 데, 상동이라고 한테, 구역리. 켜 이 ‘구석밭’이 거 옛날, 지금 마을로는, 지금 이름으로는 구역리. 옛날은 ‘구석밭’. 저 거의 다 여긴 뭐 ‘뉘밭’, ‘구석밭’, ‘선남밭’, 무슨 뉘 ‘산밭구석’ 이런 전을 해 가지고 이 집을 지은 거야, 명칭이. 그렇게 해서 우리도 동네가 ‘구석밭’, 그렇게 된 거고.)

101001 @ 무사 구석밭이엔 헛수가?(왜 ‘구석밭’이라고 했습니까?)

101001 #1 구석밭, 저기 그 구석밭이엔, 우리 동네 거 아홉 구석 밭이 있어. 구석이 큰 밭인디 구석이 아홉 개라. 계난 살아난 마을로 구석밭.(‘구석밭’, 저기 그 ‘구석밭’이라고, 우리 동네 거 아홉 구석 밭이 있어. 구석이 큰 밭인데 구석이 아홉 개야. 그러니까 살았던 마을로 ‘구석밭’.)

101001 @ 구석밭도 잇고 그다음에 무신 밭마씨?(‘구석밭’도 잇고 그다음에 무슨 밭이요?)

101001 #1 거 이 요 밑에 가민 선남밭.(거 이 요 밑에 가면 ‘선남밭’.)

101001 @ 선남밭? 무사 거기 선남밭이엔 헛수가?(‘선남밭’? 왜 거기 ‘선남밭’이라고 했습니까?)

101001 #1 건 뉘, 모르것어. 논사 셔나신디 선남밭이엔 헤나시난. 거 잇어났어.

---

1) ‘구역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를 말한다.  
2) ‘구석밭’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3) ‘뉘밭’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4) ‘선남밭’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5) ‘산남구석’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거 이 으디 완 집덜 쪽 이서난 디, 거 선남밭이엔 헛고.(건 뭐, 모르겠어. 논이야 있었는지 ‘선남밭’이라고 했었으니까. 거 있었어. 거 이 요기 와서 집들 쪽 있었던 데, 거 ‘선남밭’이라고 헛고.)

101001 @ 그다음 또 무슨 밧?(그다음 또 무슨 밧?)

101001 #1 거긴 저, 서광<sup>6)</sup> 우이 저 선밭구석이엔 허여, 선밭구석. 거의 동광<sup>7)</sup>이라, 동광. 선밭구석이엔 헛 디가. 지금엔 동광이주만 옛날엔 선밭구석. 여긴 구석밧. 경 헛 거.(거긴 저, 서광리 위에 저 ‘선밭구석’이라고 해, ‘선밭구석’. 거의 동광리아, 동광리. ‘선밭구석’이라고 한 데가. 지금엔 동광리이지만 옛날엔 ‘선밭구석’. 여긴 ‘구석밧’. 그렇게 한 거.)

101001 @ 여긴 지금 노인회장님 사는 디는 뭐엔 헛니까?(여긴 지금 노인회장님 사는 데는 뭐라고 헛니까?)

101001 #1 게 여긴 구역리.(그래 여긴 구역리.)

101001 @ 구역리.(구역리.)

101001 @ 아까 선남밧은?(아까 ‘선남밧’은?)

101001 #1 선남밧은 저어기 신도<sup>8)</sup>레 가는 쪽에. 거기도 구역린다 거기 딱로 선남밧이 딱로 셔낫주게.(‘선남밧’은 저기 신도리로 가는 쪽에. 거기도 구역리인데 거기 따로 ‘선남밧’이 따로 있었었지요.)

101001 @ 예, 복지회관이 잇인 디 뭐엔 헛니까?(예, 복지회관이 잇는 데는 뭐라고 헛니까?)

101001 #1 아, 거기 다 구역린다, 요 흐끔 저기 폭낭 이신디 폭낭굴<sup>9)</sup>.(아, 거기 다 구역리인데, 요 조금 저기 팽나무 잇는데 ‘폭낭굴’.)

101001 @ 폭낭굴?(‘폭낭굴’?)

101001 #1 거기도 사름 사는디, 옛날에.(거기도 사름 사는데, 옛날에.)

101001 @ 거 폭낭굴은 무사 폭낭굴이엔, 폭낭굴?(거 ‘폭낭굴’은 왜 ‘폭낭굴’이라고, ‘폭낭굴’?)

101001 #1 어? 거기 폭낭 잇어난 모양이라.(어? 거기 팽나무 잇었던 모양이야.)

101001 @ 폭낭 잇어난. 그다음에, 그.(팽나무 잇었던. 그다음에, 그.)

101001 #1 거기 쪼끔 올라가민 당드르<sup>10)</sup>엔 헛 디 잇어. 당드르.(거기 조금 올라가면 ‘당드르’라고 하는 데 잇어. ‘당드르’.)

101001 @ 당드르?(‘당드르’?)

101001 #1 당드르, 당이 잇어난 디.(‘당드르’, 당이 잇었던 데.)

101001 @ 당이 잇어나니까양.(당이 잇었으니까요.)

101001 #1 당이 잇어난, 그 뭐 옛날 할망당<sup>11)</sup>이엔 허는 그런, 그런 당.(당이 잇

6) ‘서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이다.

7) ‘동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이다.

8) ‘신도’는 서귀포시 안덕면 신도리이다.

9) ‘폭낭굴’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에 잇는 지경이다.

10) ‘당드르’는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에 잇는 지경이다.

11) ‘할망당’은 마을을 맡아 지킨다는 여신(女神)을 모신 당이다.

있던, 그 뭐 옛날 ‘할망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당.)

101001 @ 지금도 할망당 잇수가?(지금도 ‘할망당’ 있습니까?)

101001 #1 아, 이제 없어.(아, 이제 없어.)

101001 @ 언제부터 없어졌수가?(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101001 #1 거, 오랬어.(거, 오랬어.)

101001 @ 오랬어마써? 지금은 저 어디 멩질날 ㄱ든 때 당에 안 갑니까?(오랬어  
요? 지금은 저 어디 멩질날 같은 때 당에 안 갑니까?)

101001 #1 안 텡여, 안 갑니다.(안 다녀, 안 갑니다.)

101001 #2 당에 갔다 온 디가 오 년 뵈수다.(당에 갔다 온 지가 오 년 뵈습니  
다.)

101001 #1 경허고 저 무신거, 옛날 거 저 췌땅이 잇어나신디, 풀지도 못허는 디,  
췌땅이 잇어나신디, 포켓동산이엔 현디. 이제 거 노레미<sup>12)</sup>엔 현 디주게, 포켓동산이  
엔 현 디. 거기가 뭐 허느냐면은 저, 기우제, 기우제, 아 저 뭐 비가 안 와 가민, 가  
근에 동네 하르방덜 제관덜 행은에양, 도새기 잡아놓곡 메칠 줌도 안 자명 강 배레  
행은에 기우제 지내났수다. 게 그 재산도 잊어져불잊주마는 노레미 공원에 가 불언.  
또 거기가 요, 거기 허니까 여기 내려와 가지고 왕동산<sup>13)</sup>이엔 현 디, 이제 공원인  
디. 왕동산이엔 허영 쪼끔만 현 디 허단에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문화가 발달허니  
까 그걸 아니허여. 이젠 그것도 아니험수다.(그리고 저 무엇, 옛날 거 저 췌땅이 있  
었었는데, 팔지도 못하는 데, 췌땅이 있었었는데, 포켓동산이라고 하는 데. 이제 거  
‘노레미’라고 한 데지요, 포켓동산이라고 한 데. 거기가 뭐 하느냐면 저, 기우제, 기  
우제, 아 저 뭐 비가 안 와 가면, 가서 동네 할아버지들 제관들 해서요, 돼지 잡아  
놓고 며칠 잠도 안 자면서 가서 배레해서 기우제 지냈었습니다. 게 그 재산도 없어  
져 버렸지만 ‘노레미’ 공원에 가 버렸어. 또 거기가 요, 거기 하니까 여기 내려와 가  
지고 ‘왕동산’이라고 한 데, 이제 공원인데. ‘왕동산’이라고 해서 조금만 한 데 하다  
가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문화가 발달하니까 그걸 아니해. 이젠 그것도 앓고 있습  
니다.)

101002 @ 거고 이 저 구역리, 성씨덜 잇지 안허파양, 주로 어떤 성씨들로 구성  
뵈수가?(그리고 이 저 구역리, 성씨들 잇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성씨들로 구성됐습  
니까?)

101002 #1 성씨는 고씨가 제일 만해.(성씨는 고씨가 제일 많아.)

101002 @ 고씨.(고씨.)

101002 #1 고씨, 김씨, 강씨, 세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조그만씩, 하나 두 개,  
그자 이백 명 정도.(고씨, 김씨, 강씨, 세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조금만큼씩, 하나  
두 개, 그저 이백 명 정도.)

101002 @ 고씨는 어느 정도, 혼 반 정도 뵈니까?(고씨는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12) ‘노레미’는 구역리에 있는 공원 이름이다.

13) ‘왕동산’은 구역리에 있는 동산 이름이다.

됩니까?)

101002 #1 흔 삼분에 일, 흔, 시 뿔, 김칩, 고칩, 강칩, 거의, 거의 비슷하게 신디, 거의 옛날은 고씨가 많아났주게. 거의 다 이젠 외부로 나가버리니까 다 마찬가지로 지주마는.(한 삼분의 일, 한, 세 뿔, 김씨집, 고씨집, 강씨집, 거의,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거의 옛날은 고씨가 많았었지요. 거의 다 이젠 외부로 나가버리니까 다 마찬가지지만.)

101003 @ 그다음에 저 이 동네 주로 무슨 일덜 허멍 살았수가?(그다음에 저 이 동네 주로 무슨 일들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101003 #1 아, 옛날에는 옹기 멘들멍 살아나신디, 이젠 옹기 작업이 끝나니까 밀감, 밭이 옛날 저 무릉<sup>14)</sup> 담지 아이허영은에 토지가 박허잔해. 서광이나 여긴 토지가 박허여. 계난 이젠 밀감이 서귀포 헌텐 허니까, 우리도 밀감 싱그지 안 허연. 나도 초창기엔 대정<sup>15)</sup>이서 나도 육십이 년도에 묘목 갖다당 심어나신디, 나도 초창기에 헌 놈이라.(옛날에는 옹기 만들어서 살았었는데, 이젠 옹기 작업이 끝나니까 밀감, 밭이 옛날 저 무릉리 같지 않아서 토지가 박하잖아. 서광리나 여긴 토지가 박해. 그러니까 이젠 밀감이 서귀포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밀감 심지 안 했어. 나도 초창기엔 대정에서 나도 육십이 년도에 묘목 갖다가 심었었는데, 나도 초창기에 한 놈이야.)

101003 @ 육십이 년도?(육십이 년도?)

101003 #1 경 헨 그 당시 이젠 묘목 헛단에 저 뭐해 불어신디, 저 강○○라고 잇어났어, 그 사람 죽어불엇주마는. 그 사람이 처음 묘목 갖단, 그게 육십이 년, 가서 묘목을 가져오니까 동네 사람덜이 다 미쳤덴 허연, 미쳤덴. 아 뭐 저 밭 벌지, 뭐 심엄시넌. 하하,(웃음) 그 사람이 머리가 특출헌 사람이주게, 그 당시. 그때 당시 그걸 헤서든 돈을 엄청 벌어실 건디, 그 사람은 경 헨 안 허연에, 그가 머리 좋긴 좋은 사람이라. 이젠 돌아가셨주마는. 그 후에 우리가 여기 나무가 육십팔 년도? 아, 칠십 년도에, 낭 싱근 지가. 과수원은 칠십 년도에 싱것수다.(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젠 묘목 했다가 저 뭐해 버렸는데, 저 강○○라고 있었어, 그 사람 죽어버렸지만. 그 사람이 처음 묘목 갖다가, 그게 육십이 년, 가서 묘목을 가져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 미쳤다고. 아 뭐 저 밭 벌지, 뭐 심고 있느냐고. 하하,(웃음) 그 사람이 머리가 특출한 사람이지요, 그 당시. 그때 당시 그걸 했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것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해서, 그가 머리 좋긴 좋은 사람이야. 이젠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 우리가 여기 나무가 육십팔 년도? 아, 칠십 년도에, 나무 심은 지가. 과수원은 칠십 년도에 심었습니다.)

101003 @ 칠십 년도?(칠십 년도?)

101003 #1 어, 칠십 년도에.(어, 칠십 년도에.)

101003 @ 어디 간 묘목 사단에 싱것수가?(어디 가서 묘목 사다가 심었습니까?)

14) '무릉'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이다.

15) '대정'은 서귀포시 대정읍을 말한다.

101003 #1 아, 저, 어디 불런, 일본 묘목 불런, 불런.(아, 저, 어디 불러서, 일본 묘목 불러서, 불러서.)

101003 @ 불런에.(불러서.)

101003 #1 예, 처음에 만생은 묘목이 좋고 미루니까, 경 헛고, 조생은 요맨씩허더라고 조생이 좋은 걸, 허허.(웃음)(예, 처음에 만생은 묘목이 좋고 미루니까, 그렇게 헛고, 조생은 요만큼 하더라고 조생이 좋은 걸, 허허.(웃음))

101003 @ 맞수다.(맞습니다.)

101003 #1 하이고 진짜, 계난 뭐 우린 조생이엔 헛다근에, 저 그때 간 덜 풀아 불언. 그 사람은 부자 돼고, 우린 만생 싱건 맨날 일년생 싱그멍 커가른 전정해불곡, 전정해불곡, 혼 십년 을매를 타불언. 을지도 아니허곡 크른 전정허곡, 전정허곡, 혼 사람 와 가지고 우리 이 저 나가 허민 허주마는 그땐 몰라노니까, 아, 이 양반들 왕 끊으멍, 끊어불민 다음 해엔 십년 넘게 이십년 넘게 냥을 잘랐수다. 냥 싱건. 게 그 당시 그거 싱그지 말양 밧 벌어먹어서민 돈 벌 거 아니? 농사 아니 헛 그거 잘 험넹 험 험 것이 경 뵈다고. 지금은 뭐 이젠 그거 저거 다 지냥으로 버니까, 우린 밧감벧기 안 험서.(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린 조생이라고 헛다가, 저 그때 가서 덜 팔아버렸어. 그 사람 부자 되고, 우린 만생 심어서 맨날 일년생 심으면서 커 가면 전정해버리고, 전정해버리고, 한 십 년 을매를 따버렸어. 열지도 아니하고 크면 전정하고, 전정하고, 한 사람 와 가지고 우리 이 저 나가 하면 하지만 그 땐 모르니까, 아, 이 양반들 와서 끊으면서, 끊어버리면 다음 해에는 십 년 넘게 이십 년 넘게 나무를 잘랐습시다. 나무 심어서. 게 그 당시 그거 심지 말아서 밧 벌어먹었으면 돈 벌 거 아니? 농사 아니 해서 그거 잘 하고 있다고 해서 한 것이 그렇게 뵈다고. 지금은 뭐 이젠 그거 저거 다 자기대로 버니까, 우린 굴밖에 안 하고 있어.)

101003 @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헛수다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장, 이장허멍 누게 제일교포가 오십 본을 보내준 거라, 오십 본을. 그때 그 저 조생, 조생으로 오십 본을 헛는데.(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헛습시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장, 이장하면서 누구 제일교포가 오십 본을 보내준 거야, 오십 본을. 그때 그 저 조생, 조생으로 오십 본을 헛는데.)

101003 #1 궁천<sup>16)</sup>이라. 궁천.(‘궁천’이야, ‘궁천’.)

101003 @ 이게 막 구덩이, 감젯 구덩이 식으로 막 판에.(이게 마구 구덩이, 고구마 구덩이 식으로 마구 파서.)

101003 #1 막 판에 검질로 막 헛 해 농곡.(마구 파서 검불로 마구 해서 해 넣고.)

101003 @ 우리 반은 죽어불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췌겘름, 췌겘름 노면은 미깡냥이 막 크카부덴 췌겘름 노니까 열 밧안에.(우리 반은 죽어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쇠두엄, 쇠두엄 넣으면은 굴나무가 아주 클까 봐서 쇠두엄 넣으니까 열 받아서.)

---

16) ‘궁천’은 굴 묘목 종류의 하나다.

101003 #1 여기도 경 헛습니다. 하하하.(웃음) 여기도 경 허연 막 망허연. 하하하.(웃음)(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하하.(웃음) 여기도 그렇게 해서 아주 망했어. 하하하.(웃음))

101003 @ 아, 계난 반은 죽어붙었수다.(아, 그러니까 반은 죽어버렸습니다.)

101003 #1 아, 그거 그냥 싱그른 돼는 걸, 미짱은 무정현 건디. 아이고 찹.(아. 그거 그냥 심으면 되는 걸, 굶은 무정한 것인데. 아이고 찹.)

101003 @ 계난 쉼결름 논 이유가 잘 먹영 잘 크렌 현 겁주.(그러니까 쇠두엄 넣은 이유가 잘 먹어서 잘 크라고 한 거지요.)

101003 #1 계난, 경 현 거라.(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101003 @ 열 반안 다 죽어붙었어. 반은 죽어붙어.(열 받아서 죽어버렸어. 반은 죽어버렸어.)

101003 #1 아니 계, 여기 경 허연. 구덩이 스몫 커.(아니 계, 여기 그렇게 하였어. 구덩이 사몫 커.)

101003 @ 감젓 구덩이만이 파서.(고구마 구덩이만큼 파서.)

101003 #1 구덩이 파레 막 덩겨난. 놉덜 다 빌멍. 그 돈 벌어먹젠. 밧디 그추록 싱거야 헌텐 허연.(구덩이 파러 막 다녔었어. 놉들 다 빌면서. 그 돈 벌어먹으려고 밧에 것처럼 심어야 한다고 해서.)

101003 @ 경 헛수다. 밧도 저 벌른 돌로 다 돌르고.(그렇게 했습니다. 밧도 저 깬 돌로 다 두르고.)

101003 #1 경허고 벌른 돌 아니랏자 돌 싸젠 그거 아이고, 쓸데기엇인 돌덜.(그리고 깬 돌 아니더라도 돌 쌓으려고 그거 아이고, 쓸데없는 돌들.)

101003 @ 누게 타먹어 불카부덴게.(누가 따먹어 버릴까 봐서.)

101003 #1 방풍도 웃언, 그 방풍 낭이 웃인 때니까. 그땐 방풍도 돼고. 경 허난 다으민 돼는 거주마는. 울담<sup>17)</sup>은 우선 방풍 땀에 현 거주.(방풍도 없어서, 그 방풍 나무가 없는 때니까. 그땐 방풍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다면 되는 거지만. 울담은 우선 방풍 때문에 한 거지.)

101003 @ 아, 여긴 고생 하영 헤실 거주다게. 옛날은 여기 농사광 뭐 잘 돼진 안 헤난 거 닻고.(아, 여긴 고생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옛날은 여기 농사하고 뭐 잘 되진 않았던 거 같고.)

101003 #1 경 헤난 게.(그렇게 했던 게.)

101003 #2 밧이 쪼끔 헤 노난, 쉼로 밧 갈젠 허민 잘도 여긴 어려와났수다. 신평<sup>18)</sup>, 모슬포<sup>19)</sup>는 막 좋고.(밭이 조금 헤 놓으니까, 소로 밧 갈려고 하면 잘도 여긴 어려웠었습니다. 신평리, 모슬포는 아주 좋고.)

101003 @ 우리 사모님 말 험수다양. 말헛 때랑 허지 말아. 이거 계속 뭐 허며는 한 사람 말헛 때는 상대방은 말허지 말기양.(우리 사모님 말 하고 있어요. 말할 때

17) '울담'은 집터의 주위에 둘러쌓은 담이다.

18) '신평'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를 말한다.

19) '모슬포'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를 말한다.



랑 하지 말아. 이거 계속 뭐 하면 한 사람 말할 때는 상대방은 말하지 말기요.)

101003 #1 알았수다.(알았습니다.)

101003 @ 계남양, 굴메들명. 경 험서.(그러니까요, 갈마들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101003 #2 나, 시집은 완 보난에 세상 물도 허벅<sup>20</sup> 정 요 흥굿물<sup>21</sup>이엔 헌 디  
저다가 먹곡 빨레도 흥굿물.(나, 시집은 와서 보니까 세상 물도 허벅져서 요 ‘흥굿  
물’이라고 한 데 저다가 먹고 빨레도 ‘흥굿물’.)

101003 @ 빨레엔 험니까? 서답이엔 험니까?(‘빨래’라고 합니까? ‘서답’이라고 합  
니까?)

101003 #2 서답이엔 험주게, 옛날에.(‘서답’이라고 하지요, 옛날에.)

101003 @ 제주도 말로. 서답.(제주도 말로. ‘서답’.)

101003 #1 서답을 허레 가든예, 옛날 구덕 잊지 안허파? 대구덕. 대구덕에 정  
물 허벅 우이 놓곡, 요 흥구물 강 지른 물은 고웁니까? 스뭇 펄 물, 스뭇 부영헌 디  
강 빨레 허곡, 저당 먹곡 여기 경 헌 동네우다. 아주 박헌 동네우다. 이 동네, 호  
호.(웃음)(빨래를 하러 가면요, 옛날 구덕 잊지 않습니까? 대구덕. 대구덕에 저서 물  
허벅 위에 놓고, 요 ‘흥구물’ 가서 지면 물은 곱습니까? 사뭇 펄 물, 사뭇 뿌연 데  
가서 빨래 하고, 저다가 먹고 여기 그렇게 한 동네입니다. 아주 박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 호호.(웃음))

101004 @ 그다음에양, 이 마을 주변에 보며는 오름 잊지 안허파? 오름, 오름 혼  
변 영 말해줍서.(그다음에요, 이 마을 주변에 보면 오름 잊지 않습니까? 오름, 오름  
한번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101004 #1 여긴 오름은 엇인디, 저 오름은 가차운 디 엇수다.(여긴 오름은 없는  
데, 저 오름은 가까운 데 없습니다.)

101004 @ 아, 오름은 엇고. 오름 엇고. 그다음에 내창?(아, 오름은 없고. 오름  
없고. 그다음에 냇가?)

101004 #1 내창도 엇고 오름도 엇인 동네라, 이 동네.(냇가도 없고 오름도 없는  
동네야, 이 동네.)

101004 @ 아, 내창도 엇고.(아, 냇가도 없고.)

101004 #1 이딘 저 단산<sup>22</sup>으로 바굼지오름. 저 대정골, 보성<sup>23</sup>.(여긴 ‘단산’으로  
‘바굼지오름’. 저 대정골, 보성리.)

101004 @ 보성에?(보성리에?)

101004 #1 응.(응.)

101004 @ 보성에 잇인 오름, 뭐마씨?(보성리에 있는 오름, 뭐예요?)

101004 #1 단산, 단산. 계남 저.(‘단산’, ‘단산’. 그러니까 저.)

20)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볼록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다.

21) ‘흥굿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사람들이 물을 길어 식수로 사용하던 곳이다.

22) ‘단산’은 대정향교 뒤에 있는 산이다. ‘바굼지오름’이라고도 한다.

23) ‘보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를 말한다.

101004 @ 단산은 사계<sup>24</sup>)에 잇는 겨우뿡?(‘단산’은 사계리에 잇는 것입니까?)

101004 #1 아니, 거 반반이라, 단산이. 단산이 반은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이렇게 허는 식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허는 식으로 이 저, 반, 꼭대기로 이 저 반도 사계, 일로 인성<sup>25</sup>), 대정. 거 저 희한하게 돼서.(아니, 거 반반이야, ‘단산’이. ‘단산’이 반은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이렇게 허는 식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하는 식으로 이 저, 반, 꼭대기로 이 저 반도 사계리, 이리로 인성리, 대정. 거 저 희한하게 됐어.)

101004 @ 거민 거기가 인성, 안성<sup>26</sup>), 보성.(그러면 거기가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101004 #1 어.(어.)

101004 @ 계난 단산 잇는 디가 인성?(그러니까 ‘단산’ 잇는 데가 인성리?)

101004 # 아, 계 단산 울로 밀으론 사계, 안덕<sup>27</sup>). 거 이 우터레 거 능선으로 일론 인성. 계난 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해근에 백두산 저런 중국, 이런 거 한국 허는 식으로 곁에.(아, 계 ‘단산’ 요기로 밀으론 ‘사계’, ‘안덕’. 거 이 위로 거 능선으로 이리론 인성리.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해서 백두산 저리로는 중국, 이리로는 그거 한국 하는 식으로 같아.)

101004 @ 거민 바위, 큰 돌 이신 디 그건 옛수강?(그러면 바위, 큰 돌 잇는 데 그건 없습니까?)

101004 #1 거 이제 거 무신거 허멍 옛날 동더레 거 셔나신디, 아니 진짜 돌덜 좋은 것덜 잇어났어.(거 이제 거 무엇 하면서 옛날 동으로 거 잇었는데, 아니 진짜 돌들 좋은 것들 잇었어.)

101004 @ 거 무슨거마씨?(그거 무엇요?)

101004 #1 뽕풍도르<sup>28</sup>). 계난 뽕풍돌이엔 허영, 뽕풍이난, 돌이 뽕풍ㄴ치 그자 ㄴ뽕허게 저.(‘뽕풍도르’. 그러니까 ‘뽕풍돌’이라고 해서, 병풍이니까, 돌이 병풍같이 그저 가지런하게 저.)

101004 @ 뽕풍돌?(‘뽕풍돌’?)

101004 #1 뽕풍도르, 뽕풍돌.(‘뽕풍도르’, ‘뽕풍돌’.)

101004 @ 아, 뽕풍돌.(아, ‘뽕풍돌’.)

101004 #1 켄디 지금은 영어 마을 들어가는 디 다 엇어져 불엇주. 진짜 그것이 문화재라신디.(그런데 지금은 영어 마을 들어가는 데 다 없어져 버렸지. 진짜 그것이 문화재였는데.)

101004 @ 굴, 굴은 옛수가?(굴, 굴은 없습니까?)

101004 #1 굴 무사 노랑굴<sup>29</sup>) 이쪽에 잇어. 굴 터 잇어 지금. 검은굴<sup>30</sup>) 터도 지

24) ‘사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25) ‘인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를 말한다.

26) ‘안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를 말한다.

27) ‘안덕’은 서귀포시 안덕면을 말한다.

28) ‘뽕풍도르’는 구역리에 있는 병풍 모양의 큰 돌이다. ‘뽕풍돌’이라고도 한다.

29) ‘노랑굴’은 옛날 구역리에서 갈색 질그릇을 굽던 굴이다.

30) ‘검은굴’은 옛날 구역리에서 진회색 질그릇을 굽던 굴이다.

금도 다 보존하고 있어.(굴 왜 ‘노랑굴’ 이쪽에 있어. 굴 터 있어 지금. ‘검은굴’ 터도 지금도 다 보존하고 있어.)

101004 @ 무슨 굴마썸?(무슨 굴요?)

101004 #1 노랑굴, 검은굴.(‘노랑굴’, ‘검은굴’.)

101004 @ 노랑굴, 검은굴.(‘노랑굴’, ‘검은굴’.)

101004 #1 검은굴은 뭐냐며는 거 저 덜 익게 해 가지고 옛날은 뭇인가 거의 다 검은굴, 저 노랑굴이엔 아니 허영 검은굴이엔 많이 햇거든. 걸로 물도 받아 먹고, 화로 그든 것도 노랑굴론 안 돼어. 검은굴로 해야 화로가 돼어. 허고 불 췌는 화로. 경 아니허든 별리지거든. 거 검은굴로는 별리지질 안 허여.(‘검은굴’은 뭐냐면 거 저 덜 익게 해 가지고 옛날은 뭇인가 거의 다 ‘검은굴’, 저 ‘노랑굴’이라고 아니 해서 ‘검은굴’이라고 많이 햇거든. 걸로 물도 받아 먹고, 화로 같은 것도 ‘노랑굴’론 안 돼. ‘검은굴’로 해야 화로가 돼. 하고 불 췌는 화로. 그렇게 아니하면 깨지거든. 거 ‘검은굴’로는 깨지질 안 해.)

101004 @ 그디 흑으로?(거기 흑으로?)

101004 #1 아니, 그만큼 덜 구어. 덜 구어. 옹기를 막 익히는 게 아이고 반에 반만 구는 거라. 게 연기로만 쪼끔 쪼끔씩 구워 가지고.(아니 그만큼 덜 구워. 덜 구워. 옹기를 마구 익히는 게 아니고 반에 반만 굽는 거야. 게 연기로만 조금 조금씩 구워 가지고.)

101004 @ 그 굴에서 옹기를 구웠다는 거우짜?(그 굴에서 옹기를 구웠다는 것입니까?)

101004 #1 어, 어.(어, 어.)

101004 @ 굴에서.(굴에서.)

101004 #1 게난 검은굴 노랑굴 차이가 노랑굴은 불을 이빠이 때서 천도 이상 때 가지고 탁탁 눅게끔 해 가지고 그릇이 경 허고, 검은굴은 반만 익히는 거라, 반만. 삼분에 일만.(그러니까 ‘검은굴’ ‘노랑굴’ 차이가 ‘노랑굴’은 불을 가득 때서 천도 이상 때어 가지고 탁탁 눅게끔 해 가지고 그릇이 그렇게 하고, ‘검은굴’은 반만 익히는 거야, 반만. 삼분에 일만.)

101004 @ 아, 나가 말허는 건 자연굴입주게, 자연굴.(아, 내가 말하는 건 자연굴이지요, 자연굴.)

101004 #1 아, 자연굴이 아니고 옹기굴이지.(아, 자연굴이 아니고 옹기굴이지.)

101004 @ 아, 멘든 굴?(아, 만든 굴?)

101004 #1 어, 멘든 굴.(어, 만든 굴).

101004 @ 아, 게난 난 자연굴이카부덴.(아, 그러니까 난 자연굴일까 싶어서.)

101004 #1 옹기굴.(옹기굴)

101004 @ 자연굴은 엇수가?(자연굴은 없습니까?)

101004 #1 자연굴은 엇어.(자연굴은 없어.)

101004 @ 자연굴은 엇고, 그 멩근 굴?(자연굴은 없고, 그 만든 굴?)

101004 #1 어.(어.)

101004 @ 계난 용기 멩글 때 노랑굴허고 검은굴에 만드는데 어디가 더 좋아마 씨?(그러니까 용기 만들 때 ‘노랑굴’하고 ‘검은굴’에 만드는데 어디가 더 좋아요?)

101004 #1 아이, 좋은 거 나쁜 게 아이고, 게 노랑굴은 그릇을 익히젠 허든 멜 감이 많이 들잖아. 게고 자본이 많이 들어. 일거리가 많고. 또 크고. 검은굴은 일거리가 적은 대신, 처음엔 검은굴만 잇단 나중에, 거 노랑굴 허기로 웬 거라. 쪼그맣게 멘들아 가지고 저 향아리도 멘들고 이 저 화로도 멘들고, 게 그냥 경 헤나신디 거 이쪽은 발전돼 가지고 노랑굴 모여졌던 거지.(아니, 좋은 거 나쁜 게 아니고, 그 래 ‘노랑굴’은 그릇을 익히려고 하면 멜감이 많이 들잖아. 그리고 자본이 많이 들어. 일거리가 많고. 또 크고. ‘검은굴’은 일거리가 적은 대신, 처음엔 ‘검은굴’만 잇다가 나중에, 거 ‘노랑굴’ 하기로 된 거야. 쪼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저 향아리도 만들고 이 저 화로도 만들고, 그 래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거 이쪽은 발전돼 가지고 ‘노랑 굴’ 모여졌던 거지.)

101004 @ 건디 그 요즘 보며는 옛날 당 잇어난 디, 당 잇어난 디 보며는 뭐 큰 돌이 잇는다든가 아니면 뭐 큰 낭이 잇는다든가 경 허지 안 험니까?(그런데 그 요즘 보면 옛날 당 잇었던 데, 당 잇었던 데 보면 뭐 큰 돌이 잇든가 아니면 뭐 큰 나무가 잇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01004 #1 큰 낭은 그냥 돌 ㄴ쁜 거, 이레 영 당 ㄴ쁜 디 잇긴 있어. 이쪽 지방 에서는.(큰 나무는 그냥 돌 같은 거, 이리 이렇게 당 같은 데 잇긴 있어. 이쪽 지방 에서는.)

101004 @ 그 돌? 돌 큰 거?(그 돌? 돌 큰 거?)

101004 #1 경 크진 안 허곡.(그렇게 크진 안 하고.)

101004 #2 저 메 올려가지고, 메 올려가지고.(저 메 올려서, 메 올려서.)

101004 #1 ㄴ찌 그냥 놓게.(같이 그냥 놓게.)

101004 #2 거기 가서 이렇게 빌면서 밥 같은 거 해 가지고 이렇게 빌 때에 허 는, 그런 일이 돼영, 펡풍 ㄴ치 이렇게 영 가명 올리며는 털어지지 안할 정도로예, 경 흐 디가 그대로 잇긴 잇수다. 거기도예 일 년에 한번 추진, 추진단 와 가지고 나 작년 여름에 거기 가서 한번 가르켜 줏수다게. 계난 사름은 들어가젠 허든 가시덤 불이 제와 가지고, 잘 들어가지 못 허고, 어찌다 영 가서 낮으로 짚르명 들어간에 헤난 팡들이 그대로 봐 이십디다. 나무는 크지 안 허곡, 나무는 그자 그늘 정도 잇 수다.(거기 가서 이렇게 빌면서 밥 같은 거 해 가지고 이렇게 빌 때에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병풍같이 이렇게 가면서 올리면 떨어지지 안할 정도로요, 그렇게 한 데가 그대로 잇긴 잇습니다. 거기도요 일 년에 한번 추진, 추진단 와 가지고 나 작 년 여름에 거기 가서 한번 가르켜 줏습니다. 그러니까 사름은 들어가려고 하면 가 시덤불이 겨워 가지고, 잘 들어가지 못하고, 어찌다 이렇게 가서 낮으로 자르면서 들어가서 했던 팡들이 그대로 봐 잇습니다. 나무는 크지 안 하고, 나무는 그저 그늘 정도 잇습니다.)

101004 @ 그 마을에서 영 저 보존하지 안 험수가?(그 마을에서 이렇게 저 보존하지 안 하고 있습니까?)

101004 #2 마을에서 그 전엔예, 이 저 정월 초일렛날 거길 당에 다녀나십주게. 그때는 마을 사름이 그달 가서 질을 다꿈도 허고 가시덤불도 비고 해신디 이젠예, 막 그런 디를 가지 안 허니까 길도 맥혀불고, 지금은 사람이예 드나들 수가 웃어. 계난 사람이 엿수다, 지금은.(마을에서 그 전엔요, 이 저 정월 초이렛날 거길 당에 다녔었습지요. 그때는 마을 사람이 거길 가서 길을 닦음도 하고 가시덤불도 베고 했는데 이젠요예, 마구 그런 데를 가지 안 하니까 길도 막혀버리고, 지금은 사람이요 드나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101004 @ 아, 그런 거 잘 보존햐서야 될 건디, 어땡.(아, 그런 거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어땡게.)

101004 #2 게도 그걸 땡라불진 아녀도에 보존은 안 땡고 있어마씨.(그래도 그걸 허물어버리질 안 해도요 보존은 안 되고 있어요.)

101004 @ 그런 걸 잘 보존햐서야 마을도 잘 될 건디.(그런 걸 잘 보존하고 있어야 마을도 잘 될 것인데.)

101004 #2 허, 그 말은 맞수다게.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덜 아팡, 또 거기 강 빌곡, 또 누가 아파도 거기나 갔다 오면 좀 낫으카 행예, 여기 나 시집완 보난 나 시어머니가 젓을 아파 가지고 막 이레 해도 안 땡고, 그때 병원이 경, 이제 ㄱ찌 경 좋앗수가게, 좋질 아니허난 할망당에나 갔다 오켄 헨 밥허고 헨 갔다 오난예, 진짜 좋안마씨게. 계난 그런 문화가 잇긴 잇이민서도예, 요즘은예 젊은 사람덜은 윈 그런 생각을 안 허여마씨. 그거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해 갖고. 호호.(웃음)(허, 그 말은 맞습니다.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들 아파서, 또 거기 가서 빌고, 또 누가 아파도 거기나 갔다 오면 좀 나을까 해서요, 여기 나 시집와서 보니까 나 시어머니가 젓을 아파 가지고 마구 이리 해도 안 되고, 그때 병원이 그렇게, 이제같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좋질 아니하니까 ‘할망당’에나 갔다 오겠다고 해서 밥하고 해서 갔다 오니까,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잇긴 있으면서도,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은 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거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호호.(웃음))

101004 @ 아, 우리 사모님 말 잘 햐신게마씨. 양, 총기가 좋수다.(아, 우리 사모님 말 잘 하고 있네요. 예, 총기가 좋습니다.)

101004 #2 아, 우리 시집을 완 해난, 눈으로 보고 들으니까예, 호호.(웃음) 말 햐점수다게.(아, 우리 시집을 와서 했던, 눈으로 보고 들으니까요, 호호.(웃음) 말 햐지고 있습니다.)

101004 @ 쫓끔씩 저 제주도 말로만 허쟁 허민 땡쿠다. 제주말 조사허는 거니까.(조끔씩 저 제주도 말로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주말 조사하는 거니까.)

101004 #2 예, 맞수다. 호호.(웃음)(예, 맞습니다. 호호.(웃음))

101005 @ 그다음에 저 이 마을에 저 무슨 기관덜이 잇수가? 뭐 복지회관이라던

가, 다른 것덜.(그다음에 저 이 마을에 저 무슨 기관들이 있습니까? 뭐 복지회관이 라든가, 다른 것들.)

101005 #1 헤이고, 기관이 쪼끔벳기, 동네에. 무신 뭐.(아이고, 기관이 조금밖에, 동네에. 무슨 뭐.)

101005 #2 노인회관벳기 엿수다.(노인회관밖에 없습시다.)

101005 @ 여기 이제 영어마을도 생기고.(여기 이제 영어마을도 생기고.)

101005 #1 그건, 그건 별도 므을로 웨부니까, 거.(그건, 그건 별도 마을로 돼버 리니까, 거.)

101005 @ 복지회관이 잇고, 보건소 잇지 안허꽈?(복지회관이 잇고, 보건소 잇지 않습니까?)

101005 #1 아, 보건소 잇고.(아, 보건소 잇고.)

101005 @ 그다음 농협, 농협은? 농협도.(그다음 농협, 농협은? 농협도.)

101005 #1 아, 농협은 보성, 보성. 영어 마을에도 농협 잇긴 잇인다.(아, 농협은 ‘보성’, ‘보성’. 영어 마을에도 농협 잇기는 잇는데.)

101005 @ 그다음에 다른 것덜? 학교?(그다음에 다른 것들? 학교?)

101005 #1 학교는 분교 잇단에 분교가 폐지웨부난에.(학교는 분교 잇다가 분교 가 폐지돼버리니까.)

101005 @ 언제 엿어졌수가?(언제 엿어졌습니까?)

101005 #1 한 멧년 웨주.(한 멧 년 되엇지.)

101005 @ 사삼사건 때?(사삼사건 때?)

101005 #1 아니, 그 후에, 에이구.(아니, 그 후에, 아이고.)

101005 @ 그 후에.(그 후에.)

101005 #1 분교엔 현 건 사삼사건 때 내려가부니까, 아니 내려가부니까, 저 학 교 원래 간이학교, 학교가 원래 커났어.(분교엔 한 건 사삼사건 때 내려가 버리니 까, 아니 내려가 버리니까, 저 학교 원래 간이학교, 학교가 원래 컸었어.)

101005 @ 간이학교?(간이학교?)

101005 #1 어, 간이학교. 게난 거기 학생들은 어디냐 허며는 서광, 청수<sup>31)</sup>, 저, 명월<sup>32)</sup> 이런 사름덜이 간이학교에 많이 다녔어. 이 또 뭇이 대정골<sup>33)</sup>, 보성, 신평 다 이 간이학교 땡겨났주게. 경 허단 거 불태와부난에, 거 품금 ㄴ똥 거영 전부 다.(어, 간이학교.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은 어디냐 하면 서광리, 청수리, 저, 명월리 이런 사름들이 간이학교에 많이 다녔어. 이 또 뭇이 ‘대정골’, 보성리, 신평리 다 이 간이학교 다녔었지요. 그렇게 하다가 불태워버리니까, 거 품금 같은 거랑 전부 다.)

101005 @ 어떻 허연 불탔수가?(어떻게 해서 불탔습니까?)

101005 #1 아, 태와불엿주게. 그 저, 사삼사건 때, 학교고 집이고 다 불태와불

31) ‘청수’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를 말한다.

32) ‘명월’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를 말한다.

33) ‘대정골’은 대정읍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세 부락을 일컫는다.

언.(아, 태워버렸지요. 그 저, 사삼사건 때, 학교고 집이고 다 불태워버렸어.)

101005 @ 아, 저, 사삼사건 때.(아, 저, 사삼사건 때.)

101005 #1 예, 사삼사건 때, 다 불태워버렸주.(예, 사삼사건 때, 다 불태워버렸지.)

101005 @ 게든 사삼사건 때 잊어졌네?(그러면 사삼사건 때 잊어졌네?)

101005 #1 어.(어.)

101005 @ 학교가?(학교가?)

101005 #1 어, 게 터도 잊어나신디, 터도 어떻 문딱 팔아먹어불고. 그 터는 팔아 먹지 말양 ㄱ만 잊어야 될 거 아니? 게난 거기서 왜 그 터가 중요하냐 허며는 거, 김익렬이, 거 연대장, 구 연대장.(어, 그래 터도 있었었는데, 터도 어떻게 모두 팔아 먹어 버리고. 그 터는 팔아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 터가 중요하냐 하면 거, 김익렬이, 거 연대장, 구 연대장.)

101005 @ 아, 사삼사건?(아, 사삼사건?)

101005 #1 응, 구 연대장, 김익렬이 허고 현달삼인가 누구 저 폭도 대장.(응, 구 연대장, 김익렬이 하고 현달삼인가 누구 저 폭도 대장.)

101005 @ 김익렬, 김익렬이구나.(김익렬, 김익렬이구나.)

101005 #1 김익렬, 그 저 대령이난 연대장, 대대장이영, 그 모실포. 구 연대장이라, 구 연대장. 그때 현달삼인가 김달삼인가 그 진이 폭도 대장, 거기서 좌담회를 했어. 좌담회 해가지고 거 우리 형은 잘 알암신디. 거 우리 형은 어떻게 아냐면은, 우리 형이 거 뭐 몇 살 때냐 허면 거 영 행 보니까 둘이가 간에, 간 이놈이 새끼 죽이켜. 허허. 막 도망가는디양, 보구렌. 경 험 이제 현 디 것이 이제 허니까 그 저 동광에서 뿔, 김익렬이 허고, 뭐 천만에 우리 형님 말허는 것이 여기서 헛헛 허여. 겐에 것이 아마 잘 못헛 모양인디. 협상 안 뿔신디.(김익렬, 그 저 대령이니까 연대장, 대대장이랑, 그 ‘모실포’. 구 연대장이야, 구 연대장. 그때 현달삼인가 김달삼인가 그 진이 폭도 대장, 거기서 좌담회를 했어. 좌담회 해가지고 거 우리 형은 잘 알고 있는데. 거 우리 형은 어떻게 아냐면은, 우리 형이 거 뭐 몇 살 때냐 하면 그거 이렇게 해서 보니까 둘이가 가서, 간 이놈의 새끼 죽이겠어. 허허. 마구 도망가는데요, 보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데 것이 이제 하니까 그 저 동광리에서 뿔, 김익렬이 하고, 뭐 천만에 우리 형님 말허는 것이 여기서 했다고 해. 그래서 것이 아마 잘못뿔 모양인디. 협상 안 뿔는데.)

101005 @ 그 저 학교 어느 펜이 잊어났수가?(그 저 학교 어느 편에 있었습니까?)

101005 #1 상동. 질옆에라, 큰질 옆에.(상동. 길옆에야, 한길 옆에.)

101005 @ 큰질 옆이.(한길 옆에.)

101005 #1 어.(어.)

101005 @ 거민 여기 지금 아이덜은 어느 학교 감수가?(그러면 여기 지금 아이들은 어느 학교 가고 있습니까?)

101005 #1 여기 신 아이덜은 보성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여기 있는 아이들은 보성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

101005 @ 아, 보성이 가깝구나.(아, 보성리가 가깝구나.)

101005 #1 어.(어.)

101005 @ 서광?(서광?)

101005 #1 서광은 거 지역도 안덕면 지경이고, 여긴 대정읍이고.(서광은 그거 지역도 안덕면 지경이고, 여긴 대정읍이고.)

101005 @ 아, 거난 보성 다녔수가?(아, 그러니까 보성 다니고 있습니까?)

101005 #1 보성. 여, 여기 영어 마을 아이덜또 보성 다녀.(보성. 여, 여기 영어 마을 아이들도 ‘보성’ 다녀.)

101005 @ 아, 게, 보성이 막 커져붙엇던 허여.(아, 그래, 보성이 아주 커져 버렸다고 해.)

101005 #1 엄청 커져붙언, 영어 마을 때문에. 게 아니든 거 저 분교 될 뻔 헤신디. 하하.(엄청 커져 버렸어, 영어 마을 때문에. 그래 아니면 거 저 분교 될 뻔 했는데.(웃음) 하하.)

101005 @ 아, 거난 저 영어 마을 아이덜이.(아, 그러니까 저 영어 마을 아이덜이.)

101005 #1 어, 거 전부 다 보성 학교.(어, 저 전부 다 보성 학교.)

101005 @ 보성 다녔구나.(보성 다니고 있구나.)

101005 #1 경 허난 막 학교도 크게 짓고, 경 헤 논 거주기.(그렇게 하니까 아주 학교도 크게 짓고, 그렇게 해 놓은 거지요.)

101005 @ 젠디 뭐 국제학교도 이신디, 무사 또 보성을 갑니까?(그런데 뭐 국제학교도 있는데, 왜 또 보성을 갑니까?)

101005 #1 국제학교는 아, 게, 초등학교는 엇인 모양이라.(국제학교는 아, 그래, 초등학교는 없는 모양이야.)

101005 @ 아, 초등학교는 없으니까, 아, 경 허니까 저 보성더레 감구나게. 난, 여기가 서광이 가까웁직허난.(아, 초등학교는 없으니까, 아, 그렇게 하니까 저 보성으로 가고 있구나. 나는, 여기가 서광초가 가까울 것 같으니까.)

101005 #1 예, 예. 서광은 안덕면. 허허.(웃음)(예, 예. 서광은 안덕면. 허허.(웃음))

101006 @ 음, 면허고 읍 차이구나. 그다음에 우리 저 사모님이 말협서양. 이 마을에는 어떤 계덜이 잇수가? 계, 계, 옛날 뭐 쓸제여, 계가 뭐냐면 제주, 제.(음, 면하고 읍 차이구나. 그다음에 우리 저 사모님이 말하십시오. 이 마을에는 어떤 계들이 있습니까? 계, 계. 옛날 쌀계여, 계가 뭐냐면 ‘제’지, ‘제’.)

101006 #2 옛날에, 예. 옛날엔예, 나 시집을 완 보난 절미저축이라고, 절미저축이라고.(옛날에, 예. 옛날엔요, 나 시집을 와서 보니까 절미저축이라고, 절미저축이라고.)



101006 @ 절미저축이란 무시겨우짜?(절미저축이란 무엇입니까?)

101006 #2 쌀, 절미저축은 지금은 쌀밥을 햅 먹주마는 옛날엔 보리밥을 햅 먹지 안 햅수가? 보리쌀 제당은에 밥 햅 먹을 때에, 이제는 사발로 햅주마는 옛날은 뉘 약세기엔 헌 그 저 뭐가 잇엇수다게. 그거 뉘약세기에 영 아침에 밥 햅 할 때에 거 뉘 약세기로 마련햅 놀 때는 요만헌 보시 잇지 안허짜? 그 날 쌀밥 햅 거를 그거에 꺼 덜어 가지고 아침마다 밥 햅 적마다 덜어 가지고 허여근에예 한 달이민 그 쌀 두 뉘씩 절미저축허는 거, 반 단위로 헤 갖고예. 반 단위로 헤 갖고 그렇게 헤영 두 뉘씩 헤근에 매달마다 모인믈예, 것도 돈이 많아마씨. 많으민 일 년에 한번 그거 헤 가지고 큰일 낫을 때에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시던가 자식을 시집 장게 보낼 때에 그럴 때에 그거를 쟈쌀로 헤 갖고, 헤 달렌 허믈예, 그거 받아 가지고, 그걸로 햅헤 가지고 잔치를 허여마씨. 또 돈 엇는, 돈 엇인 사름은 돈으로 달랭 허영 옛날엔 통시에 도새기 질루지 아이햅수가? 도새기 허민 그것도 사서 아이덜 결혼할 때 그걸로 씬도 허고예, 그런 계를 많이 그때 당시엔 절미저축을 많이 햅수다.(쌀, 절미저축은 지금은 쌀밥을 햅서 먹지만 옛날엔 보리밥을 햅서 먹지 안 햅습니까? 보리쌀 쳐다가 햅 햅서 먹을 때에, 이제는 사발로 하고 잇지만 옛날은 식되라고 하는 그 저 뭐가 잇엇습니다. 그거 식되에 이렇게 아침에 햅 할 때에 거 식되로 마련햅서 낫을 때는 요만한 보시 잇지 않습니까? 그 날 쌀밥 햅 거를 그거에 거 덜어 가지고 아침마다 햅햅 적마다 덜어 가지고 하여서요 한 달이면 그 쌀 두 되씩 절미저축 하는 거, 반 단위로 헤 가지고요. 반 단위로 헤 가지고 그렇게 햅서 두 되씩 햅서 매달마다 모이면요, 그것도 돈이 많아요. 많으면 일 년에 한번 그거 헤 가지고 큰일 낫을 때에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시든가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낼 때에 그럴 때에 그거를 계쌀로 헤 가지고, 헤 달라고 하면요, 그거 받아 가지고, 그걸로 햅 헤 가지고 잔치를 햅요. 또 돈 엇는, 돈 엇는 사름은 돈으로 달라고 햅서 옛날엔 돼지우리에 돼지 기르지 안 햅습니까? 돼지 하면 그것도 사서 아이들 결혼할 때 그걸로 씬도 하고요, 그런 계를 많이 그때 당시엔 절미저축을 많이 햅습니다.)

101006 @ 계엔 햅수가? 제엔 햅수가?(‘계’라고 햅습니까? ‘제’라고 햅습니까?)

101006 #1 제주계.(‘제’지요.)

101006 #2 제엔 햅십주. 요즘은 뉘 허주마는 옛날엔 우리 제회 허계, 제회 허계 허영.(‘제’라고 햅습지요. 요즘은 뉘 하지만 옛날엔 우리 계 하계, 계 하계 햅서.)

101006 @ 계난 쓸제 잇고.(그러니까 쌀계 잇고.)

101006 #2 쓸제 잇고, 또 돌아가명 또 어디 이제는 다 기계화가 뉘 가지고 햅주마는 그때 당시엔 검질 같은 것도 전시 글쟁이로 밧데 가서 검질메고, 검질제 허여근에 또 누게네 밧디 왕은에 검질메달렌 허민.(쌀계 잇고, 또 돌아가면서 또 어디 이제는 다 기계화 돼 가지고 햅지만 그때 당시엔 김 같은 것도 전시 호미로 밧에 가서 김매고 검불계, 검불계 하여서 또 누구네 밧에 와서 김매달라고 하면.)

101006 @ 검질제도 잇어낫수가?(‘검질제’도 잇엇습니까?)

101006 #2 예.(예.)

101006 @ 아. 검질제 처음 들었신디.(아, ‘검질제’ 처음 듣고 있는데.)

101006 #2 검질메달렌 허문예, 젓군덜 나오렌 행, 허영 강 돈 받아당 그거 모영 또 큰일 때에 쓰꼭예. 이 동네 난 씨집을 완 보난 그렇게 많이 험디다게.(김매달라고 하면요, 계꾼들 나오라고 해서, 해서 가서 돈 받아다가 그거 모여서 또 큰일 때에 쓰고요. 이 동네 전 시집을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합디다.)

101006 @ 검질제. 게난 뭐 사발제는 엇어났수가?(‘검질제’. 그러니까 뭐 사발제는 없었습니까?)

101006 #2 무사, 사발제는예, 여기 부락으로, 부녀회로 해 가지고예, 큰일 이제는 식당에 가서 다 잔치도 하고 결혼식장도 이젠 다 이 식당으로 험주마는 그뎨 이 잔치 ㄴ튼 거 험 때는 이녁 집이서, 창고에서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그릇을 사 가지고예, 누게네 집이 잔치험젠 허민 빌려쥬 그 샅품을 받았은예, 그걸 허여 가지고 또 이 아이덜 뭐 학교갈 때 ㄴ튼 때라도 영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저 무슨 거 한번 내주렌 허영,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일도 많이 험고예. 호호.(웃음) (왜, 사발제는요, 여기 부락으로, 부녀회로 해 가지고요, 큰일 이제는 식당에 가서 다 잔치도 하고 결혼식장도 이젠 다 이 식당으로 하고 있지만 그뎨 이 잔치 같은 거 할 때는 이녁 집에서, 창고에서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그릇을 사 가지고요, 누구네 집에 잔치하고 있다고 하면 빌려쥬서 그 샅품을 받아서요, 그걸 해 가지고 또 이 아이들 뭐 학교 갈 때 갈 때라도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저 무슨 거 한번 내주라고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일도 많이 험고요. 호호.(웃음))

101006 @ 게난 사발제 해나고. 그다음에 저 상엿제?(그러니까 사발제 험었고, 그다음에 저 상여제?)

101006 #2 상여, 상엿제도 험수게. 저 사람네 상엿제 허연.(상여, 상여제도 험습니다. 저 사람네 상여제 험어.)

101006 @ 영장허젠 허민.(영장하려고 하면.)

101006 #2 예, 예. 그거 허영.(예, 예. 그거 해서.)

101006 @ 상여 빌려주곡.(상여 빌려주고.)

101006 #2 예, 빌려쥬 돈 받곡. 그것도 잇엇수다, 이 동네, 예.(예, 빌려쥬서 돈 받고. 그것도 잇엇습니다, 이 동네, 예.)

101006 @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제 허면은?(그다음에 뭐 다른 거 게 하면은.)

101006 #2 옛날은 굴제도 잇엇수게. 여기 우리 동네, 굴덜 공동으로, 그 옹기같은 거.(옛날은 굴제도 잇엇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굴들 공동으로, 그 질그릇같은 거.)

101006 @ 아, 그거 굴제예?(아, 그거 굴제요?)

101006 #2 예, 굴제 영 혼 멧 사람이 동아리 허영 그거 만들앙 팔아근예, 또, 또 만들앙 팔고, 막.(예, 굴제 이렇게 한 멧 사람이 동아리 해서그거 만들어서 팔아서, 또. 또 만들어서 팔고, 마구.)

101006 @ 아, 난 오늘 처음으로 듣는 것이, 나도 다른 디도 막 돌아댕입니다마는 굴제 이신 거 처음 들엄수다게. 여긴 옹길 멩그난.(아, 난 오늘 처음으로 듣는 것이, 저도 다른 데도 마구 도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굴계 있는 거 처음 듣고 있습니다. 여긴 질그릇을 만드니까.)

101006 #2 예, 굴제.(예, 굴계.)

101006 #1 굴제허곡, 여기선 허주마는 거 절미저축 허는 거, 거 옛날그트민 새마을정신이 우리 동네가 최고 부지런헌 거라. 그렇게 허는 디가 어디 잇서? 세상에 쌀을 그렇게 헤 가지고, 그 정신이 거, 보통 정신으로 그렇게 나올 수 없어. 아, 경아니허짱? 예, 진짜라. 거 쌀 흐끔 거려냥, 그 정신이 진짜 거, 뭐, 박○○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름덜이라. 하하하.(웃음) 아, 그걸 자랑하고 싶어, 진짜. 거 절미저축 통을, 단지 닥게 멘들안, 멘들안, 우리 집에도 그거 저 보물로 가져가서, 저 그 절미통 헨에. 이거 보관허켄 허멍. 완전 그 무시거 동에서 완 가져간.(굴계하고, 여기선 하지만 거 절미저축 하는 거, 거 옛날 같으면 새마을 정신이 우리 동네가 최고 부지런한 거야.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쌀을 그렇게 헤 가지고, 그 정신이 그거, 보통 정신으로 그렇게 나올 수 없어. 아, 그렇게 안 합니까? 예, 진짜야. 거 쌀 조금 떠놔서, 그 정신이 진짜 거, 뭐, 박○○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야. 하하하.(웃음) 아, 그걸 자랑하고 싶어, 진짜. 거 절미저축 통을, 단지 닥게 만들었어, 만들었어, 우리 집에도 그거 저 보물로 가져가서, 저 그 절미통 해서. 이거 보관 하겠다고 하면서. 완전 그 무엇 동에서 와서 가져갔어.)

101007 @ 그다음에 이 마을엔 어떤 풍습들이 잇수가? 뭐 걸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그다음에 이 마을엔 어떤 풍습들이 잇습니까? 뭐 걸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101007 #1 그런 건 웃고, 그자 우리 마을 사름덜, 여기 마을이 적어노니까 모슬포 가 가지고 이런 난타, 소리패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 사름덜이 다 잘 허여. 거의 다 우리 동네 사름덜이라.(그런 건 없고, 그저 우리 마을 사람들, 여기 마을이 작으니까 모슬포 가 가지고 이런 난타, 소리패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잘 해. 거의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야.)

101007 @ 모슬포 강은에.(모슬포 가서.)

101007 #1 응, 난타 허는 사름덜도 거의가, 삼분에 이가 우리 동네 사름덜이고, 소리패허는 사름덜도 우리 두 가지 강 흐 멧 사름 떨어져 불엇주마는, 노래 잘허는 사름덜만 해.(난타 하는 사람들도 거의가, 삼분의 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소리패하는 사람들도 우리 두 가지 가서 한 멧 사람 떨어져 버렸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해.)

101008 @ 그다음 이 마을 특산물 어떤 것들이 잇수가?(그다음 이 마을 특산물 어떤 것들이 잇습니까?)

101008 #1 특산물은 게 뭐.(특산물은 게 뭐.)

101008 @ 옛날, 지금이야 다 밀감햐주마는예. 옛날 특산물 허면?(옛날, 지금이

야 다 밀감하고 있지만. 옛날 특산물 하면?)

101008 #1 여기 특산물은 엇엇고.(여기 특산물은 없엇고.)

101008 @ 무사 그 감저?(왜 그 고구마.)

101008 #1 에에, 감저 ㄴ튼 거.(에에, 고구마 같은 거.)

101008 @ 여기 주로 뭐 해냏수가?(여기 주로 뭐 했엇습니까?)

101008 #1 게, 감저뺏테기게. 고구마뺏테기. 그건 뭐 동네마다 이시난 뭐. 다 경헨 살아시난게.(게, 절간고구마. 절간고구마. 그건 뭐 동네마다 있으니까 뭐. 다 그렇게 해서 살았으니까.)

101008 @ 이던 마농 하영 허지양?(여기는 마늘 많이 하지요?)

101008 #1 여기 밧덜토 별로 엇언 마농덜 헐 사름이 싯주마는 하영 허질 안해.(여기 밧들토 별로 없어서 마늘들 할 사름이 있지만 많이 하질 안해.)

101008 @ 그 들에 보난 마농 하영 험선게.(그 들에 보니까 마늘 많이 하고 있던데.)

101008 #1 하영 행 저 모슬포 저쪽더렌 무슨 마농 다 흥염주마는, 밧이 엇어노니까.(많이 해서 저 모슬포 저쪽으로는 무슨 마늘 다 하고 있지만, 밧이 없으니까.)

101008 @ 안성으로 행 영 올라와뺏주마씨. 게난 이 저기 저쪽을 가면 밧덜토 엇으니까 하영 험주게, 우린 밧이 엇어. 미짱냥이나 엇지.(안성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뺏지만. 그러니까 이 저기 저쪽을 가면 밧들토 엇으니까 많이 하지요, 우린 밧이 없어. 밀감나무나 엇지.)

101008 @ 게난 거기 저 더덕 ㄴ튼 건 안 해냏수가?(그러니까 거기 저 더덕 같은 건 안 했엇습니까?)

101008 #1 에에, 건 저 산에 올라강.(에에, 건 저 산에 올라가서.)

101008 @ 거고, 모멸? 모멸도 안 해나고?(그리고, 메밀? 메밀도 안 했엇고?)

101008 #1 안 헨, 아니 헨. 여긴 먹을 걸로 모멸 쪼금 갈안 먹을 거나 해냏주.(안 했어, 아니 했어. 여긴 먹을 것으로 메밀 쪼금 갈아서 먹을 거나 했엇지.)

101008 @ 쿵?(쿵?)

101008 #1 게메, 쿵ㄴ튼 건, 먹을 거 쪼금씩, 장 담을 쿵, 먹을 거 해냏주.(글쎄, 쿵같은 건, 먹을 거 쪼금씩, 장 담글 쿵, 먹을 거 했엇지.)

101008 @ 아, 게난 미짱 허기 전이?(아, 그러니까 굴 하기 전에?)

101008 #1 전이 게메, 먹을 걸로 헛지, 그걸 팔지 안 헛지.(전에 글쎄, 먹을 것으로 헛지, 그걸 팔지 안 헛지.)

101008 @ 보리?(보리?)

101008 #1 에에.(에에.)

101008 @ 보리?(보리?)

101008 #1 거 양식이나 해냏주, 그걸 풀카부덴 생각도 못 허고. 게난 이제, 먹기 위헨, 살기 위헤ㄴ져 그거.(그거 양식이나 했엇지, 그걸 팔 수 있을까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거.)

101008 @ 도새기는 집집마다 질루와났고?(돼지는 집집마다 길렀었고?)

101008 #1 도새긴 어짜피 인분 치우젠 허난. 아니 경허고 보리 갈젠 허면은 그 거 걸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라게.(돼지는 어차피 인분 치우려고 하니까. 아니 그리고 보리 갈려고 하면은 그거 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1008 @ 거니까 어쨌든.(그러니까 어찌하든.)

101008 #1 어쨌든 도새긴 질뤄야 돼고, 쉼도 따시 그거 질루면은 밧디 강 밧을 갈젠 허면 어짜피 질루와야 돼.(어찌하든 돼지는 길러야 되고, 소도 다시 그거 기르 면은 밧에 가서 밧을 갈려고 하면 어차피 길러야 돼.)

101008 @ 집집마다 쉼 흔 무리허고 도새기 흔 무리는 질루와났다는 거 아니우 짜양?(집집마다 소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는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101008 #1 도새기는 거 기본이고, 건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로.(돼지는 거 기본이 고, 건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로.)

101009 @ 이 마을 자랑거리 시몬 흥번 곱아줍서.(이 마을 자랑거리 있으면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1009 #1 자랑할 게 무시겨 셔게.(자랑할 게 무엇 있어.)

101009 @ 자랑할 거 무사 노래도 잘 불른덴 허멍.(자랑할 거 왜 노래도 잘 부 른다고 하면서.)

101009 #1 노래 잘 부르는 아이덜 많이 있어. 가수나 돼어시몬 흥는 노래 잘 불 를 아이덜 잇수다.(노래 잘 부르는 아이들 많이 있어. 가수나 되었으면 하는 노래 잘 부르는 아이들 있습니다.)

101009 @ 건 뭐 대정읍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잇일 거 아니우짜? 구역리 허면 은.(건 뭐 대정읍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역리 하면은.)

101009 #1 이런 저 체육대회 할 때도 우리 동네 족아도 우리 대정읍 축구, 저 대정읍 체육대회 때 축구 일등 해서, 우리 동네가.(이런 저 체육대회 할 때도 우리 동네 작아도 우리 대정읍 축구, 저 대정읍 체육대회 때 축구 일등 했어, 우리 동네 가.)

101009 @ 젊은 사름덜이 하다는 거 아니우짜?(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 까?)

101009 #1 그때 당시는 오랫주마는. 부인덜토 ㄱ짜 막 끼어근에 다리 푸더지멍 도 헤신디, 게 오죽 게 단합이 좋아, 운동덜토 잘허고. 부인덜토 잘허주게. 하하하. (웃음) 막.(그때 당시는 오랬지만. 부인들도 같이 마구 끼어서 다리 넘어지면서도 했는데, 그래 오죽 게 단합이 좋아, 운동들도 잘하고. 부인들도 잘하지요.하하하.(웃 음) 막.)

101009 @ 마을 이름이 좋아, 구역, 경 허난 영어 마을도 생기고.(마을 이름이 좋아, 구역, 그렇게 하니까 영어 마을도 생기고.)

101009 #1 그 말은 맞수다.(그 말은 맞습니다.)

101009 @ 구역 다음은 저 어디 감직허여. 저 오조<sup>34</sup>.(구역 다음은 저 어디 갈

것 같아. 저 오조.)

101009 #1 에이, 오조린 그거.(에이, 오조리는 그거.)

101009 @ 오조, (웃음)하하하.(‘오조’, (웃음)하하하.)

101009 #1 건 억이라야주, 거 아니. 경이나 조는 안 돼, 억이라야 돼, 억이라야.  
(건 억이라야지, 거 아니. 경이나 조는 안 돼, 억이라야 돼, 억이라야.)

101009 @ 오조 다음에는 한경<sup>35</sup>.(오조 다음에는 한경.)

101009 #1 게난 조허고 경은 안 된다니까, 억을 억을 헤사 돼어.(그러니까 조하고 경은 안 된다니까, 억을 억을 해야 돼.)

101009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1009 #1 건 이 상상허지 못허는 걸 멘들 수가 엇어, 건 아니라. 여기 우리 마을 최고라, 최고. 게 십 억도 안 돼어. 딱 구역이 좋아. 십 억 허든 딱 막아져근에 돈 더 못 벌어. 그다음 십 억 십 억, 이십 억, 백 억. 십 억 허여 가정은 막아정 아 이 돼어. 구역이 최고.(건 이 상상하지 못하는 걸 만들 수가 없어, 건 아니라. 여기 우리 마을 최고야, 최고. 그래 십 억도 안 돼. 딱 구역이 좋아. 십 억 하면 딱 막아져서 돈 더 못 벌어. 그다음 십 억 십 억 십 억, 이십 억, 백 억. 십 억 해 가지고는 막아져서 아니 돼. 구역이 최고.)

101010 @ 그다음에양, 이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 더 허고 싶은 말이 이시민.(그 다음에요, 이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101010 #1 허고 싶은 말이 신 거는 우리 동네가 춤 선헌 동네라. 사삼사건에 내려완에 이제 저 원래 구역리는 큰 동네디 내려완 이젠 보성 간, 거 늬이 집이 간 살젠 허난 뒤 집을 빌려줘, 집 안 빌려주니까 그 췌 질루는 췌막 잇잔해, 췌막 ㄱ든 것도 아는 집, 것도 인연이 성 아는 디 가든 거 췌영 ㄱ찌 똥꼬냥으로 췌똥 췌 디 강, 거 춤곡 허난 어뎡 말이라. 그디 강 자명 밥행 떡곡, 거기서. 경 험 스삼사건 꺾 나 가지고 올라가젠 허니까, 무서완 못 올라간. 못 올라간, 게 사름인 한 선남밭<sup>36</sup> 디엔 아까 근지 아니 험, 이 동네 이. 거기 사름 혼 서너이, 요 폭낭 고지엔 뎡, 거의 혼 예슬곱 가구가 살아나신디, 아이 거난, 여기 임시 살당근에, 여기 사름 사니까. 이젠 이쪽은 가참고, 해벤이 가참고 웃 동네 좀 멀지 안헙니까. 그딘 폭도 잇을 때고 허니까 여기 살당 좀 안전허거들랑 올라가자 험 것이 올라가지 못허연. 경 험 수다. 경 험 뒤 돼니까 나 근는 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췌 동네가 엇어져불언, 거 인성도 경 험, 안성도 반, 구역리도 췌췌, 췌췌뎡기 안 돼어. 보성, 안성, 인성 쪽에 혼 삼분에, 사분에 삼은 안성 지경이라. 여기도 다 안성 지경이주마는. 게 보성 지경에도 췌주, 낭중은 번지가 제일 위라. 게 삼 개 믱을로, 게난 여기가 다 구역리엔 헤도 안 헤줘. 왜? 보성서 허락을 안 헤줘. 안성서 허락을 안 헤줘. 거든 이거 뒤 행정상으로 헤도 다 안 헤줘. 이거 군의원이여 도의원이여 헤 봤자 바짝 험 일이라, 이것덜. 게난 제일 서러운 것이 이걸, 이장이고 다 왕 헤 봐도 안 돼니까

34) ‘오조’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를 말한다.

35) ‘한경’은 제주시 한경면 전체 지역을 일컫는다.

36) ‘선남밭’은 대정읍 구역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이거를 게문 딱 측량해 가지고, 영 뒤흔 디만 도로, 도로명 수로 해 가지고 영 해근에 마을을 이름을 하자 허명도 지금도 안 댜 잇어. 그게 질 뒤흔 그제.(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는 우리 동네가 참 선한 동네야. 사삼사건에 내려와서 이제 저 원래 구역리는 큰 동네인데 내려와서 이젠 보성리 가서, 거 남의 집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뉘 집을 빌려줘, 집 안 빌려주니까 그 소 기르는 외양간 있잖아, 외양간 같은 것도 아는 집, 것도 인연이 있어서 아는 데 가면 거 소랑 같이 똥구멍으로 소똥 싼데 가서, 거 창고 하니까 어떻게 말이라. 거기 가서 자면서 밥해서 먹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사삼사건 끝나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간, 그거 사람이 많은 ‘선남뵤’이라고 아까 말하지 아니했어, 이 동네 이. 거기 사람 한 서너이, 요 팽나무 고지에는 땃, 거의 한 예닐곱 가구가 살았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임시 살다가, 여기 사람 사니까. 이젠 이쪽은 가깝고, 해변이 가깝고 윗 동넨 좀 멀지 안 합니까. 거기는 폭도 있을 때고 하니까 여기 살다가 좀 안전하 거들랑 올라가자 한 것이 올라가지 못했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뉘 되니까 내 말하는 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동네가 없어져버렸어, 거 인성리도 그렇게 했어, 안성리도 반, 구역리도 조금, 조금밖에 안 돼. 보성, 안성, 인성 쪽에 한 삼분의, 사분의 삼은 안성리 지경이야. 여기도 다 안성리 지경이지만. 게 보성리 지경에도 있지, 나중에는 번지가 제일 위야. 그거 삼 개 마을로, 그러니까 여기가 다 구역리라고 해도 안 해줘. 왜? 보성리서 허락을 안 해줘. 안성리서 허락을 안 해줘. 그러면 이거 뉘 행정상으로 해도 다 안 해줘. 이거 군의원이여 도의원이여 해 뵤자 바짝 헛일이야, 이것들. 그러니까 제일 서러운 것이 이걸, 이장이고 다 와서 해 봐도 안 되니까 이거를 그러면 딱 측량해 가지고, 이렇게 뉘 한 데만 도로, 도로명 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을 이름을 하자 하면서도 지금도 안 돼 잇어. 그제 제일 뉘야 그제.)

101010 @ 거난 지경은 경 많지 안 허구나, 구역리 지경이.(그러니까 지경은 그렇게 많지 안 하구나, 구역리 지경이.)

101010 #1 구역리 지경이 우리가 웃동네난 게. 구역리 지경이 서광리 지경이라, 구역리 지경이라, 서광서리라 반은.(구역리 지경이 우리가 윗동네니까 게. 구역리 지경이 서광리 지경이야, 구역리 지경이야, 서광서리 반은.)

101010 @ 영어 마을은 구역리 지경 아니우짜?(영어 마을은 구역리 지경 아넝니까?)

101010 #1 구역리 지경이주게. 거긴 구역 지경도 잇어. 하하.(웃음) 환장할 노릇.(구역리 지경이지요. 거긴 구역리 지경도 잇어. 하하.(웃음) 환장할 노릇.)

101010 @ 저디 청수<sup>37)</sup>.(저기 청수리.)

101010 #1 아 건, 거긴 연락 안 허고.(아 건, 거긴 연락 안 하고.)

101010 @ 청수도 상당이 가까운 디양?(청수리도 상당히 가까운 데요?)

101010 #1 맞주.(맞지.)

37) ‘청수’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를 말한다.

## 2. 제보자 일생

102001 @ 그다음에양, 우리 회장님도 말허곡 사모님도 말해야 헐 건디, 우선 회장님안티 물어보쿠다양. 그 낱고 자란 과정 그 혼번 말헤줍서.(그다음에요, 우리 회장님도 말하고 사모님도 말해야 할 것인데, 우선 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낱고 자란 과정 그 한번 말헤주십시오.)

102001 #1 낱고 자란 과정?(낱고 자란 과정?)

102001 @ 예, 예. 회장님이 어릴 때 낱고 자란 과정?(예, 예. 회장님이 어릴 때 낱고 자란 과정?)

102001 #1 거.(거.)

102001 @ 고생해실 건디.(고생했을 건데.)

102001 #1 나고 자란 것은 우리사 우리 어멍 아기 열두 갠<sup>38)</sup>가 몇 개 낱덴 헛고.(나고 자란 것은 우리야 우리 어머니 아기 열두 ‘갠’가 몇 ‘개’ 낱았다고 헛고.)

102001 @ 몇 식구마씨?(몇 식구지요?)

102001 #1 열둘. 열둘 난 지금 너 오누이 살단, 이제 성제뿐인디 큰 몇 명덜은 돌아가고 성제뿐인디, 다 돌아간. 게난 제일 몰명헌<sup>39)</sup> 것덜만, 하하하,(웃음) 게 살아신디, 겐디 우리 어멍이 그 당시 흑교를 다 보내서, 중학교영 고등학교영 보내신디. 돈은 상당이 셔나신지 살지 못허명도, 게 옷도 우리 어멍냥으로 무명으로 행은에 영 영 짜근에 그걸 영 옷 멘들양 또 물들영, 경 영 또 멘들양, 또 모자도 멘들메, 모자도 멘들양. 하하.(웃음)(열둘. 열둘 낱아서 지금 네 오누이 살다가, 이제 형제뿐인디 큰 몇 명들은 돌아가고 형제뿐인디, 다 돌아갔어. 그러니까 제일 ‘몰명한’ 것들만, 하하하,(웃음) 그래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학교를 다 보냈어,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보냈는데. 돈은 상당히 있었었는데 살지 못하면서도, 그래 옷도 우리 어머니대로 무명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짜서 그걸 이렇게 옷 만들어서 또 물들여서, 그렇게 이렇게 또 만들어서, 또 모자도 만들어요, 모자도 만들어서. 하하.(웃음))

102001 @ 직접 멘들양?(직접 만들어서.)

102001 #1 멘들양게. 뵈기 그 당시도, 판 디 강 허지도 아니허고, 게난 모자, 옷 다 멘들곡, 멘들곡 허여근에 입져 가믄, 학교 가믄 작산 아이덜은 그 당시 사지복덜 딱 입영 다녀, 창피허주만 어멍 헐 거라게. 흑교 텅이젠 허민, 물을 들여야 헐 거 아니, 무명이난. 거 무슨 검은물 들여야 헐 거 아니. 경 입언 텅여났어.(만들어셔요. 무엇같이 그 당시도, 다른 데 가서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자, 옷 다 만들고, 만들고 해서 입혀 가면, 학교 가면 나이 많은 아이들은 그 당시 셔지복들 딱

38) ‘개’는 아기를 세는 단위는 ‘명’인데, 제주도에서는 ‘개’를 쓰기도 한다.

39) ‘몰명헌다’는 사람이 용렬하거나 다기지지 못하다는 뜻이다.



입어서 다녀, 창피하지만 어떻게 할 거야. 학교 다니려고 하면, 물을 들여야 할 거 아니, 무명이니까. 거 무슨 검은물 들여야 할 거 아니. 그렇게 입어서 다녔었어.)

102001 @ 거난에 쪽 말해줍서.(그러니까 쪽 말해주십시오.)

102001 #1 경 허연에.(그렇게 해서.)

102001 @ 그다음에 이제 저 초등학교 가고.(그다음에 이제 저 초등학교 가고.)

102001 #1 경 험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경 가고, 게 우리 성내덜은 대정고등학교 다 나오고 나는 저 고등학교 갔주마는, 어릴 적에 공부 잘해났어, 이젠 멍청이주마는. 저 국민학교 데닐 때 난 쪽 우등상 타고 삼학년 때, 사오학년 때부터는, 중학교 댜난도 공부 그런대로 해서. 겐 중학교 삼학년 때, 저 무신거, 주산도 사급 따고, 겐 에 이젠 고등학교, 아버지가 고등학교 가렌 허난 대고 안 가쿠다 허난, 무사? 게문 어떻? 가지 말라게. 나 시에 가쿠다. 어디 시에 어디? 돈도 엇고 어떻 허연 같디? 허난, 야튼 가쿠다 경 허난에 게문 니 므음대로 허라, 게난에. 경 험 그 시험을 봐야 돼어, 그땐 뭐 오고고 상고고 놓고고 다 시험을 뵙 합격 돼어야 가는 거주,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돈 싣다고 해도 가지도 못허여. 게난 여튼 서림<sup>40)</sup> 아이 가이허고 둘리가 시험 뵓, 둘리가 합격했더라고, 게 갖어. 게 이젠 둘이가 간에 허난 합격통지서가 왔더라고, 게 통지서 와선게 이젠 아버지신디 이거 합격통지서 왔수다 허난 게문 보내사주 뭐. 역시 이 저 수재라나신게, 보내사주. 경 험 이제 가난 집이 부뜰 디가 셔? 저 먼 켜당, 저 어디 용담<sup>41)</sup>쪽 경 험 또 잇어, 하르방뵓, 아 그디 간 이제 들이천 내부니까, 에이고, 뭐 흥번 들이천 내부난게 뭐 쓸을 흥번 ㄴ져가나 뵓 허나 현 게 뵓, 교통도 불편현 때난게. 차 탕 가민 뵓 시간 걸려, 뵓 시간, 뵓 시간 걸려. 여기 또 모실포까지도 흥 시간 걸려. 흥 시간 걸림도 기사님도 기다리고 험주게. 시간도 기다리는 거 흥 시간, 가는 시간 흥 시간, 그디서 흥 시간 기다렘 뵓 시간 가야주. 그 시간이 흥루 헤흥 걸려. 경 험 가다근에 할망, 침 어멍 쉼장이나 장물 ㄴ뜰 거 ㄴ져강은에, 그땐 아스팔트 안 현 때난 와당탕허민 장 깨져볼어, 게민 소금에 밥 먹어야 뵓, 소금에. 간데기<sup>42)</sup> 그때 저 서문드리에 강 칩뵓리 헤 당 망데기 헤근에 불살르멍 허당, 헤도 게난 무신 흑교는 주간 다녀져게, 신문 저 이젠 들어 놓고 처음엔 신문 풀기 전인 그 술기, 술기 허영 머리, 뵓총 술기 뵓총 ㄴ뜰 거 헤근에 막 빗지꼭 불로 험 다리꼭 아, 영 헤근에 허난 막 굿데 가난 머리털 막 니가 바글바글이라. 니가 막 올라와. 경 앓앙 무시거 허문. 참 옛날은 옛날이주, 그 당시는. 경허고 저 뵓총 ㄴ뜰 거 도세기 털로 ㄴ뜰 거 막 풀지 안헤서게, 끈연에. 옛장시덜 다 받안에 풀민 그 뵓냐며는 싹 다려근에 질게 허영 싹 다려근에 걸 다 술 멘 들지 안험수가. 빗에 거 술도 멘들고 거 뵓 그런 거 멘들양은에 받아십주.(그렇게 해서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그렇게 가고, 그래 우리 형네들은 대정고등학교 다 나오고 나는 저 고등학교 갔지만, 어릴 적에 공부 잘했었어, 이젠 멍청이지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난 쪽 우등상 타고 삼학년 때, 사오학년 때부터는, 중학교 뵓어도 공

40) '서림'은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리를 말한다.

41) '용담'은 제주시 용담동을 말한다.

42) '간데기'는 제주시 용연 근처의 자연마을이다.

부 그런대로 했어. 그래서 중학교 삼학년 때, 저 무엇, 주산도 사급 따고, 그래서 이젠 고등학교, 아버지가 고등학교 가라고 하니까 대정고등학교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왜? 그러면 어떻게? 가지 말라. 저 시에 가겠습니다. 어디 시에 어디? 돈도 없고 어떻게 해서 갈디? 하니까, 아무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봐야 돼, 그땐 뭐 오고고 상고고 놓고고 다 시험을 봐서 합격 되어야 가는 거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돈 있다고 해도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튼 서림리 아이 그 아이 하고 둘이가 시험 봤어, 둘이가 합격했더라고, 그래 갔어. 그래 이젠 둘이가 간에 하니까 합격통지서가 왔더라고, 그래 통지서 와 있던데 아버지에게 이거 합격통지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보내야지 뭐. 역시 이 저 수재였었네, 보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니까 집에 붙을 데가 있어? 저 먼 권당, 저 어디 용담 쪽 그렇게 해서 또 있어, 할아버지뻘, 아 거기 가서 이제 들이쳐서 내버리니까, 에이고, 뭐 한번 들이쳐서 내버리니까요 뭐 쌀을 한번 가져가나 뭘 하나 한 게 뭐, 교통도 불편할 때니까요. 차 타서 가면 몇 시간 걸려, 몇 시간, 몇 시간 걸려. 여기 또 모슬포까지도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걸림도 기사님도 기다리고 하지요. 시간도 기다리는 거 한 시간, 가는 시간 한 시간, 거기서 한 시간 기다려서 몇 시간 가야지.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 그렇게 해서 가다가 할머니, 참 어머니 된장이나 장물같은 거 가져가서, 그땐 아스팔트 안 한 때니까 와당탕하면 장 깨져버려, 그러면 소금에 밥 먹어야 돼, 소금에. ‘간데기’ 그때 저 서문다리에 가서 툭뿌리 해다가 옹기 해서 불사르면서 하다가, 해도 그러니까 무슨 학교는 주간 다녀집니까, 신문 저 이젠 들어가 놓고 처음엔 신문 팔기 전에는 그 술기, 술기 해서 머리, 말총 술기 말총 같은 거 해서 마구 빗고 불로 해서 다리고 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주 끝에 가니까 머리털 막 이가 바글바글이야. 이가 마구 올라와. 그렇게 앉아서 무엇하면. 참 옛날은 옛날이지, 그 당시는. 그리고 저 말총 같은 거 돼지 털로 같은 거 마구 팔지 않았어요, 끊어서. 옛장수들 다 받아서 팔면 그 뭐냐 하면 짝 다려서 길게 해서 짝 다려서 걸 다 술 만들지 안 했습니까. 빗에 그거 술도 만들고 그거 뭐 그런 거 만들어서 받았지.)

102001 @ 예, 그것덜은 나중에 다 물어볼 거우다, 그거. 게고 우리 여자 삼촌 낳고 자란 과정?(예, 그것들은 나중에 다 물어볼 것입니다, 그거. 그리고 우리 여자 삼촌 낳고 자란 과정?)

102001 #2 예, 나는 막 서름게 난 사름이우다. 울 어머니 스물아홉에 홀어멍 들언예, 우리 친정어머니가 신평이우다게. 신평<sup>43)</sup>인디 대정읍 일등 부젓칩이라예, 우리 어머니가. 일등 부젓칩인디 스물아홉에 아기 서 오누이 나뉘에 남편은 돌아가셔부니까 이 지금은 장비가 좋아 갖고 트럭 차로 밧도 같고 헛주마는, 옛날엔 잠대혜영 장남으로 밧 같지 안 헛수가? 경 허단 보난 우리 외할아버지네 뭐 일등 부젓칩이니까 이제 장남을 데려가지고 옛날엔 살지 안헛니까. 장남을 데려 살단에 우리 웨삼촌이 우리 어머니안티 아이고, 누나, 이 아기덜 밥 맥영 살젠 허민 혼자 못 삼

43) ‘신평’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를 말한다.

니다, 혜영 삼촌 허멍 나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이제 엇제 준 생이라마씨. 계난 우리 어머니 날 하나 봉그니까 절대 우리 아버지하고 살질 못허커라렌 험디다 게, 하도 미운 정만 이성. 그레 헤 가지고 나를 하나 나신디 너무너무 나가예 서롭게 살아서마씨. 자 오빠네 애기덜 나민 메날 보렌 허고, 학교랑 둘체 문제고 메날 아기 보곡, 학교 다닐 시간이, 애기 보다가 보민 학교를 못 갔어마씨. 게른 울 어머니, 난 눈칫밥, 오빠덜 먹이지 말쟁예. 매날 오빠네 밧디 강 일 이틀허른 작은오빠네 강 일 이틀허곡 그렇게 허면서 너무너무 고생허면서 살단예. 어린 때 마음에예, 하나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헤 가지고, 어머니한테 나 육지 가쿠덴 허연, 그자 아무 뭇 엇이 육지 강은에예, 남의 집 간 식모살이 일 년을 헤 가지고, 일 년 살단예 거기 우리 웨사촌 오빠가 잇으니까 거길 찾아가난예 공장엘 붓저줍디다게. 공장엘 붓전에 공장일 허멍 몇 년 살단 열일곱에 들어오난, 또 그때도 계속 아이고, 이제난 허주 메날 밧디 강 일도 허고 쉼 맥이고 나 그렇게 허멍 살단 이 사름안티로 시집완에 오건디 열일곱에 가난 아무 디라도 시집강 살켄. 경허연 온 게 이추룩 잘 살아점수다. 호호호.(웃음)(예, 나는 아주 서럽게 난 사람입니다. 울 어머니 스물 아홉에 홀어머니 들어서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신평’입니다. 신평인데 대정읍 일등 부잣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일등 부잣집인데 스물아홉에 아기 세 오누이 낳아뒤서 남편은 돌아가셔버리니까 이 지금은 장비가 좋아 가지고 트럭 차로 밧도 같고 했지만은, 옛날엔 쟁기 해서 건강한 일꾼으로 밧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네 뭐 일등 부잣집이니까 이제 건강한 일꾼을 데려가지고 옛날엔 살지 않습니까? 건강한 일꾼을 데려서 살다가 우리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한테 아이고, 누나, 이 아기들 밥 먹혀서 살려고 하면 혼자 못 삽니다, 해서 살라고 하면서 나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이제 얻어 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날 하나 낳으니까 절대 우리 아버지하고 살질 못하겠다고 험디다, 너무나 미운 정만 있어서. 그리 헤 가지고 나를 하나 낳았는데 너무너무 내가요 서럽게 살았어요. 자 오빠네 아기들 낳으면 맨날 보라고 하고, 학교랑 둘체 문제고 맨날 아기 보고, 학교 다닐 시간이, 아기 보다가 보면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난 눈칫밥, 오빠들 먹이지 말려고요. 맨날 오빠네 밧에 가서 일 이틀 하면 작은오빠네 가서 일 이틀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살다가요. 어릴 때 마음에요, 하나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헤 가지고, 어머니한테 나 육지 가겠다고 해서, 그저 아무 뭇 없이 육지 가서요, 남의 집 가서 식모살이 일 년을 헤 가지고, 일 년 살다가 거기 우리 외사촌 오빠가 잇으니까 거길 찾아가니까 공장엘 취직해줍디다. 공장엘 취직해서 공장일 하면서 몇 년 살다가 열일곱에 들어오니까, 또 그때도 계속 아이고, 이제니까 하지 맨날 밧에 가서 일도 하고 소 먹이고 나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이 사람한테로 시집와서 온지 열일곱에 가니까 아무 데라도 시집가서 살겠다고. 그래서 온 게 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호호호.(웃음))

102001 @ 학교는 어떻?(학교는 어떻게?)

102001 #2 학교는 졸업을 헤졌수가게. 아기업게, 아기 보당 보민 비 오당은에

뭐 허민 아주머니네가 일 못 가면, 애기 보면 난 또 우리 어머니가예 오빠덜 눈칫밥 멕이지 말젠 오빠네 집이 일 이틀 허민 이 오빠네 집이 강 일 이틀허고 허명예. 그렇게 나를 경 못 견디게, 경 설움을 경 흡디다게. 경흐난 시집이라도 빨리 가야 나 이 진역살이를 벗어나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겟다 허연예, 이 사름 중매 와서난 예 사름도 안 보고 무조건 시집가켄 해서마씨. 아마 때라도 나가 무조건 시집강 나 악착ㄱ치 살아야 나가 이런 설움을 안 받쳐서 살지 허연 현 게 이추룩 잘 살아점수다.호호호. (웃음)(학교는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업저지, 아기 보다가 보면 비오다가 뭐 하면 아주머니네가 일 못 가면, 아기 보면 난 또 우리 어머니가요 오빠들 눈칫밥 먹이지 말려고 오빠네 집에 일 이틀 하면 이 오빠네 집에 가서 일 이틀 하고 하면서요. 그렇게 나를 그렇게 그렇게 못 견디게, 그렇게 설움을 그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시집이라도 빨리 가야 나 이 징역살이를 벗어나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겟다 해서요, 이 사람 중매 왔으니까 사람도 안 보고 무조건 시집가겟다고 했어요. 아마 때라도 내가 무조건 시집가서 나 악착같이 살아야 내가 이런 설움을 안 받쳐서 살지 해서 한 것이 이처럼 잘살고 있습니다. 호호호.(웃음))

102001 #1 이 거짓말 험수다.(이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102001 @ 하하하.(웃음) 여기 보난 정확허게 말허는 거우다게. 하하하.(웃음) 여기 보니까 정확허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하하.(웃음))

102001 #1 나신디 반헨 와둬서로.(나에게 반해서 왔으면서.)

102001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2001 #2 호호호.(웃음) 그추룩 헛다고.(호호호.(웃음) 그처럼 헛다고.)

102001 @ 그추룩 험양, 허당 보민. 하하하.(웃음)(그처럼 해서요, 하다가 보면. 하하하.(웃음))

102001 #1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2001 @ 거에 막 찝는 집도 잇수다.(거에 마구 싸우는 집도 있습니다.)

102001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2002 @ 그다음에양 우리 저 회장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헛수가?(그다음에요 우리 저 회장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헛습니까?)

102002 #1 농사. 농사를 우리 아버지넨 이 부제 아덜이라. 막 순진헨 욱허지 안 허는 하르방. 겐디 그 대신 완전 박사나 마찬가지로. 이런 옛날에 이젠 치과에서 다 험주마는, 치과 엇어나난 동네 할망 하르방 이빨 아팡 아이고, 아이고 허명 허는디 우리 아버지는 옛날 일제시대 때 뺨찌.(농사. 농사를 우리 아버지네는 이 부자 아들이야. 아주 순진해서 욱하지 앓는 할아버지. 그런데 그 대신 완전 박사나 마찬가지로. 이런 옛날에 이젠 치과에서 다 하고 있지만, 치과 없었으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아파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 펜치.)

102002 @ 야매로 헛구나, 야매로.(뒤틀거래로 헛구나, 뒤틀거래로.)

102002 #1 야매로 험 뭐 돈도 안 받았 허여. 그냥 강 막 울멍 허민 우리 아버지넨

손재주가 좋니까, 게 담배 혼 갑 2정 와. 영 앞더레 툭 맥임이 좋주게. 아, 아, 2만 헝서양, 2만 헝서예 허믈 딱 잡았던 거, 2만 헝서양 헝 탁허민 그냥 이 어금니가 팍팍 빠. 이거 병원장도 못 빠. 이런 니빨은 빠는디 어금니빨은 못 빠. 와, 손메가 엄청 센 사름이라, 우리 부친. 옛날 거 밧 가는디 오리목<sup>44)</sup>이엔 현 거 있어. 오리목 저 무시거 저 무신 줄, 그거 때면은 그거 저 끊지 못 허주게. 우리 아버진 그거 손 딱딱 쁘은에 싹 폐왕 구짜허게, 손맥이 좋았주게. 난 그거 반에 반도 못허여. 하하하.(웃음)(뒷거래로 해서 돈도 안 받아서 해. 그냥 가서 마냥 울면서 하면 우리 아버진 손재주가 좋으니까, 그래 담배 한 갑 가져서 와. 이렇게 앞으로 툭 맥임이 좋지요. 아, 아, 가만히 하십시오, 가만히 하십시오 하면 딱 잡았던 거, 가만히 하십시오 해서 탁하면 이 어금니가 팍팍 빠. 이거 병원장도 못 빠. 이런 이는 빠는디 어금니는 못 빠. 와, 손의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야, 우리 부친 옛날 거 밧 가는데 ‘오리목’이라고 한 거 있어. ‘오리목’ 저 무엇 저 무슨 줄, 그거 때면은 그거 저 끊지 못하지요. 우리 아버진 손 딱딱 꺾서 싹 펴서 곧장하게, 손의 힘이 좋았지요. 난 그거 반에 반도 못해. 하하하.(웃음))

102003 @ 그다음에 어머니 고향 어디우파?(그다음에 어머니는 어디입니까?)

102003 #1 어머니? 어머니 구역리.(어머니? 어머니 구역리.)

102003 @ 아, 구역리.(아, 구역리.)

102003 #1 구역리디 우리 어머니 삼형제난 아덜 엇어노난 딸만 시성제 아덜 양제 들안에 헤 노난 고생 고생허멍 뭐 침 양제를 헤 노난 밧만 다 풀아 먹으멍 저 청수<sup>45)</sup> 사름 헤단 번쩍 놉 허연에 재산 다 맥연 설러불엇주마는, 게 우리 어머니. 큰딸은 또 저 큰이모가 저 인천, 인천 사름이라. 벳사름인디, 우리 큰이모부가 완전 난봉이주게. 큰이모가 그 당시에 남자복 입은은에 강 그 인천을 왔다 갔다 헤낫수다. 경 뵈사 헤나신디. 게단 그 시아방안티 걸련에, 우리 이모 시아방안티 걸련에 데려 간 딱 묵어에 아덜 그 부러먹은 거라. 아, 게난 그 양반이 또 욕심이 세기를 우리 웨할머니 \*\*\*\* 그 양반이 헤낫수다게, 우리 큰이모가. 겐 우리 웨할망넨 우리 족은딸이니까 거의 다 우리 집이 완 살멍 헤신디, 경헤도 밧 하나 주고, 삼형제 중 하난 일본 간 딸도 밧 두 개 주고, 그런 건 문딱 큰딸 쥐불엇주. 하하하.(웃음) 그 육지 사름, 인천 사름안티.(구역리인데 우리 어머니 삼형제니까 아들 없어 놓으니까 딸만 삼형제 아들 양자 데려서 헤 놓으니까 고생 고생하면서 뭐 참 양자를 헤 놓으니까 밧만 다 팔아먹으멍 저 청수리 사름 헤다가 아무것도 없는 놉 해서 재산 다 먹여서 끝내버렸지만, 그래 우리 어머니. 큰딸은 또 큰이모가 저 인천, 인천 사람이야. 벳사름인데, 우리 큰이모부가 완전 난봉이지요. 큰이모가 그 당시에 남자복 입어서 가서 그 인천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뭐야 했었는지. 그러다가 그 시아버지한테 걸려서, 우리 이모 시아버지한테 걸려서 데려가서 딱 묵어서 아들 그 부러먹은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양반이 또 욕심이 세기를 우리 웨할머니 \*\*\*\* 그

44) ‘오리목’은 붓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걸어매는 줄이다.

45) ‘청수’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를 말한다.

양반이 했었습니다, 우리 큰이모가.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넨 우린 작은딸이니까 거의 따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했는데, 그래도 밭 하나 주고, 삼형제 중 하난 일본 간 딸도 밭 두 개 주고, 그런 건 모두 큰딸 줘버렸지. 하하하.(웃음) 그 육지 사람, 인천 사람한테.)

102004 @ 다음에 저 여자 삼촌한테 물어보쿠다양. 어릴 때 어떤 놀이허멍 컷수가?(다음에 저 여자 삼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어떤 놀이하면서 컷습니까?)

102004 #2 우리 어릴 땐예, 이제 그 말허든 알카마씨. 방칠락이엔 현 거 잇엇수다, 방칠락. 호호호.(웃음)(우리 어릴 땐요, 이제 그 말하면 알겠어요. 사방치기라고 한 거 잇엇습니다, 사방치기. 호호호.(웃음))

102004 @ 방칠락?(사방치기?)

102004 #2 방칠락, 저런 옹기 깨진 거 가튼 거 허영근에 이렇게 돌멩이로 헤 가지고 영 그러 가지고 방칠락헛고, 또 공, 공놀이.(사방치기, 저런 옹기 깨진 거 같은 거 하여서 이렇게 돌멩이로 헤 가지고 이렇게 그러 가지고 사방치기헛고, 또 공, 공놀이.)

102004 @ 공? 그때 공 잇엇수가?(공?, 그때 공 잇엇습니까?)

102004 #2 예, 공이 잇엇수다, 공놀이를.(예, 공이 잇엇습니다, 공놀이를.)

102004 @ 옛날에 거 오줌푸게로 정도벧긴 뉘.(옛날에 거 오줌보로 정도밖엔 뉘.)

102004 #2 아니우다. 우리 어릴 때도 공이 잇어가지고예, 공놀이헛고, 또 고무줄, 고무줄도 잇고, 오자미 그저.(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도 공이 잇어서요, 공놀이헛고, 또 고무줄, 고무줄도 잇고, 오자미 그저.)

102004 @ 오자미?(오자미?)

102004 #2 오자미, 그거하고. 우리 고무줄도 허곡, 스뵈 우리 어린 땐예 깡도르<sup>46</sup>)도 허고.(오자미, 그거하고, 우리 고무줄도 하고, 사뵈 우리 어린 땐엔 ‘깡도르’도 하고.)

102004 @ 깡도르?(‘깡도르’?)

102004 #2 예, 깡에 저 돌멩이 담양 멜라가지고 그거 숨어근에 그거 탁탁탁 허든 숨으런 허영 허곡.(예, 깡통에 저 돌멩이 담아서 찌그러뜨려서 그거 숨어서 그거 탁탁탁하면 숨으라고 해서 하고.)

102004 @ 깡, 깡도르엔 헛니까?(깡, ‘깡도르’라고 헛니까?)

102004 #2 예, 그것도 헛나고예.(예, 그것도 헛엇고요.)

102004 @ 깡도르는 처음 들어봡수다.(‘깡도르’는 처음 들어보고 잇습니다.)

102004 #1 게고 그때 당시에 난 걸 아는디, 그거 찢뵈이<sup>47</sup>), 막을락<sup>48</sup>).(그리고 그때 당시에 난 걸 아는데, 그거 ‘찢뵈이’, ‘막을락’.)

102004 @ 찢뵈이?(‘찢뵈이’?)

46) ‘깡도르’는 깡통 속에 돌멩이를 담아서 소리 나게 하여 숨바꼭질하던 놀이로 볼 수 있다.

47) ‘찢뵈이’는 제보자에 따르면 달리기하며 노는 놀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48) ‘막을락’은 금을 그어서 상대방이 금을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놀이이다.

102004 #1 찢똥이, 막을락, 뽕뽕달락<sup>49)</sup>, 거 옛날 뽕뽕달락은 연애하기 좋은 때라.('찢똥이', '막을락', '뽕뽕달락', 거 옛날 '뽕뽕달락'은 연애하기 좋은 때야.)

102004 @ 뽕뽕달락은 어떻 허는 겨우파?('뽕뽕달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2004 #1 뽕뽕달락은 이 저 무신거 똥 심취가지고 영 앓양은에 영 푹푹 가명 눕는거라게. 영 숨키는 거라. 누게신디 숨켜시니 행 그거 좇는 거라, 좇는 거. 게민 거 장난 좋아허는 남자덜은 하하, 푹푹 찢렘져 허명, 경 허영 그냥 녹지곡. 그런 게 별헌 거예.('뽕뽕달락'은 이 저 무엇 똥 힘취져 이렇게 앓아서 이렇게 푹푹 가면서 눕는 거야. 이렇게 숨키는 거야. 누구에게 숨켰나 해서 그거 좇는 거야, 좇는 거. 그러면 거 장난 좋아하는 남자들은 하하, 푹푹 찢르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눕히고 그런 게 별난 거지요.)

102004 @ 찢똥이는 어떻 허는 거라, 찢똥이?('찢똥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찢똥이'?)

102004 #1 찢똥이? 거 달음작허는 거. 들음작허는 거.('찢똥이'? 거 달리기하는 거, 달리기하는 거.)

102004 @ 들음박? 찢똥인 들음박허는 겨우파?(달리기? '찢똥이'는 달리기하는 것입니까?)

102004 #1 예, 막을락이엔 헌 건 영 금 그영 뇌똥은에, 여기 영 금 그리곡 행 영 사근에 일로 영 넘어가는 거라. 이 저 한쪽더렌 넘어오는 사름, 또 한쪽 편은 막는 사름, 겐 못 막으민 이젠 이기는 거고, 막으민 그 사름도 푹ㄴ치 바짱은에 허고. 저 요깃 아기 잘 막질 아이 헛주게. 여자주, 여자가. 깡딱 몰란, 깡딱 몰란. 게난 이젠 똥 흘 게 잇어게? 못치기 ㄴ튼 거, 또 대치기.(예, '막을락'이라고 한 건 이렇게 금 그어서 뇌똥서, 여기 이렇게 금 그리고 해서 이렇게 서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 저 한쪽으론 넘어오는 사람, 또 한쪽 편은 막는 사람, 그래서 못 막으면 이젠 이기는 거고, 막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바뀌서 하고. 저 요기 아기 잘 막질 안 했지요. 여자지, 여자가. 까딱 몰라서, 까딱 몰라서. 그러니까 이젠 똥 할 게 잇어요? 못치기 같은 거, 대치기.)

102005 @ 거민양, 여자 삼촌님, 일제 강점기 때 공출헤낫잔허파?(그러면요, 여자 삼촌님 일제 강점기 때 공출했었지 않습니까?)

102005 #2 공출, 공출헤난 거는예, 잘 모르고예, 나 난 삼일만에 그 옛날 무슨 걸 헤 가지고예, 우리 어머니 굴속에 간에 곱안에 나 막 울어가난 숨으로 입 막구렌 험디다. 게난 나 큰 후젠 공출 ㄴ튼 건, 나 그건 몰라마씨. 공출을 옛날 그 솔또롱 타가지고.(공출, 공출했던 거는요, 잘 모르고요, 나 낱아서 삼일만에 그 옛날 무슨 걸 헤 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굴속에 가서 숨어서 나 마구 울어가니까 숨으로 입 막았다고 험디다. 그러니까 나 큰 후에는 공출 같은 건, 나 그건 몰라요, 공출을 옛날 그 솔방울 따서.)

102005 @ 솔또롱?(솔방울?)

49) '뽕뽕달락'은 숨긴 물건을 찾는 놀이이다.

102005 #2 예, 솔또롱 타가지고, 소나무 그 열매.(예, 솔방울 따서, 소나무 그 열매.)

102005 @ 솔똥?(솔방울?)

102005 #2 예, 솔또롱.(예, ‘솔또롱’.)

102005 @ 솔또롱이엔 험니까?(‘솔또롱’이라고 합니까?)

102005 #2 예, 그거 타가지고 시 공출해난 건 생각이 нама씨. 그거 어머니가 강바구리에 탕 오랜 허민, 탕 오민.(예, 그거 따서 시 공출했던 건 생각이 나요. 그거 어머니가 가서 바구니에 따서 오라고 하면, 따서 오면.)

102005 @ 아, 솔똥도 공출해났구나.(아, 솔방울도 공출했었구나.)

102005 #2 예, 그거허고 또 테 잇잔허파? 테.(예, 그거하고 또 떼 잇지 않습니까? 떼.)

102005 @ 테역.(떼.)

102005 #2 테역, 테역씨, 그것도 강은에 우리 어머니 강 뽑아오렌 허민 강 앞양은에 뽑아왕 그것도 공출해난 거 그거 생각은 납니다.(떼, 떼씨, 그것도 가서 우리 어머니 가서 뽑아오라고 하면 가서 앉아서 뽑아와서 그것도 공출했던 거 그거 생각은 납니다.)

102005 @ 낭, 낭 ㄱ튼 건 공출 안해났수가?(나무, 나무 같은 건 공출 않았었습니까?)

102005 #2 낭 가튼 것도 나 물야기<sup>50)</sup> 뎨 우리 어머니 공출허구렌 험디다마는, 나 큰 후젠 낭허여당 풀레 우리 어머니 모슬포 자꾸 전 갑디다게.(나무 같은 것도 나 ‘물야기’ 뎨 우리 공출하였다고 험디다만 나 큰 후에는 나무해다가 팔러 우리 어머니 모슬포 자꾸 저서 갑디다.)

102005 @ 저 쌀 ㄱ튼 건?(저 쌀 같은 건?)

102005 #2 쌀 ㄱ튼 건게, 보리 갈양 먹곡, 또 제사 때 헤먹젠 허민게 이제 참가마니로 사당 먹엄주마는, 제삿밥 행 먹젠 허민 모슬포 강 곤쌀을 사당은에 제삿밥 ㄱ튼 거 허연 먹어십주게.(쌀 같은 건요, 보리 갈아서 먹고, 또 제사 때 차리려고 하면요 이제 참가마니로 사다가 먹고 있지만, 제삿밥 차리서 먹으려고 하면 모슬포 가서 흰쌀을 사다가 제삿밥 같은 거 해서 먹었습지요.)

102005 @ 아, 계난 공출은 안 해납니까?(아, 그러니까 공출은 안 했었습니까?)

102005 #2 그런 거, 그런 건, 나.(그런 거, 그런 건, 나.)

102005 @ 보리쌀이라든가?(보리쌀이라든가?)

102005 #2 나 큰 후젠 그런 공출헌 거는 모르고, 저 무슨 거 동네에서, 나라에서 우유, 우유 배급 탄 먹어난 건 기억이 납니다.(나 큰 후에는 그런 공출한 거는 모르고, 저 무슨 거 동네에서, 나라에서 우유, 우유 배급 타서 먹었던 건 기억이 납니다.)

102005 @ 그건 미국에서?(그건 미국에서?)

50) ‘물야기’는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굳지 않은 아이.



102005 #2 예, 미국에서 완에 그 저 이렇게 반 단위로 해 가지고예. 그건 허연 먹어난 거 생각납니다.(예, 미국에서 와서 그 저 이렇게 반 단위로 해 가지고요. 그 건 해서 먹었던 거 생각합니다.)

102006 @ 사삼사건에 대허영은에 흐끔 곁아줍서.(사삼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십시오.)

102006 #2 사삼사건 때는 나가 아까 말허지 안 험디가? 우리 어멍 나 난 삼일만에 사삼사건이 터지니까 사흘만에 나 난 그 신평 곁이엔 허는 디가 잇수다, 곁. 그 속에 간에 곁안에 하도 울어가가난 나로 해서 동네 사름덜 다 죽으카부덴 숨으로 입 막고렌 헤디다. 그거는 우리 어머니가 곁안 알고예.(사삼사건 때는 내가 아까 말하지 안 험디가? 우리 어머니 나 낱아서 삼일만에 사삼사건이 터지니까 사흘만에 나 낱아서 그 ‘신평’ 곁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곁. 그 속에 가서 숨어서 하도 울어 가가니까 나로 해서 동네 사람들 다 죽을까 싶어서 숨으로 입 막았다고 했습디다. 그건 우리 어머니가 말해서 알고요.)

102006 @ 회장님, 저 사삼사건에 대허영 흐끔 곁아줍서.(회장님, 저 사삼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십시오.)

102006 #1 나 막 어릴 때난 알아져게. 니 슬 때 소개해나시난.(나 아주 어릴 때니까 알 수 있어. 네 살 때 소개했었으니까.)

102006 @ 아, 게, 들은 말이라도게. 사삼사건, 이 동네 사삼사건.(아, 그럼, 들은 말이라도요. 사삼사건, 이 동네 사삼사건.)

102006 #1 아, 게난 우리 7쁜 건, 니 슬 때라부난 모르는데 어른덜티 들으민게, 그때 막 밤인 폭도엔 행, 다 여기 사름덜이주게. 올라간 산사름덜 왕 쓸 내노렌 허멍 두드러 타작허멍 늠덜 막 심어가멍 허민, 짝 거제 심어가곡, 낮인 또 군인덜 올라왕은에 이놈이 폭도 새끼덜 죽이켤 허른 곁망 살곡, 경 헤낫주. 게른 우리 부친도 보면은 옛날 쉼막 지어나난, 그 쉼, 돌에 코<sup>51)</sup> 영 멘들양은에, 큰 돌로 행으네. 거낭에도 멧주마는, 돌에도 죽지 못허게 행으네 그레 메엇주게. 우리 아버지진 그 돌 영 치완에 땅 판, 땅 판에 저 사름 앓을 만큼 멘들안, 아, 경 허당 불낭은에 허른, 우리 아버지 죽을 뻔 헤낫주게. 경 헤근에 우리 어머니 밤이 밥 곁당 맥이고.(아, 그러니까 우리같은 건, 네 살 때니까 모르는데 어른들한테 들으면요, 그때 마구 밤에는 폭도라고 해서, 다 여기 사람들이지요. 올라가서 사사람들 와서 쌀 내놓으라고 하면서 두드러 타작하면서 남들 마구 잡아가면서 하면, 짝 거의 잡아가고, 낮에는 또 군인들 올라와서 이놈의 폭도 새끼들 죽이겠다고 하면 숨어서 살고, 그렇게 했었지. 그러면 우리 부친도 보면 옛날 외양간 지었었으니까, 그 소, 돌에 ‘코’ 이렇게 만들어서, 큰 돌로 해서, 거 나무에도 매었지만, 돌에도 죽지 못허게 해서 그리 매었지요. 우리 아버지진 그 돌 이렇게 치워서 땅 파서, 땅 파서 저 사람 앓을 만큼 만들어서, 아, 그렇게 하다가 불나서 하면, 우리 아버지 죽을 뻔 했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밤에 밥 갖다가 먹이고.)

51) ‘코’는 밧줄을 둥글게 둘러서 고를 만든 것이다.

102006 @ 어디서 경 헤냏수가?(어디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102006 #1 상돏동<sup>52)</sup>에서. 거긴 저 쉼막, 쉼막.(‘상돏동’에서. 거긴 저 외양간, 외양간.)

102006 @ 아, 쉼막에서.(아, 외양간에서.)

102006 #1 쉼 질루는 디서. 거 사름덜 가민 거 쉼막에 사름 살카부덴 허여게. 아, 게, 그 소굽에 들어가민 사름 살카부덴 허여. 우리 아부진 머리가 좋아났어. 그 땅 파근에 거기 들어가 낱. 그 돌 톱 더경은에양. 게 어머니 그디 강 밤이 몰래 밥 굿당 주곡, 경 험 살아십주. 그런 말이 이서.(소 기르는 데서. 거 사람들 가면 거 외양간에 거 외양간에 사람 살까 싶어서 해. 아, 그래,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 살까 싶어서 해.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좋았었어. 그 당 파서 거기 들어가 놓아서. 그 돌 톱 덮어서요. 그럼 어머니는 거기 가서 밤에 몰래 밥 갖다가 주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지요. 그런 말이 있어.)

102006 @ 계난 나도 저 어디 동광<sup>53)</sup> 조사헤냏수다게. 거기 저 삼밭동네<sup>54)</sup>.(그러니까 나도 저 어디 동광리 조사했었습니다. 거기 저 ‘삼밭동네’.)

102006 #1 삼밭동네?(‘삼밭동네’?)

102006 @ 삼밭동네 거기서, 지금 저 조사한 사름이 저 해설사 험수다마는. 흥○ ○, 아 갑자기 일름 잊어불엇져, 해설사 허는. 육커리에 아덜이 그 저.(‘삼밭동네’ 거기서, 지금 저 조사한 사름이 저 해설사 하고 있습니다만. 흥○○, 아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어, 해설사 하는. 육커리에 아들이 그 저.)

102006 #1 아, 주유소.(아, 주유소.)

102006 @ 하우스 허는.(하우스 하는.)

102006 #1 하우스?(하우스?)

102006 @ 이젠 보난에 아파트도 짓어선게마는.(이젠 보니까 아파트도 지어 있었지만.)

102006 #1 누젠고?(누구인가?)

102006 @ 흥○○, 저 흥○○, 흥○○씨 같네, 거난에 여기서 사삼 때 죽은 사름도 하지양?(흥○○, 저 흥○○, 흥○○씨 같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삼 때 죽은 사름도 많지요?)

102006 #1 하주게. 우리 육춘 형님도 그 저, 라이타, 근무혈 때 ○○이엔 허는 우리 죽은아방. 라이타 강 빌영오렌 허난 라이타 빌레 가단 저 순경이영 와 가난 쏘아불카부덴 겁난, 아, 겐 도망가가난 순경이 그뎨 폭도새끼카부덴 빵 길겨불언. 겐 죽엇주, 열아흠에. 게도 이제 아덜 하나 이서, 살앗주마는.(많지요. 우리 육춘 형님도 그저, 라이터, 근무할 때 ○○이라고 하는 우리 작은아버지. 라이터 가서 빌려 오라고 하니까 라이터 빌리러 가다가 저 순경이랑 와 가니까 쏘아버릴까 싶어서 겁나서, 아, 그래서 도망가 가니까 순경이 그뎨 폭도일까 싶어서 빵 갈겨버렸어. 그래

52) ‘상돏동’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에 있는 지경이다.

53) ‘동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를 말한다.

54) ‘삼밭동네’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서 죽었지, 열아홉에. 그래도 이제 아들 하나 있어, 살았지만.)

102006 @ 사삼사건 때 그, 유복자우파?(사삼사건 때 그, 유복자입니까?)

102006 #1 어?(어?)

102006 @ 유복자?(유복자?)

102006 #2 유복자가 맞주.(유복자가 맞지.)

102006 @ 아, 계도 대 이어 감구나예.(아, 그래도 대 이어 가고 있구나.)

102006 #1 대 이언. 계도 열아홉 살에 장계간, 빨리 가난.(대 이어서. 그래도 열아홉 살에 장가가서, 빨리 가니까.)

102006 @ 계난 여기 저 동네 소개돼지 안 헛수가?(그러니까 저 동네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102006 #1 어디?(어디?)

102006 @ 이 구역리, 옛날 사삼사건 때.(이 구역리, 옛날 사삼사건 때.)

102006 #1 아, 계, 소개해놔주게, 소개헐 내려완.(아, 그럼, 소개했었지요, 소개해서 내려와서.)

102006 @ 웃동네서?(웃동네서.)

102006 #1 겐 알동네, 폭낭굴 이신 동네, 집 몇 가구 엇인 디, 이디 완 살게 뵈겨주.(그래서 아랫동네, 팽나무굴 있는 동네, 집 몇 가구 없는 데, 여기 와서 살게 뵈 거지.)

102006 @ 계난 여기도 피해가 핫구나?(그러니까 여기도 피해가 많았구나?)

102006 #1 하이고, 저 우리 집이 옛날 벌 질와났수다, 벌. 꾸울. 거 벌통을 헐 중간에 옛날 벌이, 꿀이야게 설탕도 엇고 허난, 완전히 제라한 꿀이주게. 계난 그거를 이젠 가져가젠 허난 울 어머니가 우영팻디 간에 흑 판, 향아리에. 거 아마 이추룩 흔 향아리에 헐에 꿀 흔 단지 헐에 간 묻은 모양이라. 계난 거 묻으난에 그걸 가져와져게, 므스완. 겐디 울 어멍 베짱 좋긴 좋아. 이모도 경 헛젠 헐게마는, 어멍이 베짱 좋기는 좋아난 모양이라. 거 걸언 완에 그거 전, 그거 완 가전, 그거 완 가전, 전 간 그거 풀안에 밥, 저 쓸 사명 먹언. 그거 경 헛젠 허더라고. 우리 어멍은 대단헌 어멍이라. 남즈덜토 므스왕 못 가는디 이녁 혼자만 갔다 완에, 전 간. 이녁 묻은 거 알아지난에. 계 그거 풀안, 먹젠 허난 어멍게. 살쟁 허민 기가 막힌 일도 다 해야지 뭐.(아이고, 저 우리 집에 옛날 벌 길렀었습니다, 벌. 꿀. 거 벌통을 해서 중간에 옛날 벌이, 꿀이야게 설탕도 없고 하니까, 완전히 제라한 꿀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젠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텃밭에 가서 흙 파서, 향아리에. 거 아마 이처럼 한 향아리에 해서 가서 꿀 한 단지 해서 가서 묻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거 묻으니까 그걸 가져올 수 있어,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 뚝심 좋긴 좋아. 이모도 그렇게 했다고 했었지만, 어머니가 뚝심 좋기는 좋았던 모양이야. 거 걸어서 와서 그거 쳐서, 그거 와서 가져서, 그거 와서 가져서, 쳐서 가서 팔아서 밥, 쌀 사면서 먹었어. 그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어머니야. 남자들도 뒤편서 못 가는데 이녁 혼자만 갔다 와서, 쳐서 가서. 이녁 묻은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래 그거 팔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살려고 하면 기가 막힌 일도 다 해야지 뭐.)

102007 @ 그다음에 결혼 이야기 말할 건디, 중매 결혼했수강? 연애 결혼했수강?(그다음에 결혼 이야기 말할 것인데 중매 결혼했습니까? 연애 결혼했습니까?)

102007 #2 중매 결혼했수게.(중매 결혼했습니다.)

102007 #1 연애 결혼해신디 거 마치 못헐 주문을 보냈주게.(연애 결혼했는데 거 마치 못해서 주문을 보냈지요.)

102007 @ 계난 어떻 만남디강?(그러니까 어떻게 만남디까?)

102007 #1 에이고, 그 우리 동네서 무신 연극인가, 우린 그 당시 뭘 콩쿨대회, 연극을 많이 했어. 게 주동잔 나라 나. 나가 총 그냥 다 작곡허곡, 사회 나가 보곡 다 해주게. 저 우리 공연을 모실포 그때 당시는 전기가 안 왔어. 켜 대정골도 일반 전기엔 허영 열흔 시까지벳기 안 와. 모실포도 그 당시는 일반전기라. 게 대정골 간 학교 빌어신디 우리 연극 허젠 허난에. 아, 빌려준디 뭐 불이 있나. 불이 이서야 돼 거든. 게 우리 그때 사극을 해신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그때 당시 나는 그걸 만화책을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걸 짜야겠다. 거 옷을 멘들젠 허믄 옛날 대신들 입는 옷, 한복덜 잊지 안허여게. 하르방덜 입는 옷, 대신들 입는 옷으로 허곡, 장군복은 그거에다가 갈색 양복, 거 모슬포 군부대 시니까, 미군부대 시니까, 간스메 깡 덜 하영 먹었거든. 뭐 문딱 쓸 거랜 허연에, 거 찰란에 막 쫄란 다 이연에 갑옷, 갑옷 다 멩글야. 잠을 못 자. 춤 기가 막히게 했어, 우리 어릴 때는. 경 현 허고 또 칼, 칼 허젠 허니까 그뻬 칼 이시믄 영창 간다 말이며. 계난 지서에서 심으레 땡긴덴 허연에. 켜 이젠 우리 사춘허고 이젠 대정 지서에 간에 이만저만 연극을 허게 돼니까 칼이 필요허덴 허니까 저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허난 그리허렌 허연 불미에 간 진짜 이만 혼 칼 멘들안. 불미엔 현 건 칼 멘들야, 그 당시. 멩이서 간 불미헐 잊어 낫주. 게 칼 멘들안. 아, 경 흥기 전이 보성리에서 헐 땡 전기 엇언 어떻 현 줄 알아, 저 모실포 베 하는 사름 잇으니 발전기 저 지금 저 뭐냐 저, 이제 거 살령은에 허는 거, 그걸 빌어단에.(아이고, 그 우리 동네서 무슨 연극인가, 우린 그 당시 뭘 콩쿠르대회, 연극을 많이 했어. 그래 주동자는 나야 나. 내가 총 그냥 다 작곡하고, 사회 내가 보고 다 했지요. 저 우리 공연을 모실포 그때 당시는 전기가 안 왔어. 그래서 대정골도 일반전기라고 해서 열한 시까지밖에 안 와. 모슬포도 그 당시는 일반전기야. 그래서 대정골 가서 학교 빌렸는데 우리 연극 하려고 하니까. 아, 빌려줬는데 뭐 불이 있나. 불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 우리 그때 사극을 했는데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그때 당시 나는 그걸 만화책을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걸 짜야겠다. 거 옷을 만들려고 하면 옛날 대신들 입는 옷, 한복들 잊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들 입는 옷, 대신들 입는 옷으로 하고, 장군복은 그거에다가 갈색 양복, 거 모슬포 군부대 있으니까, 미군부대 있으니까, 통조림 깡통 덜 많이 먹었거든. 뭐 모두 쓸 거라고 하여서, 거 잘라서 마구 잘라서 다 이어서 갑옷, 갑옷 다 만들어. 잠을 못 자. 참 기가 막히게 했어,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칼, 칼 하려고 하니까 그뻬

칼 있으면 영창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서에서 잡으러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사촌하고 이젠 대정 지서에 가서 이만저만 연극을 하게 되니까 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리하라고 해서 풀무에 가서 이만큼 한 칼 만들었어. 풀무엔 한 건 칼 만들어, 그 당시. 몇이서 가서 풀무 해서 있었었지. 그래 게 칼 만들었어. 아, 그렇게 하기 전에 보성리에서 할 땐 전기 없어서 어떻게 한 줄 알아, 저 모슬포 배 하는 사람 있으니 발전기 저 지금 저 뭐냐 저, 이제 거 살려서 하는 거, 그걸 빌려다가.)

102007 @ 거기서 만남디가?(거기서 만남디까?)

102007 #1 아니, 아니. 그건 그땐 콩쿨대회영 허멍.(아니, 아니. 그건 그땐 콩쿠르대회랑 하면서.)

102007 #2 차례로 곧지 안 허영. 호호.(웃음)(차례로 말하지 않고. 호호.(웃음))

102007 @ 계난 중매결혼?(그러니까 중매결혼?)

102007 #1 아, 중매는 연애해 놓고.(아, 중매는 연애해 놓고.)

102007 @ 아, 계난 처음 만날 때 어디서 만남디가?(아,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어디서 만남디까?)

102007 #1 옷동네 극 할 때, 노래 자랑할 때. 완 보난 부산 간 금방 와신디 잘도 곱데, 진짜.(옷동네 극 할 때. 노래 자랑할 때. 와서 보니까 부산 가서 금방 왔는데 잘도 곱데, 진짜.)

102007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2007 #1 저거 나 거엔 딱 찍언 놔뒀신디. 하하하.(웃음)(저거 내 거라고 딱 찍어서 놔뒀는데. 하하하.(웃음))

102007 @ 아, 계난 연극 할 때 찍언?(아, 그러니까 연극 할 때 찍어서?)

102007 #1 예. 아, 계난 이 사람도 모름이 셔실 거라.(예. 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이 있었을 거야.)

102007 @ 계난 몇 살 때 결혼합디가?(그러니까 몇 살 때 결혼합디까?)

102007 #1 나, 겐 군인 갔다 완, 경해도 결혼은. 연애는 저 사람 열일곱 살 때, 난 스물흔 살 때 했주마는. 겐 군인 갔다 완에 허연, 장게가고.(나, 그래서 군인 갔다 와서, 그래도 결혼은. 연애는 저 사람 열일곱 살 때, 난 스물한 살 때 했지만. 그래서 군인 갔다 와서 했어, 장가가고.)

102007 @ 계난 젊은 때네양.(그러니까 젊은 때네요.)

102007 #1 우리 육십오년도에 모실포 극장에 간 헛수다. 그때 당시 무대를 어떻게 했느냐, 무대를 잘 멘들앗어. 무대에, 계민 차가 있어, 구르마. 구르마차, 구르마는 우리 동네도 구르마가 별로 엇엇어. 저 이○○이라고 가이 죽어불엇지, 죽어신디, 가이가 흥번 왓단에, 야, 나 니 헐 때엔 구르마 해당은에 다 시꺼다 주마. 경 허라. 아이가 경 허연 일부러 들구르마 쫓언 완. 계난 그거 무대 문밖 흥 차에 잇바이 식언, 그 무대 장치 다, 그 모실포 극장에서. 하하하.(웃음)(우리 육십오년도에 모실포 극장에 가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무대를 어떻게 했느냐, 무대를 잘 만들었어.

무대에, 그러면 차가 있어, 마차. 마차, 마차는 우리 동네도 마차가 별로 없었어. 저 이○○이라고 그 애가 죽어버렸지, 죽었는데, 그 애가 한번 왔다가, 나 너 할 때에는 마차 해다가 다 실어다 주마. 그렇게 하라.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일부러 마차 끌어서 왔어. 그러니까 그거 무대 모두 한 차에 가득 실어서, 그 무대 장치 다, 그 모슬포 극장에서. 하하하.(웃음)

102007 @ 계난 우리 여자 삼촌은 공짜로 갖겠네, 계면.(그러니까 우리 여자 삼촌은 공짜로 갖겠네, 그러면.)

102007 #1 그때는 공짜 허고말고게. 그땐, 그 당신 우리도 못 구경했져.(그때는 공짜 하고말고요. 그땐, 그 당시는 우리도 못 구경했어.)

102007 #2 그땐 시켜 오고, 어이고, 잘 곶아, 잘 곶아. 그때 난 구경도 못 해봤어, 어이고.(그땐 실어 오고, 어이고, 잘 말해, 잘 말해. 그때 난 구경도 못 해봤어, 어이고.)

102007 #1 그 후에 헐 때로구나. 계난 그 당시 우리 동네 사는 사름 중이 오○○ 선생이라고 우리 동네 이장도 헐나주마는, 모슬포 간 사는데 잘 살았수다. 거 머리가 영리한 사름이라, 현명. 오선생이라고, 교장 선생님도 헐나고. 이 년 차이, 두 해 아신디 나 누게 아덜이우다 허난, 아, 기냐 허멍 게도 완 회사도 헐주고, 내 잘 헐젠 허멍. 게 우리 그땐 거 돈 받았 헐 건디 거 티켓이나 옛날 티켓이나 뭐 잇었어.(그 후에 할 때로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동네 사는 사람 중에 오○○ 선생이라고 우리 동네 이장도 했지만, 모슬포 가서 사는데 잘 살았습니다. 거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야, 현명. 오선생이라고, 교장 선생님도 했었고. 이 년 차이, 두 해 동생인데 나 누구 아들입니다 하니까, 아, 그렇냐 하면서 그래도 와서 회사도 헐주고, 내 잘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 우리 그땐 거 돈 받아서 할 것인데 거 입장권이나 옛날 입장권이나 뭐 잇었어.)

102008 @ 그다음에야, 결혼할 때 사주 봅디가?(그다음에요, 결혼할 때 사주 봅디까?)

102008 #1 사주? 아니.(사주? 아니.)

102008 @ 사주 안 보고?(사주 안 보고?)

102008 #1 게 우리 아버지가.(그래 우리 아버지가.)

102008 @ 게도 봐실 건디, 사주?(그래도 봤을 것인데, 사주?)

102008 #1 사주는 안 보고, 우리 아버지가 글을 잘 아니까 어딴 아이고? 멧 슬고? 영 허난에 영 반에, 그땐 육십 살이면 하영 산 때거든, 아이 육십까지 펜안허켜, 겐디 육십이 넘으면 조금 좀 뭐허긴 허다마는 가끔 뭐 잇긴 허다만 육십까지 어떻게 안 허다 허난에, 그땐 육십 살면 잘 산 거주. 이제 정 못 산 거주마는. 계난 경 우리 아버지 봐 쥘.(사주는 안 보고, 우리 아버지가 글을 잘 아니까 어디 아이인가? 멧 살인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아서, 그땐 육십 살이면 많이 산 때거든, 아니 육십까지는 편안하겠어, 그런데 육십이 넘으면 조금 좀 뭐하기는 하다만 가끔 뭐 잇기는 하다만 육십까지는 어떻게 안 하다 하니까, 그땐 육십 살면 잘 산 거지.

이제 저렇게 못 산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아버지 봐줬어.)

102009 @ 거 우리 여자 삼촌한테 물어보쿠다양. 혼수품, 결혼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했는가?(거 우리 여자 삼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혼수품, 결혼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했습니까?)

102009 #2 결혼허젠 허난 옛날엔 그런 예물 그튼 거 셋수가게, 엇언네 그자 시집을 때 그자 이불 기자 허영 오곡, 이 사람 금반지 두 돈 반허여주난 그자 그것이 예물로 그자 허연 그것이 그집주.(결혼하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예물 같은 거 있었습니까, 없어서 그저 시집을 때 그저 이불 그저 해서 오고, 이 사람 금반지 두 돈 반해주시니까 그저 그것이 예물로 그저 해서 그것이 그거지요.)

102009 @ 아, 거난 이불, 이불 몇 채 험디가?(아, 그러니까 이불, 이불 몇 채 합디까?)

102009 #2 이불 네 채마씨.(이불 네 채요)

102009 @ 이불 네 채?(이불 네 채?)

102009 #2 그거 허곡, 찻장 허곡, 단스 새끼 하나 허영 시집왔주게.(그거 하고, 찬장 하고, 이불장 새끼 하나 해서 시집왔지요.)

102009 @ 그거 하영 헌 거주게.(그거 많이 한 거지요.)

102009 #2 그거 허영 완.(그거 해서 왔어.)

102009 @ 그거 하영 해 온 거우다. 이불 네 채 하영 헌 거마씨.(그거 많이 해서 온 것입니다. 이불 네 채 많이 한 거지요.)

102009 #2 이불 네 채에 찻장 하나에 단스 하나, 옷장 하나, 그거, 그거 그전 시집왔수다.(이불 네 채에 찬장 하나에 이불장 하나, 옷장 하나, 그거, 그거 가져서 시집왔습니다.)

102009 @ 이불 멩글젠 허난 멘네 싱거야 헐 거 아니우짜?(이불 만들려고 하면 면화 심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2009 #2 멘넨 다락에예, 헛수다. 서말지기에 멘네 갈안에 매날 타고 허연에 그 숨으로 썰 빠고예.(면화는 다락에요, 했습니다. 세 마지기에 면화 갈아서 맨날 따고 해서 그 숨으로 씨를 빼고요.)

102009 @ 집에서 갈양은에.(집에서 갈아서.)

102009 #2 예, 게. 이젠 필요엇주마는양, 옛날엔 그것이 큰.(예, 그럼. 이젠 필요 없지만요, 옛날엔 그것이 큰.)

102009 #1 무명허영 짱은에. 옷 멘들양 우리 어멍.(무명해서 짜서. 옷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

102009 #2 이젠 돈만 주면 헛주마는, 그뻬 그자 그거 같지 못허영 허민 또.(이젠 돈만 주면 했지만, 그뻬 그저 그거 같지 못해서 하면 또.)

102009 #1 오죽해사 이 사람 하도 못 살아노난양, 돈 한 집이 시집 보내젠 느 우리 멘네 땅 주커메 우리 집이 시집오렌 허연, 얼마나 못 살아사.(오죽해야 이 사람 하도 못 살았으니깐요, 돈 많은 집에 시집 보내려고 너 우리 면화 땅 주겠으니

우리 집에 시집오라고 해서, 얼마나 못 살아야.)

102009 #2 신평<sup>55)</sup> 살 땐예, 막 부제집이 사람이 우리 메뉴리로 오켄 허민 멘네 갖다주켄 허난 그 말에 한참 귀가 거시려신디예, 나 죽어도 저 집 강 ㄱ만이 앞양 맥여준덴 해도 나 시집 안가쿠편. 그땐 어린 때라도 자존심이 잇엉 너무 부에가 난 거라마씨, 호호호호.(웃음)('신평' 살 때는요, 아주 부잣집에 사람이 우리 며느리로 오 겠다고 하면 면화 갖다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한참 귀가 거슬렸는데요, 나 죽어도 저 집 가서 가만히 앉아서 먹여준다고 해도 나 시집 안 가겠다고. 그땐 어릴 때 라도 자존심이 있어서 너무 화가난 거예요. 호호호(웃음))

102009 @ 계난 이불 네 채하고 찻장허고.(그러니까 이불 네 채하고 찬장하고.)

102009 #2 찻장 하나허고 이불장 하나허고 경 허연 왓수다.(찬장 하나하고 이불 장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102009 @ 아이, 그땐 그게 잘 출린 거우다.(아니, 그땐 그게 잘 차린 것입니다.)

102009 #2 호호호호호.(웃음) 그때 보통덜 시집갈 땐 다 그 정돈 허영 갖수다. (호호호호호.(웃음) 그때 보통들 시집갈 땐 다 그 정돈 해서 갔습니다.)

102009 #1 예식장 웃으난에 마을 향사엔 허영 창고 ㄱ튼 디 강.(예식장 없으니 까 마을 향사라고 해서 창고 같은 데 가서.)

102009 #2 다른 사름덜은 옛날 족두리 쓰고 가마에 타 가지고 우리 결혼할 때 만 해도 경 허연 오고 가고 헤나신디 우린 경 아년 향사에서 헐, 그때도 버리 썬 하얀 한복 입고, 그냥 그저 신식으로 혼다, 흥는 식으로 허연예, 경 허연 결혼식 헛 수다. 호호호.(웃음)(다른 사람들은 옛날 족두리 쓰고 가마에 타 가지고 우리 결혼 할 때만 해도 그렇게 해서 오고 가고 했었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해서 향사에서 했 어, 그때도 버리 썬 하얀 한복 입고, 그냥 신식으로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 했습니다. 호호호.(웃음))

102010 @ 예, 그다음에양, 아까 말했주마는 결혼식은 향사에서 허고 그다음에 결혼 사진은 어떻?(예, 그다음에요, 아까 말했지만 결혼식은 향사에서 흥고 그다음 에 결혼식은 어떻게?)

102010 #2 찍엇십주게. 예, 찍엇수다.(찍엇습지요. 예, 찍엇습니다.)

102010 @ 거 누게가 찍으레 왓수가?(거 누구가 찍으러 왓습니까?)

102010 #2 그 동네에 사진관 모슬포 셔낫수다게. 모슬포 사진관 사름이 왕 찍엇 수게.(그 동네에 사진관 모슬포 잇었습니다. 모슬포 사진관 사름이 와서 찍엇습니 다.)

102010 @ 계믄 어떻? 썩풍허고.(그러면 어떻게? 병풍하고.)

102010 #2 썩풍 치고예.(병풍 치고요.)

102010 @ 썩풍 치곡 행은예?(병풍 치고 해서?)

102010 #2 예, 예, 예. 그렇게 허연 헛수다.(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102010 @ 계 뭐 주레도 허고?(그럼 뭐 주레도 하고?)

---

55) '신평'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를 말한다.



102010 #2 주례도 허고마씨.(주례도 하고요.)

102010 @ 경 혜수강?(그렇게 했습니까?)

102010 #2 주례도 허고.(주례도 하고.)

102011 @ 신혼살림은 어디서 했수강?(신혼살림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1 #2 아이고, 신혼살림으로 시집을 완 보난 시어머닌 아판 그자 이불자리에만 뉘 놓고 시아버지만 일허연예, 그냥 오난 시아버지영 시어머니영, 우린 동서넝방에서 살명 육 개월 동안 시집오는 날부터 한 때도 시어명 빌언 밥헨 먹어본 적이 엿수다. 나가 그자 육 개월까지 모셔 살고 혼 육 개월, 혼 오 개월 지나가난 시어머니가예, 기저길 차게 댜언 나 손으로 다 기저기 빨앙 다 허고예, 경허연 살단 시어머니 육 개월 댜언 돌아가셔부난, 또 시아버지 삼 년 모셔 살단 작은어머니 헤 오난예, 집 짓언 아버지진 따로 살안, 그르후엔 우리 둘리만 우리 아기 데령 살게 헤나실 거우다.(아이고, 신혼살림으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는 아파서 그저 이부자리에만 뉘 놓고 시아버지만 일해서요, 그냥 오니까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우린 동서넝방에서 살면서 육 개월 동안 시집오는 날부터 한 끼니도 시어머니 빌어서 밥해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저 육 개월까지 모셔서 살고 한 육 개월, 한 오 개월 지나가니까 시어머니가요, 기저귀를 차게 되어서 내 손으로 다 기저귀 빨아서 다 하고요, 그래서 살다가 시어머니 육 개월 되어서 돌아가셔버리니까, 또 시아버지 삼 년 모셔서 살다가 작은어머니 헤 오니까요, 집 지어서 아버지진 따로 살았어, 그 후에 우리 둘이만 우리 아기 데려서 살게 했었을 것입니다.)

102011 @ 계난 안거리 밧거리 헨?(그러니까 안채 바깥채 해서?)

102011 #2 안거리 밧거리 헤 가지고 ㄴ쁜 집에, 시아버지네가 우리 따로 살리젠 안헨디다게. 그자 그 집 하나뿐이난.(안채 바깥채 헤 가지고 같은 집에, 시아버지네가 우리 따로 살리려고 안 함디다. 그저 그 집 하나뿐이니까.)

102011 #1 밥 ㄴ치 먹젠 허든 어떻게?(밥 같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102011 #2 그자 동서넝방에서 살안, 시부모 모시명 살앗수게.(그저 동서넝방에서 살았어, 시부모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102011 @ 아, 거난 집 헨나에 동서넝방.(아, 그러니까 집 하나에 동서넝방.)

102011 #2 예, 예. 그렇게 허명.(예, 예. 그렇게 하면서.)

102011 @ 밥도 ㄴ치 헨 먹고.(밥도 같이 해서 먹고.)

102011 #2 밥도 나가 허영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드리고, 그렇게 허명 살안, 시어머니 돌아가션 삼년상을 넘으니까 시아버지가 그뻘 작은어머니 데려옵디다게. 계난 그때 집 짓언 아버지는 따로 가고, 우린 우리대로 살고 헨데, 지금이우다.(밥도 내가 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삼년상을 넘으니까 시아버지가 그뻘 작은어머니 데려옵디다. 그러니까 그때 집 지어서 아버지는 따로 가고, 우린 우리대로 살고 하는데, 지금입니다.)

102011 #1 우리 할망<sup>56)</sup> 미와도 참 착하긴 착한 사름이라. 진짜 부모 저 뒷바라

56) '할망'은 할머니인데, 여기서는 부인을 뜻한다.

지 허명, 뒷바라지 잘했어. 똥오줌 다 다까주고 행, 었어. 우리 큰형도게 혼번도 아니와, 진짜. 우리 누님이나 형수가 와, 우리 할머니 살아신 때.(우리 ‘할망’ 미워도 참 착하긴 착한 사람이야. 진짜 부모 저 뒷바라지 하면서, 뒷바라지 잘했어. 똥오줌 다 닦아주고 했어, 없어. 우리 큰형도요 안 와, 진짜. 우리 누님이나 형수가 와,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102011 @ 그게 최곱주게, 것이.(그게 최고지요, 것이.)

102011 #1 최곤 아니고.(최고는 아니고.)

102011 #2 아니, 시아버지 그렇게 애껴줍디다게. 계난예 미워할 수가.(아니, 시아버지 그렇게 애껴줍디다.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102011 @ 잘 허니까.(잘 하니까.)

102011 #2 미워허지도 아니허고예, 아, 그거 할 때 짜증나고 미워함은 하나도 엇곡, 불쌍흔 점만 이시명예. 경 허연 살단 보난 시아버지가 너무 좋고.(미워하지도 아니하고요, 아, 그거 할 때 짜증나고 미워함은 하나도 없고, 불쌍한 점만 있으면서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좋고.)

102011 #1 아이고, 신랑이 아까우니까 경 현 거지.(아이고, 신랑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한 거지.)

102011 #2 예에, 신랑 아까운 건 아니고, 솔직이 말허주.(예에, 신랑 아까운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지.)

102011 @ 삼촌 알양 잘 험서양. 아이 저 혼 육 년 다념신디양, 그런 경우가 혼 험니다.(삼촌 알아서 자 하십시오. 아니 저 한 육 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혼합니다.)

102011 #2 호호호.(웃음) 아이, 난 이제도 돌아가섯주마는 서방님보단 시부모가 너무 좋아마씨, 이제도. 호호호.(웃음) 계난 일 년에 이 사름안티 물어봅서마는 딱 삼 년을, 일 년에 세 번을 시어명 산에 가났수다. 청명날 가곡, 단옷날 가고예, 경 흥영 강 풀 캐곡.(호호호.(웃음) 아니, 전 이제도 돌아가섯지만 서방님보다는 시부모가 너무 좋아요, 이제도. 호호호.(웃음) 그러니까 일 년에 이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만 딱 삼 년을, 일 년에 세 번을 시어머니 묘에 갔었습니다. 청명날 가고, 단옷날 가고요, 그렇게 해서 가서 풀 캐고.)

102011 @ 아, 지금도 경 험수가?(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02011 #2 예, 올리도 간, 올리도 갖다 왓수다.(예, 올해도 가서, 올해도 갖다 왔 습니다.)

102011 @ 대단허우다.(대단합니다.)

102011 #2 나 살 때까지는, 계난 아이덜 본 베와주젠예.(내 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아이들 본 보여주려고요.)

102011 @ 경 허난 잘 웨는 겁주.(그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지요.)

102011 #2 갈 때랑은에 글렌 허른 아덜덜은 직장 다녀불고 너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혼번도 오지도 아념직허다 허른 그땐 가쿠다게 허명, 아이덜은 그렇게 말헤

도 한번 가질 안 해마씨.(갈 때랑은 가겠냐 하면 아들들은 직장 다녀버리고 너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한번도 아니할 것 같다 하면 그땐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도 한번 가질 안 해요.)

102011 @ 거 배와주는 겁주게. ㄴ찌 데령 땡집서.(거 보여주는 거지요. 같이 데려서 다니십시오.)

102011 #2 난 꼭 적갈허명예, 갑니다.(전 꼭 적하면서, 갑니다.)

102011 @ 아이고, 잘힘수다.(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102011 #2 경 허당 하소연도, 아버지 산에 가민 말 못허당이라도 거긴 가민 막 말해져마씨. 호호호.(웃음) 우리 도와줍센 허명, 호호호.(웃음)(그렇게 하다가 하소연도, 아버지 묘에 가면 말 못하다가도 거긴 가면 마구 말해져요, 호호호.(웃음) 우리 도와주라고 하면서, 호호호.(웃음))

102011 @ 복 받는 겁주게.(복 받는 거지요.)

102011 #2 경 허난산디사 아직ㄴ진 경 늡안테 손 벌리멍 살아가진 안 헨, 그런대로 살아젓수다.(그렇게 해서인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남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가진 안 했어, 그런대로 살아젓습니다.)

102012 @ 우리 여자 삼촌, 아이덜은 어떻 됩니까?(우리 여자 삼촌,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02012 #2 아이덜은 이남일년디예, 막 아이덜이 착합니다. 지금도 한번도 어디간 말썽 피와보도 아녀고 어머니 아버지 말끝데 대꾸해보도 아이허고. 뭐 지금 결혼허연 따로 살리난 돈이라도 흐끔 줍센 허연 쥐 본 적도 엇고, 게민 우리 스스로 밀감, 어떤 땐 마늘 헨 쪼끔 주고, 게 아널 땐 주지 아니허영 드렌 안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몸대로 먹영, 쓰다근에 먹읍센 허명예, 지금은 아기덜이 뭐 반찬 ㄴ튼 거, 아기덜이 이은덴 해도 뭐 메뉴리가 막 착합니다, 메뉴리가. 메뉴리가 똑똑 반찬 사웁니다.(아이들은 일남이녀인데요, 아주 아이들이 착합니다. 지금도 한번도 어디가서 말썽 피워보지도 아니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끝에 대꾸해 보지도 아니하고. 뭐 지금 결혼해서 따로 살리니까 돈이라도 조금 주라고 해서 쥐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밀감, 어떤 땐 마늘 해서 조금 주고, 그렇게 안 할 땐 안 해서 달라고 안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대로 먹어서, 쓰다가 먹으라고 하면서요, 지금은 아기들이 뭐 반찬 같은 거, 아기들이 이은다고 해도 뭐 며느리가 아주 착합니다, 며느리가. 며느리가 똑똑 반찬 사웁니다.)

102013 @ 그 아까도 말했주마는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 그런 거 곱아줍서.(그 아까도 말했지만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 그런 거 말해주십시오.)

102013 #2 시집살이헤여온 기억은예, 시집살이 부모덜 모시단에 돌아가셔부난, 동세도 한번 싸와본 적도 엇고, 살단 보난 동센 작년 재작년에 오꼳 돌아가셔부난 예 양 씨부모 돌아가신 거보다 더 서운허여마씨. 주변에 사람이 이 의지힐 사람이, 게도 무슨 큰일이 나면 동세 실 땐 성님 우리 이거 어떻 허코마씨 허면, 아이고, 잇는 거 어떻 허영 흐게 허는디 이젠 그런 사람이 없으난예, 아, 너무 서운허고예, 이

젠예 진짜 경허단 보난 시아지방은 이제 팔십셋인디 각시 언언 오꼴 딴 디 간. 다방 여자라, 흐끔 가불고 허난, 이젠예, 너무 허전헤마씨. 경도 험니깡? 팔십셋 낭 각시 언언 가는 사름도 잇수가? 에이고, 에이고. 겐디 그건 아니 닙아뵈어마썸. 호호호.(웃음) 시집살이 경 시부모덜이 워낙 좋아노난예 시집살인 살아보지 아이헛수다, 나. 나가 그자 흐끔 밥만 허영 주민 아버지가 너무 좋아노난 이제ㄴ찌 돈이 셔시민 요 반찬이라도 사당은에 헤 드려실 건디, 그땐예 보리졸이나 안 풀민 돈이 십 원도 엇일 때마씨. 웬장예, 웬장국, 녹물국, 그자 그거만 헤도 우리 시아부진, 나예 어떻사 좋은 분산디사예 아무 소리 안허영, 이제 생각을 행 보민, 아이고, 그렇게도 행 쥘져신가 현 생각이 너무나예. 미안헌 쥘책감이 들어마썸. 돈이 엇영 반찬을 사당 못헤노난. 겐, 이제난 헛주, 가서 오늘 허젠 허민 이 그때 당시엔 성담<sup>57)</sup>을, 과수원 성담을 딱 들릅디다게. 우리 시아버님이 워낙 그런 걸 일을 잘허난 동네 할으버지 멧 사름허고 그거를 참 돈 벌레, 그 성담을 다레, 다아마씨. 난 우리 큰아덜 난에 현 일주일도 안 뵈실 거라, 시어명은 아판 누워부난, 정심을 허영 시아부지 담 다는 디 날르는 거, 일주일도 안 뵈 아기 내불어두고, 경 허영 강 왕 보민 우리 시어머닌 아판 아기 우는 소리에 머리광 헤양헌 게, 아기구덕<sup>58)</sup> 옆이 강 앓으면, 반찬이 시민 두부 그때 당시 한 모에 삼십 원, 삼십 원 험 때난예 두 모 사젠 허민 돈 십 원이 모자르난 십 원 보태영, 두부 사올 돈이 어십디다게. 친칭이나 강 어머니나 애기 기저기 빨렌 허난 돈 엇수덴 허민, 어머니가 비누 사렌 돈 멧 십 원을 주민 그거 그레 십 원 보태영 오십 원 쥘 두부 두 모를 사민, 두부 혼 모 반찬을 허면 시아부지신디 반찬 썸 과수원에 정심 가져가민, 그다음에 시아부지 태우당 남으면 시어명 아프난, 시어명도 요만헌 거 두 점벳기 못 드려. 게민 그것이 너무예 속상헛주. 뵈 들양 살명 밥 헤주는 거에 대허영은 속상헌 일 엇읍디다게. 게 그것이 질 이제, 그때 당시엔 그런 생각도 못헤신디 지금 생각을 허민 너무 나가예 못헤젓구나 현 걸 너무 후회스러워마씨, 돈이 없으니까. 진짜 이제 너무 후회스러웁니다게.(시집살이 헛던 기억은요, 시집살이 부모들 모시다가 돌아가셔버리니까, 동서도 한번 싸워본 적도 없고, 살다가 보니까 동서는 작년 재작년에 그만 돌아가셔버리니까요 양 시부모 돌아가신 거보다 더 서운해요. 주변에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그래도 무슨 큰일이 나면 동서 있을 땐 형님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아이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서 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너무 서운하고요, 이젠요 진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아주버니는 이제 팔십셋인데 마누라 얻어서 그만 다른 데 갔어. 다방 여자야, 조금 가버리고 하니까, 이젠요, 너무 허전해요. 그렇게도 합니까? 팔십셋 나서 마누라 얻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에이고, 에이고. 그런데 그건 아니 닙아뵈어요. 호호호.(웃음) 시집살이 그렇게 시부모들이 워낙 좋으니까 시집살인 살아보지 안 헛습니다, 내. 내가 그저 조금 밥만 해서 주면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같이 돈이 있었으면 요 반찬이라도 사다가 헤 드렸을 것인데, 그땐요 보

57) '성담'은 돌로 쌓은 성(城)이다.

58) '아기구덕'은 대오리로 엮어 만든, 아기를 눕혀 재우는 장방형(長方形)의 바구니로 제주도 특유의 육아기구이다.

리쌀이나 안 팔면 돈이 십 원도 없을 때요. 된장에, 된장국, 나물국, 그저 그거만 해도 우리 시아버진, 내요 어떻게야 좋은 분인지요 아무 소리도 안 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보면, 아이고, 그렇게도 해서 쥐졌는가 한 생각이 너무나. 미안한 죄책감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 반찬을 사다가 못하니까. 그럼, 이제니까 했지, 가서 오늘 하려고 하면 이 그때 당시엔 ‘성담’을, 과수원 ‘성담’을 딱 두릅디다. 우리 시아버님이 워낙 그런 걸 일을 잘하니까 동네 할아버지 몇 사람하고 그거를 참 돈 벌러, 그 ‘성담’을 쌓으러, 쌓아요. 전 우리 큰아들 낳아서 한 일주일도 안 되었을 거야, 시어머니는 아파서 누워버리니까, 점심을 해서 시아버지 담 쌓는 데 나르는 거, 일주일도 안 돼서 야기 내버려두고, 그렇게 해서 가서 와서 보면 우리 시어머니는 아파서 야기 우는 소리에 머리털과 하얀 게, ‘야기구덕’ 옆에 가서 앉으면, 반찬이 있으면 두부 그 때 당시 한 모에 삼십 원, 삼십 원 할 때니까 두 모 사려고 하면 돈 십 원이 모자라니까 십 원 보태어서, 두부 사 올 돈이 없습니다. 친정이나 가서 야기 기저귀 빨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하면, 어머니가 비누 사라고 돈 몇 십 원을 주면 그거 그리로 십 원 보태어서 오십 원 줘서 두부 두 모를 사면, 두부 한 모 반찬을 하면 시아버지에게 반찬 싸서 과수원에 점심 가져가면, 그다음에 시아버지 태우다가 남으면 시어머니 아프니까, 시어머니도 요만큼 한 거 두 점밖에 못 드려. 그러면 그것이 너무 속상했지. 뭐 데려서 살면서 밥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속상한 일 없습니다. 그래 그것이 쥔 이제, 그때 당시엔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 너무 내가 못해졌구나 한 걸 너무 후회스러워요, 돈이 없으니까. 진짜 이젠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102014 @ 자식덜 결혼은 어떻 했수가?(자식들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102014 #2 자식덜 결혼은예, 큰아덜은 대학 졸업허연에 저 육지서 놀레 온 아이, 제웃아이, 아방은 제주돈데 가이도, 지집아이도 대학 나오고 막 아이도 좋습디다게. 얼굴은 미스코리아 같이라예, 경 허연 선을 보난 아덜도 좋덴 허고, 그 메누리도 아방은 모슬포, 아방은 모슬폰디 어명은 육지 사름이란, 여기 이녁 친척집이 왔단 우리 아들이영 선을 보렌 허난 우리 아덜도 좋덴 허고, 그 아이도 좋덴 허연 결혼을 시겨서마씨. 시견에 제주시예 아이덜은 직장 다니난에 거기 집 사주고 다니는디 정월 초흐룻날 아덜 낳고 선들 스무일렛날 야기 두 개 낳디다게. 두 개 난디예, 아길 두 개 낳 육지 그 예펜 사돈님이 잇지 안허파예, 아, 일주일은 여기 왕 살민 딸을 들양 강 두 들도 살당 오곡, 석 들도 살양 오곡, 경해도 그자 야이 야기 두 개 난에 친정어머니 그자 노난 허염거니 허연에 그 야기 난 이 년째 뉘는 해엔 아덜이 혼번은 와 가지고, 어머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양, 어머니 빚을 물어줍서. 경 허난 무슨 빚을 영 남시니? 허난 카드빚을 영 나졌수다 허난 예, 그 야기 싯곡 그자 갓다 왔다 허명 빚이 낫구나 헨에 돈이 그뎨 나도 잇어도 아, 요거 빚을 하나 팔양 물면 다음부면 야이가 정신 출령 아녀겿지 허연 그때, 이제 그 빚을 놔뉘시민 혼 멧 억 웰 걸, 그때에 이천만 원 받안에 빚을 하나 풀안에 그때 일 년 빚을 물어줬수게. 물어주난 아, 또 뒷해에 또 카드빚을 일역을 팍 난 거 아니우파? 게난

이젠 하도 어이가 었언, 그추록 빗을 나도 아이덜을 이혼할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요 노릇을 어떻 허민 좋고 허연, 혼번은 밤 혼 두 시 뉘난 아덜이 전화완 어머니 빨리 집이 읍서 허난, 왜 허니까, 하여튼 와 봅서, 허난 작은아덜 모슬포 살고 허난 불런 차 탄 간 보난 메누리도 었고 아기도 었고, 아무도 었고 아덜만 이서. 이거 어떻게 웬 일이냐, 나 어디 갓단 완 보난 이렇게 짐을 다 싸고 었수다, 어머니. 게난 느 싸완자, 싹도 안 헛수다. 게난 그러면 이진 아니다. 사람이 안 살라면 경해도 난 이레이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해야지, 왜 사람이 이렇게 아무런 말 었이, 느네 각시가 짐을 싸시면 누께가 짐을 싸시니 허난 가시어명이영 완에 이렇게 짐을 싹수다. 게면 이젠 할 수 었다, 이제 이 밤이 어디 강 좃아, 벨 아침 세백에 부산 가는, 부산 사는 디, 부모님네가 부산 사난, 첫 비영길 우리 못 잡게 해야지, 이결 나 그대로 이번은 용서허지 못허켜. 허난 게고 손지가 너무 잘났고, 이 애긴 그 손지덜 안 들었수다, 와 보지 안허난. 아기 오누인디예 아기덜이 침 원 입에 놓고도 싶지 안헐 손지덜이라. 자넨 얼굴이 못나도 그 손진 무사 경 잘납니까게. 아, 이젠 아침 혼네 시, 다섯 시 뉘 가난 아덜안티 전화를 그 메누리가 완, 어디 시넨 허난 어디 서울호텔 십디다게, 서울호텔.(자식들 결혼은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해서 저 육지서 놀러 온 아이, 제줏아이, 아버지는 제주돈데 그 아이도, 여자아이도 대학 나오고 아주 아이도 좋습디다. 얼굴은 미스코리아 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을 보니까 아들도 좋다고 하고, 그 며느리도 아버지는 모슬포, 아버지는 모슬포인데 어머니는 육지 사람이어서, 여기 이녁 친척 집에 왔다가 우리 아들이랑 선을 보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도 좋다고 하고, 그 아이도 좋다고 해서 결혼을 시켰지요. 시켜서 제주시에 아이들은 직장 다니니까 거기 집 사주고 다니는데 정월 초하룻날 아들 낳고, 설달 스무이렛날 아기 두 개 낳습디다. 두 개 낳았는데, 아길 두 개 낳아서 육지 그 여편 사돈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일주일은 여기 와서 살면 딸을 데려서 가서 두 달도 살다가 오고, 석 달도 살아서 오고, 그래도 그저 그 아이 아기 두 개 낳아서 친정어머니 그저 노난 하고 있지 해서 그 아기 낳아서 이 년째 되는 해에는 아들이 한번은 와 가지고, 어머니 빗이 너무 많아서요, 어머니 빗을 갇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빗을 이렇게 나고 있지? 하니까 카드빗을 이렇게 나 졌습디다 하니까 예, 그 아기 있고 그저 갔다 왔다 하면서 빗이 났구나 해서 돈이 그뻘 나도 있어도 아, 요거 받을 하나 팔아서 갇으면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정신 차려서 안 하겠지 해서 그때, 이제 그 받을 봐줬으면 한 몇 억 될 걸, 그때에 이천만 원 받아서 받을 하나 팔아서 그때 일 년 빗을 갇아줬습디다. 갇아주니까 아, 또 뒷해에 또 카드빗을 일억을 팍 난 거 아납니까? 그러니까 이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것처럼 빗을 나도 아이들은 이혼할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요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고 해서, 한번은 밤 한 두 시 되니까 아들이 전화 와서 빨리 집에 오십시오 하니까, 왜 하니까, 하여튼 와 보십시오, 하니까 작은아들 모슬포 살고 하니까 불려서 차 타서 가서 보니까 며느리도 없고 아기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들만 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어디 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 짐을 싸고 없습디다, 어머니. 그러니까 너 싸웠느냐,

싸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아니다. 사람이 안 살려면 그래도 전 이  
러이러해서 못 살겠습니다 해야지, 왜 사람이 이렇게 아무런 말 없이, 너희 마누라  
가 짐을 싣으면 누가 짐을 싣느냐 하니까 장모랑 와서 이렇게 짐을 싣습니다. 그  
러면 할 수 없다, 이제 이 밤에 어디 가서 찾아, 널 아침 새벽에 부산 가는, 부산  
사는 데, 부모님네가 부산 사니까, 첫 비행길 우리 못 잡게 해야지, 이걸 나 그대로  
이번은 용서하지 못하겠어. 하니까 그리고 손자가 너무 잘났고, 이 아기는 그 손자  
들 안 들었습니다, 와 보지도 안 하니까. 아기 오누인데요 아기들이 참 윈 입에 놓  
고도 싶지 않을 손자들이야. 자넨 얼굴이 못나도 그 손자는 애 그렇게 잘납니까.  
아, 이젠 아침 한 네 시, 다섯 시 돼 가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그 며느리가 와서, 어  
디 있느냐 하니까 어디 서울호텔 있습니다, 서울호텔.)

102014 @ 뭐 그 시간에?(뭐 그 시간에?)

102014 #2 계난 이젠 지가 거기 싣누넨 허연에 전화를 온 거라마씨. 계난 이젠  
이 사름도 가고 나도 가고 딸도 가고 아덜이영 이젠 그 호텔이난, 우리만 가든 안  
웬다, 보는 증인을 하나 불령 가야지, 아무리 우리가 잘헨텐 허여도 누게 증인이 없  
으면 안 돼니까 증인으로 아덜안티 친구 하나 불르라, 막 친헌 친구 불려성게 들안  
가명 우리 딸이 어머니 가서 아무 말도 허지 맙서, 허여맞자양 그 사름네 귀에 놓  
도 아이혈 거고, 어머니 아무 소리도 허지 맙셴 허난 그 우리 아덜 친구도 아무 말  
도 허지 맙셴, 어머니 줌줍만 험셴 허난 경 허켄 허연. 겐 그 서울호텔이엔 헨 딴  
간 저 삼층인가 헨 디 이불자리영 어마장장허게 헨 경 헤노난, 나가 딱 들어가면서  
허는 말이 사돈님 이렇게 혈 라고 내려옵디가? 계난에 그땐 줌줍허고 그 후엔 나도  
줌줍헤신디 아덜 친구영, 어머니, 둘리가 나가불민 나가 우리 메뉴리허고 곶을 말이  
잇텐 허연 우리 나와부난에, 자 그추룩허영 나간 년이 메뉴리도 아덜이영 살켜. 아  
덜도 이 아기 따문 이혼을 허든 어떻 웹니까? 계난 손진 보민양, 갈라 세우고 싶도  
안 허고, 계면 살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허명 살 것고? 허난, 계도 이 아기  
덜 보는 게 아덜도 살쿠다, 메뉴리도 살쿠다, 허난, 계건 살렌, 살렌 허난, 이젠 집  
이덜 다 와십주, 오난에, 사돈님, 이렇게 아이덜 이렇게 할라고 내려옵디가? 허난에,  
이젠 막 좋지 안 허게 말을 헤 가난 우리 작은아덜이 완 밧단, 작은아덜도 계난 시  
에 쫓아오고 허난, 어머니 이건 아니우다, 일은 이건 아니우다, 어머니 생각엔 어떻  
허우파? 나 허는 말은 손지덜 보는 게 용서허고 싶다마는 카드빚을 이렇게 우리 집  
안에서만 쓴 거면 나도 이해를 허겟다. 너희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이 빚을 내왔냐,  
이 애기덜 먹고 살리젠 허든 너가 어디 강 벌어다가 맥이고 살리쟁 해야지. 왜 카  
드빚을 이거 빚을 하나 풀양 물어주민 일 년도 안 돼영 이거 일억씩 내우민 이걸  
어떻게 해서 사느냐, 너희 아무리 헤도 이혼을 헤야돼겟다. 경허난에 아덜은 애기덜  
때문에 살아야 돼지 안허카마썸? 허난에, 나 계난 그 말쑤데 너희 사는 건 좋다마  
는, 너희 사는 건 못 살젠 아니허겟다, 살긴 살돼 부모 의리는 끈고 살아라, 이 애  
기덜 때문에 살긴 살아야 헨다. 겐디 부모허고 의리랑 끊고 살라 허난에, 우리 작은  
아덜이 가만이 앓앗다가 하는 말이 형, 형네 둘이 사는 건 떼진 안 허쿠다마는 나

도 형이영 의리 끈영 살쿠다. 이견 아니지 안허파? 계난 그땐 큰아덜이 딱 허는 말이 어머니네 집이 강 계십서, 계시민 나가 무슨 답이 실거우다, 허명 헨 게, 그추룩 허연 와부난에, 완 흐끔 시난 아덜이 나 어머니 말보다도 동생 말을 들으쿠다, 동생이 경 허는디 이거 아무리 얘기가 아까와도 이견 아니우덴 허연, 법으로 딱 들어간 양, 이혼소송을 딱 내난, 그땐양 사돈이영 메누리영 막 스정을 허는 거라마씨,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졌다고 이번 혼번만 봐주면,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을 살리질 못할망정 이렇게 빚을 내와서 뵙니까? 내중엔 알고보난 양, 그 집 알레랑 일억웨에도, 집 제주시 집 담보를 시겨가지고, 계고 부산 간에 집을 지네 이름에, 그건 아니지 안허파? 이젠 우린 흘 수 엇수덴, 아무리 얘기가 아깝곡 메누리가, 아덜이 아까와도 이견 아니우다 허연에 법적으로 딱 들어간 이혼을 허난에, 메누리한테 생활비 백 프로 당해준 건 그짓말이고, 하여튼 여기서 당해주는 건 다 당해줘서마씨. 경 헤신디 그추룩을 허난 법으로 딱 들어간에, 뭐 그짓말이 말도 못허게 메누리 입에서 나오는 거라, 법관안티 나가 아무리 명칭을 해도 법관안티 그래도 이견 아닙니다, 앞서서 말을 서로가 주고받아야 그짓말이, 이 사름이 옳은 거, 나가 옳은 거 아니까, 법관님이 앞서서 얘기, 딱 질문을 시키십서 허난에 딱 시깁디다게, 시기난 느시 말을 못허연, 서류로만 제출허켄 허명예, 우리 메누리 헤난 얘기, 계난 법관이 딱 알안 나 보명 웃으면서 당 본인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집에 가 계시면 아무 날로 연기, 연장을 또 험디다. 경헌 게 자네 지금 법으로 간에 아덜한테 저 여잔 정신을 고쳐야 뵈 여자렌 허난, 위자료도 주지 말고, 빚은 우리 아덜 카드로 다 빚을 내와 노니까 빚은 우리 아덜신디 물렌 헤서마씨. 그 대신에 양육비는 아기 오누이난 오십만 원 주고, 그 저 무신거, 위자료, 그거는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헨 건 나 안 간 때 우리 아덜만 간 때 법에서 딱 그렇게 명을 헨 거라마씨. 아덜은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 뵙니다, 법관이 딱 경 허난, 나 셔시민예, 그러면 아덜랑 날 주고, 딸랑은에 데려가곡, 요즘은 얼마나 키우기 좋을 때 아이우파? 어린이집 싯겏다예. 아고 난 그 아덜, 아기덜 다 쥐분 게에 너무 화가 나마썸게, 경 허난 이젠 법에서 경 허연 와부난에 어쩔 수가 엇는 거 아니우파? 이젠 그추룩 허연 간 게 손지 네 살에 간 게 얼굴 혼번도 못 뵙수다.(그러니까 이젠 자기가 거기 있다고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이 사람도 가고 저도 가고 딸도 가고 아들이랑 이젠 그 호텔이니까, 우리만 가면 안 된다, 보는 증인을 하나 불러서 가야지, 아무리 우리가 잘했다고 하여도 누구 증인이 없으면 안 되니까 증인으로 아들한테 친구 하나 불러라, 아주 친한 친구 불렀던데 데려서 가면서 우리 딸이 어머니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해받자요 그 사람네 귀에 넣도 안 할 거고, 어머니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우리 아들 친구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오라고, 어머니 조용히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 서울호텔이라고 한 데 가서 저 삼층인가 한 데 이부자리랑 어마장장하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딱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사돈님 이렇게 하려고 내려옵디까? 그러니까 그땐 조용하고 그 후엔 저도 조용했는데 아들 친구랑, 어머니, 둘이가 나가버리면 내



가 우리 며느리하고 말할 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 나와버리니까, 자 것처럼 해서 나  
 간 여자가 며느리도 아들이랑 살겠어, 아들도 이 아기 때문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됩  
 니까? 그러니까 손자는 보면요, 갈라 세우고 싶지도 안 하고, 그러면 살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 것인고? 하니까, 그래도 이 아기들 보는 게 아들도  
 살겠습니다, 며느리도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살라고, 살라고 하니까, 이젠 집  
 에들 왔습지요, 오니까, 사돈님, 아이들 이렇게 하려고 내려옵디까? 하니까, 이젠 아  
 주 좋지 안 하게 말을 해 가니까 우리 작은아들이 와서 봤다가, 작은아들도 그러니  
 까 시에 쫓아오고 하니까,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일은 이건 아닙니다, 어머니 생각  
 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하는 말은 손자들 보는 게 용서하고 싶지만 카드빚을 이  
 령게 우리 집안에서만 쓴 거면 내도 이해를 하겠다. 너희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이  
 빚을 내왔느냐, 이 아기들 먹고 살리려고 하면 너가 어디 가서 벌어들여 먹고 살  
 리려고 해야지. 왜 카드빚을 이거 받을 하나 팔아서 갚아주면 일 년도 안 되어서  
 이거 일억씩 내면 이걸 어떻게 해서 사느냐, 너희 아무리 해도 이혼을 해야겠다. 그  
 러니까 아들은 아기들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니까, 내 그러니까 그 말끝  
 에 너희 사는 건 좋지만, 너희 사는 건 못살게는 않겠다, 살긴 살되 부모 의리는 끊  
 고 살아라, 이 아기들 때문에 살긴 살아야 한다. 그런데 부모하고 의리랑 끊고 살라  
 하니까 우리 작은아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는 말이 형, 형네 둘이 사는 건 때  
 진 않겠습니다만 내도 형이랑 의리 끊어서 살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러니까 그땐 큰아들이 딱 하는 말이 어머니네 집에 가서 계십시오, 계시면 내가 무  
 슌 답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한 게, 것처럼 해서 와버리니까, 와서 조금 있으니까  
 아들이 내 어머니 말보다도 동생 말을 듣겠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아  
 무리 아기가 아까워도 이건 아닙니다 해서, 법으로 딱 들어가서요, 이혼소송을 딱  
 내니까, 그땐요 사돈이랑 며느리랑 마구 사정을 하는 거지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  
 졌다고 이번 한번만 봐주면,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을  
 살리질 못할망정 이렇게 빚을 내어서 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집 아래랑  
 일억 외에도, 집 제주시 집 담보를 시켜 가지고, 그리고 부산 가서 집을 자기네 이  
 름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젠 우린 할 수 없다고, 아무리 아기가 아깝고 며느  
 리가, 아들이 아까워도 이건 아닙니다 해서 법적으로 딱 들어가서, 며느리한테 생활  
 비 백 퍼센트 당해준 건 거짓말이고, 하여튼 여기서 당해주는 건 다 당해줬어요. 그  
 령게 했는데 것처럼 하니까 법으로 딱 들어가서, 뭐 거짓말이 말도 못하게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거야, 법관한테 내가 아무리 명칭을 해도 법관한테 그래도 이건 아  
 닙니다, 앞에서 말을 서로가 주고받아야 거짓말이, 이 사람이 옳은 거, 내가 옳은  
 거 아니까, 법관님이 앞에서 얘기, 딱 질문을 시키십시오 하니까 딱 시킵니다, 시키  
 니까 도저히 말을 못해서, 서류로만 제출하겠다고 하면서요, 우리 며느리 했던 얘  
 기, 그러니까 법관이 딱 알아서 나 보면서 웃으면서 당 본인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집에 가 계시면 아무 날로 연기, 연장을 또 합디다. 그렇게 한 게 자네 지금 법으로  
 가서 아들한테 저 여잔 정신을 고쳐야 될 여자라고 하니까, 위자료도 주지 말고, 빚

은 우리 아들 카드로 다 빚을 내었으니까 빚은 우리 아들에게 갚으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양육비는 아기 오누이니까 오십만 원 주고, 그 저 무엇, 위자료, 그거는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건 내 안 간 때 우리 아들만 간 때 법에서 딱 그렇게 명을 한 거예요.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 됩니다, 법관이 딱 그렇게 하니까, 내 있었으면요, 그러면 아들랑 날 주고, 딸이랑 데려가고, 요즘은 얼마나 키우기 좋을 때 아닙니까? 어린이집 있겠다. 아고 난 그 아들, 아기들 다 쥐버린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하니까 이젠 법에서 그렇게 해서 와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젠 것처럼 해서 간 게 손자 네 살에 간 게 얼굴 한번도 못 보고 있습니다.)

102014 @ 뭇 슬 웰 겨우짜?(뭇 살 될 것입니까?)

102014 #2 올리 고등학교 졸업, 새해에, 올리 대학 들어갈 거마씨. 계난 아덜 양육비 한 달 오십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고.(올해 고등학교 졸업, 새해에, 올해 대학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양육비는 한 달 오십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고.)

102014 @ 아방안티 오지도 안 허고? 연락도 안 허고?(아버지한테 오지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102014 #2 오도 안 허고, 계난, 연락은, 연락은 돈만 보내렌 연락은 오고, 계난 법이 서사 방학 때 보름, 멩질 때 보름 딱 그걸 혼번도 안 허난, 계난 지금은 경 허는 거라마씨. 우리 아덜이, 어머니, 올리 혼 해만 딱 양육비 보내고 올리 대학 들어갈 거니까, 대학 등록금 딱 보내주고 오지 안 허면 이제는 나가 앞으로 야네 버리젠 허든 버리는 게 아니고 딱 친자를 벗어나야 그때 찾아오면, 그때는 나가 받아들이겠다, 올리 십이월.(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연락은, 연락은 돈만 보내라고 연락은 오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방학 때 보름, 멩절 때 보름 딱 그걸 한번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머니, 올해 한 해만 딱 양육비 보내고 올해 대학 들어갈 거니까, 대학 등록금 딱 보내주고 오지 안 하면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아이네 버리려고 하면 버리는 게 아니고 딱 친자를 벗어나야 그때 찾아오면, 그때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올해 십이월.)

102014 @ 나가 보기에는 이제는 저 조금 커 가면은 찾아올 거 님은데.(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저 조금 커 가면은 찾아올 거 같은데.)

102014 #1 예, 그건 모르주마는.(예, 그건 모르지만.)

102014 #2 겐디 아기덜은 너무 잘났어마씨. 웨할망이 나쁜 여자마썸게. 아방59) 이 모슬포 사름인디양, 원양어선 탄에 튀직허니까 서방도 내쪽가불어, 메누리도 내쪽겨불어, 우리 메누리 데려가고, 계난.(그런데 아기들은 너무 잘났어요. 외할머니가 나쁜 여자요. ‘아방’이 모슬포 사름인데요, 원양어선 타다가 튀직하니까 서방도 내쪽겨버려, 며느리도 내쪽겨버려, 우리 며느리 데려가고, 그러니까.)

102014 @ 겐디 나이 들민양, 경 시키지 안 허면 궁통이가 나?(그런데 나이 들면요,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 궁리가 나?)

102014 #1 계난 건 맞은 건디.(그러니까 건 맞은 것인데.)

---

59)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02014 #2 경헌디양, 나 이제 법에 갖다온 뭐가예, 법 재판해난 것이 다 잇수다, 현재, 계도 나 이거 버리지 안 했수다. 야네 고등학교 다닐 땐 퀘우지 말고, 경헌디 이제 가의네 안 와가야 지네 아방 돈이 족수가게, 장시허단 거, 지네 오누이뿐이난 이제 재산이영 누게 줍니까, 그것덜신디 가야주. 계난 아덜안티 경 곁앗수다, 친자를 뺏기돼 이 돈은 차후에 아기 줘사헌다. 니 아기 다 물려줄 재산이주마는, 이거는 이녀 핏줄을 줘야헌다, 계난 아덜도 차후엔 그거 생각할 거고, 이거 버릇을 좀 그리켜사주.(그런데요, 내 이제 법에 갖다온 뭐가요, 법 재판했던 것이 다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내 이거 버리지 안 했습니다. 이아이네 고등학교 다닐 땐 뵈지 말고, 그런데 이제 그 아이 안 와가야 자기네 아버지 돈이 적습니까, 장사했던 거, 자기네 오누이뿐이니까 이제 재산이랑 누구 줍니까, 그들에게 가야지.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친자를 뺏기돼 이 돈은 차후에 아기 줘야 한다. 너 아기 다 물려줄 재산이지만, 이거는 핏줄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아들도 차후엔 생각할 거고, 이거 버릇을 좀 가르쳐야지.)

102014 @ 다시 장계 안 감수가?(다시 장가 안 가고 있습니까?)

102014 #2 장계갓수다. 장계가신디 나양, 아기 없는 아이안테, 아기 못날 아이안테 장겔 보냈수다, 계난 나도 잘못해전마썸게. 아길 하나 나랭 혈 건디, 서귀포 아인디 아기 한한해 부난, 이제 쉰 넘어부난 아길 나질 못 험수다. 아기 못나켄 험 것이 아니고 쉰 넘어부난 이젠 못나마씨.(장가갓습니다. 장가갓는데 내요, 아기 없는 아이한테, 아기 못날 아이한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도 잘못해졌습디. 아기를 하나 나라고 할 것인데, 서귀포 아이인테 아기 많아 버리니까 이젠 못나요.)

102014 @ 아, 계난 메누리가 쉰 넘어구나.(아, 며느리가 쉰 넘어구나.)

102014 #2 예, 이제 올리 딱 쉰하나라마씨, 경헌디 메누리 두 번 온 아인디 막 착허여마씨. 막 착해마씨. 계난 나 우리 메누리안티 곁암수다게, 니, 니네 두갓 벌명 앞으로 뭐 사는 거는 니 이름에 허주마는 나 물려준 거만큼은 뭐 생각허지 말라, 집이랑, 서방 집이랑 차후에 서방이 먼저 뭐 허든 그땐 그건 니꺼여만은 재산이랑 베리지 말라, 이거는 우리 핏줄 줘야 헌다, 나. 알앗수다, 허긴 험디다만, 계난.(예, 이제 올해 딱 쉰하나에요, 며느리 두 번 온 아이인테 아주 착해요. 그러니까 내 우리 며느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너희 부부 벌면서 앞으로 뭐 사는 거는 너 이름에 하지만 내가 물려준 거만큼은 뭐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핏줄 줘야 한다, 내. 알았습디, 하긴 험디다만, 그러니까.)

102014 @ 계난 큰아덜이 세광<sup>60</sup>)?(그러니까 큰아들이 ‘세광’?)

102014 #2 어, 세광. 예, 세광 주류 험수다. 요 아덜, 요 아덜, 경허난예, 아이고, 계난 이제 저.(어, ‘세광’. ‘세광’ 주류 하고 있습니다. 요 아들, 요 아들,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

102014 @ 아덜 어디서 봐난 거 닻다, 게 이제 쉰 멧 슬이우파?(아들 어디서 봤던 것 같다. 그래 이제 쉰 몇 살입니까?)

60) ‘세광’은 주류 회사 이름이다.

102014 #1 이제 원.(이제 원.)

102014 #2 원, 원.(원, 원.)

102014 @ 메뉴리는?(며느리는?)

102014 #1 메뉴리는 하나.(며느리는 하나.)

102014 #2 원하나.(원하나.)

102014 @ 아, 아.(아, 아.)

102014 #1 겐디 나도 일찍이 펜질 써 가지고 아덜안티 즐려고, 딱 써 가지고, 만약에 뭐 주겠다 딱 썩 그냥.(그런데 내도 일찍이 편지를 써 가지고 아들한테 즐려고, 딱 써 가지고, 만약에 뭐 주겠다 딱 써서 그냥.)

102014 #2 게난 이제 경찰, 경찰청에 다니는 아이신디 손지 어디 사는 거 조사해 달렌, 아는 아이 시난, 게난양 허엿수다게. 경 허영 하르방 손지 대학 등록금 내여 주젠예, 오누이난 삼천만 원을 딱 저금헨 놔뒀서마씨, 겐 옴만 허민 그거 주젠양, 눈이 빠지게 기다리난 올 말이우파? 자징거, 네 슬 때에 여기, 제주시 이마트에 간 산 이제 오난, 죽은아덜에 손지도 사 줬주마는, 왕 타도 못허게 허고, 요 창고에서 썩엿수다게. 호호호.(웃음)(그러니까 이제 경찰, 경찰청에 다니는 아이에게 손자 어디 사는 거 조사해 달라고, 아는 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손자 대학 등록금 내어 주려고요, 오누이니까 삼천만 원을 딱 저금해서 놔뒀어요, 그래서 옴만 하면 그거 주려고요, 눈이 빠지게 기다리니까 올 말입니까? 자징거, 네 살 때에 여기, 제주시 이마트에 가서 사서 이제 오니까 작은아들의 손자도 사 줬지만, 와서 타지도 못하게 하고, 요 창고에서 썩고 있습니다. 호호호.(웃음))

102014 @ 자징거도 잇구나게.(자징거도 잇구나.)

102014 #2 거 네 슬 때 사준 자징거디 타점수가게?(거 네 살 때 사준 자징거인데 타지고 있습니까?)

102014 #1 절대 건드리지 말라.(절대 건드리지 마라.)

102014 @ 거난 두 번째 아덜은?(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102014 #2 두 번째 아덜은 모슬포 농협에 다녔수다.(두 번째 아들은 모슬포 농협에 다니고 있습니다.)

102014 @ 농협에?(농협에?)

102014 #2 예, 두 번췌 아덜은 농협에 다녔 그것덜은 막, 이 케에 건 다 죽은아덜 꺼우다. 이건 죽은아덜신디 다 췌, 이제까지 썩 허여 줘불고, 큰아덜은 저 단 쪽에 스천오백 평 땅 문딱 이전해 주고, 딸은 췌켄 허게 스백오십 평, 스백오십 평. (예, 두 번췌 아들은 농협에 다녀서 그것들은 아주, 이 지역에 건 다 작은아덜 것입니다. 이건 작은아덜에게 다 췌어, 이제까지 썩 허여 줘버리고, 큰아들은 저 다른 쪽에 사천오백 평 땅 모두 이전해 주고, 딸은 조금만 하게 사백오십 평, 사백오십 평)

102014 #1 게난 딸신도 주난, 아덜은.(그러니까 딸에게도 주니까, 아들은.)

102014 #2 돈도 한 십오 년 전이 삼천만 원 주고게, 그때 당시 경 험 걸로 허연 딱 줘부난.(돈도 한 십오 년 전에 삼천만 원 주고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할 것으로 해서 딱 줘버리니까.)

102014 @ 계남 큰아덜은 결혼은 어디서? 예식장?(그러니까 큰아들은 결혼은 어디서? 예식장?)

102014 #1 집이서 헛주게.(집에서 했지요.)

102014 @ 집이서?(집에서?)

102014 #2 저 큰아덜은 첫 번 험 때는 집이서 하고, 두 번째 험 때는 제주시에서 허고.(저 큰아들은 첫 번 할 때는 집에서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제주시에서 하고.)

102014 @ 예식장에서?(예식장에서?)

102014 #2 예.(예.)

102014 @ 두 번째 아덜은?(두 번째 아들은?)

102014 #2 두 번째 아덜은 집이서 하고, 딸도 집이서 하고.(두 번째 아들은 집에서 하고, 딸도 집에서 하고.)

102014 #1 게 우리 딸은 예식장 허렌 헤가난 무사 아덜덜은 집이서 허고 난 식장에 강 허렌, 나도 집이서 허크라.(그래 우리 딸은 예식장 하라고 헤가니까 왜 아덜들은 집에서 하고 전 식장에 가서 하라고, 저도 집에서 하겠어.)

102014 #2 집이서 다 헛수다.(집에서 ㄷ 했습니다.)

102014 #1 그땐 잔치허젠 허든 일주일 잔치헤야 돼어. 옛날은 다 집 치워야지, 도새기 잡지, 하이고, 일주일, 일주일 잔치.(그땐 잔치하려고 하면 일주일 잔치헤야 돼. 옛날은 다 집 치워야지, 돼지 잡지, 아이고, 일주일, 일주일 잔치.)

102014 #2 딸은 시에 간에.(딸은 시에 가서.)

102014 #1 딸이 그렇지 그게 잔치라. 매날, 매날.(딸이 그렇지 그게 잔치야. 맨날, 맨날.)

102014 @ 딸은 시에 간 뭐 험수가?(딸은 시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102014 #2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덜 영어, 집 다니멍예, 가르키는 거.(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영어, 집 다니면서요, 가르치는 거.)

102014 #1 머리 영리헛수다, 영리허여.(머리 영리했습니다, 영리헤.)

102014 #2 그거 그거 허멍 아이덜 돌보멍 살암수다.(그거 그거 하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102014 @ 제주시?(제주시?)

102014 #2 예, 제주시.(예, 제주시.)

102014 @ 영어 선생?(영어 선생?)

102014 #2 어, 어, 영어 가르치는 선생, 영어 가르키레 다니고 그거 허멍.(어, 어, 영어 가르치는 선생, 영어 가르치러 다니고 그거 하면서.)

102014 @ 대학 영어과 나왔구나?(대학 영어과 나왔구나?)

102014 #2 영어과 안 나완.(영어과 안 나왔어.)  
 102014 #1 영어과 안 나와서.(영어과 안 나왔어.)  
 102014 #2 영어과 안 나와도.(영어과 안 나와도.)  
 102014 #1 가이 제라헌 직장 이서, 그거 허당은에 치와비연.(그 아이 맞는 직장 있어, 그거 하다가 치워버렸어.)  
 102014 #2 대학 나완 자격증 판 허단 아이고 못 허쿠덴 허연, 그거 영어.(대학 나와서 자격증 따서 하다가 아이고 못 하겠다고 해서, 그거 영어.)  
 102014 #1 막 이주민이여 뉘영 그르치명 버칭 못 허켄 허연, 뜯 사름 안 허영 우리 뉘신디만 막 허렌 허영.(마구 이주민이여 뉘랑 가르치면서 부쳐서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안 해서 우리 딸에게만 마구 하라고 해서.)  
 102014 #2 경해도 지 용돈 벌영 쓰켄, 용돈 벌만이만 허쿠덴 허멍.(그래도 자기 용돈 벌어서 쓰겠다고, 용돈 벌만큼만 하겠다고 하면서.)  
 102014 #1 계난 건 췌안허여.(그러니까 건 췌안해.)  
 102014 @ 그다음에양, 아까 큰메누리는 말했고, 두 번째 메누리허고 사위에 대해서 흐끔 글아줍서.(그다음에요, 아까 큰며느리는 말했고, 두 번째 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십시오.)  
 102014 #2 두 번째 메누리는데, 집안도 막 좋은 집이우다게.(두 번째 며느리는 집안도 아주 좋은 집입니다.)  
 102014 #1 그 집이 글 쓴 거.(그 집에 글 쓴 거.)  
 102014 #2 이거, 이거. 두 번째 메누린 아이가 너무 잘나고예, 식구들이 다 똑똑해. 오래동생은 순경이고, 또 밑에 동생은 저 위밀리<sup>61)</sup> 시집을 가신디 가이도 한문에 대해영, 이 붓글씨, 제주에서 일등. 우리 메누린 한글로 일등, 젠디 아이들이 다 차분허고예, 아이덜이 똑똑허고.(이거, 이거. 두 번째 며느리는 아이가 너무 잘나고요, 식구들이 다 똑똑해. 남동생은 순경이고, 또 밑에 동생은 저 위미리 시집을 갖는데 그 아이도 한문에 대해서, 이 붓글씨, 제주에서 일등. 우리 며느리는 한글로 일등, 그런데 아이들이 다 차분하고요, 아이들이 똑똑하고.)  
 102014 @ 붓글씨 쓰는 사름덜이 차분합니다.(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차분합니다.)  
 102014 #2 경허고 아이가예, 막 착허여마씨.(그리고 아이가요, 아주 착해요.)  
 102014 #1 저거 췌풍도 썬, 글.(저거 병풍도 썼어, 글.)  
 102014 #2 췌풍도 좋게 글 썬 해났고, 이 시아방이영 뉘영 흐끔 옥해가도예, 짜증 내지 안 허영, 아이고 아버지, 막 짜증 낫구나, 무사마씨, 영 허주. 저 신경질 혼변 안 내는 메누리게원. 계난 손지를 나니까 간간 책만, 책만 읽어줍디다게, 메누리가 굿 날 때부터 헨게예, 자이 한림공고 전자과에 가켄만 허연 간에 거기서 금상이여 은상이여 드러 타단 올리 저 인재상 제주도 인재상 하나 탄에 저 삼성서 스카우트헨.(병풍도 좋게 글 써서 해냈고, 이 시아버지랑 뉘랑 조금 옥해가도, 짜증 내지 안

61) '위밀리'는 서귀포시 위미리이다.

해서, 아이고 아버지, 아주 짜증 났구나, 왜요, 이렇게 하지. 저 신경질 한번 안 내는 며느리. 그러니까 손자를 나니까 간간 책만, 책만 읽어줍디다, 며느리가 금방 날 때부터 하던데, 저 아이 한림공고 전자과에 가겠다고만 해서 가서 거기서 금상이여 은상이여 계속 타다가 올해 저 인재상 하나 타서 저 삼성서 스카우트했어.)

102014 @ 아, 가이구나. 나왔더라고, 제주의 소리에.(아, 그 아이구나. 나왔더라고, 제주의 소리에.)

102014 #2 예, 예. 호호.(웃음) 겐 것이 우리 손지라마씨, 손지. 호호호.(웃음)  
(예, 예. 호호.(웃음) 그래 것이 우리 손자지요, 손자. 호호호.(웃음))

102014 @ 경진대회 그런 디도 많이 가났구나예?(경진대회 그런 데도 많이 갔었구나?)

102014 #2 서울, 서울 간에.(서울, 서울 가서.)

102014 #1 경 헨 팔백만 원 상금도 받았.(그렇게 해서 팔백만 원 상금도 받았어.)

102014 #2 기능.(기능.)

102014 #1 팔백만 원 받았 탕 완, 그때.(팔백만 원 받아서 타서 왔어, 그때.)

102014 #2 아이덜 막 잘 허여마씨.(아이들 아주 잘 해요.)

102014 @ 경 헨 삼성전자 들어갔구나예.(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들어갔구나.)

102014 #2 예, 삼성전자서 올리 스카우텐.(예, 삼성전자서 올해 스카우트했어.)

102014 @ 고등학교 우선권이 잇으니까.(고등학교 우선권이 잇으니까.)

102014 #2 고등학교 졸업허명씨라 간마씨.(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갔어요.)

102014 #1 이제 후배도 같이 험서.(이제 후배도 같이하고 있어.)

102014 @ 특성화고등학교 거 잇더라고.(특성화고등학교 거 잇더라고.)

102014 #2 예.(예.)

102014 #1 후배도 한림서 가서.(후배도 한림서 가서.)

102014 #2 겐디 경 차분허게 잘허는 생이라게.(그런데 그렇게 차분허게 잘하는 모양이야.)

102014 #1 자이 걷지 못힐 때부터 머리가 투철헌 아이라. 이디서 저 그림책도 딱 낫다냥.(저 아이 걷지 못힐 때부터 머리가 투철헌 아이야. 여기서 저 그림책도 갖다 놔서.)

102014 #2 영, 영, 폴폴 기어 다닐 때, 지네 어머니 책을 앓당, 가이 책을 가져왕 그때부터 사 권.(이렇게, 이렇게, 폴폴 기어 다닐 때, 자기네 어머니 책을 가져다가, 그 아이 책을 가져와서 그때부터 사 줬어.)

102014 #1 이제 보른 뭘 봤는지.(이제 보면 뭘 봤는지.)

102014 #2 이름도 모르고.(이름도 모르고.)

102014 #1 난 이제 책을 막 여기저기 서꺼놔불어. 서꺼놔 해도 딱 뽑아. 이상험 귀신 걸려신가, 머리가 특출헌 생이라.(난 이제 책을 마구 여기저기 섞어놔 버려. 섞어놔서 해도 딱 뽑아. 이상해서 귀신 걸렸는가, 머리가 특출한 모양이야.)

102014 #2 이 국민학교 때부터 뭐 무슨 반에만.(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무슨 반에만.)

102014 #1 인재반인가? 인재학교에 간. 아, 인재학교에 간 험, 아, 영재학교에.  
(인재반인가? 인재학교에 갔어. 인재학교에 가서 했어, 아, 영재학교에.)

102014 @ 아, 영재학교.(아, 영재학교.)

102014 #1 저 영재학교 간 빼와불언.(저 영재학교 가서 빼어와 버렸어.)

102014 #2 그런 반에만 들어상은에 허더라고. 겐디 자이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고 메누리가 똑똑한 아이,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부떠양 한자를,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 한자를 쓴 거를 다 아이덜을 가르친. 저 낙천<sup>62)</sup> 어딘 간 저 무슨 걸 잘허연에 따 와선게, 아이덜이. 한자, 그 메누리가 똑똑한 아이, 우린. 호호호.  
(웃음) 난 아덜보단도 메누리가 똑똑하니까 아이덜을 저렇게 가르침구나. 호호호.  
(웃음)(그런 반에만 들어서서 하더라고. 그런데 저 아이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고 며느리가 똑똑한 아이,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부터 한자를,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자를 쓴 거를 다 아이들을 가르쳤어. 저 ‘낙천’ 어딘가 가서 저 무슨 걸 잘해서 따 왔었어, 아이들이. 한자, 그 며느리가 똑똑한 아이, 우린. 호호호.(웃음) 난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똑똑하니까 아이들을 저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호호호.(웃음))

102015 @ 사위에 대허영 혼번 글아줍서.(사위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2015 #1 사위, 사위, 착한 아이.(사위, 사위, 착한 아이.)

102015 #2 사위도 막 착허연.(사위도 아주 착해서.)

102015 #1 술을 잘 먹어도 착허여.(술을 잘 먹어도 착해.)

102015 #2 술을 잘 먹어도 착하고, 지, 지, 험 일 허명예, 먹고 사는 건, 지 먹고 사는 건 걱정 엇수다.(술을 잘 먹어도 착하고, 자기, 자기, 할 일 하면서요, 먹고 사는 건, 자기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습니다.)

102015 #1 줌자명 먹는 건 그디벳기 엇어.(잠자면서 먹는 건 거기밖에 없어.)

102015 @ 줌자명 먹어마찌?(잠자면서 먹어요?)

102015 #2 술잔을 놓고 자명.(술잔을 놓고 자면서.)

102015 #1 줌잘 때까지 먹영, 하이고 난, 너 재게 죽젠험나, 우리 딸에미 너, 너, 훌어명 멘들젠 험나. 하하하.(웃음)(잠잘 때까지 먹어서, 아이고 난, 너 빨리 죽으려고 하나, 우리 딸 너, 너, 훌어머니 만들려고 하고 있나. 하하하.(웃음))

102015 #2 게난 이녁 사업을 허난예, 사우도 사는 게 걱정 엇수다.(그러니까 이녁 사업을 하니까요, 사위도 사는 게 걱정 없습니다.)

102015 @ 무슨 사업을 험수가?(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102015 #2 그 저 무슨거.(그 저 무엇.)

102015 #1 몰카, 몰카.(몰카, 몰카.)

102015 #2 저, 이.(저, 이.)

---

62) ‘낙천’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이다.



102015 #1 몰카 공급.(몰카 공급.)

102015 #2 이, 저, 공항 ㄴ튼 디 세무서 ㄴ튼 디 하근 장소에 몰래카메라 ㄴ튼 거 허고, 방송 시설.(이, 저, 공항 같은 데 세무서 같은 데 여러 장소에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고, 방송 시설.)

102015 @ 아, 아.(아, 아.)

102015 #2 그런 것도 허곡.(그런 것도 하고.)

102015 @ 몰래카메라.(몰래카메라.)

102015 #1 어, 몰카.(어, 몰카.)

102015 @ 시시티비구나게.(시시티브이구나.)

102015 #2 시시티비 그것도 허고게 이 저, 방송 시설, 그런 거 이 공항 ㄴ튼디, 세무서 ㄴ튼디, 제주도 전체적으로 허고. 요즘, 요즘은 가이도 제주도 산마다 카메라 설치허영 그 저 무슨거 허는 거 막 바쁜 쟁이라. 그런 거 션 이녁 사업 험수다 게. 다 착합니다게. 아지꺼진 경 말썽이나 피우는 아긴 엇수다, 우리 집인.(시시티브 이 그것도 하고요 이 저, 방송 시설, 그런 거 이 공항 같은데, 세무서 같은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고. 요즘, 요즘은 그 아이도 제주도 산마다 카메라 설치해서 그 저 무엇 하는 거 매우 바쁜 모양이야. 그런 거 있어서 이녁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 착합니다. 아직까진 그렇게 말썽이나 피우는 아기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102015 #1 아방<sup>63</sup>이나벳기이.(‘아방’이나밖에.)

102015 #2 아이 아방도게, 늬이영 썩지 안 허난 그만허믄 뵈수다게. 호호호.(웃음)(아이 ‘아방’도요, 남이랑 싸우지 안 하니까 그만하면 뵈습니다. 호호호.(웃음))

102016 @ 게믄양, 이 저 더 허고 싶은 말 이시민, 큰메누리 때문에 막 하영 말 헨 게마는.(그러면요, 이 저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큰며느리 때문에 아주 많이 말하더니만.)

102016 #2 큰메누리 때문에 나양, 돈양, 일억 얼마, 칠 개월 안네에 일억 얼마를, 그걸 카드빚을 막 마무리해주젠 허난예, 나양 그거 다 물젠 허난 삼 년을 농사 지으멍 늬 모르게 늬안티 굴민 늬 우시게 뵈직허고예, 나만 속으로 그걸 세멍 그걸 다 물젠 허연 요, 흔 멧 년 전이ㄴ지 다 물엇수다. 호호호.(웃음) 예게, 경해도 밧 아니 풀안예, 이제ㄴ지 나 노력허멍 다 물엇수다.(큰며느리 때문에 나요, 돈요, 일억 얼마, 칠 개월 안에 일억 얼마를, 그걸 카드빚을 막 마무리해주려고 하니까, 나 그거 다 물려고 하니까 삼 년을 농사지으면서 남모르게 남한테 말하면 남 우스개 될 것 같아서요, 나만 속으로 그걸 세면서 그걸 다 물려고 해서요, 한 몇 년 전까지 다 물엇습니다. 그러게, 그래도 밧 아니 팔아서, 이제까지 내 노력하면서 다 물엇습니다.)

102016 #1 빚젠 산, 재산도 다 빚젠 산 거니까, 서푼 이자 빌령은예 허난예, 그 이자 물멍 허단 허단 보난, 빚도 다 물어지고 재산 일루와십주. 겐디 우리 할망<sup>64</sup>)

63)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64) ‘할망’은 할머니인데, 여기서는 아내를 뜻한다.

고생은 엄청해서.(빛져서 산, 재산도 다 빛져서 산 거니까, 서푼 이자 빌려서 하니까, 그 이자 물면서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빛도 다 물어지고 재산 일으켰습지요. 그런데 우리 ‘할망’ 고생은 엄청나게 했어.)

102016 #2 나 경 허연 또 노후대책 다 허연 삼억 모였단 작년이 태양열양, 태양열 천 평, 노후대책 그거 들들이 타명 먹젠 삼억 모연 그거 바치고, 또 삼억 융자허연예.(저 그렇게 해서 또 노후대책 다 해서 삼억 모였다가 작년에 태양열, 태양열 천 평, 노후대책 그거 다달이 타면서 먹으려고 삼억 모여서 그거 바치고, 또 삼억 융자해서요.)

102016 @ 태양열마씨?(태양열요?)

102016 #2 예.(예.)

102016 @ 그 저 맞다.(그 저 맞에.)

102016 #2 예, 태양열 그거.(예, 태양열 그거.)

102016 @ 겐디 요즘 그거 잘 안 돌아간덴 허더라고.(그런데 요즘 그거 잘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102016 #2 아니, 요즘은 조금 싸지난 허여도양, 처음 헐 땀 오륙백씩 나옵디다, 한 달에.(아니, 요즘은 조금 싸지니까 해도요, 처음 할 때는 오륙백씩 나옵디다, 한 달에.)

102016 @ 한 달에마씨?(한 달에요?)

102016 #2 겐디 요즘, 요세 막 이 저 햇빛 안 나곡예.(그런데 요즘, 요세 아주 이 저 햇빛 안 나고요.)

102016 #1 정월달, 이월달, 유월달엔.(정월, 이월, 유월에는.)

102016 #2 햇빛 안 날 때는예 얼마 안 나와마씨. 겐디 난 삼억만 제주은행에 융자허난 그 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 물어점직허우다게, 경 허영 들들이 나오는 거, 딱 우리 아덜 말따나 융자 못 물어도 좋수다. 그냥 나오는 대로 먹당 놀멍, 그거 나오민 우리 노후대책으로 쓴 밧이난, 그거 쥐불른 쉘 거 아이우파. 신경 쓰지 말앙 드려 씩서. 일원도 냉기지 말앙. 게도에 경 못허커라마씨.(햇빛 안 날 때는요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난 삼억만 제주은행에 융자하니까 그 정도 건, 아무것도 아니, 물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달이 나오는 거, 딱 우리 아들 말처럼 융자 못 물어도 좋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먹다가 놀면서, 그거 나오면 우리 노후대책으로 쓴 밧이니까, 그거 쥐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신경 쓰지 말아서 계속 쓰세요. 일원도 남기지 말아서. 그래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102016 #1 뭐 못허커라게, 경 해야지 뭐.(뭐 못하겠어, 그렇게 해야지 뭐.)

102016 #2 저 사름은양 막 간세허영 일도 잘 안 합니다, 뭐. 호호호.(웃음) 나 이제 일할 나이냐? 몸도 약허곡 허고마썸게. 호호호.(웃음) 경헐 이제 삼억 헐 이제 태양열 그거 허연 이제 들들이 아명 안 나와도 사백은, 지난달엔.(저 사람은요 아주 게을러서 일도 잘 안 합니다, 뭐. 호호호.(웃음) 내 이제 일할 나이냐? 몸도 약하고 하고요. 호호호.(웃음) 그래서 이제 삼억 해서 이제 태양열 그거 해서 이제 다달이

아무리 안 나와도 사백은, 지난달에는.)

102016 @ 하영 나왔수다예.(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2016 #2 예, 겐디 우리 농사짓는.(예, 그런데 우리 농사짓는.)

102016 @ 몇 평이라마씨?(몇 평인가요?)

102016 #2 천 평.(천 평.)

102016 @ 천 평에 그 정도 나와마씨?(천 평에 그 정도 나와요?)

102016 #2 예.(예.)

102016 @ 한 달에 사오백만 원.(한 달에 사오백만 원.)

102016 #2 예, 예, 처음 달엔.(예, 예, 처음 달엔.)

102016 #1 벳 나민 육칠백 나와.(벳 나면 육칠백 나와.)

102016 #2 겐디 저 농사짓는 무슨걸로 이자 썬 거예, 그걸로 제주은행에 융자예.(그런데 저 농사짓는 무엇으로 이자 썬 거요, 그걸로 제주은행에 융자요.)

102016 @ 융자해줘마씨?(융자해줘요?)

102016 #2 예, 예. 저 농사짓는 저리 자금으로, 저리 자금으로 해주난예, 오 년 후에 원금이영 이자영 문텐 허난, 그거 빨리 물어불민 안 돼스넨 허난 그 저리 자금으로 썬 건 흔꺼번에 못 문텐 험디다. 이자허고 영 허영 헌텐 허난. 이제 그거. 우리도 삼억 들어가고.(예, 예. 저 농사짓는 저리 자금으로, 저리 자금으로 해주니까요, 오 년 후에 원금이랑 이자랑 문다고 하니까, 그거 빨리 물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니까 그 저리 자금으로 썬 건 한꺼번에 못 문다고 합디다. 이자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 우리도 삼억 들어가고.)

102016 @ 나도양, 누게 들어실 겨우다만 색달리<sup>65)</sup>, 거기 승키 ㄴ튼 거 갈안양, 울리부떠 해보카 허연, 경 험수다.(저도요, 누구 들었을 것입니다만 ‘색달리’, 거기 푸성귀 같은 거 같아서요, 올해부터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2016 #2 맞수다게, 거 겐디 아니 저 퇴직허영 나사민 일거리가 좀 이서야 웨어마씨.(맞습니다, 거 그런데 아니 저 퇴직해서 나서면 일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102016 #1 강○○이, 가이 색달리 잇지?(강○○이, 그 아이 색달리 잇지?)

102016 #2 안 죽언. 거 중문<sup>66)</sup>이주게, 색달이난게.(안 죽었어. 거 중문이지요, 색달이니까.)

102016 #1 색달이라 원래 아방네가.(색달이야 원래 아버지네가.)

102016 @ 아니, 색달리면 나 흰허게 압니다.(아니, 색달리면 나 흰허게 압니다.)

102016 #1 아방네 색달리라.(아버지네 색달리야.)

102016 #2 색달리, 우리 켜당도 색달리, 저 광주<sup>67)</sup> 살명 그 색달리 왕 과수원허고, 강씨 이서마씨. 알아집니까?(색달리, 우리 켜당도 색달리, 저 광주 살면서 그 색달리 와서 과수원하고, 강씨 있어요. 알 수 있습니까?)

102016 @ 돌아가시지 안 허연?(돌아가시지 않았어?)

65) ‘색달리’는 서귀포시 색달동을 말한다.

66) ‘중문’은 서귀포시 중문동을 말한다.

67) ‘광주’는 광주광역시를 일컫는다.

102016 #2 돌아가신가마씨, 광주 살단.(돌아갔는가요, 광주 살다가.)  
 102016 #1 얼굴 쫄락허고 안경 끼고.(얼굴 길쭉하고 안경 끼고.)  
 102016 #2 강씨.(강씨.)  
 102016 @ 아, 계난 우리 아버지허고 저 동창이라.(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저 동창이야.)  
 102016 #2 기파?(그렇습니까?)  
 102016 @ 아흔한 살.(아흔한 살.)  
 102016 #2 예, 경 뵈수다. 그거 신평<sup>68</sup>양 우리 오빠여예 스춘덜이우다, 그 어른네가.(예, 그렇게 뵈습니다. 그거 신평리요 우리 오빠 사촌들입니다, 그 어른네가.)  
 102016 @ 아, 강씨 맞수다.(아, 강씨 맞습니다.)  
 102016 #2 색달리 저 무슨거 과수원 햄젠 말을 들어서마씨.(색달리 저 무엇 과수원 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102016 @ 저 우리 아버지허고 동갑.(저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  
 102016 #2 광주 살아났수다.(광주 살았었습니다.)  
 102016 @ 예, 예, 광주. 그 부인도 광주, 부인이 광주난.(예, 예, 광주. 그 부인도 광주, 부인이 광주니까.)  
 102016 #2 예, 예. 거기가 우리 오빠네영 제일 가까운 권당덜이우다.(예, 예. 거기가 우리 오빠네랑 제일 가까운 권당들입니다.)

### 3. 밭일

#### 보리농사

103001 @ 오늘은양, 밭일에 대해서 물어보쿠다. 밭일에는 어떤 것들이 잇수가?  
 (오늘은요, 밭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밭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01 #2 지금마씨?(지금요?)  
 103001 @ 예, 밭일, 옛날마씨, 옛날 밭일?(예, 밭일, 옛날요, 옛날 밭일?)  
 103001 #2 옛날 밭디 허는 건 이제난 이제 기계화가 돼 가지고 탈탈이로 밭도 같고 햄주마는, 옛날엔 쉼로 밭을 갈아십주.(옛날 밭에 하는 건 이제니까 이제 기계화가 돼 가지고 경운기로 밭도 같고 하고 있지만, 옛날엔 소로 밭을 갈았지.)  
 103001 @ 예, 계난에 거 저 밭일 종류, 종류?(예, 그러니까 거 저 밭일 종류, 종류?)  
 103001 #2 종류, 우리 어린 뎨 보리, 콩, 조, 산디, 나룩, 그거 이십주게, 꽤 농사.(종류, 우리 어린 뎨 보리, 콩, 조, 밭벼, 벼, 그거 잇습지요, 참깨 농사.)  
 103002 @ 거민양, 보리농사 짓젠 허민 어떤 준비를 험니까?(그러면요, 보리농사

68) '신평'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이다.

지으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합니까?)

103002 #2 하이고, 보리농사 지젠 허민예, 막 옛날엔 이제 닭지 아니허영 힘들엇수다, 옛날엔 돼지 질루와근에 거기 막 이 마당이 막 스뭇 검질ㄴ튼 거 막 담아냥, 돼지 그 통시에 그걸 담아노민 돼지가 그걸 막 불러갖고 걸름이 돼영.(아이고, 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요, 아주 옛날엔 이제 같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옛날엔 돼지 길러서 거기 마구 이 마당에 마구 사뭇 김 같은 거 마구 담아놔서, 돼지 그 돼지우리에 그걸 담아 놓으면 돼지가 그걸 마구 밟아 가지고 거름이 돼서.)

103002 @ 돼지엔 험니까? 도새기엔 험니까?(돼지라고 험니까? ‘도새기’라고 험니까?)

103002 #2 도새기가. 계민 계 그거 일 년에 한번 가는 거 아니우짜? 그것도 일 년에 한번에 걸름을 냅주, 통시에 거, 내어근에 그거에 보리씨 빼영, 비료 빼영, 쉼로 불랑, 멩텅이 보고 멩테기라 험니까, 저 뭐라 험니까. 멩테기에 그거 허영 옛날엔 집집마다 구르마도 엇엇수다. 쉼질메 허영 양쪽에 멩텅이 하나씩 실렁 밧디 강평, 또 굴체 허영 허리에 창, 옛날엔 그거 걸름 냅, 그거로 밧 갈아십주.(돼지가. 그러면 그래 그거 일 년에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 년에 한번 거름을 내놓지, 돼지우리에 거, 내놓아서 그거에 보리씨 뿌려서, 비료 뿌려서, 소로 밟아서, 망태기 보고 ‘멩테기’라 험니까, 저 뭐라 험니까. 망태기에 그거 해서 옛날엔 집집마다 마차도 없었습니다. 소길마 해서 양쪽에 망태기 하나씩 실어서 밧에 가서 퍼서, 또 삼태기 해서 허리에 차서, 옛날엔 그거 거름 놓아서, 그거로 밧 갈아습지요.)

103003 @ 예, 거민양, 그 보리밧 걸름 어떻 준비험니까?(예, 그러면요, 그 보리 밧 거름 어떻게 준비험니까?)

103003 #2 계난 그것을 통시에서 헤영 거기 보리씨 막 빼영, 비료 옛날엔, 이제 난 비료도 핫주마는, 옛날엔 비료도 얼마 엇어십주게양, 경허민 그거 막 보리, 쉼로 보리 영 허영 막 합쳐지게, 막 불렁은에, 경 허영 강 그거 손으로 퍼당은에 밧디 뿌령 보릴 갈아십주.(그러니까 그것을 돼지우리에서 해서 거기 보리씨 마구 뿌려서, 비료 옛날엔, 이제니까 비료도 많지만, 옛날엔 비료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마구 보리, 소로 보리 이렇게 해서 마구 합칠 수 있게, 마구 밟아서, 그렇게 해서 가서 그거 손으로 퍼다가 밧에 뿌려서 보릴 갈았습지요.)

103004 @ 보리는 언제 누게가 갑니까?(보리는 언제 누가 갑니까?)

103004 #2 그때 당신 어머니 아버지 실 땐 아버지가 같고, 결혼은 허영 오난 서방이 그걸 갈아십주.(그때 당신 어머니 아버지 있을 땐 아버지가 같고, 결혼은 해서 오니까 서방이 그걸 갈았습지요.)

103004 @ 계난 언제 보리 갈아마씨?(그러니까 언제 보리 갈아요?)

103004 #2 시월달에마씨.(시월에요.)

103004 @ 시월달에.(시월에.)

103004 #2 예.(예.)

103004 @ 거 보리밧은 누게가 갈았수가?(거 보리밧은 누가 갈고 있습니까?)

- 103004 #2 서방님이 갑주, 누계가 갑니까?(서방님이 갑지요, 누가 갑니까?)
- 103005 @ 그다음에 저 보리씨는 어떻 뿌릅니까?(그다음에 저 보리씨는 어떻게 뿌릅니까?)
- 103005 #2 계난 나가 통시에서 걸름을 내영 그거 보리씨 막 허민 굴체를 허리에 막 창, 그거 즐게 즐게 찢으멍 손으로 막 밧더레 빼어예, 그렇게 헤 가지고 보리를 옛날엔 갈아십주.(그러니까 내가 돼지우리에서 거름을 내놓아서 그거 보리씨 마구 하면 삼태기를 허리에 마구 차서, 그거 잘게 잘게 찢으면서 손으로 마구 받으로 뿌려요, 그렇게 헤 가지고 보리를 옛날엔 갈았습지요.)
- 103006 @ 그다음에 보리 종류 잇지 안허파?(그다음에 보리 종류 잇지 않습니까?)
- 103006 #2 예.(예.)
- 103006 @ 어떤 것덜 잇수가?(어떤 것들 잇습니까?)
- 103006 #2 쌀보리도 잇고, 맥주보리도 잇고.(쌀보리도 잇고, 맥주보리도 잇고.)
- 103006 @ 슬보리엔 험니까? 슬오리엔 험니까?('슬보리'라고 합니까? '슬오리'라고 합니까?)
- 103006 #2 슬오리, 슬오리.(쌀보리, 쌀보리.)
- 103006 @ 슬오리, 슬오리, 예.(쌀보리, 쌀보리, 예.)
- 103006 #2 예, 슬오리. 슬오리는 밥헙 먹고, 옛날 걸보리는 풀양은에 맥주회사에 간덴 허영.(예, 쌀보리. 쌀보리는 밥해서 먹고, 옛날 걸보리는 팔아서 맥주회사에 간다고 해서.)
- 103006 @ 걸보리가?(걸보리가?)
- 103006 #2 예, 걸보리 아니고 맥주보리마씨. 원래 걸보리엔 험 것도 잇고, 맥주보리가 잇고.(예, 걸보리 아니고 맥주보리요. 원래 걸보리라고 한 것도 잇고, 맥주보리가 잇고.)
- 103006 @ 그 다른 보리 종류는 잇수가?(그 다른 보리 종류는 없습니까?)
- 103006 #2 밀, 밀.(밀, 밀.)
- 103006 @ 밀허고 보리허곤 틀린 거난예.(밀하고 보리하고는 다른 거니까.)
- 103006 #2 예.(예.)
- 103006 #1 검은보리.(검은보리.)
- 103006 #2 그거는 이제사 난 거.(그거는 이제야 난 거.)
- 103006 #1 아니, 그때 옛날에도 이서서.(아니, 그때 옛날에도 있었어.)
- 103006 @ 무슨 보리마씨?(무슨 보리요?)
- 103006 #2 떡보리, 떡보리.(떡보리, 떡보리.)
- 103006 #1 찰떡.(찰떡.)
- 103007 @ 떡보리, 그다음에 보리밭 밍아났지양?(떡보리, 그다음에 보리밭 밍았었지요?)
- 103007 #2 보리밭은 저 어디 성산<sup>69)</sup> 그쪽더레는 보리밭을 밍으는디 우리 대

정70) 쪽엔 땅이 웨언, 땅이 웨어갓고 밟지 안헛니다. 저 성산, 수산71)더렌 옛날 우리 저 장시 강 보른예, 거기는예 보리 밟는, 굴리는 것이 쉽디다. 켜디 우리 대정은 그런 뭐가 엇수다.(보리밭은 저 어디 성산 그쪽으로는 보리밭을 밟는데 우리 대정 쪽엔 땅이 되어서, 땅이 되어 가지고 밟지 않습니다. 저 성산, 수산으로는 옛날 우리 저 장사 가서 보면요, 거기는요 보리 밟는, 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정은 그런 뭐가 없습디다.)

103007 @ 그 저, 뜯 땅 ㄴ뜯 디.(그 저, 뜯 땅 같은 데.)

103007 #2 뜯 땅 ㄴ뜯 디도예 여기는 밟지 안 허고 조팍은 불러낫수다, 조팍은. 조팍은 말로 해 가지고 불러나신디 보리밭은 불러난 사람 엇엇수다.(뜯 땅 같은 데 도요 여기는 밟지 았고 조밭은 밟았엇습디다, 조밭은. 조밭은 말로 해 가지고 밟았 었는데 보리밭은 밟았던 사람 엇엇습디다.)

103008 @ 보리밭디 검질뻐 때 몇 번 맴수강?(보리밭에 검뻐 때 몇 번 맴고 있 습니까?)

103008 #2 보리 검질 두벌 맴니다.(보리 검 두벌 맴니다.)

103008 @ 두벌.(두벌.)

103008 #2 예, 두벌 메곡, 문 익으면 대우리엔 허영, 대우리 혼번 메고.(예, 두벌 맴고, 모두 익으면 귀리라고 해서, 귀리 한번 맴고.)

103008 @ 세벌은 안 맴니까?(세벌은 안 맴니까?)

103008 #2 세벌은 안 메 봤수다, 우리. 두벌은 메어예.(세벌은 안 메 봤습디다, 우리. 두벌은 매어요.)

103008 @ 조는 세벌 메지양?(조는 세벌 매지요?)

103008 #2 조는 시 불 맴니다. 왜 시 불 메느냐, 스끄당 보민 그 잔잔헌 것을 밑에가 허민 조가 좋질 안 허니까, 크짱허게 허기 위해서 조کم질은 시불 메엇수다. (조는 세 벌 맴니다. 왜 세 벌 매느냐, 슈다가 보면 그 잔잔한 것을 밑에 하면 조가 좋질 안 하니까,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조 김은 세벌 매엇습디다.)

103009 @ 그 보리밭디 검질덜 잇지 안 허파양. 어떤 검질덜 잇수강?(그 보리밭 에 김들 잇지 았습니까, 어떤 김들 잇습니까?)

103009 #2 겨울 검질은 뭉کم질72)이엔 허영 잔잔헌 거예, 그거허고 보리 검질은 대우리 같은 거, 썩도 잇고, 그거 이십니다게, 겨울 검질은. 뭉کم질이라고 막 복삭허 게 낱, 춘비 올라가른 나는 거 잇수다. 그것이 뭉کم질이엔 허영 보리밭은 주로 그 거.(겨울 김은 ‘뭉کم질’이라고 해서 잔잔한 거요, 그거하고 보리 김은 귀리 같은 거, 썩도 잇고, 그거 잇습디다, 겨울 김은. ‘뭉کم질’이라고 아주 많이 나서, 춘비 올라가 면 나는 거 잇습디다. 그것이 ‘뭉کم질’라고 해서 보리밭은 주로 그거.)

103009 @ 여름엔 절환지지양?(여름엔 바랭이지요?)

69) ‘성산’은 서귀포시 성산읍을 총칭하는 말이다.

70) ‘대정’은 서귀포시 대정읍을 총칭하는 말이다.

71)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를 말한다.

72) ‘뭉کم질’은 모자반처럼 생긴 김을 말하는 것 같다. ‘뭉쿨’이라고도 한다.

103009 #2 여름엔 절환지하고 복쿨.(여름엔 바랭이하고 깨풀.)  
 103009 @ 계난 보리밭디는 뭉쿨.(그러니까 보리밭에는 ‘뭉쿨’.)  
 103009 #2 뭉쿨허고 대우리.(‘뭉쿨’하고 귀리.)  
 103010 @ 그다음에 보리 수확해야 될 거 아니우파양. 그 보리 수확허는 과정을  
 한번 말해봅서.(그다음에 보리 수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리 수확하는 과정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103010 #2 보리 수확허는 과정은예, 호미로 비엿, 무경, 또 옛날엔 홀트는 기계  
 가 잇어십주.(보리 수확하는 과정은요, 낫으로 베어서, 묶어서, 또 옛날엔 훑는 기계  
 가 있었습지요.)  
 103010 @ 그거 뭐엔 험니까?(그거 뭐라고 합니까?)  
 103010 #2 틀, 보리틀이엔 허는가.(그네, 보리그네라고 하는가.)  
 103010 @ 보리클.(보리그네.)  
 103010 #2 보리틀. 틀이엔 허지양. 클, 클, 보리클.(보리그네. 그네라고 하지요.  
 그네, 그네, 보리그네.)  
 103010 @ 클.(그네.)  
 103010 #2 클예. 보리클 허영은예.(그네요. 보리그네 해서.)  
 103010 #1 것도 시꺼 와서.(것도 실어 와서.)  
 103010 #2 경 허영 췌로.(그렇게 해서 소로.)  
 103010 #1 췌로 시꺼 와야.(소로 실어 와야.)  
 103010 #2 구르마 나난 디도 우리 옥은 후제 구르마가 나난.(마차 낫던 데도 우  
 리 성장한 후에 마차가 나니까.)  
 103010 @ 질메에 허영.(길마에 해서.)  
 103010 #2 예, 질메에 그레 영 혼쪽에 아홉 못씩 아홉 못씩, 열두 못씩 실르는  
 가? 한쪽에. 경 허영 실러당.(예, 길마에 그리로 이렇게 한쪽에 아홉 못씩, 열두 못  
 썩 실는가? 한쪽에. 그렇게 해서 실어다가.)  
 103010 @ 실령 왕은예.(실어 와서.)  
 103010 #2 실령 왕은예 특 놀영, 또 날짜 잡양 동네 사름덜 수늘영은예 보리 쥐  
 어주는 사름, 보리낭 나오는 데로 무끄는 사름, 뒤치는 사름.(실어 와서 탁 쌓아서,  
 또 날짜 잡아서 동네 사람들 수늘어서 보리 쥐어주는 사름, 보릿짚 나오는 데로 묶  
 는 사름, ‘뒤치는’ 사름.)  
 103010 @ 그때 저 보리클로 홀트지 안 헛수가?(그때 보리그네로 훑지 않았습니  
 까?)  
 103010 #2 예.(예.)  
 103010 @ 홀탕.(훑아서.)  
 103010 #2 보리 홀탕 장만헛주.(보리 훑어서 장만헛지.)  
 103010 @ 그때 거난 호미로.(그때 그러니까 낫으로.)  
 103010 #2 호미로 비엿.(낫으로 베어서.)



103010 @ 호미로 비영이엔 험니까?(낫으로 베어서라고 합니까?)  
 103010 #2 호미로 비, 비는 거, 아이.(낫으로 베, 베는 거, 아니.)  
 103010 @ 꼬창.(꽂아서.)  
 103010 #2 호미로 비어얹주, 보리.(낫으로 베어야지요, 보리.)  
 103010 @ 예, 거 처음에는 비영.(예, 거 처음에는 베어서.)  
 103010 #2 이 클에서 홀트는 건 저 낡 홀타근에.(이 그네에서 훑는 건 저 낡서 훑어서.)  
 103010 @ 그다음에 그저 뭐, 클.(그다음에 그저 뭐, 그네.)  
 103010 #2 그다음에 클은 저 메타기가 이서십주, 메타기 영 올라강 가와 영 올려근에, 그걸로 행은에 장만해십주.(그다음에 그네는 저 탈곡기가 있었습지요, 탈곡기 이렇게 올라가서 벨트 이렇게 올려서, 그걸로 해서 장만했습지요.)  
 103010 #1 우리 거기서 보리 무꺼나십주. 무꺼, 무쟁은에. 홀타근에.(우리 거기서 보리 묶었습지요. 묶어, 묶어서. 훑어서.)  
 103011 @ 보리 테작 안 해 봅디가?(보리 타작 안 해 봤습니까?)  
 103011 #2 우리 콩, 보리 테작도 옛날엔 험도 해서예, 도끼로.(우리 콩, 보리 타작도 옛날엔 하기도 했어요, 도리끼로.)  
 103011 @ 끈차근에 해근에.(꽂아서 해서.)  
 103011 #2 예, 도끼로예, 경헌디 하지 안 헌 사름덜은 쪼겐 허게 갈앙 밧도 옛곡 허는 사름은 도끼로 테작헌 사름도 더러 이십디다. 우리 어릴 때 보난 이신디, 우리 옥은 후에는 그자 기계로예, 가와로 영 올라가는 메타기엔 험니까, 그거에 올령 장만했수다.(예, 도리끼로요, 그런데 하지 안 한 사람들은 조금 하게 갈아서 밧도 없고 하는 사람은 도리끼로 타작한 사람도 더러 있습디다.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있는데. 우리 성장한 후에는 그자 기계로요, 벨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탈곡기라고 합니까, 그거에 올려서 장만했습니다.)  
 103011 @ 그 발동기.(그 발동기.)  
 103011 #2 예, 발동기 살리왕. 마당에 막 홀타와근에, 마당에서 장만, 옛날엔 험수다.(예, 발동기 살려서. 마당에 마구 훑어와서, 마당에서 장만, 옛날엔 했습니다.)  
 103011 @ 예, 아, 거난 나도 옛날, 그 발동기.(예, 아, 그러니까 나도 옛날, 그 발동기에.)  
 103011 #2 발동기예.(발동기요.)  
 103011 @ 거난 발동기 소리 나면 동네 어린아이덜 다 모였주마씨.(그러니까 발동기 소리가 나면 동네 어린아이들 다 모였지요.)  
 103011 #2 맞수다게, 이젠 차가 성 험주마는, 옛날엔 구르마에 실령 허영 다니명 험수다.(맞습니다, 이젠 차사 있어서 했지만, 옛날엔 마차에 실어서 해서 다니면서 했습니다.)  
 103011 @ 사름 몸으로 끓영은에.(사름 몸으로 끌어서.)  
 103011 #2 예.(예.)

103011 @ 켄 그때 돛통 우에 거 뭐냐, 뽕낭 여름.(그래서 그때 돼지우리 위에 거 뭐냐, 뽕나무 열때.)

103011 #2 예, 호호호.(웃음)(예, 호호호.(웃음))

103011 @ 아, 그거 거머허게 익으난에 그거 타 먹젠 올라갓단에.(아, 그거 거머허게 익으니까 그거 따 먹으려고 올라갔다.)

103011 #2 털어전양.(떨어져서요.)

103011 @ 벌른 돌. 거 떨어전에, 이 손 끈어먹고양.(깡 돌. 거 떨어져서, 이 손 끊어먹고요.)

103011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3011 @ 여섯 슬때 현 건데.(여섯 살 때 한 것인데.)

103011 #1 자파리 썰어났구나.(장난이 세었구나.)

103011 @ 아, 경 현에 군대도 안 갖다 왔수다게.(아, 그렇게 해서 군대도 안 갖다 왔습니다.)

103011 #2 으으, 옛날엔게 요 삼동 하나나 보리탈 하나나 질레에 나는 거, 먹을 거 엿을 때난.(아아, 옛날엔요 요 상동 하나나 산딸기 하나나 길에 나는 거, 먹을 거 없을 때니까.)

103011 @ 거난마씨게.(그러니까요.)

103011 #2 오죽 타 먹으레 다녔수가, 우리도 어릴 때 경 헤낫수다게.(오죽 따 먹으러 다녔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11 @ 아 거난, 나, 그 지경, 돛통 우에 검은 보리탈이 잇더라고.(아 그러니까, 나, 그 지경, 돼지우리 위에 산딸기가 잇더라고.)

103011 #2 아, 경 헤낫구나.(아, 그렇게 했었구나.)

103012 @ 거고양, 보리쌀 장만해야 켈 거 아니우꽈? 옛날.(그리고요, 보리쌀 장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103012 #2 예.(예.)

103012 @ 그때는.(그때는.)

103012 #2 그때는예, 보리쌀 장만허젠 허민 보리쌀 물 등강, 그 옛날 그 멧돌이엔 허는가마씨.(그때는요, 보리쌀 장만하려고 하면 보리쌀 물 담가서, 그 옛날 멧돌이라고 하는가요.)

103012 @ ㄹ레, ㄹ레.(멧돌, 멧돌.)

103012 #2 ㄹ레, ㄹ레가 아니고 보릴 영 저 방아가 없을 때난에, 아주 옛날엔 멧돌 영 큰 멧돌 잇지 안허꽈?(멧돌, 멧돌이 아니고 보릴 이렇게 저 방아가 없을 때니까, 아주 옛날엔 멧돌 이렇게 큰 멧돌 잇지 않습니까?)

103012 @ 연자매.(연자매.)

103012 #2 그거 영 허영 쉼 메왕, 돌이나 쉼나 메왕.(그거 이렇게 해서 소 매워서, 말이나 소나 매워서.)

103012 @ 것 보고 뭐엔 험니까? 돌ㄹ레?(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멧돌?)

103012 #2 돌ㄱ레가 아니고 방에, 방에. 멧돌, 멧돌. 멧돌방에.(멧돌이 아니고 방아, 방아. 멧돌, 멧돌. 멧돌방아.)

103012 @ 돌방에.(연자방아.)

103012 #2 돌방아가 맞아, 돌방아. 경 허영 거 돌로 만든 거 뽕뽕 쉼 몰멍 허영 그걸.(연자방아가 맞아, 연자방아. 그렇게 해서 거 돌로 만든 거 뽕뽕 소 몰면서 해서 그걸.)

103012 @ 표준어로는 연자방압주게.(표준어로는 연자방아지요.)

103012 #2 예, 연자방아 맞수다게, 그거 허영 둘에 한 사람은 쉼 들곡, 그거 당 그네로 올렸다가 내리왔다가 허멍 그걸 막 곱닥하게 저영은에 옛날엔 경 허연 옛날엔 밥도 행 먹어났수다.(예, 연자방아 맞습니다, 그거 해서 둘에 한 사람은 소 몰고, 그거 고무래로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그걸 아주 곱게 찢어서 옛날엔 그렇게 해서 옛날엔 밥도 해서 먹었었습니다.)

103013 @ 보리쌀로 행은에 뭐 험니까?(보리쌀로 해서 뭐 험니까?)

103013 #2 보리쌀로 행 밥행 먹곡, 또 ㄱ레에 곶양 즈베기도 행 먹곡, 경 헤십주게.(보리쌀로 해서 밥해서 먹고, 또 멧돌에 갈아서 수제비도 해서 먹고, 그렇게 했습지요.)

103013 @ 또?(또?)

103013 #2 범벅도 행 먹고, 떡도 행 먹고.(범벅도 해서 먹고, 떡도 해서 먹고.)

103013 @ 계역도 행 먹고.(미숫가루도 해서 먹고.)

103013 #2 계역도 행 먹고, 옛날엔 밧디 먹을 거 엇을 때난 보리쌀 곶양 돌레떡<sup>73)</sup> 만들양 밧디 강은에 그거 점심 대양도 허고, 경 헤십주게.(미숫가루도 해서 먹고, 옛날엔 밧에 먹을 거 엇을 때니까 보리쌀 갈아서 ‘돌레떡’ 만들어서 밧에 가서 그거 점심 대신도 하고, 그렇게 했습지요.)

103013 @ 그 보릿ㄱ루 잇지 안허우깡? 보리ㄱ를로는 뭘 헛수가?(그 보릿가루 잇지 않습니까? 보릿가루로는 뭘 했습니까?)

103013 #2 보리ㄱ루로 허영은에 보리 그, 보리ㄱ를은 험 순다리<sup>74)</sup> 험 많이, 즈베기도 험 먹고 헛주마는, 보리 그 방에 정은에 마지막.(보릿가루로 해서 보리 그, 보릿가루는 해서 ‘순다리’ 해서 많이, 수제비 해서 먹고 했지만, 보리 그 방아 찢어서 마지막.)

103013 @ 보릿ㄱ루로 행은에 뭐?(보릿가루로 해서 뭐?)

103013 #2 누룩, 누룩 만들양은에 그거 톱왕 순다리도 행 먹었수게. 그건 이제도 행 먹읍니다, 순다리.(누룩, 누룩 만들어서 그거 띄워서 ‘순다리’도 해서 먹었습니다. 그건 이제도 해서 먹읍니다, ‘순다리’.)

103013 @ 그다음에 보릿ㄱ루 허여근에.(그다음에 보릿가루 해서.)

103013 #2 밥허여근에, 이제난 뭉허주만 옛날엔 밥통 엇곡 허민 밥 흐루해원 먹

73)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표준어 ‘도래떡’과 비슷하다.

74) ‘순다리’는 신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다.

당 밥 남으면 조금 쉴 거 아니우파, 쉬어갈 땐, 그 누룩 허여근에 순다리행은에 먹었수게.(밥해서 이제니까 뭐 하지만 옛날엔 밥통 없고 하면 밥 하루종일 먹다가 밥 남으면 조금 쉴 거 아닙니까, 쉬어갈 땐, 그 누룩 해서 ‘순다리’ 해서 먹었습니다.)

103013 @ 계난 순다리가 보리밥 쉬어야.(그러니까 ‘순다리’가 보리밥 쉬어야.)

103013 #2 예, 보리밥 쉬어가사. 쉬기 전에는 순다리할 밥이 어디 잇수가? 쉬어가사. 경 허영 그거 버리지 말앙.(예, 보리밥 쉬어가야. 쉬기 전에는 ‘순다리’할 밥이 어디 있습니까? 쉬어가야. 그렇게 해서 그거 버리지 말고.)

103013 @ 옛날 할망덜은 냉기는 것이 하나도 었어.(옛날 할머니들은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

103013 #2 예.(예.)

103013 @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거 도새기안티 가는 거주게.(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거 돼지한테 가는 거지요.)

103013 #2 예, 경허민 그거 이제, 이제 설탕이나 시난 놔서 먹나, 옛날엔 사카린 현 거에.(예, 그러면 그거 이제, 이제 설탕이나 있으니까 넣어서 먹나, 옛날엔 사카린 한 거에.)

103013 @ 당원?(당원?)

103013 #2 당원<sup>75)</sup>, 아니 당원도, 사카린 난 후에 나고.(‘당원’, 아니 당원도, 사카린 난 후에 나고.)

103013 @ 사카린 다음에 당원.(사카린 다음에 당원.)

103013 #2 사카린 그다음 당원, 경 허연 그거 낱 들민 그걸 스뭇 별미로 알앙 스뭇 먹었수다.(사카린 그다음 당원, 그렇게 해서 그거 넣어서 달면 그걸 사뭇 별미로 알아서 사뭇 먹었습니다.)

103013 @ 아이 나도 학교에 다닐 때, 그땐 과자 어실 때난, 당원 그 살레에 이시민 그거 빨아먹으멍 학교 땡겼수다.(아니 나도 학교에 다닐 때, 그땐 과자 없을 때니까, 당원 그 살강에 있으면 그거 빨아먹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103013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3013 @ 그거 맛 존 거니까.(그거 맛 좋은 거니까.)

103013 #2 예, 허이구. 옛날에사 그것이 최고 든 겁주게. 호호.(웃음)(예, 아이고. 옛날에야 그것이 최고 단 거지요. 호호.(웃음))

103014 @ 그다음에 보리낭으로 뭐 했수가?(그다음에 보릿짚으로 뭐 했습니까?)

103001 #2 보리낭으로 불때언 밥을 헤십주. 보리쌀 솥앙. 지들커 귀할 때난. 그걸로 해 보리낭으로 솥앙 밥헤십주게. 이제 그루후엔 나무 땀도 허고 연탄도 때고 했주마는, 그때는 보리낭이 큰 지들컬로 삼앗수다. 집집마다 보리낭 두 늘, 흔 늘 안 눈 집이 었엇수다, 땀감으로.(보릿짚으로 불때어서 밥을 했습지요. 보리쌀 삶아서. 땀감 귀할 때니까. 그걸로 거의 보릿짚으로 삶아서 밥했습지요. 이제 그후에는 나무 때기도 하고 연탄도 때고 했지만, 그때는 보릿짚이 큰 땀감으로 삼앗습니다.)

75) ‘당원’은 음식을 만들 때 달게 만드는 조미료이다.

집집마다 보릿짚 두 가리, 한 가리 안 가린 집이 없었습니다, 빨감으로.)

103014 @ 그다음에 거 마스크으로?(그다음에 거 까끄라기로?)

103014 #2 마스크으론 굴묵<sup>76)</sup> 낚엇수게, 굴묵, 방 뜨시게 행, 겨울에 즘잘 때에. 저 방 땃수게, 방 때언, 걸로 굴묵 낚영.(까끄라기로 ‘굴묵’ 때었습니다, ‘굴묵’, 방 따뜻하게 해서, 겨울에 잠잘 때. 저 방 때었습니다, 방 때었어, 걸로 ‘굴묵’ 때어서.)

103014 #1 내불 게 하나도 엇어.(내버릴 게 하나도 없어.)

103015 @ 그다음에양 보리농사에 얼킨 추억, 보리농사 허멍 엇힌 추억 잊지 안 허파?(그다음에요 보리농사에 엇힌 추억, 보리농사 하면서 엇힌 추억 있지 않습니까?)

103001 #2 보리 허멍 엇힌 추억, 우리 어린 때 보른예, 우린 그렇게 아니허연 먹엇수다만 읍집이 보른예, 쌀이 없으니까 보리 누릿누릿허여 가가민, 보리, 호미 가정 강 보리 고고리 가근에 비어당, 구덕 앓영 강 혼 구덕 비영 왕, 집이 왕 큰 말치<sup>77)</sup>에 낡 솥양 명석에 널영 그것이, 솥양 널영 물리와가민예, 명석에 낡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가가민 그것이 껍죽을 다 벗겨질 거 아이우파? 그것이 그렇게 맛 조양예, 앓양 그거 부병 푸푸 허멍 밥허쟁 솥아노민, 솥아논 사름보단 그거 혼 줌 부병 떡곡 허당 보민 얼마 엇어마씨, 명석으로 하나 헌 거.(보리 하면서 엇힌 추억,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우린 그렇게 안 해서 먹엇습니다마는 옆집에 보면요, 쌀이 없으니까 보리 노릇노릇해 가가면, 보리, 낫 가져서 가서 보리 이삭 가서 베어다가, 바구니 가져서 가서 한 바구니 베어 와서, 집에 와서 큰 ‘말치’에 넣어서 삶아서 명석에 펼쳐서 그것이, 삶아서 펼쳐서 말려가면요, 명석에 놓아서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 가가면 그것이 껍질을 다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맛 좋아서요, 앓아서 그거 비벼서 푸푸 하면서 밥하려고 삶아놓으면, 삶아놓은 사람보다는 그거 한 줌 비벼서 먹고 하다 보면 얼마 없어요, 명석으로 하나 헌 거.)

103015 @ 퍼렁헌 거양?(퍼런 거요?)

103015 #2 옛날엔 퍼렁헌 거, 그거 그렇게 맞서마씨. 썸 가지고 말리우면서 부벼 가지고 먹으른예,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엇어마씨.(옛날엔 퍼런 거, 그거 그렇게 맛있어요. 썸 가지고 말리면서 비벼 가지고 먹으면요,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없어요.)

103015 @ 그거 청보리 때 허는 거 아니우파?(그거 청보리 때 하는 거 아닙니까?)

103015 #2 예, 풋보리 때.(예, 풋보리 때.)

103015 @ 게, 먹을 거 엇이난게.(그럼, 먹을 거 없었으니까.)

103015 #2 먹을 거 어실 때난.(먹을 거 없을 때니까.)

103015 @ 막 비병.(마구 비벼서.)

103015 #2 예, 비병, 또 어린 때 쉼 맥이레 가민 그거 검질, 고사리 ㄴ든 거 낡,

76)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77) ‘말치’는 한 말 정도의 분량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한 말들이 솥의 의미로 쓰였다.

그거 썩 막 부병 치마통에 썩, 경도 허연 먹어났수다, 나 우리 어릴 때에.(예, 비벼서, 또 어릴 때 소 먹이러 가면 그거 김, 고사리 같은 거 놓아서, 그거 구워서 마구 비벼서 치마통에 싸서, 그렇게도 해서 먹었었습니다, 나 우리 어릴 때.)

## 조농사

103016 @ 그다음에 조 농사에 대해영 물어보쿠다예. 조 농사 허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그다음에 조 농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 농사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2 조 농사 허젠 허민 첫째는, 이제는 비료가 시난 해도 옛날엔 비료 옛 일 때난 그 보리낭으로 불을 슴으민 불체가 하영 나오지 아이합니까? 불체 하영 나오민 조 갈젠 허민 그걸 그져강 밧디 강 막 헛쳐예. 헛쳐근에 줍씨 빼영 몰 신 사람은 몰로 막 밧을 불리곡, 몰 옛인 사람은 쉼로, 쉼로 하나 거렁, 네중에는 섬비, 영 허영은에 밧을 펜펜허게 헤사 조가 막 스끄기가 좋을 거난. 그추록 허연에 조 갈아났수다.(조 농사 하려고 하면 첫째는, 이제는 비료가 있으니까 해도 옛날엔 비료 없을 때니까 그 보릿짚으로 불을 때면 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 많이 나오면 조 갈려고 하면 그걸 가져가서 밧에 가서 마구 흘어서요. 흘어서 줍씨 뿌려서 말 있는 사람은 말로 마구 밧을 밟고, 말 없는 사람은 소로, 소로 하나 잡아서, 나중에는 끄게, 이렇게 하여서 밧을 편편하게 해야 조가 아주 슈기가 좋을 거니까. 그 처럼 해서 조 갈았었습니다.)

103017 @ 조팠도 걸름 잇수강?(조밭도 거름 있습니까?)

103017 #2 조팠은 걸름 엇언 우리 어린 때엔 그자 불체 정도나 훗쳐주양. 이젠 비료가 시난 비료 빼엇주마는, 옛날엔 불체가 큰 걸름으로 험디다게.(조밭은 거름 없어서 우리 어릴 때엔 그저 재 정도나 흘었지요. 이젠 비료가 있으니까 비료 뿌렸지만, 옛날엔 재가 큰 거름으로 합디다.)

103018 @ 조는 언제 갈아마씨?(조는 언제 갈아요?)

103018 #2 조는 유월, 유월절 잇지양, 그 그리에 갈아사 마같이<sup>78)</sup> 조 탁허젠. (조는 유월, 유월절 잇지요, 그 무렵에 갈아야 ‘마같이’ 조 탁하려고.)

103018 @ 그러면 무신거 헤난 다음 조 가는 거?(그러면 무엇 하고 난 다음 조 가는 거?)

103018 #2 이 보리 다 허여 들영.(이 보리 다 해 들어서.)

103018 @ 아, 보리 헤난 다음에.(아, 보리 하고 난 다음에.)

103018 #2 예, 보리 헤여들영 유월 스무날이 망종인가?(예, 보리 해 들어서 유월 스무날이 망종인가?)

103018 @ 망종 거의 왓실 거우다.(망종 거의 오고 있을 것입니다.)

103018 #2 예, 거제 왓실 거우다.(예, 거의 오고 있을 것입니다.)

103018 @ 이 현충일 그리에.(이 현충일 무렵에.)

78) ‘마같이’는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 농사 따위이다.

103018 #2 예, 예. 그때에 마감이 조팓을 허면은 그땐 마도 다 걷곡 헐 시기에 맞창 조 같면 김질이 얼마 안 납주게.(예, 예. 그때에 ‘마감이’ 조밭을 허면은 그땐 마도 다 걷고 할 시기에 맞춰서 조 같면 김이 얼마 안 나지요.)

103018 @ 오늘인가 내일인가 기우다.(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렇습니다.)

103018 #1 맞아.(맞아.)

103018 @ 오늘 현충일이난.(오늘 현충일이니까.)

103018 #2 예, 예. 그때 조 농사를 허영 마감이 조팓을 허든 조가 비료 논 것처럼 우뚝우뚝 흐룻밤 지나면 막 커마씨.(예, 예. 그때 조 농사를 해서 ‘마감이’ 조밭을 허면 조가 비료 놓은 것처럼 우뚝우뚝 하룻밤 지나면 아주 커요.)

103018 @ 마감이가 뭐우팡?(‘마감이’가 뭐입니까?)

103018 #2 마감이, 마감이엔 현 건 비 안 맞청은 요 정도로 나도록 비 안 오면 막 마감이 조팓이엔 험니다게. 게민 그것이 막 잘 자라마씨.(‘마감이’, ‘마감이’라고 한 건 비 안 맞춰서 요 정도로 나도록 비 안 오면 막 ‘마감이’ 조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잘 자라요.)

103018 @ 마감이 조팓.(‘마감이’ 조밭.)

103018 #2 예. 경 허여근에 요만히 허면은 그땐엔 이제난 해도 그땐 댓이 수늘 영 조کم질을 메야 험주게. 조کم질은 시불 맵니다.(예. 그렇게 해서 요만큼 허면은 그땐엔 이제니까 해도 그땐 댓이 품앗이해서 조의 김은 세벌 맵니다.)

103019 @ 그다음에 줍씨 어떻 뿌릅니까?(그다음에 조 씨 어떻게 뿌릅니까?)

103019 #2 줍씨예, 흔 줍 쥐면 아홉 번, 열 번 뿌려야마씨. 게난 영 흔 대여섯 번에 허든 조가 너무 좇앙 돼질 아니 허여마씨.(조 씨요, 한 줍 쥐면 아홉 번, 열 번 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여섯 번에 흐면 조가 너무 좇아서 되질 안 해요.)

103019 @ 뿌린덴 험니까, 뺨덴 험니까?(‘뿌린다고’ 합니까, ‘뺨다고’ 합니까?)

103019 #2 뺨, 뺨는 겹주게. 뺨는 거.(뿌, 뿌리는 거지요. 뿌리는 거.)

103019 @ 뿌리는 것이 뺨는 거.(뿌리는 것이 ‘뺨는’ 거.)

103019 #2 예, 뺨는 거.(예, 뿌리는 거.)

103019 @ 게난 흔 줍 쉼면 아홉 번?(그러니까 한 줍 쥐면 아홉 번?)

103019 #2 예, 아홉 번.(예, 아홉 번.)

103020 @ 조팓 어떻 밍읍니까?(조밭 어떻게 밍읍니까?)

103020 #2 조팓은 쉼로 허여근에 쉼로 연 메영, 모가지 무경 연 메영 불립주게.(조밭은 소로 해서 소로 연이어 매어서, 목을 묶어서 연이어 매어서 밍지요.)

103020 @ 거난에 여기서는 물로 험디강? 쉼로 험디강?(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로 험디강? 소로 험디강?)

103020 #2 나 시집, 우리 친정에, 나 처녀 때는 물 엇이난 쉼로 허고 시집은 완보난 우리 시아버님이 물을 흔 쉬 남은 마리 질루왓십디다게. 여긴 오난 물로 불렸수다게. 예.(저 시집, 우리 친정에, 저 처녀 때는 말 없으니까 소로 하고 시집은 와서 보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말을 한 쉬 남은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여긴 오니까

말로 밟았습니다. 예.)

103020 @ 그다음에 뭘로는 안 해봅디가? 남테<sup>79</sup>). 막 이 저 영 터실터실 낭.(그다음에 무엇으로는 안 해봤습니까? '남테'. 마구 이 저 이렇게 터실터실 나무.)

103020 #2 영 요만씩 현 거 툽툽 찢르는 거마씨?(이렇게 요만큼씩 한 거 툽툽 찢르는 거요?)

103020 @ 영 둥그리는 거.(이렇게 굴리는 거.)

103020 #2 거 둥그리는 건예, 우리 이 저, 대정읍은 그런 거 엇고, 저 성산, 수산<sup>80</sup>)이엔 현 딴 간 보난예, 그 나무 요만이 허연, 쉼 영 허연 그걸로 통통통 허난. (거 굴리는 건요, 우리 이 저, 대정읍은 그런 거 없고, 저 성산, 수산리라고 하는 데는 가서 보니까요, 그 나무 요만큼 해서, 소 이렇게 해서 그걸로 통통통 하니까.)

103020 @ 그게 남테엔 현 거마씨.(그게 '남테'라고 한 거요.)

103020 #2 그쪽에는 거 십디다마는 우리 대정 쪽은 그런 것이 엇엇수다.(그쪽에는 거 있습디다만 우리 대정 쪽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103020 @ 그다음, 계란 여기는 물로 불르던지.(그다음, 그러니까 여기는 말로 밟던지.)

103020 #2 물로 허영, 예.(말로 해서, 예.)

103020 @ 쉼로 불리던지. 경 안 허민 쉼비로 쫓던지.(소로 밟던지, 그렇게 안 하면 쫓게로 끝던지.)

103020 #2 아니, 그거 불려난 쫓데 쉼비로 쫓어마씨.(아니, 그거 밟아놓은 끝에 쫓게로 끝어요.)

103020 @ 아, 거난 물로 불려난 다음에 쉼비로 쫓으는 거.(아, 그러니까 말로 밟아놓은 다음에 쫓게로 끄는 거.)

103020 #2 예, 경허민 밧이 멘작허영은예예, 좋지 아니허여마씨? 그 여기선 굴리는 건, 그 방앗돌 닦은 것이 어십디다.(예, 그러면 밧이 평평해서요, 좋지 않습니까? 그 여기선 굴리는 건 그 방앗돌 같은 것이 없습디다.)

103020 @ 나도 잘 몰라신디 텅기당 보면은 조는 무사 제주도에서 불럼시니 허멍 물어봤수다게. 경허난에 뭐냐, 옛날 제주돈 브름이 하난에, 그 조가, 쫓씨가 불려 불카부텐.(저도 잘 몰랐는데 다니다 보면은 조는 왜 제주도에서 밟고 있느냐 하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옛날 제주도는 바람이 많으니까, 그 조가, 조 씨가 불려버릴까 싶어서.)

103020 #2 예, 예.(예, 예.)

103020 @ 그 땅에 들어가게끔.(그 땅에 들어가도록.)

103020 #2 그것도 그거주마는 조는 탄탄해야, 뿌리가 탄탄해야 조가 좋읍주게. 경 허는 따문 조는 불리곡, 보리는 그대로 하고.(그것도 그거지만 조는 단단해야, 뿌리가 단단해야 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 조는 밟고, 보리는 그대로 하

79)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밧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이다.

80)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를 말한다.



고.)

103020 @ 계난 그 두 가지 이유가 이신게양,(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네요.)

103020 #2 예, 예.(예, 예.)

103020 @ 빨리 잘 붙게 하고, 잘 나게.(뿌리 잘 붙게 하고, 잘 나게.)

103020 #2 예, 예.(예, 예.)

103021 @ 조는 이 조팠디 검질은 몇 번 메엄수가?(조는 이 조밭에 김은 몇 번 매고 있습니까?)

103021 #2 조검질은예, 보통 시불 메어마씨.(조의 김은요, 보통 세벌 매어요.)

103021 @ 시불.(세벌.)

103021 #2 예, 조는예 보리 닻지 아니허영, 일 층, 이 층, 삼 층으로 나는 때문, 그 조코고리가 콧짱해야 그 조를 비영, 이제난 해도 문딱 호미로 툷다 가지고 도계 질을 허영 허기 때문에, 경 허영 시 번 알 조씩 스까불민, 막 7짱케 자랍주게. 경 허영 시불씩 메엇수다.(예, 조는요 보리 같지 않아서, 일 층, 이 층, 삼 층으로 나는 때문, 그 조이삭이 가지런해야 그 조를 베어서, 이제니까 해도 모두 낮으로 뜯어 가지고 도리깨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 번 아래 조의 싹 속아버리면, 아주 가지런하게 자라지요. 그렇게 해서 세벌씩 매었습니다.)

103021 @ 계난 초불이 스끄는 거?(그러니까 애벌이 속는 거?)

103021 #2 예, 초불도 스끄곡, 두불도 스끄곡, 세불도 스끄곡.(예, 애벌도 속고, 두벌도 속고, 세벌도 속고.)

103021 @ 아, 계속 스끄곡.(아, 계속 속고.)

103021 #2 잔잔헌 거, 밑에 신 거 그걸 뽑는 겁주게.(자잘한 거, 밑에 있는 거 그걸 뽑는 거지요.)

103021 @ 거기 저, 조 잘 안 난 딴 스꾼 거 갈랑 심기도 허지양?(거기 저, 조 잘 안 낳던 데는 속은 거 갈라서 심기도 하지요?)

103021 #2 우린 심어보진 안 헛수다마는.(우린 심어보진 안 했습니다마는.)

103021 @ 조 잘 돼는 디 살아부난.(조 잘 되는 데 살아버리니까.)

103021 #2 게, 민 딴 민 디대로 그대로덜 헉디다게. 호호호.(웃음)(그럼, 없는 데는 없는 데대로 그대로들 합디다. 호호호.(웃음))

103021 @ 조 없는 디ㄴ라 민 디엔 헉니까?(조 없는 데더러 ‘민 디’라고 합니까?)

103021 #2 예, 막. 경 허영 없는 딴 없는 디대로 하고.(예, 마구. 그렇게 해서 없는 데는 없는 데대로 하고.)

103022 @ 조팠디 검질은 어떤 검질 잇수가?(조밭에 김은 어떤 김 있습니까?)

103022 #2 조팠디 검질은 거 조 닻은 ㄴ랏, ㄴ랏이엔 헌 검질이 십니다.(조밭에 김은 조 같은 가라지, 가라지라고 한 김이 있습니다.)

103022 @ ㄴ라지?(가라지?)

103022 #2 예, 그거. 그거하고 절란지, 절란지하고. 그 조하고 비슷해노난예, 여름엔 그 검질이 많아마씨. 복검질하고.(예, 그거. 그거하고 바랭이, 바랭이하고. 그 조하고 비슷해 놓으니까, 여름엔 그 김이 많아요. 깨풀하고.)

103022 @ 보면은 식물도, 사름도 스춘이 잇주마는, 이 식물도 스춘이 잇영.(보면은 식물도, 사람도 사춘이 있지만, 이 식물도 사춘이 있어서.)

103022 #2 스춘이 잇어마씨, ㄱ랏도.(사춘이 있어요, 가라지도.)

103022 @ 조는 ㄱ랏이고.(조는 가라지고.)

103022 #2 예.(예.)

103022 @ 저, 보린 대우리.(저, 보린 귀리.)

103022 #2 예.(예.)

103022 @ 그다음에 나룩은 피.(그다음에 버는 피.)

103022 #2 피, 맞수다.(피, 맞습니다.)

103022 @ 스춘덜.(사춘들.)

103022 #2 예, 다 이십니다게.(예, 다 있습니다.)

103022 @ 그다음에 춤웬 갈쟁이.(그다음에 참외는 개똥참외.)

103022 #2 갈제기, 푸께도 잇고. 호호호.(웃음)(개똥참외, 파리도 잇고. 호호호. (웃음))

103022 @ 게고 절란지하고 ㄱ랏.(그리고 바랭이하고 가라지.)

103022 #2 ㄱ랏, 복쿨, 그거 시 가지.(가라지, 깨풀, 그거 세 가지.)

103022 @ 복쿨.(깨풀.)

103022 #2 예, 여름엔 그거 주로 납니다게.(예, 여름엔 그거 주로 납니다.)

103022 @ 그다음에 그 저 뭇 잇지 안허파? 고니쿨.(그다음에 그 저 뭇 잇지 않습니까? 닭의장풀.)

103022 #2 고니쿨이 뭇이파?(닭의장풀이 뭇입니까?)

103022 @ 고니쿨이 그 저 작박에 그거 메영 던져붙어도 살아나는 거.(닭의장풀이 그 저 돌담에 그거 매어서 던져버려도 살아나는 거.)

103022 #2 그것이 고니쿨이엔 안 행 여긴.(그것이 닭의장풀이라고 안 해서 여긴.)

103022 @ 우린 고니쿨이엔 허여.(우린 닭의장풀이라고 해.)

103022 #2 뭇엔 현다마는, 삼 년 ㄱ물아도 죽지 아니허는 검질. 물검질, 물검질, 저 췌비늬도 거나 마찬가지로. 췌비늬도양, 췌비늬도 삼 년 ㄱ물아도 죽지 아니허는 거우다. 고냉이쿨, 고냉이쿨.(뭇이라고 한다면, 삼 년 가물어도 죽지 않는 김. 무릇, 무릇, 저 쇠비름도 거나 마찬가지로. 쇠비름도요 쇠비름도 삼 년 가물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닭의장풀, 닭의장풀.)

103022 @ 아, 이딘 고냉이쿨이엔 곱습니까?(아, 여기는 ‘고냉이쿨’이라고 말합니까?)

103022 #2 예, 고냉이쿨이엔.(예, ‘고냉이쿨’이라고.)

103022 @ 우린 고니쿨이엔.(우린 ‘고니쿨’이라고.)

103022 #2 그자 파란 꽃 요맨씩 저기 새미떡<sup>81)</sup>ㄴ짜.(그저 파란 꽃 요만큼씩 저기 ‘새미떡’같이.)

103022 @ 파랑허우다게.(파랑습니다.)

103022 #2 예.(예.)

103022 @ 고냉이쿨.(답의장풀.)

103022 #2 여기서 고냉이쿨이엔 험니다. 그거양 삼 년 ㄴ물아도 안 죽넨 험니다 게.(여기선 ‘고냉이쿨’이라고 합니다. 그거요 삼 년 가물어도 안 죽는다고 합니다.)

103022 @ 아, 거난 작박 우티 던정 내불어도 살아 난덴 행.(아, 그러니까 돌담 위에 던져서 내버려도 살아 난다고 해서.)

103022 #2 아, 예, 그거허고 췌비늬은양 작박 우의 던져불어도 삽니다.(아, 예, 그거하고 쇠비름은요 돌담 위에 던져버려도 살아요.)

103022 @ 것도 저 조팍디 나지양?(것도 저 조밭에 나지요?)

103022 #2 납주게, 납니다. 켌디 그거는예 가운데덜은 별로 엇고, 우리 담 에엮 ㄴ튼 디 강 많이 나마씨, 그거.(나지요, 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가운데들은 별로 없고, 우리 담 옆에 같은 데 가서 많이 나요, 그거.)

103022 @ 아, 요번에 미짱냥밧디 강 보난 그 고니쿨덜 많이 난에. 그다음에 저 제비꽃, 제비꽃풀, 퍼렁헌 거. 것도 잘 안 죽어, 제초제 해도.(아, 요번에 굴나무밭에 가서 보니까 그 답의장풀들 많이 나서. 그다음에 제비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제비꽃과의 여러해살이풀, 퍼런 거. 그것도 잘 안 죽어, 제초제 해도.)

103022 #2 제비쿨, 췌비늬이우다, 췌비늬.(제비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쇠비름입니다, 쇠비름.)

103022 #1 천상쿨.(망초.)

103022 #2 천상쿨은 아니고 췌비늬이 잘 안 죽는 거. 나민 즉시 또 행 놔두면 또 나곡, 또 나곡. 씨 끊기가 잘도 힘들어.(망초는 아니고 쇠비름이 잘 안 죽는 거. 나면 즉시 또 해서 놔두면 또 나고, 또 나고. 씨 끊기가 잘도 힘들어.)

103023 @ 그다음에양, 조 수확은 어떻 험니까? 아까 보리 헛고, 조 수확할 때.(그다음에요, 조 수확은 어떻게 험니까? 아까 보리 헛고, 조 수확할 때.)

103023 #2 조 수확할 땐양, 그거 경 행 나사민 구월 날 거 아이우파? 구월 나민 조 익으면 호미로 비엿 무꺼뵙, 저 영 께 털엿, 께 비어당 털엿, 조 무끄당 집이서 앓양 호미로 그걸 다 일일이 톨읍니께, 톨양으네양, 조는 도께질을 하엿 험니다. 도께로 그거 장만허엿, 경 안 허민 옛날 그저 돌방아, 돌방아, 그 우이서 가근에 순번대로 조코고리 혼 멧 개 낵, 경 헤 낵 순번대로 헛당은에 그걸로 강은에 둥그려 오고.(조 수확할 땐요, 그거 그렇게 해서 나서면 구월 날 거 아닙니까? 구월 나면 조 익으면 낫으로 베어서 묶어 뒤서, 저 이렇게 매끼 만들어서, 매끼 베어다가 만들어

81) ‘새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서, 조 묶다가 집에서 앉아서 낫으로 그걸 다 일일이 뜯습니다, 뜯어서요, 조는 도리깨질을 많이 합니다. 도리깨로 그거 장만해서, 그렇게 안 하면 옛날 그저 연자매, 연자매, 그 위에서 가서 순번대로 조이삭 한 몇 개 놔서, 그렇게 해 놔서 순번대로 했다가 그걸로 가서 굴려서 오고.)

103024 @ 그다음에 아까 말했주마는 조 타작, 아까 뭐 도끼질하고.(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조 타작, 아까 뭐 도리깨질하고.)

103024 #2 도끼, 도끼질로도 해 합니다, 마당에 막 놔근에.(도리깨, 도리깨질로도 많이 합니다, 마당에 마구 놔서.)

103025 @ 그다음에 툄방에.(그다음에 연자매.)

103025 #2 툄방아도 아주 툄방아 순번으로 허쟁 허영 막 기다리당 버친 사름덜은예, 도끼, 도끼로 해 장만합디다게.(연자매도 아주 연자매 순번으로 하려고 해서 마구 기다리다가 부친 사름들은요, 도리깨, 도리깨로 많이 장만합디다.)

103026 @ 좁쌀로 허는 것들이 하지 안 허파? 좁쌀로.(좁쌀로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좁쌀로.)

103026 #2 예, 좁쌀로 조팍도 행 먹곡, 오메기<sup>82)</sup> 찌근에 술도 담양 먹곡, 그렇게 해십주.(예, 좁쌀로 조밥도 해서 먹고, ‘오메기’ 찌서 술도 담아서 먹고, 그렇게 했습지요.)

103026 @ 그다음에 떡?(그다음에 떡?)

103026 #2 예, 조떡, 솟떡, 솟떡.(예, 조떡, 쑥떡, 쑥떡.)

103026 #2 예, 솟떡, 그추록도 허영 먹고, 뭐 좁쌀론 오메기술<sup>83)</sup>을 옛날엔 남자 어른덜, 그 술 먹는 어른덜예, 그걸 경 많이 허영덜 먹읍디다게.(예, 쑥떡, 그처럼도 해서 먹고, 뭐 좁쌀론 ‘오메기술’을 옛날엔 남자 어른들, 그 술 먹는 어른들요, 그걸 그렇게 많이 해서들 먹읍디다.)

103026 @ 그다음에 저 무신것도 행 먹고, 감주?(그다음에 저 무엇도 해서 먹고, 감주?)

103026 #2 감준 옛, 옛. 옛예.(감주는 옛, 옛. 옛요.)

103026 @ 감주도 행 먹었지양?(감주도 해서 먹었지요?)

103026 #2 예, 옛.(예, 옛.)

103026 @ 조로 허영.(조로 해서.)

103026 #2 조로 허영 득엇허고 또 벨벨헌 옛을 다 좁쌀로만 험수게, 그때 당시엔. 감주도 행, 옛 딸리당 덜 딸린 것이 감줍주.(조로 해서 닭엇하고 또 별한 옛을 다 좁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주도 해서, 옛 딸리다가 덜 딸린 것이 감주지.)

103026 @ 그 탁배기도 조로 허지양?(그 탁배기도 조로 하지요?)

82)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술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83) ‘오메기술’은 차좁쌀 가루를 익반죽해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 전통 민속주이다.

103026 #2 탁배기<sup>84</sup>)게. 계란 오메기술마씨, 것이.(‘탁배기’요. 그러니까 ‘오메기술’요, 것이.)

103026 @ 아, 탁배기가 오메기술이구나.(아, 탁배기가 오메기술이구나.)

103026 #2 예, 것이 오메기술마씨. 옛날에 요런 항 허영 한 혼 말 허민 요보단 흐끔 큰 걸로.(예, 것이 오메기술요. 옛날에 요런 독 해서 한 한 말 하면 요보다는 조금 큰 걸로.)

103026 @ 추니<sup>85</sup>), 추니.(‘추니’, ‘추니’.)

103026 #2 예, 그거 허영덜 허민 남자 어른덜 가명 혼 사발 먹곡, 오명 혼 사발 먹곡 그추룩 험디다게. 우리 집이 하르방<sup>86</sup>)도 나 영 완 허난, 건디 계란 혼 판이 그냥.(예, 그거 많이들 하면 남자 어른들 가면서 한 사발 먹고, 오면서 한 사발 먹고 것처럼 합디다. 우리 집에 ‘하르방’도 나 이렇게 와서 하니까, 그런데 계란 한 판이 그냥.)

103026 @ 가져오랏구나양.(가져왔구나.)

103026 #2 예, 낱은에 거 먹을 때, 혼 사발 먹을 때 거 계란 하나 툇 앓양 꺼내 영 까 낱 먹곡, 경 험디다게.(예, 넣어서 거 먹을 때, 한 사발 먹을 때 하나 툇 가져서 꺼내어서 까 넣어서 먹고, 그렇게 합디다.)

103026 @ 옛날 그 조떡<sup>87</sup>)양, 조떡.(옛날 그 ‘조떡’요, ‘조떡’.)

103026 #2 조침떡<sup>88</sup>)도 허영 먹언, 큰일 때는 조침떡을 주로 헤십주, 침떡.(‘조침떡’도 해서 먹었어, 큰일 때는 ‘조침떡’을 주로 했습지요, 시루떡.)

103026 @ 조침떡이 저 조 반착, 곤쌀 반착 논 거 아니우짜?(‘조침떡’이 저 조 반쪽, 흰쌀 반쪽 넣은 거 아닙니까?)

103026 #2 그 곤쌀, 반지기.(그 흰쌀, 반지기.)

103026 @ 곤쌀이 벨로 엇어부난.(흰쌀이 벨로 없어버리니까.)

103026 #2 엇일 때난 그거 우로 옷 입는 식으로 약간예, 그추룩도 헛수다.(없을 때니까 그거 위로 옷 입는 식으로 약간요, 것처럼 헛습니다.)

103026 @ 좁쌀 반, 곤쌀 반.(좁쌀 반, 흰쌀 반.)

103026 #2 예, 좁쌀은 두 번 놓고, 곤쌀은 혼 번 놓는 식으로 우에 영 입짐만 허영 그추룩도 해 헛수다.(예, 좁쌀은 두 번 놓고, 흰쌀은 한 번 넣는 식으로 위에 이렇게 입지기만 해서 것처럼 거의 헛습니다.)

103027 @ 그다음에 조짚으로 뭐 헛수가?(그다음에 조짚으로 뭐 헛습니까?)

103027 #2 쉼 맥엇수게, 쉼 출로, 쉼 출로 쉼 먹잇감으로.(소 먹엇습니다, 소 풀로, 소 풀로 소 먹잇감으로.)

103027 @ 짚어보진 안 헛지양?(때어보지는 안 헛지요?)

84) ‘탁배기’는 걸러 내지 않은 그대로의 된 술이다.

85) ‘추니’는 술 따위를 담은 준(罇)이다. 기다랗게 둥그스름하며 위아래는 끝이 차차 가늘어진 모양이며, 밑은 얇혀지게 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모양이다.

86)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87) ‘조떡’은 좁쌀 가루로 만들어서 찐 떡이다.

88) ‘조침떡’은 좁쌀 가루에 팥소 따위로 쉼을 얇혀서 찐 시루떡이다.

103027 #2 쉼 쥘, 조 대는 막 억세지 아이힙니까? 억세면 쉼 주당 다 못 먹으면 그 아릅이랑 안아당 불 땀으로도 해, 소 주당 나머지 불 때어십주, 그거 직접 곳당 불 때진 안 헛수다, 소 먹잇감이 엇으난. 이파리 다 먹어난 다음에, 즐기덜 해당은 에.(소 쥘어, 조 대는 아주 억세지 않습니까? 억세면 소 주다가 다 못 먹으면 그 아릅이랑 안아다가 불 때기로도 해, 소 주다가 나머지 불때었습지요, 그거 직접 갖다가 불 때진 안 헛습니다. 소 먹잇감이 없으니까. 일사귀 다 먹은 다음에, 즐기들 해다가.)

103027 #2 예, 예. 경 헛수다.(예, 예. 그렇게 헛습니다.)

103028 @ 그 조 농사 허멍 엇힌 추억 곶아줍서.(그 조 농사 하면서 엇힌 추억 말해주십시오.)

103028 #2 조 농사 허멍 엇힌 추억은 그자 우리 친구덜 으남은이 조کم질을 돌아가멍 메어난 추억벳기 엇수다. 조کم질 혼, 우리 그때가 혼 열아흠은 쉼 때라. 조کم질 메단에 엇장시 지나감시난에 처녀들 댓이 강 엇 혼 가락씩 드렌 허난 엇장신 그 옛날엔 그 니아까로 썩언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녀십주. 게난 엇 혼 가락 드렌 허난 생전 주지 아니 허난 처녀덜토 처녀덜이주, 엇장시 주지 아니 허는 걸 혼 가락씩 빼어 먹언 우리 저 지서에도 가 왓수다. 호호호.(웃음)(조 농사 하면서 엇힌 추억은 그자 우리 친구들 여남은이 조 김을 돌아가면서 매었던 추억밖에 없습다. 조 김 한, 우리 그때가 한 열아흠은 될 때야. 조 김매다가 엇장수 지나가고 있으니까 처녀들 댓이 가서 엇 한 가락씩 달라고 하니까 엇장수는 그 옛날엔 그 수레로 끌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녔습지요. 그러니까 엇 한 가락 달라고 하니까 생전 주지 않으니까 처녀들도 처녀들이지, 엇장수 주지 않는 걸 한 가락씩 빼 먹었어, 우리 저 지서에도 가서 왓습니다. 호호호.(웃음))

103028 @ 옛날 엇 폴레 텡이멍 하영 헛수다게.(옛날 엇 팔러 다니면서 많이 헛습니다.)

103028 #2 앞서서 앓안 먹었주마는 그 사름은 처녀 다섯이 지 하나 못 먹게 막 아짐니까게. 허단 보난 오꼳 모슬포 지서에 간에 고밭해부난 우리 지서에 걸언 텡 여났수다. 호호호.(웃음)(앞에서 가져서 먹었지만 그 사름은 처녀 다섯이 자기 하나 못 먹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만 모슬포 지서에 가서 고밭해 버리니까 우리 지서에 걸어서 다녔었습니다. 호호호.(웃음))

103028 @ 우리 어릴 때도 경 헛수다게. 엇, 엇판 체로 들린 새밭디 가불언 게.(우리 어릴 때도 그렇게 헛었습니다. 엇 엇판 체로 들러서 떠밭에 가버렸어.)

103028 #2 아이고, 우리 혼 가락씩 들린, 막 밧더레 검질메단 간 경 허연 오난 에, 어두와간에 지서에서 호출이 완에 경 허연 갖다 와났수다.(아이고, 우리 한 가락씩 들러서, 마구 밧으로 김매다가 가서 그렇게 해서 오니까, 어두워가니까 지서에서 호출이 와서 그렇게 해서 갖다 왓었습니다.)

103028 @ 그뎨 엇이 최고 아니우파게.(그뎨 엇이 최고 아닙니까.)

103028 #2 먹을 것이 잇엇수가게, 먹을 것이 엇일 때난.(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니까.)

콩 농사

103029 @ 그다음 콩 농사양.(그다음 콩 농사요.)

103029 #2 예.(예.)

103029 @ 콩 농사 저 봤지양?(콩 농사 저 봤지요?)

103029 #2 예, 저 봤수다.(예, 저 봤습니다.)

103029 @ 콩 농사허젠 허민 어떤 준비가 돼야 됩니까?(콩 농사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103029 #2 콩 농사는 뭇, 경 콩 농사는 옛날 보리 갈앙, 보리 꺾데에 콩을 이제, 이제 정도에 갑주, 이제, 요즘 콩 농사 질 때우다. 경허민 그자 콩씨만 빼어근에, 옛날엔 비료가 어디 잇엇수가게. 경 허영 콩 갈앙, 이제는 제초제도 싣고 뭇 잇주마는, 콩 농사 갈민 검질이, 검질이양, 아효, 하여튼 백중 전이 콩검질도 두불 매어사 마씨. 그추록 허연 힘들게 헛수다, 그 시절엔.(콩 농사는 뭇, 그렇게 콩 농사는 옛날 보리 갈아서, 보리 끝에 콩을 이제, 이제 정도에 같지요, 이제, 요즘 콩 농사 질 때입니다. 그러면 그저 콩의 씨만 뿌려서, 옛날에 비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콩 갈아서, 이제는 제초제도 있고 뭇 있지만, 콩 농사 갈면 김이, 김요, 아휴, 하여튼 백중 전에 콩 김도 두벌 매어야. 그처럼 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 시절엔.)

103030 @ 콩은 아까 말했주만 언제 갈아마씨?(콩은 아까 말했지만 언제 갈아요?)

103030 #2 콩 지금 갈 때우다, 지금.(콩 지금 갈 때입니다, 지금.)

103030 @ 계난 콩 갈젠 허민 어떻 갑니깡, 밧 갈앙?(그러니까 콩 갈려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밧 갈아서?)

103030 #2 이젠 탈탈이로도 갈곡 허주마는 그때는 쉼. 쉼로 잠데 메왕 밧 갈아 십주.(이젠 경운기로도 같고 하지만, 그때는 소. 소로 쟁기 매워서 밧 갈았습지요.)

103030 @ 갈앙은에, 그다음에 콩씨 빼어?(갈아서, 그다음에 콩씨 뿌려서?)

103030 #2 콩씨 빼어낱 밧을 갑니다.(콩씨 뿌려놔서 밧을 갑니다.)

103030 @ 콩씨 빼어논 다음에 밧을 갈앙.(콩씨 뿌려놓은 다음에 밧을 갈아서.)

103030 #2 예, 콩씨부터 빼어낱 밧을 갑니다게.(예, 콩씨부터 뿌려놔서 밧을 갑니다.)

103030 @ 게 밧 갈앙은에 그만 다 뉘 거네예.(그래 밧 갈아서 그만 다 뉘 거네요.)

103030 #2 예, 경 행 내불민 콩 낱 검질을 메불민, 익으면 허여 오민 뉘는 거마 씨.(예, 그렇게 해서 내버리면 콩 나서 김을 매버리면, 익으면 해서 오면 되는 거요.)

103031 @ 콩밧 걸름은 없지양?(콩밭 거름은 없지요?)

103031 #2 콩 걸름은 나 이제 생각을 해도 쥐진 걸 닭질 아니허여마씨.(콩 거름

은 나 이제 생각을 해도 쥐진 걸 닭질 않아요.)

103031 @ 옛날도 보든 이 콩은.(옛날도 보면 이 콩은.)

103031 #2 뭇 허민 비료가 이제 ㄴ찌 돈이 싯수가, 뭇 잇수가게.(뭇 하면 비료가 이제같이 돈이 있습니까, 뭇 있습니까.)

103031 @ 비료 생산헌텐 허더라고, 콩은.(비료 생산한다고 하더라고, 콩은.)

103031 #2 경사 헤신디양, 비료 콩 갈명 비료 뿌릴 생각은 아이헤난마씨.(그렇게야 했는지요, 비료 콩 갈면서 비료 뿌릴 생각은 않아요.)

103032 @ 그다음예. 콩씨는 어떻 뿌릅니까?(그다음에 콩의 씨는 어떻게 뿌릅니까?)

103032 #2 콩, 콩썬예, 혼 말지기면 두 뉘, 백오십 평이면 두 뉘.(콩, 콩의 씨는 요, 한 말지기면 두 뉘, 백오십 평이면 두 뉘.)

103032 @ 여긴 혼 말지기가 백오십 평이우짜?(여긴 한 말지기가 백오십 평입니까?)

103032 #2 예, 예.(예, 예.)

103032 @ 이백 평 허는 디도 잇더라고.(이백 평 하는 데도 잇더라고.)

103032 #2 그건 어디 모슬포 쪽더렌 이백 평 허는 디도 싯덴 험디다만 여긴 백오십 평이 혼 말지기로 험니다.(그건 어디 모슬포 쪽으로는 이백 평 하는 데도 잇고 험디다만 여긴 백오십 평이 한 말지기로 험니다.)

103032 @ 백 평을 혼 말지기 허는 디도 잇고.(백 평을 한 말지기로 하는 데도 잇고.)

103032 #2 아이, 그건 모르쿠다마는 여긴 백오십 평.(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긴 백오십 평.)

103032 @ 백오십 평?(백오십 평?)

103032 #2 예, 그걸 경허민 콩 종자 두 뉘 뺏니다, 두 뉘.(예, 그걸 그러면 콩 종자 두 뉘 뿌릅니다, 두 뉘.)

103032 @ 혼 말지기에 두 뉘?(한 말지기에 두 뉘?)

103032 #2 예, 두 뉘.(예, 두 뉘.)

103032 @ 거난 손으로?(그러니까 손으로?)

103032 #2 예, 손으로 빼어마씨.(예, 손으로 뿌려요.)

103032 @ 콩은, 아간.(콩은, 아간.)

103032 #2 콩은예.(콩은요.)

103032 @ 조는 아홉 번 뿌린덴 허고예.(조는 아홉 번 뿌린다고 하고요.)

103032 #2 예, 콩은예, 혼 줌 허민, 조는 즈주즈주 빠지마는 콩은예, 둠신둠신 나기 때문에 다섯 번에 멀찌감치기에, 혼 줌 쥐민 다섯 번을 빼는디, 판 것덜은 두 고지 잡양 빼는디 콩은예, 서너니 고지 잡양, 드물게 빼는 따문, 그추룩 허영은에 빼어 낱.(예, 콩은요, 한 줌 하면, 조는 자주자주 뿌리지만 콩은요, 드문드문 나기 때문에 다섯 번에 멀찌감치요, 한 줌 쥐면 다섯 번을 뿌리는데, 다른 것들은 두 고



지 잡아서 뿌리는데 콩은요, 서너 고지 잡아서, 드물게 뿌리는 때문, 것처럼 해서 뿌려 놔서.)

103032 @ 드물어야 콩은 잘 올라.(드물어야 콩은 잘 여물어.)

103032 #2 예, 예.(예, 예.)

103032 @ 너무 좇으면.(너무 좇으면.)

103032 #2 예, 경 허영 다섯 번에 뿌리민예, 조 ㄱ튼 건, 바람불 땀 딱 두 고지 허영 빼어신디, 콩은 서너니 고지 허영 드물게 빼는 따문, 한 줌 쥐민 다섯 번을 내리는데 그처럼 허영은에 드물게 빼어마씨.(예, 그렇게 해서 다섯 번에 뿌리면요, 조 같은 건, 바람불 땀 딱 두 이랑 해서 뿌리는데, 콩은 서너 이랑 해서 뿌리는 때문, 한 줌 쥐면 다섯 번을 내리는데 것처럼 해서 드물게 뿌려요.)

103033 @ 아까 콩밭은 검질 몇 번 메어마씨?(아까 콩밭은 김 몇 번 매어요?)

103033 #2 콩검질도예 두불 맵니다.(콩 김도요 두벌 맵니다.)

103033 @ 두불?(두벌?)

103033 #2 예, 두불 매어도 ㄱ쿨 아니허여마씨.(예, 두벌 매어도 깨끗하지 않아요.)

103033 @ 세불 매는 것이 조검질이구나.(세벌 매는 것이 조 김이구나.)

103033 #2 예, 조검질, 산디검질은 시불 맵니다.(예, 조 김, 밭벼 김은 세벌 맵니다.)

103033 @ 산디도?(밭벼도?)

103033 #2 예.(예.)

103034 @ 콩밭디는 어떤 검질덜 잇수가?(콩밭에는 어떤 김들 있습니까?)

103034 #2 콩밭디는 그땐 콩밭디는 보른예, 숙, 절란지, 복쿨 그자 그거 주릅디 다게. 숙이 저거 막 이상헌 검질이라마씨. 저 숙이, 콩밭디, 뿌리가 막 번어가는 따문에.(콩밭에는 그땐 콩밭에는 보르면요, 썩, 바랭이, 깨풀 그저 그거 주릅디다. 썩이 저거 아주 이상한 김이에요. 저 썩이 콩밭에, 뿌리가 마구 번어가는 따문에.)

103034 @ 빨리로 번식해부난.(뿌리로 번식해버리니까.)

103034 #2 예, 계난 이 숙은 검질씨 뿌리 끊기가 그렇게 힘듭디다게.(예, 그러니까 이 썩은 김의 씨 뿌리 끊기가 그렇게 힘듭디다.)

103034 @ 계난 빨리 ㄱ쿨이 안 매면 또 나는 거라.(그러니까 뿌리 깨끗이 안 매면 또 나는 거야.)

103034 #2 예, 계속 나곡, 계속 나곡 허는 따문양, 요즘은 제초제로 허연 많이 죽염주마는 그때 당시엔 손으로만 매젠 허난예, 워낙 밭 종곡 검질 씨, 겐디 워낙 밭 종곡 헌 디들은예, 시불까지 매면 깨끗허여마씨. 경해도 콩은 위에만 탁 잡아블민, 해도 크질, 크질 못허니까.(예, 계속 나고, 계속 나고 하는 때문요, 요즘은 제초제로 해서 많이 죽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손으로만 매려고 하니까요, 워낙 밭 좋고 김의 씨, 그런데 워낙 밭 좋고 한 데들은, 세벌까지 매면 깨끗해요. 그래도 콩은 위에만 탁 잡아버리면, 해도 크질, 크질 못허니까.)

103035 @ 콩 수확 어떻 험니까?(콩 수확 어떻게 험니까?)

103035 #2 콩 수확 잘 납니다게.(콩 수확 잘 납니다.)

103035 @ 계난 어떻, 수확할 때?(그러니까 어떻게, 수확할 때?)

103035 #2 수확할 때, 호미로 꺼경.(수확할 때, 낫으로 꺾어서.)

103035 @ 꺼끈덴 허지양? 콩은.(꺾은다고 하지요? 콩은.)

103035 #2 예, 콩은 꺼꿍니다. 그자 영 영 헤 가른 딱딱 꺼꺼져마씨.(예, 콩은 꺾습니다. 그저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딱딱 꺾어져요.)

103035 @ 고사리도 꺼끄는 거고?(고사리도 꺾는 거고?)

103035 #2 예, 고사리추룩 겐디 고사리는 손으로만 꺼끄주만은, 콩은 호미로도, 굴갱이로도 꺾곡, 호미로도 꺾고, 호미로 꺼꺼야마씨. 게른 그거 장만허영 무경 마 당더레 실어다 낱 태작험수게.(예, 고사리처럼 그런데 고사리는 손으로만 꺾지만, 콩은 낫으로도, 호미로도 꺾고, 낫으로도 꺾고, 낫으로 꺾어야. 그러면 그거 장만해서 묶어서 마당으로 실어다 놔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103035 @ 뭘로 헛수가?(무엇으로 헛습니까?)

103035 #2 도께로마씨.(도리깨로요.)

103035 @ 도께로.(도리깨로.)

103035 #2 도께로, 마주. 양쪽에 여기 돌리 사고, 여기 돌리 사곡 허여근에.(도리깨로, 마주. 양쪽에 여기 돌이 서고 여기 돌이 서고 해서.)

103036 @ 콩 허영 뭘, 뭘 허영 먹엇수가?(콩 해서 뭘, 뭘 해서 먹엇습니까?)

103036 #2 옛날엔 콩 허영 보깡, 콩지도 허영 먹곡, 품도 허고, 웬장, 콩 솥양 웬장 담양 그거 일 년 내내 반찬으로 먹엇수게게.(옛날엔 콩 해서 볶아서, 콩자반도 해서 먹고, 팔기도 하고, 된장, 콩 삶아서 된장 담아서 일 년 내내 반찬으로 먹엇습니다.)

103036 @ 그다음에 저 뭘도 허고, 콩ㄱ를 해당은에.(그다음에 저 뭘도 하고, 콩 가루를 해다가.)

103036 #2 콩ㄱ를 허영 콩국 끌렁 먹고.(콩가루를 해서 콩국 끓여서 먹고.)

103036 @ 그다음?(그다음?)

103036 #2 두부도 허영 집이서, 두부도 허영 먹고예.(두부도 해서 집에서, 두부도 해서 먹고요.)

103037 @ 콩찹으로는 뭘 헛수가?(콩대로는 뭘 헛습니까?)

103037 #2 콩찹으론 쉼, 쉼 질르믄 쉼 먹잇감으로 많이 주당 조대ㄱ찌 콩대가 이파리만 쉼 먹어나민 앓아당 땀감으로 헛수다게. 콩찹이엔 험니까?(콩대로는 소, 소 기르면 소 먹잇감으로 많이 주다가 조짚같이 콩짚이 잎사귀만 소 먹어나면 가져다가 땀감으로 헛습니다.‘콩찹’이라고 험니까?)

103037 #2 콩대, 콩대.(콩대, 콩대.)

103037 @ 콩대엔 험니까?(‘콩대’라고 험니까?)

103037 #2 예, 예.(예, 예.)

103037 @ 콩짚이 콩대?(콩짚이 콩대?)

103037 #2 예, 콩대가 막 억셉주게.(예, 콩대가 아주 억세지요.)

103037 @ 옛날 우리 저 출 비레 강은에, 이 콩대로.(옛날 우리 저 꼴 베러 가서, 이 콩대로.)

103037 #2 콩대로 콩 삶아넣은에.(콩대로 콩 삶아놔서.)

103037 @ 갈치, 갈치.(갈치, 갈치.)

103037 #2 갈치도 썩 먹곡, 자리도 썩 먹곡 헛수다게. 쪼금 그것이 대가 굵으난 예 잉경이 저마씨. 게든 그거 자리 구민, 자리에 불체가 데작데작, 그거 불명 그것도 반찬이엔 스룻 손에 집영 먹었수다.(갈치도 구워서 먹고, 자리도 구워서 먹고 했습니다. 쪼금 그것이 대가 굵으니까 잉걸불이 저요. 그러면 그거 자리 구우면, 자리에 재가 다닥다닥, 그거 불면서 그것도 반찬이라고 사룻 집어서 먹었습니다.)

103037 @ 계난 췌낭으로도?(그러니까 참깻대로도?)

103037 #2 췌낭으로.(참깻대로.)

103037 @ 갈치 썩 먹고.(갈치 구워서 먹고.)

103037 #2 갈치도 썩 먹곡, 췌낭도 대가 굵으니까 잉경이 쪼 집주. 썩 자리도 썩 먹고, 고등어도 썩 먹고, 썩 헛수다.(갈치도 구워서 먹고, 참깻대도 대가 굵으니까 잉걸불이 쪼 길지요. 그래서 자리도 구워서 먹고, 고등어도 구워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103038 @ 그다음에 콩 농사에 대해서 얽힌 추억이 잇이민 말해줍서.(그다음에 콩 농사에 대해서 얽힌 추억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103038 #2 콩 농사에 얽힌 추억은 콩 익어가가민 노릿노릿해가민 콩 비어당 혼 말치<sup>89)</sup> 삶양 저녁엔 밧디 갖다오민 먹을 것이 었을 때난 밤이덜 앗앙 친구덜이영 동네 할망덜 오민 앗앙양, 까먹어난 추억벧기 었수다. 호호호.(웃음)(콩 농사에 얽힌 추억은 콩 익어 가면 노릿노릿해가면 콩 베어다가 한 말치 삶아서 저녁엔 밧에 갖다 오면 먹을 것이 었을 때니까 밤에들 앗아서 친구들이랑 동네 할머니들 오면 앗아서요, 까먹었던 추억밖에 었습니다. 호호호.(웃음))

## 밭벼 농사

103039 @ 그다음에양, 산디, 산디 갈아봄디가?(그다음에요, 밧벼, 밧벼 갈아봤습니까?)

103039 #2 예, 갈아낫수다.(예, 갈았었습니다.)

103039 @ 계난 나룩 농사 해 봄디강? 산디 농사해 봄디강?(그러니까 벼농사해 봤습니까? 밧벼 농사해 봤습니까?)

103039 #2 산디 농사도 해 보고 나룩 농사도 해 봤수다.(밭벼 농사도 해 보고, 벼농사도 해 봤습니다.)

103039 @ 계민 산디 농사양, 산디 허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헵니까?(그러면

89) '말치'는 원래 한 말 정도의 분량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한 말들이 솔의 의미로 쓰였다.

밭벼 농사요, 밭벼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39 #2 산디도예, 옛날에는, 이젠, 그때 당시엔 산디에도 불체나벳기 준 기억이 었어마씨, 걸름으로. 그거 허영은에 산디씨 빼영 옛날엔 산디도, 너무 산디는 거리기 때문에 흐끔 드물게 뽑디다게. 켜디 산디 검질도 시불을 메어마씨. 그처럼 허연.(밭벼도요, 옛날에는, 이젠, 그때 당시엔 밭벼에도 재나밖에 준 기억이 없어요, 거름으로. 그거 해서 밭벼 씨앗 뿌려서 옛날엔 밭벼도, 너무 밭벼는 거리기 때문에 조금 드물게 뿌립디다. 그런데 밭벼 김도 세벌을 매어요. 것처럼 해서.)

103039 @ 산디는 묘종 놓진 안 허지양?(밭벼는 모종 놓지는 않지요?)

103039 #2 예, 나룩은 묘종 놔도, 산디는 묘종 안 놓니다.(예, 벼는 모종 놔도, 밭벼는 모종 안 놓니다.)

103039 @ 씨로 뿌렁?(씨로 뿌려서?)

103039 #2 씨로 뿌렁.(씨로 뿌려서.)

103040 @ 거난 산디 언제 갑니까?(그러니까 밭벼 언제 갑니까?)

103040 #2 산디 이전이 갈아십주덜. 이 보리농사 곧 보리 비영 나사민 직시.(밭벼 이전에 갈았지요. 이 보리농사 곧 보리 베어서 나사민 즉시.)

103040 @ 나룩혈 때, ㄴ치 험구나?(벼할 때, 같이 하고 있구나?)

103040 #2 산딘 나룩보단 먼저 갑니다, 먼저 갈아. 나룩은 이제 묘목 낱 장마에 막 싱그지 안 험니까? 산디는예 보리 낱나민 보리 낱 직시 산디 들어갑니다. 게민 그거는 그처럼 험 먹곡, 나룩은 묘종 낱은에 심고.(밭벼는 벼보다는 먼저 갑니다, 먼저 갈아. 벼는 이제 묘목 놔서 장마에 마구 심지 않습니까? 밭벼는요 보리 끝나면 보리 끝 즉시 밭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것처럼 해서 먹고, 벼는 모종 놔서 심고.)

103040 @ 거난 산디 갈 땐 어떻 갈아마씨? 우선 산디씨 뿌렁?(그러니까 밭벼 갈 땐 어떻게 갈아요? 우선 밭벼의 씨앗 뿌려서?)

103040 #2 산디씨 밧, 산디씨 빼영 소로, 잠데로 밧을 갑주. 이젠 경운기로 갈주마는, 그땐 그자 쉼로.(밭벼의 씨앗 밧, 밭벼의 씨앗 뿌려서 소로, 쟁기로 밧을 갈지. 이젠 경운기로 갈지만, 그땐 그저 소로.)

103040 @ 게민 갈양만 내불어?(그러면 갈아서만 내벼려?)

103041 #2 예, 갈양만, 갈양만 내불민양, 산디씨가 납니다게. 게민 검질만 메문, 그거 그처럼 허영.(예, 갈아서만, 갈아서만 내벼리면요, 밭벼의 씨앗이 납니다. 그러면 김만 매면, 그거 것처럼 해서.)

103041 @ 산디밧디 걸름 잇수강?(밭벼밭에 거름 잇습니까?)

103041 #2 산디밧디는 불체나, 불체 신 사름은 빼고, 게 아니문 그냥덜 험디다. 이젠 뭐 비료 팡팡 주주마는 그땐 비료가 어디 잇엇수가? 돈이 한 칩인 비료도 조금 상 뺨 거 닳아마씨. 켜디 그땐.(밭벼밭에는 재나, 재 있는 사람은 뿌리고, 게 아니면 그냥들 합디다. 이젠 뭐 비료 팡팡 주지만 그땐 비료가 어디 잇엇습니까? 돈이 많은 집에는 비료도 조금 사서 뿌린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땐.)

103041 #@ 옛날 화학비료가 엇어났주게.(옛날 화학비료 없었었지.)

103041 #2 예, 경허난양 불체 주젠덜 험디다게, 불체.(예, 그러니까요 재 주려고 들 합디다, 재.)

103042 @ 산디씨, 혼 줌에 어떻 뿌립니까?(밭벼의 씨앗, 한 줌에 어떻게 뿌립니까?)

103042 #2 산디씨도양, 보리씨만이 험니다. 보리씨도 혼 말지긴 두 돼 빠곡, 산디도 혼 말지기민 두 돼 빠고, 쪼오끔 덜 빠여양, 산디는, 보리씨보단은, 왜냐면 이 건 나룩 종류 돼니까 쪼끔 거리거든마씨. 겐디 이 밧디는, 논에는 거리는데, 밧디는 이 나룩만이 비료가 작기 때문에 얼마 거리진 아니허여예. 경헤도 쪼끔 거린덴 허영 보리씨보단 약간 죽영 뺨니다게.(밭벼 씨도요, 보리 씨만큼 합니다. 보리 씨도만 마지긴 두 돼 뿌리고, 밧벼도 한 마지기면 두 돼 뿌리고, 조금 덜 뿌리면요, 밧벼는, 보리 씨보다는, 왜냐면 이 건 벼 종류 되니까 조금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밧에는, 논에는 거리는데, 밧에는 벼만큼 비료가 적기 때문에 얼마 거리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 거린다고 해서 보리 씨앗보다는 약간 적게 뿌립니다.)

103042 @ 거럼구나게, 거렁. 아, 나도 저 북한 금강산 간에 나룩 현 거 영 봤수다. 이 벤 것이, 아메도 남한보다는 거리질 안 헛더라고.(거리고 있구나, 거려서. 아, 나도 저 북한 금강산 가서 벼 한 거 이렇게 봤습니다. 이 벤 것이, 아무래도 남한보다는 거리질 안 헛더라고.)

103042 #2 거리도 아이허곡.(거리지도 않고.)

103042 @ 추윈, 추윈.(추워서, 추워서.)

103042 #2 요만이 허연 웨언, 나도 반 왓수다마는.(요만큼 해서 돼서, 나도 봐서 왔습시다만.)

103042 @ 금강산 갔다 읍디가?(금강산 갔다 읍디까?)

103042 #2 예, 웨질 안 헛수다. 게고 거기 보초 사는 사름덜은 논에 그냥 사가지고예, 보초도 샷고, 우리 나라 사람 간첩으로 가민 곱을 디가 엇영.(예, 되질 안 헛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초 사는 사름들은 논에 그냥 서 가지고요, 보초도 샷고, 우리 나라 사람 간첩으로 가면 숨을 데가 없어서.)

103042 @ 거기 낭덜 엇언게예.(거기 나무들 없던데요.)

103042 #2 예, 겐디 이루 후에 통일이 돼면 돌, 돌 하난 좋으킵디다. 거기 이십디다.(예, 그런데 이후에 통일이 되면 돌, 돌 많으니깐 좋겠습디다. 거기 있습디다.)

103042 @ 금강산에?(금강산에?)

103042 #2 예, 야, 돌덜 우리 집 반착만씩 현 거, 완전 먹돌<sup>90)</sup> 님은 것덜예, 돌은 하십디다만은 우리 사름 간첩으로 가민, 그냥 살양 올 사름이 엇잇킵디다.(예, 야, 돌들 우리 집 반쪽만큼씩 한 거, 완전 '먹돌' 같은 것들요, 돌은 많습디다만 우리 사름 간첩으로 가면, 그냥 살아서 올 사름이 없겠습디다.)

103042 @ 거긴 뽕감덜이 엇인 모양이라예, 다 비어불언.(거긴 뽕감들이 없는 모

90) '먹돌'은 아주 딱딱하고 광택이 나는 돌이다.

양이어서요, 다 베어버려서.)

103042 #2 그 소낭은 밋테 북한은 간 보난, 소나무 밋테 솔잎 하나 떨어진 것이 엇입디다. ㅋ쿨 굽어(그 소나무는 밑에 북한은 가서 보니까, 소나무 밑에 솔잎 하나 떨어진 것이 없습디다. 깨끗이 굽어서.)

103042 @ 엇언. 다 가져간 거지.(없었어. 다 가져간 거지.)

103042 #2 예, 집도 그자 우리 창고식으로 일정케 짓언 다 내 똑 하나씩 돌아전 싯고양.(예, 집도 그저 우리 창고식으로 일정하게 지어서 다 연기 똑 하나씩 달아져서 있고요.)

103042 @ 아, 그디 잘 잤다왔수다양?(아, 거기 잘 잤다왔습니다예?)

103042 #2 우리 모임으로 가 왔수다게. 우리 갑장 모임으로 간, 가신디 저 온천 하난 조읍디다. 물 하난 진짜 조읍디다.(우리 모임으로 가 왔습디다. 우리 갑장 모임으로 갔어, 갔는데 저 온천 하나는 좋습디다. 물 하나는 진짜 좋습디다.)

103042 @ 하하하(웃음), 거 최고.(하하하(웃음), 거 최고.)

103042 #2 예.(예.)

103043 @ 그다음에 산디밧디 검질, 아까 멧 불마씨?(그다음에 발벼발에 김, 아까 멧 벌요?)

103043 #2 시불 매어양. 산디밧디도 검질 시불 맵니다.(세벌 매어요. 발벼발에도 김 세벌 맵니다.)

103044 @ 그다음에 산디밧디 검질은 어떤 검질 잇수가?(그다음에 발벼발에 김은 어떤 김 잇습니까?)

103044 #2 절란지주. 절란지, 복쿨 주장이우다게, 여름 검질은. 절란지, 복쿨이 경 물کم질<sup>91)</sup>이엔 허영양, 그추룩 경 잘 납디다게.(바랭이지. 바랭이, 깨풀 주장입니다, 여름 김은. 바랭이, 깨풀이 그렇게 ‘물کم질’이라고 해서요, 것처럼 그렇게 잘 납디다.)

103044 @ 물کم질?(‘물کم질’?)

103044 #2 물کم질.(‘물کم질’.)

103044 @ 물کم질이 뭐라?(‘물کم질’이 뭐야?)

103044 #2 물کم질은 절란지 닳은 거양, 영 나는 거 잇수다.(‘물کم질’은 바랭이 같은 거요, 이렇게 나는 거 잇습디다.)

103045 @ 산디 수확은 어떻 험니까? 산디 수확.(발벼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발벼 수확.)

103045 #2 산디 수확은 나룩만이 안 납니다. 워낙 좋으면 헤도양.(발벼 수확은 벼만큼 안 납니다. 워낙 좋으면 헤도요.)

103045 @ 클로 것도?(그네로 것도?)

103045 #2 산딘 비영, 것도 클로 훌텨수게. 훌텨에는 말 산딘, 막 7시락 하영 부뜨지 아니험니까? 게민 도계질허영 그거 뿌수왕은에, 게 아니른 막 발로 불르든

91) ‘물کم질’은 조그마한 비에도 잘 자라고, 매기 쉬운 김이다.

가, 발로 얼마나 툄릅니까, 도깨질을 해 험디다.(발벼는 베키서, 것도 그네로 훑습니다. 훑어서 말 발벼는, 막 까끄라기 많이 턄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리깨질을 해서 그거 빵아서, 그렇게 아니면 마구 발로 밟든가, 발로 얼마나 밟습니까, 도리깨질을 많이 합디다.)

103046 @ 산디썰로는 뭘 허여마씨?(발벼썰로는 뭘 해요?)

103046 #2 산디썰로 밥에도 낱 먹고, 이제난 좋은 썰 나난 허주, 제사 때에 그걸로 낱 제삿밥도 허곡, 떡도 해당 먹고 그건 경 므음대로 배넀게 먹어졌수가? 막 아끼멍, 아끼멍 제사 때 그튼 때에 떡도 허곡, 그걸로 멧밥도 허곡 해십주.(발벼썰로 밥에도 넣어서 먹고, 이제니까 좋은 썰 나니까 하지, 제사 때에 그걸로 넣어서 제삿밥도 하고, 떡도 해다가 먹고 그건 그렇게 마음대로 배부르게 먹어졌습니까? 아주 아끼면서, 아끼면서 제사 때 같은 때에 떡도 하고, 그걸로 멧밥도 하고 했습지요.)

103046 @ 모이지양?(메지지요?)

103046 #2 아멧해도 모입니다게.(아무래도 메집니다.)

103046 @ 이 나룩썰 닻지 아니허영.(이 범썰 같지 않아서.)

103046 #2 예, 막 모여마씨. 경해도 그거, 그것도 밥허믄 그렇게 맛 좋아마씨. 보리밥 먹당 그거 먹으면. 호호.(웃음)(예, 아주 메져요. 그래도 그거, 그것도 밥하면 그렇게 맛 좋아요. 보리밥 먹다가 그거 먹으면. 호호.(웃음))

103047 @ 산디찍은 뭘을 헛수가?(발벼짚은 뭘을 했습니까?)

103047 #2 산디찍은 그때 당시에 쉼 맥입디다게, 쉼 맥여, 해 쉼 맥입디다.(발벼짚은 그때 당시에 소 먹입디다. 소 먹여, 많이 소 먹입디다.)

103047 @ 께, 께 털진 안 허여?(매끼, 매끼 틀진 않아)

103047 #2 산디찍은 썰넀부난양, 께도 잘 못 털어마씨. 나룩, 께도 잘 털어짐도, 께도 새 잇이민 썰 턄 때에 썰 무끄는 그 뭘든지, 썰랑은예양, 산디찍은 허는디 나룩찍은 께 해져마씨, 썰 험 때.(발벼짚은 짚아 버리니까요, 매기도 잘 못 틀어요. 벀, 매기도 잘 틀어지기도, 그래도 띵 있으면 꼀 벨 때 꼀 넀는 그 뭘든지, 짚아서요, 발벼짚은 하는데 벀짚은 매끼 할 수 있어요, 꼀 할 때.)

103047 @ 그 저 새 비어단 헛지양, 께는?(그 저 띵 벀어다가 했지요, 매끼는?)

103047 #2 께는 나룩 가는 집이 멧 넀질 안 허면은 항상 새 비어당 하영 해십주게.(매끼는 벀 가는 집이 멧 넀질 않으면은 항상 띵 벀어다가 많이 했습지요.)

103048 @ 산디농사에 대해서 얽힌 추억 말씀해 줍서.(발벼농사에 대해서 얽힌 추억 말씀해 주십시오.)

103048 #2 산디, 마지막 산디 검질멧 때는 이제난 먹거리 좋으난 해도 갈제기 알아집니까?(발벼, 마지막 발벼 검질 때는 이제니까 먹거리 좋으니까 해도 개넀참외 알 수 있습니까?)

103048 @ 예게. 춤웨 스춘.(예. 참외 사춘.)

103048 #2 예, 갈제기낭 살령 넀넀 검질메멍 갈제기낭 험 넀두민, 산디 비레 가

민 갈제기가 누릿누릿누릿, 푸께 난다, 어멍넌 푸께낭도 살렁 놔두민, 부께가 경 맛 좋아마씨, 익으민양.(예, 개똥참외나무 살려서 놔둬서 김매면서 개똥참외나무 해서 놔두면, 밭벼 베러 가면 개똥참외가 누릿누릿누릿, 짜리 난다, 어머니네는 짜리나무 도 살려서 놔두면, 짜리가 그렇게 맛 좋아요, 익으면요.)

103048 #2 경 허멍 타단 먹어난 기억이.(그렇게 하면서 따다가 먹었던 기억이.)

103048 @ 맞수다, 경 험주기. 나도 어릴 땐 경 해낫수다.(맞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나도 어릴 땐 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48 #2 호호호.(웃음) 그거 타 먹어난.(호호호.(웃음) 그거 따 먹었던.)

103048 @ 노는 밭디 가른 갈쟁이허고 저.(노는 밭에 가면 개똥참외하고 저.)

103048 #2 하여튼 산디밧디 가른.(하여튼 밭벼밭에 가면.)

103048 @ 우리 동넌 갈쟁이엔 해낫수다.(우리 동네는 ‘갈쟁이’이라고 했었습니다.)

103048 #2 여기도 갈쟁이엔 험니다게, 노랑케 익은 거.(여기도 ‘갈쟁이’라고 합니다, 노랑케 익은 거)

103048 @ 푸께, 노랑헌 거.(짜리 노란 거.)

103048 #2 예, 그거 먹어난 추억벳기 엇수다. 호호호.(웃음)(예, 그거 먹었던 추억밖에 없습니다. 호호호.(웃음))

## 고구마 농사

103049 @ 그다음에 그 저 고구마 농사, 감저 농사양, 감저 농사허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험니까?(그다음에 그 저 고구마 농사, 고구마 농사요, 고구마 농사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험니까?)

103049 #2 감자 농사 허젠 허민 고구마씨, 감자.(고구마 농사하려고 하면 고구마씨, 고구마.)

103049 @ 감자씨엔 곱서.(‘감자씨’라고 말하십시오.)

103049 #2 예, 감자씨. 그거 그 씨는 언제 놓느냐 허면은 한 이월달에, 음력 한 이월달에 밧디 고구마, 저 메, 씨를 심는 거라예, 경 허연 줄 내왕.(예, 고구마씨. 그거 그 씨는 언제 놓느냐 허면은 한 이월에, 음력 한 이월에 밭에 고구마, 저 모, 씨를 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기는줄기 내워서.)

103049 @ 감저엔 곱읍서.(‘감저’라고 말하십시오.)

103049 #2 감저씨, 고구마가 아니고 감자, 아, 지슬.(고구마씨, 고구마가 아니고 감자, 아, 감자.)

103049 @ 아니, 아니, 고구마인디 고구마가 아니라 감접주게.(아니, 아니, 고구마인데 고구마가 아니라 ‘감저’지요.)

103049 #2 아, 아, 옛날엔 감저엔 험십주게. 그거 경 허여근에 줄 내왕 보리, 이제 보리 빌 철 아이파? 지금. 보리 비어난 곳데에 밧 갈양은에 그 고구마를 심읍니까. 경 허여근에 한 구월달 나문.(아, 아, 옛날엔 ‘감저’라고 했습지요. 그거 그렇게



하여서 기는줄기 내워서 보리, 이제 보리 벨 철 아십니까? 지금, 보리 베어난 끝에 밭 갈아서 그 고구마를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구월 나면.)

103049 @ 지금이 심을 철 아니우꽈?(지금이 심을 철 아십니까?)

103049 #2 예, 지금 심을 철이우다.(예, 지금 심을 철입니다.)

103049 @ 장마철 곧 올 거난.(장마철 곧 올 거니까.)

103049 #2 지금도 비만 오민 그 줄기 논 사름덜은 심엄수다. 비만 오민 그자 죽지 말게 허영, 경 허영 놓으민, 고구마는 검질이 그 막 줄 받는 거라서.(지금도 비만 오면 그 기는줄기 놓은 사람들은 심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그저 죽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해서 놓으면, 고구마는 김이 그 마구 줄기 받는 거라서.)

103050 @ 예, 제가 다시 질문할 거난양. 그다음에 아까 감저는 지금 가는 거양?(예, 제가 다시 질문할 거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고구마는 지금 가는 거요?)

103050 #2 지금 저 심는 거.(지금 저 심는 거.)

103050 @ 줄 해당은에.(기는줄기 해당가.)

103050 #2 줄 해당, 지금 이때 심는 거.(기는줄기 해당가, 지금 이때 심는 거.)

103050 @ 계믄 감저 심젠 허믄 어떻 해야 됩니까?(그러면 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3050 #2 고구마 심젠 허믄 밧 갈양 잠데로 밧 갈민 고지가 혼 고지, 두 고지 나민 그 고지 우의 이렇게 쭈욱 허게 심어가는 거라예.(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밧 갈아서 쟁기로 밧 갈면 이랑이 한 이랑, 두 이랑 나면 그 이랑 위에 이렇게 쪽 하게 심어가는 거야.)

103050 @ 계난 영 밧 갈민 위에 그 노픈 디가 고지엔 험니까?(그러니까 이렇게 밧 갈면 높은 데가 이랑이라고 합니까?)

103050 #2 예, 노픈 디가 고지 맞수다. 이거 고량, 고량. 고량에 앓앙 그 가운데 쭈욱 심어갑니다.(예, 높은 데가 이랑 맞습니다. 이거 고량, 고량, 고량에 앓아서 그 가운데 쪽 심어갑니다.)

103051 @ 감저밧디 걸름은 어떻, 안 험니까?(고구마밭에 거름은 어떻게, 안 합니까?)

103051 #2 켜디 그때 당시에도 감저밧디 걸름이엔 헛쟁양, 쉼똥덜 좇어당 낫당은에, 지금은 비료 허주마는 그때 당시엔 똥똥, 쉼똥 좇어다 낱 그걸양 막 뭇헌 사름은 이렇게 메와놔근에 테와근에 행 낫당, 걸 불체로 뿌리는 사람 웨에는 난 똥 걸름허는 걸 안 봐 봤수다. 또 보리 안 갈양은에 감저 농사 짓젠 허믄 쉼걸름예, 쉼 걸름 ㄱ튼 거, 돼지걸름 ㄱ튼 거, 그거 웨에는 원.(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고구마밭에 거름이라고 했다고요, 소똥들 주워다가 놔다가, 지금은 비료 하지만 그때 당시엔 말똥, 소똥 주워다 놔서 그걸요 막 뭇헌 사름은 이렇게 모여놔서 태워서 해서 놔다가, 걸 새로 뿌리는 사람 웨에는 난 똥 거름하는 걸 안 봤었습니다. 또 보리 안 갈아서 고구마 농사지으려고 하면 쇠두엄요, 쇠두엄 같은 거, 돼지거름 같은 거, 그거 웨에는 원.)

103052 @ 그다음에 감전 어떻 심어마씨?(그다음에 고구마는 어떻게 심어요?)

103052 #2 그 쉼로 잠데로 밧을 갈민 이렁에 쭈욱 심어갑주게.(그 소로 쟁기로 밧을 갈면 이랑에 쭈욱 심어가지요.)

103052 @ 이렁이 고지파?(이랑이 '고지'입니까?)

103052 #2 이렁이 영 노픈 디, 고지.(이랑이 이렇게 높은 데, 이랑.)

103052 @ 거난 이렁이 노픈 디고?(그러니까 이랑이 높은 데고?)

103052 #2 예, 고량은 얇은 디고.(예, 고량은 얇은 데고.)

103052 @ 거난 노픈 이렁에?(그러니까 높은 이랑에?)

103052 #2 예, 이렁에 쭈욱 심어갑니다, 웨줄로, 웨줄로.(예, 이랑에 쭈욱 심어갑니다, 외줄로, 외줄로.)

103053 @ 거난 감저밧디 검질은 어떤 검질덜 이십니까?(그러니까 고구마밭에 김은 어떤 김들 있습니까?)

103053 #2 감저밧은예, 심어근에예, 흐 들반 내지 뉘 가가민 줄기를 받기 시작 허여예, 그 줄기 막 번어불문 쉼로 이 고량을 못 갈잖아예. 그거 낡 요정도 순이 나민 쉼로 잠데로 허영 고량을 쭈욱 갑니다. 게문 고량 갈아불문 검질이 감저 심은 요곳더레만 살아 이십벧기 잇지 안 허여예. 게문 그때에 강 확확 매어불민, 그 감저 줄로 딱 영켜불민 흐 가을쭈은 칠월 팔월쭈엔 우이 하나씩 올른 검질만 돌아다니멍 폭폭폭 매어근에.(고구마밭은요, 심어서 한 달반 내지 돼 가가면 줄기를 받기 시작 해요, 그 줄기 마구 번어버리면 소로 이 고량을 못 갈잖아요. 그거 놔서 요정도 순이 나민 소로 쟁기로 해서 고량을 쭈욱 갑니다. 그러면 고량 갈아버리면 김이 고구마 심은 이곳으로만 살아 있음밖에 잇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확확 매어버리면, 그 고구마 줄기로 딱 영켜버리면 한 가을쭈은 칠월 팔월쭈엔 위에 하나씩 올른 김만 돌아다니면서 팡팡팡 매어서.)

103054 @ 거난 어떤 검질덜 매어마씨?(그러니까 어떤 김들 매어요?)

103054 #2 그 부께 검질산디 개냥 검질산디 막 영 저 노프게 올라오는 거 잇어 마씨. 그거만 매영 말아마씨. 것 보고 뉘.(그 파리 김인지 누리장나무 김인지 마구 이렇게 저 높게 올라오는 거 잇어요. 그거만 매서 말아요. 것 보고 뉘.)

103054 @ 높이 올라가는 검질이?(높이 올라가는 김이?)

103054 #2 것 보고 무신 검질, 헛개냥 달민 검질, 몸빼 가가민 딱딱 부평, 영 지나가민 옷에 딱딱 부뜨는 거, 그거 우의 줄 주질 아니헿, 걸어다니멍 하나씩 매불민, 딱 영켜져불민 검질이 벨로 잇어마씨.(것 보고 무슨 김, 헛개나무 같은 김, 일바지 가가면 딱딱 붙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옷에 딱딱 붙는 거, 그거 위에 줄기 주질 안 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씩 매어버리면, 딱 영켜버리면 김이 벨로 없어요.)

103054 @ 거난 검질 나도 매어 봤주마는.(그러니까 김 나도 매어 봤지만.)

103054 #2 검질 두불은 메고마씨.(김 두벌은 매고요.)

103054 @ 거난 감저 검질이 가장 쉬웁직허여.(그러니까 고구마 김이 가장 쉬울 것 같아.)

103054 #2 예, 고랑으로 싹 갈르곡 해 불민.(예, 고랑으로 싹 가르고 해 버리면.)

103054 @ 계난 그 감저 검질멜 뎨 그 옛날 허민 이 저 감저 쪼금씩 클 때.(그러니까 그 고구마 김멜 뎨 그 옛날 하면 이 저 고구마 쪼금씩 클 때.)

103054 #2 예, 그거 팡 먹고.(예, 그거 파서 먹고.)

103054 @ 그거 팡 먹기도 허고.(그거 파서 먹기도 하고.)

103054 #2 예, 호호(웃음), 영 뺑 땅 벌러지민 확 손고락 디물양 팡 먹고.(예, 호호(웃음), 이렇게 봐서 땅 벌러지면 확 손가락 집어넣어서 파서 먹고.)

103054 @ 손가락만이 현 것덜.(손가락만큼 한 것들.)

103054 #2 예, 호호.(웃음)(예, 호호.(웃음))

103053 @ 감저 검질은 몇 번 맵니까?(고구마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53 #2 감저 검질은 혼불벳기 안 맵니다게. 혼불 메고 여름 지나가명 난 거 하나씩 뽑아불민 그거예.(고구마 김은 애벌밖에 안 맵니다. 애벌 메고 여름 지나가면 난 거 하나씩 뽑아버리면 그거요.)

103053 @ 거난 두불은 메는 거네?(그러니까 두벌은 매는 거네?)

103053 #2 예, 예, 그처럼 합니다.(예, 예, 것처럼 합니다.)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 합니다?(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다?)

103055 #2 고구마 수확은 한 시월달.(고구마 수확은 한 시월.)

103055 @ 줄은 어떻 걷습니까? 줄은.(줄기는 어떻게 걷습니까? 줄기는.)

103055 #2 쉼로마씨, 잠데로.(소로요, 쟁기로.)

103055 @ 쉼로?(소로?)

103055 #2 잠데로 허영 갈민 그 뒤에.(쟁기로 해서 가면 그 뒤에.)

103055 @ 보섭 엇이 갈양?(보습 없이 갈아서?)

103055 #2 예, 보섭, 보섭.(예, 보습, 보습.)

103055 @ 다치민 안 됩니까.(다치면 안 되니까.)

103055 #2 보섭만 메왕 그저.(보습만 메워서 그저.)

103055 @ 아니, 계난 보섭 깎는 건 빠불어야 할 거 아니우파?(아니, 그러니까 보습 끼우는 건 빠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103055 #2 예, 그저.(예, 그저.)

103055 @ 냥으로.(나무로.)

103055 #2 그저 냥으로만 허영 헤뵈, 또 호미 하나 ㄱ정 뒤에서 그거 저 툽툽툽 허명 혼달음씩 혼달음씩 안으명 툽툽툽 허영, 담 우의 이 담 시민 그레 문딱 안아 당 허민 그거 물릅니다게, 거기서.(그저 나무로만 해서 헤뵈서, 또 낫 하나 가져서 뒤에서 그거 저 탁탁탁 하면서 한아름씩 한아름씩 안으면서 탁탁탁 해서, 담 위에 이 담 있으면 그곳으로 모두 안아다가 하면 그거 마릅니다, 거기서.)

103055 @ 거기서 물령.(거기서 말려서.)

103055 #2 예, 경 허영 네중엔 쉼출로도 가져오곡, 경 허영 그거 갈아근에 감저

나오민 옛날엔 먹을 거.(예, 그렇게 해서 나중엔 소의 꼴로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갈아서 고구마 나오면 옛날엔 먹을 거.)

103055 @ 파야 될 거 아니우파?(파야 될 거 아닙니까?)

103055 #2 경허민 쉼로 가운데로 한번만 주욱 벧 타마씨. 벧 타민 손으로 영 영 파민 이제난 허주, 옛날 먹을 거 엇이 살 때난 감저 늘을 장팡뒤에 혼두 늘씩 막 놓니다게, 늘민 겨울에 그거 눈 올 땐 그거 파당 솥양도 먹곡, 해 이 식량으로 해 먹어십주게.(그러면 소로 가운데로 한번만 쪽 벧 타요. 벧 타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파면 이제니까 하지, 옛날 먹을 거 없이 살 때니까 고구마 가리를 장독 뒤쪽에 혼두 가리씩 마구 쌓습니다, 쌓으면 겨울에 그거 눈 올 땐 그거 파다가 삶아서도 먹고, 거의 이 식량으로 거의 먹었습지요.)

103055 @ 계난 그땐 감저 파근에.(그러니까 그땐 고구마 파서.)

103055 #2 감저 늘 허영 늘영 놔뒤뚱서 겨울에 먹고, 찌멍.(고구마 가리 해서 쌓아서 놔뒤 두고 있으면서 겨울에 먹고, 찌면서.)

103055 @ 아, 계난 이제 풀기도 해야 될 거 아니우파? 썩감자로.(아, 그러니까 이제 팔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날고구마로.)

103055 #2 그 썩감자로 그때 당시엔 감저 공장도 엇을 때난 늘어 두서 하영 허 질 아이힙디다. 혼 멧 년 후엔 감저 공장이 생기난 그때엔 막 덜 허여근에 저 풀아 예, 감저 공장에덜.(그 날고구마로 그때 당시엔 고구마 공장도 없을 때니까 쌓아 뒤 서 많이 하질 안 합디다.

103055 @ 것도 허고 감저뺏테기도 헛지양?(것도 하고 절간고구마도 헛지요?)

103055 #2 감저뺏테기도 그루후에, 감저, 늘감저로 폰 후제, 그루후엔 또 감저 물리왕 뺏테기 허렌 허난 감저뺏테기이 허연 우리도 삼백 가마니 정도 뺏테기 허 난.(절간고구마도 뒷날의 어느 때에, 고구마, 날고구마로 판 후에, 뒷날의 어느 때엔 또 고구마 말려서 절간 하라고 하니까 절간고구마 해서 우리도 삼백 가마니 정도 절간고구마 하니까.)

103055 @ 아이고, 하영 해낫수다.(아이고, 많이 했었습니다.)

103055 #2 풀안, 풀아낫수다. 경허민 들밤이 즘을 자젓수가게.(팔아서, 팔았었습니다. 그러면 달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103055 @ 게 비 왁직헛 때게.(그래 비 올 것 같을 때에)

103055 #2 비 왁직허영 들 흰허곡 허민 밤이도 강 거 주윳수다.(비 올 것 같아서 달 흰하고 하면 밤에도 가서 거 주윳습니다.)

103055 @ 우리도 새벽 두세 시에 강은에, 비 왁직허민.(우리도 새벽 두세 시에 가서, 비 올 것 같으면.)

103055 #2 비 왁직허민 허여 가민 영 모엿당 더끄곡.(비 올 것 같으면 해 가면 이렇게 모엿다가 덜고.)

103055 @ 옛날에 감저뺏테기 비 맞앙 거멍해부난, 거 몬 등웨폼이라.(옛날에 절 간고구마 비 맞아서 거메 버리니까, 거 모두 등외폼이야.)

103055 #2 예, 나 우리 아기덜 서 오누이 재와똥 아방<sup>92)</sup>은 한전에 근무 가불민 밤이 나 혼자 이 우영팟디 감자를 뺏테기 허영, 그뎨 비 왓직허민 무슨 생각도 아니허곡 밤이 뺏테기 널민 헤떡헤떡허영예.(예, 나 우리 아기들 세 오누이 재워똥서 ‘아방’은 한전에 근무 가버리면 밤에 나 혼자 이 터알에 고구마를 절간 해서, 그뎨 비 올 것 같으면 무슨 생각도 앓고 밤에 절간 널면 희뜩희뜩해서요.)

103055 @ 하양 거만 주읍니께.(하얀 거만 줍습니다.)

103055 #2 예, 그걸 주어집니다게, 경 헛수다.(예, 그걸 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103056 @ 경 허는 겁주게. 게난 감전 어떻 보관합니까?(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103056 #2 저 구덩이, 저 장팡두<sup>93)</sup>에 구덩이 영 막 팡.(저 구덩이, 저 ‘장팡두’ 구덩이 이렇게 마구 파서.)

103056 @ 장팡두에?(‘장팡두’에?)

103056 #2 장팡두에 무사 이쪽 두에 우영팟.(‘장팡두’ 왜 이쪽 뒤에 터알.)

103056 @ 우영팟디.(터알에.)

103056 #2 우영팟디 구석 부짱 크게 막 파근에 거기 새나 찍이나 뺑허게 둘렁 그레 감자를 막 비왕 우에 영 허영 주짱이 하나 크게 허영 탁 썩왕 내불엇당 겨울에.(터알에 구석 붙여서 크게 마구 파서 거기 떠나 짱이나 빙하게 둘러서 그리 고구마를 마구 부어서 위에 이렇게 해서 주저리 하나 크게 해서 탁 썩워서 내버렸다가 겨울에.)

103056 @ 아, 게난 느람지<sup>94)</sup>로 영 허고.(아, 그러니까 ‘느람지’로 이렇게 하고.)

103056 #2 예, 느람지, 질 우의 느람지 더끄곡, 우에 주짱이 하나.(예, ‘느람지’, 켈 위에 ‘느람지’ 덮고, 위에 주저리 하나.)

103056 @ 느람지 허영 켈 우티 주짱이.(‘느람지’ 해서 켈 위에 주저리.)

103056 #2 경 허영 그거.(그렇게 해서 그거.)

103056 @ 거난 거 옛날 여긴 중이엔 험니까? 쟁이엔 험니까?(그러니까 거 옛날 여긴 ‘중이’라고 합니까? ‘쟁이’라고 합니까?)

103056 #2 중이.(쥐.)

103056 @ 여긴 중이엔 험니까?(여긴 ‘중이’라고 합니까?)

103056 #2 중이가 강 파먹어불고.(쥐가 가서 파먹어버리고.)

103056 @ 아, 파먹어불면은 뭐 허카부텐 뭐도 허지 안헛수가? 쉼철망.(아, 파먹어버리면 뭐 할까 싶어서 뭐도 하지 않습니까? 쇠철망.)

103056 #2 예, 쉼철망.(예, 쇠철망.)

103056 @ 쉼철망도 허고.(쇠철망도 하고.)

103056 #2 쉼철망은 그건 구덩이 허멍 짝 영 둘레로 영 허영, 철망 허영, 경헤

92)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93) ‘장팡두’는 장독을 넣어두는 자리의 뒤쪽이다.

94) ‘느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도양 중이들이 옥양 땅 파명 들어가명 막 먹읍디다.(쇠철망은 그건 구덩이 하면서 짚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해서, 철망 해서, 그래도 쥐들이 약아서 땅 파면서 들어가면서 마구 먹읍디다.)

103056 @ 여긴 중이엔 험구나. 우리도 중문엔 쉿이엔 허여.(여긴 ‘중이’라고 하고 있구나. 우리도 중문엔 ‘쉿이’라고 해.)

103056 #2 중이, 중이, 여긴 중이, 중이엔 험니다. 호호호.(웃음)(쥐, 쥐, 여긴 ‘중이’, ‘중이’라고 합니다. 호호호.(웃음))

103056 @ 거 파먹어불카부덴.(거 파먹어 버릴까 싶어서.)

103056 #2 예.(예.)

103056 @ 거난 이 중이들이 가근에 뭐 먹음만 허민 좋은디 오줌싸불영어.(그러니까 이 쥐들이 가서 뭐 먹기만 하면 좋은데 오줌싸버려서.)

103056 #2 오줌도 짹니다.(오줌도 짹니다.)

103056 @ 오줌 막 싸불면 이거 썩어불어.(오줌 마구 싸버리면 이거 썩어버려서.)

103056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3056 @ 약 행은에.(약 해서.)

103056 #2 경 허영 그거 씨 팡 종자 농곡, 종자로 품도 허고, 경 헛수다.(그렇게 해서 그거 씨 파서 종자 놓고, 종자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03057 @ 이 감저로는 뭘 험니까?(이 감자로는 뭘 합니까?)

103057 #2 감저로 영 뺏테기허영 영 몰아근에 돌레떡<sup>95</sup>)도 허영 먹고, 감저 ㄱ루로 시리떡도 쟁 먹고, 그거 웨에는 뭇 엇입주.(고구마로 이렇게 절간해서 이렇게 반죽해서 ‘돌레떡’도 해서 먹고, 고구마 가루로 시루떡도 썩서 먹고, 그거 외에는 뭇 없지요.)

103058 @ 그 감저줄 잇지 안허팡?(그 고구마 덩굴 잇지 않습니까?)

103058 #2 예.(예.)

103058 @ 감저줄을 모왕은에 쉼도.(고구마 덩굴을 모아서 소도.)

103058 #2 쉼, 쉼 먹이도 허고 헛수다.(소, 소 먹이도 하고 했습니다.)

103058 @ 쉼양.(소요.)

103058 #2 예, 감저줄도 두 늘씩 늘엇수다.(예, 고구마 덩굴도 두 가리씩 쌓았습니니다.)

103058 @ 게난 쉼안티는 이 출보단도 감저줄이 잘 먹은 거 닳아.(그러니까 소한테는 이 꼴보다도 고구마 덩굴이 잘 먹은 거 같아.)

103058 #2 예.(예.)

103058 @ 이 밧 갈 때 보면.(이 밧 갈 때 보면.)

103058 #2 문 하나 남을 거 엇이 다 먹어십주께.(모두 하나 남을 거 없이 다 먹었습지요.)

95)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103058 @ 거난 밧 갈 때 보면 감젓줄을 주주게.(그러니까 밧 갈 때 보면 고구마 덩굴을 주지요.)

103058 #2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59 @ 젤 맛 좋은 거 닻아, 쉐안티. 그 감저 농사에 얽힌 추억 말해줍서.(젤 맛 좋은 거 같아, 소한테. 그 고구마 농사에 얽힌 추억 말해주십시오.)

103059 #2 감저 농사 허영 얽힌 추억은 그때엔 감저 요만씩 들어 가가민 먹을 거 잇이민 거 과당 쟁 먹어난 추억벳기 엇수다.(고구마 농사 해서 얽힌 추억은 그때엔 고구마 요만큼씩 들어 가가면 먹을 거 있으면 거 과다가 썩서 먹었던 추억밖에 없습시다.)

103059 @ 거난 감저 요만씩 현 거.(그러니까 고구마 요만큼씩 한 거.)

103059 #2 득새기만씩 들어 가가민양, 땅 팡, 땅 벌러진들로 강은에 하나씩 하나씩 오벼당은에 먹을 건 엇고 베고프긴 허고 허민 그걸 과당은에 삶으멍 먹어십주.(달걀만큼씩 들어 가가면요, 땅 파서, 땅 쪼개진 데로 가서 하나씩 하나씩 오벼다가 먹을 건 없고 베고프긴 하고 하면 그걸 과다가 삶으면서 먹었습지요.)

103059 @ 거난 감젓줄 나는 감저는 뭐엔 험니까? 감젓줄 나는, 구감?(그러니까 고구마 덩굴 나는 고구마는 뭐라고 합니까? 고구마 덩굴 나는, 해묵은 고구마?

103059 #2 구감.('구감'.)

103059 @ 구감.('구감'.)

103059 #2 비어난 그저 무슨거, 비어난, 해난 건 구감.(베었던 그저 무엇, 베었던, 했던 건 '구감'.)

103059 @ 구감, 구감 역시 또 그 저 새감<sup>96</sup>인가? ('구감', '구감' 역시 또 그 저 '새감'인가?)

103059 #2 예, 구감도 파근에 벳경 삶양 먹곡 막 헛수다.(예, '구감'도 파서 벳겨서 삶아서 먹고 마구 헛습시다.)

103059 @ 그거 주로 도새기 주지 아니허연?(그거 주로 돼지 주지 않았어?)

103059 #2 도새기 췌주마는 그것도양 삶으민 줄거리 셔도 맛 좋아마씨.(돼지 췌지만 그것도요 삶으면 줄거리 있어도 맛 좋아요.)

103059 @ 조금 먹당은에 뇌뵈당.(조금 먹다가 뇌뵈다가.)

103059 #2 예, 도새기 주고, 돼지 주고, 경 헛수다.(예, 돼지 주고, 돼지 주고, 그렇게 헛습시다.)

## 기타 농사

103060 @ 그다음에 수박 농사 저 봄디강?(그다음에 수박 농사 저 봤습니까?)

103060 #2 수박 농산 안 저 봤수다. 수박은양 흐 으남은 곳 낵은에 먹을 건 저 봐도 푸는 건 안 해봤수다.(수박 농사는 안 저 봤습시다. 수박은요 한 여남은 곳 봐서 먹을 건 저 봐도 푸는 건 안 해봤습시다.)

96) '새감'은 땅에 묻은 씨고구마에서 새로이 생기는 고구마이다.

103060 @ 거난 그 수박 농사 허쟁 허민 어떻?(그러니까 그 수박 농사 하려고 하면 어떻게?)

103060 #2 우린 수박 농사 허쟁 허민 저 묘종 허는 밧디 혼 고지 담 에염으로 쭈욱허게 혼 고지 갈양 비니루 혼 줄을 싹 치는 거라예. 거기 수박을 두명두명 싱 경 놔두민예 수박이 경 잘 올양 아이덜이영 식구덜 먹을 거 충분허여마씨.(우린 수박 농사 하려고 하면 저 모종 하는 밧에 한 이랑 담 옆으로 쭈 하게 한 이랑 갈아서 비닐 한 줄을 싹 치는 거야. 거기 수박을 드문드문 심어서 놔두면 수박이 그렇게 잘 열어서 아이들이랑 식구들 먹을 거 충분해요.)

103060 @ 거난 수박 묘종 하나에 수박 몇 개 읍니까?(그러니까 수박 모종 하나에 수박 몇 개 엽니까?)

103060 #2 그거 세어봤수가? 아멩 못해도 서너니 개 댓 개 으는 거 님아, 막 줄 번어가멍 으난애, 혼 댓 개씩은 으는 거 님아.(그거 세어봤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서너 개 댓 개 여는 거 같아, 마구 기는줄기 번어가면서 여니까, 한 댓 개씩은 여는 거 같으.)

103060 @ 나의 경험인디 그.(나의 경험인데 그.)

103060 #2 세어 보진 안 헛수다만 댓 개 으는 거 님아.(세어 보진 안 했습니다만 댓 개 여는 거 같아.)

103060 @ 그 하귀<sup>97)</sup> 쪽에 좀 수박합니다게.(그 하귀 쪽에 좀 수박합니다.)

103060 #2 예.(예.)

103060 @ 거난 우리 학부형이 아이 가정 방문을 허난애 자기네 수박 묘종 험덴, 경 험애, 이 수박, 거난 물어봤주마씨. 수박 묘종을 오십 개 줍디다게.(그러니까 우리 학부형이 아니 가정 방문을 하니까 자기네 수박 모종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수박,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수박 묘종을 오십 개 줍디다.)

103060 #2 오십 개 주민 잘도 한게예.(오십 개 주면 잘도 많은데.)

103060 @ 거난 묘종 하나에 수박 몇 개 읍니까? 허난, 세 개 은덴, 세 개.(그러니까 모종 하나에 수박 몇 개 엽니까? 하니까, 세 개 연다고, 세 개.)

103060 #2 예, 예, 세 개 더 올라.(예, 예, 세 개 더 열어.)

103060 @ 세 개면은 나가 계산을 험 겁주게. 오십 개 심으면은 수박이 백오십 덩어리가 나올 거다. 겐애 건디 망험. 과수원에 완 심었어. 심으난양 주먹만이 험 거 두 개 올라, 저 오십 개 중에. 건데 수박은 그늘애 안 되는 겁디다. 과수원엔 안 똤덴.(세 개면은 내가 계산을 한 거지요. 오십 개 심으면은 수박이 백오십 덩어리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데 망했어. 과수원에 와서 심었어. 심으니까 주먹만큼 한 거 두 개 열었어, 저 오십 개 중에. 그런데 수박은 그늘애 안 되는 겁디다. 과수원에는 안 된다고.)

103060 #2 안 똤니다게.(안 됩니다.)

103060 @ 햇빛 비추지 안 허른 안 똤덴 허더라고.(햇빛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

97)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를 말한다.



고 하더라고.)

103060 #2 예, 저 보리그루에양 갈양 비니루 한 줄 딱 청 요기민 요만씩.(예, 저 보리그루에 갈아서 비닐 한 줄 딱 쳐서 여기면 요만큼씩.)

103060 @ 그늘져도 안 웬텐.(그늘져도 안 된다고.)

103060 #2 예, 요만씩 싱경 놔두난양 하, 으남은 곳 싱그란예 먹당도 버천. 동네 사름 몇 차 실러당 막 주멍 헤집디다. 다섯 개 더 으는 거 닻아.(예, 요만큼씩 심어서 놔두니까 닻아, 여남은 곳 심으니까 먹다가도 부쳐서. 동네 사름 몇 차 실어다가 마구 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 더 여는 거 같아.)

103060 @ 거 순은 안 툭읍니까?(거 순은 뜯습니까?)

103060 #2 난 순 안 툭앗수다, 그냥.(난 순 안 뜯었습니다, 그냥.)

103060 @ 그냥 내불언?(그냥 내버렸어?)

103060 #2 예.(예.)

103060 @ 거 크진 안 헐 건디.(거 크진 앓을 것인데.)

103060 #2 아이고, 이만씩 큼디다.(아이고, 이만큼씩 큼디다.)

103060 @ 아, 아. 내불어도?(아,아. 내버려도?)

103060 #2 예예, 난 순 타보진 안 헛수다.(예예, 난 순 따보진 앓았습니다.)

103060 @ 아, 그거 저 전문적으로 허는 사름덜은 그거.(아, 그거 저 전문적으로 하는 사름들은 그거.)

103060 #2 예, 순, 또 저 수박 심으민 요사이에 온 건 따불고, 경 험텐 험디마는.(예, 순, 또 저 수박 심으면 요사이에 연 건 따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디다만.)

103060 @ 처음 험 건 따야 웬텐.(처음 한 건 따야 된다고.)

103060 #2 이거 가까운디 건 줄을 번어가명 막 험디다. 난 따 봄도 아니 허고, 허여도예 경 잘 읍디다. 경험 나 올리도 댓 곳 싱것수다마는 이제 먹어지지 아니 허난 그냥 허엿자 썩엉 데껴불고, 다 늙만 타다 쥐지난, 이 올린 안 헛수다, 안 험. 서너 곳만 싱건.(이거 가까운디 건 줄기를 번어가면서 마구 합디다. 난 따 보기도 안 하고, 허여도요 그렇게 잘 읍디다. 그래서 나 올해도 댓 곳 심었습니다만 이제 먹히지 앓으니까 그냥 하엿지만 썩어서 던져버리고, 다 남만 따다 쥐지니까, 이 올 해는 안 헛습니다, 안 했어. 서너 곳만 심었어.)

103061 @ 춤웨 농사 저 봄디가?(참외 농사 저 봤습니까?)

103061 #2 춤웨 농사 안 험 그자 이녁 먹을 거 댓 곳 싱거근에양.(참외 농사는 안 해서 그자 이녁 먹을 거 댓 곳 심어서요.)

103061 @ 춤웬 순 툭아줘야지양?(참외는 순 뜯어줘야지요?)

103061 #2 춤웬양, 손 하영 간 나그튼 사름은 못 허킵디다. 계속 순 툭아 줘야 영 동골락허게 거리명양 으는 거라부난 그건 손이 하영 갑디다게.(참외는요, 손 많이 가서 나같은 사름은 못 하겠습디다. 계속 순 뜯어 줘야 이렇게 동그랗게 거리면 서요 여는 거라 버리니까 그건 손이 많이 갑디다.)

103061 @ 춤웨 보난예 저 어디 옛날 가파도가 쉼뿔춤웨 막 갈아났텐 허는디.

(참외 보니까 저 어디 옛날 가과도가 소뽕참외 많이 같았었다고 하는데.)

103061 #2 가과도 참웨가 맛 줍니다.(가과도 참외가 맛 좋습니다.)

103061 @ 옛날 거기.(옛날 거기.)

103061 #2 예, 파란 거양.(예, 파란 거요.)

103061 @ 쉼뽕 모양으로 뵈 거.(소뽕 모양으로 뵈 거.)

103061 #2 예, 예. 그것이 맛 존 참웨우다.(예, 예. 그것이 맛 좋은 참외입니다.)

103061 @ 옛날 우리 동네도 가과도 참웨.(옛날 우리 동네도 가과도 참외.)

103061 #2 이제도 가과도 참웨씨덜이 잇수다, 모슬포.(이제도 가과도 참외 씨앗 들이 있습니다, 모슬포.)

103061 @ 아, 쟈디 참웨 안 갈아난 모양인디.(아, 그런데 참외 안 갈았던 모양 인데.)

103061 #2 아이고, 먹을 거, 풀쟁은 안 갈고, 근데 그 참웨가양, 막 들도 아니허 고 구수허여마씨. 훗맛이 경 좋아마씨. 우리 아덜 농협에 시민, 아는 성 닭은 사람이 하영 가져오민 나신디도 가져옵니다마는 잘도 물랑헌 게, 수왕수왕도 아니허여, 물랑허면서 맛 좋아마씨.(아이고, 먹을 거, 팔려고는 안 갈고, 그런데 그 참외가 요, 아주 달지도 아니하고 구수해요. 뒷맛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아들 농협에 있으면, 아는 형 같은 사람이 많이 가져오면 나에게도 가져옵니다만 잘도 물렁한 게 서 벽서벽도 않아, 물렁하면서 맛 좋아요.)

103062 @ 허허허.(웃음) 고치 농사 저 볍디가?(허허허.(웃음) 고추 농사 저 봤습 니까?)

103062 #2 고치 농산 이녁 먹을 건 집니다.(고추 농사는 이녁 먹을 건 집니다.)

103062 @ 고치 농사에 대허영 한번 곱아줍서.(고추 농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 십시오.)

103062 #2 고치 농사는예, 밭 갈양 비니루 싹 청 고치 메 여기서 ㄹ뜨른 요만씩 하나 심영 대 꽃양 그거 문딱 무끄는 거라예. 올라오는 양 올라오는 양 무끄명 약 행 놔두민예 막 잘 뽕니다. 고춘 또 심어난 디 심영은 안 뽕어마씨.(고추 농사는요, 밭 갈아서 비닐 싹 쳐서 고추 모종 여기서 곱으면 요만큼씩 하나 심어서 대 꽃아서 그거 모두 묶는 거지요. 올라오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묶으면서 약 해서 놔두면 아주 잘 뽕니다. 고추는 또 심었던 데 심어서는 안 돼요.)

103062 @ 그 고치 영 보니까 세 가달 영 나올 때.(그 고추 이렇게 보니까 세 가닥 이렇게 나올 때.)

103062 #2 고치 영 올라와 가면은 요만쪽이 올라오면은 율로 두 가달이 십니다. 계난 글로 밋테는 문딱 순, 다 밋테 다 툃아불곡, 율로 두 가달로 벌린 디만 벌리명 놔뽕야.(고추 이렇게 올라와 가면은 요만큼 올라오면은 요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밋테는 모두 순, 다 밋테 다 뜯어버리고, 여기로 두 가닥 벌린 데 만 벌리면서 놔뽕야.)

103062 @ 그대로 내불어야지예.(그대로 내버려야지요.)

103062 #2 예, 그대로 놔두면 무디, 무디, 무디 거리명 막 옵니다. 계난 고추는 잘 돼민 낭 하나에 혼 근 온텐 허지 안헙니까?(예, 그대로 놔두면 마디, 마디, 마디 거리면서 마구 엽니다. 그러니까 고추는 잘 되면 나무 하나에 한 근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103062 @ 나도 같아신디, 이제 두세 가달, 이제 벌렸수다게.(나도 같았는데, 이제 두세 가달, 이제 벌렸습니다.)

103062 #2 예, 게 벌기는 밋테는 막 따줘야 해양.(예, 그럼 벌기는 밑에는 마구 따줘야 해요.)

103062 @ 순, 이파리 사이에 잇는 거.(순, 잎사귀 사이에 잇는 거.)

103062 #2 경 행 대로허당 요정도 올라오른 글로 또 싹 허영 처저가민 늘어지 지 말게 영 허영 벅허게 무경은에, 게문 고추는 그추록 허문양, 고추 혼 백 개만 싱 그민 막 하영 납니다.(그렇게 해서 대로하다가 요정도 올라오면 거기로 또 싹 해서 처저가면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빙하게 묶어서, 그러면 고추는 것처럼 하면요, 고추 한 백 개만 심으면 아주 많이 납니다.)

103062 @ 아이, 우리 그자락 안 허고, 한 스무 개 심언, 스무 개.(아니,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하고, 한 스무 개 심었어, 스무 개.)

103062 #2 스무 개 싱거도 잘 돼면 이녁 먹을 건 나옵니다게. 난 경 허난 우리 집이도 고추 허난 먹을 건 나옵니다게.(스무 개 심어도 잘 되면 이녁 먹을 건 나옵니다. 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도 고추 하니까 먹을 건 나옵니다.)

103062 @ 도남<sup>98</sup>오거리 살암신디.(도남오거리 살고 있는데.)

103062 #2 고추 물리는 기계도 나 산 물리웁수다.(고추 말리는 기계도 나 사서 말리고 있습니다.)

103062 @ 우리 집사람안티 먹당 나머지방 저 도남오거리에 강 풀렌 꼴앗수다, 장난말로.(우리 집사람한테 먹다가 나머지방 저 도남오거리 가서 팔라고 말했습니다, 장난말로.)

103062 #2 호호호.(웃음) 스무 개 싱경은 이녁 먹을 만, 막 잘 돼민 스무 근 납 주게. 계난 이녁 먹을 건 충분허여마씨.(호호호.(웃음) 스무 개 심어서는 이녁 먹을 만, 아주 잘 되면 스무 근 나지요. 그러니까 이녁 먹을 건 충분해요.)

103062 @ 계난 매운 거 반, 안 매운 거 반.(그러니까 매운 거 반, 안 매운 거 반.)

103062 #2 겐디양, 매운 거 허지 말아사 허킵디다게. 너무 매운 거, 안 매운 것도양 흥끔 매와마씨. 계난 우리 아덜 한림<sup>99</sup>에 이시난 회사에 꺼 묘 두어 판이, 서너 판이 놓니다게. 고치가 이만씩 허여마썸.(그런데요, 매운 거 하지 않아야 하겠습디다. 너무 매운 거, 안 매운 것도 조금 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림에 있으니까 회사에 거 모종 두어 판이, 서너 판이 놓니다. 고추가 이만큼씩 해요.)

98) '도남'은 제주시 도남동을 말한다.

99)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를 말한다.

103062 @ 이만큼 현 거.(이만큼 한 거.)

103062 #2 경 맵지 안 허영 난 맵지 아니허여사 좋아양. 호호호.(웃음)(그렇게 맵지 않아서 난 맵지 않아야 좋아요. 호호호.(웃음))

103062 @ 허허.(웃음)(허허.(웃음))

103062 #2 매운 고추는 딱 다섯 개 싱그민 좋습시다게. 찌개 ㄱ튼 거 해 먹을 때 흐끔 낱.(매운 고추는 딱 다섯 개 심으면 좋습니다. 찌개 같은 거 해 먹을 때 조금 넣어서.)

103063 @ 배추 농사 저 봅디강?(배추 농사 저 봤습니까?)

103063 #2 이녀 먹을 건 점수다, 먹을 거.(이녀 먹을 건 지고 있습니다, 먹을 거.)

103063 @ 배추 농사에 대허영 곱아줍서.(배추 농사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3063 #2 배추 농사도 아까 식으로, 고치, 고치 허는 식으로 그자 갈젠 허민 현 고지만 싱그민양, 현 백 포기 정도만.(배추 농사도 아까 식으로, 고추, 고추 하는 식으로 그저 갈려고 하면 한 이렇만 심으면요, 한 백 포기 정도만.)

103063 @ 씨로마씨?(씨로요?)

103063 #2 아니마씨. 묘종 사당 싱점수다.(아니요. 모종 사다가 심고 있습니다.)

103063 @ 배추?(배추?)

103063 #2 예, 묘종 사당, 두어 판이만, 오십 개짜리 두 판이만 사오믄양, 우리 식구.(예, 모종 사다가, 두어 판이만, 오십 개짜리 두 판이만 사오면요, 우리 식구.)

103063 @ 김장?(김장?)

103063 #2 예, 김장용만 험수다게.(예, 김장용만 하고 있습니다.)

103063 @ 속 앓아야 될 거 아니우파?(속 앓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3063 #2 아, 속 막 잘 앓습시다게.(아, 속 아주 잘 앓습니다.)

103064 @ 그다음에 늬삐 농사?(그다음에 무 농사?)

103064 #2 늬삐 농사도 이녀 먹을 거 같ampus다.(무 농사도 이녀 먹을 거 같고 있습니다.)

103064 @ 게난 그 늬삐 농사에 대해서 현번 곱아줍서.(그러니까 그 무 농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3064 #2 늬삐 농사는데, 늬삐씨 삭삭 삐영예, 손으로 삭삭삭만 허영 내불민 늬삐 납니다게. 영 그거 허영 먹엄수게.(무 농사는요, 무 씨앗 삭삭 뿌려서, 손으로 삭삭삭만 해서 내버리면 무 납니다. 이렇게 그거 해서 먹고 있습니다.)

103065 @ 그다음에 지슬 농사?(그다음에 감자 농사?)

103065 #2 지슬 농사는 안 점수다.(감자 농사는 안 지고 있습니다.)

103065 @ 거난 지슬 농사는 아는 대로 곱아줍서.(그러니까 감자 농사는 아는 대로 말해주십시오.)

103065 #2 지슬, 지슬도 마찬가지로우다게, 지슬도양 밧 갈양, 밧 갈양 지슬은 고풍에 놓읍주게, 고풍에.(감자, 감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감자도요 밧 갈아서, 밧 갈아

서 감자는 고랑에 놓습지요, 고랑에.)

103065 @ 영 파근에 허지 안 험니까?(이렇게 파서 하지 않습니까?)

103065 #2 아니 요즘은 잠데로 밧 짝 갈민 이것이 고랑 아니우파? 이렌 높은 디고, 지슬씨를 툃툃 문영은에 손으로 삭삭삭 문영은에 네중에 쉼로 고랑을 싹 갈 아불민 듄복 올라갑주게.(아니 요즘은 쟁기로 밧 짝 갈민 이것이 고랑 아닙니까? 이 리로는 높은 데고, 감자 씨앗을 탁탁 문어서 손으로 삭삭삭 문어서 나중에 소로 고랑을 싹 갈아버리면 듄복 올라가지요.)

103065 @ 걸름은 안 험니까?(거름은 안 합니까?)

103065 #2 불체도 허곡, 돛걸름도 농곡, 옛날엔 돛걸름도 농곡, 불체는 지슬 농사에서는 꼭 불체 놓디다. 예, 경 해사 잘 돼니까 불체 놓은 디는 지슬이 해양케 곱고, 그냥 간 디는 쟈쟈헌 게예.(재도 하고, 돼지거름도 넣고, 옛날엔 돼지거름도 넣고, 재는 감자 농사에서는 꼭 재 넣습디다. 예, 그렇게 해야 잘 되니까 재 넣는 데는 감자가 하얗게 곱고, 그냥 간 데는 잘디잔 게.)

103065 @ 거난 감자 농사 두 번 험디다양?(그러니까 감자 농사 두 번 합디다 예?)

103065 #2 지슬 농사, 감자 농사, 지슬 두 번 험수게. 봄 거, 이제 캐는 거 하나 허고.(감자 농사, 감자 농사, 감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봄 거, 이제 캐는 거 하나 하고.)

103065 @ 그건 언제 놔? 언제 놓니까?(그건 언제 놔? 언제 놓습니까?)

103065 #2 이제 캐는 건? 동에 십이월달에, 선달에, 선달에. 선달에 놓는 거 이제 캐고, 또 이제 허영 칠월달에 놓는 거는 가을, 가을에 한 십이월달, 십일월달부터 캐명 풀주. 두 번.(이제 캐는 건? 겨울에 십이월에, 선달에, 선달에. 선달에 놓는 거 이제 캐고, 또 이제 해서 칠월에 놓는 거는 가을, 가을에 한 십이월, 십일월부터 캐면서 팔지. 두 번.)

103065 @ 이제야 논 건?(이제야 놓은 건?)

103065 #2 이제 허영 칠월달 놓는 거는 겨울에 파명 풀고, 또 이제 파는 거는 십이월달에 놓은 거, 이제 파명 풀고, 두 번 험수게, 두 번.(이제 해서 칠월 놓는 거는 겨울에 파면서 팔고, 또 이제 파는 거는 십이월에 놓은 거, 이제 파면서 팔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103065 @ 이 동넨 잘 안 허지양?(이 동넨 잘 안 하지요?)

103065 #2 이 동넨 잘 안 허고 모슬포.(이 동넨 잘 안 하고 모슬포.)

103065 @ 사계<sup>100</sup>?(사계리?)

103065 #2 모슬포, 사계, 저 신도<sup>101</sup>, 무릉리<sup>102</sup>레 그레 하영 험니다, 하영. 마농도 그쪽더레 하영 허고, 우리 구역리 지슬은 안 험니다.(모슬포, 사계리, 무릉리로 그리 많이 합니다, 많이. 마늘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우리 구역리 감자는 안 합니

100) '사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101) '신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를 말한다.

102) '무릉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이다.

다.)

103065 @ 마농 농사 값을 안 주는 모양이더라고.(마늘 농사 값을 안 주는 모양이더라고.)

103065 #2 올린 막 폐기처분덜 헛수게. 올린 문막 폐기처분덜 하영 허연.(올해는 마구 폐기처분덜 했습니다. 올해는 모두 폐기처분덜 많이 했어.)

103065 @ 어떤 땐 막 값 주고.(어떤 땐 막 값 주고.)

103065 #2 거난양, 코로나, 코로나 허연 저기 웨국서 수출을 못 들어와부난 문막 폐기처분 막 허여부난 막 어디 엇덴덜 헛디다.(그러니까요, 코로나, 코로나 해서 저기 외국서 수출을 못 들어와 버리니까 모두 폐기처분 마구 해버리니까 마구 어디 없다고들 합디다.)

103066 @ 피 농산 안 해봤지양?(피 농사는 안 해봤지요?)

103066 #2 그건 안 해봤수다.(그건 안 해봤습니다.)

103066 @ 피 농산양?(피 농사는요?)

103066 #2 예.(예.)

103067 @ 모멸 농사?(메밀 농사?)

103067 #2 모멸 농산 해봤수다.(메밀 농사는 해봤습니다.)

103067 @ 그거에 대허영 혼번 곱아줍서.(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3067 #2 모멸 농사는예.(메밀 농사는요.)

103067 @ 모멸 농사 언제?(메밀 농사 언제?)

103067 #2 백중 고비에 갑니다. 백중 고비에.(백중 고비에 갑니다. 백중 고비에.)

103067 @ 아직 백중은 안 넘었지예?(아직 백중은 안 넘었지요?)

103067 #2 칠월 열아흐렌 날이 백중 아니우파? 그때 갈믈예 혼 시월 나가믈 비믈예, 모멸은 이제난 비료 주난 막 좋논디 그때 당시엔 경 비료 엇영 그냥 갈아놓민 이제만이 수확은 안 낫어양. 그때 해영 가을에 비영 그걸로 모멸 장만, 도께로 장만허영 모멸덴 걸름 통시에도 도새기 허민 담곡, 그추록 허명 갈아십주게.(칠월 열아흐렌 날이 백중 아넙니까? 그때 갈면요 한 시월 나가면 베면, 메밀은 이제니까 비료 주니까 아주 좋은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비료 없어서 그냥 갈아놓으면 이제만 큼 수확은 안 낫어요. 그때 해서 가을에 베어서 그걸로 메밀 장만, 도리께로 장만해서 메밀대는 거름 돼지우리에도 돼지 하면 담고, 것처럼 하면서 갈았습지요.)

103067 @ 계난 모멸 ㄹ루는?(그러니까 메밀가루는?)

103067 #2 거평, ㄹ레에 낱 거평 즈베기도 행 떡곡, 빙103)도 지정 떡곡, 경 헤 십주게. 그거 옛날 곤쌀 엇이난 모멸쌀 허영 죽도 썰 먹고, 모멸죽 맛 줍니다. 호호.(웃음)(거피해서, 맏돌에 놔서 거피해서 수제비도 해서 먹고, '빙'도 지져서 먹고, 그렇게 했습지요. 그거 옛날 흰쌀 없으니까 메밀쌀 해서 죽도 썰서 먹고, 메밀죽 맛

103) '빙'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팔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어서 둘둘 말아 만든 떡이다. '빙떡'이라고도 한다.

좁니다. 호호.(웃음)

103067 @ 계난 저거 보면은 피 생긴덴 헤여근에 아기 나난 사름 저 뭐.(그러니까 저거 보면 피 생긴다고 해서 아기 낳으니까 사람 저 뭐.)

103068 @ 거고 담배 농사 저 톱디강?(그리고 담배 농사 저 봤습니까?)

103068 #2 담배 농사는 우리 시아버지 신 때양 담배 농사 져수다.(담배 농사는 우리 시아버지 있을 때 담배 농사 져습니다.)

103068 @ 게메 그거 헤난 것 흔변양.(글쎄 그거 했던 것 한번요.)

103068 #2 우리 시아버지 때양 담배 농사지으면, 이제, 이제 심을 때주, 이제, 이제 심으면 담뱃잎은 막 넓은 겹디다게, 거른 주옥 고치 심듯 영 주옥 심어양, 흔 칠월 나가난양 알로 이파리 하나씩 하나씩 해당 문딱 여경 느람지<sup>104)</sup> 여끄듯 여경 싹 여기 돌아매어근에 물리왕, 또 그거 다 물리민 또 영 흔 줌씩 쥐멍 그거 담배 이파리를 뽕뽕뽕 무경 영 네모 딱 나게 허여근에양, 멧 근, 키로 현 건 모르크라예. 경 허여근에 요만씩 허게 허여근에 저 공판헙디다게.(우리 시아버지 때 담배 농사지으면, 이제, 이제 심을 때지, 이제, 이제 심으면 담뱃잎은 아주 넓은 겹디다. 그러면 쪽 고추 심듯 이렇게 쪽 심어요, 한 칠월 나가니까 아래로 잎사귀 하나씩 하나씩 해다가 모두 엮어서 ‘느람지’ 엮듯 엮어서 싹 여기 달아매어서 말려서, 또 그거 다 말리면 또 이렇게 한 줌씩 쥐면서 그거 담배 잎사귀를 뽕뽕뽕 묶어서 이렇게 네모 딱 나게 해서요, 멧 근, 킬로그램 한 건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요만큼씩 하게 해서 저 공판헙디다.)

103068 @ 어디 저 그때 거 나라에서 샀수강?(어디 저 그때 거 나라에서 샀습니까?)

103068 #2 나라에서 사사신디 어떻사 헤신디 난 물야기<sup>105)</sup> 돌아부난, 그거 여꺼가 가민 그거 여끄곡, 공판은 헛어마씨.(나라에서 샀었는지 어떻게야 했는지 난 ‘물야기’ 데려버리니까, 그거 엮어가 가면 그거 엮고, 공판은 했어요.)

103068 @ 공판은양?(공판은요?)

103068 #2 예, 담배.(예, 담배.)

103068 @ 계난 옛날도 담배 농산 하영 져낫구나.(그러니까 옛날도 담배 농사는 많이 져었구나.)

103068 #2 우리 씨아방 흔 댓 말지기, 집디다게. 경 허연 그거 ㄴ찌 여꺼주곡, 난 늘 ㄴ찌 사난.(우리 시아버지 한 댓 말지기, 집디다. 그렇게 해서 그거 같이 엮어주고, 난 늘 같이 사니까.)

103068 @ 수확은?(수확은?)

103068 #2 담배 수확은 하영 낫수다. 그건 이파리로 영 뜯으멍 허는 거난양, 담배 돈은 얼마 주고 안 주고 나가 허지 안 현 거난 몰라도 막 경 허영 막 하영 공들 영 헙디다게. 여경 네모 딱 나게.(담배 수확은 많이 낫습니다. 그건 잎사귀로 이런

104) ‘느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105) ‘물야기’는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굳지 않은 아이이다.

게 뜯으면서 하는 거니까, 담배 돈은 얼마 주고 안 주고 내가 하지 않은 거니까 몰라도 마구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이 공들여서 합디다. 엮어서 네모 딱 나게.)

103068 @ 이 근방에덜 많이 했구나.(이 근방에들 많이 했구나.)

103068 #2 우리 씨아부지 요디 요쪽에 밧 너 말지기 다 심어근에 허난, 그것도 니 개 크쟁허게 딱 구역 맞추명 딱 무경은에 공관합디다.(우리 시아버지 요기 요쪽에 밧 네 말지기 다 심어서 하니까, 그것도 네 개 가지런하게 딱 귀통이 맞추면서 딱 묶어서 공관합디다.)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그다음에 췌 질루와 볍디강?(그다음에 소 길러 봤습니까?)

104001 #2 예.(예.)

104001 @ 췌는 어떻 질릅니까?(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2 나 시집을 오난 우리 시아버님이 미국 암췌 막 큰 거 잘도 좋은 췌를 줍디다게. 계난 그거 질루명 동네 도리, 도리 번췌<sup>106)</sup>덜 행, 여름 나민 목장에 강은에 돌아가명 맥영예, 그추룩 허민 새끼 나근에 허민 그거 풀아근에 돈허곡, 경헛수다.(나 시집을 오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미국 암소 아주 큰 거 잘도 좋은 소를 줍디다. 그러니까 그거 기르면서 동네 지경, 지경 ‘번췌’들 해서, 여름 나민 목장에 가서 돌아가면서 먹여서, 그처럼 하면 새끼 낳아서 하면 그거 팔아서 돈하고, 그렇게 헛습니다.)

104001 @ 그때 번췌 하영 헛지양?(그때 ‘번췌’ 많이 헛지요?)

104001 #2 예, 번췌 허영 돌아가명, 열 집이 허민 열흘에 혼번.(예, ‘번췌’ 해서 돌아가면서, 열 집에 하면 열흘에 한번.)

104001 @ 계난 췌가 그뻐 비싼 모양이라.(그러니까 소가 그뻐 비싼 모양이야.)

104001 #2 예.(예.)

104001 @ 나 보니까 우리도 그 저 번췌 행은에 빌려주면은 새끼 나면은 뉘.(나 보니까 우리도 그 저 ‘번췌’ 해서 빌려주면은 새끼 나면은 뉘.)

104001 #2 반 갈르고.(반 가르고.)

104001 @ 반 갈르고.(반 가르고.)

104001 #2 경 헛수게. 췌디 난 우리 씨아부지가예 암췌 좋은 거 줍디다게. 계난 그거 허연 첫 번으로 부룽이 나난 오만 원을 받으난예, 그뻐 오만 원짜리 밧도 췌수게.(그렇게 헛습니다. 그런데 난 우리 시아버지가 암소 좋은 거 줍디다. 그러니까 그거 해서 첫 번으로 부룩소 낳으니까 오만 원을 받으니까, 그뻐 오만 원짜리 밧도

106) ‘번췌’는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소이다.



있었습니다.)

104001 @ 오만 원이면 큰 밧 샀주.(오만 원이면 큰 밧 샀지.)

104001 #2 예. 경허난 우리 시아버지 나 돈 쥐시라, 집 짓으멍, 시아버지네 집 짓으멍 주마 허난애, 이제 시아방을 톡 쥐부난 돈 드렌도 못 허고, 나 이 집 이 케에 사젠 허난 이거 그때 칠십오만 원 쥘 이 케에 다 산 거우다, 이 케에. 계난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오만 원 쥘게 그거 보태연 이 케에 이거 이천스백오십 평, 칠십만 원 쥘 샀수다.(예.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 나 돈 쥐 있어라, 집 지으면서, 시아버지네 집 지으면서 주겠다 하니까, 이제 시아버지를 탁 쥐버리니까 돈 달라고도 못 하고, 나 이 집 이 이 지경에 사려고 하니까, 이거 그때 칠십오만 원 쥐서 이 지경에 다 산 것입니다, 이 지경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오만 원 주던데 그거 보태어서 이 지경에 이거 이천사백오십 평, 칠십만 원 쥐서 샀습니다.)

104002 @ 쉼 종류 알아지쿠가? 쉼 종류.(소 종류 알 수 있습니까? 소 종류.)

104002 #2 쉼 종류는 토종, 이 토종 싹고, 미국 쉼 싹고, 그것벳기 더우파? 두 개.(소 종류는 토종, 이 토종 있고, 미국 소 있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두 개.)

104002 @ 숙췌<sup>107</sup>?('숙췌'?)

104002 #2 숙췌 싹고, 어룩췌 싹고.(‘숙췌’ 있고, 얼럭소 있고.)

104002 @ 숙췌허고 어룩췌?('숙췌'하고 얼럭소?)

104002 #2 어룩췌.(얼럭소.)

104002 @ 숙췌 알아지지양?('숙췌' 알 수 있지요?)

104002 #2 예.(예.)

104002 @ 구눔 지각헌텐 허영.(궁흥 품짝달짝 앓다고 해서.)

104002 #2 숙췌가 제일 고기 알아준텐 험니께, 숙췌가.(‘숙췌’가 제일 고기 알아 준다고 합니다, ‘숙췌’가.)

104002 @ 지금은 경 험니다만은.(지금은 그렇게 합니다만.)

104002 #2 예, 숙췌가 알아췌, 우리 시아버지는 숙췌 질라났수다.(예, ‘숙췌’가 알아췌서, 우리 시아버지는 ‘숙췌’ 길렀었습니다.)

104002 @ 아, 쥘디 말 안 듣는 모양이더라고.(아, 그런데 말 안 듣는 모양이더라고.)

104002 #2 아, 위낙 췌가 막 방방허게 존 거난양, 잘도 우리 시아방은. 호호호.(웃음)아, 위낙 소가 막 방방허게 좋은 거니까요, 잘도 우리 시아버지는. 호호호.(웃음)

104002 @ 숙췌 구눔 잇텐 허영.(‘숙췌’ 궁흥 있다고 해서.)

104002 #2 우리 시아방은 우리 물려준 건 미국 암췌 좋은 거 물려줍디다게. 그거 새끼 내우멍 돈을 벌어집디다게.(우리 시아버지는 우리 물려준 건 미국 암소 좋은 거 물려줍디다. 그거 새끼 낳게 하면서 돈을 벌어집디다.)

104002 @ 옛날사 다 그것 뉘 미국 암췌, 밧 갈젠 허난 부릉이덜.(옛날이야 다

---

107) ‘숙췌’는 털빛이 흑황색으로 얼럭덜럭한 소이다.

그것 뭐 미국 암소, 밭 갈려고 하니까 부록소들.)

104002 #2 아이고, 우린 암체로만 밭 갈았수다, 암체로. 게메 해년마다 송아지를 낚니다게.(아이고, 우린 암소로만 밭 갈았습니다, 암소로. 글쎄 해마다 송아지를 낚습니다.)

104002 @ 아메도 미국 암체가 심이 좋은 모양이구나예.(아마도 미국 암소가 힘이 좋은 모양이구나.)

104002 #2 예, 미국 암체로 밭도 같고, 구르마질도 허고, 새끼 일 년에 하나씩 나민 그거 풀멍 밭 하나 상, 빗정 상 그거 풀앙 보태영 물곡.(예, 미국 암소로 밭도 같고, 마차질도 하고, 새끼 일 년에 하나씩 낳으면 그거 팔면서 밭 하나 사서, 빗저서 사서 그거 팔아서 보태어서 물고.)

104002 @ 옛날엔 췌가. 옛날 돈 벌어줬주마씨, 췌가.(옛날엔 소가. 옛날 돈 벌어줬지요, 소가.)

104002 #2 예게. 경 허영 농사정은에 그거 가근에 허영 풀앙 또 보태영 밭 하나 상 밭 내왕 혼 삼 년 물어뵈, 또 송아지 풀앙 경 허명 밭 샷주마씨.(예게, 그렇게 해서 농사져서 그거 가서 해서 팔아서 또 보태어서 밭 하나 사서 밭 나게 해서 혼 삼 년 물어뵈서, 또 송아지 팔아서 그렇게 하면서 밭 샷지요.)

104002 @ 거난 이 털 색깔에 따라랑 아까 검은 암체?(그러니까 이 털 색깔에 따라서 아까 검은 암소?)

104002 #2 예, 우린 저 속췌 암체, 속췌 암체디다게.(예, 우린 저 ‘속췌’ 암소, ‘속췌’ 암소입디다.)

104002 @ 속췌 암체 그다음?(‘속췌’ 암소 그다음?)

104002 #2 검은 암체, 노랑 암체, 경 셔십주게. 하양 얼룩 무늬도 췌고, 그것뿐.(검은 암소, 노랑 암소, 그렇게 있었습지요. 하양 얼룩 무늬도 있었고, 그것뿐.)

104002 @ 그다음에 뿔 모양에 따라랑도 부르지요?(그다음에 뿔 모양에 따라서도 부르지요?)

104002 #2 예, 뿔도 영 허영 반듯헌 거 췌고, 또 영 오그라진 것도 췌고, 두터레 영 체체진 것도 췌고, 겐디 질 고움은 영 앞더레 영 허영 헌 게 질 고와양, 호호(웃음), 뿔은.(예, 뿔도 이렇게 해서 바듯한 거 있고, 이렇게 오그라진 것도 있고, 뒤로 젖혀진 것도 있고, 그런데 췌 곱기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게 췌 곱와요, 호호(웃음), 뿔은.)

104003 @ 췌는 어떻 이용합니까? 밭 가는 디만.(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밭 가는 데만.)

104003 #2 밭 가는 디만도 이용허고, 또 새끼 목적으로, 송아기 목적으로, 돈 허영은에 밭 살 생각허명게, 그걸로 허영 옛날엔 아이덜 학교도 시키고, 밭도 사곡 살 앗수게게. 이제 ㄴ췌 돈이 혼전헷수가? 그땐 송아기 풀앙 아이덜 공불 하영 시겨십주.(밭 가는 데만도 이용허고, 또 새끼 목적으로, 송아지 목적으로, 돈 해서 밭 살 생각하면서요, 그걸로 해서 옛날엔 학교도 시키고, 밭도 사고 살았습니다. 이제같이

돈 혼전했습니까? 그땐 송아지 팔아서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켰었습지요.)

104004 @ 그다음에 이 저 쉼 길들이젠 허민양, 이제 밧 갈젠 허민.(그다음에 이 저 소 길들이려고 하면요, 이제 밧 갈려고 하면.)

104004 #2 예, 예.(예, 예.)

104004 @ 돌로 끄영 막 허지 안헙니까양? 그거에 대허영 혼번 말해봅서.(돌로 끌러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104004 #2 아이고, 나도 시집을 오난 우리 하르방, 새 쉼 시 개난 그르켓수다. 우리 요 셋아덜, 큰아덜 낳고, 셋아덜 베연에 오월 스무일렛날 쉼는다, 오월, 스월 말 쉼난에 보리 비어뵤 그거 허젠 허난 쉼을 그르키젠 보리밧디 간 쉼 이끌젠 허난 쉼 주르륵 가민 질러불카부덴 나도 주르륵허게 들곡 경 허명 세 개난 새 쉼 그르킵디다. 난 이제 주르륵허민 질러불카부덴 앞더레 주르륵 가면 우리 집사름, 주르륵 가민 쉼느넌 허명 스뭇 옥먹으멍 새 쉼 이켓수다.(아이고, 나도 시집을 오니까 우리 할아버지, 새 소 세 개니까 가르쳤습니다. 우리 요 둘째 아들, 큰아들 낳고, 둘째 아들 배어서 오월 스무이레 되는데, 오월, 사월 말 되니까 보리 배어뵤서 그거 하려고 하니까 소를 가르치려고 보리밭에 가서 소 이끌려고 하니까 소 주르륵 가면 쉼러 버릴까 싶어서 나도 주르륵하게 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 개니까 새 소 가르칩디다. 난 이제 주르륵하면 쉼러 버릴까 싶어서 앞으로 주르륵 가면 우리 집사름, 주르륵 가면 되느냐고 하면서 사뭇 옥먹으멍 새 소 이끌었습니다.)

104004 @ 개난 그저 밧 갈젠 허면은 그 돌 허영은에 막.(그러니까 그저 밧 갈려고 하면은 그 돌 해서 마구.)

104004 #2 돌부떠양, 동네 혼 닷새 동안은 그걸로 멧 바쿠, 닷새 동안은 연습을 허여 낳 밧 강 갈젠 허민 쉼가 이레 가곡 저레 가곡 흘이지 안헙니까마씨? 쉼 심는 사름이 고지 쪽 허게 고작 이꺼가젠 허민 읍이 영 사민 저 뒤에선 ‘어시께’ 허민 쉼 뭇도 모르고 주르륵 가민 난 읍이 사민 쉼러불카부덴 주르륵허게 들으민 주르륵허게 가민 쉼느넌 허명, 매 안 맞음뿐 허엿수다. 호호호.(웃음)(돌부터요, 동네 한 닷새 동안은 그걸로 멧 바퀴, 닷새 동안 연습을 해 놔서 밧 가서 갈려고 하면 소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흘어지지 않습니까? 소 잡는 사람이 고랑 쪽 하게 곧장 이끌어 가려고 하면 옆에 이렇게 사면 저 뒤에선 ‘어시께’ 하면 소 뭇도 모르고 주르륵 가면 난 옆에 사면 쉼러 버릴까 싶어서 주르륵하게 달리면 주르륵하게 가면 되느냐 하면서, 매 난 맞음뿐 하엿습니다. 호호호.(웃음))

104005 @ 쉼도 나이가 잇지 아니허파양?(소도 나이가 잇지 않습니까?)

104005 #2 예.(예.)

104005 @ 혼 슬짜리를 뭇엔 헙니까?(한 살짜리를 뭇라고 합니까?)

104005 #2 금승.(하름.)

104005 @ 두 슬은?(두 살은?)

104005 #2 다간.(두습.)

104005 @ 세 슬?(세 살?)

104005 #2 세 술은 사릅. 호호호.(웃음)(세 살은 사릅. 호호호.(웃음))  
104005 @ 네 술은?(네 살은?)  
104005 #1 네 술, 나릅.(네 살, 나릅.)  
104005 #2 그건 모르크라. 호호호.(웃음)(그건 모르겠어. 호호호.(웃음))  
104005 @ 계난 아까 혼 술은?(그러니까 아까 한 살은?)  
104005 #2 금승.(하릅)  
104005 @ 두 술은?(두 살은?)  
104005 #2 다간. 저, 다간 뭉생이.(두습. 저, 두습 망아지.)  
104005 @ 다간?(두습?)  
104005 #1 다간.(두습.)  
104005 #2 다간.(다간.)  
104005 @ 그다음에 세 술은?(그다음에 세 살은?)  
104005 #2 사릅.(사릅.)  
104005 @ 그다음에?(그다음에?)  
104005 #2 네 술은 나릅. 호호호.(웃음)(네 살은 나릅. 호호호.(웃음))  
104005 @ 다섯 술은?(다섯 살은?)  
104005 #2 그냥 쉼엔 헤십주, 다섯 술, 여섯 술은.(그냥 소라고 했습지요, 다섯 살, 여섯 살은.)  
104005 @ 그냥 쉼?(그냥 소?)  
104005 #2 예.(예.)  
104006 @ 쟁기 명칭 알아지쿠가? 쟁기.(쟁기 명칭 알 수 있겠습니까?)  
104006 #2 아이고, 쟁기 명칭은 모르쿠다. 계난 우리 밭 가는 우리 잠데, 쟁기. 잠데.(아이고, 쟁기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밭 가는 우리 ‘잠데’, 쟁기. 쟁기.)  
104006 @ 잠텐디.(쟁기인데.)  
104006 #2 이거 영 심는 거 보곤 무신?(이거 이렇게 잡는 거 보곤 무슨?)  
104006 #1 거 내 골아주주.(거 내가 말해주지.)  
104006 @ 쟁기 명칭, 쟁기 명칭?(쟁기 명칭, 쟁기 명칭?)  
104006 #1 양짓머리.(‘양짓머리’.)  
104006 @ 어느 계?(어느 계?)  
104006 #1 영 영 영.(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04006 @ 천천히, 양짓머리, 그다음?(천천히, ‘양짓머리’, 그다음.)  
104006 #1 그다음은 성에, 진 거.(그다음은 성에, 긴 거.)  
104006 @ 진 것이 성에, 그다음.(긴 것이 성에, 그다음.)  
104006 #1 그다음은 설치.(그다음은 한마루.)  
104006 @ 가운데 거, 가운데 거 뭐?(가운데 거, 가운데 거 뭐?)  
104006 #1 설치, 설치.(한마루, 한마루.)

104006 @ 설치.(한마루.)

104006 #1 또 저 무신거 저 무클.(또 저 무엇 저 쟁깃술.)

104006 @ 무클?(쟁깃술?)

104006 #1 예, 무클광 성에 사이에 영 세우는 것이 설치주게. 켜 영 고영 잡아 주는 거라.(예, 쟁깃술과 성에 사이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한마루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이 잡아주는 거야.)

104006 @ 케난 영 현 것이 무클? 그다음에 요 앞이 잇는 것이 보섭. 보섭?(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쟁깃술? 그다음에 요 앞에 잇는 것이 보습. 보습?)

104006 #1 예, 벳, 벳.(예, 벳, 벳.)

104006 @ 보섭, 그냥 영 흑 위에 영 굵으는 건?(보습, 그냥 이렇게 흑 위에 이렇게 굵는 건?)

104006 #1 그건, 그건, 그냥. 거 쟁기에 부튼 것 있어. 거 들벵이불리.(그건, 그건, 그냥. 거 쟁기에 붙은 것이 있어. 거 까막머리.)

104006 @ 들벵이불리엔 현 건 어디?(까막머리라고 한 건 어디?)

104006 #1 성에 맨 꼬땡이에 고망 딸랑은에 그거 행은에 뒤에 무꺼사 헤질 거 아니라게. 거 들벵이불리엔 허여.(성에 맨 끝에 구멍 뚫어서 그거 해서 뒤에 묶어야 할 수 있을 거 아닐 것인가? 거 까막머리라고 해.)

104006 @ 들벵이불리, 들벵이불리?(까막머리, 까막머리?)

104006 #1 오리목<sup>108</sup>을 그거에 메와야 끄술 거주.(‘오리목’을 그거에 매워야 끌 거지.)

104006 #2 오리목 걸리는 거.(‘오리목’ 걸리는 거.)

104006 #1 오리목을 걸리는 거, 오리목을 거 안 허든 그냥 게 그거 무꺼지명 허는 거주. 케난 거 영 든든흔 걸로 영 헤사, 딱 무꺼사 저, 잠데, 저 췌가 끄술 거 아니라.(‘오리목’을 걸리는 거, ‘오리목’을 거 안 하면 그냥 그래 그거 묶어지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 이렇게 단단한 걸로 이렇게 해야, 딱 묶어야 저, 쟁기, 저 소가 끌 거 아니야.)

104006 @ 그다음에 이것이 뭐지?(그다음에 이것이 뭐지?)

104006 #1 무클.(쟁깃술.)

104006 @ 아니, 저 뭐 췌로 뵈 거?(아니, 저 뭐 쇠로 뵈 거?)

104006 #2 벳, 벳.(벳, 벳.)

104006 @ 앞이 것이 보섭이고, 그다음에?(앞에 것이 보습이고, 그다음에?)

104006 #2 벳.(벳.)

104006 @ 벳?(벳?)

104006 #2 벳. 저 배는 저.(벳. 저 저 참바는 저.)

104006 @ 췌 영 잡아댕기는 거.(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104006 #1 가린석<sup>109</sup>, 가린석.(‘가린석’, ‘가린석’.)

108) ‘오리목’은 붓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걸어매는 줄이다.

104006 #2 가린석.(‘가린석’.)  
104006 @ 아, 이거 췌.(아, 이거 소.)  
104006 #1 가린석.(‘가린석’.)  
104006 @ 가린석양, 췌 이레 멩에에.(‘가린석’요, 소 이리 멩에에.)  
104006 #1 가린석이라, 가린석.(‘가린석’이야, ‘가린석’.)  
104006 @ 가린석? 하하.(웃음) 그다음에 쟁기, 쟁기 알지양? 쟁기. 아, 저 질메, 질메?(‘가린석’? 하하.(웃음) 그다음에 쟁기, 쟁기 알지요? 쟁기. 아, 저 길마, 길마?)  
104006 #1 아, 췌질메?(아, 소길마?)  
104007 @ 예, 췌질메 명칭은?(예, 소길마 명칭은?)  
104007 #1 구르마.(마차.)  
104007 #2 아니, 아니. 췌질멘게, 거 저 짐 시끄는 거.(아니, 아니. 소길마는요, 거 저 짐 싣는 거.)  
104007 @ 짐 시끄는 거, 그 명칭 한번 알아봅서.(짐 싣는 거, 그 명칭 한번 말해보십시오.)  
104007 #1 거 췌질멘 그냥 췌질메엔 허주.(거 소길마는 그냥 소길마라고 하지.)  
104007 @ 영 췌 것도 있고 짐 실르젠 허문, 배도 영 영 허영은에.(이렇게 된 것도 있고 짐 싣으려고 하면, 참바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4007 #1 아이, 거난 췌질메는 영 멩젠 허민 가운데 췌질메 사이에 췌 영 오그령.(아니, 그러니까 소길마는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 가운데 소길마 사이에 쇠 이렇게 오그려서.)  
104007 @ 아, 두 개 영, 영 췌 것도 있지 안허봐? 질메. 그 명칭을 잘 모르쿠광? 췌질메 명칭?(아,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길마. 그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까? 소길마 명칭.)  
104007 #1 질메 알아.(길마 알아.)  
104008 @ 그다음에 멩에, 멩에 명칭?(그다음에 멩에, 멩에 명칭?)  
104008 #2 멩에 무사 몰라게.(멩에 왜 몰라요.)  
104008 @ 이건 뭐라?(이건 뭐라?)  
104008 #1 줍게.(목대.)  
104008 @ 줍게? 이건 줍게, 그다음?(목대? 이건 목대, 그다음?)  
104008 #1 줍게친<sup>110</sup>, 매는 거.(‘줍게친’ 매는 거.)  
104008 @ 예, 친?(예, 끈?)  
104008 #1 친, 친. 줍게 영.(끈, 끈. 목대 이렇게.)  
104008 @ 줍게친.(‘줍게친’.)  
104008 #1 이거 영 딱 매어사게. 쟁 틀 해근에.(이거 이렇게 매어야. 그렇게 그네 해야.)

109) ‘가린석’은 밭을 갈 적에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이다.

110) ‘줍게친’은 멩에 양편에 꿰어 목 아래로 휘어진 나뭇가지를 집어 매는 끈이다.

104008 @ 영 메어사양. 그다음에 그거뿐인가?(이렇게 매어야. 그다음에 그거뿐인가?)

104008 #2 가린석.(‘가린석’.)

104008 #1 거 헛주.(거 헛지.)

104009 @ 예, 그다음에 목장 잇지양? 어떻 관리합니까?(예, 그다음에 목장 잇지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104009 #1 아, 그 당시 그냥 관리허곡, 잘 관리허질 안 허여, 문만 문 올양 더끄곡, 쉼 못 나가게 허민.(아, 그 당시 그냥 관리하고, 잘 관리하질 않아, 문만 문 열어서 닫고, 소 못 나가게 하면.)

104009 @ 문을 살체기엔 허지예, 살체기양?(문을 사립짝이라고 하지요, 사립짝요?)

104009 #1 살체기.(사립짝.)

104009 @ 살체기문 단아분덴. 거기 저 목장에 일허는 사름 잇수가?(사립문 단아버린다고. 거기 저 목장에 일하는 사람 없습니까?)

104009 #1 그때 목장 일허는 사름 잇어났주.(그때 목장 일하는 사람 있었었지.)

104009 @ 뭘엔 험니까? 그걸.(뭘라고 합니까? 그걸.)

104009 #2 목장 직허는 사름이엔 허주.(목장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지.)

104009 #1 맞아.(맞아.)

104009 #2 목장 직허는 사름이엔 허여.(목장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

104009 @ 목장 직허는 사름? 거 부구리 약 허레도 가 봤지양?(목장 지는 사람? 거 진드기 약 하러도 가 봤지요?)

104009 #2 진드기 약?(진드기 약?)

104009 @ 예, 부구리. 거난 거 목장 직허는 사름이 부구리 약 헛수가?(예, 진드기. 그러니까 거 목장 지키는 사람이 진드기 약 헛습니까?)

104009 #1 아니, 아니. 번췌<sup>111)</sup>.(아니, 아니. ‘번췌’.)

104009 #2 번췌허는 사름이 그 멧 사름 짜근에 강.(‘번췌’하는 사람이 그 멧 사람 짜서 가서.)

104009 #1 그거 허젠 허민 췌막 으라 개난 거기 이 저 말뚝 딱 세와근에 시간마다 딱 들어가게 해 낵, 들어가게 허멍 나가지 못허게 딱 허영, 쪽 세우멍 영, 하나 허영 내치멍 하나 행 내치멍 그다음 딱로 허곡 헤낵주. 췌 경 안 허믄 어떻 걸령 험 말이라. 그거 춤 묘하게 잘 멘들아서 그때.(그거 하려고 하면 외양간 여러 개니까 거기 이 저 말뚝 딱 세워서 시간마다 딱 들어가게 해 낵서, 들어가게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딱 해서, 쪽 세우면서 이렇게, 하나 해서 내치면서 하나 해서 내치면서 그다음 따로 하고 헛었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걸려서 할 말이야. 그거 참 묘하게 잘 만들어서 그때.)

104009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11) ‘번췌’는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돌보는 소이다.

104009 #1 영, 영 세왕 메근에 판 디 나가지 못허게 영 디물아 노면은 쟁 사열  
행 들어가듯이, 게 들어가민 앞이 거, 앞이 거만 진드기 몰약 허면은 영 몰양은에  
영 가민 그다음 또 오곡 허명, 혼 백 마리고 이백 마리고 삼백 마리고 다 허는 거  
라. 경 아니허믄 허지 못허여.(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매어서 판 데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들이밀어서 놓으면 그렇게 사열해서 들어가듯이, 그래 들어가면 앞에 거, 앞  
에 거만 진드기약 하면은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가면 그다음 또 오고 하면서, 한  
백 마리고 이백 마리고 삼백 마리고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하지 못해.)

104010 @ 거민양, 췌 질루면서 얽힌 추억 잇수가? 췌 질루멍, 어디 저 췌 질루  
멍게, 어디 강은에 놀아난 기억도 이실 거고, 췌 보레 갖당.(그러면요, 소 기르면서  
얽힌 추억 있습니까? 소 기르면서, 어디 저 소 기르면서요, 어디 가서 놀았던 기억  
도 있을 거고, 소 보러 갔다가.)

104010 #1 췌 질루멍이 아니고 물 하영 질루난에, 물을 물은 갈기 잇주게. 물  
갈긴 총이엔 허영, 겐디 우리 물 허영 허민, 요 요디 물 질루는 사름 이신디 거기도  
물 하영 질루와. 물 질루는 사름 서너이가, 늙은 사름은 안 돼고, 젊은 사름덜.(소  
기르면서가 아니고 말 많이 기르니까, 말을 말은 갈기 잇지요. 말 갈기는 총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말 해서 하면, 요 요기 말 기르는 사람 있는데 거기도 말 많이  
길러. 말 기르는 사람 서너이가, 늙은 사름은 안 되고, 젊은 사름들.)

104010 @ 물총?(말총?)

104010 #1 물총, 물갈기.(말총, 말갈기.)

104010 @ 거 뭐엔 험니까?(거 뭐라고 합니까?)

104010 #1 갈기.(갈기.)

104010 @ 갈리?(가리?)

104010 #1 갈기, 갈기.(갈기, 갈기.)

104010 @ 아, 갈기. 갈기 저.(아, 갈기. 갈기 저.)

104010 #1 팔랑은에 다 풀아먹고.(잘라서 다 팔아먹고.)

104010 @ 풀아먹는 사름덜 이섯구나.(팔아먹는 사름들 있었구나.)

104010 #1 아, 우리 그때 물이 하영 선. 게 거 혼 이삼백 마리 딱 가되냥, 아,  
뭐 발질할 시간이 었어. 게면은 이 물은 겁을 내와야 허주. 경 안 허믄 물발로 차꼭  
허여. 우리도 잡으민 아프긴 아픈디 딱 잡으민 이빨을 딱 물어. 쟁 막 받으민 주둥  
이 발발발 털곡, 사름 땡겨도 꼬딱 안 허여. 경 아니허믄 팍팍 물어. 발로 막 차불  
곡.(아, 우리 그때 말이 많이 있었어. 그래 거 한 이삼백 마리 딱 가되놔서, 아, 뭐  
발질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이 말은 겁을 내어야 하지. 그렇게 안 하면 말발로  
차고 해. 우리도 잡으면 아프긴 아픈데 딱 잡으면 이빨을 딱 물어. 그렇게 마구 받  
으면 주둥이 발발발 떨고, 사름 다녀도 까딱 안 해. 그렇게 안 하면 팍팍 물어. 발  
로 마구 차버리고.)

104010 @ 이 톨에 대해선양, 다음에 물어보쿠다. 수고했수다.(이 말에 대해선요,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4010 #2 또 헐 거? 또 헐 거?(또 할 거? 또 할 거?)

104010 @ 예.(예.)

### 말 기르기

104011 @ 오늘은양, 물 질루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저 우리 남자 삼촌은 저, 물은 어떻 질릅니까?(오늘은요, 말 기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우리 남자 삼촌은 저,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104011 #1 물? 물은 야우<sup>112)</sup>, 야우.(말? 말은 ‘야우’, ‘야우’.)

104011 @ 야우가 뭐우파?(‘야우’가 뭐입니까?)

104011 #1 야우는 목장에 놔근에, 겨울, 여름이고 그자 목장에 낱 키우는 거주. (야우는 목장에 놔서, 겨울, 여름이고 그자 목장에 놔서 키우는 거지.)

104011 @ 목장에 강양.(목장에 가세요.)

104011 #1 집의 안 그져와.(집에 안 가져와.)

104011 @ 집에서, 저, 집에서 길르지도 안 험니까?(집에서, 저, 집에서 기르지 않습니까?)

104011 #1 집의 길르는 건 하나.(집에 기르는 건 하나.)

104011 @ 겨울에.(겨울에.)

104011 #1 게 그건 하나.(그래 그건 하나.)

104011 #2 밧 갈곡, 구르마질 허는 거.(밭 갈고 마차질 하는 거.)

104011 #1 저 일허는 거 하나.(저 일하는 거 하나.)

104011 @ 일허는 거 하나?(일하는 거 하나?)

104011 #1 나머진 다.(나머진 다.)

104012 @ 그다음에 물 종류 잊지 안 허파양? 물 종류 허면은 털에 따라 뭐 잇 수가?(그다음에 말 종류 잊지 않습니까? 말 종류 하면은 털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104012 #1 종류는 똑 그쁜 건데, 뭐만 틀려. 색깔로, 색깔도 틀려.(종류는 똑 같은 건데, 뭐만 달라. 색깔로, 색깔도 달라.)

104012 @ 천천히 돌아봅서.(천천히 말해보십시오.)

104012 #1 일 청총, 청총은 하양 거에 파랑 거. 까망 건디 경 말 색이 파랗게 보여, 그계 청총. 이 가라, 까만 물.(일 청총, 청총은 하얀 거에 파란 거. 까만 것인데 그렇게 말 색깔이 파랗게 보여, 그계 청총. 이 가라, 까만 말.)

104012 @ 이 가라.(이 가라.)

104012 #1 가레, 가레, 가레물.(가라, 가라, 가라말.)

104012 @ 이 가레.(이 가라.)

104012 #1 삼 적대.(삼 적다마.)

104012 @ 삼 적대?(삼 적다마?)

---

112) ‘야우’는 목장에서 일 년 내내 기르는 말을 말한다.

104012 #1 예, 삼 적대는 빨간 물. 적마, 적, 빨간 적. 스 얼레, 어렁물.(예, 삼 적다마는 빨간 말, 적마, 적, 빨간 적. 사 얼룩, 얼룩말.)

104012 @ 스?(사?)

104012 #1 얼레, 얼레.(얼룩, 얼룩.)

104012 @ 스 얼레.(사 얼룩.)

104012 #1 어렁물.(얼룩말.)

104012 @ 어렁물?(얼룩말?)

104012 #1 예, 오 부루.(예, 오 적부루마.)

104012 @ 오 부루가 뭐라?(오 부루가 뭐야?)

104012 #1 거 저 붉지도 아니허곡 노랑허지도 아니허곡, 그런 거.(거 저 붉지도 아니하고 노랑지도 아니하고, 그런 거.)

104012 @ 오 부루.(오 적부루마.)

104012 #1 어, 오 부루.(어, 오 적부루마.)

104012 @ 오 부루?(오 적부루마?)

104012 #1 예. 육은 유매, 육도 이서. 육은 유매엔 허영은에.(예. 육은 유마, 육도 있어. 육은 유마라고 해서.)

104012 @ 유매?(유마?)

104012 #1 예.(예.)

104012 @ 유매는 색깔이 어떤 돌이우파?(유마는 색깔이 어떤 말입니까?)

104012 #1 것도 색깔이 노리지도 아니허고 붉지도 아니허고. 아, 또 저 칠 또 고래.(것도 색깔이 노리지도 아니하고 붉지도 아니하고. 아, 또 저 칠 또 고라말.)

104012 @ 칠 고래?(칠 고라말?)

104012 #1 예.(예.)

104012 @ 칠 고래.(칠 고라말.)

104012 #1 고래물은.(고라말은)

104012 @ 숫자별로 다 잇네양.(숫자별로 다 있네요.)

104012 #1 어, 숫자별로 다 이서.(어, 숫자별로 다 있어.)

104012 @ 유매, 그다음은 칠 고래.(유마, 그다음은 칠 고라말.)

104012 #1 그다음은 엇고.(그다음은 없고.)

104012 @ 그다음은 엇고양? 잘 알암신게마써, 물 종류.(그다음은 없고요? 잘 알고 있어요, 말 종류.)

104012 #1 돌이 게 수백 마리, 수십 마리 질화났주. 저 고래물은 저 색깔이 누리스름허주, 누리스름.(말이 그래 수백 마리, 수십 마리 길렀었지. 저 고라말은 저 색깔이 누르스름하지, 누르스름.)

104012 @ 누리스름. 게 일은 어떤 돌이 잘 됩니까?(누르스름. 그래 일은 어떤 말이 잘 됩니까?)

104012 #1 아, 그건 게, 일허는 건.(아, 그건 게, 일하는 건.)

104012 @ 일허는 건?(일하는 건?)

104012 #1 일허는 건 똑 같고게. 색깔만 틀린 것뿐. 건 사람이 숙달시키는 대로 가는 거지, 어느 말이 잘허는 거 그런 건 엇어.(일하는 건 똑 같고요. 색깔만 다른 것뿐. 건 사람이 숙달시키는 대로 가는 거지, 어느 말이 잘하는 거 그런 건 없어.)

104012 @ 들은 뭐 허젠 집이서 질람수가?(말은 뭐 하려고 집에서 기르고 있습니까?)

104012 #1 아, 거 옛날엔 축산업이엔 허영은에, 게 허영 들 질루면은게.(아, 거 옛날엔 축산업이라고 해서, 그래 해서 말 기르면은요.)

104012 @ 뭘, 뭘 허여?(뭘, 뭘 해?)

104012#1 아, 키와근에게, 폴아근에게 뭘 쓰지. 물은 키우면 쉼 닭지 안 행은에, 이런 갈기, 총, 그거 끈어 가지고 그 비알도 멘들고.(아, 키워서요, 팔아서요 뭘 쓰지. 말은 키우면 소 같지 않아서, 이런 갈기, 총, 그거 끊어 가지고 그 귀알도 만들고.)

104012 @ 비알?(귀알?)

104012 #1 어게, 술게 술.(어게, 술요 술.)

104012 @ 아, 비알이 술이팡?(아, 귀알이 술입니까?)

104012 #1 어, 술, 술 만드는 거. 옛날 술 만든 거는 다 그걸로 만든 거라.(어, 술, 술 만드는 거. 옛날 술 만드는 거는 다 그걸로 만든 거야.)

104012 @ 그 비알이 술, 술이 비알이구나양?(그 귀알이 술, 술이 귀알이구나 예?)

104012 #1 요즘은 비알이엔 현 말이 술이라 술.(요즘은 귀알이라고 한 말이 술이야 술.)

104013 @ 그다음에 저 물로 구르마?(그다음에 저 말로 달구지?\_

104013 #1 아, 건 집이 놓을 땐 구루마질도 허고.(아, 건 집에 놓을 땐 달구지질도 하고.)

104013 #2 밧도 같고.(밭도 같고.)

104013 @ 밧도 갈곡양.(밭도 같고요.)

104013 #1 그건 하나, 집이 신 건. 그 나머지 건 다 저 목장에 강 내불어.(그건 하나, 집에 있는 건. 그 나머지 건 다 저 목장에 가서 내버려.)

104013 @ 그 저 물로는 안 허지양? 쉼질메?(그 저 말로는 안 하지요? 소길마.)

104013 #1 아, 물질메도 잇주게.(아, 말길마도 잇지요.)

104013 @ 물질메도 이서마씨?(말길마도 잇어요?)

104013 #1 구르마 허영, 겐디.(달구지 해서, 그런데.)

104013 @ 그 우티 짐 실을 때, 물도 질메가 잇수가?(그 위에 짐 실을 때, 말도 길마가 있습니까?)

104013 #1 경허고 이 들은 옛날 조팻, 밧 불리젠 허든, 밧 불리는 용.(그리고 이 말은 옛날 조밭, 밧 밟으려고 하면, 밧 밟는 용.)

104013 @ 밧 불리는 용.(밭 밟는 용.)

104013 #1 계난 거 사름으로 불리젠 허믄 못허잖아. 겐 딱시 들은 막 빠르잖아. 계믄 혼 오십 마리 답아노면 한두 시간에 확 불려낫어.(그러니까 거 사름으로 밟으려고 하면 못허잖아. 그래서 다시 말은 아주 빠르잖아. 그러면 한 오십 마리 답아놓으면 한두 시간에 확 밟았었어.)

104013 @ 들굽으로 행은에.(말굽으로 해서.)

104013 #1 어, 들굽으로.(어, 말굽으로.)

104013 @ 들굽 잇지 안 허파? 들굽.(말굽 잇지 않습니까? 말굽.)

104013 #1 아니, 뭐 들 밧자국으로.(아니, 뭐 말 밧자국으로.)

104013 @ 계메 그것이 굽이주마씨, 굽.(글쎄 그것이 굽이지요, 굽.)

104013 #1 겐 거 들 엇인 디서 굽이엔 허는 거주. 겐디 들이 영리해 가지고.(그래서 거 말 없는 데서 굽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말이 영리해 가지고.)

104013 @ 목장에 가민 그 들 훗아와져마씨?(목장에 가면 그 말 훗아와져요?)

104013 #1 잘 훗아오주게.(잘 훗아오지요.)

104013 @ 자기 들 어떻 알양은에?(자기 말 어떻게 알아서?)

104013 #1 거 임제 다 알아.(거 임자 다 알아.)

104013 @ 아, 계난 올라가민 임제 신 디레 읍니까?(아, 그러니까 올라가면 임자 있는 데로 읍니까?)

104013 #1 다 알아. 어러러러<sup>113)</sup> 허민 다 알아.(다 알아. ‘어러러러’ 하면 다 알아.)

104013 #2 물 맥이레 우리 불럼구넨 허영은에예, 다 나옵니다.(물 먹이러 우리 부르고 있구나 해서요, 다 나옵니다.)

104013 #1 다 알아. 게 이 짐승덜이 다 영리허여. 주인덜을 딱 알아. 물더레 어어어<sup>114)</sup> 허게 뉘민 다 알양 다 나와.(다 알아. 그래 이 짐승들이 다 영리해. 주인들을 딱 알아. 말에게 ‘어어어’ 하게 되면 다 알아서 다 나와.)

104014 @ 그다음에 물도 나이가 잇지 안 허우파양? 나이.(그다음에 말도 나이가 잇지 않습니까? 나이.)

104014 #1 어.(어.)

104014 @ 그 저 쉼은 혼 술을 금승이엔 허는디, 들은 나이별로 어떻 명칭을 정합니까? 혼 술, 들 혼 술이 뭐라?(그 저 소는 한 살을 하룻이라고 하는데, 말은 나이별로 어떻게 명칭을 정합니까? 한 살, 말 한 살이 뭐지?)

104014 #1 금승, 금승.(하룻, 하룻.)

104014 @ 쉼영 똑 ㄱ타? 아, 거난 무신거마썸?(소랑 똑 같아? 아, 그러니까 무엇요?)

104014 #1 금승똥 쉼이.(하룻망아지.)

113) ‘어러러러’는 목장에서 말 부르는 소리이다.

114) ‘어어어’는 목장에서 말 부르는 소리이다.

104014 @ 금승몽 생이, 그다음은?(하룻망아지, 그다음은?)  
 104014 #1 이수몽 생이.(이듬망아지.)  
 104014 @ 양, 이수?(예, 이듬?)  
 104014 #1 이수몽 생이.(이듬망아지.)  
 104014 @ 이수몽 생이, 두 술이양?(이듬망아지, 두 살이요?)  
 104014 #1 어.(어.)  
 104014 @ 세 술은?(세 살은?)  
 104014 #1 계난 뭐 시 술은 삼수, 그다음은 큰 물이엔 허영 안 허여.(그러니까 뭐 세 살은 삼수, 그다음은 큰 말이라고 해서 안 해.)  
 104014 @ 삼수몽 생이?(삼수망아지?)  
 104014 #1 그쯤 돼 가민 큰 물이엔.(그쯤 돼 가면 큰 말이라고.)  
 104014 @ 그다음 네 술부면 큰 물양? 큰 물. 겐디 췌는 네 술까지 잊지 안 허 우짱?(그다음 네 살부터는 큰 말요? 큰 말. 그런데 소는 네 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104014 #1 어, 거 금승, 다간, 사릅, 나릅.(어, 거 하릅, 두습, 사릅, 나릅.)  
 104014 @ 췌는?(소는?)  
 104014 #1 금승, 다간, 사릅, 나릅. 그다음부면 큰 췌.(하릅, 두습, 사릅, 나릅. 그다음부터는 큰 소.)  
 104015 @ 큰 췌, 그다음에 물 질루명 추억, 추억 잊지 안 허우짜? 물 질루명 추억, 우리 어릴 때도 물 내창에 오민, 행 그자 돌멩이로 막 맞히곡 경 해났수다. 그 추억 흔 번 말해 봅서.(큰 소, 그다음에 말 기르면서 추억, 추억 있지 않습니까? 말 기르면서 추억, 우리 어릴 때도 말 냇가에 오면, 해서 그저 돌멩이로 마구 맞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추억 한번 말해 보십시오.)  
 104015 #1 우리 물 질루단 저 이렌 밧 엇이 옛날, 저 알드르<sup>115)</sup>엔 밧 감도 헛 주게. 밧 가는 디레 엇어. 저 흔번 저 먹을 것들이 엇주게. 풀도 저 어드레 간에 다 먹어분 거라. 아, 계난 보리밧디 민언 보리 먹지 못허게 허난 환장헌 때가 이서서. 아, 말젠 보난 어 어드레 물들이 보이더라고. 하 경 헨 요거 잘 뵈텐 헤 가지고 물 물안, 아, 겐 영 가가난에 저, 물 임제, 물 임제라. 아니우다, 아, 이거 틀림엇이 보 리 먹었구나. 겐 나 저 아래 넘어간 돌 요멘 헌 거, 말로 특 던지명 물 사릅 물젠 험시냐? 허명 탁 때리니까 이놈 물들이 막 튀명.(우리 말 기르다가 저 이리로는 밧 없이 옛날, ‘알드르’엔 밧 갈기도 했지요. 밧 가는 데 없어. 저 한번 저 먹을 것들이 없지요. 풀도 저 어디로 가서 다 먹어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보리밭 민어서 보리 먹지 못허게 하니까 환장헌 때가 있었어. 아, 말제는 보니까 어 어디로 말들이 보이 더라고. 하 그렇게 해서 요거 잘 뵈다고 해 가지고 말 몰아서, 아,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저, 말 임자, 말 임자야. 아닙니다, 아, 이거 틀림없이 보리 먹었구나. 그래서 나 저 아래 넘어가서 돌 요만큼 한 거, 말로 특 던지면서 말 사릅 물려고 하고

115) ‘알드르’는 아래쪽에 있는 ‘드르’(들)라는 뜻에서, 해변 또는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있느냐? 하면서 탁 때리니까 이놈 말들이 마구 뛰면서.)

104015 @ 계난 늪의 밧디 보리 먹어분 거 아니우꽈?(그러니까 남의 밧에 보리 먹어버린 거 아납니까?)

104015 #1 다 먹어불엇주게. 그 배상허젠 물 다 풀아도 모지레여. 허허허.(웃음)(다 먹어버렸지요. 그 배상하려고 말 다 팔아도 모자라. 허허허.(웃음))

104015 @ 그 물은 보리도 좋아햐구나?(그 말은 보리도 좋아하고 있구나?)

104015 #1 아, 게, 풀이엔 현 건 다 먹주게. 겨울에 먹을 거 엇이민 낭겍도 다 먹는 디.(아, 그래, 풀이라고 한 건 다 먹지요. 겨울에 먹을 거 없으면 나무겍질도 다 먹는데.)

104015 @ 췌는 저 뭐가 제일 좋아허는 거 님더라고, 조코고리. 이디 저 질레에 영 가당 조코고리 보이민 세로 짝 허영은에 먹어불주게.(소는 저 뭐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 조이삭. 여기 저 길에 이렇게 가다가 조이삭 보이면 혀로 짝 해서 먹어버리지요.)

104015 #1 물은 더 먹어. 물은 못 먹는 게 엇어.(말은 더 먹어. 말은 못 먹는 게 없어.)

104015 #2 소는 우틀로만 짤라 먹주마는, 말은 불휘까지 과멍 막 먹어난 디에 아무것도 엇어.(소는 위예로만 잘라 먹지만, 말은 뿌리까지 과면서 마구 먹었던 데는요 아무것도 없어.)

104015 #1 아무것도 엇어.(아무것도 없어.)

104015 @ 아예 판쩍.(아예 전혀.)

104015 #2 예, 판쩍.(예, 전혀.)

104015 #1 거양, 겍질도 벳겨 먹어.(거요, 겍질도 벳겨 먹어.)

104015 #2 소 먹어난 디 보리 먹어도 돌아나주마는 물 먹어난 디 이 흑밭이 웨 불어.(소 먹었던 데는 보리 먹어도 돌아나지만 말 먹었던 데는 이 흑밭이 돼 버려.)

104015 #1 췌, 췌는 이 낭도 이파리만 먹주마는, 물은 먹을 거 엇이민 겍질까지 다 먹어불어.(소, 소는 이 나무도 잎사귀만 먹지만, 말은 먹을 거 없으면 겍질까지 다 먹어버려.)

## 먹이

104016 @ 아, 그다음에 이 저 췌허고 물 먹이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예. 그 물허고 췌, 그 마소엔 허는디, 그 먹이는 어떤 것덜 잇수가?(아, 그다음에 이 저 소하고 말 먹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하고 소, 마소라고 하는데, 그 먹이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4016 #1 아, 예, 그거 출 헤당은에 경 헛주마는, 옛날엔 거 저 목장에 나는 새 출이엔 허영 비어당은에.(아, 예, 그거 풀 해다가 그렇게 했지만, 옛날엔 거 저 목장에 나는 띠꿀이라고 해서 베어다가.)

104016 @ 새 뭐마썸?(띠 뭐요?)

104016 #1 새출, 새꿀.(띠꿀, 띠꿀.)

104016 @ 새꿀. 그냥, 그냥 새출,(띠꿀. 그냥, 그냥 띠꿀.)

104016 #1 어, 새출, 새출.(어, 띠꿀, 띠꿀.)

104016 @ 꿀이 저 출이난, 출입주게.(꿀이 저 '출'이니까 꿀이지요.)

104016 #1 새출. 그거 해당은에 헛고. 물이나 쉼 똑ㄱ튼 건디 이 물은 그런 거 아니 해뵈, 그냥 야우에서. 소만, 소만. 물은 그런 걱정 안 허여.(띠꿀. 그거 해다가 헛고. 말이나 소 똑같은 것인데 이 말은 그런 거 아니 해뵈어, 그냥 야외에서. 소만, 소만. 말은 그런 걱정 안 해.)

104016 @ 야외가 야우?(야외가 '야우'?)

104016 #1 응, 야우.(응, 야외.)

104016 @ 야우.(야외.)

104016 #1 케난 그 대신 이젠 고구마 줄 줄 땐, 감저 줄, 겨울에 그거 곳당 데 썬불민 썬은 거나 저당은에, 눈 올 땐 그거 어떻 안 허여. 허곡 눈 올 때나 해당, 목장더레 저당은에 그때 풀 먹여나수다게. 저강, 처, 처먹어. 케난 게 물들이 먹을 거 었언 사름덜을 다 알주게. 야, 허민 다 와. 케난 이제 주인이 뭐 주젠 햄구나. 뭐 햄구나. 먹이젠 햄구나, 그거 다 알아.(그러니까 그 대신 이젠 고구마 덩굴 줄 때는, 고구마 덩굴, 겨울에 그거 갖다가 던져버리면 썬은 거나 저다가, 눈 올 때는 그거 어떻게 안 해. 하고 눈 올 때나 해다가, 목장으로 저다가 그때 풀 먹였었습니다. 저 가서, 처, 처먹어. 그러니까 그래 말들이 먹을 거 없어서 사람들을 다 알지요. 야, 하면 다 와.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 주려고 하고 있구나. 먹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거 다 알아.)

104017 @ 그다음에 출 어떻 마련합니까? 출, 출, 출 비어야 될 거 아니우파?  
(그다음에 꿀 어떻게 마련합니까? 꿀, 꿀, 꿀 베야 될 거 아닙니까?)

104017 #1 사름으로 다 비엿주.(사람으로 다 베었지.)

104017 #2 팔월 낭 하니브름 나민, 팔월 낭 하니브름 나민 그땐 출을 멧날 메칠 을 빙주게, 눅 허여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무경근에 실러오는 거라마씨.(팔월 나서 북풍 불면, 팔월 나서 북풍 불면 그땐 꿀을 멧 날 며칠을 베지요. 눅 해 가지 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묶어서 실어오는 거지요.)

104017 @ 추석 때 비지양?(추석 때 베지요?)

104017 #2 예, 추석 때 빙니다, 팔월. 하이튼 팔월 저 하니브름, 우리 영 해 보 민 팔월 명질 전이 하니브름 불민 명질 전이라도 비곡, 하니브름 안 터지면 명질 지나근에 그때 강 비곡, 그렇게 허영은에 출은 하루 만에 비영 이틀 만에 강 무꿍 주게. 무경은에 소로도 실러오곡, 물로도 실러오곡 그렇게 허명 소영 물이영 키왔수 게, 그때 당시엔.(예, 추석 때 빙니다, 팔월. 하여튼 팔월 저 북풍, 우리 이렇게 해 보면 팔월 명절 전에 북풍 불면 명절 전에라도 베고, 북풍 안 터지면 명절 지나서 그때 가서 베고, 그렇게 해서 꿀은 하루 만에 베어서 이틀 만에 가서 묶지요. 묶어 서 소로도 실어오고, 말로도 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소랑 말이랑 키웠습니다, 그때

당시엔.)

104017 @ 계난 쉼로 실러오고.(그러니까 소로 실어오고.)

104017 #2 아, 예, 그때 당시는, 이제는 구르마도 싯곡 차도 시난 헛주만은, 그때 당시엔 소 우에 쉼질메 허영 그 서 못씩 서 못씩 허영 혼쪽에 열두 못씩 낡 양쪽에 허른 스물네 못 아이우짱? 경 허여근에 혼 바리씩 혼 바리씩 실러와십주게. (아, 예, 그때 당시는, 이제는 달구지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했지만, 그때 당시엔 소 위에 소길마 그 세 못씩 세 못씩 해서 한쪽에 열두 못씩 놔서 양쪽에 하면 스물네 못 아납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바리씩 한 바리씩 실어왔습지요.)

104017 @ 어, 거난 쉼는 출은 혼 바리가 멧 못이우파?(어, 그러니까 소는 풀은 한 바리가 멧 못입니까?)

104017 #2 혼 바리가 스물닷 못이 혼 바린가?(한 바리가 스물닷 못이 한 바린가?)

104017 @ 스물여섯 못이른 여섯 못이지, 양옆의 실으난.(스물여섯 못이면 여섯 못이지, 양옆에 실으니까.)

104017 #2 예, 열두 못, 열서 못씩 무경, 열서 못씩 시킴실 거라.(예, 열두 못, 열세 못씩 신고 있을 거야.)

104017 @ 혼쪽에 열서 못이면은.(한쪽에 열세 못이면.)

104017 #2 양쪽에.(양쪽에.)

104017 @ 열서 못씩이른 스물여섯 못.(열세 못씩이면 스물여섯 못.)

104017 #2 예.(예.)

104017 @ 경 해야 쉼 겁주. 혼 바리는 이 바리라는 것은 저 쉼에 질메에 실을 수 잇는 양, 이것이 질메에 실을 수 잇는 게 바립주게.(그렇게 해야 될 거지요. 한 바리는 이 바리라는 것은 저 소에 길마에 실을 수 잇는 양, 이것이 길마에 실을 수 잇는 게 바리지요.)

104017 #2 우리도 어린 때는 서 못 낡 베로 영 허영 요쪽에 서 못 낡 요렇게 허멍, 하이튼 열서 못씩 양쪽에 영 실러십주.(우리도 어릴 때는 세 못 놔서 참바로 이렇게 해서 요쪽에 세 못 놔서 요렇게 하면서, 하여튼 열세 못씩 양쪽에 이렇게 실어습지요.)

104017 @ 계난 제일 하영 못 실르는 것이 줍주, 조.(그러니까 제일 많이 못 싯는 것이 조지요, 조.)

104017 #2 조는.(조는.)

104017 #1 서 못.(세 못.)

104017 @ 조는 혼 바리가 서 못.(조는 한 바리가 세 못.)

104017 #2 서 못씩 실림실 겨우다게.(세 못씩 신고 있을 겁니다.)

104017 #1 아이게, 서 못, 서 못, 서못씩.(아니요, 세 못, 세 못, 세 못씩.)

104017 @ 서 못, 계난 막 크게 헛주게.(세 못, 그러니까 아주 크게 헛지요.)

104017 #1 어, 총 여섯 못.(어, 총 여섯 못.)



104018 @ 여섯 못, 양쪽에 서 못씩예. 그다음에 출 비는 거에 대해서 글아줍서, 출 빌 때.(여섯 못, 양쪽에 세 못씩요. 그다음에 풀 베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풀 벨 때.)

104018 #1 출 비는 거사 뭐, 곤곡 대곡 헐 거 이서.(풀 베는 거야 뭐, 말하고 대고 할 거 있어.)

104018 @ 호미로.(낫으로.)

104018 #1 게 호미로 비엿주, 거 뭐.(그래 낫으로 베었지, 거 뭐.)

104018 @ 게민 이제 출 비레 가근에 무신거 갈치도 썩 먹곡 해나지 안 헛수가?(그러면 이제 풀 베러 가서 무엇 갈치도 구워서 먹고 했었지 않습니까?)

104018 #1 게 갈치가 어디 서게.(그래 갈치가 어디 있어.)

104018 #2 출 비렌 가민 갈치 썩 먹을 시간은 엇곡, 작백 우의 올랑은에 졸갱이 타 먹곡 멀리, 멀리, 그땐 뭐 배고픈 시절이난, 밥을 하영, 정심 그자 밥 흔 적 그져 가민, 뭐 허민 그자 출 비당 흥끔 뭐 현 땐 작백 우의 올랑 멀리도 타당 먹곡, 졸갱이도 타당 먹곡 그것이 뭐 헛주.(풀 베러 가면 갈치 구워서 먹을 시간은 없고, 잣벽 위에 올라서 으름 따 먹고 머루, 머루, 그땐 뭐 배고픈 시절이니까, 밥을 많이, 점심 그져 밥 한 적 가져가면, 뭐 하면 그져 풀 베다가 조금 뭐 한 땐 잣벽 위에 올라서 머루도 따다가 먹고, 으름도 따다가 먹고 그것이 뭐 했지.)

104018 @ 게난 거 출बाट디 그런 건 하낫어양?(그러니까 거 풀밭에 그런 건 많았어요?)

104018 #2 예, 작백<sup>116)</sup> 우의덜 막 멀뤼 그튼 거 막 하낫수다게.(예, ‘작백’ 위에 들 아주 머루 같은 거 아주 많았었습니다.)

104018 @ 나도 출을 비어나신디 고등학교 텅길 때, 그, 그때는 저 뭐 험게, 감저 파당, 감저 파당은에, 거기.(나도 풀을 베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그때는 저 뭐 해서, 고구마 파다가, 고구마 파다가, 거기.)

104018 #2 목장 우의 올라가민 감저밭이 어디 십니까?(목장 위에 올라가면 고구마밭이 어디 있습니까?)

104018 @ 아, 게난 미리 행 가는 거지. 감저 파 낱은에 이제 귀 먹는 거.(아, 그러니까 미리 해서 가는 거지. 고구마 파 놔서 이제 구워 먹는 거.)

104018 #2 쉼똥에 정 감저 썩 먹으믄 진짜로 맛 좋습니다. 호호호.(웃음)(소똥에 저렇게 고구마 구워서 먹으면 진짜로 맛 좋습니다. 호호호.(웃음))

104018 @ 걸 흥번 헤낫주마씨. 거면은 이 저 나도 촌에서 영 헤 봐신디 가장 출 비민 걱정이 비라 비.(걸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저 나도 촌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가장 풀 베면 걱정이 비야 비.)

104018 #2 예.(예.)

104018 @ 비 맞이민 누리릉헤불주게.(비 맞으면 누르무레하지요.)

104018 #1 경허난게, 하니브름 난다는 게, 하니브름 날 땐 비가 잘 안 와. 흥 사

116) ‘작백’은 자갈을 쌓아 올린 담벼락이나 돌무지이다.

홀만 몰르민 확 해 와불 거난.(그러니까요, 하늬바람 난다는 게, 하늬바람 날 땐 비가 잘 안 와. 한 사흘만 말리면 확 해 와 버릴 거니까.)

104018 #2 계난 옛날 어른덜은 출 잘 비는 사름은 이 출 석 줌만 허믄 혼 못 현덴 경 험주게. 영 허영 비어똥 영 허영 석 줌만 비믄 딱 혼 못, 석 줌 이빠이 허민 혼 못, 게 출 잘 비는 사름은 테역을 까깁<sup>117)</sup> 허믄 막 출도 하곡, 출 못 비는 사름은 우으로 해올해올<sup>118)</sup> 비어불민 출도 작곡. 호호호.(웃음)(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꿀 잘 베는 사람은 이 꿀 석 줌만 하면 한 못 한다고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해서 베어똥서 이렇게 해서 석 줌만 베면 딱 한 못, 석 줌 가득 하면 한 못, 그래 꿀 잘 베는 사람은 ‘테역을 까깁’ 하면 아주 꿀도 많고, 꿀 못 베는 사람은 위로 ‘해올해올’ 베어버리면 꿀도 적고. 호호호.(웃음)

104018 @ 거난 이 검질메는 거나 출 비는 거나 잘허는 사름이 이서.(그러니까 이 검매는 거나 꿀을 베는 거나 잘하는 사람이 있어.)

104018 #2 예, 예.(예, 예.)

104018 #1 아, 뭐든 다 차이가 이서.(아, 뭐든 다 차이가 있어.)

104018 #2 호미 느슬게 굴양 테 가끄민양, 찜 출 못이 곱 납주게.(낫 날카롭게 갈아서 떼 깎으면요, 찜 꿀 못이 곱 나지요.)

104018 @ 계난 나도 이제 각시안티 검질메렌 허는디, 검질메는 거나 출 비는 거나 마찬가지로. 영 싹 잡으면 글갱이 싹 들어강은에 이것을 왼쪽 손 오른쪽 손이 동시에 영 해야주게. 경 허영 해야 빠지는디, 모른 사름덜은 혼쪽 손만 움직이젠 허거든.(그러니까 나도 이제 각시한테 검매라고 하는데, 검매는 거나 꿀 베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싹 잡으면 호미 싹 들어가서 이것을 왼쪽 손 오른쪽 손이 동시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해야 빠지는디, 모르는 사람들은 한쪽 손만 움직이려고 하거든.)

104018 #1 아이, 아이 똤어.(아니, 안 똤.)

104018 @ 계난 출 빌 때도 마찬가지로. 호미 해영은에 딱 심어근에 딱 해근에 이걸 영 놀르면서 동시에 잡아똥겨야지, 동시에 손 두 개가.(그러니까 꿀 벨 때도 마찬가지로. 낫 해서 딱 잡아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서 동시에 잡아당겨야지, 동시에 손 두 개가.)

104018 #2 그 곡식은 그추록 허영 허주만은, 출은 막 땅 밑으로 영 영 영 허멍테 가끄는 겁주. 경 해야 출 못이 하영 불어나.(그 곡식은 것처럼 해서 하지만, 꿀은 아주 땅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떼 깎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꿀 못이 많이 불어나.)

104018 @ 그다음에 우선 출 비면은 이걸 출 무꺼야 텔 거 아니우파?(그다음에 우선 꿀 베면은 이걸 꿀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4018 #2 예, 출 비민, 그자 출은 안 몰르민 강 달라시냐? 안 달라시냐 강 똥,

117) ‘테역을 까깁’은 꿀의 밑동을 벤다는 뜻이다.

118) ‘해올해올’은 꿀들이 좀 돌아나게 대충대충 벤 상태를 뜻한다.

새 비영, 저 무신거, 께 털영, 께 털영은에 무껌수게.(예, 꼴 베면, 그저 꼴은 안 마르면 말랐느냐? 안 말랐느냐? 가서 봐서, 띠 베어서, 저 무엇 매끼 틀어서, 매끼 틀어서 묶고 있습니다.)

104018 @ 께 베, 께 털영은에 무껌근에, 이거 또 집의까지 가져와야 할 거 아니 우짜?(글쎄, 매끼 틀어서 묶어서, 이거 또 집에까지 가져와야 할 거 아닙니까?)

104018 #2 께 난 께 소에 실령은에 소 한 집원 서너니 께 소 허영 실르고.(그러니까 께 소에 실어서 소 많은 집엔 서너 께 소 해서 실고.)

104018 #1 출 무끄는 거 나 곶아주까? 거 옛날 잘 무끄는 사람은 한번 탁 무껌 껌 던정, 던정 내려오는 사이에 혼 묶음 무끄고 또 던지고.(꼴 묶는 거 나 말해줄까? 거 옛날 잘 묶는 사람은 한번 탁 묶어서 껌 던져서, 던져서 내려오는 사이에 한 묶음 묶고 또 던지고.)

104018 @ 어, 어레 던지는 거라.(어, 어디로 던지는 거야.)

104018 #1 우터레.(위로.)

104018 #2 그건 오름, 오름 밧디 허멍 던지는 거주.(그건 오름, 오름 밧에 하면서 던지는 거지.)

104018 #1 아니, 아니. 출 잘, 출 잘 무끄는 사람덜은 께 허영 확 무껌 껌 던정은에 거 떨어지는 순간 혼 묶음 무껌덴 허여. 그렇게 빨리 무껴.(아니, 아니. 꼴 잘, 꼴 잘 묶는 사람들은 매끼 해서 확 묶어서 껌 던져서 거 떨어지는 순간 한 묶음 묶는다고 해. 그렇게 빨리 묶어.)

104018 @ 아, 그 던지는 거 처음 들었져.(아, 그 던지는 거 처음 듣고 있어.)

104018 #1 아, 영 무껌은에 던지는 거게.(아, 이렇게 묶어서 던지는 거.)

104018 #2 출 비든 영 비스룻이 무끄는 거 잊지 안 허짜? 비스룻이 출 무껌은에 혼 못 영, 출도 영 허여근에 마주 영 탁 출은 길지 안 허니까 마주 영 허영 탁 무껌 밧로 혼번 탁 불랑 이 무릎으로 껌 놀렁 혼번 껌 데끼든 저 오름 신 더렌 알로 통통통 내려오멍, 그 순간에 또 출을 혼 못 또 무껌다는 말입주. 예, 굴러오는 동안.(꼴 베면 이렇게 비스듬히 묶는 거 잊지 않습니까? 비스듬히 꼴 묶어서 한 못 이렇게, 꼴도 이렇게 해서 마주 이렇게 탁 꼴은 길지 안 하니까 마주 이렇게 해서 탁 묶어서 밧로 한번 탁 밧아서 이 무릎으로 껌 눌러서 한번 껌 던지면 저 오름 있는 데로는 아래로 통통통 내려오면서, 그 순간에 또 꼴을 한 못 또 묶는다는 말이 지요. 예, 굴러오는 동안.)

104018 @ 동작으로 헨 굴러오난에 던점고나게.(동작으로 해서 굴러오니까 던지고 있구나.)

104018 #2 예, 예. 오름으로.(예, 예. 오름으로.)

104018 #1 정 안헤도 그냥 재게 무끄는 사람은 확 무껌 탁 던지민 그것들 털어지는 시간에 또 무껌다는 말입주, 빨리빨리 무껌.(저렇게 얹아도 그냥 재우 묶는 묶는 사람은 확 묶어서 탁 던지면 그것들 떨어지는 시간에 또 묶는다는 말이지, 빨리빨리 묶어서.)

104018 #2 그건 영 비스러진 디서 사서, 경 허는 거고.(그건 이렇게 비스듬한 데서 서서, 그렇게 하는 거고.)

104018 @ 거 옛날 그 보리 테작할 때도 경 허여. 그 보리낭 나와 가면, 우리 어머니네 상당이 빨라마썸. 보리낭 나오는 대로 다 이걸 무꺼.(거 옛날 그 보리 타작할 때도 그렇게 해. 그 보릿짚 나와 가면, 우리 어머니네 상당히 빨라요. 보릿짚 나오는 대로 다 이걸 묶어.)

104018 #2 예, 경 협주게. 보리 홀탕 영 놓으민 확 무끄곡.(예, 그렇게 하지요. 보리 훑어서 이렇게 놓으면 확 묶고.)

104018 #1 빠른 사람은 다 무꺼.(빠른 사람은 다 묶어.)

104018 #2 기계로 나올 때덜 돌리만 앞이민 그거 다 무꺼봅시다게. 우리도 경헛수게. 돌리 행, 혼자론 버치고 돌리 행 다 무꿍니다.(기계로 나올 때들 돌만 앞면 그거 다 묶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돌이 해서, 혼자론 부치고 돌이 해서 다 묶습니다.)

104019 @ 그다음에 출 집의 가져오면 이것을 놀 놀어야할 거 아니우꽈?(그다음에 풀 집에 가져오면 이것을 가리 쌓아야 할 거 아닙니까?)

104019 #2 놀 놀어삼주게.(가리 쌓아야지요.)

104019 @ 놀 놀영.(가리 쌓아서.)

104019 #2 그거 영 느람지<sup>119)</sup> 예피곡, 주쟁이 예피곡 허영 스뭇 막 크게 놀영겨울 내내 먹게꾸리 마당에 놀업수게.(그거 이렇게 ‘느람지’ 엮고, 주저리 엮고 해서 사뭇 아주 크게 쌓아서 겨울 내내 먹게 마당에 쌓고 있습니다.)

104019 @ 예, 옛날 보리 놀, 출 놀 커야.(예, 옛날 보리 가리, 풀 가리 커야.)

104019 #2 예.

104019 @ 옛날 일헛 때난게, 아, 우리도 색달리<sup>120)</sup>서.(옛날 일할 때니까, 아, 우리도 ‘색달리’서.)

104019 #2 거기도 그런 거 막 하영 허는 디 아이우꽈?(거기도 그런 거 아주 많이 하는 데 아닙니까?)

104019 @ 보리, 감저, 유채, 이거 최고라낫수다.(보리, 고구마, 유채, 이거 최고였습니다.)

104019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4019 @ 우리가 엄청 농사를 족엇수다. 경 험에 그거 다 풀민 이만 원 뒤면은 그때 밧 흐나 샷주마씨, 계난 일 년에 밧 두 개씩 샷어.(우리가 엄청나게 농사를 족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다 팔면 이만 원 뒤면은 그때 밧 하나 샷지요, 그러니까 일 년에 밧 두 개씩 샷어.)

104019 #2 그땐 이만 원짜리 밧 시민 밧 큰 거우다게.(그땐 이만 원짜리 밧 있으면 밧 큰 것입니다.)

119) ‘느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120) ‘색달리’는 서귀포시 색달동을 일컫는다.

104019 @ 경 허난에 우리 사남일년디 다 갈라젧수게게.(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남일녀인데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104019 #2 맞수다.(맞습니다.)

104019 @ 나도 경 허난 미깡 햐주.(나도 그렇게 하니까 밀감 하고 있지.)

104019 #2 그 당시엔양 부모덜이 부지런허곡 뉘 헌디덜은 밧을 사곡, 술만 먹고 뉘 헌디덜은양 못 샳수다게. 말랑 바른 대로 허주. 나도 시집완에 밧 옷 말지기 물런 혼 칠천 평을 허젠 허난예, 밧 하나 상은에 그거 물젠 허믄 십 년, 오륙 년을 더 걸려마씨.(그 당시에는요 부모들이 부지런하고 뉘 한테들은 밧을 사고, 술만 먹고 뉘 한테들은 못 샳습니다. 말은 바른 대로 하지. 나도 시집와서 밧 여섯 마지기 물려서 한 칠천 평을 하려고 하니까요, 밧 하나 사서 그거 갓으려고 하면 십 년, 오륙 년을 더 걸려요.)

104019 @ 경 햐수다게.(그렇게 햐습니다.)

104019 #2 경 허멍 아기덜, 아기덜 대학 나올 때까지도 밧으로만 살아집디다게. 갱 그뎨 이 밧을 산에 미깡냥 싱건 미깡 또 허연 나가난 침 일 년에 막 잘헐 뎨 일억도 나오고, 일억 더도 나오고, 칠팔천은 그자 보통 나오고, 경허난 그 밧을 사멍 아기덜 장개 다 보내고 대학 다 시기고 집 다 사주고 햐십주.(그렇게 하면서 아기들, 아기들 대학 나올 때까지도 밧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뎨 이 밧을 사서 밀감나무 심어서 밀감 또 햐서 수확해 가니까 침 일 년에 잘할 뎨 일억도 나오고, 일억 더도 나오고, 칠팔천은 그자 보통 나오고, 그러니까 그 밧을 사면서 아기들 장가 다 보내고 대학 다 시키고 집 다 사주고 햐습지요.)

104019 @ 아이고, 고생햐수다.(아이고, 고생햐습니다.)

104019 #2 나 이거 손을 베려봍서, 이제.(나 이거 손 봐보십시오, 이제.)

104019 @ 아직은 판쩍햐수다.(아직은 깨끗햐습니다.)

104019 #2 이거 베려봍서, 이거.(이거 봐보십시오, 이거.)

104019 @ 판쩍햐수다.(깨끗햐습니다.)

104019 #2 이 사름은 나예, 이 사름은양, 이거 베려봍서. 막내로 나근에양 일을 안 햐 보단 이거 아니우파?(이 사름은 나요, 이 사름은요, 이거 봐보십시오. 막내로 나서요 일을 안 햐 보다가 이거 아닙니까?)

104020 @ 난, 나가 다 허여. 하하하.(웃음) 그다음에양 여물 잇지 안 허우파? 쉼 맥일 여물, 거 어떻 마련햐니까? 쉼 여물 맥이지 안 햐니까, 콩이라든가.(난, 내가 다 햐. 하하하.(웃음) 그다음에요 여물 잇지 않습니까? 소 먹일 여물, 거 어떻게 마련햐니까? 소 여물 먹이지 않습니까, 콩이라든가.)

104020 #2 우리, 우리 콩 줄레허곡 보리 줄레 그튼 거, 저 밧 갈젠 허믄 아시날은예, 뒷날 장남 빌영 밧 갈젠 허믄, 아시날 숲양 놔뉘당, 예, 뒷날 그거, 콩도 막 찌끄레기, 제라한 콩은 아니, 경 허영은에 밧 갈젠 허믄 그거 맥엿수게.(우리, 우리 콩 쪽정이하고 보리 쪽정이 같은 거, 저 밧 갈려고 하면 전날요, 뒷날 건강한 일꾼 빌어서 밧 갈려고 하면, 전날 삶아서 놔뉘다가, 예, 뒷날 그거, 콩도 아주 찌꺼기,

온전한 콩은 아니, 그렇게 해서 밭 갈려고 하면 그거 먹었습니다.)

104020 #1 밭갈체나 허주, 그냥 소는 안 맥여.(밭 가는 소나 하지, 그냥 소는 안 맥여.)

104020 @ 계난 우리도 콩 솥양 맥이진 안 허고, 누까.(그러니까 우리도 콩 삶아서 먹이진 않고, 쌀겨.)

104020 #2 ㄱ시락, ㄱ시락도 솥양은에 유까 ㄱ루에 버무령, 보리, 보리 다 까난 거 유까 ㄱ루예.(까끄라기, 까끄라기도 삶아서 쌀겨 가루에 섞어서, 보리, 보리 다 찼던 거 살겨 가루예.)

104020 @ 유까엔 험니까? 누까엔 험니까?('유까'라고 험니까? '누까'라고 험니까?)

104020 #2 유까.(쌀겨.)

104020 @ 유까, 유파예? 우리 동네선 누까엔 허주게.(쌀겨, 쌀겨요? 우리 동네선 '누가'라고 하지요.)

104020 #2 유까, 그거나 그거우다. 그거 허영은에 ㄱ시락 버무령 쉼 주민 쉼가 경 잘 먹읍니다.(쌀겨, 그거나 그거입니다. 그거 해서 까끄라기 섞어서 소 주면 그렇게 잘 먹읍니다.)

104020 @ 계난 쉼도, 집 잘 선택허영.(그러니까 소도, 집 잘 선택해서.)

104020 #1 계난 일 시키젠 허든 어떻 험니까? 잘 맥여사주.(그러니까 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험니까? 잘 맥여야지.)

104020 @ 계난 우리 족은아버지는 쉼 장시 헤나니까 이 유파, 아까 유파엔 굴안게, 유파 헤근에 쉼을 잘 맥여.(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는 소 장시 했으니까 이 쌀겨, 아까 '유파'라고 말하던데, 쌀겨 해서 소를 잘 맥여.)

104020 #2 출 비어당은엔 작두에 쉼영.(풀 베어다가 작두에 쉼어서.)

104020 @ 예, 작두에 쉼영.(예, 작두에 쉼어서.)

104020 #2 예, 맞수다.(예, 맞읍니다.)

104020 @ 잘 맥여신디, 거 풀젠 허난게.(잘 먹었는데, 거 팔려고 하니까.)

104020 #2 맞수다게.(맞읍니다.)

104020 @ 계난 우린 일만 시키젠 허난양 쉼 잘 먹는 것이, 저 감저풀.(그러니까 우린 일만 시키려고 하니까요 쉼 잘 먹는 것이, 저 고구마 덩굴.)

104020 #2 예, 감저줄.(예, 고구마 덩굴.)

104020 @ 감저줄, 감저줄 맥인 거뿐.(고구마 덩굴, 고구마 덩굴 먹인 거뿐.)

104020 #1 맞아.(맞안.)

104020 @ 그냥 출 생체로 맥이고.(그냥 풀 날것 그대로 먹이고.)

104020 #2 옛날엔 송아지 하나 낭 밭 하나 산 사름덜이 핫수게게.(옛날엔 송아지 하나 낳아서 밭 하나 산 사람들이 많읍니다.)

104020 @ 아이, 경 헛주마씨, 옛날. 옛날엔 멤쉼도 헤낫수게.(아니, 그렇게 했지요, 옛날. 옛날엔 배넛소도 했었읍니다.)

104020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4020 @ 그 저 옛인 사름 멤쉐 허영은에.(그 저 없는 사람 배넛소 해서.)

104020 #2 멤쉐 헤정 송아기 낭 하나 ㄴ져오곡 하나 ㄴ져가곡.(배넛소 해줘서 송아지 낳아서 하나 가져오고 하나 가져가고.)

104020 @ 멤쉐, 우리도 멤쉐 쥐넛수다게.(배넛소, 우리도 배넛소 줬었습니다.)

104020 #2 아이고, 나도 밧 갈젠, 나 시집완 이 사름은 막내아덜로양, 막내아덜로, 것도.(아이고, 나도 밧 갈려고, 나 시집와서 이 사람은 막내아들로요, 막내아들로, 것도.)

104021 @ 그다음에 출 빌 때 얽힌 추억 곱아줍서. 출 비명게 얽힌 추억들 잊지 안 허우파?(그다음에 풀 벨 때 얽힌 추억 말해주십시오. 풀 베면서요 얽힌 추억들 있지 않습니까?)

104021 #2 출 빌 때 가민양 우린 이 동네 할망, 할무니덜 몇 사름 빌영 가문 할무니덜이 출비는소리<sup>121)</sup> 잘허는 어른덜은 그렇게 잘 험니다게. 게문 그 소리 들으멍 허당 보민 해가 저물어마씨.(풀 벨 때 가면요 우린 이 동네 할머니, 할머니들 몇 사름 빌어서 가면 할머니들이 ‘출비는소리’ 잘하는 어른들은 그렇게 잘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서 하다가 보면 해가 저물어요.)

104021 #1 옛날엔 검질멜 땀 그 사대소리<sup>122)</sup>, 또 출 빌 땀 출비는소리 거 몰라.(옛날엔 검멜 땀 그 ‘사대소리’, 또 풀 벨 땀 ‘출비는소리’ 거 몰라.)

104021 @ 옛날 하르방, 할망덜 보민 노동요엔 허영 일헐 때마다 다 노래가 이서.(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민 노동요라고 해서 일할 때마다 다 노래가 있어.)

104021 #2 검멜 땀 사대소리가 잇고, 출 빌 때도 할망덜은 어떻게 허느냐 허민 오오오오오 헝 그렇게 잘 험니다게.(검멜 땀 ‘사대소리’가 잇고, 풀 벨 때도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오오오오 해서 그렇게 잘 합니다.)

104021 @ 경 해야 일헐 때 좀 재미나게 허는 겁주게.(그렇게 해야 일할 때 좀 재미나게 하는 거지요.)

104021 #1 경 안 허믈 버쳐근에게.(그렇게 안 하면 부쳐서요.)

104021 @ 이제는 저 보는 것도 하주만은 옛날엔 그런 것밖엔 엇수게.(이제는 저 보는 것도 많지만 옛날엔 그런 것밖엔 없습니다.)

104021 #2 이 사름은양 몸도 약허고, 이 사름이 질 죽수다게, 동기간 중에. 아방네<sup>123)</sup>가 아덜은 나민 죽고 나민 죽곡, 나민 니 성제나 다 죽으난 아덜 성제 나부난 죽은아덜이 몸도 약허고 허난 일을 시긴 말이우파? 나 시집을 와 보난예, 아기, 아기만 허영 만날 이제도 아기라마씨. 게난 나 살명 굽굽허여마씨, 늣덜은 좋덴 헤도.(이 사름은요 몸도 약하고, 이 사름이 쥬 작습니다, 동기간 중에. ‘아방네’가 아들을 낳으면 죽고 낳으면 죽고, 낳으면 사 형제나 다 죽으니까 아들 형제 낳아버리니

121) ‘출비는소리’는 늦가을에 한 해 동안 마소에게 먹일 꼴을 산간에 있는 꼴밭에서 베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출비는흥애기’라고도 한다.

122) ‘사대소리’는 여자들이 밭에서 김을 매며 부르는 노동요이다.

123) ‘아방네’는 원래 ‘아버지네’인데, 여기서는 ‘남편네’를 뜻한다.

까 작은아들이 몸도 약하고 하니까 일을 시킨 말입니까? 나 시집을 와 보니까요, 아기, 아기만 해서 맨날 이제도 아가지요. 그러니까 나 살면서 갑갑해요, 남들은 좋다고 해도.)

### 멜감

104022 @ 경 허난 잘 살았수게. 그다음양 우리 저 멜감양, 지들커, 지들커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수가?(그렇게 하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우리 저 멜감, 멜감, 멜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22 #2 나 시집은 오난예, 지들커 종류엔, 저 산에, 산에 간에 춤가시낭덜 잇지 안 허우꽈?(나 시집은 오니까요, 멜감 종류라고, 저 산에, 산에 가서 참가시나무들 잇지 않습니까?)

104022 #1 어, 지들커는 보리낭 진엇주게.(어, 멜감은 보릿짚 때엇지요.)

104022 #2 예, 그전인 보리낭 진영, 제일 좋게 낭 때영 밥허젠 허민 겨울엔 보리만 갈아불민 혈 것이 엇지 안 험니까? 경허민 그때부턴 목장에 나무허래 다니는 거라마씨.(예, 그전에는 보릿짚 때어서, 제일 좋게 나무 때어서 밥하려고 하면 겨울엔 보리만 갈아버리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턴 목장에 나무하러 다니는 거지요.)

104022 @ 낭, 낭.(나무, 나무.)

104022 #2 낭, 이제 ㄹ트민 차로나 구르마로라도 확 실러오주만은 그때 당시엔 등짐이 정 하루에 석 짐씩 중참, 중참, 중참 허명.(나무, 이제같으면 차로나 달구지 로라도 확 실어오지만 그때 당시엔 등짐에 저서 하루에 석 짐씩 중참, 중참, 중참 하면서.)

104022 @ 계난 무슨 낭마씨?(그러니까 무슨 나무요?)

104022 #2 춤가시낭이영, 다근죽낭 ㄹ튼 거.(참가시나무랑 예덕나무 같은 거.)

104022 @ 다근죽낭, 춤가시낭.(예덕나무, 참가시나무.)

104022 #2 다근죽낭 ㄹ튼 거, 팡낭 ㄹ튼 거예. 켜디 제일 불 숲기 좋은 낭은 불레낭, 팡낭.(예덕나무 같은 거, 팡팡나무 같은 거요. 그런데 제일 불 때기 좋은 나무는 보리수나무, 팡팡나무.)

104022 @ 불레낭, 팡낭.(보리수나무, 팡팡나무.)

104022 #2 예, 춤가시낭 ㄹ튼 거.(예, 참가시나무 같은 거.)

104022 @ 춤가시낭은 안 좋암직헌디.(참가시나무는 안 좋을 것 같은데.)

104022 #2 춤가시낭이 막 좋습니다.(참가시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104022 @ 계난 저 뭐냐, 가시덜.(그러니까 저 뭐냐, 가시들.)

104022 #2 가시 하영 이서도예, 불때는 건예.(가시 많이 있어도요, 불때는 건요.)

104022 @ 아, 불이 좋구나.(아, 불이 좋구나.)

104022 #2 예, 불이 달아.(예, 불이 달아.)



104022 #1 가시냥은 좋은디 무거와.(종가시나무는 좋은데 무거워.)

104022 #2 무거와. 계문 이 저 잡가시냥덜은 개뽀고 좀 엉글엉글허민 냥, 이 불 때는 것도예, 흐끔 들썩들썩 들러지명예, 그렇게 잘 부뽀니다게.(무거워. 그러면 이 저 잡종가시나무들은 가볍고 좀 엉글엉글하면 놔서, 이 불 때는 것도요, 조금 달썩달썩 들뜨면서요, 그렇게 잘 불습니다.)

104023 @ 그다음에 쉼뽀하고 들뽀?(그다음에 소뽀하고 말뽀?)

104023 #2 쉼뽀하고 들뽀은 굴목<sup>124</sup> 진엇수게.(소뽀하고 말뽀은 ‘굴목’ 때엿습 니다.)

104023 @ 굴목양?(‘굴목’요?)

104023 #2 방 뜨시게, 굴목 진엇수게. 굴목 진주, 그걸로 밥헝 먹는 뽀감으론 안 썩수다. 이 방 뜨시게 굴목 진엇주.(방 따뽀하게, ‘굴목’ 때엿습니다. ‘굴목’ 때지, 그 걸로 밥해서 먹는 뽀감으로 안 썩습니다. 이 방 따뽀하게 ‘굴목’ 때엿지.)

104023 @ 그 저 무신것도, 낭 비어나믄 무신거, 등체기.(그 저 무엇도, 나무 베 어나면 무엇, 나무 밀동.)

104023 #2 등체기, 등체기 그거.(나무 밀동, 나무 밀동 그거.)

104023 @ 낭 등체기.(나무 밀동.)

104023 #2 낭 등체기 보고 장작이엔 허는가? 그거 해당은에 진고.(나무 밀동 보 고 장작이라고 하는가? 그거 해다가 때고.)

104023 @ 그거 해당 진고양.(그거 해다가 때고요.)

104023 #2 저 깨영 즈근즈근허명 허고예.(저 깨어서 자근자근하면서 하고요.)

104023 @ 굴목 진엇구나, 굴목.(‘굴목’ 때엿구나, ‘굴목’.)

104023 #2 그걸론 뽀감으로 헛주. 굴목은 그자 쉼뽀하고 ㄴ시락.(그걸론 뽀감으 로 헛지. ‘굴목’은 그자 소뽀하고 까끄라기.)

104023 @ ㄴ시락? ㄴ시락은 오래 안 가.(까끄라기? 까끄라기는 오래 안 가.)

104023 #2 오래 안 가도게, 그때 당시엔게 그거 불뽀 거, 경 허영은에 그날 굴 목 ㄴ시락에 불부썩 허엇당, 또 뒷날 아침인 또 군데 허영 불체 거뒤뽀 또 진곡, 또 진곡, 경 허명 살아십주게.(오래 안 가도요, 그때 당시엔 그거 불뽀 거, 그렇게 해서 그날 ‘굴목’ 까끄라기에 불붙여서 하엿다가, 또 뒷날 아침에는 고무래 해서 재 거뒤 뽀서 또 때고, 또 때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지요.)

104023 #1 거 불체 걸름도 허곡게.(거 재 거름도 하고요.)

104024 @ 거 솔섭 걷으레 뽀겨 뽀디가?(거 솔잎 걷으러 다녀 봤습니까?)

104024 #2 예, 솔입은 글쟁이 해당은에, 솔입 글거당 불때십주게.(예, 솔잎은 갈 퀴 해다가, 솔잎 굶어다가 불뽀습지요.)

104024 @ 솔입이엔 헛니까?(‘솔입’이라고 합니까?)

104024 #2 솔섭, 솔섭.(솔잎, 솔잎.)

104024 @ 솔섭이엔 헛니까?(‘솔섭’이라고 합니까?)

124)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 104024 #2 예, 솔섭.(예, 솔잎.)
- 104024 @ 예, 솔섭.(예, 솔잎.)
- 104024 #2 솔섭 허영은에 그건 뽕감으로 씻수게.(솔잎 해서 그건 뽕감으로 씻습니다.)
- 104024 @ 글쟁이로 글경 오고.(갈퀴로 긁어서 오고.)
- 104024 #2 소낭밭디 강 보민 솔섭은 사름마다 다 스뭇 미룻 허젠 가명.(소나무 밭에 가서 보면 솔잎은 사람마다 다 사뭇 미리 하려고 가면서.)
- 104024 @ 아, 이젠 하서.(아, 이젠 많아.)
- 104024 #2 이젠 감만 허믄 막 놀언.(이젠 가기만 하면 마구 쌓였어.)
- 104024 #1 이젠 해가민 걸름 행 좋아.(이젠 해가면 거름 해서 좋아.)
- 104024 #2 이제 그거 뽕감허는 사름덜 잇수가?(이제 그거 뽕감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 104024 @ 솔섭도 걸름 허여?(솔잎도 거름 해?)
- 104024 #2 아이고, 안 됩니다. 에에, 썩지 아니허여.(아이고, 안 됩니다. 에에, 썩지 않아.)
- 104024 @ 거 이제는 걸름이 안 되는 거 닻아, 숙대낭섭허고 솔섭은.(거 이제는 거름이 안 되는 거 같아, 삼나무잎하고 솔잎은.)
- 104024 #2 숙대낭섭이나 솔섭이나 다 덮쳐 놔두민 헤양게 곰생이 피멍.(삼나무 잎이나 솔잎이나 다 덮쳐서 놔두면 하양게 곰팡이 피면서.)
- 104024 @ 곰생이 피어.(곰팡이 피어.)
- 104024 #2 험니다게, 오래돼사 건. 숙대낭은 여기 우리 예염에 영 막 끈영 낭 놔두민 흔해 허민 그자 그 아래 막 썩영은에 걸름 됩니다게.(합니다, 오래돼야 건. 삼나무는 여기 우리 옆에 이렇게 마구 끊어서 나무 놔두면 한해 하면 그저 그 아래 마구 썩어서 거름 됩니다.)
- 104024 #1 흔 몇 년 돼어사.(한 몇 년 되어야.)
- 104024 #2 검질 안 나게 알더레 끝아불엄수게.(김 안 나게 아래로 깔아버리고 있습니다.)
- 104025 @ 그다음에, 아까 저 낭허레 이 저 지들커 허쟁 여긴 어디 올라강은 에?(그다음에, 아까 저 나무하러 이 저 뽕감 하려고 여긴 어디 올라가서?)
- 104025 #2 여긴 목장에마씨, 목장에.(여긴 목장예요, 목장에.)
- 104025 @ 목장에 강?(목장에 가서?)
- 104025 #2 영어교육도시 들어오는 디.(영어교육도시 들어오는 데.)
- 104025 @ 아, 거기 저.(아, 거기 저.)
- 104025 #1 거기가 목장이라.(거기가 목장이야.)
- 104025 #2 예, 거기.(예, 거기.)
- 104025 @ 꽃자왈<sup>125)</sup> 쪽에.(‘꽃자왈’ 쪽에.)

125) ‘꽃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다.

104025 #2 예, 거기가 꽃자왈 잇수다게. 거기 강 해와십주.(예, 거기가 ‘꽃자왈’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해왔습지요.)

104025 @ 거기 강은에, 아까.(거기 가서, 아까.)

104025 #2 예, 흐루에 춤.(예, 하루에 참.)

104025 @ 아까 춤가시냥허고.(아까 참가시나무하고.)

104025 #2 춤가시냥, 볼레냥, 팡냥, 거기 잡냥덜 막 합니다게. 켄디 춤가시냥은 이 호미로 나문 하기 좋은디 막 무거와예, 정 오젠 허민, 게민 그거.(참가시나무, 보리수나무, 팡팡나무, 거기 잡나무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참가시나무는 이 낮으로 나무는 하기 좋은데 아주 무거워요, 저서 오려고 하면, 그러면 그거.)

104025 @ 다근죽냥?(예덕나무?)

104025 #2 예, 다근죽냥이 질 게베웁니다, 냥을 해보민.(예, 예덕나무가 쥔 가법 습니다, 나무를 해보면.)

104025 #1 지금 허민 옛날에 누게 그 목장이.(지금 하면 옛날에 누구 그 목장에.)

104025 #2 경 허영 폭냥도 무겁곡, 경 그거 허여당, 그거 허여당은에 모슬포 강 흔 짐 정 강 몰르민, 정 깨영, 몰르민.(그렇게 해서 팡나무도 무겁고, 그렇게 그거 해다가, 그거 해다가 모슬포 가서 한 짐 저가서 마르면, 저서 매끼랑, 마르면.)

104025 #2 청수<sup>126)</sup> 목장허고 ㄹ치 부떠서.(‘청수’ 목장하고 같이 붙어서.)

104025 @ 나양, 요번에 이 꽃자왈을 걸엇수게. 아, 그디 각시영 어디서부터 걸 어시냐 허면은 저 어디.(나요, 요번에 이 ‘꽃자왈’을 걸었습니다. 아, 거기 마누라랑 어디서부터 걸었느냐 하면은 저 어디.)

104025 #2 이 영어교육도시.(이 영어교육도시.)

104025 @ 저지<sup>127)</sup>에서 걸언에 이 저 오설록<sup>128)</sup>.(저지리에서 걸어서 이 저 ‘오설록’.)

104025 #2 예, 예.(예, 예.)

104025 @ 오설록 가 왔어, 아, 건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냥 뭐 하늘도 안 보이고, 상당히 겁난 디테예. 아이 요즘 들개들 하부난게.(‘오설록’ 가 왔어, 아,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냥 뭐 하나도 안 보이고, 상당히 겁난 곳이더라고. 아니 요즘 들개들 많아 버리니까.)

104025 #2 맞수다.(맞습니다.)

104025 #1 아, 거기, 그디 말아 어디 신평<sup>129)</sup> 올렛길 가민.(아, 거기, 거기 말고 어디 신평 올레길 가면.)

104025 #2 영어교육도시, 꽃자왈, 올렛길 막 좋은 디 잇수게, 여기.(영어교육도시, ‘꽃자왈’, 올레길 아주 좋은 데 있습니다, 여기.)

126) ‘청수’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이다.

127) ‘저지’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를 말한다.

128) ‘오설록’은 항공우주박물관 근처에 위치한 녹차 단지이다.

129) ‘신평’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를 말한다.

104025 @ 도립 꽃자왈?(도립 ‘꽃자왈’?)

104025 #2 예.(예.)

104025 @ 아, 나, 갔다 왔수다.(아, 나, 갔다 왔습니다.)

104025 #1 거기가 좋지, 거기가 좋아.(거기가 좋지, 거기가 좋아.)

104025 @ 나 안 텅긴 디가 엇수다게.(나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104025 #1 제주도립꽃자왈 좋아.(제주도립꽃자왈 좋아.)

104025 @ 거긴 사름덜 하영 다닙디다.(거긴 사람들 많이 다닙디다.)

104025 #1 하영 다니곡 저, 여름에 시원하고.(많이 다니고 저, 여름에 시원하고.)

104025 @ 건디 여긴 보면은 아까 곧던 건디 밧마다 다근죽냥이 수두룩이라.(그런데 여긴 보면은 아까 말하던 것인데 밧마다 예덕나무가 아주 많아.)

104025 #1 어, 어.(어, 어.)

104025 #2 건디 다근죽냥이예, 우린 몰라신디 육지분덜 요쪽에 왕 사는디 다근죽냥이 위, 위에 위약입디다.(그런데 예덕나무가요, 우린 몰랐는데 육지분들 요쪽에 와서 사는데 예덕나무가 위, 위에 위약입디다.)

104025 @ 아, 그 썸마씨?(아, 그 잎요?)

104025 #2 다근죽냥이예, 영 끈영 영 허민 좌좌 벧겨정은에 그거 물리와근에예 그거 딸리멍 먹어사.(예덕나무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면 좌좌 벧겨져서 그거 말려서 그거 달이면서 먹어야.)

104025 @ 아, 그거 위약이엔?(아, 그거 위약이라고?)

104025 #2 예, 위약. 저 무슨 나무 헛개나무 알아집니까? 헛개나무?(예, 위약, 저 무슨 나무 헛개나무 알 수 있습니까? 헛개나무.)

104025 @ 예, 헛개.(예, 헛개.)

104025 #2 헛개나무 열매.(헛개나무 열매.)

104025 @ 헛개낭 팝니다, 헛개낭.(헛개나무 팝니다, 헛개나무.)

104025 #2 헛개 열매 알아지쿠가? 헛개나무 열매.(헛개 열매 알겠습니까? 헛개나무 열매.)

104025 @ 아, 난 안 봐봤수다만은 저 상점에도 보면 헛개 물 허영은에 간에 좋덴 허영.(아, 난 안 봤습니다만 저 상점에도 보면 헛개 물 해서 간에 좋다고 해서.)

104025 #2 예, 간이, 오늘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난예.(예, 간에, 오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104025 #1 오일장에도 잇어.(오일장에도 잇어.)

104025 #2 간 나뻬에 곧 죽을 지경이엔 헤신디 헛개 열매, 산에 가든 저 우에 헛개나무 열매가 이만씩 현 겁디다. 그거 딸린 먹으난에 간도 깨끗하게 닳고 죽어 지카부덴현 것이 살아점젠 헛디다게. 게난 목장이 헛개나무가 실 건디 헤신디.(간 나빠서 곧 죽을 지경이라고 했는데 헛개 열매, 산에 가면 저 위에 헛개나무 열매가 이만큼씩 한 겁디다. 그거 달여서 먹으니까 간도 깨끗하게 닳고 죽을까 싶어서 한

것이 살아지고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목장에 헛개나무가 있을 것인데 했는데.)

104025 @ 아, 여긴 별로 엇어, 이 헛개는 육지, 게고 나 요번에 들은 말인디 막 위 나쁜 사름 아침에 밥 안 먹영 이 득새기 숲은 거 두 개 먹으면 막 좋넨.(아, 여긴 별로 없어, 이 헛개는 육지, 그리고 나 요번에 들은 말인데 아주 위 나쁜 사름 아침에 밥 안 먹어서 이 달걀 삶은 거 두 개 먹으면 아주 좋다고.)

104025 #2 아, 기파?(아, 그렇습니까?)

104025 @ 득새기 숲은 거 두 개.(달걀 삶은 거 두 개.)

104025 #2 겐디 득새기 하루에 남자덜은 꼭 두 개 먹으렌 험니께. 그러민 치매도 예방돼곡예 몸에 경 좋덴 험디다.(그런데 달걀 하루에 남자들은 꼭 두 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도 예방되고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디다.)

104025 @ 위에 좋덴.(위에 좋다고.)

104025 #2 득새기 두 갠 남자덜 하루에 필수 먹어줘야 헌덴.(달걀 두 개는 남자들 하루에 필수 먹어줘야 한다고.)

104026 @ 하하하.(웃음) 그다음에 솟 귀 톱디가?(하하하.(웃음) 그다음에 솟 구워 봤습니까?)

104026 #1 해, 예.(해, 예.)

104026 #2 솟?(솟?)

104026 @ 솟 굽는 거 흥번 곶아줍서.(솟 굽는 거 한번 말해주십시오.)

104026 #2 솟 굽는 거예, 옛날 우리 옹기, 우리 오빠네가 옹길 만들아근에, 옛날엔 섬비엔 허영 목장이 낭 비어근에 막 이만씩 무경.(솟 굽는 거요, 옛날 우리 질그릇, 우리 오빠네가 옹길 만들어서, 옛날엔 콩게라고 해서 목장에 나무 베어서 마구 이만큼씩 묶어서.)

104026 #1 거 저 옷 다리는 솟 굽는 게 아니고, 거 저 옹기 해가민 막 목장이 낭덜 그냥 막 옹기 짓젠 불 때잖아. 게문 그것이 때나른 요멘씩 요멘씩 막 허영.(거 저 옷 다리는 솟 굽는 게 아니고, 거 저 옹기 해가면 막 목장에 나무들 그냥 마구 옹기 때려고 불 때잖아. 그러면 그것이 때어 나면 요만큼씩 요만큼씩 막 해.)

104026 @ 거 아무 낭도 안 돼지양?(거 아무 나무도 안 되지요?)

104026 #1 아이, 아무 낭이나 돼어, 아무 낭이나, 가시낭도도 돼어.(아니, 아무 나무나 돼, 아무 나무나, 가시나무도 돼.)

104026 @ 아무 낭이나 돼어?(아무 나무나 돼?)

104026 #1 어, 가시낭이고 뭐고 다.(어, 가시나무고 뭐고 다.)

104026 #2 경허민 막 나무가 다 돼민 구덩이가 다 그득아 갈 거 아니우파? 그걸 꺼내불어야 또 나무가 들면 그거 해영은에 바깳더레 내청은에 물 안 지척 그거 뭐 탁 더평 놔둬야 팔아근에 그걸 옛날 화리에 불도 살르곡, 그거에 다리미질도 허고.(그러면 마구 나무가 다 되면 구덩이가 다 가득해 갈 거 아닙니까? 그걸 꺼내 버려야 또 나무가 들면 그거 해서 바깳으로 내쳐서 물 안 지쳐서 그거 뭐 탁 덮어서 놔둬야 화력이 세어서 그걸 옛날 화로에 불도 사르고, 그거에 다리미질도 하고.)

104026 @ 다리미질도 그 솥 뇌근에 헛주마씨, 옛날 식게 땀게 그 화리에.(다리미질도 그 솥 넣어서 했지요, 옛날 제사 땀요 그 화로에.)

104026 #2 게고 집집마다 화리 뇌근에.(그리고 집집마다 화로 넣어서.)

104026 @ 거기 적도 굽곡 해얍주.(거기 적도 굽고 해야지요.)

104026 #1 거의 화리 뇌서.(거의 화로 넣어서.)

104026 #2 예, 거의 화리 엇인 집이 엇엿수다. 우리 작은오빠넨 화리 만들아근에 화리 시아게 막 허고 경 해낫수다, 신평리서.(예, 거의 화로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작은오빠넨 화로 만들어서 화로 마감 마구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평리에서.)

104026 @ 게난 화리도 췌로 뵈 화리가 잇고.(그러니까 화로도 쇠로 된 화로가 잇고.)

104026 #1 그건 정동화리.(그건 청동화로.)

104026 #2 혁으로 만든, 혁으로 만든.(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104026 @ 정동화리허고, 그다음에 저 혁으로 만든 거, 옹기?(청동화로하고, 그다음에 저 흙으로 만든 거, 질그릇?)

104026 #2 예, 옹기.(예, 질그릇.)

104026 @ 거난 것도 잘 사는 집인 정동화리 해근에.(그러니까 것도 잘 사는 집엔 청동화로 해서.)

104026 #2 예.(예.)

104026 #1 정동화린 멧 개 엇어.(청동화론 멧 개 없어.)

104026 @ 엇어낫수다.(없었습니다.)

104026 #1 엇어, 엇어, 우리도 옛날 저.(없어, 없어, 우리도 옛날 저.)

104026 @ 흔 동네에 흔 두 갠가 정도.(한 동네에 한 두 갠가 정도.)

104026 #1 흥나.(하나.)

104026 #2 우리 집이도 우리 시아부지네 늦 이만헌 거, 발 네 개 영 돋은 거, 잘도 건사헌 거 섯는데 우리 시아방 죽어부난, 우리 시아주버니 가져간게 딸 쥐불 구렌 허멍, 이제 ㄱ트면.(우리 집에도 우리 시아버지네 늦 이만한 거, 발 네 개 이렇게 돋은 거, 잘도 건사헌 거 있었었는데 우리 시아버지 죽어버리니까, 우리 시아주버니 가져가서 딸 쥐버렸다고 하면서, 이제 같으면.)

104026 #1 거, 담배 혈 때난 아버지가, 담배 혈 때난 전매청, 그때 거 준 건데 아버지가 담배 잘헛주기, 그때 거 상품으로 받아온 거라. 그때 아무나 거 정동화리가 엇은 때, 생각 못해서, 사질 못 헨.(거, 담배 할 때니까 아버지가, 담배 할 때니까 전매청, 그때 거 준 것인데 아버지가 담배를 잘헛지요, 그때 거 상품으로 받아온 거야. 그때 아무나 거 청동화로 없을 때, 생각 못 해서, 사질 못했어.)

104026 #2 아이고, 이젠 진짜 너무 살기가 편헛수다게. 아이고, 그때 당시엔예.(아이고, 이젠 진짜 너무 살기가 편헛습니다. 아이고, 그때 당시엔요.)

104026 @ 아, 경허난 지금 돈은 좀 벌엄주마는, 옛날보다 돈 갑어치가 엇인 거

답아.(아, 그러니까 지금 돈은 좀 별로 있지만, 옛날보다 돈 값어치가 없는 거 같아.)

104026 #1 정동화리, 어디 정동화리 있어.(청동화로, 어디 청동화로 있어.)

104026 @ 나는 지금 직장 다니곡 햐주마는 무신거 하나 사질 못허크라, 돈 엇안.(나는 지금 직장 다니고 하고 있지만 무엇 하나 사질 못하겠어, 돈 없어서.)

104026 #2 계난.(그러니까.)

104026 @ 울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덜 공부시키고.(울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들 공부시키고.)

104026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4026 @ 영 허명도 옛날 밧을 샐거든.(이렇게 하면서도 옛날 밧을 샐거든.)

104026 #2 맞수다, 맞수다게. 우리도 우리 아기덜토 마찬가지로우다게, 지금.(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104026 @ 떡영 살아간다.(떡어서 살아간다.)

104026 #2 저 아기덜 고등학교 시킬 때에 밧을 다 사신디, 우리 아덜덜은 이제 장게 가근에 아기덜 고등학교 다 나와도 우리 물려준 거 그냥 고대로 밧 하나 사질 안 해서.(저 아기들 고등학교 시킬 때에 밧을 샐는데, 우리 아들들은 이제 장가가서 아기들 고등학교 다 나와도 우리 물려준 거 그냥 그대로 밧 하나 사질 안 했어.)

104026 @ 아, 거난 풀지 안 허민 다행이우다게. 밧만 어서도 다행이고.(아,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밧만 없어도 다행이고.)

104026 #2 밧 싯겐 안 살암수다만은게.(밧 있게는 안 살고 있습니다만.)

104026 @ 우리 동네도 보민양, 지금 물려받은 것들, 우리 나이 또래들 다 풀아서.(우리 동네도 보면요, 지금 물려받은 것들, 우리 나이 또래들 다 팔았어.)

104026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4026 @ 거 옛날 그 저 뭐냐 경마장 생긴 때.(거 옛날 그 저 경마장 생긴 때.)

104026 #1 어어, 맞아.(어어, 맞아.)

104026 @ 거기 간덜 거양 다 바쳐분 거라.(거기 가서들 거요 다 바쳐버린 거야.)

104026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4026 @ 그뻐 밧 값도 잘 안 줄 때라노난.(그뻐 밧 값도 잘 안 줄 때였으니까.)

104026 #2 아이구, 밧 최고 밧난 것이 요 백오십 원 얼마 헐 때 아니우파게.(아이고, 밧 최고 비싼 것이 요 백오십 원 얼마 할 때 아닙니까.)

104026 @ 계난.(그러니까.)

104026 #2 삼백 원 헐 때만 해도 이거 혼 십 년벳기 안 똥수다. 밧 혼 말지기에 삼백 원 헐 때.(삼백 원 할 때만 해도 이거 한 십 년밖에 안 똥습니다. 밧 한 마지기에 삼백 원 할 때.)

104026 @ 거난 이제 똥 허느냐 허면은 우리 동네 젊은 사름덜, 밧을 과수원 다

풀았거든, 어디 사름덜안티 풀았느냐 허면 서울, 서울이라.(그러니까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 동네 젊은 사람들, 밭을 과수원 다 팔았거든, 어디 사람들한테 팔았느냐 하면 서울, 서울이야.)

104026 #2 오, 그 사름덜은 부제뉘실 거라.(오, 그 사람들은 부자되었을 거야.)

104026 @ 거난 서울 사름덜이 미짱 멧 박스만 보내면은 그냥 공짜로 영 허영.(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밀감 몇 상자만 보내면은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해서.)

104026 #2 밧 그냥.(밭 그냥.)

104026 @ 허렌 허여근에.(하라고 해서.)

104026 #2 이제 그추룩 현 밧덜이 막 하우다게.(이제 것처럼 한 밧들이 아주 많습니다.)

104026 @ 아, 우리도 우리 동네도 하우다.(아, 우리도 우리 동네도 많습니다.)

104026 #2 맞수다게, 그 사름덜은 이루후제 땅만 풀아도 멧 곱을 냉겨십주게.(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후에 땅만 풀아도 멧 곱을 남겼습지요.)

104027 @ 그다음에양, 이 저 지들커 허멍 얼컷던 추억, 옛날 낭허레 강.(그다음에요, 이 저 빨감 하면서 엮혔던 추억, 옛날 나무하러 가서.)

104027 #2 옛날 낭허레 가서 얼컷던 추억은예, 낭허레 가민 이젠 차도 시난 확 왕 정심도 먹영 가곡 뉘 해점신디, 보리, 보리밥, 보리밥 허영은에 김치 하나 기사 썰도 아니허곡 풀기 채 탁 낱 강 그거 먹으멍 서로가 장난허멍 그 추억벳기 더 심네까.(옛날 나무하러 가서 엮혔던 추억은요, 나무하러 가면 이젠 차도 있으니가 확 와서 점심도 먹어서 가고 뉘 하고 있는데, 보리, 보리밥, 보리밥 해서 김치 하나 그 저 썰지도 앗고 포기 채 탁 뉘서 가서 그거 먹으면서 서로가 장난하면서 그 추억밖에 더 있습니까.)

## 사냥

104028 @ 그다음에양, 사냥에 대해서 말허쿠다양. 사냥할 때 보통 어떤 것덜 사냥헿수가?(그다음에요, 사냥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사냥할 때 보통 어떤 것들 사냥헿습니까?)

104028 #1 우린 거 저.(우린 거 저.)

104028 @ 노루?(노루?)

104028 #1 아니, 노루 아니고 저 밤에.(아니, 노루 아니고 저 밤에.)

104028 @ 지다리?(오소리?)

104028 #1 지다리.(오소리.)

104028 @ 지다리 사냥양?(오소리 사냥요?)

104028 #1 그것 뉘 심지도 못허여. 그저 구경허는 그자, 흥번 째는 거 구경허젠.(그건 뉘 잡지도 못해. 그저 구경하는 그저, 한번 싸우는 거 구경하려고.)

104029 @ 그다음 저 뉘도 헤봤지양, 꿩 사냥?(그다음 저 뉘도 헤봤지요, 꿩 사냥?)



104029 #1 꿩은 꿩코 난 헛지, 것도 뭐, 거 노는 체 해 봐야 그냥, 어떤 땀 놓은 거 족제비가, 낱 잊어볼민, 족제비가 다 물영 먹어볼고.(꿩은 꿩올가미 놓아서 헛지, 것도 뭐 놓는 체 해 봐야 그냥, 어떤 땀 놓은 거 족제비가, 놔서 잊어버리면, 족제비가 다 물어서 먹어버리고.)

104029 @ 게른 꿩콘 어디 강 놓니까? 옛날.(그러면 꿩올가미는 어디 가서 놓니까? 옛날.)

104029 #1 건 소낭밭 ㄱ쁜 디, 저디 저, 어디 감제 가는 디, 그런 디가 잘.(건 소나무밭 같은 데, 저기 저, 어디 고구마 가는 데, 그런 데가 잘.)

104029 @ 골총에도 강 해냇지양?(고총에도 가서 했었지요?)

104029 #1 골총인 잘 안 가고.(고총에는 잘 안 가고.)

104029 #2 소낭밭디 강 영, 요 새 신 디, 그런 디 강 영 꿩 들어 살만헌 디 강 놔십주게.(소나무밭에 가서 이렇게, 요 띠 있는 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꿩 들어 살만한 데 가서 놔습지요.)

104029 @ 거난 꿩 영 땡기는 질 알아집니까? 경 해야 꿩코 놀 거 아니라.(그러니까 꿩 이렇게 다니는 길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꿩올가미 놓을 거 아니야.)

104029 #2 건디 똥 싸꼭 막 험니다게.(그러는데 똥 싸고 막 합니다.)

104029 #1 아아, 거의 다 다녀, 알아.(아아, 거의 다 다녀, 알아.)

104029 #2 게른 꿩 땡 ㄱ리 잡안, 걸런 잡아 와십디다게.(그러면 꿩 몇 마리 잡아서, 걸려서 잡아 왔습디다.)

104029 @ 게난 꿩은 이 전진만 허지 후진, 뒤걸음질을 안 허여.(그러니까 꿩은 이 전진만 하지 후진, 뒷걸음질을 안 해.)

104029 #1 건 맞아.(건 맞아.)

104029 @ 거난양 꿩은 탁 걸리른 앞으로만.(그러니까 꿩은 탁 걸리면 앞으로만.)

104029 #1 듣젠 허여.(달리려고 해.)

104029 @ 이 듣젠 행은에 죽는 거주게.(이 달리려고 해서 죽는 거지요.)

104029 #1 맞아, 응.(맞아, 응.)

104029 @ 뒷걸음질을 못 허영, 게난.(뒷걸음질을 못 해서.)

104029 #2 소낭밭디 가지른 꿩코 낱.(소나무밭에 가지면 꿩올가미 놔서.)

104030 @ 그다음에 노루 사냥은 안 해보고양?(그다음에 노루 사냥은 안 해보고요?)

104030 #2 아이, 노루 사냥헛잖아, 개 몰양 강.(아니, 노루 사냥헛잖아, 개 몰아서 가서.)

104030 #1 예.(예.)

104030 @ 옛날 노루덜 한라산에 강.(옛날 노루들 한라산에 가서.)

104030 #2 이 싯평<sup>130)</sup> 오빠네 집이 개가예 막 저 우리 개보단 흐끔 크나 마나

130) '싯평'은 서귀포시 대정읍 싯평리를 말한다.

헌 건디 말 안 곧는 우리가 영 앓으면 요런 디 강 앓으면예 말을 못 곧곡 고개로, 음, 음, 나오렝 허영예 창문 올민 특 차 안에 앓아마씨. 가민 노리 시민 백발백중 잡아마씨. 경 허연 노리 멧 마리 잡아왔수다. 경 허영 지냥으로 물에 들어강 목욕 싹 허영 나오고.(이 신평리 오빠네 집에 개가요 막 저 우리 개보다는 조금 크나 마나 한 것인데 말 안 하는 우리가 이렇게 앓으면 요런 데 가서 앓으면 말을 안 하고 고개로, 음, 음, 나오라고 해서요 창문 열면 탁 차 안에 앓아요. 가면 노루 있으면 백발백중 잡아요. 그렇게 해서 노루 몇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대로 물에 들어가서 목욕 싹 해서 나오고.)

104030 #1 거 삼백만 원에 풀켄 허단, 백오십, 백오십에 풀렌 허난에 풀켄 허단 계도 안 풀켄 허연, 어이구.(거 삼백만 원에 팔겠다고 하다가, 백오십, 백오십에 팔라고 하니까 팔겠다고 하다가 그래도 안 팔겠다고 해서, 아이고.)

104030 #2 경 허난 누게 오꼳 심어간.(그렇게 하니까 누구 그만 잡아갔어.)

104030 @ 계난 이 노루가, 노루 꿩길 혼번 먹어봐신디.(그러니까 이 노루가, 노루 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104030 #2 맛 어십니다.(맛 없습니다.)

104030 @ 맛 어십디다양.(맛 없습니다.)

104030 #1 이젠 더 맛 엇어.(이젠 더 맛 없어.)

104030 #2 옛날엔 막 그리왕 헤신디.(옛날엔 아주 그리워서 했는데.)

104030 #1 고기가 엇인 때난. 이젠 누게 먹으켄, 먹질 안 허여.(고기가 없을 때니까. 이젠 누구 먹겠다고, 먹질 앓아.)

104030 @ 아, 계난 누게 좀 쥘 게마는.(아, 그러니까 누구 좀 쥘 게만.)

104030 #1 먹지 못허여.(먹지 못해.)

104030 @ 이거 무신 꿩기니 허난, 완전 무맛이라.(이거 무슨 고기 하니까, 완전 무맛이야.)

104030 #1 에이, 먹지 못허여.(에이, 먹지 못해.)

104030 #2 예, 막 모의고, 모의곡, 쥬디양.(예, 아주 메지고, 메지고, 그런데요.)

104030 @ 슬벳기 없더라고.(살밖에 없더라고.)

104030 #2 예, 지다리. 지다리가 여튼 그렇게 맛 좋은 겁디다.(예, 오소리 오소리가 하여튼 그렇게 맛 좋은 겁디다.)

104031 @ 거난 지다리 사냥에 대해서 혼번 곱아봅서.(그러니까 오소리 사냥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104031 #2 지다리 사냥, 딱 혼번 간 혼번 잡아와십디다.(오소리 사냥, 딱 한번 가서 한번 잡아왔습니다.)

104031 @ 아, 혼번 계도 잡안?(아, 한번 그래도 잡았어?)

104031 #2 개 몰안 간, 동넛 하르방이영 간.(개 몰아서 가서, 동네 할아버지랑 가서.)

104031 #1 나만 강 못허고.(나만 가서 못하고.)

104031 #2 동넛 하르방덜이영 간.(동네 할아버지들이랑 가서.)

104031 #1 아, 그땐 뭇허난 하르방덜 거, 그 하르방덜도 친해진 하르방덜이난게 막 우리 줄아가멍 북안에 거 동산에 간 막 줄안 영 영 험시난게 뭐가 깁 혀는 소리가 난 어허 뭇 험 거 닳다 허난 하르방덜 퍼닥닥 튀언에 간에 하나 심언.(아, 그땐 뭇하니까 할아버지들 거, 그 할아버지들도 친해진 할아버지들이니까 우리 줄아가면서 밝아서 거 동산에 가서 아주 즐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가 깁 하는 소리가 나니까 어허 뭇 한 거 같다 하니까 할아버지들 퍼닥닥 뛰어서 가서 하나 잡았어.)

104031 #2 이만헌 깔쿠리, 영 험 깔쿠리 만들안 ㄱ정 간 개 물민 하르방덜은 강탁 걸령은에 잡은 생이라.(이만한 갈퀴, 이렇게 한 갈퀴 만들어서 가져서 가서 개 물면 할아버지들은 가서 탁 걸려서 잡은 모양이야.)

104031 #1 거 밤이 잡지, 낮인.(거 밤에 잡지, 낮에는.)

104031 @ 밤이벳기 안 나타나지양?(밤에밖에 안 나타나지요?)

104031 #1 거 저, 밤이, 밤이.(거 저, 밤에, 밤에.)

104031 @ 밤이벳기 안 나타나?(밤에밖에 안 나타나?)

104031 #1 계난 것도 야생 뭇라근에 낮이 사름덜 므스왕 안 텡이고 밤이만 슬 짹슬짹 텡이멍 혀는디, 거 우리 밤이 텡여난 디 가민 낮인 이런 딜로 사름이 춤말 텡여나신가 헤져. 밤인 무수운 것이 없거든 뭇. 곳가시가 이만씩 혀고 별거 다 이서도 구짹 넘영 가시난, 밤이난.(그러니까 것도 야생 뭇라서 낮에 사람들 무서워서 안 다니고 밤에만 살짹살짹 다니면서 하는데, 거 우리 밤에 다녔던 데 가면 낮에는 이런 데로 사람이 참말 다녔던가 헤져. 밤에는 무서운 것이 없거든 뭇. 꾸지뽕이 이만 큼씩 하고 별거 다 있어도 곧게 넘어서 갔으니까, 밤이니까.)

104031 @ 계난 지다리가 최고라.(그러니까 오소리가 최고야.)

104031 #2 지다린 옛을 허민 발강헌 거예.(오소리 옛을 하면 빨간 거요.)

104031 @ 나도 어린 때에 우리 어머니가 지다리 옛을 헤줍디다게.(나도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오소리 옛을 헤줍디다.)

104031 #2 그추록 헤도 일 년에 지다리 흔 마리씩 먹는 사름이 셔낫수다. 아덜덜이 푹푹푹 겨울만 나민 미깡 다 타불민 하나씩 사웁니다게. 빗납니다, 지다리.(그처럼 헤도 일 년에 오소리 한 마리씩 먹는 사람이 있었습디다. 아들이 푹푹푹 겨울만 나면 밀감 다 따버리면 하나씩 사웁니다. 비쌉니다, 오소리.)

104031 @ 어이구, 최고 아니와파게, 최고.(아이고, 최고 아넛니까, 최고.)

104031 #1 백만 원 가, 백만 원씩.(백만 원 가, 백만 원씩.)

104031 #2 계난 아덜덜이 푹 사웁니다.(그러니까 아들이 푹 사웁니다.)

104031 @ 산에 이신 것덜 다 먹은 거 아니우파?(산에 있는 것들 다 먹은 거 아넛니까?)

104031 #2 예게. 그것덜 베염을 하영 먹는 때문에 약이 뤼언.(예게, 그것들 뺨을 많이 먹는 때문에 약이 되어서.)

104031 #1 베염이영 굶벵이.(뺨이랑 굶벵이.)  
 104031 @ 어, 최고라 최고.(어, 최고야 최고.)  
 104031 #1 계난 썰게가 곰 썰게보다 낫주게. 곰 썰게보다 낫아. 야생 곰 썰게보다.(그러니까 썰개가 곰 썰게보다 낫지요. 곰 썰게보다 나아. 야생 곰 썰게보다.)  
 104031 #2 계난양 썰게까지 허영 다 잡양 먹읍니다게. 일 년에 하나씩 아덜덜 꼭 사웁니다.(그러니까 썰개까지 해서 다 잡아서 먹웁니다. 일 년에 하나씩 아덜덜 꼭 사웁니다.)  
 104031 #1 백만 원.(백만 원.)  
 104031 @ 지금도 나오긴 험니까?(지금도 나오긴 험니까?)  
 104031 #2 예게.(예.)  
 104031 #1 백만 원 쟁 사와.(백만 원 쥐서 사와.)  
 104031 @ 어디, 어디 강 사와?(어디, 어디 가서 사와?)  
 104031 #1 몰라. 어디 강 사오는 디는, 건.(몰라. 어디 가서 사오는 데는, 건.)  
 104031 #2 어디 서광<sup>131</sup>?(어디 서광리?)  
 104031 #1 아이라, 서광이 아이라.(아니야, 서광리가 아니야.)  
 104031 #2 저.(저.)  
 104031 @ 동광<sup>132</sup>?(동광리?)  
 104031 #2 저 아이는, 아이는 사계<sup>133</sup> 아인디, 시에 살고.(저 아이는, 아이는 사계리 아이인데, 시에 살고.)  
 104031 @ 아, 거 잘 잡는 사람 이셔.(아, 거 잘 잡는 사람 있어.)  
 104031 #2 예. 시에고, 동광 개가 사농허는 개가 어디 두 마린가 세 마린 성 글로 부탁허영 허는 쟁입디다, 누젠처린 모르고.(예. 시이고, 동광리 개가 사냥하는 개가 두 마린가 세 마리는 있어서 거기로 부탁해서 하는 모양입디다, 누구인지는 모르고.)  
 104031 #1 예, 큰 걸 허영 허는디.(예, 큰 걸 해서 하는데.)  
 104031 #2 이젠 쪼겐 현 거 굴에 영 들어강.(이젠 조금만 한 거 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104031 #1 똑 저 발바리보단도 족넨.(똑 저 발바리보다도 작다고.)  
 104031 #2 고망에 들어가는 개가.(구멍에 들어가는 개가.)  
 104031 @ 경 행 잡양 나와?(그렇게 해서 잡아서 나와?)  
 104031 #2 예.(예.)  
 104031 #1 큰 개도 착 물영 깡 허명 나오는디 누령 개들이 걸 잘 심넨. 그 종류가 틀린 모양이라. 경 안 허른 못 잡아.(큰 개도 착 물어서 깡 하면서 나오는데 누령 개들이 걸 잘 잡는다고. 그 종류가 다른 모양이야. 그렇게 안 하면 못 잡아.)  
 104031 #2 아덜 친구덜이 이시난 사웁십주, 게 아니른 누게가 사웁니까?(아들

131) '서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를 말한다.  
 132) '동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를 말한다.  
 133) '사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사 오고 있지, 게 아니면 누가 사 옵니까?)

104032 @ 그다음에 저 뭐 족제비 잡아봄디강?(그다음에 저 뭐 족제비 잡아봤습니까?)

104032 #1 어.(어.)

104032 @ 족제비 어디 덧 낚 잡음디강? 어땜 덧 낚니까?(족제비 어디 덧 낚서 잡았습니까? 어떻게 덧 낚니까?)

104032 #1 덧 낚, 덧 놓젠 허면은.(덧 낚서, 덧 놓으려고 하면은.)

104032 @ 족제비 어디에 많습니까?(족제비 어디에 많습니까?)

104032 #1 아, 거, 산, 산. 산에 올라가야 돼어, 산에, 산 구석에.(아, 거, 산, 산. 산에 올라가야 되어, 산에, 산 구석에.)

104032 @ 산에?(산에?)

104032 #1 산담<sup>134</sup> 구석에.(‘산담’ 구석에.)

104032 @ 아, 산담?(아, ‘산담’?)

104032 #1 산담 구석에.(‘산담’ 구석에.)

104032 @ 아, 산담, 산담 구석에 좀 잇구나.(아, ‘산담’, ‘산담’ 구석에 좀 잇구나.)

104032 #2 겨곡 이런 디 우린 득 질루당 족제비로 득 문딱 죽여난 후엔 족제비가 이만씩 허영 어땜사 옥는다.(그리고 이런 데 우린 닭 기르다가 닭 모두 죽였던 후에는 족제비가 이만큼씩 해서 어떻게야 약은지.)

104032 #1 게난 거 홀리젠 허민 옛날 거 할망덜 머리 빗어나민, 머리 거 불태왕은에 냄새 구스릉허지 안 헤게. 게문 거 중이 하나 심영근에 거 덧에 영 돌아메영근에 허문 족제비 그거 먹으레 오주게. 그거 영 좁아텡이문 팍 허영 기냥.(그러니까 거 홀리려고 하면 옛날 거 할머니들 머리 빗어 나면, 머리 거 불태워서 냄새 구수하지 않게. 그러면 거 쥐 하나 잡아서 거 덧에 이렇게 달아매어서 하면 족제비 그거 먹으러 오지요. 그거 이렇게 잡아당기면 팍 해서 그냥.)

104032 @거 좁짱은에.(거 사이에 끼어들어서.)

104032 #1 거 중이 무는 순간 탁 지들좌불어.(거 쥐 무는 순간 탁 지질러버려.)

104032 @ 아, 거, 저 먹이 잡아텡기문 탁 놀러지는 거로구나.(아, 거, 저 먹이 잡아당기는 순간 탁 놀러지는 거로구나.)

104032 #1 탁 놀러져.(탁 놀러져.)

104032 @ 옛날 우리 보든, 옛날 뭐 잇지 안허우짱? 성담.(옛날 우리 보면, 옛날 뭐 잇지 않습니까? 돌로 쌓은 성.)

104032 #1 응.(응.)

104032 @ 옛날 그 저.(옛날 그 저.)

104032 #1 그런 디.(그런 데.)

104032 @ 성담 그런 디.(돌로 쌓은 성 그런 데.)

134)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이다.

104032 #1 그런 디나 허영.(그런 데나 해서.)  
 104032 @ 족제비 이신 디.(족제비 있는 데.)  
 104032 #1 옛날 족제비ㄴ짜 크지 안 현, 나 여기 족제비, 족제비지, 이 저 목도리 신 거.(옛날 족제비같이 크지 않은, 나 여기 족제비, 족제비지, 이 저 목도리 있는 거.)  
 104032 #1 어.(어.)  
 104032 #2 그거.(그거.)  
 104032 #1 건 여우.(건 여우.)  
 104032 #2 여우.(여우.)  
 104032 #1 여우, 여우게.(여우, 여우게.)  
 104032 #2 이만이 진 거.(이만큼 긴 거.)  
 104032 #1 거 여우.(거 여우.)  
 104032 @ 거난 이 족제비 풀렝이로 해근에 붓 멩급주게, 붓양.(그러니까 이 족제비 꼬리 해서 붓 만들지요, 붓요.)  
 104032 #1 거 풀아먹지 못허여, 풀렝이 어시민. 풀렝이가 셔야 풀주, 풀렝이 어시민 풀아져게?(거 팔아먹지 못해, 꼬리 얹으면. 꼬리가 있어야 팔지, 꼬리 없으면 팔 수 있어요?)  
 104032 @ 아, 거난 붓 멩기는 것보단 영 온 체로 푸는 게 낫아.(아, 그러니까 붓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온 체로 파는 게 나아.)  
 104032 #1 게 풀렝이 부튼 거 풀주게.(그래 꼬리 붙은 거 팔지요.)  
 104032 @ 아, 온 체로 푸는 게 낫아, 아, 거난 풀렝이 해근에 옛날.(아, 온 체로 파는 게 나아, 아, 꼬리를 해서 옛날.)  
 104032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32 @ 붓 좋주게, 저거.(붓 좋지요, 저거.)  
 104032 #1 계난 걸 멩 마릴 잡아정 경.(그러니까 걸 멩 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104032 #2 양, 이것이 족제비 아니?(예, 이것이 족제비 아니?)  
 104032 #1 건 여우마쭈.(건 여우요.)  
 104032 #2 이건 여우?(이건 여우?)  
 104032 #1 어이고.(아이고.)  
 104032 @ 아, 여우, 족제비 비슷한 거네?(아, 여우, 족제비 비슷한 거네?)  
 104032 #1 여우, 여우.(여우, 여우.)  
 104032 @ 아, 족제비허고 비슷허네양?(아, 족제비하고 비슷하네요?)  
 104032 #1 아이 여우.(아니, 여우.)  
 104032 @ 아.(아.)  
 104032 #2 난 이것이.(난 이것이.)  
 104032 #1 족제빈 이거 반착만이 허여.(족제빈 이거 반쪽만큼 해.)  
 104032 #2 난 이것이 족제비로 알안.(난 이것이 족제비로 알았어.)

104032 #1 여우, 여우.(여우, 여우.)  
 104032 @ 음.(음.)  
 104032 #1 여우.(여우.)  
 104032 #2 발톱도 다 씻수다.(발톱도 다 있습니다.)  
 104032 @ 이거 어떻 멩그는고양? 안에 거 싹 빠근에 허는가?(이거 어떻게 만드는데요? 안에 거 싹 빼서 하는가?)  
 104032 #2 어떻사 허연.(어떻게야 해서.)  
 104032 @ 싹 빠근에?(싹 빼서?)  
 104032 #1 우리 옛날 족제비로 허젠 허른 막 늘황.(우리 옛날 족제비로 하려고 하면 마구 늘려서.)  
 104032 #2 이거양 배 체어냥 어떻 헛수다게.(이거요 배 짜어놔서 어떻게 했습니까.)  
 104032 @ 게메, 건디.(글썸, 그런데.)  
 104032 #2 속엔 아무것도 엇고.(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104032 @ 속에 싹 빼어근에.(속에 싹 빼어서.)  
 104032 #1 잘도 비싸, 이거.(잘도 비싸, 이거.)  
 104032 #2 이거 우리 스춘 성님 일본, 일본 갓단에 오라방 사쥬렌 허멍 아지망 사 쥬렌 허멍 나 이거는 니 ㄱ정 가라 허멍 쥬게.(이거 우리 사춘 형님 일본, 일본 갔다가 오라버니 사쥬다고 하면서 아주머니 사쥬다고 하면서 나 이거는 너 가져서 가라 하면 쥬어요.)  
 104032 @ 아, 이거 비쌀 거우다.(아, 이거 비쌀 것입니다.)  
 104032 #1 이거 엄청 비싼 거라.(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야.)  
 104032 #2 겐디 이거 허여지지도 안 험니다게, 주난 그자.(그런데 이거 해지지도 않습니다, 주니까 그저.)  
 104032 @ 제주도 따뜻해부난게.(제주도 따듯해 버리니까.)  
 104032 #1 이거 귀부인덜 허른 멧 백만 원짜리라.(이거 귀부인들 하면 멧 백만 원짜리야.)  
 104032 @ 목걸이 싹 행 강.(목걸이 싹 해서 가서.)  
 104032 #2 하이고, 하이고, 나 이거 빌어다 놔둬 뿐이주, 허여보질 안 헛수다, 이거. 호호.(웃음)(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빌어다 놔둬 뿐이지, 해보질 안 했습니다, 이거. 호호.(웃음))  
 104033 @ 그다음에 사냥에 대한 추억 또는 경험, 사냥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 한번 말해보소서.(그다음에 사냥에 대한 추억 또는 경험, 사냥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 한번 말해보십시오.)  
 104033 #1 거.(거.)  
 104033 #2 나 사냥허레 갓단 굿가시낭 저 워카 신영 갓당 죽을 뻔, 살아나고렌 현 사름이, 굿가시낭 속에 들어간.(나 사냥하러 갔다가 꾸지뽕나무 저 군화 신어서

갔다가 죽을 뻔, 살아났다고 한 사람이, 꾸지뽕나무 속에 들어가서.)

104033 #1 아 거, 개영 막 싸와가난 워카 신언 갓주게, 탁 불르난 팍 물더라고.  
(아 거, 개랑 마구 싸워가니까 군화 신어서 갔지요, 탁 밟으니까 팍 물더라고.)

104033 @ 뭐가?(뭐가?)

104033 #1 지다리가 물어. 계난 딱 빼언 워카가 저.(오소리가 물어. 그러니까 딱 빼어서 군화가 저.)

104033 @ 이빨로, 이빨로 구멍 뚫어져붙었구나.(이빨로, 이빨로 구멍 뚫어져 버렸구나.)

104033 #1 겨우 빼언.(겨우 빼었어.)

104033 @ 그 지다리도 독 이신가? 이빨에.(그 오소리도 독 있는가? 이빨에.)

104033 #1 아, 게 지다리도 물민게, 거 개보다 더 세어, 힘이, 죽아도.(아, 그레 오소리도 물면요, 거 개보다 더 세어, 힘이, 작아도.)

104033 @ 아.(아.)

104033 #1 개도 무나 짓으나 허민 갱을 못허여. 엄청 이빨이 세어. 저 가시, 가시 이빨이라, 저 가시, 가시, 이빨 똑 가시 같애.(개도 무나 직으나 하면 갱을 못해. 엄청나게 이빨이 세어. 저 가시, 가시 이빨이야, 저 가시, 가시, 이빨 똑 가시 같애.)

## 5. 바다일

105001 @ 이 바닷일에 대해영 물어보쿠다양. 바닷에서 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수가?(이 바닷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05001 #2 겐디 우리 촌이라부난예, 요 초불 검질메곡 두불 검질메곡 허영 백중 나노민 우리 농촌에 나왕 흐루 어린 아이덜 ㄱ뜨민 소풍 가는 식으로예 가믄, 보말, 보말 잡아당은에 짱 와근에 숲양 짱, 이제난 왜간장도 싯곡 허주만은 옛날엔 담은 간장 잇지 아니허파양? 그거 허영은에 장물에 무쳐근에 먹어난 기억벳기 엿수다. 겨고 해녀질은 못허난 촌에서 강, 안경 썩 영 허민 조쿠제기도 하나씩 봐 지민 심어당은에 숲양 먹곡, 경 허엿수다게.(그런데 우리 촌이라 버리니까, 요 애벌 김매고 두벌 김매고 해서 백중 나면 우리 농촌에 나와서 하루 어린 아이들 소풍 가는 식으로 가면, 고등, 고등 잡아다가 까서 와서 삶아서 까서, 이제니까 왜간장도 있고 하지만 옛날엔 담근 간장 잇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간장에 무쳐서 먹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녀질은 못하니까 촌에서 가서, 물안경 써서 이렇게 하면 어린 소라 하나씩 보이면 잡아다가 삶아서 먹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105001 @ 메역도?(미역도?)

105001 #2 미역도 헛수다. 예, 미역도 해당, 미역은, 미역도 깊은 바닷에 테왁<sup>135</sup> 지평 강 허믄 길고, 우린 여에, 여에 허영은에 여에 허영 가민 그 둘 읍이 부



뜬 거 해당은에 먹꼭 경 헛수다.(미역도 했습니다. 예, 미역도 해다가, 미역은, 미역도 깊은 바다에 ‘테왁’ 짚어서 가서 하면 길고, 우린 여에, 여에 해엄쳐서 여에 해엄쳐서 가면 그 돌 옆에 붙은 거 해다가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105001 @ 그다음에 그 무신것도 저.(그다음에 그 무엇도 저.)

105001 #2 우미.(우무.)

105001 @ 툷?(툷?)

105001 #2 툷도 해당 먹고, 게난 반찬이 여름에 냉국 그튼 거, 그거 주로 해당 먹어십주.(툷도 해다가 먹고, 그러니까 반찬이 여름에 냉국 같은 거, 그거 주로 해다가 먹었습지요.)

105001 @ 가시리도 행.(풀가사리도 해서.)

105001 #2 가시리 이젠, 이제난 가시리 저 도비 안 헐 때난 필요엇주만은, 옛날엔 가시리덜 해당 도비허곡.(풀가사리 이젠, 이제니까 풀가사리 저 도배 안 할 때니까 필요없지만, 옛날엔 풀가사리들 해다가 도배하고.)

105001 @ 도비허고.(도배하고.)

105001 #2 예, 그뎨 가시리도 해 왓수다만은.(예, 그뎨 풀가사리도 해 왓습니다만.)

105001 @ 풀 종류난.(풀 종류니까.)

105001 #2 예, 요즘은 가시린 아니합니다.(예, 요즘은 풀가사리는 안 합니다.)

105001 @ 아이 저 가시리 먹기도 험디다.(아니 저 풀가사리 먹기도 험디다.)

105001 #2 겐디 가과도<sup>136)</sup>엔예.(그런데 가과도는요.)

105001 @ 가과도 간 보난에.(가과도 가서 보니까.)

105001 #2 가시리 풀안에, 나도 그거 한번 산 완, 곧 시천에 기름에 보간 먹은년에 것도 팬찮습디다.(풀가사리 팔아서, 나도 그거 한번 사서 와서, 곧 씻어서 기름에 볶아서 먹으니까 것도 팬찮습디다.)

105001 @ 게난 풀만 허는 줄 알아신디.(그러니까 풀만 하는 줄 알았는데.)

105001 #2 예, 예.(예, 예.)

105001 2 그 저 가과도 초등학교 앞이 정식 허는 집 잇수다게.(그 저 가과도 초등학교 앞에 정식 하는 집 있습니다.)

105001 #2 예, 예. 꼬득 꼬득 꼬득 맛 좋습디다.(예, 예. 꼬들 꼬들 꼬들 맛 좋습디다.)

105001 @ 가과도 것덜 행은에, 바당에 강 것덜 행은에 저 영 반찬험덴 허멍.(가과도 것들 해서, 바다에 가서 것들 해서 저 이렇게 반찬하고 있다고 하면서.)

105001 #2 예, 요만씩 허연에 오천 원씩인가 허연 풀암텐 헨게 하나 산 완에 확 시천 기름에 영 보끄난 꼬들꼬들 것도 먹을만 험디다.(예, 요만큼씩 해서 오천 원씩인가 해서 팔고 있다고 해서요 하나 사서 와서 확 씻어서 기름에 이렇게 볶으니까

135) ‘테왁’은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이다.

136) ‘가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이다.

꼬들꼬들 것도 먹을만 합디다.)

105001 @ 거난 가시리, 저 청각은 안 해봬디가?(그러니까 풀가사리, 저 청각은 안 해봬습니까?)

105001 #2 청각은 해너덜 물에 들영 하영 해도, 우리 가민 하나, 보이는 거예, 그거 하영 허질 못합디다.(청각은 물에 들어서 많이 해도, 우리 가면 많으나, 보이는 거요, 그거 많이 하질 못합디다.)

105001 @ 옛날 보민 저 오분재기도.(옛날 보면 오분자기도.)

105001 #2 예, 이젠 엇주마는 가끔 잇당 그 오분재기도 돌 일러가믄예 쪼겐 헛 거 잇수다, 하나씩 잇어서마씨. 이젠 막 메달란예, 이젠 엇수다.(예, 이젠 없지만 가끔 있다가 그 오분자기도 돌 일으켜가면 조금만 한 거 있습니다, 하나씩 있어요. 이젠 아주 메달라서, 이젠 없습니다.)

105001 @ 오분재기허고 전복 구별해집니까?(오분자기하고 전복 구별할 수 있습니까?)

105001 #2 오분재기엔 헛 건 요추룩 작은 거, 크지 아니헛 것이 오분재기고, 전복은 영 큰 것이 전복 아이파게?(오분자기라고 한 건 요처럼 작은 거, 크지 않은 것이 오분자기고, 전복은 이렇게 큰 것이 전복 아닙니까?)

105001 @ 아, 난 그것이 아니고양, 나 오분재기허고양 이 전복 구별허는 걸 난 알압수다게.(아, 난 그것이 아니고요, 오분자기하고 이 전복 구별하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105001 #2 저 눈이, 눈이 작을 거우다.(저 눈이, 눈이 작을 것입니다.)

105001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5001 #2 뭐가?(뭐가?)

105001 @ 그 오분재기는 이 꺾테기 구멍이 족아도 일곱 개에서 여덟 개 터져.(그 오분자기는 이 꺾테기 구멍이 작아도 일곱 개에서 여덟 개 터져.)

105001 #2 아.(아.)

105001 @ 터진 거.(터진 거.)

105001 #2 터진 거 여기, 요 요런 디.(터진 거 여기, 요 요런 데.)

105001 @ 예, 그 터진 숫자가 일곱 개에서 여덟 개는 오분재기고.(예, 그 터진 숫자가 일곱 개에서 여덟 개는 오분자기고.)

105001 #2 전복은?(전복은?)

105001 @ 전복은 세 개에서 네 개 터져.(전복은 세 개에서 네 개 터져.)

105001 #2 아, 겐디 저기 전복덜 저거, 우리 집사람 봄 나민 저거 해년마다 저거.(아, 그런데 저기 전복들 저거, 우리 집사람 봄 나면 저거 해마다 저거.)

105001 @ 잘 봅서만은.(잘 보십시오만은.)

105001 #2 아, 아.(아, 아.)

105001 @ 구멍 터진 것이 전복은.(구멍 터진 것이 전복은.)

105001 #2 오, 오.(오,오.)

105001 @ 세 개에서 네 개 터져.(세 개에서 네 개 터져.)

105001 #2 저기 막 얼어전 잇수다.(저기 마구 얼어져서 있습니다.)

105001 @ 예, 거 얼어진 거 강은에 구멍 터진 거, 터진 숫자, 오분재기는 죽아도 일곱 개내지 여덟 개 터져.(예, 거 얼어진 거 가서 구멍 터진 거, 터진 숫자, 오분자기는 작아도 일곱 개 내지 여덟 개 터져.)

105001 #2 아, 아. 저거, 저거 이만씩 현 거 해녀안티 말 헨 놔두민 봄 나민 큰 거 잡아질 땐 전화합니다게.(아, 아. 저거, 저거 이만씩 한 거 해녀한테 말해서 놔두면 봄 나면 큰 거 잡을 땐 전화합니다.)

105001 @ 경 해근에 구별합니다게.(그렇게 해서 구별합니다.)

105001 #2 오, 오.(오, 오.)

105001 @ 계난에 저 저기 강은에 이따근에.(그러니까 저 저기 가서 이따가.)

105001 #2 봐사켜.(봐야겠어.)

105001 @ 전복은양, 그 세 개에서 네 개, 커도 세 개에서 네 개만 구멍.(전복은요, 그 세 개에서 네 개, 커도 세 개에서 네 개만 구멍.)

105001 #2 구멍 뚫어진 게.(구멍 뚫어진 게.)

105001 @ 고망 터전, 오분재기는 죽아도 일곱 개에서 여덟 개.(구멍 터져서, 오분재기는 작아도 일곱 개에서 여덟 개.)

105001 #2 일곱 개, 오, 오, 저기 죽은 것도 싹꼭 큰 것도 시난 흥번 가봐사켜.(일곱 개, 오, 오, 저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니까 한 가봐야겠어.)

105001 @ 계난 고망 숫자는 거의 같아양, 터진 거, 터진 거.(그러니까 구멍 숫자는 거의 같아요, 터진 거, 터진 거.)

105001 #2 터진 거만.(터진 거만.)

105002 @ 터진 거, 터진 숫자를 보멍 허는 겁주. 그다음에 듬뿍하고 감태?(터진 거, 터진 숫자를 보면서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듬북하고 감태?)

105002 #2 듬뿍은 뭐? 감태는 알아져도.(듬북은 뭐? 감태는 알 수 있어도.)

105002 @ 그 저 걸름, 걸름, 걸름허는 거우다.(그 저 거름, 거름, 거름하는 것입니다.)

105002 #2 듬뿍, 몹이주.(듬북, 모자반이지.)

105002 @ 아이, 계난 듬뿍이엔 현 것이 잇수다게, 태풍 불어난 다음에.(아니, 그러니까 듬북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태풍 불어난 다음에.)

105002 #2 막 감태추룩 올라오는 거.(마구 감태처럼 올라오는 거.)

105002 @ 예, 올라온 것덜. 저 메역 닳은 거.(예, 올라온 것들. 저 미역 같은 거.)

105002 #2 예, 예, 거 감태, 감태.(예, 예, 거 감태, 감태.)

105002 @ 거 감태팡?(거 감태입니까?)

105002 #2 예, 막 큰 것덜, 너풀너풀 현 것덜 올라왕.(예, 아주 큰 것들, 너풀너풀 한 것들 올라와서.)

105002 @ 이 저 메역 닳은 것덜.(이 저 미역 같은 것들.)

105002 #2 대풍 불어나민양, 이제도 읍사무소에 그 저 바당 청소허는 사름덜 우리 밧디 막 실러웁니다게. 경허난 걸름으로.(태풍 불어나면요, 이제도 읍사무소에 그 저 바다 청소하는 사름들 우리 밧에 마구 실어웁니다. 그러니까 거름으로.)

105002 @ 아, 게난 걸름허민 좋웁니다게.(아, 그러니까 거름하면 좋웁니다.)

105002 #2 걸름으로 허영 하우스에 깎셴 허멍 아는 사름덜신디 막.(거름으로 해서 하우스에 깔라고 하면서 아는 사름들에게 마구.)

105002 @ 이것도 좋고 저 뭐 이 성게, 성게 까난 다음에 그것이 좋덴 험디다, 걸름.(이것도 좋고 저 뭐 이 성게, 성게 깎 다음에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름.)

105002 #2 아이고 성게는양 깔믄예 밧이 가시 제왕예 안웁니다게.(아이고 성게는요 깔면요 밧이 가시 겨워서요 안웁니다.)

105002 @ 그 저 가시 큰 것이 성게고, 그다음에 그 작은 건 뭐엔 험니까?(그 저 가시 큰 것이 성게고, 그다음에 그 작은 건 뭐라고 험니까?)

105002 #2 저 숨, 숨.(저 말뚱성게, 말뚱성게.)

105002 @ 숨예.(말뚱성게요.)

105002 #2 예.(예.)

105002 @ 말뚱성게, 숨.(말뚱성게, ‘숨’.)

105002 #2 그건 흥끔 숨은 쓰고, 성게는 안 쓰고, 거 저 숨은 막 씩니께. 가시 쟈쟈헌 거, 예, 예.(그건 조금 말뚱성게는 쓰고, 성게는 안 쓰고, 거 저 말뚱성게는 마주 씩니다. 가시 자잘한 거, 예, 예.)

105003 @ 성게. 그 보말, 보말 잡아뵈디게양?(성게. 그 고등, 고등 잡아뵈디까?)

105003 #2 예게, 보말 잡아, 돌 일르멍 보말 잡아당 숲앙 깡도 밤이 앓앙 옛날엔 각짓불에 헤영 밤이 그거 바늘로 깡은에 반찬, 아이덜 벤또 반찬도 허영 학교 쌍 보내고, 하영 그건, 건 막 매 물찌마다 강 잡아당 해낫수다.(예, 고등 잡아서, 돌 일으키면서 고등 잡아다가 삶아서 까서도 밤에 앓아서 옛날엔 등잔불에 해서 밤에 그거 바늘로 까서 반찬, 아이들 도시락 반찬도 해서 학교 싸서 보내고, 많이 그건, 건 막 매 무수기마다 가서 잡아다가 했었습니다.)

105003 @ 돌 일렁양?(돌 일으켜서요?)

105003 #2 예, 돌 트멍에도 강 잡고.(예, 돌 틈에도 가서 잡고.)

105003 @ 돌 일렁 손으로 영.(돌 일으켜서 손으로 이렇게.)

105003 #2 예.(예.)

105003 @ 문직으멍.(만지면서.)

105003 #2 옛날엔 영 물 아래 영 문직으민 조쿠제기도 문 잡아정은에 잡고 헌디 이젠 그런 거 하나 엇어마씨.(옛날엔 이렇게 물 아래 이렇게 만지면 어린 소라도 모두 잡아져서 잡고 하는데 이젠 그런 거 하나 없어요.)

105003 @ 나도 초등학교 때 이 고망 난 디 영 영 헤가난에 나 전복 흥번 잡아 낫수다.(나도 초등학교 때 이 구멍 난 데 이렇게 이렇게 헤가니까 전복 흥번 잡았었

습니다.)

105003 #2 호호호,(웃음) 맞수다. 영 손 영 허민 전복 구짜 알아져마씨. 영 문직 으민 우물락허민 키로 꺼내는다.(호호호,(웃음) 맞습니다.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전복 곧장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 움쑹하게 들어가면 키로 꺼내는데.)

105004 @ 잡아나신디 이젠 원, 그 보말 종류도 하지 안 허파양?(잡았었는데 이젠 원, 그 고등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105004 #2 보말, 수두리, 먹보말, 거 쨌쨌헌 것 보곤 뒤엔 딱살보말<sup>137)</sup>, 거 영.(고등, 팽이고등, 밤고등, 거 자잘한 것 보고는 뭐라고 ‘딱살보말’, 거 이렇게.)

105004 @ 딱살보말?(‘딱살보말’?)

105004 #2 두 개 톡 해집은 거 허고, 그거 하난 뒤엔 헌다마는, 어디 알아지쿠가? 수두리, 먹보말, 거 잔잔헌 거, 건 막 저 아다루도 안 친덴 헌 건디, 그건 무슨 보말산디.(두 개를 톡 해집은 거 하고, 그거 하나는 뭐라고 한다마는, 어디 알 수 있습니까? 팽이고등, 밤고등, 거 자잘한 거, 건 막 저 ‘아다루’도 안 친다고 한 것인데, 그건 무슨 고등인지.)

105005 @ 예, 그다음에양, 갱이 종류?(예, 그다음에요, 게 종류?)

105005 #2 갱이 종류, 건 큰 건.(게 종류, 건 큰 건.)

105005 @ 갱이 종류 뭐 뭐 잇수가?(게 종류 뭐 뭐 있습니까?)

105005 #2 큰 거, 갱이는 그자 갱이 흔 가지, 거 쨌쨌헌 거 싹곡, 또 저 훑은 거 싹고.(큰 거, 게는 그저 한 가지, 거 자잘한 거 있고, 또 저 굵은 거 있고.)

105005 @ 우리 저, 우린, 우리 동네 생숫물<sup>138)</sup>이엔 허는 디, 옛날은 그저 생숫물에서 민물 게 이서나신디.(우리 저, 우린, 우리 동네 ‘생숫물’이라고 하는 데, 옛날은 그저 ‘생숫물’에서 민물 게 있었었는데.)

105005 #2 예, 민물 갱이가 제라한 겁주게. 그것이 경 맛 좋덴 험디다.(예, 민물 게가 온전한 거지요. 그것이 그렇게 맛 좋다고 합디다.)

105005 @ 이젠 저 어디 이신덴 험디다, 저 그 안덕계곡에서 바당, 바당긱디, 거기가 갱이 줌 잇덴 험디다.(이젠 저 어디 있다고 합디다, 저 그 안덕계곡에서 바다, 바닷가에, 거기가 게가 줌 있다고 합디다.)

105005 #2 그 민물 게 그 게 종류 허영, 젓, 젓인가 빠져근에 경 해 먹으민 그 것이 경 영양분이 경 좋덴 험디다게.(그 민물 게 그 게 종류 해서, 젓, 젓인가 빚어서 그렇게 해 먹으면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합디다.)

105005 @ 바당에 신 갱이 뒤엔 험니까? 반찬 행 먹는 갱이는?(바다에 있는 게 뒤이라고 합니까? 반찬 해서 먹는 게는?

105005 #2 무신거엔 허연게. 그자 갱이든 갱이로 알양은에 해당 지이도 담양 먹곡, 그 막 방엿혹에 찍영 물 내영, 것도 다리에 좋덴 허연 경 허연 먹어낫수다.(무엇이라고 하였어. 그저 게면 게로 알아서 해다가 장아찌도 담아서 먹고, 그 마구 방

137) ‘딱살보말’은 아주 자잘한 고등을 말하는 것 같다.

138) ‘생숫물’은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바닷가로 흐르는 용천수다.

아확에 찍어서 물 내어서, 것도 다리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먹었었습니다.)

105005 @ 계민양.(그러면요.)

105005 #2 저 마개로 벗양 물 뜰라냥 툃툃 줏엉.(저 방망이로 뺏아서 물 따라놔서 툃툃 주워서.)

105005 @ 약도 험니께, 저 키토산이엔 허영.(약도 합니다, 저 키토산이라고 해서.)

105005 #2 예. 경 허영 그거 젓도 담양 먹고, 경 헤낫수다게.(예. 그렇게 해서 그거 젓도 담아서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5005 @ 키토산, 그거 막 비쌌니다, 약으로.(키토산, 그거 아주 비쌌니다, 약으로.)

105005 #2 호호.(웃음) 그거 허연 먹어낫수다.(호호.(웃음) 그거 해서 먹었었습니다.)

105006 @ 헛불 허영은에 낙지 잡아낫지양?(헛불 해서 낙지 잡았었지요?)

105006 #2 저 헛불.(저 헛불.)

105006 @ 헛불 허영은에.(헛불 해서.)

105006 #2 밤이, 밤이 것도 물때가, 이 저 혼 열혼물, 열두물에 밤이.(밤에, 밤에 것도 물때가, 이 저 한 열한물, 열두물에 밤에.)

105006 @ 헛불.(헛불.)

105006 #2 헛불 들렁 갈 때.(헛불 들러서 갈 때.)

105006 @ 아, 낙지 잡을 땐 열한물 정도?(아, 낙지 잡을 땐 열한물 정도?)

105006 #2 물을 막 내려가야만 그걸, 계민 어두왕, 어두와근에 물을 막 내렁, 그 저 초롱불 들렁 가민 무신것이 오물락, 오물락, 오물락허여근에 경 험 잡양 와낫수다게. 쟈디 우린 여러 번은 안 가왔수다.(물을 아주 내려가야만 그걸, 그러면 어두워서, 어두워서 물을 막 내려, 그 저 초롱불 들러서 가면 무엇이 오물락, 오물락, 오물락해서 그렇게 해서 잡아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러 번은 안 가왔습니다.)

105006 @ 계난 그 하귀<sup>139)</sup> 쪽이 좀 잇고, 낙지덜 좀 잡히는 모양이라양.(그러니까 그 하귀 쪽이 좀 잇고, 낙지들 좀 잡히는 모양이야.)

105006 #2 쟈디 이 모슬포도 잡으레 다니는 사람들은 초롱불 허영은에 영 초롱불 비취가민 그것이 올라온덴마씨, 뽀골뽀골허멍. 예, 경 허영 잡아 온덴 험디다게.(그런데 이 모슬포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초롱불 해서 이렇게 초롱불 비취가면 그것이 올라온다고요, 뽀골뽀골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잡아 온다고 합디다.)

105006 @ 쟈 나가 옛날 그 우리 제자가 저 나 보통 물꾸럭.(그래서 내가 옛날 그 우리 제자가 저 나 보통 문어.)

105006 #2 예.(예.)

105006 @ 물꾸럭을 팔십 마릴 잡는다는 거라양.(문어를 팔십 마리를 잡는다는 거야.)

139) '하귀'는 제주도 애월읍 하귀리를 말한다.

105006 #2 흐루에마씨? 켄디예 물꾸럭 잡는 사름덜 보난에 대나무 요만이 긴 거에 저 손수건 무건, 켄 돌 트멍에 요리케 요리케 허난 거 물꾸럭이 그거에 부편 덜 잡암십디다게.(하루예요? 그런데요 문어 잡는 사람들 보니까 대나무 요만큼 긴 거에 저 손수건 묶어서, 그래서 돌 틈에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거 문어가 그거에 붙어서들 잡고 있습니다.)

105006 @ 케난 가인 그추룩 행 잡는 것이 아니고 그 혼번 저 동귀<sup>140)</sup> 포구와 보렌.(그러니까 그 아이는 것처럼 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그 한번 저 ‘동귀’ 포구에 오보라고.)

105006 #2 예.(예.)

105006 @ 켄 정말 팔십 마리를 잡는가 헨 갖주마씨.(그래서 정말 팔십 마리를 잡는가 해서 갔지요.)

105006 #2 호호.(웃음)(호호.(웃음))

105006 @ 켄 가난에 거짓말이 아이라마씨. 그 나 들어가근에 이거 던지커메, 그 던지는 것이 뭐냐 허면 통발이, 통발, 통발.(그래서 가니까 거짓말이 아니예요. 그 나 들어가서 이거 던지겠으니, 그 던지는 것이 뭐냐 하면 통발이, 통발, 통발.)

105006 #2 예, 예.(예, 예.)

105006 @ 그 저 태풍 불어나민 막 것이 올라온덴 험디다게, 통발.(그 저 태풍 불어나면 마구 것이 올라온다고 험디다, 통발.)

105006 #2 아, 아.(아, 아.)

105006 @ 거 저 좃어당은에 놔똥당 그 포구 배 밑에 그거 연결시경 담양 놔두면 그 구멍 안에 들어강, 케난 이 저, 이 물꾸럭도 들어가면은 빠쿠를 못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지 못헌덴마씨, 그 통발이 안에.(거 저 주워다가 놔똥다가 그 포구 배 밑에 그거 연결시켜서 놔두면 그 구멍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저, 이 문어도 들어가면은 뒷걸음을 못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 통발이 안에.)

105006 #2 오, 오.(오, 오.)

105006 @ 통발이가 들어가면 고냥이 죽곡 안넌 줌 넙곡 합니다. 나오지 못한다는 거야.(통발이 들어가면서 구멍이 작고 안에는 줌 넙고 합니다. 나오지 못한다는 거야.)

105006 #2 오, 오.(오, 오.)

105006 @ 켄 거기서 이제 영 헨에 떼어보니까양 그 통발이 하나에 두세 개가 들어간 이서.(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떼어보니까 그 통발이 하나에 두세 개가 들어가 있어.)

105006 #2 아, 그추룩 행, 그 말 맞수다.(아, 것처럼 해서, 그 말 맞습니다.)

105006 @ 예.(예.)

105006 #2 그 배에 문어 잡는 거 보른 요만헌 통덜 들이치지 안 험니까. 올라오

140) ‘동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이다.

는 거 보민 거기 다 담아서마씨.(그 배에 문어 잡는 거 보면 요만한 통들 들이치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거 보면 거기 다 담았어요.)

105006 @ 여긴 문어엔 험니까? 물꾸러이엔 험니까?(여긴 ‘문어’라고 험니까? ‘물꾸러’이라고 험니까?)

105006 #2 물꾸러이엔.(‘물꾸러’이라고.)

105006 @ 물꾸러양?(‘물꾸러’요?)

105006 #2 예.(예.)

105006 @ 아까 우리 저 물어봤주만은 오분재기는 바르엔 안 험니까?(아까 우리 저 물어봤지만 오분자기는 ‘바르’라고 안 험니까?)

105006 2 죽은 거 저 죽은 거 잡을 땐 오분재기 잡앗뎡 허고 흐끔 큰 거 잡을 땐 전북 잡앗고렌 허난 그건 아이.(작은 거 저 작은 거 잡을 땐 오분자기 잡앗다고 하고 조금 큰 거 잡을 땐 전북 잡앗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

105006 @ 아이 바르, 바르.(아니 오분자기, 오분자기.)

105006 #2 바르허고, 게난.(오분자기하고, 그러니까.)

105006 @ 오분재기를 바르엔 안 험니까?(오분자기를 ‘바르’라고 안 험니까?)

105006 #2 옛날 어른덜은 오분재기엔 허고 요즘 사름덜은 바르엔 허지 안 험수가?(옛날 사람들은 오분자기라고 하고 요즘 사람들은 ‘바르’라고 하지 안 하고 있습니까?)

105006 @ 옛날이 바르가 아니고마씨?(옛날이 ‘바르’가 아니고요?)

105006 #2 옛날에 바르냐? 하여튼 옛날엔 나 이거 오분재기 하나 떼언예, 게도 경 말헤낫어마씨양.(옛날에 ‘바르’인가? 하여튼 옛날엔 나 이거 오분자기 하나 떼어서요, 그래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105006 @ 건디 바르엔도 허는 모양이라마씨.(그런데 ‘바르’라고도 하는 모양이지요.)

105006 #2 바르 떼 보렌도 허고, 오분재기도 잡앗주게. 오분재기엔도 허고.(오분자기 떼 보라고도 하고, 오분자기 잡앗지요. 오분자기라고도 하고.)

105007 @ 원담<sup>141)</sup> 알아지쿠가? 원담.(‘원담’ 알 수 있습니까? ‘원담’.)

105007 #2 건 바당에 원담이엔 현 건 이 저 물 영 원 이렇게 헝 동글락허게 돌로 싸근에 멜 가튼 거 들 때는 거 원 안네 멜 들영은에 원 안네서 멜 거리구렌 허영예, 원.(건 바다에 ‘원담’이라고 한 건 이 저 물 이렇게 ‘원’ 이렇게 해서 동글게 돌로 쌓아서 멸치 같은 거 들 때는 거 ‘원’ 안에 멸치 들어서 ‘원’ 안에서 멸치 떴다고 해서요.)

105007 @ 물 쌀 때, 물 나가불면 그디서 영.(물 쌀 때 물 나가버리면 거기서 이렇게.)

105007 #2 예. 겐디 이제도 바다 이 동일리<sup>142)</sup> ㄱ튼 디 원이 이서마씨. 동네서

141) ‘원담’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원이라고도 한다.

142) ‘동일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를 말한다.



게문 아이 원 안네 저 막 멜 들언에 아이고 거 체 ㄴ정 가고, 뭐 ㄴ정 가고, 소쿠리 ㄴ정 강 거리구라 험니다게.(예. 그런데 이제도 바다 이 동일리 같은 데 ‘원’이 있어요. 동네서 그러면 아니 ‘원’ 안에 저 마구 멀치 들어서 아이고 거 체 가져서 가고, 뭐 가져서 가고, 소쿠리 가져서 가서 떴다고 합니다.)

105007 @ 게난 멜 들어오면 반드시 이 저 고등어가 온덴 험니다.(그러니까 멀치 들어오면 반드시 이 저 고등어가 온다고 합니다.)

105007 #2 아, 고등어 준준헌 것덜 들어온덴 험니다게.(아, 고등어 자잘한 것들 들어온다고 합니다.)

105007 @ 고등어 준준헌 거 뭐엔 험니까?(고등어 자잘한 거 뭐라고 험니까?)

105007 #2 고등어 저, 하이튼 거 이서.(고등어 저, 하여튼 거 있어.)

105007 @ 고도리, 고도리.(고등어 새끼, 고등어 새끼.)

105007 #2 고도린가? 예, 예.(고등어 새끼인가? 예, 예.)

105007 @ 고도리양, 고도리.(고등어 새끼요, 고등어 새끼.)

105007 #2 예, 그건 이 고등어만이 맛이 엇어마씨.(예, 그건 이 고등어만큼 맛이 없어요.)

105007 @ 맛이 엇어. 나도 혼번 간에 거 들어오기 시작허니까 혼 백오십 마리 나까낫수다게.(맛이 없어. 나도 한번 가서 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한 백오십 마리 낫았었습니다.)

105007 #2 막 그거 그냥.(막 그거 그냥.)

105007 @ 그냥, 그냥 뭐.(그냥, 그냥 뭐.)

105007 #2 그냥 뭐 들어와. 요추룩 준준헌 거 허고, 또 큰 고등어는 커야, 고등어는양 커야 맛있어마씨.(그냥 뭐 들어와. 요처럼 자잘한 거 하고, 또 큰 고등어는 커야, 고등어는요 커야 맛있어요.)

105007 @ 맞수다게. 거 맛도 엇고, 썩 먹어도 맛도 엇고.(맞습니다. 거 맛도 없고, 구워서 먹어도 맛도 없고.)

105007 #2 요즘은 요세에 고등어는 풀고치 날 철이난 풀고치에 지지민 맛이 경 줍니다게.(요즘은 요세에 고등어는 풋고추 날 철이니까 풋고추에 지지면 맛이 그렇게 좋습니다.)

105008 @ 그 여기는 원, 원양 보수, 그 담 아니우짜? 담. 담은 여기서 멜라진텐 험니깁? 무너진텐 험니깁?(그 여기는 ‘원’, ‘원’요 보수, 그 담 아닙니까? 담. 담은 여기서 ‘멜라진다고’ 험니까? ‘무너진다고’ 험니까?)

105008 #2 멜라진텐도 허고 무너젓뎡도 허곡 허난 어느 말이 옛날 말인지, 어느 말이 지금이야 나온 말인지 나도 그걸 구별을 못허쿠다. 흥끔 야, 담썩안 놔두난 무너전게, 경도 곤곡, 야, 담 멜라젓저게, 경도 곤곡 허난양 어느 것이 사투린지 어느 것이 뭐인지 그걸 잘 모르쿠다, 나도.(‘멜라졌다고도’ 하고 ‘무너졌다고도’ 하고 하니까 어느 말이 옛날 말인지, 어느 말이 지금이야 나온 말인지 나도 그걸 구별을 못하겠습시다. 조금 야, 담썩아서 놔두니까 무너졌어, 그렇게도 말하고, 야, 담 무너졌

어, 그렇게도 말하고 하니깐요 어느 것이 사투리인지 어느 것이 뭐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105008 @ 그거 벨라졌다가 사투릴 거우다.(그거 ‘벨라졌다가’ 사투리일 것입니다.)

105008 #2 벨라졌정도 허고, 돌 흐끔 무너졌정도 허곡, 쓰러졌정도 허고.(‘벨라졌다고도’ 하고, 돌 조금 ‘무너졌다고도’ 하고, ‘쓰러졌다고도’ 하고.)

105008 @ 거 뭐냐, 무너졌정도 허는구나.(거 뭐냐, 무너졌다고도 하는구나.)

105008 #2 무너졌정도 허고, 쓰러졌정도 허고, 경 허난 어느 말이 원.(무너졌다고도 하고, 쓰러졌다고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말이 원.)

105009 @ 하하.(웃음) 게난 이 벨, 벨은 어떻 잡아마씨? 원에 들어강은에.(하하.(웃음) 그러니까 이 멸치, 멸치는 어떻게 잡아요? ‘원’에 들어가서.)

105009 #2 원에 들영 그 바닷가 윙이는 그 벨 들면 그 동글락현 그 저 망허연에 거리는 것이 쉽디다. 그걸로 거리곡 그걸로 거리지 안 허는 사름은 요즘은 막 소쿠리덜 막, 아니 나이롱 소쿠리덜 잊지 아이파게? 그거 ㄹ정 강 원 안에 들어갈 때는 그거 ㄹ정 강 거리구렌 험디다.(‘원’에 들어서 그 바닷가 옆에는 그 멸치 들면 그 둥근 그 저 망해서 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뜨고 그걸로 뜨지 않는 사람은 요즘은 막 소쿠리들 막, 아니 나일론 소쿠리들 잊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서 가서 ‘원’ 안에 들어갈 때는 그거 가져서 가서 떴다고 함디다.)

105009 @ 그거양.(그거요.)

105009 #2 죽은 거라도 벨은예 한번 들어오민 하나 두 개 흠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 가민 쭈런이 모이청 가는 겁디다게. 게문 그때 강.(작은 거라도 멸치는요 한번 들어오면 하나 두 개 흠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 가민 줄줄이 모여져서 가는 겁디다. 그러면 그때 가서.)

105009 @ 대장이 잇구나.(대장이 잇구나.)

105009 #2 예, 경 행 앞으로 강 확 거리곡, 확 거리곡 허여근에 그추룩 행 거리고렌 험디다.(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서 확 뜨고, 확 뜨고 해서 것처럼 해서 떴다고 함디다.)

105009 @ 옛날보다는 이젠.(옛날보다는 이젠.)

105009 #2 이젠 벨 들엇젠.(이젠 멸치 들엇다고.)

105009 @ 하지 안 현 거 닥아.( 많지 않은 거 같아.)

105009 #2 벨 들엇덴 허는 소문이 엇어마씨. 경 안 험 땐 동일리에 우리 모임 허는 아이덜 저 원에 벨 들언 나 벨 ㄹ정 감수덴 허영 혼 콘테나씩 가져옵니다게. (멸치 들엇다고 한 소문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할 땐 동일리에 우리 모임 하는 아이들 저 ‘원’에 멸치 들어서 나 멸치 가져서 감습니다 해서 한 콘테나씩 가져옵니다.)

105009 @ 우리 동네에도 일허당은에 벨 장시덜이 왕 폴아났수다게.(우리 동네에도 일하다가 멸치 장시들이 와서 팔았었습니다.)

105009 #2 그디도 어디 저.(거기도 어디 저.)

105009 @ 자리도.(자리도.)

105009 #2 가까우난 경 해실 겨우다게.(가까우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05009 @ 저 어디서 많이 와, 대포<sup>143</sup>, 대포.(저 어디서 많이 와, 대포리, 대포리.)

105009 #2 대포.(대포리.)

105009 @ 대포가 거기.(대포리가 거기.)

105009 #2 거기 베릿내<sup>144</sup>.(거기 ‘베릿내’.)

105009 @ 베릿내.(‘베릿내’.)

105009 #2 베릿내 문○○ 알아집니까?(‘베릿내’ 문○○ 알 수 있습니까?)

105009 @ 아이, 모르쿠다. 베릿내허고 우리는 거리가 멀어.(아니, 모르겠습니다. ‘베릿내’하고 우리는 거리가 멀어.)

105009 #2 멀어.(멀어.)

105009 @ 거고 이젠 베릿내 벗어나볼엇수게.(그리고 이젠 ‘베릿내’ 벗어나 버렸습니다.)

105009 #2 아, 벗어나볼엇수가?(아, 벗어나 버렸습니까?)

105009 @ 벗어진 것이 언제우짜? 그 관광단지 허명양.(벗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그 관광단지 하면서요.)

105009 #2 아, 아.(아, 아.)

105009 @ 베릿내 저 자연 마을이 다 팔아볼엇수게. 거기 이제 사는 사람 엇수다.(‘베릿내’ 저 자연 마을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거기 이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105009 #2 아.(아.)

105009 @ 거기 사는 사람덜 뭘 허는 줄 알았수강?(거기 사는 사람들 뭘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105009 #2 뭘 험서?(뭘 하고 있어?)

105009 @ 저 여미지식물원 앞이, 그다음에 백사장 앞에서.(저 여미지식물원 앞에, 그다음에 백사장 앞에서.)

105009 #2 장시?(장시?)

105009 @ 미깡 하나 행은에 나스미깡 하나 행은에 얼마 얼마 허영.(밀감 하나 해서 하귤 하나 해서 얼마 얼마 해서.)

105009 #2 거난 풀질 말아사 험 건디.(그러니까 팔지를 말아야 할 것인데.)

105009 @ 거난 이젠.(그러니까 이젠.)

105009 #2 돈 하영 줍젠 풀민 돈은 손에 잡으면 쓰구쟁 허영 써져불민 뭇 사 놓질 못허는 거라.(돈 많이 주고 있다고 팔면 돈은 손에 잡으면 쓰려고 해서 써져 버리면 뭇 사 놓질 못하는 거야.)

105009 @ 나스미깡, 그 미깡 풀양 살았수게.(하귤, 그 밀감 팔아서 살고 있습니다.)

143) ‘대포’는 서귀포시 대포동을 말한다.

144) ‘베릿내’는 서귀포시 중문동 서쪽을 흘러 바다로 흘러가는 내이다. 포구에 형성된 자연마을이 있었다.

다.)

105009 #2 베릿내 문○○엔 헌 선생님도.(‘베릿내’ 문○○라고 한 선생님도.)

105009 @ 예, 그디 엇어진 지가 혼 이십 년은 웬, 켜 자취가 엇어져붙었수게, 마을이. 거기 저 무신거 호텔 짓언에 이젠 완전 관광단지 돼불언. 옛날엔양 거기 다리도 엇일 때는 그 물 쌀 때 글로 건너오고 경 해난 디우다.(예, 거기 엇어진 지가 한 이십 년은 됐어, 그래서 자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을이. 거기 저 무엇 호텔 지어서 이젠 완전 관광단지 돼버렸어. 옛날은요 거기 다리도 없을 때는 그 물 쌀 때 글로 건너오고 그렇게 했던 데입니다.)

105009 #2 게고 거기 베릿내 해녀들로 행 돈을 오죽 벌어났수가게.(그리고 거기 ‘베릿내’ 해녀들로 해서 돈을 오죽 벌었었습니까.)

105009 @ 이젠 뭐 흔적조차 엇수다.(이젠 뭐 흔적조차 없습니다.)

105009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5010 @ 꿩기는 어떻 허영 나릅니까? 꿩기, 꿩기 나쁠 때.(고기는 어떻게 해서 낚습니까? 고기, 고기 낚을 때.)

105010 #2 우리 하르방 꿩기 나쁠 때 강 허는 거 보민 미리 강은에 거기 돌 일르명 몰레 흥끔 신 디 굴갱이로 그 지렁이, 지렁이 허연 너깅 허연에 잡앙 돌 트멍에 허영 허민 이 저 것 보고 뵈고, 그 저 무슨거엔 헌다만은.(우리 할아버지 고기 낚을 때 가서 하는 거 보면 미리 가서 거기 돌 일으키면서 모래 조금 있는 데 호미로 그 지렁이, 지렁이 해서 미끼 해서 잡아서 돌 틈에 해서 하면 이 저 것 보고 뵈고, 그 저 무엇이라고 한다만은.)

105010 @ 돌 일르명.(돌 일으키면서.)

105010 #2 잡앙은에 그 너깅 들이치민 큰 고긴 아니 물고게, 쫓겐헌 그.(잡아서 그 미끼 들이치면 큰 고기는 아니 물고요, 조그마한 그.)

105010 @ 그냥 꿩기엔 안 곧고?(그냥 고기라고 안 말하고?)

105010 #2 예. 저 우럭 켜켜헌 거, 그런 거나, 것 보고 무슨 고기엔 헌다만은.(예. 저 우럭 자잘한 거, 그런 거나, 것 보고 무슨 고기라고 한다만은.)

105010 @ 어랭이.(어랭놀래기.)

105010 #2 어랭이, 어랭이 잘 물어마씨, 어랭이.(어랭놀래기, 어랭놀래기 잘 물어요, 어랭놀래기.)

105010 @ 어랭이.(어랭놀래기.)

105010 #2 예.(예.)

105010 @ 혼헌 꿩집주.(혼헌 고기지.)

105010 #2 그 어랭이가양 휘 쳐 봅서, 그 어랭이물회가 최고 맛 좋아마씨.(그 어랭놀래기가 회 쳐 보십시오, 그 어랭놀래기회가 최고 맛 좋아요.)

105010 @ 우리 저 하귀<sup>145)</sup>도 보민 어랭이 횡집 잇수다. 어랭이, 어랭이물회.(우리 저 하귀도 보면 어랭놀래기 횡집 잇습니다. 어랭놀래기, 어랭놀래기회.)

145)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를 말한다.

105010 #2 어랭이물회가 경 맛 좋은 겁디다.(어랭놀래기물회가 그렇게 맛 좋은 겁디다.)

105010 @ 어랭이물회.(어랭놀래기물회.)

105010 #2 나도 요흥루기 시에 갓단 딸신디 야! 어랭이물회나 혼번 사도라 허난.(나도 요사이 시에 갔다가 딸에게 야! 어랭놀래기물회나 한번 사달라 하니까.)

105010 @ 거 허는 디벳기 안 허여.(거 하는 데밖에 안 해.)

105010 #2 겐디 신제주 혼 군데 셔나신디 이젠 엇언. 어디 그 저 애월 어디 혼 군데 싯젠 허여.(그런데 신제주 한 군데 있었는데 이젠 없어서. 어디 그 저 애월 어디 한 군데 있다고 해.)

105010 @ 하귀, 하귀.(하귀, 하귀.)

105010 #2 혼 군데 싯덴.(한 군데 있다고.)

105010 @ 하귀 혼 군데 이서, 어랭이 횃집, 물회.(하귀 한 군데 있써, 어랭놀래기 횃집, 물회.)

105010 #2 어무니 거기 가카마씨 허군데 에에, 거기까지랑 가지 말고, 계건 여기 한치물회 먹게 허멍.(어머니 거기 같까요 하던데 에에, 거기까지랑 가지 말고, 그러면 여기 한치물회 먹게 하면서.)

105010 @ 어랭이물회가.(어랭놀래기물회가.)

105010 #2 예, 거기 경 잘 헌덴 험디다. 신제주도 셔낫수다게.(예, 거기 그렇게 잘 한다고 함디다. 신제주도 있었습니다.)

105010 @ 하귀 오걸랑 학교에 옵서. 우리 중학교, 나 거기 교장으로 이시난.(하귀 오걸랑 학교에 오십시오. 우리 중학교, 나 거기 교장으로 있으니까.)

105010 #2 저 하귀마씨, 하귀?(저 하귀요, 하귀?)

105010 @ 귀일중학교에 교장으로 잇수다게.(귀일중학교에 교장으로 있습니다.)

105010 #2 기팡?(그렇습니까?)

105010 @ 예.(예.)

105010 #2 우리, 우리 요 작은, 가운데 아덜 손지 한림공고, 손지 거기 보내언 거기서 막 잘 허난, 헌디 저 올리 삼성서 스카우텐 갓수다.(우리, 우리 요 작은, 가운데 아들 손자 한림공고, 손자 거기 보내어서 거기서 아주 잘 하니까, 한테 저 올해 삼성서 스카우트해서 갓습니다.)

105010 @ 아, 거난 멧 명 뉘엇더라고예.(아, 그러니까 몇 명 되엇더라고.)

105010 #2 예.(예.)

105010 @ 취급주게, 대학교 나와도 삼성 못 들어가는데.(최고지요, 대학교 나와도 삼성 못 들어가는데.)

105010 #2 겐디 고등학교 거 저 전자과 나완.(그런데 고등학교 거 저 전자과 나왔어.)

105010 @ 예, 특성화 고등학교.(예, 특성화 고등학교.)

105010 #2 예, 그거 나완에.(예, 그거 나와서.)

105010 @ 막 신문에 나왔더라고.(막 신문에 나왔더라고.)

105010 #2 예. 우수, 저 무슨거 인재상 타고, 또 은상 타고.(예. 우수, 저 무엇 인재상 타고, 또 은상 타고.)

105010 @ 나와십디다게.(나왔습디다.)

105010 #2 경 헤신디.(그렇게 했는데.)

105010 @ 그거 최고 아니우파게.(그거 최고 아닙니까.)

105010 #2 또 대한민국 그 저 무슨 선수렌 서울 강 흐는다.(또 대한민국 그 저 무슨 선수라고 서울 가서 하는데.)

105010 @ 기능경기대회?(기능경기대회?)

105010 #2 기능경기대회 가신디 우리 손지가 제일 잘 헤신디 심판 보는 사람이 그 저 서울 아일 줘부난 한림공고 선생이 우리 아덜레신디 왕 이건 다 보는 눈이 잇으니까 허난 오꼴 뭇헌 사름은 모가지 찰라볼켄 허난, 우리 아덜이 선생님 경 허 지 맵센 이거 허영 변호사 상 공판을 허영 이긴텐 허여도 그 기간이 늦영 뉘질 안 허난 가의 그냥 보내주곡.(기능경기대회 갔는데 우리 손자가 제일 잘 했는데 심판 보는 사람이 그 저 서울 아이를 줘버리니까 한림공고 선생이 우리 아들에게 와서 이건 다 보는 눈이 잇으니까 하니까 그만 뭇헌 사름은 모가지 찰라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거 해서 변호사 사서 공판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그 기간이 늦어서 되질 았으니까 그 아이 그냥 보내주고.)

105010 @ 삼 년 걸립니께, 삼 년.(삼 년 걸립니다, 삼 년.)

105010 #2 예, 우리 아덜은 어리니까 다음 기회에도 허꼭 허영.(예, 우리 아들은 어리니까 다음 기회에도 하고 해서.)

105010 @ 걸어지민 삼 년 걸려.(걸어지면 삼 년 걸려.)

105010 #2 경 허난 가윈 간 기능대회에 떨어져볼언게, 호호호.(웃음) 가의라도 뉘시민 좋을 건디.(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는 가서 기능대회에 떨어져 버렸어요, 호 호호.(웃음) 그 아이라도 뉘으면 좋을 것인데.)

105010 @ 아이, 거난 그 삼성 잘 들어갓수다게. 대학교 나와도 힘든 디라.(아니, 그러니까 그 삼성 잘 들어갓습니다. 대학교 나와도 힘든 데야.)

105010 #2 거기 영 밤 야간이라도 헤준텐 험디다.(거기 이렇게 밤 야간이라도 헤준다고 함디다.)

105011 @ 그다음에 낚싯대, 저 옛날 낚싯댄 이 저 뭐냐 대낭으로 허지 안 헛수 가양?(다음에 낚싯대, 저 옛날 낚싯댄 이 저 뭐냐 대나무로 하지 않습니까?)

105011 #2 옛날 그때 당시엔 대나무로 헛수다게, 대낭, 왕대.(옛날 그때 당시엔 대나무로 헛습니다, 대나무, 왕대.)

105011 @ 춤대, 춤대.(낚싯대, 낚싯대.)

105011 #2 예, 왕대 가근에 허여다근에 헤신디 요즘은 다 낚싯대로 험주마는, 그뻐 대나무로 헛수다.(예, 왕대 가서 해다가 했는데 요즘은 다 낚싯대로 하고 있지 만, 그뻐 대나무로 헛습니다.)

105011 @ 그땐 춤대엔 헛주, 춤대.(그땐 낚싯대라고 했지, 낚싯대.)

105011 #2 예. 그거 촌 사름덜 고기 살 돈도 엇곡 허민 물때 뭐 해가민 춤대 하나 들르곡 멩텅이 쪼쨌헌 거 메곡 허영 나끄레 다녔수다.(예. 그거 촌 사람들 고기 살 돈도 없고 하면 물 때 뭐 해가면 낚싯대 들고 망태기 조그마한 거 메고 해서 낚으러 다녔습니다.)

105011 @ 옛날은게 식게 혼변 허젠 허면은 바당이 강 나까당.(옛날은요 제사 한번 하려고 하면 바다에 가서 낚아다가.)

105011 #2 그거라도 나짱 배 탕 소금 허영 퀘기 올림도 헛수다.(그거라도 낚아서 배 타서 소금 해서 고기 올리기도 했습니다.)

105011 @ 상에 올리곡.(상에 올리고.)

105011 #2 예, 예.(예, 예.)

105011 @ 그때 우리 아버지도 낚시 잘 못허는디 중문백사장 거기 가근에 모살치, 모살치, 모살치도양 대구덕으로 하나 잡양 왓수다게.(그때 우리 아버지도 낚시 잘 못하는데 중문백사장 거기 가서 보리멸, 보리멸, 보리멸도요 대바구니로 하나 잡아서 왔습니다.)

105011 #2 호호.(웃음)(호호.(웃음))

105011 @ 이젠 모살치 하나 잡젠 허민.(이젠 보리멸 하나 잡으려고 하면.)

105011 #2 모살치엔 현 고기 막 맛 좋덴 현 고기우다게.(보리멸이라고 한 고기 아주 맛좋다고 한 고기입니다.)

105011 @ 모살치 깨끗헙주게.(보리멸 깨끗하지요.)

105011 #2 예, 맛 좋은 거.(예, 맛 좋은 거.)

105011 @ 모살에만 살양, 계난 그추룩 헨 계만은 이제는, 이젠 낚시 가면은 낚시허는 사름보단 퀘기가 엇어. 퀘기, 퀘기보단은 낚시허는 사름이 많아.(모래에만 살아서, 그러니까 것처럼 한 계만은 이제는, 이젠 낚시 가면은 낚시하는 사름보다는 고기가 엇어. 고기, 고기보다는 낚시하는 사름이 많아.)

105011 #2 양, 그 동네 사름 여기 완 살암수다. 큰각신 그 동네 살고.(예, 그 동네 사름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큰마누라는 그 동네 살고.)

105011 @ 어디?(어디?)

105011 #2 순경 해난 사름.(순경 헛던 사름.)

105011 @ 아, 맞수다.(아, 맞습니다.)

105011 #2 그 사름 이름 뭐여만은.(그 사름 이름은 뭐여만은.)

105011 @ 허○○.(허○○.)

105011 #2 허○○, 여기 여자 하나 데려단양, 그 남자도 여자 없으면 못 사는 남자 가뜰디다게.(허○○, 여기 여자 하나 데려다가, 그 남자도 여자 없으면 못 사는 남자 같습디다.)

105011 @ 옛날부터 사는 사름.(옛날부터 사는 사름.)

105011 #2 큰각시는 거기 살고, 여기 집 짓단 혼 이 년양 짓단 가만이 짓고예.

거기 이녀 살던 데 콘테나허연 살던 디 살고, 하우스 어디 요 모슬봉<sup>146)</sup> 뒤에 잇고  
렌 허명.(큰마누라는 거기 살고, 여기 집 짓다가 한 이 년 짓다가 가만히 있고요.  
거기 이녀 살던 데 컨테이너해서 살던 데 살고, 하우스 어디 요 ‘모슬봉’ 뒤에 있  
다고 하면서.)

105011 @ 알아집니다.(알 수 있습니다.)

105011 #2 두 개 짓언에 아덜 하나 하우스 주구렌 허명 곶읍디다, 허○○, 허○  
○ 맞수다.(두 개 지어서 아들 하나 하우스 줬다고 하면서 말합디다, 허○○, 허○  
○ 맞습니다.)

105011 @ 옛날 경찰 헤낫주게.(옛날 경찰 했었지요.)

105011 #2 예, 경찰 헤난 사람 맞수다게.(예, 경찰 했던 사람 맞습니다.)

105011 @ 옛날부터 경 헛수다게, 젊은 때부터.(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때부터.)

105011 #2 계난 큰각신 이제도 서방 좇양 오도 아니허고 가지도 아니허는 생입  
디다.(그러니까 큰마누라는 이제도 서방 찾아서 오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하는 모  
양입디다.)

105011 @ 거난 거기서 살고, 동생도 거기 살암수다. 그다음에 낚시줄양, 낚시줄  
은 이제 상점에 강 상 허지예?(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동생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낚시줄요, 낚시줄은 이제 상점에 가서 사서 하지요?)

105011 #2 낚시줄은 그때 당시에도 철공소에 강 사근에 헛수게.(낚시줄은 그때  
당시에도 철공소에 가서 사서 했습니다.)

105011 @ 철공소?(청공소?)

105011 #2 젠디 이제는예 낚시 그 저 허는 거기가 픈는 디 잇수게. 이제 너깍허  
고 낚시 풀고.(그런데 이제는요 낚시 그 저 하는 거기가 파는 데 있습니다. 이제 미  
끼하고 낚시 팔고.)

105011 @ 아, 이젠 낚시 집이 하우스다.(아, 이젠 낚시 집이 많습디다.)

105011 #2 예, 이젠 하도 하노난 거기서 상 허는 거 가릅디다.(예, 이젠 하도 많  
으니까 거기서 사서 하는 거 같습디다.)

105011 @ 그다음에 낚시, 낚시도 상 헛지양?(그다음에 낚시, 낚시도 사서 헛지  
요?)

105011 #2 예, 그때 당시에도 영 철사로 영 허영 픈는 거 이십디다, 그때 당시  
에도.(예,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해서 파는 거 있습디다, 그때 당시  
에도.)

105011 @ 뽕돌?(봉돌?)

105011 #2 뽕돌도 사고, 뽕돌 뒤 땀 집이서 그 저 무슨거 고망난 옛날 돈 잇  
지 안 허파? 돈. 구멍 난 돈 허영, 동글락헌 거 그거, 그것도 허여 가꼭 헛디다.(뽕  
돌도 사고, 봉돌 뒤 할 땀 집에서 그 저 무엇 구멍 난 옛날 돈 있지 않습디까? 돈.

146) ‘모슬봉’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 있는 오름이다.



구멍 난 돈 해서, 둥근 거 그거, 그것도 해 가고 합디다.)

105011 @ 그건 막 좀 무거워야 뽕돌 돼지 아니허여?(그건 아주 좀 무거워야 뽕돌 되지 않아?)

105011 #2 게 경허난 이젠 뽕돌덜 해 산 험십주.(그래 그러니까 이젠 뽕돌들 많이 사서 하고 있지.)

105011 @ 이젠 뽕돌도 플라스틱 닳은 거, 좋은 것덜 나와.(이젠 뽕돌도 플라스틱 같은 거, 좋은 것들 나와.)

105011 #2 예, 이젠양 잘도 좋은 것덜 나와마씨.(예, 이젠요 잘도 좋은 것들 나와요.)

105011 @ 옛날엔 납으로 뵈 거, 좀 길쭉허게 영 뵈 거.(옛날엔 납으로 뵈 거, 좀 길쭉허게 이렇게 뵈 거.)

105011 #2 예, 영 허영은에 납으로도 허영 이쪽으로도 고망 나게 허고, 요쪽으로도 고망 나게 허고, 겐디 이제덜은 다 풀암수게.(예, 이렇게 해서 납으로도 해서 이쪽으로도 구멍 나게 하고, 요쪽으로도 구멍 나게 하고, 그런데 이제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105012 @ 작살로는 케기 어떻 잡읍니까?(작살로는 고기 어떻게 잡읍니까?)

105012 #2 해녀덜은 작살로 물속에 들어가민 작살로, 그 작살 영 저 송곳 닳은 짝허영 두 개영, 세 개영 헤십디다. 고무로 여기 영 허영 가정 들어갓당 고기 저기 허여가는 거 닳으면 고무 영 허영 탁 텅겨근에 작살로 쏘양은에 가져오는 생입디다.(해녀들은 작살로 물속에 들어가면 작살로, 그 작살 이렇게 저 송곳 같은 짝해서 두 개랑, 세 개랑 했습디다. 고무로 여기 이렇게 해서 가져서 들어갓다가 고기 저기 헤엄쳐가는 거 같으면 고무 이렇게 해서 탁 텅겨서 작살로 쏘아서 가져오는 모양입디다.)

105013 @ 예, 켓깃배 종류 알아지쿠가?(예, 고깃배 종류 알 수 있습니까?)

105013 #2 그건 잘 모르고.(그건 잘 모르고.)

105013 @ 잘 몰라양?(잘 몰라요?)

105013 #2 예.(예.)

105014 @ 즘녀덜 해산물 채취 어떤 것덜 험니까?(해녀들 해산물 채취 어떤 것들 합니까?)

105014 #2 정 이월에는 해삼을 많이 잡곡, 요즘은 귀살, 귀살 잡고.(정 이월에는 해삼을 많이 잡고, 요즘은 성게, 성게 잡고.)

105014 @ 귀살이 성게지양?(‘귀살’이 성게지요?)

105014 #2 성게, 성게 잡곡, 구제기 잡고.(성게, 성게 잡고, 소라 잡고.)

105014 @ 귀살, 귀살?(성게, 성게?)

105014 #2 예.(예.)

105014 @ 구살이엔 안 허영 귀살양?(‘구살’이라고 안 해서 ‘귀살’요?)

105014 #2 귀살, 구제기 잡곡, 요즘은, 경 경 헛수게.(성게, 소라 잡고, 요즘은,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105014 @ 뭐 전복이야 항상 잡는 거고.(뭐 전복이야 항상 잡는 거고.)

105014 #2 전복, 전복은 어찌다 옛날에는 많이 잇엇주마는 이젠 어찌다가 그날 재수에 따라랑 하나 두 개허곡 잇는 생입니다, 이젠.(전복, 전복은 어찌다 옛날에는 많이 잇엇지만 이젠 어찌다가 그날 재수에 따라서 하나 두 개하고 잇는 모양입니다, 이젠.)

105015 @ 즈녀덜 즈녀질힐 때 필요헌 도구덜 뭐 뭐 잇수강?(해녀들 해녀질할 때 필요한 도구들 뭐 뭐 잇습니까?)

105015 #2 도구? 테왁<sup>147</sup>허고 안경허고, 고무옷, 이젠 고무옷.(도구? ‘테왁’하고 안경하고, 고무옷, 이젠 고무옷.)

105015 @ 고무옷?(고무옷?)

105015 #2 그것덜 입언 허연.(그것들 입어서 했어.)

105015 @ 그다음에 여기 영 허리에 차는 거?(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허리에 차는 거?)

105015 #2 그거 허리에 무끄는 거, 납, 췌로 웬 거 무거운 거, 그거 빨리 곱아얏게, 가라얏으렌 그거 참디다게, 그거는 물속에 들어가민 빨리 밑에레 내려가렌 그것도 잘도 무거운 겁디다.(그거 허리에 묶는 거, 납, 쇠로 된 거 무거운 거, 그거 빨리 가라얏게, 가라얏으라고 그거 참디다, 그거는 물속에 들어가면 빨리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것도 잘도 무거운 겁디다.)

105015 @ 테왁이엔 헌 것이 망사, 망사리?(‘테왁’이라고 한 것이 망사, 망사리?)

105015 #2 망사.(망사.)

105015 @ 망사?(망사?)

105015 #2 망시리, 망시리.(망사리, 망사리.)

105015 @ 망시리?(망사리?)

105015 #2 예.(예.)

105015 @ 그다음에 전복 떼는 거?(그다음에 전복 떼는 거?)

105015 #2 빗창<sup>148</sup>, 빗창.(‘빗창’, ‘빗창’.)

105015 @ 빗창?(‘빗창’?)

105015 #2 예, 빗창.(예, ‘빗창’.)

105015 @ 빗창.(‘빗창’.)

105015 #2 예, 그거.(예, 그거.)

105015 @ 전복 떼는 거 허고 그다음에, 그다음 엇인가?(전복 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없는가?)

105015 #2 것벧기 엇수다.(것밖에 없습디다.)

105016 @ 옛날 즈녀덜 허고 요즘 즈녀들 줌 차이가 잇지양?(옛날 해녀들 하고

147) ‘테왁’은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이다.

148) ‘빗창’은 해녀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이다.

요즘 해녀들 좀 차이가 있지요?)

105016 #2 차이가 이십주게, 옛날 즈머털은 미녕옷으로 속곳도 만들양은에 입곡 해신디 요즘털은 그런 속곳 만들양 입질 안형 아무거나 속에 팬티 입으면 거 고무 옷, 고무옷을 입어분 때문 옛날 속곳은 이젠 엇어져불고마씨.(차이가 있습지요. 옛날 해녀들은 무명옷으로 속곳 만들어서 입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속곳 만들어서 입질 얇아서 아무거나 속에 팬티 입으면 거 고무옷, 고무옷을 입어버리기 때문 옛날 속곳은 이젠 엇어져 버리고요.)

105016 @ 속곳양, 그 물질, 물질도 좀 차이가 잇지양, 옛날?(속곳요, 그 물질, 물질도 좀 차이가 잇지요, 옛날?)

105016 #2 상즈머는 조끔 먼 디 강 깊은 바닷에 들고.(상군은 조끔 먼 데 가서 깊은 바다에 들고.)

105016 @ 상즈머는.(상군은.)

105016 #2 예, 이제사 배우는 아이털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허민 상즈머는 밑에 들어가민 구제기도 굵은 거 잡고, 전복이라도 하나 봐지민 굵은 거 잡는 디.(예, 이제야 배우는 아이들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면 상군은 밑에 들어가면 소라도 굵은 거 잡고, 전복이라도 하나 봐지면 굵은 거 잡는 데.)

105016 @ 훑은 거 아니?(굵은 거 아니?)

105016 #2 훑은 거. 경 허는디 요즘 배우는 아이털은 도에서 허민 구제기도 존 존헌 거 잡곡, 뭐 귀살 ㄱ튼 것도 존존헌 거 잡고, 아멩헤도 깊은 물속에 가야 하나 썩을 잡아도 굵은 거 잡아 상즈머털은 그 차인 생입디다게.(굵은 거. 그렇게 하는데 요즘 배우는 아이들은 바다 입구에서 하면 소라도 자잘한 거 잡고, 뭐 성게 같은 것도 자잘한 거 잡고, 아무래도 깊은 물속에 가야 하나썩을 잡아도 굵은 거 잡아서 상군들은 그 차이인 모양입디다.)

105017 @ 거난 요즘 거 저 달라진 것이, 이거 물갈퀴?(그러니까 요즘 거 저 달라진 것이, 이거 물갈퀴?)

105017 #2 저 오리발, 오리발.(저 오리발, 오리발.)

105017 @ 아, 오리발.(아, 오리발.)

105017 #2 오리발, 오리발.(오리발, 오리발.)

105017 @ 오리발.(오리발.)

105017 #2 예. 그걸 이 발에 끼여야만 헤엄을, 예, 물러레 가라앗지 안 허영 영영만 느려가민 빨리 히여.(예. 그걸 이 발에 끼여야만 헤엄을, 예, 물로 가라앗지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만 내려가면 빨리 헤엄쳐.)

105017 @ 영 보민 개구리 닳아, 개구리.(이렇게 보면 개구리 같아, 개구리.)

105017 #2 거 오리발, 예.(거 오리발, 예.)

105017 @ 옷 입은 거 보민.(옷 입은 거 보면.)

105017 #2 오리발, 오리발, 그걸 꼭 신어야만 빨리 히어가곡 허는 생입디다게.(오리발, 오리발, 그걸 꼭 신어야만 빨리 헤엄치고 하는 모양입디다.)

105018 @ 툇 채취허지 안 험니까양?(툇 채취하지 않습니까?)

105018 #2 예.(예.)

105018 @ 요즘은 개인이 툇 채취허지 못허지 안 험니까?(요즘은 개인이 툇 채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05018 #2 예, 못험니다.(예, 못험니다.)

105018 @ 공동으로양?(공동으로요?)

105018 #2 예, 공동으로 허영은에 말려근에 일본더레 수출허는 생입디다게.(예, 공동으로 해서 말려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모양입디다.)

105018 @ 일본에서가 툇을 상당히 좋아허는 모양입디다.(일본에서 툇을 상당히 좋아하는 모양입디다.)

105018 #2 이 혈압에, 혈압에 좋덴 허영 막 받아가는 생입디다. 요즘은 그 툇 채취험 강 툇 과자도 나오고예. 그 툇 무슨거에 대헌 약, 그 혈압약으로도 나오고 예, 그렇게 허는 생입디다.(이 혈압에, 혈압에 좋다고 해서 마구 받아가는 모양입디다. 요즘은 그 툇 채취해서 가서 툇 과자도 나오고요. 그 툇 무엇에 대한 약, 그 혈압약으로도 나오고요, 그렇게 하는 모양입디다.)

105018 @ 거난 이 제주도 사름덜은 좋지 안 험 거 먹곡.(그러니까 제주도 사름들은 좋지 않은 거 먹고.)

105018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5018 @ 이 일본 사름덜은 좋은 거 먹는 거 님아.(이 일본 사름들은 좋은 거 먹는 거 같아.)

105018 #2 이 툇은 혈압을 낮춰주는 생이라마씨.(이툇은 혈압을 낮춰주는 모양이지요.)

105019 @ 우뭇가사리 잇지 안 허파? 우뭇가사리?(우뭇가사리 잇지 않습니까? 우뭇가사리.)

105019 #2 예.(예.)

105019 @ 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허지양?(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하지요?)

105019 #2 아니우다, 그거는예, 촌사름이라도 강 허여당, 해년마다 강은에예 망사리로 하나씩 해당은에 이걸 이때에 물리민 해당케 바령은에.(아닙니다, 그거는요, 촌사름이라도 가서 해다가, 해년마다 가서 망사리로 하나씩 해다가 이걸 이때에 말리면 하얗게 바래서.)

105019 @ 게난 바당에 이실 땐 별정허지양?(그러니까 바다에 있을 땐 별정지요?)

105019 #2 별정험니다.(별정습니다.)

105019 @ 여기 왕 물리와가민 하얗헤마씨?(여기 와서 말려 가면 하얗지요?)

105019 #2 하얗, 하얗.(하얗, 하얗.)

105019 @ 물리와 가민?(말려 가면?)

105019 #2 보쿠강? 보쿠강?(보겠습니까? 보겠습니까?)

105019 @ 아, 게 물리와 가민?(아, 그래 말려 가면?)

105019 #2 예, 하얗습니다. 하얗이 아니고 노오랑, 바로 요 색마씨.(예, 하얗습니다. 하얗이 아니고 노랑, 바로 요 색요.)

105019 @ 아, 아, 하얗이 아니고 노랑?(아, 아, 하얗게 아니고 노랑.)

105019 #2 노랑, 나 저 콘테나로 하나 해당 바련, 바련 들렸수다.(노랑, 나 저 컨테이너로 하나 해다가 바래서, 바래서 말렸습시다.)

105019 @ 거난 이거 헝은에.(그러니까 이거 해서.)

105019 #2 물에 딸령.(물에 달여서.)

105019 @ 딸령은에.(달여서.)

105019 #2 물에 딸령.(물에 달여서.)

105019 @ 딸령은에 우미엔 허지양?(달여서 우뭇가사리라고 하지요?)

105019 #2 예. 물에 딸령은에 요즘은 그 소쿠리, 잔잔헌 소쿠리 허영 탁 비와근에 걸렁만 내불민 다 건집니다게.(예. 물에 달여서 요즘은 그 소쿠리, 자잘한 소쿠리 해서 탁 부어서 걸러서 내버리면 다 뜬니다.)

105019 @ 거난 두부 허듯이 허는구나예?(그러니까 두부 하듯이 하는군요?)

105019 #2 예, 예.(예, 예.)

105019 @ 청묵<sup>149</sup>같이.(‘청묵’같이.)

105019 #2 예, 청묵 식으로.(예, ‘청묵’ 식으로.)

105019 @ 청묵양?(‘청묵’요?)

105019 #2 경 허영 그거 허영 여름인양.(그렇게 해서 그거 해서 여름엔.)

105019 @ 그거 최곱주게.(그거 최고지요.)

105019 #2 잘 먹어집니다.(잘 먹을 수 있습니다.)

105019 @ 조선간장 농곡 허여근에.(조선간장 넣고 해서.)

105019 #2 예게. 세우리 썰어낵.(예, 부추 썰어놔서.)

105019 @ 세우리 썰어낵, 단지 것벳기 더 잇수가?(부추 썰어놔서, 단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105019 #2 예, 예, 그거 세우리 썰어놔야 우미는 제맛 나마씨.(예, 예, 그거 부추 썰어놔야 우뭇가사리는 제맛 나요.)

105020 @ 하하하.(웃음) 그 전복은 어떻 잡습니까?(하하하.(웃음) 그 전복은 어떻게 잡습니까?)

105020 #2 겐디 난 우리 집이 아기 아방 전복 사민양 그냥 똥 채 찢르지 말앙 칼 들이지 말앙 그대로 영 영 뽕만 허 영양, 경만 헝 먹어야 영양분 싯넨 허난예, 나 썰언은 안 쥐봤수다, 그대로 먹언.(그런데 난 우리 집에 아기 아버지 전복 사면 요 그냥 똥 채 자르지 말고 칼 들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떼기만 해서요, 그렇게만 해서 먹어야 영양분 있다고 하니까, 나 썰어서 안 쥐봤습시다, 그대로 먹

149) ‘청묵’은 메밀쌀을 자루에 담아 물에 눌러서 나온 맑은 물로 쭈어서 만든 묵이다.

었어.)

105020 @ 계란 이게 깊은 바당에 강?(그러니까 이게 깊은 바다에 가서?)

105020 #2 깊은 바당에 가야예 손바닥만씩 헌 전복을 떼먹주, 도에 그런 거 엇 입니다게.(깊은 바다에 가야 손바닥만큼씩 한 전복을 떼먹지, 바다 입구에 그런 거 없습시다.)

105020 @ 그 구제기도 마찬가지로양?(그 소라도 마찬가지로?)

105020 #2 예, 구제기도 그 수협에서 한번.(예, 소라도 그 수협에서 한번.)

105020 @ 깊은 바당에 가야양?(깊은 바다에 가야?)

105020 #2 수협에서 한번 구제기 보낸 거 보난예, 깊은 바당에 건 몰래도 하나 엇입시다. 이 도에 거 잡은 건예 몰래 제왕예 똥을 하나도 못 먹어마씨. 겐디 깊은 바당에서 잡은 거는예 몰래가 하나 엇고양.(수협에서 한번 소라 보낸 거 보니까, 깊은 바다에 건 모래도 하나 없습시다. 이 바다 입구에 그거 잡은 건요 모래 겨워서 똥을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런데 깊은 바다에서 잡은 거는요 모래가 하나 없고요.)

105020 @ 그건 저.(그건 저.)

105020 #2 똥이 비지건히 맛 좋은 겁니다.(똥이 ‘비지근히’ 맛 좋은 겁니다.)

105020 @ 뭐만 먹엄구나게, 해초.(뭐만 먹고 있구나, 해초.)

105020 #2 예, 경 험신고라예.(예, 그렇게 하고 있는지.)

105020 #2 예, 모래 아이고 도에 건 몰래 제왕 똥을 다 버려야 허여마씨. 겐디 깊은 바당에 거는 아, 똥을 먹어보니 문닥허연양 똥이 그렇게 맛 좋습시다게, 수협에서 보낸 거, 그건 배에서 그물에 걸린 구제기도.(예, 모래 아이고 바다 입구에 건 모래 겨워서 똥을 다 버려야 해요. 그런데 깊은 바다에 거는 아, 똥을 먹어보니 반드러워서 똥이 그렇게 맛 좋습시다, 수협에서 보낸 거, 그건 배에서 그물에 걸린 소라도.)

105021 @ 그 전복 종류 잇수가?(그 전복 종류 잇습니까?)

105021 #2 난 그건 모르쿠다. 전복이민 전복인가 험주.(난 그건 모르겠습시다. 전복이면 전복인가 하고 있지.)

105021 @ 그 전복도 암커, 수커 잇수가?(그 전복도 암컷, 수컷 잇습니까?)

105021 #2 그거 경 싯젠 허는 거 닻읍시다.(그거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 같습시다.)

105021 @ 그거 구별헤집니까?(그거 구별할 수 잇습니까?)

105021 #2 난 그거 구별 못허여마씨. 겐디 전복 암커는 흐끔 너무작작허고양.(난 그거 구별 못헤요. 그런데 전복 암컷은 조금 너무죽하고요.)

105021 @ 넓적한 거고.(넓적한 거고.)

105021 #2 너무적허고.(너부죽하고.)

105021 @ 이 툭 툭정 올라온 거.(이 툭 툭져서 올라온 거.)

105021 #2 흐끔 올라오고 수름헌 건 수커 닻아 비어.(조금 올라오고 기름한 건 수컷 같아 보여.)

105021 @ 평평한 건.(평평한 건.)

105021 #2 평평한 건 암커 닳아 비고, 이 저 길이도 좀 짧고.(평평한 건 암커 닳아 보이고, 이 저 길이도 좀 짧고.)

105021 @ 음.(음.)

105021 #2 예, 그런 뭐가 이신 생입디다게.(예, 그런 뭐가 있는 모양입디다.)

105021 @ 구제기 종류 어떤 것덜 잇수가? 구제기 종류.(소라 종류 어떤 것들 잇습니까? 소라 종류.)

105021 #2 구제기 종류는 구제기허곡, 조쿠제기허곡.(소라 종류는 소라하고, 어린 소라하고.)

105021 @ 조쿠제긴 죽은 구제지기지양?(어린 소라는 작은 소라지요?)

105021 #2 잔잔한 거 보고 조쿠제기엔 합니다. 경허고 또 그 저 메옹이, 메옹이 닳은 거, 그거, 그거나벳기.(자잘한 거 보고 어린 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드럭고둥, 두드럭고둥 같은 거, 그거, 그거나밖에.)

105021 @ 메옹이는 이 저.(두드럭고둥은 이 저.)

105021 #2 예게, 생긴 것도 흐끔 틀러마씨.(예, 생긴 것도 조금 달라요.)

105021 @ 아, 메옹이.(아, 두드럭고둥.)

105021 #2 예, 구제기ㄴ찌 닳살은 이신 디도 저 흐끔 틀러마씨.(예, 소라같이 딱지는 있는 데도 저 조금 달라요.)

105021 @ 계난 뭐 좀 매운맛이 있어.(그러니까 뭐 좀 매운맛이 있어.)

105021 #2 예, 예.(예, 예.)

105021 @ 좀 매운 맛이.(좀 매운맛이.)

105021 #2 그거 그 종류나벳기 엇수다게.(그거 그 종류밖에 없습니다.)

105021 @ 계난 이 저 보니까 구제기도, 그 제주도 구제기는 닳살들이 거 뭐짱 비작비작 나오고.(그러니까 이 저 보니까 소라도, 그 제주도 소라는 딱지들이 거 뭐 입니까 부작부작 나오고.)

105021 #2 예.(예.)

105021 @ 양?(예?)

105021 #2 예.(예.)

105021 @ 육지 것은 어십디다양, 구제기가?(육지 것은 없습디다, 소라가?)

105021 #2 닳살이 어십디가?(딱지가 없습디까?)

105021 @ 아이 멘짝허여.(아니 만질만질해.)

105021 #2 아, 멘짝, 켌디 맞은예 우리 제주도 것이 맛이 좋아마씨.(아, 만질만질, 그런데 맞은요 우리 제주도 것이 맛이 좋아요.)

105021 @ 케니까 이디가 가시식으로 죽죽죽 나온 게.(그러니까 여기가 가시식으로 죽죽죽 나온 게.)

105021 #2 멍게도 저 멍게. 멍게도예.(멍게도 저 멍게. 멍게도예.)

105021 @ 멍게 제주도에서 안 나는데.(멍게 제주도에서 안 나는데.)

105021 #2 제주도 안 납니다게, 켜 멩게가 아니고 성게, 성게도에 제주도 거는.  
(제주도 안 납니다, 그래서 멩게가 아니고 성게, 성게도요 제주도 거는.)

105021 @ 귀살.(성게.)

105021 #2 귀살, 맛 좋고, 육지 거는 히밀끄렁헌, 그거에 맛이 엇입디다, 맛이.  
(성게, 맛 좋고, 육지 거는 ‘히밀끄렁헌’, 그거요 맛이 없습디다, 맛이.)

105021 @ 이 저 뭐 절 때문인 거 닐아, 파도.(이 저 뭐 파도 때문인 거 같아,  
파도.)

105021 #2 예, 파도도 기고, 아멩해도 이 성게 육지 거 상 먹어봅서, 먹구정 안  
해마씨. 우리 제주도도 가파도<sup>150)</sup> 거 먹어봅서. 물 하나 엇고 토랑토랑에 잘도 맛  
습니다.(예, 파도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성게 육지 거 사서 먹어보십시오, 먹고자  
안 해요. 우리 제주도도 가파도 거 먹어보십시오. 물 하나 엇고 토실토실 잘도 맛있  
습니다.)

105022 @ 떼, 그 떼가 저 테웁주게, 테우, 그 테우 허면은 그 저 이런 낭으로  
헤근에 베식으로 영 만든 거.(떼, 그 떼가 저 ‘테우’지요, 떼, 그 떼 허면은 그 저 이  
런 나무로 해서 배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

105022 #2 음, 뽕마 아이파? 거, 뽕마, 뽕마.(음, 떼 아납니까? 거, 떼, 떼.)

105022 @ 예, 뽕마.(예, 떼.)

105022 #2 낭으로 뽕마 만들앙.(나무로 떼 만들어서.)

105022 @ 예, 뽕마가 테우답수다.(예, ‘뽕마’가 떼같습니다.)

105022 #2 예.(예.)

105022 @ 그거에 대해서 알아지쿠가?(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105022 #2 우리 어린 뽕 보민 거 뽕마엔 허영에 그 나무 여경 여기 사름 서너  
이 앓게 허영은에 저 먼 바다엔 안 나가고 도, 도에서 고기 나끄는 건 봐낫수다.(우  
리 어린 뽕 보면 거 떼라고 해서요 그 나무 엮어서 여기 사름 서너이 앓게 해서 저  
먼 바다엔 안 나가고 바다 입구, 바다 입구에서 고기 낚는 건 봤엇습니다.)

105022 @ 아, 예.(아, 예)

105022 #2 요즘은 그 저 주부 이만헌 주부 탕 햐주만은, 옛날엔 그 주부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낭으로 허영은에양 그 도에서 고기 나끄는 건 봐낫수다.(요즘은  
그 저 튜브 이만한 튜브 타서 하고 있지만, 옛날엔 그 튜브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나무로 해서요 그 바다 입구에서 고기 낚는 건 봤엇습니다.)

105023 @ 그다음에, 돛베, 돛베, 돛베 알아지쿠강? 돛 단 거, 돛, 돛, 돛베?(그  
다음에, 돛베, 돛베, 돛베 알 수 있겠습니까? 돛 단 거, 돛, 돛, 돛베?)

105023 @ 돛단베게, 돛단베.(돛단배요, 돛단배.)

105023 #2 아, 돛단베 쯤헌 거.(아, 돛단배 조그마한 거.)

105023 @ 그 영 돛 달앙.(그 이렇게 돛 달아서.)

105023 #2 돛 하나 달앙, 초석 닐은 거 달앙은에.(돛 하나 달아서, 돛 같은 거

---

150) ‘가파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이다.



달아서.)

105023 @ 초석, 초석.(돛, 돛.)

105023 #2 예, 그거 달양 해난 것도 봐놔수다게.(예, 그거 달아서 했던 것도 봤  
었습니다.)

105024 @ 그 명칭은 잘 모르겠지양?(그 명칭은 잘 모르겠지요?)

105024 #2 예, 겐디.(예, 그런데.)

105024 @ 앞에는 뭐고?(앞에는 뭐고?)

105024 #2 그 돛 달양은에 고기 나끄는 건 먼 바다엔 갈 수는 엇고 바다궂디서  
고기 나끄는, 옛날엔 그거 그 돛 다는, 왜 그거 들렸나 허면은 그 위치를 바람 따라  
이렇게 영 뭐허게 허영 그 초석을 든 거 같아마씨양. 이쪽더레 오젠 허민 그 초석  
을 요렇게 허고예.(그 돛 달아서 고기 낚는 건 먼 바다엔 갈 수는 없고 바닷가에서  
고기 낚는, 옛날엔 그거 그 돛 다는, 왜 그거 달렸나 허면은 그 위치를 바람 따라  
이렇게 이렇게 뭐하게 해서 그 돛을 단 거 같아요.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그 돛을  
요렇게 하고요.

105024 @ 브름으로 왔다 갔다 허는 뱀주게.(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지요.)

105024 #2 예, 예. 계난 요쪽더레 나가가민 초석을 요렇게 돌리민 이쪽더레 오  
고.(예, 예. 그러니까 요쪽으로 나가 가면 돛을 요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오고.)

105024 @ 기계 힘으로 헨 것이 아니라 그 돛으로 허여근에.(기계 힘으로 한 것  
이 아니라 그 돛으로 해서.)

105024 #2 예, 경.(예, 그렇게.)

105024 @ 방향 조절을.(방향 조절을.)

105024 #2 예, 맞수다게, 그걸로 방향 조절허는 거 가뜰디다.(예, 맞습니다, 그걸  
로 방향 조절하는 거 같습디다.)

## 6. 의생활

### 옷감

106001 @ 그다음에 그 저 옷감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가? 옷감, 옛날 옷감.(그  
다음에 그 저 옷감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옷감, 옛날 옷감.)

106001 #2 옛날 옷감.(옛날 옷감.)

106001 @ 옛날, 옛날.(옛날, 옛날.)

106001 #2 옛날 우리 어린 뎨 보문예, 우리 어머니 멘네 갈양 그 멘네 불리는  
기계가 쉽디다. 그거 영, 씨, 씨.(옛날 우리 어린 뎨 보면요, 우리 어머니 면화 같아  
서 그 면화 밟는 기계가 있습디다. 그거 이렇게 씨, 씨.)

106001 @ 그 옷감이 뭐우짱? 무명.(그 옷감이 무엇입니까? 무명.)

106001 #2 무명.(무명.)

106001 @ 무명양?(무명요?)

106001 #2 게믄 그거 영 영 씨 빠근에 또 그 실 만드는 거 영 허민, 멘네 영 허민 영 영 둘러가민 실 만드아근에 허민 그 미녕 짜는 틀 낱 발로 영 혼번 짝 허영 영 허영 특 찢렁 착 허고, 그거.(그러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씨 빼서 또 그 실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면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면 실 만들어서 하면 그 무명 짜는 그네 놔서 발로 이렇게 한번 짝 해서 이렇게 해서 특 찢러서 착 하고, 그거.)

106001 @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물어보쿠다. 거고양, 그다음에 무명 잇고, 옷감 종류는?(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무명 잇고, 옷감 종류는?)

106001 #2 무명 잇고.(무명 잇고.)

106001 @ 그다음에 멩지?(그다음에 명주?)

106001 #2 멩지, 멩 멩지허고, 옛날엔 멩지허고 무명벧긴 더 잇엇수가게? 멩지는.(명주, 명 명주하고, 옛날엔 명주하고 무명밖엔 더 잇엇습니까? 명주는.)

106001 @ 그다음에 모시?(그다음에 모시?)

106001 #2 아, 모시는 그 저 밧디 뭐 갈양은에 그걸 허영 솟양 그 모시 만드는 것도 이제, 이제도 모시 육지 험수게.(아, 모시는 그 저 밧에 뭐 갈아서 그걸 해서 삶아서 그 모시 만드는 것도 이제, 이제도 모시 육지 하고 있습니다.)

106001 @ 모시, 모시옷이 여름에 시원합니다게.(모시, 모시옷이 여름에 시원합니다.)

106001 #2 예, 예. 우리 제주도는 모시 허는 디 엇고. 육지는 이제도 모시 허는 디 잇수다.(예, 예. 우리 제주도는 모시 하는 데 없고, 육지는 이제도 모시 하는 데 있습니다.)

## 명주

106002 @ 그다음에 멩지에 대허영 알아보쿠다양.(그다음에 명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6002 #2 예, 멩지는 누에 질황은에 누에 먹은 것이 멩지고.(예, 명주는 누에 길러서 누에 먹은 것이 명주고.)

106002 @ 예, 예. 그다음에양 멩지실 멩그는 과정, 멩지실은 어떻 멩글아가마 씨.(예, 예. 그다음에 명주실 만드는 과정, 명주실은 어떻게 만들어요.)

106002 #2 멩지실은 우리 어린 때 우리 어머니 허는 거 보민 뽕나무 잎 그 누에 맥영, 누에가 경 행 네중에 뽕 고지가 뽕디다. 고지가 뽕예, 그 조름으로 헤가민 실이 그 고지 뽕 거에서 실이 나옵디다게. 게믄 그거 일일이 영 뽕.(명주실은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보면 뽕나무 잎 그 누에 먹여서, 누에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면 고치가 뽕디다. 고치가 뽕면요, 그 뒤로 헤가면 실이 그 고치 된 거에서 실이 나옵디다. 그러면 그거 일일이 이렇게 빼서.)

106002 @ 사름 손으로 허여?(사람 손으로 해?)

106002 #2 사름 손으로, 사름 손으로 일절 경 허영예, 그 무명 짜는 틀에 그 실 문딱 끼영, 경흐민 그추룩 허영 멩지를 즐읍디다. 난 허여 보지 안 허고 어머니 허는 건 봐낫수다.(사람 손으로, 사람 손으로 일절 그렇게 해서요, 그 무명 짜는 그네에 그 실 모두 끼워서, 그러면 것처럼 해서 명주를 곁습디다. 난 해 보지 안 하고 어머니 하는 건 봤엇습디다.)

106003 @ 그 멩지 종류 알아지쿠가?(그 명주 종류 알 수 있습니까?)

106003 #2 그건 잘 모르쿠다.(그건 잘 모르겠습디다.)

106003 @ 뤼 생멩주인지.(뤼 생멩주인지.)

106003 #2 생멩, 생멩지엔.(생멩, 생멩주라고.)

106003 @ 수아주.(수아주.)

106003 #2 생멩지는 그거 영 빼어근에 짧지 아녕 그대로 현 것이 생멩지, 생멩주고, 또 그 준 걸 삶곡 그 저게 현 거는 그 고운 멩지, 그렇게 허는 생입디다.(생멩주는 그거 이렇게 빼어서 삶지 않아서 그대로 한 것이 생멩주, 생멩주고, 또 그 잔 걸 삶고 그 저게 한 거는 그 고운 멩주, 그렇게 하는 모양입디다.)

106003 @ 계난 멩지도 보면은 무신 육, 멩지여만은.(그러니까 멩주도 보면은 무슨 육, 멩주여만은.)

106003 #2 멩지 삶고, 그냥 다 생멩지로 만들어놔 쟁, 찰망 다 다듬은 거는 곱게 나오고, 게 아니허든 생멩주난 버작허영예 그렇게 뵈디다게. 우리 어머니 멩지 즈는 것도 봐나고, 그 미녕 즈는 것도 봐나고, 그때 당시엔 난 허여 보지 안 허고.(멩주 삶고, 그냥 다 생멩주로 만들어놔서 찌서, 삶아서 다 다듬은 거는 곱게 나오고, 그렇게 아니하면 생멩주니까 뵈뵈해서 그렇게 뵈디다. 우리 어머니 멩주 갖는 것도 봤엇고, 그 무명 갖는 것도 봤엇고, 그때 당시엔 난 해 보지 았고.)

106004 @ 그 멩지로 어떤 옷 멩굽니까?(그 멩주로 어떤 옷 만듭니까?)

106004 #2 옛날 그 사름이 돌아가시면, 계민 저승옷.(옛날 그 사름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저승옷.)

106004 @ 저승옷.(저승옷.)

106004 #2 저승옷덜을 그거 해 만들어십주. 장옷 ㄴ튼 거, 옛날 시집가젠 허민, 이제난 해도 옛날엔 그 장옷, 씨완에 시집, 장게보내지 아이헛수가? 계민 그거 만들 물감 허영 그거 색 허영 장옷 허영 시집갈 때 그거 씨왕 보내민 죽영 갈 땐 그거 장옷으로 헤십주.(저승옷덜을 그거 많이 만들엇습지요, 장옷 같은 거, 옛날 시집가려고 하면, 이제니까 해도 옛날엔 그 장옷, 씨워서 시집, 장가보내지 았앗습니까? 그러면 그거 만들 물감 해서 그거 색 해서 장옷 해서 시집갈 때 그거 씨워서 보내면 죽어서 갈 땐 그거 장옷으로 헛습지요.)

106004 @ 아이, 나가 그 영 곱든 뵈는 말인지 모르쿠다만 나 장게갈 때.(아니, 내가 그 이렇게 말하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디다만 나 장가갈 때.)

106004 #2 멩주 도복, 도복 해주지 아이헛디가?(멩주 도복, 도복 해주지 았습디

까?)

106004 @ 도복이 아이라양.(도복이 아니야.)

106004 #2 바지저고리하고.(바지저고리하고.)

106004 @ 망건, 그 저승옷하고 아이.(망건, 그 저승옷하고 아니.)

106004 #2 예, 예.(예, 예.)

106004 @ 우리 어머니 생각허연 거.(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거.)

106004 #2 아이고, 그때 당시엔 다 경 헛수다.(아이고, 그때 당시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106004 @ 아이, 거난 거 메뉴리안티 장옷하고, 아, 거난 식 곳난에 그거 갈아입 언 사진 하나 찍으렌 허멍.(아니, 그러니까 거 며느리한테 장옷하고, 아, 그러니까 식 끝나서 그거 갈아입어서 사진 하나 찍으라고 하면서.)

106004 #2 예, 또 그거 아침이 결혼식날 아침이 그걸 입형.(예, 또 그거 아침에 결혼식날 아침에 그걸 입혀서.)

106004 @ 경 험니짱?(그렇게 합니까?)

106004 #2 예, 제지냅니께. 조상덜안티 절허영.(예, 제지냅니다. 조상들한테 절해서.)

106004 @ 아침이 험주.(아침에 하지.)

106004 #2 예, 그거 입형, 저승옷을 입형 그거 제지냅주. 그건 왜 그렇게 허느냐 그거 입형 조상덜안테 절허꼭 허민 그걸로 허영 명 이상 오래 산다 허는 뜻으로 그렇게 허는 생이라마씨.(예, 그거 입혀서 저승옷을 입혀서 그거 제지내지.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입혀서 조상들한테 절하고 하면 명 이상 오래 산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이야.)

106004 @ 여기서는 삼촌이 영 헤웁수다만은, 아, 다른 디 강 그 말 허니까 그 무슨 그 말 험시넨 허멍.(여기서는 삼촌이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 아, 다른 데 가서 그 말 하니까 그 무슨 그 말 하고 있느냐 하면서.)

106004 #2 아이 옛날 어른, 우리 애기아방<sup>151)</sup>도예, 저 멩지 바지저고리, 어머니 저 도복은 아니헨 놔뒤도 멩지 바지저고리 어멍 산 때 장게갈 때 헤 줘십디다, 게 난.(아니 옛날 어른, 우리 ‘애기바방’도요, 저 멩주 바지저고리, 어머니 저 도복은 안 해서 놔뒤도 멩주 바지저고리 어머니 산 때 장가갈 때 헤 줬습니다, 그러니까.)

106004 @ 아, 거난에 그 저 그 동네에서 옷 잘 멩그는 사름 빌언.(아, 그러니까 그 저 동네에서 옷 잘 만드는 사람 빌어서.)

106004 #2 예, 예.(예, 예.)

106004 @ 빌언에.(빌어서.)

106004 #2 예, 예.(예, 예.)

106004 @ 저기 저승옷 멩글안에.(저기 저승옷 만들어서.)

106004 #2 경허민 명을 잇은덴, 옛날 어른덜은예, 그거 허영 잔칫날 아침에 명

---

151) ‘애기아방’은 아기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질 지내십주. 밥허어근에 질 허렌 허어근에 요즘은 요즘도양 좀 뭇허는 사름덜은 다 경 허염수게, 요즘도. 계난 요즘 아이덜은 몰랑도 못 해 주는 거라.(그러면 명을 이은다고, 옛날 어른들은요, 그거 해서 잔칫날 아침에 명절 지냈습지요. 밥해서 질 하라고 해서 요즘은 요즘도요 좀 뭇허는 사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니깐 요즘 아이들은 몰라서도 못 해 주는 거야.)

106004 @ 못허여.(못해.)

106004 #2 계난 그거 7만이 좀 약 노렌 험서, 좀 약. 일 년에 혼 번양 봄 나민 벳 췌우곡 좀약 낫다근에.(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나무좀 약 놓으라고 하십시오, 나무좀 약. 일 년에 한 번요, 봄 나면 별 쏘이고 좀약 낫다가.)

106004 @ 모르쿠다, 어디 가신지, 아이고.(모르겠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이고.)

106004 #2 겐디 그것이에 멩지가 요즘 그런 멩지 나왓수가? 안 나웁니다.(그러나 데 그것이 명주가 요즘 그런 명주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웁니다.)

106004 @ 아주 좋은 겹주게.(아주 좋은 거지요.)

106004 #2 아이고, 이젠 멩지웁 나와도 죽영 천리험 때 봅서. 그 실마다 몸에 열거진텐 험니다. 겐디 그거는 몸에 탁 달라부떠근에양 경 허난 옛날 어른덜 다 뭐가 이선 그거 험 거라마씨, 그거, 그거 각시신디 잘 곱읍서.(아이고, 이젠 명주웁 나와도 죽어서 이장할 때 보십시오. 그 실마다 몸에 얹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몸에 탁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니깐 옛날 어른들 다 뭐가 있어서 그거 한 거지요, 그거, 그거 마누라에게 잘 말하십시오.)

106004 @ 거난.(그러니까.)

106004 #2 봄 나건 혼번 벳 맞창 그 좀 약 사당 딱 놔똥 일 년에 혼 번씩만 노민, 요즘은양 경 안 허민 벳 딱딱 넘어정 요즘은 스티로폴 잇지 안 허짜?(봄 나건 한번 별 맞춰서 그 나무좀 약 사다가 딱 놔똥서 일 년에 한 번씩만 놓으면, 요즘은요 그렇게 안 하면 별 딱딱 넘어져서 요즘은 스티로폼 잇지 않습니까?)

106004 @ 아이, 그거 안 곱암수다게. 그거 무신 저승웁을 멩글앙.(아니, 그거 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저승웁을 만들어서.)

106004 #2 아이, 난 문딱 경 허연 스트리플에 도복 7찌 만들안 문딱 험 놔똥수다.(아니, 난 모두 그렇게 해서 스티로폼에 도복 같이 만들어서 모두 해서 놔똥수다.)

106004 @ 아, 건 생각험 험 거주게.(아, 건 생각해서 한 거지요.)

106004 #2 계난 미리 허영 놔두민 명도 잇고, 종넨 험 뜻으로 허렌 험십주게. (그러니까 미리 해서 놔두면 명도 잇고, 좋다고 한 뜻으로 하라고 했습지요.)

106004 @ 여기 오니까 여자 삼촌이 경 곱아웁주, 다른 디 가니까 그거 웃기는. (여기 오니까 여자 삼촌이 그렇게 말하고 잇지, 다른 데 가니까 그거 웃기는.)

106004 #2 모르켄?(모르겠다고?)

106004 @ 무시거. 저승웁을 잔치험 때.(무엇, 저승웁을 잔치할 때.)

106004 #2 그것 만들앙 놔똥도양 장의사덜 그거 안 입지켄 허민 막 부에난, 난

우리 동세 죽언, 동세도 허연 놔두난 죽으난 장의사 가전 간 그거 허난양 우리 좋  
앗던, 곳엇던 우리 헌 옷을 입져줍서.(그것 만들어서 놔뒤도 장의사들 그거 안 입히  
겠다고 하면 아주 화나서, 난 우리 동서 죽어서, 동서도 해서 놔두니까 죽으니까 장  
의사 가져서 가서 그거 하니까 우리 좋앗던, 곳엇던 우리 한 옷을 입혀주십시오.)

106004 @ 아, 우리도 경 해수다게, 우리 아버지 할 때도 퀘, 퀘 다 열엉.(아, 우  
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 때도 퀘, 퀘 다 열어서.)

106004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04 @ 우리가 다 헨 헛수다.(우리가 다 해서 했습니다.)

106004 #2 예.(예.)

106004 @ 그걸로 싹 허여근에.(그걸로 싹 해서.)

106004 #2 예, 좋던, 곳던 우리 헌 걸로 입져줍서.(예, 좋던, 곳던 우리 한 것으  
로 입혀주십시오.)

106004 @ 겐디 모양이 좋아.(그런데 모양이 좋아.)

106004 #2 예게.(예.)

106004 @ 그거 다른, 다른 사람도 영 옷 입힐 때 봐신디 우리 아버지가 아주  
멍주도.(그거 다른, 다른 사람도 이렇게 옷 입힐 때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멍  
주도.)

106004 #2 옛날 멍지난 술에 특 부명은에, 요즘 건 장의사덜 헌 거 그거 제라한  
것파?(옛날 멍주니까 살에 탁 붙어서, 요즘 건 장의사들 한 거 그거 온전한 것입니  
까?)

106004 @ 아이, 거 다 중국제우다게.(아니, 거 다 중국제입니다.)

106004 #2 예, 경 허난 각시안티 잘 곶앙, 거난 부모, 부모 헌 걸로 죽앗던, 컷  
던 그걸로 입져드라.(예, 그렇게 하니까 마누라한테 잘 말해서, 그러니까 부모, 부모  
한 걸로 작앗던, 컷던 그걸로 입혀달라.)

106004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04 #2 거 죽건, 겐디 옛날 만든 옷이양 조금 죽을 겨우다. 이제 것이 그때  
당시엔 사람덜이 살도 아니 먹고 허난 크게 아니 해실 겨우다게. 게도 그때 당시도  
크게 허젠 허면은.(거 작거든, 그런데 옛날 만든 옷이 조금 작을 것입니다. 이제 것  
이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살도 아니 먹고 하니까 크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도 크게 하려고 하면은.)

106004 @ 아니, 풍성허게.(아니, 풍성하게.)

106004 #2 예, 경 허난예, 좋앗던, 곳엇던 부모 해준 걸로 나 입져달라.(예, 그렇  
게 하니까, 좋앗던, 곳엇던 부모 해준 걸로 나 입혀달라.)

106004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04 #2 그렇게 허는 것이 도리우다. 나도 경 허젠 이제 우리 아기덜안티 문  
딱 요번에 메누리덜은 이거 보라 허난 아이구 어떻 그런 거 봅니까 허난, 야! 니 나  
이가 어린난 그거주 그게 아니여, 니네도 늙으면 다 경 허난 우리랑 죽건 아, 장의

사 옷, 우리 저 장의사 무신거 뭐 들구렌, 그 왕 물어주곡 허는 거.(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우리 아기들한테 모두 요번에 며느리들은 이거 보라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런 거 봅니까 하니까, 야! 너 나이가 어리니까 그거지 그게 아니야, 너희도 늙으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랑 죽건 아, 장의사 옷, 우리 저 장의사 무엇 들었다고, 그 와서 물어주고 하는 거.)

106004 @ 아이, 거 들지 말렌 험서.(아니, 거 들지 말라고 하십시오.)

106004 #2 들구렌마썸.(들었다고요.)

106004 @ 거 무신거냐, 거?(거 무엇이냐, 거?)

106004 #2 상조, 상조.(상조, 상조.)

106004 @ 상조회.(상조회.)

106004 #2 예, 것도.(예, 것도.)

106004 @ 그거양.(그거요.)

106004 #2 돈만 더 받아간덴 험디다.(돈만 더 받아간다고 함디다.)

106004 @ 계난마썸, 거 치와봅서.(그러니까요, 거 치워 버리십시오.)

106004 #2 아니, 거난 우리 죽은아덜 두 군데 들구렌 허멍, 이거 상조 들언 이거 가져온 생입디다, 이거.(아니,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들 두 군데 들었다고 하면서, 이거 상조 들어서 가져온 모양입디다.)

106004 @ 하이고, 저 딱 일 나니까양, 와근에 영 심부름 영 도와주는 책 허멍.(아이고, 저 딱 일 나니까요, 와서 이렇게 심부름 이렇게 도와주는 척 하면서.)

106004 #2 것도 다 돈 받아가고.(것도 다 돈 받아가고.)

106004 @ 이것도.(이것도.)

106004 #2 경허난 난 메누리덜안테 어무니네 죽언 종던, 굿던 부모 행 놔둔 걸로 행 입지라. 좋앗던, 굿엇던 경 허라.(그러니까 난 며느리들한테 어머니네 죽어서 종던, 굿던 부모 해서 놔둔 걸로 해서 입혀라. 좋앗던, 굿엇던 그렇게 하라.)

106004 @ 그게 정석인디게.(그게 정석인데요.)

106004 #2 그 저 약 장시덜 완에 그 옷 풀멍 돈은 막 하영 받아가고 만들양 놔둔 거는 지네 드렌 허영 가져갓젠 허난 그거 팔아먹젠 ㅈ져가는 거라, 뭇 헤젠 꺾시넨 허멍 나 아기덜안테 거 파는 건 고왕 해도 거 종이 아니우파? 종이. 뭇 허젠 그거 바꿨디겐. 호호호.(웃음)(그 저 약 장시들 와서 그 옷 팔면서 돈은 아주 많이 받아가고 만들어서 놔둔 거는 자기네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거 팔아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야, 뭇 하려고 줬느냐 하면서 나 아기들한테 거 파는 건 고와서 해도 거 종이 아닙니까? 종이. 뭇 하려고 그거 바꿨습니까. 호호호.(웃음))

106004 @ 아이, 차이가 커마썸.(아니, 차이가 커요.)

106004 #2 예, 경허난양, 거 각시안티 경 글읍서. 날랑 죽건 부모 해준 걸로 허고, 시부모 장옷 해준 거 그거 쓰라, 그것이 제라헌 멩지 아이가.(예, 그러니까요, 거 마누라한테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랑 죽건 부모 해준 것으로 하고, 시부모 장옷 해준 거 그거 쓰라, 그것이 온전한 명주 아닙니까.)

106004 @ 맞수다.(맞습니다.)

106004 #2 좋았던, 꺾었던.(좋았던, 꺾었던.)

106004 @ 아, 여기 오니까 인정받네, 이거. 아, 이거 나 다른 디 간.(아, 여기 오니까 인정받네, 이거. 아, 이거 나 다른 데 가서.)

106004 #2 아, 정말이우다게.(아, 정말입니다.)

106004 @ 무신 잔치할 때 그런 옷 멩그느넨 허멍.(무슨 잔치할 때 그런 옷 만 드느냐 하면서.)

106004 #2 잔치할 때양, 나도 우리 아덜덜 안 만들앗수다게. 게난 나 이제 죽기 생전에 나 산 때에 문딱 허멍 주젠 험수다게, 나도. 어떻 윤달 드는 해에.(잔치할 때요, 나도 우리 아들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죽기 생전에 나 산 때에 모두 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떻게 윤달 드는 해에.)

106004 @ 그거 막 생각허멍 현 겁주게.(그거 아주 생각해서 한 거지요.)

106004 예게, 예. 게난 요즘은양 그 상조에서 오민 만들어 놓는 거 안 입혀렌덜 험 디다만, 그런 땀 이녁이 자식들이 들어상 아니라고 우리 부모 그거 허멍 입혀사 현 텐.(예, 예.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 상조에서 오면 만들어 놓은 거 안 입혔다고들 합 디다만, 그럴 때는 이녁이 자식들이 들어서서 아니라고 우리 부모 그거 해서 입혀 야 한다고.)

106004 @ 가져가민 다 험디다게.(가져가면 다 합디다.)

106004 #2 예, 게난 우리 시누이, 우리 동세 죽은 때 나 멩지 이불 아래 깔곡 더뜨는 거 아니허연, 딱 지네 거 가정, 양 무사 이걸 안 험, 무사 이걸 내놓디젠. 이 걸 해 줘셴 허연 그때 사름 혼 사름이 들어사야여마씨.(예, 그러니까 우리 시누이, 우리 동서 죽은 때 나 명주 이불 아래 깔고 덮는 거 안 해서, 딱 자기네 거 가져서, 예 왜 이걸 안 했어, 왜 이걸 내놓았습니까, 이걸 해주십시오 해서 그때 사람 한 사람이 들어서야지요.)

106004 @ 경 험주게, 거난에 우리 누님이 강 퀘 강 다 뒤정은에.(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가서 퀘 다 뒤져서.)

106004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04 @ 가정옵서.(가져오십시오.)

106004 #2 아, 맞수다게.(아, 맞습니다.)

106004 @ 그거 가져당 윽이 영 놔뒀당.(그거 가져다가 옆에 이렇게 놔뒀다가.)

106004 #2 예, 게난양.(예, 그러니까요.)

106004 @ 입관할 적에는.(입관할 적에는.)

106004 #2 목숨 떨어지기 전에 한복 입지 안 험니까? 한복. 목숨 떨어지기 전에 한복 입젓당 그 모욕 시켜난 다음에 그 큰옷을 입힙주게.(목숨 떨어지기 전에 한복 입지 않습니까? 한복. 목숨 떨어지기 전에 한복 입혔다가 그 모욕 시켜난 다음에 그 큰옷을 입히지요.)

106004 @ 젠디 거 쉬운 것이 아넵디다게, 거.(그런데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

106004 #2 아이고게, 경 해도에예 목숨 떨어지기 전에 양발허고 신발허고 한복을 입져야.(아이고, 그렇게 해도요 목숨 떨어지기 전에 양말하고 신발하고 한복을 입혀야.)

106004 @ 이번에 아버지 임종 자식 하나도 못 봤수게.(이번에 아버지 임종 자식 하나도 못 봤습니다.)

106004 #2 경 허난양.(그렇게 하니까요.)

106004 @ 새벽 병원에서 새벽 한 시, 계난 이걸 알아야 돼어마씨. 나이가 들었에 교통사고 좀 나니까 이 우리는 다리만 불편허연 이제 이제 일어나근에 뎅이카부덴 헛주마씨.(새벽 병원에서 새벽 한 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어요. 나이가 들어서 교통사고 나니까 이 우리는 다리만 불편해서 이제 이제 일어나서 다닐까 싶어서 했지요.)

106004 #2 예.(예.)

106004 @ 나이 들어근에 다리 다치면은 가만이 잇어 노니까 이 내장부떠 이상이 가는 거라.(나이 들어서 다리 다치면은 가만히 잇어 놓으니까 이 내장부터 이상이 가는 거야.)

106004 #2 운동을 안 해노난, 그게 다.(운동을 안 해놓으니까, 그게 다.)

106004 @ 예, 거난 매일 걸던 분이 다리 다쳐은에 이십 일만이 돌아가셨수다.(예, 그러니까 매일 걸던 분이 다리 다쳐서 이십 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106004 #2 아이고.(아이고.)

106004 @ 게 우리는 거 뭐파? 간호허는 사름도 빌고 허연에양, 직장들 다녀부니까, 아.(그래 우리는 거 뭐입니까? 간호하는 사름도 빌고 해서요, 직장들 다녀버리니까, 아.)

106004 #2 게도 경도 죽기 전에 말해 주는디게.(그래도 그렇게도 죽기 전에 말해 주는데요.)

106004 @ 것도 전혀 엇고양.(것도 전혀 없고요.)

106004 #2 그거 병원에 간, 난 우리 동세양.(그거 병원에 가서, 난 우리 동서요.)

106004 @ 단지 뭐냐면은 집이만 가겠다는 거라게. 아, 계난 이제야 후회허는 거라.(단지 뭐냐면은 집에만 가겠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야 후회하는 거야.)

106004 #2 그때 혼번 돌아와시민.(그때 한번 돌아왔으면.)

106004 @ 아, 이거, 집이 가겠다는 이유가 집이서 돌아가시겠다는 말이구나.(아, 이거, 집에 가겠다는 이유가 집에서 돌아가겠다는 말이구나.)

106004 #2 난 우리 동세 죽어감젠 허난예 확 완예, 한복, 한복 한 벌 확 ㄴ정 가고예, 나 공연 우리도 모슬봉 소리패 허영 공연허레 우리도 막 패 허영 다닙니다 게, 계난 짚신, 짚신 현 거 이시난 그거 확 ㄴ전 간예, 간 보난 거제 목숨 떨어전 거기서 물티슈 하영 ㄴ전 갖단 몸 싹 허연 한복 싹 입전 모션 왓수다. 계난 죽영

갈 때에 그처럼 곱게 입어야 저승을 가도 곱게 입으, 옛날 말이 이서. 양발로 신발은, 옷은 막 다급허영 못 해도 양발허고 신발은 꼭 신게 해야.(난 우리 동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확 와서요, 한복, 한복 한 벌 확 가져서 가고요, 나 공연 모슬봉 소리패 해서 공연하러 마구 패 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짚신, 짚신 헌 거 있으니까 그거 확 가져서 가서, 가서 보니까 거의 목숨 떨어져서 거기서 물티슈 해서 가져서 갔다가 몸 싹 해서 한복 싹 입혀서 모셔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갈 때에 그처럼 곱게 입어야 저승을 가도 곱게 입어서, 옛날 말이 있어. 양발로 신발은, 옷은 다 다급해서 못해도 양말하고 신발은 꼭 신게 해야.)

106004 @ 맞수다게. 저승 가도 신발 신영 텅겨야 돼어예.(맞습니다. 저승 가도 신발 신어서 다녀야 돼요.)

106004 #2 예. 게문 신발 안 신으면 다닐 수가 잇수가게.(예. 그러면 신발 안 신으면 다닐 수가 있습니까.)

106005 @ 그다음양, 두 개만 허쿠다양, 무명실 멩그는 과정?(그다음요, 두 개만 하겠습니다, 무명실 만드는 과정?)

106005 #2 무명은 아까 나 곤지 안 험디가. 무명실 만드는 과정은 멘네 갈양 멘네 그 씨 빼영, 거 영 물레가 십디다, 옛날은.(무명은 아가 나 말하지 않습디까. 무명실 만드는 과정은 면화 갈아서 면화 그 시 빼어서, 거 이렇게 물레가 있습디다, 옛날은.)

106005 @ 물레, 물레로, 감으멍 영 영 돌려가민.(물레, 물레로, 감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

106005 #2 예, 물레로 씨, 씨 빼어지는 거, 그거 허여 낱 또, 또 영 실 만드는 그 도르기엔 헌 거 돌르멍 만드는 거 시민, 거 씨 뺨 멘네 허영은에 그 요런 디 영 특 쫓르민 영 헤가민 실 빼여근에 영 허민 도르기에 이만이 감아지민 또 허곡, 또 허곡 헤영 그것이 옛날 틀, 틀로 짠 것이 미녕옷이라마씨. 게민 옛날.(예, 물레로 씨, 씨 빼어지는 거, 그거 해서 놔서 또, 또 이렇게 실 만드는 그 바퀴라고 한 거 두르면서 만드는 거 있으면, 거 씨 뺨 면화 해서 그 요런 데 이렇게 탁 쪼르면 이렇게 해가면 실 빼서 이렇게 하면 바퀴에 이만큼 감아지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것이 옛날 그네, 그네로 짠 것이 무명옷이지요. 그러면 옛날.)

106005 @ 그 도레기 알아지쿠강? 이름, 모르지양?(그 바퀴 알 수 있습니까? 이름, 모르지요?)

106005 #2 잘 모르쿠다게. 실 도르기 이만이 헌 거, 막.(잘 모르게습니다. 실 바퀴 이만큼 한 거, 막.)

106005 @ 거 명칭덜이 이실 거라게.(거 명칭들이 있을 거야.)

106005 #2 이실 겨우다게, 예.(있을 것입니다, 예.)

106005 @ 도레기덜, 거.(바퀴들, 거.)

106005 #2 게 나 그거 모르쿠다게. 경허민 그거 막 여러 개 허영 베틀에 딱 거 실 허여근에 끈어지민 영 허영 동무릅에 영영 허멍 잇으멍 그 미녕을 경 쪼디다.

그거 짜근에게 물감, 물감 들영 옛날 옷도 만들곡 몸빼도 만들곡 경 해십주게. 미녕 그거 허영 물감 들영 몸빼까지 우리 어머니 헨 입어낫수다.(그래 나 그거 모르겠습 니다. 그러면 그거 막 여러 개 해서 베틀에 딱 거 실했어서 끊어지면 이렇게 해서 무 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으면서 그 무명을 잡디다. 그거 짜서 물감, 물감 들여 서 옛날 옷도 만들고 일바지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지요, 무명 그거 해서 물감 들여 서 일바지까지 우리 어머니 해서 입었었습니다.)

106005 @ 물감양.(물감요.)

106005 #2 예, 검은 물 들연.(예, 검은 물 들여서.)

106006 @ 그다음에 누에치기에 대해서 혼번 말해줍서.(그다음에 누에치기에 대 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6006 #2 누에치긴 막 어린 때난예 자세이 모르고, 어머니 허는 거 보난 뽕낭 을 막 하영 그 우영팻디 질황 그 누에 메날 이런 디 초석 닳은 거 깔양은에 누에 해당 먹으면 버랭이가양 요만, 요면이 헛단 것덜이 이만씩, 막 켜.(누에치긴 아주 어릴 때니까 자세히 모르고,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뽕나무를 아주 많이 그 터알에 길러서 그 누에 팬날 이런 데 초석 같은 거 깔아서 누에 해다가 먹으면 벌레가 요 만, 요만큼 했다가 것들이 이만큼씩, 막 커서.)

106006 @ 하영 먹어노난.(많이 먹어놓으니까.)

106006 #2 막 하영 먹언 크난 네중엔 것이 고지가 뒀언 버랭이가 이젠 기어다 니지도 못허고 오꼳 고지가 뒀어불어십다게, 탄탄허게 고지가 뒀언, 켜 그거 빼언에 실을 만듭디다게. 그거 영 빼어간 멩지실이 나와.(아주 많이 먹어서 크니까 나중 엔 것이 고치가 되어서 벌레가 이젠 기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만 고치가 뒀버렸습디 다, 탄탄허게 고치가 뒀서, 그래서 그거 빼어서 실을 만듭디다. 그거 이렇게 빼어가 니까 멩지실이 나와.)

106006 @ 거 하루에 뽕낭읻은 멩 번 뽕염수가?(거 하루에 뽕나무읻은 멩 번 먹 이고 있습니까?)

106006 #2 아이고, 하이튼 계속 줍디다게. 영 기자 이런 디영 방에, 방에 주난. (아이고, 하여튼 계속 줍디다. 이렇게 그저 이런 데랑 방에, 방에 주니까.)

106006 @ 아, 잘 먹기도 허여.(아, 잘 먹기도 해.)

106006 #2 잘 먹기도 헤수다게. 기자 막 이제 ㄱ트민 그 버랭이가 풋버랭이<sup>152)</sup> 닳아, 풋버랭이ㄱ치.(잘 먹기도 했습니다. 그저 막 이제 같으면 그 벌레가 ‘풋버랭 이’ 같아. ‘풋버랭이’같이.)

106006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06 #2 풋버랭이ㄱ치.(‘풋버랭이’같이.)

106006 @ 풋버랭이 닳아.(‘풋버랭이’ 같아.)

106006 #2 막 먹읍디다게, 경 허연.(마구 먹습디다, 그렇게 해서.)

106006 @ 하얀, 하얀 거뿐이지, 하얗지.(하얀, 하얀 거뿐이지, 하얗지.)

152) ‘풋버랭이’는 꼬리 쪽에 위로 곧게 침이 돋은 푸른빛의 벌레이다. 다 자라면 누에 정도의 크기이다.

106006 #2 예, 경 허연에 헤신디 그거 허영 썩멍지로 뽑양은에 곱게 허젠 허민  
썩양은에 막 다듬이로 허고 막 경 허민 물맹지가 되는 생이란게. 그거까진 알아도  
허여보진 안 허연. 눈으로 보긴 봐도.(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 해서 생명주로  
뽑아서 곱게 하려고 하면 삶아서 마구 다듬이로 하고 마구 그렇게 하면 수아주가  
되는 모양이야. 그거까진 알아도 허여보지는 않아서. 눈으로 보긴 봐도.)

## 무명

106007 @ 오늘은양, 그 무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쿠다. 그 무명 종류에는 어  
떤 것들이 잇수가?(오늘은요, 그 무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무명 종  
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6007 #2 무명 종류에는 베허고 또 미녕허고 모시허고 그건가, 광목허고, 그  
거.(무명 종류에는 베하고 또 무명하고 모시하고 그건가, 광목하고, 그거.)

106007 @ 거난에 토목은 엇수가? 토목.(그러니까 토목은 없습니까? 토목.)

106007 #2 토목, 토목이엔 현 거는 옛날 그릇 만들 때에 그 토목, 싸는 거 보고  
토목이엔 허지 안 헛니까?(토목, 토목이라고 한 거는 옛날 그릇 만들 때에 그 토목,  
싸는 거 보고 토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6007 @ 아, 게, 무명 종류에, 토목.(아, 그래, 무명 종류에, 토목.)

106007 #2 그 말은 들어보지 안 헛수다.(그 말은 들어보지 안 헛습니다.)

106007 @ 안 들어봤수강?(안 들어봤습니까?)

106007 #2 예.(예.)

106007 @ 생목은?(생목은?)

106007 #2 생목은 이십주게. 생목양 생목은 그거 옛날 생목은 뭐냐 허면 솥지  
아니허영 그냥 무슨거 미녕을 짱 그냥 솥지도 아니허고, 다듬지 아니현 거 아까 곁  
은 생목이엔 헤나십주. 게난 또 그거 삶아근에 막 요런 자텡이에 다듬아근에 그때  
에 허른 윤기가 나근에 경 헤났주. 그거 안 현 것이 생목.(생목은 잇습지요. 생목요  
생목은 뭐냐 하면 삶지 안 해서 그냥 무엇 무명을 짜서 그냥 삶지도 아니하고, 다  
듬지 아니한 거 아까 말한 생목이라고 헛었습지요. 그러니까 또 그거 삶아서 마구  
요런 ‘자텡이’에 다듬어서 그대에 하면 윤기가 나서 그렇게 헛었지. 그거 안 한 것  
이 생목.)

106007 @ 그다음 광목은?(그다음 광목은?)

106007 #2 광목은게 그냥 짜근에 고대로 깔도 아니허고 옛날게 광목으로 이불  
안도 허지 안 헛수가? 게 그겹주게. 게른 우리 곱게 허젠 허른 쫄로 풀허곡 허영은  
에 이불안덜 헤나십주.(광목은요 그냥 짜서 고대로 깔지도 아니하고 옛날요 광목으  
로 이불잇도 하지 안 헛습니까? 그래 그거지요. 그러면 우리 곱게 하려고 하면 쫄  
로 풀하고 해서 이불잇도 헛었습지요.)

106007 @ 닷새미녕 알아지쿠가? 닷새미녕(닷새무명 알 수 있습니까? 닷새무명.)

106007 #2 아이고, 닷새미녕은 나 들어보지 안 헛수다.(아이고, 닷새무명은 나

들어보지 안 했습니다.)

106007 @ 옷새미녕은?(옛새무명은?)

106007 #2 옷새미녕, 옷새미녕은 우리 그디 옛날 치마폭 다섯 폭 그 말은 들어 낫수다. 거 미녕으로 치마 다섯 폭, 으섯 폭 허여근에 이제 시집살이 살당 보민 그 치마가 문딱 눈물 따끄당 보민, 시집살이허멍 눈물 따끄당 보민 그 치마가 다섯 폭 짜리가 다 썩엇더라, 그 말은 우리 들어낫수다만은.(옛새무명, 옛새무명은 우리 거기 옛날 치마폭 다섯 폭 그 말은 들엇었습니다. 거 무명으로 치마 다섯 폭, 여섯 폭 해서 이제 시집살이 살다가 그 치마가 모두 눈물 닦다가 보면, 시집살이하면서 눈물 닦다가 보면 그 치마가 다섯 폭짜리가 다 썩엇더라, 그 말은 우리 들엇었습니다만.)

106007 @ 으답새미녕은?(여덥새무명은?)

106007 #2 으답새미녕은 치마가 으답 폭, 다섯 폭, 으섯 폭 허는 거 아니우파? 그겁주. 치마가 다섯 폭짜리 싯고, 으섯 폭짜리가 이십주게. 게난 옛날 그 말이 그 말 아니우파?(여덥새무명은 치마가 여덥 폭, 다섯 폭, 여섯 폭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지. 치마가 다섯 폭짜리 있고, 여섯 폭짜리 있습지요. 그러니까 옛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106008 @ 게민양, 미녕으로 어떤 옷 멩급니까?(그러면요, 무명으로 어떤 옷 만듭니까?)

106008 #2 옛날엔 미녕으로게, 이제난 스룻 기계덜이 종양 별 기계 다 나와십주만은 옛날엔 이 옷감이 없으니까 미녕으로 허영 할무니 할아버지 바지저고리도 허영 입곡, 또 할망덜 몸빼도 만들양 입곡, 적삼도 만들양 여름에 입고 그렇게 헤십주게.(옛날엔 무명으로요, 이제니까 사룻 기계들이 좋아서 별 기계 다 나왔습지만 옛날엔 이 옷감이 없으니까 무명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바지저고리도 해서 입고, 또 할머니들 일바지도 만들어서 입고, 적삼도 만들어서 여름에 입고 그렇게 했습지요.)

106008 @ 게난 몸빼허고.(그러니까 일바지하고.)

106008 #2 몸빼도 허고 하르방넌 바지저고리도 허고, 그걸로 갈중의<sup>153)</sup>도.(일바지도 하고 할아버지네 바지저고리도 하고, 그걸로 ‘갈중의’도.)

106008 @ 몸뻔 너무 좋지 아니허여?(일바지 너무 좋지 아니해?)

106008 #2 아이고, 좋아도 옛날엔 그거 허영.(아이고, 좋아도 옛날엔 그거 해서.)

106008 @ 광목 정도나 몸빼 허주.(광목 정도나 일바지 하지.)

106008 #2 아이고, 게도 그거 여름에양 그거 하르방네 깨끗허게 입영 나가근에 놓니께, 그런 거 입영, 깨끗허게.(아이고, 그래도 그거 여름에 그거 깨끗허게 입어서 나가서 놓니다, 그런 거 입어서, 깨끗허게.)

106008 @ 게난 중의 적삼은 뭘로 멩글아?(그러니까 중의 적삼은 무엇으로 만들

153)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이다.

어?)

106008 #2 중의 적삼도 옛날 그런 걸로 하르방덜 스뭇 쉬엄 뚫은 하르방덜 곱게 허영 입히는, 어른덜은 그거 허연에 입혀십주게. 그거 영 허여근에 담벳대나 들르곡 앓앙 놀명 헐 때.(중의 적삼도 옛날 그런 걸로 할아버지들 사뭇 수염 뚫은 할아버지들 곱게 해서 입히는, 어른들은 그거 해서 입혔습지요. 그거 이렇게 해서 담벳대나 들고 앓아서 놀면서 할 때.)

106009 @ 아까 그 저 토목, 토목에 대허영 물어봐신디, 토목은 잘 모르쿠가?(아까 그 저 토목, 토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토목은 잘 모르겠습니까?)

106009 #2 모르쿠다, 토목은게. 토목은 통채로 헐 거 보고 토목이엔 허는가, 그 말은 헐 번도 안 들어반.(모르겠습니다, 토목은요. 토목은 통채로 헐 거 보고 토목이라고 하는가, 그 말은 한 번도 안 들어봤어.)

106010 @ 광목으론 무슨 옷 멩급니까?(광목으로 무슨 옷 만듭니까?)

106010 #2 광목으론예 주로 이불안허고 몸빼 감물 들이민양, 몸빼허고 적삼 ㄱ튼 거 허영 입어십주게. 옛날엔 그걸로 뺄스도 허영 해 입고, 이젠 이젠 그런 거 입엄수가게.(광목으론요 주로 이불잇하고 일바지 감물 들이면요, 일바지하고 적삼 같은 거 해서 입었습지요. 옛날에는 그걸로 팬츠도 해서 많이 입고, 이젠 이젠 그런 거 입고 잇습니까.)

106010 @ 갈중의는?(‘갈중의’는?)

106010 #2 갈중의도 그걸로 허영.(‘갈중의’도 그걸로 해서.)

106010 @ 광목으로양?(광목으로요?)

106010 #2 감물 들여근에 입어십주, 옛날에. 이불안 주로 헛주게, 이불안.(감물 들여서 입었습지요, 옛날에. 이불잇 주로 헛지요, 이불잇.)

106011 @ 흥세미녕<sup>154</sup> 알아지쿠가?(‘흥세미녕’ 알 수 있습니까?)

106011 #2 흥세미녕은 들어보지 못헛수다.(‘흥세미녕’은 들어보지 못헛습니다.)

106011 @ 흥, 흥세함<sup>155</sup>?(흥, ‘흥세함’?)

106011 #2 흥세함?(‘흥세함’?)

106011 @ 아, 그 저 흥세함에 옛날 그 저 뭐팡? 결혼헐 때 거기에 여장 쓰고 거기에 또.(아, 그 저 ‘흥세함’에 옛날 그 저 뭐입니까? 결혼할 때 거기에 예장 쓰고 거기에 또.)

106011 #2 함?(함?)

106011 @ 거기에 아이덜 지성귀 멩글렌 그거, 미녕 담지 안 헛수가?(거기에 아이들 기저귀 만들라고 그거, 무명 담지 안 헛습니까?)

106011 #2 그거는, 그건 미녕이 아이고 아기 기저귀 천, 거 보고 뭐엔 헐다만은.(그거는, 그건 무명이 아니고 아기 기저귀 천, 거 보고 뭐라고 한다만.)

106011 @ 그때 광목으로 헐.(그때 광목으로 헐어.)

154) ‘흥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을 말한다.

155) ‘흥세함’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이다. 함 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는다.

106011 #2 광목이 아이고양, 아기 기저귀 천이라고 특 요만이 현 거, 우리도 시집갈 때 그거 낚 와서난애.(광목이 아니고요, 아기 기저귀 천이라고 특 요만큼 한 거, 우리도 시집갈 때 그거 낚서 왔으니까.)

106011 @ 미녕은 아닐 거고?(무명은 아닐 거고?)

106011 #2 아니, 그것이 시령목<sup>156</sup>, 시령목.(아니, 그것이 ‘시령목’, ‘시령목’.)

106011 @ 시령목?(시령목?)

106011 #2 시령목.(시령목.)

106011 @ 아, 시령목으로.(아, 시령목으로.)

106011 #2 예, 그거 낚 오민 그 저 함에 낚, 두 필인가 함에 낚 그걸로 아기, 첫 아기 나민 기저귀덜을 헛수다게, 시령목, 시령목.(예, 그거 낚서 오면 그 저 함에 낚서. 두 필인가 함에 낚서 그걸로 아기, 첫 아기 나민 기저귀들을 헛습니다, 시령목, 시령목.)

106011 @ 기저귀, 지성귀?(기저귀, 기저귀?)

106011 #2 예, 아기 지성귀.(예, 아기 기저귀.)

106011 @ 지성귀?(기저귀?)

106011 #2 예.(예.)

106011 @ 이거 아이라게.(이거 아닐 것이야.)

106011 #2 예, 지성귀, 옛날에 시령목.(예, 기저귀, 옛날에 시령목.)

106011 @ 시령목으로.(시령목으로.)

106011 #2 시령목, 그거 두 불 담양 와근애, 시령목 그걸로 허영 와근애.(시령목, 그거 두 벌 담아서 와서, 시령목 그걸로 해서 와서.)

106011 @ 이젠 안 허주만은 옛날은 쪽 헛수게, 이거.(이젠 안 하지만 옛날은 쪽 헛습니다, 이거.)

106011 #2 예, 옛날엔 그 함을 꼭 ㄴ정 왓수게.(예, 옛날엔 그 함을 꼭 가져서 왔습니다.)

106011 @ 거난 거기 여장 쓰고.(그러니까 거기 예장 쓰고.)

106011 #2 돈 담고, 봉투애.(돈 담고, 봉투애.)

106011 @ 여장, 아, 돈도 옛날 담아놨구나.(예장, 아, 돈도 옛날 담았었구나.)

106011 #2 예, 십만 원, 십만 원 아니면 잘 사는 딴 이십만 원도 담곡, 오만 원도 담곡 십만 원도 담고 경 허연 헛수다.(예, 십만 원, 십만 원 아니면 잘 사는 데는 이십만 원도 담고, 오만 원도 담고 십만 원도 담고 그렇게 해서 헛었습니다.)

106011 @ 계난 흥세함 말해보서.(그러니까 흥세함 말해보십시오.)

106011 #2 요만 현 거 함 멘들양.(요만큼 한 거 함 만들어서.)

106011 @ 함 멩글양.(함 만들어서.)

106011 #2 맞수다, 예장 드리멍 그거애 ㄴ치 들어가예.(맞습니다, 예장 드리면서 그거애 같이 들어가요.)

---

156) ‘시령목’은 무명천의 하나이다.

106011 @ 같이, 지성귀 멩글 거영.(같이, 기저귀 만들 거랑.)  
106011 #2 예, 시렁목마씨, 시렁목.(예, ‘시렁목’요, ‘시렁목’.)  
106011 @ 나 결혼할 때도 그거 해낫주마씨.(나 결혼할 때도 그거 했었지요.)  
106011 #2 예, 우리 결혼할 때도 그거 헛수다. 이젠 엇어마씨.(예, 우리 결혼할 때도 그거 했습니다. 이젠 없어요.)  
106011 @ 이젠 대충덜 허난.(이젠 대충들 하나까.)  
106011 #2 예, 이젠 엇수다. 이젠 예장도 안 험수게.(예, 이젠 없습니다. 이젠 예장도 안 하고 있어요.)  
106011 @ 나도 쨌당할 때 예장 혼 번 써봤수다.(나도 친척할 때 예장 한 번 써봤습니다.)  
106011 #2 우린 아덜 형제 폴앙, 폴멍 예장 다 썬에 다 경 허멍 보냈수다. 이젠 엇어마씨, 이젠.(우린 아들 형제 팔아서, 팔면서 예장 다 써서 다 그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젠 없어요.)  
106011 @ \*\* 영 적영은에.(\*\* 이렇게 적어서.)  
106011 #2 예.(예.)  
106011 @ 우알로 영.(위아래로 이렇게.)  
106011 #2 예.(예.)  
106012 @ 그다음에 멘네 농사 해낫지양?(그다음에 면화 농사했었지요?)  
106012 #2 예, 멘네 농사.(예, 면화 농사.)  
106012 @ 멘네 농사에 대허영 혼번 곶아줍서.(면화 농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6012 #2 멘네, 멘네 갈앙은에 그거 가을 나 가가민 꽃 피영 열매 올앙, 꽃 피영 그거 익으면, 또 꽃으로 멘네가 익영은에 벌어집주게. 게른 그거 따당 바싹 물리왕 이 옛날 물레로 허영은에 문딱 블랑, 이제는 기계에 강 헛주만은, 그때 시절에, 옛날 시절에 문딱 그거 블랑은에 그걸로 이불도 허고 바지저고리에도 솜 낱 하르방덜 헨 입곡, 경 해십주.(면화, 면화 같아서 그거 가을 나 가가면 꽃 피어서 열매 열어서, 꽃 피어서 그거 익으면, 또 꽃으로 면화가 익어서 벌어지지요. 그러면 그거 따다가 바싹 말려서 이 옛날 물레로 해서 모두 발라서, 이제는 기계에 가서 했지만, 그때 시절에, 옛날 시절에 모두 그거 발라서 그걸로 이불도 하고 바지저고리에도 솜 놔서 할아버지들 해서 입고, 그렇게 헛습지요.)  
106012 @ 소게 아이우파? 소게.(솜 아넛니까? 솜.)  
106012 #2 소게, 소게 맞수다게.(솜, 솜 맞습니다.)  
106012 @ 계난 제주도 말로 곶아봅서.(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말해보십시오.)  
106012 #2 예, 옛날엔 그거 강 소게 테왕 오민 여기서 이불 허젠 허민 혼 장, 두 장 허영 쨌쨌허게 놀렁 오지 안 헛니까? 경 허른 그거 옛날 하르방덜 추우카부덴 바지저고리에도 놔근에 그거허고, 그처럼 헛수다.(예, 옛날엔 그거 가서 솜 타서 오면 여기서 이불 하려고 하면 한 장, 두 장 해서 편편하게 놀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옛날 할아버지들 추울까 싶어서 바지저고리에도 놔서 그거하고, 것처럼 했습니다.)

106012 @ 멘네 그 농사허젠 허민 멧 월달에 씨 뿌립니까?(면화 그 농사하려고 하면 몇 월에 씨 뿌립니까?)

106012 #2 그것이 혼 산디 갈 때니까 혼 오월달쯤은.(그것이 한 밭벼 갈 때니까 한 오월쯤은.)

106012 @ 가을에 탈 거난에.(가을에 딸 거니까.)

106012 #2 예, 오월달쯤 산디 갈 때, 그 멘넬 갈아십주게. 게난 오월 혼 초에쯤 빈 밭 놔뒀당 멘넬 갑디다게, 옛날 할머니덜 허는 거 보면. 그때 허여근에 멘네 김 질은 초불 메지 아니허영 서너니 불 메영 거 멘네가 웃자라지 말앙 윽드레 영 자라 렌 문딱 우 막아 두고.(예, 오월쯤 밭벼 갈 때, 그 면화를 갈았습지요. 그러니까 오월 초쯤 빈 밭 놔뒀다가 면화 갑디다, 옛날 할머니들 하는 거 보면. 그때 해서 면화 김은 애벌 매지 앓아서 서너 벌 매어서 거 면화가 웃자라지 말아서 옆으로 이렇게 자라라고 모두 우 막아 두고.)

106012 @ 아, 저 영 뭐 사이에 뽑암구나.(아, 저 이렇게 뭐 사이에 뽑고 있구나.)

106012 #2 질 꼭대기에 순 트드민 윽드레 번져근에 멘넬 하영 올앙 다부룩허게 허영 그추룩 허영 우리도 헤낫수다게.(젤 꼭대기에 순 뜯으면 옆으로 번져서 면화를 많이 열어서 더부룩하게 해서 것처럼 해서 우리도 했었습니다.)

106012 @ 멘네.(면화.)

106012 #2 그거 강은에.(그거 가서.)

106012 @ 멘네, 멘넬드래, 옛날 탄 먹어낫지양?(목화, 목화다래, 옛날 따서 먹었었지요?)

106012 #2 무사 아이파게.(왜 아닙니까.)

106012 @ 멘넬드래.(목화다래.)

106012 #2 쉼 맥이레, 우리 이제난 허주, 옛날에 학교도 가렌 허영, 쉼 맥이레 허젠 허민 번췌<sup>157)</sup> 맥이는 날은 학교도 못 가게 우리 어머니 허영 우리 성제가 그 번췌 먹이레 강 작백 우이 올랑 늪이 갈아시민 치마통에 이젠 몸빼라도 입영 간다, 그뻐 경 몸빼가 어디 이섯수가? 치마라도 입영 가민 치마통에 멘네 늪의 멘네 하나 타당 작백 우의 앓앙 막 까떡꼭 헤낫수다.(소 먹이러, 우리 이제니까 하지, 옛날에 학교도 가라고 해서, 소 먹이라고 하려고 하면 ‘번췌’ 먹이는 날은 학교도 못 가게 우리 어머니 해서 우리 형제가 그 ‘번췌’ 먹이러 가서 잣벽 위에 올라서 남이 갈았으면 치마통에 이젠 일바지라도 입어서 간다, 그뻐 그렇게 일바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치마라도 입어서 가면 치마통에 면화 남의 면화 하나 따다가 잣벽 위에 앉아서 마구 까떡고 했었습니다.)

106012 @ 치메, 치메?(치마, 치마?)

157) ‘번췌’는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소이다.

106012 #2 치매. 영 허영 앓앙. 호호호.(웃음)(치매. 이렇게 해서 앓아서. 호호호.(웃음))

106012 @ 계난 그 저 멘넷드래.(그러니까 그 저 목화다래.)

106012 #2 드래게, 드래 탕 경 먹어십주.(다래요, 다래 따서 그렇게 먹었습지요.)

106012 @ 멘넷드래?(목화다래?)

106012 #2 예.(예.)

106012 @ 멘넷드래가 들코롬헙주게.(목화다래가 달콤하지요.)

106012 #2 맛 좋아마씨, 맛 좋아마씨.(맛 좋아요, 맛 좋아요.)

106012 @ 퍼렁훈 때. 먹을 거 잊어노난게.(퍼럴 때. 먹을 거 없어 놓으니까.)

106012 #2 녹두도 타당 늬이 거 막.(녹두도 따다가 남의 거 마구.)

106012 @ 녹디양?(녹두요?)

106012 #2 예, 호호호.(웃음)(예, 호호호.(웃음))

106012 @ 녹디도 그 저 퍼렁힐 때 트다당덜.(녹두도 그 저 퍼럴 때 뜯어다가.)

106012 #2 감저 싱경 놔두민 감저도 파근에 거기서 막 그자 먹을 거 잊언 허민 그자 그런 거 잘도 헤낫수다, 우리도. 호호호.(웃음)(고구마 심어서 놔두면 고구마도 파서 거기서 마구 그저 먹을 거 없어서 하면 그저 그런 거 잘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호호호.(웃음))

106012 @ 거 멘네 밧디 고치도 갈아낫지양?(거 면화 밧에 고추도 갈았었지요?)

106012 #2 고치 하나씩 싱급니다.(고추 하나씩 심습디다.)

106012 @ 그 저 나도 보난에 멘네 밧디가 고치가 잘 될 거 닻아.(그 저 나도 보니까 면화 밧이 고추가 잘 될 거 같아.)

106012 #2 하나씩 헤 가지고 영 싱그질 아니허고 영 빼영 내불민 가다 오다 하나씩 낱 내불민예, 그것이 멘네 벌거지도 멘제도레기레 가불영 고추 잘 됩디다게, 옛날에.(하나씩 헤 가지고 이렇게 심질 앓고 이렇게 뿌려서 내버리면 가다 오다 하나씩 놔서 내버리면, 그것이 면화 벌레도 목화다래로 가버려서 고추 잘 됩디다, 옛날에.)

106012 @ 경 허는 거 닻아.(그렇게 하는 거 같아.)

106012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12 @ 계매, 거난 멘네 밧디는 꼭 저 중간중간에 고칠 싱거서.(글쎄, 그러니까 면화 밧에는 꼭 중간중간에 고추를 심었어.)

106012 #2 하나씩 심고 행 내불민양, 멘네도르기에 씨가, 저 벌거지가 잊어불영 고추엔 아니 잇는 거라마씨, 계난 옛날 어른덜.(하나씩 심고 해서 내버리면, 목화다래에 씨가, 저 벌레가 있어 버려서 고추엔 아니 잇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106012 @ 멘네 탈 때 고치도 탕 오곡 익은 거.(면화 딸 때 고추도 따서 오고 익은 거.)

106012 #2 예, 맞수다게. 고추영 멘네영, 뽕영 ㄴ치 당 완 물리멍 헛수다.(예, 맞습니다. 고추랑, 면화랑, 뽕랑 같이 따서 와서 말리면서 헛습니다.)

106012 @ 옛날은 저 바빠노난 멘네, 멘네 피민 그 저 거기서 다듬지 안 허영 집이 왕 허지 안 헛니까?(옛날은 저 바빠 놓으니까 면화, 면화 피면 그 저 거기서 다듬지 않아서 집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106012 #2 옛날엔양 아침 새벽이 붉기 전이 강 이슬에 타야만 그 겹죽이.(옛날은요 아침 새벽에 밝기 전에 가서 이슬에 타야만 그 겹죽이가.)

106012 @ 아, 그레 부뜨지 아니허영.(아, 그리 붙지 않아서.)

106012 #2 이슬에 타민 영 허영 여기 왕 꼭지 빼당 보민 그 이파리도에 잘 떼어져마씨. 또 영 뿌좌지지 아니허영, 경 허민 멘네가 곱곡, 이추록 붉앙 해 뜬 후젠 가민 그 이파리가 그레 부떠불민 멘네가 곱질 안 해마씨, 경 허기 따문 해 뜨기 전에 강 멘네는 이슬에 강 타당은에 밤이 일허영 와근에 그거 다듬으멍 헛수다게.(이슬에 따면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꼭지 빼다가 보면 그 잎사귀도 잘 떼어져요. 또 이렇게 부서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면화가 곱고, 이처럼 밝아서 해 뜬 후에 가면 그 잎사귀가 그리 붙어 버리면 면화가 곱질 않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 해 뜨기 전에 가서 면화는 이슬에 가서 따서 밤에 일해서 와서 그거 다듬으면서 헛습니다.)

106012 @ 나도 그 저 멘네 타레영 멘네, 소게 까낫수다게. 그 우리 누님이 시집 보내젠 허난.(나도 그 저 면화 따러 면화, 솜 짚었습니다. 그 우리 누님이 시집보내려고 하니까.)

106012 #2 맞수다게. 호호호.(웃음)(맞습니다. 호호호.(웃음))

106012 @ 그 어딜 보냈어. 그 당시 도청, 우리 매형은 다녔는데 고향은 좋지 안 현 디라, 금악<sup>158</sup>), 금악이난에 아, 우리 동네에서 동네 사름덜이 아, 거 단똥 금악 막 촌구석에 보냄덴 허멍 막 허더라고게.(그 어딜 다녔어. 그 당시 도청, 우리 매형은 다녔는데 고향은 좋지 않은 데야. ‘금악’, ‘금악’이니까 아,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아, 거 외동딸 ‘금악’ 아주 촌구석에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막 하더라고.)

106012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6012 @ 게네 그 게도 우리 어머니 이불이라도 하영 해 주젠.(그래서 그 그래도 우리 어머니 이불이라도 많이 해 주려고.)

106012 #2 그뎨 이불 하영 헨 강.(그뎨 이불 많이 해 가서.)

106012 @ 그뎨 이불 여섯 채 해줬어, 여섯.(그뎨 이불 여섯 채 해줬어, 여섯.)

106012 #2 여섯 체난, 잘 사는 디난 헛주, 우리 시집갈 때만 해도 네 체만 해도 잘 행 갓덴 헛주게.(여섯 체니까, 잘 사는 데니까 헛지, 우리 시집갈 때만 해도 네 체만 해도 잘 해서 갔다고 헛지요.)

106012 @ 게메, 게난 여섯 채 해 줬.(글쎄, 그러니까 여섯 채 해 줬어.)

106012 #2 그것이 옛날엔 재산이라낫수다.(그것이 옛날엔 재산이었었습니다.)

106012 @ 게메.(글쎄.)

158) ‘금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이다.

106012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6012 @ 그다음에 그 저 멘네 타당은에 밤이 각지불로 다 테왓지양?(그다음에 그 저 면화 따다가 밤에 등잔불로 다 탕지요?)

106012 #2 예게. 각지불로 허영 그걸로 허영은에 그거 졸명 허당 뒷날 일일이 그거 돌리민 그 이파리 쪼글쪼글 막 부뜨카부텐 그거 밤이 앓앙 그거 까고.(예, 등잔불로 해서 그걸로 해서 그거 졸면서 하다가 뒷날 일일이 그거 말리면 그 앞사귀 쪼글쪼글 마구 붙을까 싶어서 그거 밤에 앓아서 그거 까고.)

## 모시

106013 @ 그다음에양, 모시에 대허영 알지양?(그다음에요, 모시에 대해서 알지요?)

106013 #2 모시는게 그 저 누에 질랑 누에 질랑 현 건 멍지고.(모시는요, 그 저 누에 길러서 한 건 명주고.)

106013 @ 멍지. 멍지.(명주, 명주.)

106013 #2 멍지고. 모시는 그 저 삼베는 그것도 아니, 아니 모시도.(명주고. 모시는 그 저 삼베는 그것도 아니, 모시도.)

106013 @ 삼베허고 틀려.(삼베하고 달라.)

106013 #2 모시도 누에 질랑 준 거는 뭐허고, 나쁜 것이 모시 돼고, 나쁜 실, 저 뭐헌 걸로 현 것이.(모시도 누에 길러서 잔 거는 뭐허고, 나쁜 것이 모시 되고, 나쁜 실, 저 뭐한 것으로 한 것이.)

106013 @ 거난 모시실 멍그는 과정 알아지쿠가?(그러니까 모시실 만드는 과정 알 수 있습니까?)

106013 #2 우리 어머니, 난 허여 보진 안 했수다만, 어머니 허는 거 보난양 모시 허영 그 누에 질랑 누에고치 숲양, 숲양 그 실을 빼영 질게 영 영 막 잇으멍 영 허영 발 영 허민 혼 번 짜지누렌 짜곡, 또 발 혼 번 영 흐민 이쪽으로 착 허영 짜곡 경 허여근에 거기서 나쁜 것이 모시 되는 것 닻곡, 경 아니허민 모시 허는 게 그 옛날 우리 제주도엔 거 엇어양, 육진 가민 거 대죽가, 대죽이 아니고, 저기 넓적 넓적헌 풀, 이만헌 진진헌 거, 무신거.(우리 어머니, 난 해 보진 안 했습니다만,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요 모시 해서 그 누에 길러서 누에고치 삶아서, 삶아서 그 실을 빼서 길게 이렇게 이렇게 마구 이으면서 이렇게 해서 발 이렇게 한 번 짜지노라고 짜고, 또 발 한 번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착 해서 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쁜 것이 모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모시 하는 게 그 옛날 우리 제주도엔 거 없어요, 육지는 가면 거 수수인가, 수수가 아니고, 넓적넓적한 풀, 이만한 기나긴 거, 무엇.)

106013 @ 모시풀 아니?(모시풀 아니?)

106013 #2 모시풀 그거 해당 그거 문딱 숲양 물에 강 등갓당 그걸 막 벳경 헤노면 손으로 일일이, 일일이 영 벳겨근에 하나만 썰 멘들아근에 보통 모시 짜서마

썩. 겐디 이젠 제주도엔 그 모시 영 만드는 풀이 엇수다. 육진 십디다게.(모시풀 그 거 해다가 그거 모두 삶아서 물에 가서 담갔다가 그걸 마구 벗겨서 해 놓으면 손으로 일일이, 일일이 이렇게 벗겨서 하나만 실 만들어서 보통 모시 짜서요. 그런데 이젠 제주도엔 그 모시 이리해 만드는 풀이 없습니다. 육지는 있습니다.)

106013 @ 여기 저 담 구석엔 모시풀덜 보이더라고.(여기 저 담 구석엔 모시풀들 보이더라고.)

106013 #2 하나씩양 제주도 제주도에선 그런 거 허는 디 엇수게.(하나씩요 제주도 제주도엔 그런 거 하는 데 없습니다.)

106013 @ 아, 모시풀 질겨, 저거. 질겨도 계속 나오고.(아, 모시풀 질겨, 저거. 질겨도 계속 나오고.)

106013 #2 거꼭 막 크게 자라마씨.(그리고 아주 크게 자라요.)

106013 @ 예.(예.)

106013 #2 양, 경, 경 허여십주, 이젠 제주도엔 옛날이주, 이젠 엇수다.(예, 그렇게, 그렇게 했습지요, 이젠 제주도엔 옛날이지, 이젠 없습니다.)

106013 @ 저 사려니숲<sup>159</sup> 간 보난에 질웁이덜 모시풀덜.(저 ‘사려니숲’ 가서 보니까 길옆에들 모시풀들.)

106013 #2 겐디 육지는, 육지는 이제덜 모시덜 험디다.(그런데 육지는, 육지는 이제들 모시들 험디다.)

106013 @ 그 사려니숲에 이신 것도 모시풀이라양?(그 ‘사려니숲’에 있는 것도 모시풀이야?)

106013 #2 게메, 영 막 자랑 이파리도 녁삭냇삭헌 거, 나는 여기 간 거 안 봐난 험디, 육지서 허는 거 보민 문딱 이파리 떼 똥 거 짹짹 벗기니까 그거 그렇게 잘 벗겨집디다.(글쎄, 이렇게 막 자라서 잎사귀도 넓적넓적한 거, 나는 여기 간 거 안 보니까 한데, 육지서 하는 거 보면 모두 잎사귀 떼 똥 거 짹짹 벗기니까 그거 그렇게 잘 벗겨집디다.)

106013 @ 제주도 잘 안 허지양?(제주도는 잘 안 하지요?)

106013 #2 예, 제주도 거 엇수다, 육진 이제도 잇어마씨.(예, 제주도는 그거 없습니다, 육지는 이제도 잇어요.)

106013 #1 그 신사라도도 헛지.(그 뉴질랜드삼으로도 헛지.)

106013 #2 아이고, 옛날 신사라도 옷 만들앗덴 해도.(아이고, 옛날 뉴질랜드삼도 옷 만들었다고 해도.)

106013 #1 깨 고아.(꽤 고와.)

106013 @ 신사라.(뉴질랜드삼.)

106013 #2 깨 고앗주, 깨 고아서.(꽤 고왔지, 꽤 고와서.)

106013 @ 그것도 헛수다, 그거. 옛날 배 꼬는 거, 저 배 끈다는 거, 아니민 이께, 께도 좀 헛주게.(그것도 헛습니다, 그거. 옛날 참바 꼬는 거, 저 참바 끈다는 거,

159) ‘사려니숲’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머체오름 서쪽에 있는 오름을 중심으로 형성된 숲이다.

아니면 이 때까지, 때까지도 좀 했지요.)

106013 #2 껌도 허고 저 초신 줄 때에 질기랭 그거 서경 허고.(때까지도 하고 저 질신 걸을 때에 질기라고 그거 섞어서 하고.)

106013 @ 옆이, 꼬명 헐 때 옆이.(옆에 , 꼬면서 할 때 옆에.)

106013 #2 그걸로 허엿주, 그걸로 옷 만드는 건 안 했수다. 겐디 모시허는 육진 장 보든 밧 하나에 이빠이 갈앙 막 무경 실렁 왕 작작 벅집디다.(그걸로 하였지, 그 걸로 옷 만드는 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시 하는 육지는 가서 보면 밧 하나에 가득 갈아서 마구 묶어서 실어서 와서 작작 벅집디다.)

106013 #1 그땐 웃영 해서, 신서라 그든 거. 이제사 허민 신서라 그든 거 좋아. 저것도 그거 아이라.(그땐 없어서 해서, 뉴질랜드삼 같은 거. 이제야 하면 뉴질랜드삼 같은 거 좋아. 저것도 그거 아니야.)

106013 #2 저건 그냥 밧 갈 때에 췌 이런 멩에에 허는 디 질기랭 저런 걸로 허엿주.(저건 그냥 밧 갈 때에 소 이런 멩에에 하는 데 질기라고 그런 걸로 하였지.)

106013 #1 아니, 게난 저것이 헤 노니까 저것이 옛날 잇이민 걸로 다 했주.(아니, 그러니까 저것이 헤 놓으니까 저것이 옛날 있으면 걸로 다 했지.)

106014 @ 그다음에 모시로 어떤 옷 멩급니까?(그다음에 모시로 어떤 옷 만듭니까?)

106014 #2 모시로 이제도 이 할망덜 우에, 하르방덜이영 곱닥허게 남방 그든 거 영 한복이영, 우에 적삼이영, 이제도 학교 그든 거 허영 흑 일 아니헌 할망덜, 헤양헌 할망덜 그 적삼으로 톡 허게 영 만들앙 입으면 잘도 고웁니다.(모시로 이제도 이 할머니들 위에, 할아버지들이랑 곱게 남방 같은 거랑 한복이랑, 위에 적삼이랑, 이제도 학교 같은 거 해서 흑 일 안 한 할머니들, 하얀 할머니들 그 적삼으로 톡 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입으면 잘도 고웁니다.)

106014 @ 시원, 시원허게.(시원, 시원하게.)

106014 #2 시원허게, 그거 영 빨앙 풀허영 다령 노으민 이제도 거보다 더 시원헌 옷이 엿일 거우다.(시원하게, 그거 이렇게 빨아서 풀해서 다려서 놓으면 이제도 거보다 시원한 옷이 없을 것입니다.)

106014 @ 거 모시옷 이 저 감물 들이난 막 좋아라, 거. 블그롱헌 게.(거 모시옷 이 저 감물 들이니까 아주 좋아라, 거. 밧그레한 게.)

106014 #2 블르릉헤도양, 거 하양헌 거만이 안 험니다. 나도 이제 허연 잇수다 마는양.(밧그레헤도, 거 하얀 거만큼 안 험니다. 나도 이제 해서 있습니다만.)

106014 @ 멋지게덜 헿 입영 텅입디다.(멋지게들 해서 입어서 다닙니다.)

106014 #2 이젠양 입어지도 아이험디다. 그거 흥번 입으면 여름이 뚝 흥 번 나민 빨앙 풀허영 다려사만 입는 따문.(이젠요 입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거 한번 입으면 여름에 땀 한번 나면 빨아서 풀해서 다려야만 입는 때문.)

106014 @ 풀헤야 돼기 때문예.(풀헤야 되기 때문예.)

106014 #2 예, 풀헤영 다린 따문, 그만이 옛날 할망덜 잘 사는 할망 하르방덜

그걸로 영 스몯 위에 모시 적삼이영 티영 멘들양 하르방도 옷 입곡, 깨끗하게. 아멩  
해도양 감 들이민양 그것 참 옛날 우리 뉘헌 시절 감물 들이주, 곱질 아이힙니다  
게.(예, 풀해서 다리기 때문, 가만히 옛날 할머니들 잘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걸로 이렇게 사뭇 위에 모시 적삼이랑 티랑 만들어서 할아버지도 옷 입고, 깨끗하  
게. 아무래도 감 들이면 그것 참 옛날 우리 뉘헌 시절 감물 들이지, 곱질 않습니  
다.)

106015 @ 모시 재배 아까 안 해보고양?(모시 재배 아까 안 해보고?)

106015 #2 안 해봤수다, 그거 육지 어른덜 허는 거 봄만 헛주.(안 해봤습니다,  
그거 육지 어른들 하는 거 보기만 했지.)

### 삼

106016 @ 거난에 삼, 삼에 대해서 곱아봅서.(그러니까 삼, 삼에 대해서 말해보  
십시오.)

106016 #2 삼베, 삼베.(삼베, 삼베.)

106016 @ 예, 삼베, 거난에 그 삼 썰을 멩그는 과정, 거 흥번 곱아봅서.(예, 삼  
베, 그러니까 그 삼 실을 만드는 과정, 거 한번 말해보십시오.)

106016 #2 삼, 삼베는 옛날 그 썰도.(삼, 삼베는 그 실도.)

106016 @ 옛날 삼 잇어난 거잖아양?(옛날 삼 잇었던 거잖아요?)

106016 #2 옛날 그 아까 저 모시에 대한 그것이 흥 실 굳게 뉘 후에 허지 안  
헤신가마씨.(옛날 그 아까 저 모시에 대한 그것이 한 실 굳게 된 후에 하지 안 했는  
가요.)

106016 #1 삼베는 몰라.(삼베는 몰라.)

106016 #2 삼베.(삼베.)

106016 @ 계난 베 멩그는 거, 베.(그러니까 베 만드는 거, 베.)

106016 #2 거난 베.(그러니까 베.)

106016 @ 베 멩그는 것이 삼입주게.(베 만드는 것이 삼이지요.)

106016 #2 예, 계난 옛날도 그것도 풀로 헤 가지고, 허영 그건 베는 딴 거 닙지  
아니허영 실이 굵으니까, 실이 굵으니까 그 종류로 허연 만들안에 정식으로 베 짜  
는 것까지 우리 어머니 허는 건 봐놋수다게. 베 짜는 것까지는.(예, 그러니까 옛날  
도 그것도 풀로 헤 가지고, 해서 그건 베는 딴 거 같지 않아서 실이 굵으니까, 실이  
굵으니까 그 종류로 해서 만들어서 정식으로 베 짜는 것까지는 우리 어머니 하는  
건 봤었습니다. 베 짜는 것까지는.)

106016 #1 베, 모시 짜는 거야 뉘 뚝ㄴ트지 뉘.(베, 모시 짜는 거야 뉘 뚝같지  
뉘.)

106016 #2 예, 그런 거 발 흥 번 영 내령 이쪽더레 만들레 밀령 영 멩경, 또 이  
쪽으로 허영 탁 허영 또 흥 번 영 허고, 그런 건 봐놋수다.(예, 그런 거 발 한 번  
이렇게 내려서 이쪽으로 만들려고 밀려서 이렇게 당겨서, 또 이쪽으로 해서 탁 헤

서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런 건 봤었습니다.)

106017 @ 그 베로 어떤 거 멩급니까?(그 베로 어떤 거 만듭니까?)

106017 #2 베론 옛날 이제 사름이 돌아가민.(베론 옛날 이제 사름이 돌아가면.)

106017 #1 상복계.(상복요.)

106017 #2 그 사름 돌아가민 거 저것 보고 무슨 옷이엔 현다.(그 사람 돌아가면 거 저것 보고 무슨 옷이라고 한다.)

106017 #1 건대, 상복.(건대, 상복.)

106017 #2 아이, 그거 죽은 사름 입지는 거, 그것도 만들고.(아니, 그거 죽은 사 람 입히는 거, 그것도 만들고.)

106017 @ 저승옷계.(저승옷요.)

106017 #2 저승옷, 그것도 만들고 죽으면.(저승옷, 그것도 만들고 죽으면.)

106017 @ 저승옷이엔 아니허영 무신거엔 현다마는.(저승옷이라고 안 해서 무엇 이라고 한다만.)

106017 #2 호상인가?(호상인가?)

106017 @ 예.(예.)

106017 #2 호상양?(호상요?)

106017 @ 호상, 호상 닳아 베우다.(호상, 호상 갈아 보입니다.)

106017 #2 호상, 그걸로 허곡, 또 상복, 아기덜 베치마, 그 상제, 상제 옷덜도 행 입지곡, 그 두건도 만들고.(호상, 그걸로 하고, 또 상복, 아기들 베치마, 그 상제, 상제 옷들도 해서 입히고, 그 두건도 만들고.)

106017 @ 이젠 베치마 잘 안 허더라고, 무신거 광목으로 행은에.(이젠 베치마 잘 안 허더라고, 무엇 광목으로 해서.)

106017 #2 몸빼로.(일바지.)

106017 @ 몸빼로예.(일바지로요.)

106017 #1 그거 안 나오고 비싸고 허난계.(그거 안 나오고 비싸고 하니까요.)

106017 #2 빗나고 허난.(빗나고 하니까.)

106017 @ 켄당덜 그 몸빼 옷, 여자덜은 몸빼 옷.(친척들 그 일바지 옷, 여자들 은 일바지 옷.)

106017 #2 아니, 이젠양.(아니, 이젠요.)

106017 #1 상제 한 디덜토.(상제 많은 데도.)

106017 #2 아니, 아니, 상제는 베로 나옵니다.(아니, 아니, 상제는 베로 나옵니 다.)

106017 @ 베로 저 만든 거 아니.(베로 저 만든 거 아니.)

106017 #2 저 중국 베.(저 중국 베.)

106017 @ 중국 그 색깔만.(중국 그 색깔만.)

106017 #2 예, 경 해도양 요즘은양, 당현 아덜허고 딸, 메누리허곤 베로 나옵니 다게, 나와.(예, 그렇게 해도요 요즘은요, 당한 아들하고 딸, 며느리하고는 베로 나



읍니다, 나와.)

106017 @ 우리 어머니 그거 다 저 해 놔뒀더라고.(우리 어머니 그거 다 저 해 놔뒀더라고.)

106017 #2 예, 경헌디 요즘은예, 옛날 헌 사름덜은 광목 몸빼로덜 하나씩 테왕 말아붙고, 당헌 상제덜은 이거 입곡, 경 헛수다.(예, 그런데 요즘은요, 옛날 한사람들은 광목 일바지로들 하나씩 태워서 말아버리고, 당헌 상제들은 이거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106017 @ 옛날은게 그거 상복도 대상까지 입어시난에 혼 삼 년 입어신디(옛날은요 그거 상복도 대상까지 입었으니까 한 삼 년 입었는데.)

106017 #2 양 우린, 우리 씨어멍, 씨아방 허연 난 거 존 베로덜 담안 나 이제 ㄱ만이 잇수다.(예 우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해서 난 거 좋은 베로들 담아서 나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106017 @ 게메, 거 경 해야 돼는디.(글쎄,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6017 #2 이제 ㄱ만이 잇수다.(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106017 @ 이제는 영장밧디 강 그거 불테와부는 모양이더라고.(이제는 장지에 가서 그거 불태워 버리는 모양이더라고.)

106017 #2 거 무사 불테우는 거?(거 왜 불테우는 거?)

106017 @ 아, 게 그날 모든 걸 다 쫓내붙어.(아, 그래 그날 걸 다 끝내버려.)

106017 #2 예, 예. 우린 삼 년 허연.(예, 예. 우린 삼 년 했어.)

106017 @ 젠디 우린 우리 어머니 할 때는 일 년 상식했주마씩게, 거난 두 번 했어, 초하루 삭제허고.(그런데 우린 우리 어머니 할 때는 일 년 상식했지요, 그러니까 두 번 했어, 초하루 삭제하고.)

106017 #1 맞아.(맞아.)

106017 @ 그다음에 보름에 망제허고. 거난 보름허고 초하루 합천 삭망이엔 헌 겹주게.(그다음에 보름에 망제하고. 그러니까 보름하고 초하루 합쳐서 삭망이라고 한 거지요.)

106017 #1 맞아.(맞아.)

106017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17 @ 초하루 삭, 보름 망 허여근에.(초하루 삭, 보름 망 해서.)

106017 #1 예.(예.)

106017 @ 삭망은.(삭망은.)

106017 #2 우린 삼 년을 헛수다.(우린 삼 년을 했습니다.)

106017 @ 혼 들에 두 번씩 했어.(한 달에 두 번씩 했어.)

106017 #1 어, 맞아.(어, 맞아.)

106017 #2 큰아덜 삭일 혼 번 흐민, 초하루 흐민 우린 보름 허곡 허멍 우린 삼 년을 헛수다.(큰아들 삭일 한 번 하면, 초하루 하면 우린 보름 하고 하면서 우린 삼 년을 했습니다.)

106017 @ 이젠 그거 봐 보질 못허여.(이젠 그거 봐 보질 못해.)  
 106017 #2 이젠 장밋디 강 묻으민 거기서 다 합제 해된 와불엄수게.(이젠 장지에 가서 묻으면 거기서 다 합제 해뒤서 와버리고 있습니다.)  
 106017 @ 다 해뒤은에 그냥.(다 해뒤서 그냥.)  
 106017 #2 그냥 와불어.(그냥 와버려.)  
 106017 @ 상복도 다 슬아불고.(상복도 다 불태워 버리고.)  
 106017 #2 다 슬아불어.(다 불태워 버려.)  
 106017 #1 거 좋은 거라.(거 좋은 거야.)  
 106017 @ 아, 이거.(아, 이거.)  
 106017 #2 존 거, 존 거 아니우다.(좋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106017 @ 어느 것이 좋은지.(어느 것이 좋은지.)  
 106017 #2 존 건 아니, 사름이양 그거 옛날도 다 이유가 이신 거우다. 부모덜 그 아기덜 키우쟁 허민 오죽 진짜 정성들이명 키웠수가게. 거난 이 부모를 존경허는 데서 아기덜 본 배우젠 다 경 허는 거주, 요즘은 다 그냥 거기서 합 다 해여뒤 왕 저녁엔 왕 데갈라전덜 잠수게.(좋은 건 아니, 사람이요 그거 옛날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 그 아기들 키우려고 하면 오죽 진짜 정성들이면서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를 존경하는 데서 아기들 본 배우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요즘은 다 그냥 거기서 합 다 해뒤서 와서 저녁엔 와서 드러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106017 @ 거난, 하하하.(웃음)(그러니까, 하하하.(웃음))  
 106017 #2 호호호,(웃음) 그건 너무양 섭섭헌 거우다.(호호호,(웃음) 그건 너무요 섭섭한 것입니다.)  
 106018 @ 거난 삼 재배 안 해보고양?(그러니까 삼 재배 안 해보고요?)  
 106018 #2 뭐마씨?(뭐요?)  
 106018 @ 삼 재배?(삼 재배?)  
 106018 #2 삼 재배도 아이 해봤수다게, 제주도엔 안 험니다게, 그추록.(삼 재배도 아니 해봤습니다, 제주도엔 안 합니다, 그처럼.)

## 도구

106019 @ 그다음에 그 씨아에 대해서 아는 바 말씀해줍서, 씨아, 뭐냐면은 그 멘네 허젠 허른 멘네씨를.(그다음에 그 씨아에 대해서 아는 바 말씀해주십시오, 씨아, 뭐냐 하면은 그 면화 하려고 하면 면화씨를.)  
 106019 #2 멘네에예, 그거 이젠 기계에 가민 영 문딱 해가민 씨가 나옵니다. 게른 그거 갓당 놔뒤당 뒷해에.(면화요, 그거 이젠 기계에 가면 모두 해가면 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갔다가 놔뒤다가 내년예.)  
 106019 @ 영 메겨가면은, 영 영 돌리른.(이렇게 먹여 가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106019 #2 예, 돌려 가가민 씨는 주루루 털어지고 그 숨은 두으로 나가고.(예,

돌려 가가면 씨는 주루루 떨어지고 그 숨은 뒤로 나가고.)

106019 @ 예.(예.)

106019 #2 게근 그거 헐만이 갓당 낮당 뒷헤에 갈암수게.(그러면 그거 할 만큼 갔다가 낮다가 내년에 갈고 있습니다.)

106020 @ 그것이 그 기계가 물레지양?(그것이 그 기계가 물레지요?)

106020 #2 물레.(물레.)

106020 @ 예, 물레.(예, 물레.)

106020 #2 옛날엔 물레로 헛주만은 요즘은 기계로 다 합니다.(옛날엔 물레로 했지만 요즘은 기계로 다 합니다.)

106020 @ 게난 물레에 대행은에 아는 대로 돌아봅서.(그러니까 물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십시오.)

106020 #2 물레 허영은에 옛날, 그것 물레 허영 영 손으로 영, 왼쪽 손으론 맥이곡, 오른쪽 손으론 돌령, 돌아가민 두으론 숨 빠지고 이쪽으론 씨가 빠집니께.(물레 해서 옛날, 그것 물레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왼쪽 손으론 먹이고, 오른쪽 손으론 돌려서, 돌아가면 뒤론 숨 빠지고 이쪽으론 씨가 빠집니다.)

106020 @ 예.(예.)

106020 #2 옛날엔 다 그거 그추룩 허여 놔근에 또 물레 여기 실 만들젠 허민양 여기 물레 영 허여근에 영 동글락헌 요만헌 대나무 닳은 거 꼭 끼여근에 그걸로 멘네 영 절로 뺨 걸로 썰 허영은에 미녕 잣수게게.(옛날엔 다 그거 것처럼 해 놔서 또 물레 여기 실 만들려고 하면요 여기 물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근 요만한 대나무 같은 거 꼭 끼어서 그걸로 면화 이렇게 저기로 뺨 걸로 실해서 무명 잣습니다.)

106020 @ 게난 가운데 낭 두 개 허여근에 영 영 돌려가민.(그러니까 가운데 나무 두 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

106020 #2 예, 예.(예, 예.)

106020 @ 거기 영 끼우민.(거기 이렇게 끼우면.)

106020 #2 글로 멘네 영 허영 쭈욱 헤가민 실이 나와마씨. 썰 나오민 이쪽으론 영 허영 쪽 놓는 거, 뱅뱅뱅뱅 감아지곡.(거기로 면화 이렇게 해서 쪽 헤가면 실이 나와요. 실 나오면 이쪽으론 이렇게 해서 쪽 놓는 거, 뱅뱅뱅뱅 감아지고.)

106020 @ 돌령.(돌려서.)

106020 #2 예.(예.)

106020 @ 그거 명칭은 모르지양?(그거 명칭은 모르지요?)

106020 #2 멘네 물레엔 허여낫어양.(면화 물레라고 하였어요.)

106020 @ 예, 거난 그거 저 영 돌아가는 거.(예, 그러니까 그거 저 이렇게 돌아가는 거.)

106020 #2 그거 영 실 영 빼영은에 영 노민 뱅뱅뱅뱅 감아지고, 멘네 영 허영 영 허민, 그건 물레, 물레엔 헛디다게.(그거 이렇게 실 이렇게 빼어서 이렇게 놓으면 뱅뱅뱅뱅 감아지고, 면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물레, 물레라고 합디

다.)

106020 @ 물레.(물레.)

106020 #2 계문 영 허영 영 허민 뱅뱅뱅 감아정, 계문 도르기 요만이 현 거.(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뱅뱅뱅 감아져서, 그러면 바퀴 요만큼 한 거.)

106020 @ 도르기?(바퀴?)

106020 #2 요만이 요만이 감아지민 그거 놔뒀 딴 거 들렁 경 허영 그걸로 미녕도 짜곡, 경 옛날엔 경 험디다게.(요만큼 요만큼 감아지면 그거 놔뒀서 딴 거 들러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무명도 짜고,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합디다.)

106021 @ 베틀에 대허영 알아지지양? 베틀.(베틀에 대해서 알겠지요? 베틀.)

106021 #2 베틀이 그거 이제 삼베 짜곡 뒷 허는 것이 베틀 아이파?(베틀이 그거 이제 삼베 짜고 뒷 하는 것이 베틀 아십니까?)

106021 @ 예, 베틀.(예, 베틀.)

106021 #2 예게. 모시 짜는, 그거 짜는 게 베틀이주, 기꺾주게.(예. 모시 짜는, 그거 짜는 게 베틀이지, 기계지요.)

106021 @ 거난 옷감 짜는 그런 건가?(그러니까 옷감 짜는 그런 건가?)

106021 #2 예, 그걸로 미녕도 짜곡, 모시도 짜고.(예, 그걸로 무명도 짜고, 모시도 짜고.)

106021 #1 옷감 짜는 기계라.(옷감 짜는 기계야.)

106021 #2 멩지도 짜곡, 그걸로 못 짜는 거 엇이 다, 옛날 어른덜 경, 이 사람 우리 시어머니 멩지 그추룩 허연 누에 질환 거기서 짠에 이 사람 저 저승옷, 그 장가갈 때 혼 번 입허냥은에 허는 거 경 허연 만들안, 거 ㄱ만이 잇수다. 시어머니 만든 거난 이제 ㄱ만이 놔뒀수다.(명주도 짜고, 그걸로 못 짜는 거 없이 다, 옛날 어른들 그렇게, 이 사람 우리 시어머니 명주 그처럼 해서 누에 길러서 거기서 짜서 이 사람 저 저승옷, 그 장가갈 때 한 번 입허나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 거 가만히 있습니다. 시어머니 만든 거니까 이제 가만히 놔뒀습니다.)

## 바느질

106022 @ 바느질 해 봅디게양?(바느질 해 봤습니까?)

106022 #2 바늘질은 집이서 몸뻘 ㄱ튼 거나 만들앙.(바느질은 집에서 일바지 같은 거나 만들어서.)

106022 @ 바늘, 바느질은.(바늘, 바느질은.)

106022 #2 바늘질은 이 한복 ㄱ튼 건 안 만들아보고양, 집이서 몸뻘 ㄱ튼 건 만들안, 펜티 ㄱ튼 건, 그런 건 만들안 입어봤수다.(바느질은 이 한복 같은 건 안 만들어보고요, 집에서 일바지 같은 건 만들었어, 펜티 같은 건, 그런 건 만들어서 입어봤습니다.)

106022 @ 바느질 도구덜 잇지 안 허파양?(바느질 도구들 잇지 않습니까?)

106022 #2 예.(예.)

106022 @ 바농이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썰, 바농질 도구덜 뭐 잇수강?(바늘이 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실, 바느질 도구들 뭐 있습니까?)

106022 #1 썰패.(실패.)

106022 @ 썰패허고.(실패하고.)

106022 #2 썰패허고 옛날엔.(실패하고 옛날엔.)

106022 @ 그 영 바농 찢르는 걸 뭐영 허여? 바농 나중에 뭐 떨어지믄 뭐 허카 부덴, 바농쌘지.(그 이렇게 바늘 지르는 걸 뭐라고 해? 바늘 나중에 뭐 떨어지면 뭐 할까 싶어서, 반진고리.)

106022 #2 아, 바농쌘지.(아, 반진고리.)

106022 @ 바농쌘지.(반진고리.)

106022 #2 바농쌘진 요만한 거, 둥글락헌 거, 풀 블라근에 거기 썰 감아근에 저 바늘 꿰영 톱 놓곡, 또 바늘 꼬트머리 무끼민.(반진고린 요만한 거, 둥근 거, 풀 발라서 거기 실 감아서 저 바늘 꿰어서 톱 놓고, 또 바늘 꼬트머리 무디면.)

106022 @ 그거 골무엔 허는가?(그거 골무라고 하는가?)

106022 #2 손.(손.)

106022 @ 골무 이 손 다치지 안 허게 허는 것이 골무라.(골무 이 손 다치지 안 하게 하는 것이 골무야.)

106022 #2 영 손가락 영 꼭 끼영은에.(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끼어서.)

106022 @ 골무.(골무.)

106022 #2 그거 여기 들어가카부덴, 그 이름은 모르쿠다게. 그런 거.(그거 여기 들어갈까 싶어서,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106022 @ 골무, 골무.(골무, 골무.)

106022 #2 그런 거, 나 잇긴 셔, 이제.(그런 거, 나 잇긴 있어, 이제.)

106022 @ 예.(예.)

106022 #2 그거 허곡, 또 바늘 옛날에 그 저.(그거 하고, 또 바늘 옛날에 저.)

106022 @ 바농, 바농.(바늘, 바늘.)

106022 #2 바농, 바농, 바농 옛날 거 이제나 막 흔허난 허주, 바농 허당 꾀 꺼꺼 지민 글명 쓰는, 송곳, 송이엔 허는가? 바당에 돌이라도 흥끔 헤양헌 거, 그거.(바늘, 바늘, 바늘 옛날 거 이제나 아주 흔하니까 하지, 바늘 하다가 끝 꺾어지면 갈면 서 쓰는, 송곳, 송이라고 하는가? 바다에 돌이라도 조금 하얀 거, 그거.)

106022 @ 글양은에?(갈아서?)

106022 #2 글양, 영 영 허명 글명, 그것도 셔나고.(갈아서, 이렇게 이렇게 갈면 서, 그것도 있었었고.)

106022 @ 그다음에 ㄴ세 잇고, 그다음?(그다음에 가위 잇고, 그다음?)

106022 #2 ㄴ세 잇고, 것벧기 더 잇수가? 바농쌘지, 썰 감는 영.(가위 잇고,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바느질고리, 실 감는 이렇게.)

106022 @ 썰패.(실패.)

106022 #2 아무, 아무거라도 감양 썼고.(아무, 아무거라도 감아서 썼고.)

106022 @ 실패.(실패.)

106022 #2 예.(예.)

106022 @ 그다음에 아까 골무.(그다음에 아까 골무.)

106022 #2 그것벧기 엇엇수다.(그것밖에 없었습니다.)

106023 @ 그다음에 바농질 방법 잇지 안 허파양? 영 영 끼와가는 방법도 잇고.(그다음에는 바느질 방법 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끼워가는 방법도 잇고.)

106023 #2 예.(예.)

106023 @ 영 호는 방법도 잇고.(이렇게 호는 방법도 잇고.)

106023 #2 예, 예.(예, 예.)

106023 @ 거 그 종류덜 혼번 곶아봅서.(거 종류들 한번 말해보십시오.)

106023 #2 저 든든헌 몸빼 ㄴ튼 거 이런 디 영 쥐근에 옛날엔 손바느질만.(저 단단한 일바지 같은 거 이런 데 이렇게 꿰매서 옛날엔 손바느질만.)

106023 @ 방법이 틀려서.(방법이 달라서.)

106023 #2 경헌디 영 그냥 요추룩 허영 두 곱 영 쥬 기자 영 속속 속속 헨 간 건 옷을 영 쥬 허민 여기가 영상영상영상 허곡, 바늘을 혼번 질렁 영 뒷바늘질헌 거는 영 영상영상도 아니허곡 지깅허여근에예 잘도 오레 가마씨, 그추룩 몸빼.(그런 데 이렇게 그냥 요처럼 해서 두 곱 이렇게 꿰매서 그저 이렇게 속속 속속 해가서 건 옷을 이렇게 꿰매서 하면 여기가 영상영상영상 하고, 바늘을 한번 질러서 이렇게 뒷바느질한 거는 이렇게 영성영성도 안 하고, 뽁뽁해서 잘도 오레 가요, 것처럼 일바지.)

106023 @ 요, 요거 꼬메는 방법, 이거 어떻 꼬메어?(요, 요거 꿰매는 방법, 이거 어떻게 꿰매어.)

106023 #2 그 단 꼬메는 거.(그 단 꿰매는 거.)

106023 @ 단 꼬메는 거.(단 꿰매는 거.)

106023 #2 단 꼬메는 거는 미싱 실로예 올 하나 곶혀근에 영 허여근에 영 허멍, 또 계난 이 바깳디로 헤여불면 그 단은 베기 싫지 안 됩니까? 계난 안으로 썰행 영 영 허멍 헤 가십주. 그런 바늘질은 헤 봤수다, 우리도. 이 뒷바느질허는 게 옷이 든 든허여마씨.(단 웹는 거는 재봉틀 실로요 올 하나 가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러니까 이 바깳으로 해버리면 그 단은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실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해 갔습지요. 그런 바느질은 헤 봤습니다, 우리도. 뒷바느질하는 게 옷이 단단해요.)

106023 #1 이중 바느질.(이중 바느질.)

106023 #2 이중 바늘질허는 게, 그냥.(이중 바느질하는 게.)

106023 @ 거 이불 헐 때 허는 바농질은 어떤 거라, 이불 헐 때?(거 이불 할 때 하는 바느질은 어떤 거야, 이불 할 때?)

106023 #2 이불 헐 때.(이불 할 때.)

106023 @ 영상영상 영.(영상영상 이렇게.)

106023 #2 그건 큰 바느질 아니우파? 건 이불 허는 바늘이 크게 나와났수다. 게  
른 그건 이불 허는 건 줌지랑허게 주민 다음 빨젠 허민 그거 뜯기가 굿지 안 헉니  
깡? 경허난 영상 영상 영상 감을 때 허는 거라마씨. 자꾸 빨앙 튜영 또 끼우곡 허  
는 거난.(그건 큰 바느질 아닙니까? 건 이불 하는 바늘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러  
면 그건 이불 하는 건 자잘하게 꿰매면 다음 빨려고 하면 그거 뜯기가 굿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영성 영성 영성 감을 때 하는 거지요. 자꾸 빨아서 뜯어서 또 끼우고  
하는 거니까.)

106023 @ 그다음에 이 저 옛날 보민 똥꼬망 잘 터정 텅겨.(그다음에 이 저 옛  
날 보면 똥구멍 잘 터져서 다녀.)

106023 #2 예, 계난 그거 바데.(예, 그러니까 그거 바데.)

106023 @ 누벼야 똥 거 아니우파?(누벼야 똥 거 아닙니까?)

106023 #2 예, 거 바데, 바데 영 허영은에 쫄랑 궁둥이에 맞게 쫄랑은에 그 이  
중 옷감을 대영, 경허민 또 바깳디 터지민 그걸 또 그냥 입을 수도 있고.(예, 거 바  
데, 바데 이렇게 해서 잘라서 궁둥이에 맞게 잘라서 그 이중 옷감을 대어서, 그러면  
또 바깳에 터지면 그걸 또 그냥 입을 수도 있고.)

106023 @ 예. 동무릎도 잘 터지고.(예. 무릎도 잘 터지고.)

106023 #2 동무릎도, 동무릎도 이젠, 옛날에만.(무릎도, 무릎도 이젠, 옛날에만.)

106023 @ 이제는 주은 옷덜.(이제는 꿰맨 옷들.)

106023 #2 옛날에만.(옛날에만.)

106023 @ 입젠도 아니허여.(입으려고도 안 해.)

106023 #2 예, 예, 옛날에 경 헛주, 우리도 스뭇 가달에 문 누비명, 또 이 사람  
네 이런 바지 입당 궁둥이 터지민 미싱에 딱 곱게 주민 그것도 멋이엔.(예, 예, 옛  
날에 그렇게 했지, 우리도 사뭇 다리에 모두 누비면서, 또 이 사람네 이런 바지 입  
다가 궁둥이 터지면 재봉틀에 딱 곱게 꿰매면 그것도 멋이라고.)

106023 @ 아, 것이 찢어진 옷덜 입영 텅겨서, 멋으로게.(아, 그것이 찢어진 옷들  
입어서 다녔어, 멋으로요.)

106023 #2 호호.(웃음)(호호.(웃음))

106023 #1 성헌 옷이랑 말앙.(성한 옷이랑 말고.)

106023 #2 옛날엔 그거 곱게 누비민 하도 고와비영 누비명도 입엇수다.(옛날엔  
그거 곱게 누비면 매우 고와 보여서 누비면서도 입엇습니다.)

106023 @ 게 모자도 보민 막 거 뭐냐 막 터진 것덜 행, 입영, 거 멋으로 경.(그  
래 모자도 보면 막 거 뭐냐 막 터진 것들 해서, 입어서, 거 멋으로 그렇게.)

106023 #2 예, 맞수다게.(예, 맞습니다.)

## 옷 종류

106024 @ 그다음에 남자 옷 종류덜 잊지 안 허우팡? 남자 옷 종류, 어떤 것덜

잇수가?(그다음에 남자 옷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 옷 종류,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6024 #2 남자 옷 종류, 갈중의<sup>160</sup>도 있고, 소중의도 있고.(남자 옷 종류, ‘갈중의’도 있고, 속옷도 있고.)

106024 @ 소중의 여자지.(속옷은 여자지.)

106024 #1 여자.(여자.)

106024 #2 게 남자나 여자나.(그래 남자나 여자나.)

106024 @ 남자 옷만, 남자 옷.(남자 옷만, 남자 옷.)

106024 #2 남자는 바지저고리, 바지저고리.(남자는 바지저고리, 바지저고리.)

106024 @ 바지저고리도 여자, 저고리난.(바지저고리도 여자, 저고리니까.)

106024 #2 남자도 저고리, 바지 입으면 저고리도 셔수게, 남자덜도, 한복 저고리 있지 안 허파?(남자도 저고리, 바지 입으면 저고리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한복 저고리 있지 않습니까?)

106024 @ 아, 아.(아, 아.)

106024 #2 한복에 저고리가, 바지저고리.(한복에 저고리가, 바지저고리.)

106024 @ 예.(예.)

106024 #2 그거.(그거.)

106024 @ 그다음에 두루막.(그다음에 두루마기.)

106024 #2 두루막, 두루막, 또 그 두루막 속에 입는 건, 것보고 무슨거엔 험니까?(두루마기, 두루마기, 또 두루마기 속에 입는 건, 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106024 #1 쪼께.(조끼.)

106024 #2 쪼께허고 그 질 위에 입는 거, 저고리처럼 저 두루막 벗으면 특 입는 거, 아이고 잊어불언, 호호.(웃음)(조끼하고 그 질 위에 입는 거, 저고리처럼 저 두루마기 벗으면 특 입는 거, 아이고 잊어버렸어, 호호.(웃음))

106024 @ 그다음에 바지저고리.(그다음에 바지저고리.)

106024 #2 그 위에 영, 영 큰 단추 돌아선게, 단추도 시 개 들양 영 허는 거, 거 뻐고?(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큰 단추 달았어, 단추도 세 개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 거 무엇이요?)

106024 @ 그 저 요즘 말로 허민 오바 아니라, 오바.(그 저 요즘 말로 하면 오바 아니야, 오버.)

106024 #2 아니게.(아니요.)

106024 #1 아이 아니.(아니, 아니.)

106024 저 두루막 속에 쪼끼 위에 영 입는 거, 저고리, 그거 무슨거엔 험, 나도 저고리 걸언 잇주만은 이름을 모르켄게, 이름을.(두루마기 속에 조끼 위에 이렇게 입는 거, 저고리, 그거 무엇이라고 해서, 나도 저고리 걸어서 있지만 이름을 모르겠어, 이름을.)

160)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이다.



106025 @ 그다음에 여자 옷 종류는?(그다음에 여자 옷 종류는?)  
 106025 #2 여자 옷 종류는 저 한복.(여자 옷 종류는 저 한복.)  
 106025 @ 어, 치메.(어, 치마.)  
 106025 #2 치메, 또 옛날 통치마, 그냥 깍치마 말고 통치마, 옛날엔 그거 저구리, 적삼.(치마, 또 옛날 통치마, 그냥 풀치마 말고 통치마, 옛날엔 그거 저고리, 적삼.)  
 106025 @ 중의 적삼.(중의 적삼.)  
 106025 #2 중의 적삼 것벳기 더 잇수가?(중의 적삼 것밖에 더 있습니까?)  
 106025 @ 중의 적삼.(중의 적삼.)  
 106025 #2 옛날엔 그런 거.(옛날엔 그런 거.)  
 106026 @ 아이덜 옷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가?(아이들 옷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6026 #2 아이고, 우리 어린 땐 아이덜 이젠 옷이 시난 해도 옛날엔 거 미녕으로 물들영 거멍허민 그 이녁냥으로 몸빼식으로게 요렇게 영 허영 만들앙 것덜토 허영 입혀낫수다, 그겁주게, 아이덜이엔 해도, 아이덜게 영 뺄스꺄찌 요만이 여름엔 허여근에양, 영 톱 즐막허게.(아이고,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이젠 옷이 있으니까 해도 옛날엔 거 무명으로 물들여서 거메면 그 이녁대로 일바지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것들도 해서 입혔었습니다, 그거지요. 아이들이라고 해도, 아이들요 이렇게 팬츠까지 요만큼 여름엔 해서, 이렇게 톱 잘막허게.)  
 106026 @ 계난 옷덜 엇이난 그냥 벳건 살아십주.(그러니까 옷들 없으니까 그냥 벳겨서 살았습지요.)  
 106026 #2 예게.(예.)  
 106026 @ 겨고 이런 디 저 오줌싸불카부덴 여기 가운데만 터진 거.(그리고 이런 데 오줌싸까 싶어서 여기 가운데만 터진 거.)  
 106026 #2 강알 터진 거.(사타구니 터진 거.)  
 106026 @ 터진 거 허연.(터진 거 해서.)  
 106026 #2 터진 바지 행 입지곡, 우리 아이덜 클 때도 터진 바지 입혀낫수다.(터진 바지 해서 입히고, 우리 아이들 클 때도 터진 바지 입혔었습니다.)  
 106026 @ 우리도 오줌싸부카부덴게.(우리도 오줌싸까 싶어서.)  
 106026 #2 어게, 오줌싸민 그냥 앓으면 이레 문딱 싸부는 따문.(어게, 오줌싸면 그냥 앓으면 이리 모두 사버리는 따문.)  
 106026 @ 거난 옛날 할망덜 가당은에 아이고 요 고치 맛있다, 맛있다 허멍.(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 가다가 아이고 요 고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106026 #2 호호.(웃음)(호호.(웃음))  
 106026 @ 이제 경 헛당은.(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106026 #2 이제 경 허믄 성추행이엔.(이제 그렇게 하면 성추행이라고.)  
 106026 @ 성추행으로 걸려들어, 이젠.(성추행으로 걸려들어, 이젠.)

106026 #2 예, 꺾려들어, 꺾려들어마씨. 호호호호.(웃음)(예, 꺾려들어, 꺾려들어  
요. 호호호호.(웃음))

106026 @ 옛날엔 그거 재미로덜.(옛날엔 그거 재미로들.)

106026 #2 옛날엔 아이덜 어떻 키와사져신디, 요 고구마도 실컷 못 맥엇수게.  
(옛날엔 아이들 어떻게 키워졌는지, 요 고구마도 실컷 못 먹었습니다.)

106027 @ 경허고, 마름질허고양 옷 멩그는 과정, 옷 멩글 때, 처음엔 영 끈어야  
될 거 아니우짜? 마름질.(그리고, 마름질하고요 옷 만드는 과정, 옷 만들 때, 처음  
엔 이렇게 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름질.)

106027 #2 예, 예. 난예, 저 몸빼 ㄱ튼 거 집이서라도 만들양 입젠 허믄양 양장  
점에 간에 그 저 옷 만드는 가다, 종류, 옛날 비료 종이 닳은 걸로 장판지 해 낵,  
장판지, 그걸로 가다 하나 떠 드령 허믄양, 돈 쥘 해당 이제도 거 잇수다만은, 나  
그추룩 허영 옷 멘들양 몸빼 ㄱ튼 거나 반바지 이런 거 이제도 난 사보질 안 험니  
다. 집이서 그 가다 시난 만들양은에 미상에 확 박양 그냥 입어집니다게.(예, 예. 난  
요, 저 일바지 같은 거 집에서라도 만들어서 입으려고 하면 양장점에 가서 그 저  
옷 만드는 모양, 종류, 옛날 비료 종이 같은 걸로 장판지 해 낵서, 장판지, 그걸로  
모양 하나 떠 달라고 하면요, 돈 줘서 해다가 이제도 거 잇습니다만, 나 것처럼 해  
서 못 만들어서 일바지 같은 거나 반바지 이런 거 이제도 난 사보지를 앓습니다.  
집에서 그 모양 있으니까 만들어서 재봉틀에 확 박아서 그냥 입을 수 잇습니다.)

106028 @ 그다음, 그다음에양 바지, 바지 잇지 안 험니까? 바지.(그다음, 그다음  
에요 바지, 바지 잇지 앓습니까? 바지.)

106028 #2 예.(예.)

106028 @ 바지 허면은 그 저 명칭덜 알아지쿠가? 바지, 이거 뭐, 바지 허민 이  
것이 뭐다, 또 이 우에는 뭐다, 바지 명칭?(바지 하면은 그 저 명칭들 알 수 잇습니  
까? 바지, 이거 뭐, 바지 하면 이것이 뭐다, 또 이 위에는 뭐다, 바지 명칭?)

106028 #2 그거는 잘 모르고 앞판, 뒷판양, 딱나게 물리왕은에 입어낫수다만은,  
두에 가는 건 뒷판, 앞에 오는 건 앞판, 그추룩 허연근에 이 물리는 것도 뒷판광 앞  
판광 따로 물려야 이 밋이 맞아마씨. 경 아니허영 ㄱ찌 물라불민 앞뒤가 엇영 옷  
입으민예.(그거는 잘 모르고 앞판, 뒷판요, 다르게 말아서 입었습니다만, 뒤에 가는  
건 뒷판, 앞에 가는 건 앞판, 것처럼 해서 이 마는 것도 뒷판과 앞판과 따로 말아야  
이 밋이 맞아요. 그렇게 안 해서 같이 말아버리면 앞뒤가 없어서 옷 입으면요.)

106028 @ 밋이 어디우짱? 밋.(밋이 어디입니까? 밋.)

106028 #2 밋이게 강알이주.(밋이요 사타구니지.)

106028 @ 아, 아, 강알이지, 그다음에.(아,아, 사타구니지, 그다음에.)

106028 #2 강알이 밋이주게, 경 허여근에 앞판, 뒷판 따로 물리왕은에 몸빼 허  
여도 곱곡예, 그냥 흔 밋덜로 물리와불영은 이 앓이민 밋 찢어져볼곡 안 웨어마씨,  
앞판, 뒷판을 허여야.(사타구니가 밋이지요, 그렇게 해서 앞판, 뒷판 따로 말아서 일  
바지 해도 곱고요, 그냥 한 곳으로 말아버려서 이 앓으면 밋 찢어져 버리고 안 돼

요, 앞판, 뒷판을 해야.)

106028 @ 그다음에 저 저고리도 명칭이 잊지 안 허우파? 이 동전.(그다음에 저 저고리도 명칭이 잊지 않습니까? 이 동정.)

106028 #2 예, 동전허곡 이 저 여기 영 거 두 번 허는 건 그건 뭐엔사 헤신지, 동전 싣고, 여기도 앞에 보고 이 저 무슨거렌.(예, 동정하고 이 저 여기 이렇게 거 두 번 하는 건 그건 뭐라고야 했는지, 동정 있고, 여기도 앞에 보고 이 저 무엇이라고.)

106028 @ 이디 저 무끄는 거?(여기 저 묶는 거?)

106028 #2 예, 그건 골름.(예, 그건 고름.)

106028 @ 골름?(고름?)

106028 #2 골름, 골름 싣고.(고름, 고름 있고.)

106028 @ 골름도양.(고름도요.)

106028 #2 예, 여기 소매 따로 싣고.(예, 여기 소매 따로 있고.)

106028 @ 소매.(소매.)

106028 #2 앞판, 뒷판 것도 따로 싣고.(앞판, 뒷판 것도 따로 있고.)

106028 @ 이디 영 현 걸 뭐렌 허여, 이걸?(여기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 이 걸?)

106028 #2 그게 옷소매 영 현 건 영 저구리 영 흐끔 영 허게 현 거 아이파? 게 난 우린 무슨거엔은 안 들어보고 소매, 소매, 그런 식으로 허영 이건 소매 부질 거, 요건 뒤에 부질 거, 이건 앞에 골름, 그런 거벧기 모르쿠다.(그게 옷소매 이렇게 한 건 이렇게 저고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무엇이 라고는 안 들어보고 소매, 소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소매 붙일 거, 요건 뒤에 붙일 거, 이건 앞에 고름, 그런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106028 @ 그다음에 치메도 명칭덜 잊지 안 허우파? 치메.(그다음에 치마도 명칭들 잊지 않습니까? 치마.)

106028 #2 치메는 여기 옛날 우리 통치마도 만들젠 허민 폭이 두 폭으로만 허고, 또 흐끔 넓게 허영 입젠 허민 다섯 폭, 오섯 폭도 허영 입고, 경 헤십주게. 그것도 그건 허민게 단추도 여기 들꼭.(치마는 여기 옛날 우리 통치마도 만들려고 하면 폭이 두 폭으로만 하고, 또 조금 넓게 해서 입으려고 하면 다섯 폭, 여섯 폭도 해서 입고, 그렇게 했습지요. 그것도 그건 하면요 단추도 여기 달고.)

106028 @ 여기 무끄는 걸 뭐엔 허여?(여기 묶는 걸 뭐라고 해?)

106028 #2 골름, 골름, 그것도 골름.(고름, 고름, 그것도 고름.)

106028 @ 치메 무끄는 것도?(치마 묶는 것도?)

106028 #2 것도 골름, 치메, 치메 골름.(것도 고름, 치마, 치마 고름.)

106028 @ 골름. 거민 밋테 펠력헌 디는?(고름. 그러면 밑에 펠력한 데는?)

106028 #2 그건 치마 아이파게, 치마.(그건 치마 아닙니까, 치마.)

106028 @ 치메폭?(치마폭?)

106028 #2 아, 치마폭, 치마폭, 그겁주게.(아, 치마폭, 치마폭, 그거지요.)

106029 @ 그다음에 단추 종류 잊지 안 허우파양? 단추덜.(그다음에 단추 종류 잊지 않습니까? 단추들.)

106029 #2 단추도 우리가 허여 보민.(단추도 우리 해 보면.)

106029 @ 낭 단추도 잊어났수강?(나무 단추도 있었습니까?)

106029 #2 낭 단추도 잊어십주게. 이 저 여름에 이추록 허여근에 영 뚝바데 식으로 헤영 입는 건 단추도 읍지랑헌 거 허영 들양 입곡, 겨울에 오바 그튼 것도 두꺼운 거 요추록 허영 입젠 허민 단추도 제일 큰 거 헤영 들고, 경 헛수다.(나무 단추도 있었습지요. 이 저 여름에 이처럼 해서 이렇게 땀받이 식으로 해서 입는 건 단추도 알팍한 거 해서 달아서 입고, 겨울에 오버 같은 것도 두꺼운 거 요처럼 해서 입으려고 하면 단추도 제일 큰 거 해서 달고, 그렇게 했습니다.)

106029 @ 옛날 단추 잘 잊어났지양? (옛날 단추 잘 없었었지요?)

106029 #2 단추도 무사 잊습니까? 종류별로 다 잊었주.(단추도 왜 없습니까? 종류별로 다 있었지.)

106029 @ 아, 나, 나도 옛날 그 저.(아, 나, 나도 옛날 그 저.)

106029 #2 오일장에 가민양 큰 단추, 작은 단추 다 풀아났수다.(오일장에 가면 요 큰 단추, 작은 단추 다 팔았었습니다.)

106029 @ 단추 내기도 막 해났주, 옛날.(단추 내기도 마구 했었지, 옛날.)

106029 #2 경 헤십주게.(그렇게 했습지요.)

106029 @ 어린, 어릴 때.(어릴, 어릴 때.)

106029 #2 예.(예.)

106029 @ 계난 단추덜 옷에 거 트다당은에.(그러니까 단추들 옷에 거 뜯어서.)

106029 #2 트다당, 맞수다게. 계난 이런 그런 와이샤쓰 단추 작곡, 겨울에 두툼헌 옷은 입젠 허민 큰 단추 사당 들곡, 또 여름에 영 뿔 헐 땀 그 저 감 들인 옷감으로 단추 쌍도 들양 입고.(뜯어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와이셔츠 단추는 작고, 겨울에 두툼한 옷은 입으려고 하면 큰 단추 사다가 달고, 또 여름에 이렇게 뿔 할 때 그 저 감 들인 옷감으로 단추 싸서도 달아서 입고.)

## 재단과 염색

106030 @ 그다음에 옷감 손질 해야될 거 아니우파양? 옷감을.(그다음에 옷감 손질 해야될 거 아십니까? 옷감을.)

106030 #2 예.(예.)

106030 @ 그거에 대해서 혼번 말해봅서, 옷감 손질.(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옷감 손질.)

106030 #2 옷감 손질은 이제, 이제는 깔아 가지고 다림질만 허민 뿔주만은.(옷감 손질은 이제, 이제는 깔아 가지고 다림지만 하면 되고 있지만.)

106030 @ 깔양, 깔양.(깔아서, 깔아서.)

106030 #2 꿀양은에 이제도 저 여름에 옛날 할아버지덜 옷 입쟁 허민 그 빨양은에 숲양은에 물리왕 풀 허영 요런 다듬이에 막 멧 번 초불 두드렁, 또 햇빛데 물리왕 또 물 축영, 물 뿔영 츠분허믄 또 이거에 다듬이에 막 다 스뭇 막 곱게 다듬양 질 네중에 이제난 전기다리미도 잇주만은, 옛날엔 전기다리미가 셋수가? 숯불 허영은에 옛날 영 다리는 거로 영 다리멍 허영 입져십주, 하르방덜 바지저고리 행 입지젠 허믄.(깎아서 이제도 저 여름에 옛날 할아버지들 옷 입으려고 하면 그 빨아서 삶아서 말려서 풀 해서 묘런 다듬이에 마구 몇 번 애벌 두드려서, 또 햇볕에 말려서 또 물 축여서, 물 뿔어서 차분하면 또 이거에 다듬이에 마구 다 사뭇 아주 곱게 다듬어서 쥘 나중에 이제니까 전기다리미도 있지만 옛날엔, 전기다리미가 있었습니까? 숯불 해서 옛날 이렇게 다리는 거로 이렇게 다리면서 해서 입혔습지요, 할아버지들 바지저고리 해서 입히려고 하면.)

106030 @ 계난 옛날 다리미는 안네 숯 낱은에.(그러니까 옛날 다리미는 안에 숯 놔서.)

106030 #2 숯 놔근에 비와근에.(숯 놔서 부어서.)

106030 @ 예, 숯 낱.(예, 숯 놔서.)

106030 #2 경 허연 입것수다. 이젠 빨양 탁탁 허멍 입점주만은, 옛날엔 그것이 옛언숲양, 미녕으로 허영 하르방덜 어디 웨출이라도 가젠 허민 헤양케 입정 보냉 혼 번 갖다 오민 빨양 숲양 풀 허영 요 다듬잇돌에 낱.(그렇게 해서 입혔습니다. 이젠 빨아서 탁탁 하면서 입혔지만, 옛날엔 그것이 없어서 삶아서, 무명으로 해서 할아버지들 어디 외출이라도 가려고 하면 하얗게 입혀서 보내서 한 번 갖다 오면 빨아서 삶아서 풀 해서 요 다듬잇돌에 놔서.)

106030 @ 막 두드렁.(마구 두드려서.)

106030 #2 막 두드렁, 혼 번만 두드려도 돼지 아이힙니다. 이젠 경 허영 물 축영 흐끔 들르민 또 계영 즈근즈근 계영 블랏당 또 두드렁 또 질 나중에 곱게 또 다듬이로 두드렁, 경 허멍 헛주.(마구 두드려서, 한 번만 두드려도 되지 않습니다. 이젠 그렇게 해서 물 축여서 조금 마르면 또 개어서 자근자근 개어서 뵈었다가 또 두드려서 또 쥘 나중에 곱게 또 다듬이로 두드려서, 그렇게 하면서 했지.)

106030 @ 이제는 보난에 혼 멧 년 전부떠 제주시 빨래방도 나오고.(이제는 보니까 한 몇 년 전부떠 제주시 빨래방도 나오고.)

106030 #2 빨래방도 나오고 이젠 세탁소에만 강 탁 내불민 싹싹 거기서 다 허연 나왓수게.(빨래방도 나오고 이젠 세탁소에만 가서 탁 내버리면 싹싹 거기서 다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6030 @ 돈만 주민.(돈만 주면.)

106030 #2 예.(예.)

106030 @ 안 될 것이 엇어.(안 될 것이 없어.)

106030 #2 이젠양 집이서 경 골치 아프게 헐 아이덜토 엇고, 또 허젠도 안 허고, 이젠 돈만 쥘 탁 메경 내불민 번질번질허게 허연 나오난 뉘.(이젠요 집에서 그

렇게 골치 아프게 할 아이들도 없고, 또 하려고도 안 하고, 이젠 돈만 쥐서 탁 맡겨서 내버리면 번질번질하게 나오니까 뭐.)

106031 @ 게메마씨. 염색도 해 봤지양?(글쎄요. 염색도 해 봤지요?)

106031 #2 염색, 검은 염색만 해 봤수다. 탄 염색은 안 해 보고, 검은 염색, 몸빼 만들젠 허민, 광목 까만 물들여야, 저밖에.(염색, 검은 염색만 해 봤습니다. 탄 염색은 안 해 보고, 검은 염색, 일바지 만들려고 하면, 광목 까만 물 들여야, 저밖에.)

106031 @ 물감으로?(물감으로?)

106031 #2 예, 저 장이 강은에 검은 물 사당 물 팔팔 끌영 그거 캥 낱 광목 그레 들이청 숲양은에 넣어야만 물감이 들주, 물 등강은 물감이 안 듭니다, 숲아사, 솟디. 경 허영 물감도 들여봤수다.(예, 저 장에 가서 검은 물 사다가 물 팔팔 끓여서 그거 타서 놔서 광목 그리 들이쳐서 삶아서 넣어야만 물감이 들지, 물 담가서는 물감이 안 듭니다, 삶아야, 술에. 그렇게 해서 물감도 들여봤습니다.)

106031 @ 그거 허영은에 물감 들영 뭐 아이덜 옷 멩글앗수가?(그거 해서 물감 들여서 뭐 아이덜 옷 만들었습니까?)

106031 #2 아이덜 옷 만들고, 우리도 몸빼 만들고 탄 건 안 해도예, 몸빼 7튼 거 만들안.(아이들 못 만들고, 우리도 일바지 남들고 탄 건 안 해도요, 일바지 같은 거 만들어서.)

106031 @ 옛날 검은 몸빼 하영 입영 텅겅수게예.(옛날 검은 일바지 많이 입어서 다녔습니다.)

106031 #2 예, 예, 검은 몸빼영 바지 입곡, 곱게도 입곡 경 헛수다게.(예, 예, 검은 일바지랑 바지 입고, 곱게도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106031 @ 게난 거 사당 헛구나, 오일장에 간.(그러니까 거 사다가 헛구나, 오일장에 가서.)

106031 #2 오일장에 강 광목 사당.(오일장에 가서 광목 사다가.)

106031 @ 그다음에 물감도 사야 헛 거 아니우파?(그다음에 물감도 사야 할 거 아닙니까?)

106031 #2 물감도 사고, 광목도 사당, 광목 사당 메날 숲양은에 넣영 물 자꾸 적지명 바르민 광목이 그뎨 흐끔 부드러웁니다게, 그뎨 검은 물 들연에 옷 만들안 입엇수다.(물감도 사고, 광목도 사다가, 광목 사다가 맨날 삶아서 넣어서 물 자꾸 적시면서 바르면 광목이 그뎨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뎨 검은 물 들여서 옷 만들어서 입엇습니다.)

## 신발

106032 @ 그다음에양, 옛날 그 신 종류 잇지 아니허우파? 신, 신는 거.(그다음에요, 옛날 신 종류 잇지 않습니까? 신, 신는 거.)

106032 #2 우리 어릴 땐양.(우리 어릴 때는요.)

106032 @ 무슨 신 신읍디가?(무슨 신 신었습니까?)

106032 #2 저 처음에 꽃고무신 잊지 아니허우파?(저 처음에 꽃고무신 잊지 않습니까?)

106032 @ 꽃고무신.(꽃고무신.)

106032 #2 꽃고무신, 이젠 그거 잘 안 나옵니다만, 꽃고무신 허민 혼 들도 아니 강 뒤치기 터정 몰래 들어도 돈이 엇어노난 그거 그냥 스뭇 막 스뭇 চে여지도록 신 언 다녔수다.(꽃고무신, 이젠 그거 잘 안 나옵니다만, 꽃고무신 하면 한 달도 안 가서 뒤치기 터져서 모래 들어가도 돈이 없으니까 그거 그냥 사뭇 막 췌어지도록 신 어서 다녔습니다.)

106032 @ 그 꽃고무신.(그 꽃고무신.)

106032 #2 꽃고무신 허고, 반화신허고.(꽃고무신하고, 반화하고.)

106032 @ 그 꽃고무신 색깔?(그 꽃고무신 색깔?)

106032 #2 색깔게, 계난 알록달록헌 꽃고무신이 셔났어, 우리 어린 때에.(색깔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헌 꽃고무신이 있었어, 우리 어릴 때에.)

106032 @ 아, 난 흰 거허고 검은 거만.(아, 난 흰 거하고 검은 거만.)

106032 #2 아니우다, 검은 것도 싯고, 검은 저 검은 고무신, 저 반화신도 셔나고.(아닙니다, 검은 것도 있고, 검은 저 검은 고무신, 자 반화도 있었고.)

106032 @ 예. 검은 고무신이 잇고.(예, 검은 고무신이 잇고.)

106032 #2 예, 꽃고무신, 우리 어린 때엔.(예, 꽃고무신, 우리 어릴 때에.)

106032 @ 흰 고무신.(흰 고무신.)

106032 #2 흰 고무신 싯고, 꽃고무신도 싯수다. 운동화도 흰 운동화 싯고, 까만 운동화 싯고, 계난 스뭇 옛날 검은 운동화, 고등학생덜, 중학생덜 검은 운동화 신영 학교덜 다니지 안 헛수가게? 그거 신은 걸 경 부러왕, 우리 경 허멍 살앗수다. 호호호.(웃음)(흰 고무신 잇고, 꽃고무신 있었습시다. 운동화도 흰 운동화 잇고, 까만 운동화 잇고, 그러니까 사뭇 옛날 검은 운동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검은 운동화 신 어서 학교들 단지 안 헛습니까? 그거 신은 걸 그렇게 부러워서,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시다. 호호호.(웃음))

106032 @ 나도 저 수학여행 갈 때 초등학교 육학년 때 검은, 검은 운동화 신어 봐서, 그 이전이는.(나도 저 수학여행 갈 때 초등학교 육학년 때 검은, 검은 운동화 신어 봤어, 그 이전에는.)

106032 #2 늣 신은 거 보민 하도 고와베고, 겐디 그뻐 검은 운동화를 봐도양, 여기 흰 띠 두 개가 잇어서마씨. 그것이 어떻사 고와신디 아이고, 우리도 경 허연 사당 신어났수다.(남 신은 거 보면 매우 고와 보이고, 그런데 그뻐 검은 운동화를 봐도요, 여기 흰 띠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야 고왔는지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사다가 신었었습니다.)

106032 @ 그다음에 짚신도 신어났지양?(그다음에 짚신도 신었었지요?)

106032 #2 짚신은 우리 요즘 무슨거 헐 때벳기 안 신엄수다. (짚신은 우리 요즘

무엇 할 때밖에 안 신고 있습니다.)

106032 @ 옛날, 옛날엔 안 신엇고마씨?(옛날, 옛날엔 안 신엇고요?)

106032 #2 옛날에도 신어보질 아이 헛수다.(옛날에도 신어보질 않았습시다.)

106032 @ 짚신은 안 신어보고?(짚신은 안 신어보고?)

106032 #2 짚신은 나온 거 해 봐도 우리 어린 때에, 요즘은 공연 ㄱ튼 거 할 때에 짚신 신어도 그냥 예점, 살명은 안 신어봤수다.(짚신은 나온 거 해 봐도 우리 어릴 때에, 요즘은 공연 같은 거 할 때에 짚신도 신어도 그냥 보통으로, 살면서는 안 신어 봤습시다.)

106032 @ 거 어디 강 사와?(거 어디 가서 사와?)

106032 #2 저 짚신마씨. 모슬포 좇는 하르방 잇수다.(저 짚신요. 모슬포 좇는 할 아버지 있습니다.)

106032 @ 아, 하르방이 잇구나예.(아, 할아버지가 잇구나.)

106032 #2 예, 이제도 짚신 좇는 하르방이 셔마씨.(예, 이제도 짚신 좇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106033 @ 그다음에 가죽신 신어봄디강? 가죽신?(그다음에 가죽신 신어봤습니까? 가죽신.)

106033 #2 가죽신은 구두계, 구두, 구두나벳기 더, 옛날 우리 처녀 때엔 그 히로 ㄱ튼 거 그거 ㄸ딱 거 가죽 구두 아이파?(가죽신은 구두요, 구두, 구두밖에 더, 옛날 우리 처녀 때엔 그 힐 같은 거 그거 모두 거 가죽 구두 아닙니까?)

106033 @ 히로?(힐?)

106033 #2 히로 영 높은 신발덜.(힐 이렇게 높은 신발들.)

106033 @ 아, 히로.(아, 힐.)

106033 #2 히로. 우리 처녀 때엔 저 부산 살 때엔 그런 것도, 그거 다 가죽으로 만든 거 아이파? 그거 신어봤수다.(힐. 우리 처녀 때엔 저 부산 살 때엔 그런 것도, 그거 다 가죽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106034 @ 그다음에 나막신?(그다음에 나막신?)

106034 #2 나막신도 안 신어봤수다.(나막신도 안 신어봤습시다.)

106034 @ 옛날 하르방덜은 나막신 신고, 신엇텐 허는디.(옛날 할아버지들은 나막신 신고, 신엇다고 하는데.)

106034 #2 우리 어린 때양, 하르방 신어난 거엔 허영 나막신 이만이 큰 것덜 봐 나긴 해서마씨. 켜디 신어보진 안 헛수다.(우리 어릴 때요, 할아버지 신엇던 거라고 해서 나막신 이만큼 큰 것들 봐 나긴 했어요. 그런데 신어보진 않았습시다.)

106034 @ 낭으로 췌 거양?(나무로 된 거요?)

106034 #2 예.(예.)

106034 @ 그러면은 가죽신 안 만들어 보니까 잘 모르겠네. 가죽신 멩그는 과정은 모르지양?(그러면은 가죽신 안 만들어 보니까 잘 모르겠네. 가죽신 만드는 과정은 모르지요?)



106034 #2 모릅시다게. 신은 만들어 보지 안 하고, 광목으로 카바 어린 때에 카바는 만들안 신어봤수다, 카바는. 그땐 기지엔 허민 광목벳기 더 셋수가게? 계난 아이덜 발 실히우민 양발덜 그 저 미녕 면양발이엔 이틀도 아니 강 고무줄이영 벗영 허당 보른 하루도 안 강 양발 터져불영, 계난 그 광목으로 카바 만들양예 그거 신어났수다.(모릅시다. 신은 만들어 보지 않고, 광목으로 커버 어릴 때에 커버는 만들어서 신어봤습니다, 커버는. 그땐 옷감이라고 하면 광목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발 시리면 양말들 그 저 무명 면양말이라고 이틀도 아니 가서 고무줄이랑 벗어서 하다가 모면 하루도 안 가서 양말 터져버려서, 그러니까 광목으로 커버 만들어서 그거 신었습니다.)

106034 @ 그 카바양 저 언제라도 하영 신어났어, 저 운동회 때.(그 커버요 저 언제라도 많이 신었었어, 저 운동회 때.)

106034 #2 예.(예.)

106034 @ 운동회 때도 그거 신었은예.(운동회 때도 그거 신어서.)

106034 #2 달리기 허곡양. 우리 어린 때도 경 헛수게.(달리기 하고요, 우리 어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106034 @ 옛날은 그 운동화가 엇어부난.(옛날은 그 운동화가 없어버리니까.)

106034 #2 예, 그 카바.(예, 그 커버.)

106034 @ 그냥 고무신이라부니까 카바 영 신어근에 그걸로 헤근에 들음박질 해야 돼어.(그냥 고무신이라 버리니까 커버 이렇게 신어서 그걸로 해서 달리기 해야 돼.)

106034 #2 게고 우리도 그거 이녁냥으로 곱게 만들도 못허곡 허여근에 늬 신은 거 막 고와베민 승네 념으로 허멍 신어났수다.(그리고 우리도 그거 이녁대로 곱게 만들지도 못하고 해서 남 신은 거 아주 고와 보이면 흥내 념으로 하면서 신었습니다.)

106034 @ 나막신 것도 안 멩글아보고양?(나막신 것도 안 만들어보고요?)

106034 #2 것도 만들어 보지 안 하고, 옛날 하르방 신어난 거 보민 이만씩 뒤치기영 앞부리영 허여근에 봐 나긴 허엿수다만은.(그것도 만들어 보지 안 하고, 옛날 할아버지 신었던 거 보면 이만큼씩 뒤치기랑 앞부리랑 해서 봐 나긴 했습니다만.)

106034 @ 계난 그것도 이제 저 자귀도 필요할 거고.(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 자귀도 필요할 거고.)

106034 #2 예게, 대패도 필요할 거고. 까깁 좋게 허젠 허믄.(예, 대패도 필요할 거고, 깎아서 좋게 하려고 하면.)

106034 @ 그다음에 끌도 필요할 거고.(그다음에 끌도 필요할 거고.)

106034 #2 예, 마께도 필요할 거고, 마께도 필요. 만든 건 봐나도 허는 과정도 안 봐 보고, 만든 건 봐봤수다.(예, 방망이도 필요할 거고, 방망이도 필요. 만든 건 봤어도 하는 과정도 안 봐 보고, 만든 건 봐봤습니다.)

106034 @ 거난 이제 나막신 멩글젠 허믄 우선 강 냥 끈차 와야 돼고.(그러니까

이제 나막신 만들려고 하면 우선 가서 나무 끊어 와야 되고.)

106034 #2 낭 끈차 와야 되고, 끌 사 와야 되고, 대패 있어야 되고.(나무 끊어 와야 되고, 끌 사 와야 되고, 대패도 있어야 되고.)

106034 @ 자귀.(자귀.)

106034 #2 자귀 있어야 되고, 그거.(자귀 있어야 되고, 그거.)

106034 @ 낭 방망이도 있어야.(나무 방망이도 있어야.)

106034 #2 예, 마께 잇어사 그거 박으멍 헐 거난.(예, 방망이도 있어야 그거 박 으면서 할 거니까.)

106035 @ 짚신 만드는 과정도 잘 모르고양?(짚신 만드는 과정도 잘 모르고요?)

106035 #2 짚신 만드는 과정은 눈으로 봐 나긴 헛수다.(짚신 만드는 과정은 눈 으로 봐 나긴 했습니다.)

106035 @ 계난에 짚으로.(그러니까 짚으로.)

106035 #2 짚으로 막 얇게.(짚으로 아주 얇게.)

106035 @ 거 마께로 막 두드렁 해야지양?(거 방망이로 마구 두드려서 해야지 요?)

106035 #2 마께로 막 두드리민 짚이양 부드러웁니다게, 계문 짚을 가늘게 짚을 꼬와마씨. 계문 영 신발 헐 만이 영 낡 이거는 끈 걸로 놓고 윙인 그냥 짚으로, 마 께로 두드린 걸 영 하나하나 허멍 그 저 꼬운 디에 어울리멍, 짚신 만드는 건 봐낫 수다.(방망이로 마구 두드리면 짚이 부드러웁니다, 그러면 짚을 가는게 짚은 꼬아 서. 그러면 이렇게 신발 할 만큼 이렇게 놔서 이거는 끈 걸로 놓고 옆에는 그냥 짚 으로, 방망이로 두드린 걸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그 저 끈 데에 어울리면서, 짚신 만드는 건 봤었습니다.)

106035 @ 들레는 무슨거로 허여, 신사라?(들레는 무엇으로 해, 뉴질랜드삼?)

106035 #2 아니, 그냥 내 것 보쿠가?(아니, 그냥 내 것 보겠습니까?)

106035 @ 아니, 나중에 보쿠다, 거난에 여기, 여기 영.(아니, 나중에 보겠습니 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106035 #2 아니, 아니. 계난 이런 디는 나가 곧지 안 헛디가? 막 2늘게 끈 짚 으로 끈 거 여기 딱 낡, 그걸로 다 허영, 이 요쪽에만 짚으로 막 곱게 허여십디다 게. 나신디 짚신 헐 댓 배 잇수다. 공연헐 때마다 가난양.(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런 데는 내가 말하지 않습디까? 아주 가늘게 끈 짚으로 끈 거 여기 딱 놔서, 그걸 로 다 해서, 이 요쪽에만 짚으로 아주 곱게 하였습니다. 나에게 짚신 한 댓 켄레 잇 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가니까요.)

106035 @ 어디 나감수가? 공연.(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공연.)

106035 #2 우리 모슬봉소리패엔 허연예 우리 안 가는 데 엇수다.(우리 '모슬봉 소리패'라고 해서 우리 안 나가는 데 없습니다.)

106035 @ 어디 제주시도 가고.(어디 제주시도 가고.)

106035 #2 제주시도, 제주시도 작년이 가고.(제주시도, 제주시도 작년에 가고.)

106035 @ 탐라문화제 헐 때.(탐라문화제 할 때.)

106035 #2 탐라문화제 헐 때 강 제주도에서 일등 허민 뒷헤엔 서울 감수계게. 우리 공주여, 어디 안 갔다 온 디 엇이 다 갔다 왔수다.(탐라문화제 할 때 일등 하면 내년엔 서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여, 어디 안 갔다 온 데 없이 다 갔다 왔습니다.)

106035 @ 잘 험구나, 나도 가끔 그런 디 강.(잘 하고 있구나, 나도 가끔 그런 데 가서.)

106035 #2 작년이 제주시에 간에 우리 최우수상 타 왔수다게. 서귀포 강 일등허민, 탐라문화제 제주시 강 일등 해야만 서울을 가는 거라. 우리 몇 번 경 허연.(작년에 제주시에 가서 우리 최우수상 타 왔습니다. 서귀포 가서 일등 하면, 탐라문화제 제주시 가서 일등 해야만 서울을 가는 거야. 우리 몇 번 그렇게 했어.)

106035 @ 하귀<sup>161</sup>)도 보면은.(하귀도 보면은.)

106035 #2 예.(예.)

106035 @ 그 서울 가근에.(그 서울 가서.)

106035 #2 일등 해야만 서울 가는 거난.(일등 해야만 서울 가는 거니까.)

106035 @ 대통령상도 받곡 해났수다.(대통령상도 받고 했었습니다.)

106035 #2 작년, 재작년인가 애월<sup>162</sup>)인가 어디 그 저 바닷가 그 저 영 그.(작년, 재작년인가 애월인가 어디 그 저 바닷가 그 저 이렇게 그.)

106035 @ 하귀, 하귀.(하귀, 하귀.)

106035 #2 하귀짱? 그거 영 허문, 그거 허연 일등 허연에 대통령상 타 왔수게. ('하귀'입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그거 해서 일등 해서 대통령상 타 왔습니다.)

106035 @ 거 우리 학교 바로 옆이우다게.(거 우리 학교 바로 옆입니다.)

106035 #2 예, 우리 알아마씨게. 우리도 자꾸 일등 허민 서울 가근에양 저 무신 거 자꾸 강 상도 타 오곡, 그건 제주도에서 일등 해야만 서울 올라가주, 어디 공주여 어디여.(예, 우리 알아요. 우리도 자꾸 일등 하면 서울 가서 저 무엇 자꾸 가서 상도 타 오고, 그건 제주도에서 일등 해야만 서울 올라가지. 어디 공주여 어디여.)

106035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35 #2 아리랑 고개여 가주, 여기서 떨어정은 못 갑니다.(아리랑 고개여 가지, 여기서 떨어져서는 못 갑니다.)

106035 @ 전국 거는 서울만 가는 건 아이라, 거 행사허는 디가 이십주게.(전국 거는 서울만 가는 건 아니야, 거 행사하는 데가 있지요.)

106035 #2 예게, 잇수다.(예, 있습니다.)

106036 @ 그다음에 짚신 종류는 없지양?(그다음에 짚신 종류는 없지요?)

106036 #2 짚신 종류는 그거 하나뿐이우다게.(짚신 종류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106036 @ 없지양, 짝으로 허는 거.(없지요, 짝으로 하는 거.)

161)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를 말한다.

162) '애월'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이다.

106036 #2 예, 예.(예, 예.)

106036 @ 산디 찍으론 안 허지양?(발벼 짚으론 안 하지요?)

106036 #2 나룩쪽으로 험니다게. 질겨야 될 거난, 나룩쪽으로 험니다.(벧짚으로 합니다. 질겨야 될 거니까, 벧짚으로 합니다.)

106036 @ 산디 찍은 별로 쓸모가 엇인 거 닙아.(발벼 짚은 별로 쓸모가 없는 거 같아.)

106036 #2 나룩쪽으로, 나룩.(벧짚으로, 벧.)

## 모자 등

106037 @ 그다음엔양, 모자 종류에 대허영 말헤줍서.(그다음엔요, 모자 종류에 대해서 말헤주십시오.)

106037 #2 옛날, 옛날 모자마씨?(옛날, 옛날 모자요?)

106037 @ 예, 예.(예, 예.)

106037 #2 옛날 우리 어린 때는 그 보리낭대 허연양 페랭이, 페랭이 즐안도 써 나고, 또 목장에 가근에 것보고 정동이엔 허는가?(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 보릿대 해서요 패랭이, 패랭이 결어서도 썼었고, 또 목장에 가서 것보고 땡땡이덩굴이라고 하는가?)

106037 @ 정동.(땡땡이덩굴.)

106037 #2 정동 헤단에 그 모자 짱도 써보고예.(땡땡이덩굴 헤다가 그 모자 짜서도 써보고요?)

106037 @ 그거 탕건인가?(그거 탕건인가?)

106037 #2 탕건 그거.(탕건 그거.)

106037 @ 망건?(망건?)

106037 #2 망건, 망건은 안 짜보고 페랭이식으로, 모자식으로양.(망건, 망건은 안 짜보고 패랭이식으로, 모자식으로요.)

106037 @ 총모자?(총모자?)

106037 #2 총모자, 말로.(총모자, 말로.)

106037 @ 그 저 말로 행.(그 저 말로 해서.)

106037 #2 그런 건 안 헤보고, 보릿대로 페랭이, 페랭이 즐안 그건 행 써보고, 또 정동 그저단에 그건 허연 써봤수다만은.(그런 건 안 헤보고, 보릿대로 패랭이, 패랭이 결어서 그건 해서 써보고, 또 땡땡이덩굴 가져다가 그건 해서 써봤수다만.)

106037 @ 거 탕건 닙다, 탕건.(거 탕건 같다, 탕건.)

106037 #2 탕건이 아니, 그냥 요런 모자식으로 넓게 허영은에양 그거 써봤수다만은 딴 건 안 헤봤수다.(탕건 아니, 그냥 요런 모자식으로 넓게 해서 그거 써봤수다만, 딴 건 안 헤봤수다.)

106038 @ 여름 모자허고 겨울 모자 틀리지 안 험니까양? 여름 모자는 페랭이.

(여름 모자하고 겨울 모자 다르지 않습니까? 여름 모자는 패랭이.)

106038 #2 여름 모자는 패랭이. 겨울 모자는게, 뭐 천, 옛날 오바 가튼 거, 오바 가튼 거, 예를 들었은에 거 헌 것덜 시몬 것덜 짤랑.(여름 모자는 패랭이. 겨울 모자는요, 뭐 천, 옛날 오버 같은 거, 오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거 헌 것들 있으면 그것들 잘라서.)

106038 @ 감태엔 허지 안 험니까양?(감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106038 #2 예. 저 옛날 저 영 허영은에 그냥 영 홀트는 거.(예. 저 옛날 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훑는 거.)

106038 @ 감태.(감태.)

106038 #2 예, 그거 어린 때 써근에 놀레도 다니고.(예, 그거 어릴 때 써서 놀러도 다니고.)

106039 @ 양태 알아지쿠가? 양태, 잘 모르쿠가?(양태 알 수 있습니까? 양태, 잘 모르겠습니까?)

106039 #2 예, 양태는 들어보지 못했수다.(예, 양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06040 @ 아까 총모자?(아까 총모자?)

106040 #2 총모자는 저 뭇총으로 허는 것보고 총모자엔 허지 안 험니까?(총모자는 저 말총으로 하는 것보고 총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106040 @ 예.(예.)

106040 #2 거 말은 들어나도 즈는 건 안 봐 봤수다.(거 말은 들었어도 곁는 건 안 봐 봤습니다.)

106042 @ 탕건, 아까 정동으로 헌 거.(탕건, 아까 땡땡이땡굴로 한 거.)

106042 #2 예, 탕건은 옛날 하르방덜, 뭐 헌 하르방덜은 탕건이엔 허영 써낫수게. 거 무슨 제사라도 지내젠 허든 탕건 썩 뭐 험도 허곡 허는디 그거 봐 나긴 해도 즐아 보진 안 헛수다.(예, 탕건은 옛날 할아버지들, 뭐 한 할아버지들 탕건이라고 해서 썼었습니다. 거 무슨 제사라도 지내려고 하면 탕건 써서 뭐 하기도 하는데 그거 봐 나긴 해도 곁어 보진 안 했습니다.)

106042 @ 탕건은 저 일헐 때 쓰는 거 아니, 탕건?(탕건은 저 일할 때 쓰는 거 아니, 탕건?)

106042 #2 탕건은 옛날 그 저 아까 그 저 정동 허민 거 탕건이엔 험니까? 영 놀개 싯곡.(탕건은 옛날 그 저 아까 그 저 땡땡이땡굴 하면 탕건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날개 있고.)

106043 @ 거 망건 닳다, 망건.(거 망건 같다, 망건.)

106043 #2 호호,(웃음) 그런 건 봐 나도.(호호,(웃음) 그런 건 봐 나도.)

106043 @ 망건 아니우짜? 망건.(망건 아닙니까? 망건.)

106043 #2 모르쿠다게, 그건. 그런 건 봐 나긴 허연, 하르방덜 옛날 곤 옷 입영은에 이거 영 써근에 영 허연 영 앓앙 노는 건 봐낫수만은.(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런 건 봐 나긴 했어, 할아버지들 고운 옷 입어서 이거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이

렇게 앉아서 노는 건 봤었습니다만.)

106043 @ 거난 망건도 잘 모르고양?(그러니까 망건도 잘 모르고요?)

106043 #2 예.(예.)

106044 @ 그다음에 도롱이, 도롱이 옛날 새로 허영 만드는 것덜.(그다음에 도롱이, 도롱이 옛날 띠로 해서 만드는 것들.)

106044 #2 도롱이?(도롱이?)

106044 @ 저 비 올 때.(저 비 올 때.)

106044 #2 주쟁이?(주저리?)

106044 @ 아, 주쟁이는 거 놀에, 놀에 허는 거고.(아, 주저리는 거 가리에, 가리에 하는 거고.)

106044 #2 아, 비 오민 느람지<sup>163)</sup> 식으로 행 영 영 쓰는 거. 봐나도 우리 어린 때는 그거 못양 쓰는 사람은 봐나도양, 우리 경우엔 그걸 허여보질, 만들안 써 보진 안 했수다.(아, 비 오면 ‘느람지’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스는 거. 봤어도 우리 어릴 때는 그거 맺어서 쓰는 사람은 봤어도요, 우리 경우엔 그걸 해보질, 만들어서 써 보진 안 했습니다.)

106044 @ 그거 저 주쟁이하고 놀에는, 주쟁이허고 느람지, 그거.(그거 저 주저리하고 가리에, 주저리하고 ‘느람지’, 그거.)

106044 #2 느람지도 여평에 놀 우의 더꺼도 보고 주쟁이도 나냥으로 여평 더꺼 보고 다 헤신디, 거 아까 망건인가 뭐는 안 해 봤수다.(‘느람지’도 엮어서 가리 위에 덮어도 보고 주저리도 나대로 엮어서 덮어 보고 다 했는데, 거 아까 망건인가 뭐는 안 해 봤습니다.)

106044 @ 거난 도롱이는 비 올 때 쓰는 거.(그러니까 도롱이는 비 올 때 쓰는 거.)

106044 #2 영 허영 느람지 식으로.(이렇게 해서 ‘느람지’ 식으로.)

106044 @ 거난 저 비웃, 비웃이주마씨.(그러니까 저 비웃, 비웃이지요.)

106044 #2 겐디 주쟁이도 느람지도 나냥으로 아방 직장 가불민 나냥으로 느람지 여평 우이 더꺼 보고 주쟁이도 우리 집 아방<sup>164)</sup>이 못 만들민 저 새 혼 못 허영은에 영 영 허당 막 네 개로 허영.(그러니까 주저리도 ‘느람지’도 나대로 ‘아방’ 직장 가버리면 나대로 ‘느람지’ 엮어서 위에 덮어 보고 우리 집 ‘아방’이 못 만들면 저 띠 한 못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구 네 개로 해서.)

106044 @ 그거 힘들어.(그거 힘들어.)

106044 #2 경해도 허영 그추록 네 개가 영 허영 해야만 물 안 들어갑니다. 주쟁인 잘 여퍼서마씨, 느람지. 호호.(웃음)(그래도 해서 것처럼 네 개가 이렇게 해서 해야만 물 안 들어갑니다. 주저리는 잘 엮었어요. 이영 호호.(웃음))

106044 @ 이제부터 헝끔 쉬울 거우다. 밥허고 국에 대헌 거난.(이제부터 조금

163) ‘느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164)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쉬울 것입니다. 밥하고 국에 대한 거니까.)

106044 #2 호호.(웃음)(호호.(웃음))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계난 그 밥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까?(그러니까 그 밥 종류는 어떤 것들 잇습니까?)

107001 #2 밥 종류는 우리 어린 땐 보민 보리쌀, 보리밥, 보리밥 죽장 헨 먹어 십주. 또 흐끔 뉘 헨 땐 풋이나 하나씩 서경 낱 먹고.(밥 종류는 우리 어릴 땐 보민 보리쌀, 보리밥, 보리밥 줄곧 해서 먹었습지요.)

107001 @ 풋밥.(팔밥.)

107001 #2 풋밥, 경허고 또 큰일 때나 뉘사 보리쌀에 곤쌀에 풋 낱 밥허민 질 맛 좋든 허영 경 허영 먹곡, 조팍 허영 먹곡 그겹주게. 범벅 행 먹곡, 감제 범벅, 지슬 범벅 경 허연 먹어십주.(팔밥, 그리고 또 큰일 때나 돼야 보리쌀에 흰쌀에 팔 놔서 밥하면 질 맛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그거지요. 범벅해서 먹고, 고구마 범벅, 감자 범벅, 그렇게 해서 먹었지.)

107001 @ 조팍, 보리밥.(조밥, 보리밥.)

107001 #2 또 감저 낱 감저밥도 행 먹고.(또 고구마 놔서 고구마밥도 해서 먹고.)

107001 @ 감저허고 보리, 조, 조 낱 허지예.(고구마하고 보리, 조, 조 놔서 하지요.)

107001 #2 좁쌀 낱도 감저 낱은에 경 허영 먹읍니다게.(좁쌀 놔도 고구마 놔서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107001 @ 좁쌀, 좁쌀. 보리, 보리는 안 뉘어.(좁쌀, 좁쌀. 보리, 보리는 안 돼.)

107001 #2 예, 보리엔, 보리에도 무사 감저 썰어낱 밥 험니다.(예, 보리엔, 보리에도 왜 고구마 썰어놔서 밥합니다.)

107001 @ 계난 이 저.(그러니까 이 저.)

107001 #2 그 쌀 잊이민게, 밥 불리젠 감저 놓는 겹주게.(그 쌀 없으면요, 밥 불리려고 고구마 넣는 거지요.)

107001 @ 옛날 그 저 소풍갈 때 득새기 하나 낱은에 세우리 쳐 썰어 낱은에.(옛날 그 저 소풍갈 때 달갈 하나 놔서 부추 쳐 썰어 놔서.)

107001 #2 예, 맞수다게, 불리젠. 예게, 옛날엔 그처럼 하영 헛수다.(예, 맞습니다, 불리려고. 예게, 옛날엔 것처럼 많이 헛습니다.)

107002 @ 밥쌀 종류덜 잊지 안 허우파양? 밥쌀, 밥쌀 종류.(밥쌀 종류들 잇지 않습니까? 밥쌀, 밥쌀 종류.)

107002 #2 밥쌀 종류, 보리쌀, 곤쌀, 대죽쌀, 피쌀, 피이, 기장, 기장, 그것벧기 더 잇수가?(밥쌀 종류, 보리쌀, 흰쌀, 수수쌀, 피쌀, 피, 기장, 기장, 그것밖에 더 잇습니까?)

107002 @ 좁쌀.(좁쌀.)

107002 #2 좁쌀, 기장, 대죽, 대죽쌀, 그것벧기 엇엇수다게, 옛날.(좁쌀, 기장, 수수, 수수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107003 @ 그 보리밥에 대허영 흐끔 곶아줍서, 보리밥 멩글 때.(그 보리밥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십시오, 보리밥 만들 때.)

107003 #2 보리밥은양, 보리쌀 시청 보리쌀 레영, 불 솜양 밥을 켈 거 아이우 파? 레른 이젠 보리쌀 퍼지도록 불 꺼주왕 거 보리쌀 흐끔 영 뜸 들이민 보리쌀이 퍼집니다.(보리밥은요, 보리쌀 씻어서 보리쌀 끓여서, 불 때어서 밥을 끓일 거 아닛니까? 끓이면 이젠 보리쌀 퍼지도록 불 꺼서 거 보리쌀 조금 이렇게 뜸 들이면 보리쌀이 퍼집니다.)

107003 @ 빨왕, 빨왕.(갓혀서, 갓혀서.)

107003 #2 예, 경허민 그때 불 살왕 빨와가민 물이 브작허게 허영은에 허민 아래 낭으로 허영 헐 때는 아래 잉경이 잇으니까 밥이 푸달푸달허게 맛싯곡, 검질 불은 허당 꺼져불민, 탁 꺼져불지 아이 험니까게. 경허민 밥이 낭 불로 험 밥만이 맛이 엇어마씨. 뜸이 아니 밋테 잉경이 엇이난예, 덜 뜸 저.(예, 그러면 그때 불 살려서 갓혀가면 물이 바삭하게 해서 하면 아래 나무로 해서 할 때는 아래 잉결불이 잇으니까 밥이 걸쭉하게 맛있고, 검불 불은 하다가 꺼져버리면, 탁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이 나무 불로 한 밥만큼 맛이 없어요. 뜸이 아니 밑에 잉결불이 없으니까요, 덜 뜸 저.)

107003 @ 나중에 솟두껍이 우에 잉경 영 더끄기도 험니까?(나중에 솟뚜껍 위에 잉결불 이렇게 덮기도 합니까?)

107003 #2 그거는 옛날 제사 때 곤밥을 허젠 허민 쌀 낭 곤밥을 허젠 허민 잉경 우터레 놓는 건 알로 영 허민 곤쌀은 밥허기가 그렇게 구집니다게. 게난 그 위로 잉경 담아 노민 그 위로 뜨신 뿔로 허영 밥이 잘 돼어마씨. 경 허영 불채, 그 불을 그 솟두껍 우터레 올려 낫수게, 밥을 맛있게 허젠. 경 헛수다. 보리밥은 경 안헤신디 곤밥은 경 헛수다.(그거는 옛날 제사 때 흰밥을 하려고 하면 쌀 뇌서 흰밥을 하려고 하면 잉결불 위로 놓는 건 아래로 이렇게 하면 흰쌀은 밥허기가 그렇게 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 잉결불 담아 놓으면 그 위로 따듯한 무엇으로 해서 밥이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재, 그 불을 그 솟뚜껍 위에 올려놨습니다, 밥을 맛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리밥은 그렇게 안 했는데 흰밥은 그렇게 했습니다.)

107004 @ 그다음에 이 반지기밥<sup>165</sup>?(그다음에 이 ‘반지기밥’?)

107004 #2 반지기밥은 팯 놓고 보리쌀 낭은에 솜양 흐끔 뜸 들영 다음엔 좁쌀, 좁쌀 우터레 허쳐근에 뜸 들이민 그것이 뉘 뉘주게.(반지기밥은 팥 넣고 보리쌀 넣

165)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이다.



어서 삶아서 뜸 들여서 다음엔 좁쌀, 좁쌀 위로 흠어서 뜸 들이면 그것이 뭐 되지요.)

107004 @ 거난 반지기밥은 그 보리쌀하고 좁쌀 놔도 반지기밥이고.(그러니까 반지기밥은 그 보리쌀하고 좁쌀 놔도 반지기밥이고.)

107004 #2 곤쌀로도 되고, 곤쌀 놔도 반지기밥이고. 켜디 반지기밥이엔 흰 건 좁쌀 놓지 아니허영 곤쌀을 놔야 반지기밥이 돼십주. 계민 옛날엔 쌀 엇영 요 씨아 방이나 서방이나 요 맛 좋게 행 주젠 허민 곤쌀을 한쪽더레만 낵.(흰쌀로도 되고, 흰쌀 놔도 반지기밥이고. 그런데 반지기밥이라고 한 건 좁쌀 놓지 아니해서 흰쌀을 놔야 반지기밥이 됐습지요. 그러면 옛날엔 쌀 없어서 요 시아버지나 서방이나 이렇게 맛 좋게 해서 주려고 하면 흰쌀을 한쪽으로만 놔서.)

107004 @ 혼쪽.(한쪽.)

107004 #2 혼쪽더레만 낵 그거 거러 땡.(한쪽으로만 놔서 그거 떠 뒤서.)

107004 @ 짓지 아니허영은에.(짓지 않아서.)

107004 #2 예, 짓지 아니허영 밥 거릴 땡 그거 곤밥 줄 사름만 그거 흥끔 영 허 영 거러땡 서꺼근에 거러십주. 계민 그건 반지기밥.(예, 짓지 않아서 밥 뜰 땡 그거 흰밥 줄 사름만 그거 조금 이렇게 해서 떠뒤서 섞어서 땡습지요. 그러면 그건 반지기밥.)

107004 @ 나도 학교 텡길 때 곤쌀 조금 낵게.(s도 학교 다닐 때 흰쌀 조금 놔서.)

107004 #2 예.(예.)

107004 @ 보리밥에 낵.(보리밥에 놔서.)

107004 #2 한쪽에 낵양, 호호호.(웃음)(한쪽에 놔서요, 호호호.(웃음))

107004 @ 거 벤또에 담양 가낵주.(거 도시락에 담아서 갔었지.)

107004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04 @ 그냥 보리밥만 허민 늡 웃엄직허고, 곤쌀 쪼금 놔근에.(그냥 보리밥만 하면 낵 웃을 것 같고, 흰쌀 쪼금 놔서.)

107004 #2 아이고, 그것도 막 잘 사는 집이 경 헛주. 우린 아이덜 헛 때에 경도 아니허연 보리밥도 쌍 보내낵수다.(아이고, 그것도 아주 잘 사는 집에 그렇게 했지. 우린 아이들 할 때에 그렇게도 안 해서 보리밥도 싸서 보냈습니다.)

107004 @ 보리밥, 거난 이 반지기밥은 나중에 납작보리쌀 나올 때.(보리밥, 그러니까 이 반지기밥은 나중에 납작하게 누른 보리쌀 나올 때.)

107004 #2 납작보리쌀 밥이 맛 좋읍니다.(납작하게 누른 보리쌀 밥이 맛 좋읍니다.)

107004 @ 예, 납작보리쌀, 보리쌀 영 쪼금 익혀근에 영 늘른 거지예?(예, 납작하게 누른 보리쌀, 보리쌀 이렇게 쪼금 익혀서 이렇게 누른 거지예?)

107004 #2 예, 예, 납작헌 보리쌀. 그 밥은, 그 밥은 맛 좋읍니다게.(예, 예, 납작한 보리쌀. 그 밥은, 그 밥은 맛 좋읍니다.)

107004 @ 나 자취할 때 그거 헨에 납작보리쌀로.(나 자취할 때 그거 해서 납작하게 누른 보리쌀로.)

107004 #2 납작보리쌀 밥은양, 곤밥 비습치게 맛 좋아마씨.(납작하게 누른 보리쌀 밥은요, 흰밥 비슷하게 맛 좋아요.)

107004 @ 밥도 빨리 돼어.(밥도 빨리 돼.)

107004 #2 예. 호호호.(웃음)(예. 호호호.(웃음))

107005 @ 그다음에 곤밥에 대허영 혼변 곱아줍서, 곤밥.(그다음에 흰밥에 대하여 한번 말해주십시오, 흰밥.)

107005 #2 곤밥은 옛날은 논 신 사름덜은 나룩 갈앙은에 제사 때라도 밥을 허른 맛이 좋고, 또 논 엇엉 밧디 산디 간 사름덜은 그 곤밥을 허여도양 가실락허여근에 맛이 엇어마씨.(흰밥은 옛날은 논 있는 사람들은 며 같아서 제사 때라도 밥을 하면 맛이 좋고, 또 논 없어서 밧에 밧며 간 사람들은 그 흰밥을 해도요 진기가 없어서 맛이 없어요.)

107005 @ 모여, 모여.(메져, 메져.)

107005 #2 모영 밥도, 찍도 나도 아니허고, 시빨경, 벌그렁 툄툄한 게 하고.(메져서 밥도, 짚도 나도 앓고, 시빨경고, 벌경고 툄툄한 게 많고.)

107005 @ 그때 산디라도 이시민 다행이주.(그때 밧벼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107005 #2 맛수다게, 그 밥도 엇언 못 먹엇수게.(맛습니다, 그 밥도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107005 @ 거난 이 구역리렌 논 없지양?(그러니까 구역리로는 논 없지요?)

107005 #2 우리 집이 사름은 흥구물<sup>166)</sup> 논 시난 나신디고라.(우리 집에 사름은 ‘흥구물’ 논 있으니까 나에게.)

107005 @ 아, 물 나는 디 잇수강?(아, 물 나는 데 있습니까?)

107005 #2 예, 논을, 웨가에 논덜 논을 웨가에 막 부젯칩이라난 논 물련에 나완 보난 나룩 허연 그걸로 먹엄십디다.(예, 논을, 외가에 논들 논을 외가에 아주 부젯집이니까 논 물려서 나 와서 보니까 며 해서 그걸로 먹고 있습니다.)

107005 @ 옛날 거 식게허렌.(옛날 거 제사하라고.)

107005 #2 예, 예.(예, 예.)

107005 @ 논 물려줘낫주게.(논 물려줬었지요.)

107005 #2 논 엇인 사름은 산디 갈앙 산디 벌경허민 밥도 허민 그 밥을 그렇게 맛 좋게 먹엇수다.(논 없는 사람은 밧며 같아서 밧며 벌거면 밥도 하면 그 밥을 그렇게 맛 좋게 먹었습니다.)

107005 @ 허영허난.(허여니까?)

107005 #2 예, 곤밥이엔 허영. 호호호.(웃음)(예, 흰밥이라고 해서. 호호호.(웃음))

107005 @ 곤밥이엔 허여근에.(흰밥이라고 해서.)

---

166) ‘흥구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에 있는 봉천수이다.

107005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05 @ 거난 식게 때난 곤밥 먹주, 무신.(그러니까 제사 때니까 흰밥 먹지, 무슨.)

107005 #2 아이고, 예게. 식게 때도 곤밥, 제사 때면 흐끔씩 켜당덜 왕 거려 주당 보민 어떤 땐 족으민 주인은 못 먹을 때가 한한헛수다. 경 풍부허게 허지 못허영.(아이고, 예게. 제사 때도 흰밥, 제사 때면 조금씩 친척들 와서 떠 주다가 보면 어떤 땐 적으면 주인은 못 먹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풍부하게 하지 못해서.)

107005 @ 계난 저 잔치헛 때 허고.(그러니까 저 잔치할 때 하고.)

107005 #2 잔치헛 때도 잘 사는 집인 곤밥 허멍 뵈엿주만은 못 사는 딘 보리쌀에 풋에 곤쌀 하나씩 서경.(잔치할 때도 잘 사는 집에는 흰밥 하면서 먹었지만 못 사는 데는 보리쌀에 팔에 흰쌀 하나씩 섞어서.)

107005 @ 아이, 계난 먹는 건 보리에 풋 낱에 먹어서.(아니, 그거니까 먹는 건 보리에 팔 놔서 먹어서.)

107005 #2 나 시집완 보난 우리 시어멍 곤밥으로만 험십디다. 다른 디덜은 다 보리밥 험신디.(나 시집와서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흰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보리밥 하고 있는데.)

107005 @ 그 보리쌀 흐두 뵈 허영은에 잔치 먹으레 가민.(그 보리쌀 한두 되해서 잔치 먹으러 가면.)

107005 #2 구덕에 밥.(바구니에 밥.)

107005 @ 구덕에 저 영 할망, 하르방 이시민 곤쌀, 곤밥 흐 사발 정도 허영 놓고, 그다음에 보리밥으로 허영은에.(바구니에 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흰쌀, 흰밥 한 사발 정도 해서 넣고, 그다음에 보리밥으로.)

107005 #2 보리밥, 아이고 경 헛수다게, 우리도. 호호호.(웃음)(보리밥 , 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호호호.(웃음))

107005 @ 나도 그런 디 으망저난 모양이라. 잔치 먹으레 갈 때 꼭 나 데령 가.(나도 그런 데 똑똑헛던 모양이야. 잔치 먹으러 갈 때 꼭 나 데려서 가.)

107005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05 @ 강은에 주민 먹영.(가서 주면 먹어서.)

107005 #2 고기도 경 무신 석 점 쥐도 경 큰 건 아니고 요멘씩 헛 거 석 점에 묵 지진 거 하나 주민 그것이 무사 경 맛 좋앗수다.(고기도 그렇게 무슨 석 점 쥐도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요만큼씩 한 거 석 점에 묵 지진 거 하나 주면 그것이 왜 그렇게 맛 좋았습니다.)

107005 @ 아, 계난 췌기 석 점에 수에 흐 점게.(아, 그러니까 고기 석 점에 순대 한 점요.)

107005 #2 예, 그거 오죽 맛 좋앗수가? 지지미 하나 지정 하나 썰어 놓곡 허영.(예, 그거 오죽 맛 좋았습니까? 부침개 하나 지지서 하나 썰어 놓고 해서.)

107005 @ 옛날게 그 잔치집이.(옛날 그 잔치집에.)  
 107005 #2 독새기 하나가.(달걀 하나가.)  
 107005 @ 독새기 하나 먹젠.(달걀 하나 먹으려고.)  
 107005 #2 새각시 방에 스룻 모영 보명양. (새색시 방에 사룻 모여서 보면서요.)  
 107005 @ 계난 그디 셤 사름 시민 독새기 혀나 얻어먹지도 못허여.(그러니까 거기 셤 사람 있으면 달걀 하나 얻어먹지도 못해.)  
 107005 #2 맞수다게. 호호호.(웃음)(맞습니다. 호호호.(웃음))  
 107005 @ 계도 그 새각시허고 좀 가까운 사름이.(그래도 그 새색시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107005 #2 경 험에 강 영 뵙 독새기 하나 주민 먹곡, 하나가 쥐젯수가? 반착이나 쫓주. 호호호.(웃음)(그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봐서 달걀 하나 주면 먹고, 하나가 쥐젯습니까? 반쪽이나 쫓지. 호호호.(웃음))  
 107005 @ 그때 독새기값이나 지금 독새기값이나 마찬가지로 아니우파예?(그때 달걀값이나 지금 달걀값이나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107005 #2 예.(예.)  
 107005 @ 그때도 백 원이라.(그때도 백 원이야.)  
 107005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05 @ 지금도 백 원이지만.(지금도 백 원이지만.)  
 107005 #2 그때 당시엔 독새기 먹어젯수가? 그거 폴양 아이덜 책 사주고 비누 사곡 허당 보민, 아이덜 이젠 쥐도 안 먹엄수게.(그때 당시엔 달걀 먹었습니까? 그거 팔아서 아이들 책 사주고 비누 사고 하다가 보면, 아이들 이젠 쥐도 안 먹고 있습니다.)  
 107005 @ 그니까.(그러니까.)  
 107005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05 @ 그뻘 독새기 값이 비쌌주마썸.(그뻘 달걀 값이 비쌌지요.)  
 107005 #2 독새기덜 허연에 스룻 돈 메왔수게.(달걀들 해서 사룻 돈 모였습시다.)  
 107005 @ 계난에 집이서도 보면 제주도에서는 일 강정<sup>167)</sup> 허지 안 험니까게, 일 강정.(그러니까 집에서도 보면 제주도에서는 일 강정 하지 않습니까, 일 강정.)  
 107005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05 @ 이 강정이 강정천 이시난에 그 논농사를 하영 헛어, 법환리<sup>168)</sup>허고 강정.(이 강정이 ‘강정천’ 있으니까 그 논농사를 많이 헛어, 법환리하고 강정.)  
 107005 #2 맞수다게, 논이 하우게, 그 말 맞수다.(맞습니다, 논이 많습시다, 그 말 맞습시다.)  
 107005 @ 옛날 거기.(옛날 거기.)

167) ‘강정’은 서귀포시 강정동이다. 여기는 강정천이 흐르고 있어 제주도에서 논농사를 제일 많이 했던 곳이다.

168) ‘법환리’는 서귀포시 법환동으로, 강정천을 사이에 두고 논농사를 했던 마을이다.

107005 #2 저 난드르<sup>169</sup>허고.(저 ‘난드르’하고.)

107005 @ 옛날 이 처녀들은 이 웃드르<sup>170</sup>에 시집도 안 와서, 그때는.(옛날 이 처녀들은 이 ‘웃드르’에 시집도 안 와서, 그때는.)

107005 #2 호호호.(웃음) 맞추다게.(호호호.(웃음) 맞습니다.)

107005 @ 우리 동네도양.(우리 동네도요.)

107005 #2 우리 시집은 때도, 나 시집을 때만 해도 이 동네, 구역, 그 스뭇 구역 구석에 물 멀꼭 뵈 허젠 시집을 감시넨 헤낫수다, 이젠, 참 이젠 영어교육도시 들어 오꼭 이젠.(우리 시집은 때도, 나 시집을 때만 해도 이 동네, 구역리, 그 사뭇 구역 리 구석에 물 멀고 뵈 하려고 시집을 가고 있느냐 했었습니다. 이젠, 참 이젠 영어 교육도시 들어오고 이젠.)

107005 @ 이젠 완전 구역 뵈불언.(이젠 완전 구역 돼버렸어.)

107005 #2 이젠 구역 뵈불어십주. 진짜 밧 신 사름은 밧 억도 백억도 아무것도 아니. 좋아, 이젠.(이젠 구역 돼버렸지. 진짜 밧 있는 사름은 밧 억도 백억도 아무것도 아니. 좋아, 이젠.)

107005 @ 우리 그 저 색달리<sup>171</sup>도 옛날 보면은 중문면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라.(우리 그 저 색달리도 옛날 보면은 중문면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야.)

107005 #2 맞추다게.(맞습니다.)

107005 @ 색달리.(‘색달리’.)

107005 #2 나도 그 우리 삼촌 사난에 알려져마씨. 호호호.(웃음)(나도 그 우리 삼촌 사니까 알아요. 호호호.(웃음))

107005 @ 경현디 이제는 완전히 꺼꾸로 뵈불언.(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꺼꾸로 돼버렸어.)

107005 #2 이젠 거기가, 색달리가.(이젠 거기가, 색달리가.)

107005 @ 아, 색달리가 최고라 이젠.(아, 색달리가 최고야 이젠.)

107005 #2 아, 아.(아, 아.)

107005 @ 거기는 지금 강 보민 알주만은.(거기는 지금 가서 보면 알지만은.)

107005 #2 아니, 차가 길로 영 가당 보민.(아니, 차가 길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107005 @ 식당이영 뵈영.(식당이랑 뵈랑.)

107005 #2 맞추다게.(맞습니다.)

107005 @ 이제 최고라.(이제 최고야.)

107005 #2 펜션이영 막 짓어십디다.(펜션이랑 마구 지었습니다.)

107005 @ 예.(예.)

107005 #2 맞추다게. 거기 또 낭밭덜이 시난양, 요즘덜은 좋암수다게.(맞습니다. 거기 또 나무밭들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좋습니다.)

169) ‘난드르’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의 옛 지명이다.  
 170)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이다.  
 171) ‘색달리’는 서귀포시 색달동을 말한다.

107005 @ 낭밭덜 본토베기 가진 사름덜 얼마 안 됩니다.(나무밭들 본토박이 가진 사름덜 얼마 안 됩니다.)

107005 #2 문딱 육지 사름덜.(모두 육지 사름덜.)

107005 @ 다 풀아불언. 계난 다 폭난에.(다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다 파니까.)

107005 #2 우리 구역리도 밧 아니 풀양 놔둔 사름은 벼락 부재 돼고, 폰 사름덜은 가난헛수다게.(우리 구역리도 밧 안 팔아서 놔둔 사름은 벼락 부자 되고, 판 사름들은 가난했습니다.)

107005 @ 다 마찬가지로.(다 마찬가지로.)

107005 #2 계난 풀양 사저시민 흐주만은 쓰당 보문 사도 못허여마씨.(그러니까 팔아서 사졌으면 하지만은 쓰다가 보면 사도 못해요.)

107005 @ 못 삽니다게. 땅 값은 올라불고.(못 삽니다. 땅 값은 올라버리고.)

107005 #2 계난 우리 집의사름, 우린 두갯이가 이제도록 벌명 사 놉 하나 풀아 먹도 못허고, 이제도록 우린 고생허고 사난 아이덜은, 아기덜은.(그러니까 우리 남편, 우린 부부가 이제까지 벌면서 사 놉 하나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우린 고생하고 사니까 아이들은, 아기들은.)

107005 @ 자식덜만 좋쿠다.(자식들만 좋겠습니다.)

107005 #2 자식덜만 좋은 거.(자식들만 좋은 거.)

107005 @ 완전.(완전.)

107005 #2 자식덜만 좋을 거.(자식들만 좋을 거.)

107005 @ 자식덜은 좋은 거마씨, 계난 우리 집의사름 딱 환갑이 돼난 이거 이제 사름 이레 살당 어느 시간에 어떻 허영 죽어질 거 모르난 나 산 때에 아이덜 문딱 일 치러볼켄 허연 환갑 때 문딱 아이덜 갈라쥬. 작년, 재작년까지 문딱 이전, ㅋ 쿨 해줘볼엇수다. 계난 이제 우리 할망 하르방은.(자식들은 좋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딱 환갑이 되니까 이거 이제 사람 이리 살다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해서 죽을 거 모르니까 나 산 때에 아이들 모두 일 치러버리겠다고 해서 환갑 때 모두 아이들 나눠줬어. 작년, 재작년까지 모두 이전, 깨끗이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107005 @ 다 주지랑 맵서.(다 주지랑 마십시오.)

107005 #2 다 쥐 불엇수다게.(다 쥐 버렸습니다.)

107005 @ 아이, 다 주지 말아.(아니, 다 주지 말고.)

107005 #2 나 요 저 태양열 현 거 천 평짜리 그거 허연에 그거 하나 된 잇수다.(나 요 저 태양열 한 거 한 천 평짜리 그거 해서 그거 하나 뒤서 있습니다.)

107005 @ 나 아는 사름은 다 췌단에 막 후회헬서.(나 아는 사름은 다 췌다가 아주 후회하고 있어.)

107005 #2 예, 예.(예, 예.)

107005 @ 왜냐, 쥐부난에 이 효자 노릇 허는 놈이 아무도 없다는 거라, 자식이.(왜냐, 쥐버리니까 이 효자 노릇 하는 놈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식이.)

107005 #2 계도 사는 거만 봐도 좋습니다게.(그래도 사는 거만 봐도 좋습니다.)

107005 @ 가진 거 없어 노난에 어디 강 돈 쓰지도 못허고.(가진 거 없어 놓으니까 어디 가서 돈 쓰지도 못하고.)

107005 #2 계난 아니 우린 아방<sup>172)</sup> 한전에 다니명 연금도 타는 거 싯고 그거만 나와도양, 우리 생전에 먹영 살아마씨. 호호.(웃음)(그러니까 아니 우린 ‘아방’ 한전에 다니면서 연금도 타는 거 있고 그것만 나와도요, 우리 생전에 먹어서 살아요. 호호.(웃음))

107005 @ 아이, 경 해도, 저.(아니, 그렇게 해도, 저.)

107005 #2 그거 천 평짜리 하나 노후대책으로 ㄱ정 잇수다.(그거 천 평짜리 노후대책으로 가져 있습니다.)

107005 @ 천 평, 그 정도라도 이시난 다행이우다.(천 평, 그 정도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107005 #2 이제 그거 하나만 풀아도 일 안 허영 ㄱ만이 앓아뒀 먹영 삽니다.(이제 그거 하나만 팔아도 일 안 해서 가만히 앓아뒀서 먹어서 삽니다.)

107005 @ 계난 일 안 허영 ㄱ만이 앓이민 아프곡.(그러니까 일 안 해서 가만히 앓으면 아프고.)

107005 #2 아이고, 일 아니 험도, 일 아니 허는 것도.(아이고, 일 안 함도, 일 안 하는 것도.)

107005 @ 아파.(아파.)

107005 #2 이 주변에 이거 죽은아덜네 하우스 다 쳐 놓으난 그자 검질 나가도 눈으로 보영 안 해 주도 못허곡.(이 주변에 이거 작은아들네 하우스 다 쳐 놓으니까 그자 김 나가도 눈으로 보여서 안 해 주지도 못하고.)

107005 @ 잘 험수다.(잘 하고 있습니다.)

107005 #2 난 농산 딱 설러볼어도, 또 큰아덜 미깡 스텐오백 평 쥘 놔두난 시에 간 주류 장시 허명 인부 데리명 혼 열대여섯 데령 그거 도 전체 그거 허난, 이제 과수원도 누게 쥐뿔센 허난 나 허당 거난 늬 주민 그 췌끔벳기 안 받을 거난.(난 농사는 딱 치워버려도, 또 큰아들 굴 사천오백 평 쥐서 놔두니까 시에 가서 주류 장시 하면서 인부 데리면서 한 열대여섯 데려서 그거 도 전체 그거 하니까, 이제 과수원도 누구 쥐버리라고 하니까 나 하던 거니까 남 주면 그 조금밖에 안 받을 거니까.)

107005 @ 안 돼어.(안 돼.)

107005 #2 나 죽기 생전 해 먹을 거난, 어머니 죽기 생전 해 먹읍서 허난, 지 이름에 다 허난 허고. 쥬 그거 큰아덜네 께 작년부터 그거 허난 올리도 폰난 오천만 원 뵈디다게. 헤헤.(웃음)(나 죽기 생전 해 먹을 거니까, 어머니 죽기 생전 해 먹으십시오 하니까, 지 이름에 다 하니까 하고. 그래서 그거 큰아들네 거 작년부터는 그거 하니까 올해도 파니까 오천만 원 뵈디다. 헤헤.(웃음))

172)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07005 @ 아, 저 밧 뺨기로 팔았구나.(아, 저 밧 뺨기로 팔았구나.)

107005 #2 밧 뺨기로 다 풀안.(밧 뺨기로 다 팔았어.)

107005 @ 얼마 험수가? 여기.(얼마 하고 있습니까? 여기.)

107005 #2 삼천 원씩 허연 풀안.(삼천 원씩 해서 팔았어.)

107005 @ 미짱 값도 좀 가겠네.(꿀 값도 좀 가겠네.)

107005 #2 모르쿠다게, 이제도록은 밧디 풀아보지 안 허연 놉 허연 계속헛당, 저장단 풀아신디,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가고.(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밧에 팔아보지 않아서 놉 해서 계속헛다가, 저장헛다가 팔았는데,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가고.)

107005 @ 삼천 원이민 탕 풀민 혼 사천오백 원 준다는 거네.(삼천 원이면 따서 3천 사천오백 원 준다는 거네.)

107005 #2 예, 경 사천오백 원 쥐도양, 그 인부 콤 주지 밥 혜영 맥이지 허단 보난양.(예, 그렇게 사천오백 원 쥐도요, 그 인부 품삯 주지 밥해서 먹이지 하다가 보니까요.)

107005 @ 그것이 막 비싸 붓디가?(그것이 막 비싸 버럽디까?)

107005 #2 아이고, 그것이양 이녀고생은 고생ㄴ찌 혜지고양, 아이고, 폼센 허연 풀았수다.(아이고, 그것이야 이녀고생은 고생같이 혜지고요, 아이고, 파십사고 해서 팔았습니다.)

107005 @ 나도 올리 혼 칠백 평 정도 장난 삼아 험수다.(나도 올해 한 칠백 평 정도 장난 삼아 하고 있습니다.)

107005 #2 계난 그것도 풀민 용돈은 나옵니다게. 나 계난 이제 나 허는 거 하우스 혼 오백 평 이거 레드향, 그거 이거 죽은아덜 쥐불어도.(그러니까 그것도 팔면 용돈은 나옵니다. 나 그러니까 나 하는 거 하우스 한 오백 평 이거 레드향, 그거 이거 작은아들 쥐버려도.)

107005 @ 밧 뒤에 꺼 아니파양?(밧 뒤에 그거 아닙니까?)

107005 #2 아니, 이 스방에 이거 다 허연 이천사백오십 평. 계난 하우스만 혼 천오백 평 돼고.(아니, 이 사방에 이거 다 해서 이천사백오십 평. 그러니까 하우스만 천오백 평 되고.)

107005 @ 계난 죽은아덜은 와근에 약 허고 험구나.(그러니까 작은아들은 와서 약 하고 하고 있구나.)

107005 #2 예게. 약은 죽은아덜 다 허고, 요 저 혼 오백 평은 나 죽기 생전 헤 먹당 나 못할 경우에 느네 허라. 느네 다 쥐불민 나도 약값도 허영 살아야 할 거 아니가 허명 죽은아덜 쥐도 요 오백 평은 나가 허고, 큰아덜은 다 쥘 놔두난 과수 원으로 허연 사천오백 평 쥘 놔두난 거 주류 장시 허명 나 시간 엇언 못 허쿠덴 허난, 계민 나 헤 질 때까지, 예, 어명 벌영 먹읍센 허난 작년이 쥘게 올리 그거 하나 오천만 원 웹디다. 그만헌 밧.(예. 약은 작은아들 다 하고, 요 저 한 오백 평은 나 죽기 생전 헤 먹다가 나 못할 경우에 너희 하라. 너희 다 쥐버리면 나도 약값도 해



서 살아야 할 거 아닌가 하면서 작은아들 줘도 요 오백 평은 내가 하고, 큰아들은 다 줘서 놔두니까 과수원으로 해서 사천오백 평 줘서 놔두니까 거 주류 장시 하면서 나 시간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해질 때까지, 예, 어머니 벌어서 먹으십시오 하니까 작년에 줘서 올해 그거 하나 오천만 원 됩니다. 그만한 받.)

107005 @ 아이고, 하영 올앗구나게.(아이고, 많이 열었군요.)

107005 #2 예, 올리 하영 올앗수다게. 경해도 뭐 나가든 손지여, 뭐여 허든 받은 나감수다. 호호호.(웃음)(예, 올해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도 뭐 나가면 손자여, 뭐여 하면 받은 나가고 있습니다. 호호호.(웃음))

107006 @ 조팍에 대허영 혼번 곶아줍서, 조팍.(조팍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06 #2 조팍은양 흐린조팍이 싯곡, 모인 좁쌀, 모인조팍이 싯고, 게믄 흐린조팍은 밥을 허민 막 끈정은에 찰정 맛싯곡, 노랑조팍은.(조팍은요 차조팍이 있고, 메진 좁쌀 메조팍이 있고, 그러면 차조팍은 밥을 하면 아주 끈적해서 찰져서 맛있고, 노랑조팍은.)

107006 @ 모인조팍, 모인조팍.(메조팍, 메조팍.)

107006 #2 예, 모인조팍은, 노랑조팍이 모인조팍입주게. 그거 허민 먹젠 허민 국이나 서사 먹주, 국 엇이민 모가지에 가민 걸영은에 깍 허영 삼키멍 옛날엔 그 조팍도 엇언 못 먹엇수다.(예, 메조팍은, 노랑조팍이 메조팍이지요. 그거 하면 먹으려고 하면 국이나 있어야 먹지, 국 없으면 모가지에 가면 걸려서 깍 해서 삼키면서 옛날엔 그 조팍도 없어서 못 먹엇습니다.)

107006 @ 옛날엔 조팍에 감저 낱 허지 안 헛수가양?(옛날엔 조팍에 고구마 놔서 하지 았았습니까?)

107006 #2 예, 감저 낱도 허고 그냥 조팍만도 허고 허난 옛날에 누들 하영 갈앙 조팍 헐 때 누들국 웬장국을 하영 허영 누들 혼 사발 거렁 경 허연 먹엇수게. 이제 ㄱ찌 고기국이 어디 잇수가?(예, 고구마 놔서도 하고 그냥 조팍만도 하고 하니까 옛날에 나물 해서 갈아서 조팍 할 때 나물국 된장국을 많이 해서 나물 한 사발 떠서 그렇게 해서 먹엇습니다. 이제같이 고기국이 어디 잇습니까?)

107006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06 #2 웬장국도 스몫 봄 나가민 웬장 떨어정 경 허멍 살앗수다.(된장국도 사몫 봄 나가면 된장 떨어져서 그렇게 하면서 살앗습니다.)

107006 @ 게난 이 조팍, 아, 이, 조팍 사건이 많아. 감저만 쳐 놔근에, 감저만 파먹엇주게.(그러니까 이 조팍, 아, 이, 조팍 사건이 많아. 고구마만 쳐 놔서 고구마만 파먹엇지요.)

107006 #2 조팍은 경 허여근에 거 불림으로 감저를 경 하영 낱 허연 먹어집디 다게.(조팍은 그렇게 해서 거 불림으로 고구마를 그렇게 많이 놔서 해서 먹엇습니다.)

107006 @ 게난 하도 먹어노난 이 감저만 팡은에, 옛날 슷구락으로, 경 헨 먹엇

수다게.(그러니까 하도 먹어놓으니까 고구마만 파서, 옛날 숟가락으로,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107006 #2 우리 집 아이들은 조밥 안 먹켄 허영 저 감저 놓민 감저 들콰허난 그거만 오리멍 먹엇수다.(우리 집 아이들은 조밥 안 먹겠다고 해서 저 고구마 넣으면 고구마 달콤하니까 그거만 오리면서 먹었습니다.)

107006 @ 계난 옛날 생각해 보민 그것이 건강식품인디.(그러니까 옛날 생각해 보면 그것이 건강식품인테.)

107006 #2 그땐 아프질 안 헛수게게.(그땐 아프지를 앓았습니다.)

107006 @ 조팝은 질색이엇어.(조팝은 질색이엇어.)

107006 #2 이제 생각허민 지긋지긋허지양. 호호호.(웃음)(이제 생각하면 지긋지긋하지요. 호호호.(웃음))

107006 @ 아이. 계난 옛날 조팝 허민 반찬은 두 개뿐.(아니. 그러니까 옛날 조밥 하면 반찬은 두 개뿐.)

107006 #2 자리젓이나.(자리젓이나.)

107006 @ 자리젓허고 마농지.(자리젓허고 마늘장아찌.)

107006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06 @ 것도 조선간장으로 이디서 만든 간장으로 헤 노민 막 짜기가 침, 죽 어났주.(그것도 조선간장으로 여기서 만든 간장으로 헤 놓으면 아주 짜기가 참, 죽 었엇지.)

107006 #2 경 아니허민 당허질 못허여, 그때, 이제ㄱ찌 뭐 혼 사발씩 먹어불민 당해집니까게. 짠맛으로 오래 갑주.(그렇게 안 하면 당하질 못해, 그때, 이제까지 뭐 한 사발씩 먹어버리면 당해 집니까. 짠맛으로 오래 가지.)

107006 @ 그다음에 조팝 허민 콩지.(그다음에 조밥 하면 콩자반.)

107006 #2 콩지, 막 짠 짠 현 거.(콩자반, 아주 짠 짠 한 거.)

107006 @ 콩지도 그거 짠 짠 현 거 즘진, 즘진현 콩으로 헤근에.(콩자반도 그거 짠 짠 한 거 자잘한, 자잘한 콩으로 해서.)

107006 #2 예, 조선간장으로 행은에, 호호호.(웃음)(예, 조선간장으로 해서, 호호호.(웃음))

107006 @ 즘진 거. 것도예 막 췌어마씨.(자잘한 거. 것도요 아주 세어요.)

107006 #2 생길이 주장, 늣뻬 물리왕.(무말랭이 주장, 무 말려서.)

107006 @ 생길이.(무말랭이.)

107006 #2 짠 짠 현 간장이영 문영은에 게도 그거 벨미로 먹엇수게.(짠 짠 한 간장이랑 물어서 그래도 그거 벨미로 먹었습니다.)

107006 @ 계난 제주도는 어디 가도 반찬은 그거벧기 없어.(그러니까 제주도는 어디 가도 반찬은 그거밖에 없어.)

107006 #2 예게, 진짜 것벧기 엇엇수다.(예, 진짜 것밖에 없었습니다.)

107007 @ 풋밥에 대허영 곶아즈서.(팔밥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07 #2 팥밥은 보리, 보리쌀에도 난 팥밥 행 먹고 좁쌀에도 난 먹고 팥죽을 쑤민 곤쌀 넣은애.(팔밥은 보리, 보리쌀에도 놔서 팔밥 해서 먹고 좁쌀에도 놔서 먹고 팔죽을 쑤면 흰쌀 놔서.)

107007 @ 아니, 그거 조에도 팥 넣은애 헤마씨?(아니, 그거 조에도 팔 놔서 해요?)

107007 #2 팥 솥양은애.(팔 삶아서.)

107007 @ 나 이거 처음 들었수다.(나 이거 처음 듣고 있습니다.)

107007 #2 저 콩, 팥 솥다근에양 좁쌀 질 네중에 낱 정도 허연 먹었수다.(저 콩, vx 삶다가요 좁쌀 젤 나중에 놔서 그렇게도 해서 먹었습니다.)

107007 @ 아이, 보리밥에는.(아니, 보리밥에는.)

107007 #2 보리밥에는.(보리밥에는.)

107007 @ 팥 노는 거 알아지는다.(팔 넣는 거 아는데.)

107007 #2 보리밥에는 흠치 놔근에 허고, 또 팥죽도 쑤민 곤쌀 넣 쑤 팥죽은 맛이 좋고, 좁쌀 넣 쑤 팥죽은 까락까락 맛 었어.(보리밥에는 한꺼번에 같이 놔서 하 고, 또 팔죽도 쑤면 흰쌀 놔서 쑤 팔죽은 맛이 좋고, 좁쌀 놔서 쑤 팔죽은 까락까락 맛 없어.)

107007 @ 아, 계난 난 팥에 아, 저 조에 팥 놔근에 밥허는 건 처음 들었수다.(아, 그러니까 난 팔에 아, 저 조에 팔 놔서 밥하는 건 처음 듣고 있습니다.)

107007 #2 녹두도, 녹두도 난 헨 먹어났수다, 녹두도.(녹두도, 녹두도 놔서 해서 먹었었습니다, 녹두도.)

107007 @ 아, 녹두는 험니다게.(아, 녹두는 합니다.)

107007 #2 예. 녹두도 난 헨 먹어나고, 우린 또.(예. 녹두도 놔서 해서 먹었었고, 우린 또.)

107007 @ 아, 우린 저 조팍에는 아무것도 안 놓더라고.(아, 우린 저 조밥에는 아무것도 안 놓더라고.)

107007 #2 영 허다 보문.(이렇게 하다 보면.)

107007 @ 그냥 감제 정도.(그냥 고구마 정도.)

107007 #2 감저도 농곡 지슬도 농곡 것도 경 허연덜 먹었수다게.(고구마도 넣고 감자도 넣고 것도 그렇게 해서들 먹었습니다.)

107007 @ 그다음에 팥밥은 잔치집이 하영 허지 안 험니까?(그다음에 팔밥은 잔치집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07007 #2 잔치집에 하영 헤십주게.(잔치집에 많이 했습지요.)

107007 @ 예, 멩텅이 놔근에 그거 거리멍.(예, 망태기 놔서 그거 뜨면서.)

107007 #2 예, 영장이 나도 초상 나민 또 밥 허영은애 경 허고. 팥밥은 해 초상 날 때 하영 쓰고 헤십주게, 잔치집이 하영 쓰고.(예, 영장이 나도 초상 나면 또 밥 해서 그렇게 하고. 팔밥은 거의 초상날 때 해서 쓰고 했습지요, 잔치집에 많이 쓰고.)

107007 @ 여기 구역리도 풋은 하영 같았지양?(여기 구역리도 팔은 많이 같았지요?)

107007 #2 이젠, 이젠 안 갑니다. 그전인 풋 흔 말씩은 같았습니다.(이젠, 이젠 안 갑니다. 그 전에는 팔 한 말씩은 같았습니다.)

107007 @ 이 옷드르덜이 풋 하영 같아.(이 ‘옷드르’들이 팔 많이 같아.)

107007 #2 예, 이제 풋 하나토 안 갑니다. 이젠 사단만 먹었습니다.(예, 이제 팔 하나도 안 갑니다. 이젠 사다만 먹고 있습니다.)

107007 @ 아이, 이제야 뭐 다른 디도 마찬가지로.(아니, 이제야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107007 #2 풋 안 갑니다. 옛날엔 스룻 풋 한 말씩 같앙 겨울 나민 그거 영 품도 허곡 죽도 썩 먹곡, 좁쌀 모인 좁쌀, 조 같앙은에 그거 겨울에 죽 썩 오죽 먹었수가게. 겐디 이젠양 모인 좁쌀도 안 같아마씨.(팔 안 갑니다. 옛날엔 사뭇 팔 한 말씩 같아서 겨울 나면 그거 이렇게 팔기도 하고 죽도 썩서 먹고, 좁쌀 메진 좁쌀, 조 같아서 그거 겨울에 죽 썩서 오죽 먹었습니까. 그런데 이젠요 메진 좁쌀도 안 같아요.)

107007 @ 게난 조팍 혈 때는 풋을 불리와야 될 거 아니우파? 저 물에.(그러니까 조밥 할 때는 팔을 불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물에.)

107007 #2 예게. 불령 솥양 놔사 돼주 그냥 넣은.(예. 불려서 삶아서 놔야 그냥 놔서는.)

107007 @ 안 돼어. 보리밥도 안 돼어.(안 돼. 보리밥도 안 돼.)

107007 #2 아니, 보리밥은 쫄 그냥 서꺼도 돼어.(아니, 보리밥은 쌀 그냥 섞어도 돼.)

107007 @ 그냥 놔도 돼어?(그냥 놔도 돼?)

107007 #2 예, 됩니다, 보리쌀은. 겐디 옛날, 옛날은 잔치밥은 허젠 허믄 풋 설 추허게 솥앗당 허엿수게.(예, 됩니다, 보리쌀은. 그런데 옛날, 옛날은 잔치밥은 하려고 하면 팔 덜 익게 삶았다가 하였습니다.)

107007 @ 솥앗당 허여예.(삶았다가 해요.)

107007 #2 겐디 그냥 보리쌀 솥양 혈 팬양 그냥 놔도 돼어.(그런데 그냥 보리쌀 삶아서 할 때는요 그냥 놔도 돼.)

107008 @ 피밥 허연 먹어봄디강? 피밥.(피밥 해서 먹어봤습니까? 피밥.)

107008 #2 피밥도 헨 먹어 보지 안 헛수다. 피밥은 맛 좋습니다. 그양 헤양허고양, 피밥? 좁쌀, 좁쌀 방울보다.(피밥도 해서 먹어 보지 안 했습니다. 피밥은 맛 좋습니다. 그요 허영고요, 피밥? 좁쌀, 좁쌀 방울보다.)

107008 @ 피.(피.)

107008 #2 좁쌀 방울보다 좀 굵어마씨.(좁쌀 방울보다 좀 굵어요.)

107008 @ 아.(아.)

107008 #2 피밥이 헤양허곡양, 복삭복삭 조팍보다 맛 좋읍주게.(피밥이 허영고

요, 복삭복삭 조밥보다 맛 좋습니다.)

107008 @ 아.(아.)

107008 #2 피밥이, 겐디 우리 여기서.(피밥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7008 @ 어떨 때 피밥 허영 먹습니까?(어떨 때 피밥 해서 먹습니까?)

107008 #2 우리 대정<sup>173)</sup>서는 피밥을 아니헨 먹어봐신디 여기 옹기 만들양 저 김녕<sup>174)</sup>더레, 저 성산 수산<sup>175)</sup>더레 옹기 장시 가민양 거기 주인 벗이민 옹길 싹 푸민 주인덜이 밥 행 먹으렐, 그날 어두왕 푸민 내준 거 보민 피쌀이라마씨. 밥 허난 보리밥보다 맛 줍디다. 먹어, 허연 먹어 봤수다.(우리 대정에서는 피밥을 안 해서 먹어봤는데 여기 옹기 만들어서 저 김녕으로, 저 성산 수산으로 옹기 장시가면요 거기 주인 벗으면 질그릇을 싹 푸면 주인들이 밥해서 먹으라고, 그날 어두워서 푸면 내준 거 보면 피쌀이야. 밥하니까 보리밥보다 맛 줍디다. 먹어, 해서 먹어 봤수다.)

107008 @ 색깔도 희양허고?(색깔도 희고?)

107008 #2 희양합니다, 피쌀, 잘도 맛 줍니다.(힙니다, 피쌀, 잘도 맛 좋습니다.)

107008 @ 끈긴 없지양?(끈기는 없지요?)

107008 #2 끈긴 엇어도 이 조팍보다는 맛 좋아마씨.(끈기는 엇어도 이 조팍보다는 맛 좋아요.)

107008 @ 게난 피, 피쌀. 그 피 하나만 넣은에 밥 힙니까?(그러니까 피, 피쌀. 그 피 하나만 놔서 밥 힙니까?)

107008 #2 피쌀만 넣.(피쌀만 놔서.)

107008 @ 피쌀만.(피쌀만.)

107008 #2 예, 곤밥 허듯이 물 슬슬 끌리민.(예, 흰밥 하듯이 물 살살 끓이면.)

107008 @ 사락허지 아니허여?(거칠지 않아?)

107008 #2 사락허지 안 허영 조팍보다 맛 좋아마씨.(거칠지 않아서 조팍보다 맛 좋아요.)

107008 @ 아, 아.(아, 아.)

107008 #2 피밥은 헨 먹어봤수다.(피밥은 해서 먹어봤수다.)

107009 @ 아, 피밥은. 감제밥은 행 먹고양?(아, 피밥은. 고구마밥은 해서 먹으요?)

107009 #2 감제밥사 경 먹고예.(고구마밥이야 그렇게 먹고요.)

107009 @ 아까 저.(아까 저.)

107009 #2 감제범벅덜게. 므멸 갈양 논쟁이로 허영은에게 감저 숲양 그레 낱 범벅도, 감저범벅도, 감저밥허고 감저범벅 허영 먹고.(고구마범벅들요. 메밀 갈아서 나깨로 해서 고구마 삶아서 그리 놔서 범벅도, 고구마범벅도, 고구마밥하고 고구마범벅도 해서 먹고.)

173) '대정'은 서귀포시 대정읍 전체 지역을 일컫는다.

174) '김녕'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를 말한다.

175)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를 말한다.

107009 @ 지실범벅 아니우다양, 감저범벅.(감자범벅 아닙니다, 고구마범벅.)

107009 #2 감저범벅, 지실도 범벅 행 먹읍니다만, 감저범벅이 하영 행 먹고, 감저범벅이 맛 좋습니다, 지실범벅보다.(고구마범벅, 감자도 범벅해서 먹읍니다만, 고구마범벅이 많이 해서 먹고, 고구마범벅이 맛 좋습니다, 감자범벅보다.)

107009 @ 계난 여기선 감저밥, 감저밥.(그러니까 여기선 고구마밥, 고구마밥.)

107009 #2 감저밥도 행 먹고, 거 보리쌀 영 감저 썰영 ㄹ찌 낱.(고구마밥도 해서 먹고, 거 보리쌀 이렇게 고구마 썰어서 같이 놔서.)

107009 @ 아니,보리쌀에도 감저 낱 허여?(아니, 보리쌀에도 고구마 놔서 해?)

107009 #2 예게, 밥게.(예, 밥요.)

107009 @ 아, 난 좁쌀로만, 조.(아, 난 좁쌀로만, 조.)

107009 #2 아니우다, 감제에도 밥 불릴 땐 그거 썰어 낱 먹어났수다.(아닙니다, 고구마에도 밥 불릴 땐 그거 썰어 놔서 먹었었습니다.)

107009 @ 아, 아, 보리, 보리쌀에도 감저를.(아, 아, 보리, 보리쌀에도 고구마를.)

107009 #2 예게, 조팍에도 행 먹고.(예, 조밥에도 해서 먹고.)

107009 @ 조팍에는 나 허는 거 알아지고, 그거 하영 먹었수다.(조팍에는 나 허는 거 알아 지고, 그거 많이 먹었었습니다.)

107009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09 @ 조팍에.(조밥에.)

107009 #2 조팍, 흐린조팍에 감저 낱 밥 허민 막 출정 맛 줍니다.(조팍, 차조팍에 고구마 놔서 밥하면 아주 찰져서 맛 좋습니다.)

107010 @ 늪빠밥 먹어봅디가?(무밥 먹어봤습니까?)

107010 #2 늪빠밥은 안 먹어봤수다.(무밥은 안 먹어봤습니다.)

107010 @ 거난 밥에 늪빠 놔근에 허는 거.(그러니까 밥에 무 놔서 하는 거.)

107010 #2 늪빠 낱 떡은 허연 천 먹어봐도.(무 놔서 떡은 해서 찌서 먹어봐도.)

107010 @ 그건, 그건 침떡에 낱 허는 거고.(그건, 그건 시루떡에 놔서 하는 거고.)

107010 #2 떡은 행 먹어봐도 늪빠 낱 밥은 아이 먹어봤수다.(떡은 해서 먹어봐도 무 놔서 밥은 안 먹어봤습니다.)

107010 @ 아.(아.)

107010 #2 늪빠 썰어 낱은에 침떡은 천 먹어났수다. 감저 ㄹ루에 좁쌀도 영 허민 양, 그건 늪빠 막 하영 놓으민 맛 좋아마씨.(무 썰어 놔서 시루떡은 찌서 먹었었습니다. 고구마가루에 좁쌀도 이렇게 하면요, 그건 무 아주 많이 넣으면 맛 좋아요.)

107010 @ 중간, 중간에 놓으멍.(중간, 중간에 넣으면서.)

107010 #2 예.(예.)

107010 @ 버므령은에.(섞어서.)

107010 #2 예게, 맛 좋아마씨.(예, 맛 좋아요.)

107011 @ 툷밥 먹어봅디가?(툷밥 먹어봤습니까?)

107011 #2 툇밥도 행 먹어보고, 밥이 아이고 툇범벅.(툇밥도 해서 먹어보고, 밥이 아니고 툇범벅.)

107011 @ 아, 툇밥, 툇밥.(아, 툇밥, 툇밥.)

107011 #2 툇밥은 안 행 먹어 보고양, 툇 ㄱ루 낱은에 보리쌀 ㄱ루 낱에 범벅은 막 하영 행 먹엇수다. 맛 좋아마씨.(툇밥은 안 해서 먹어 보고요, 툇 가루 놔서 보리쌀 가루 놔서 범벅은 아주 많이 해서 먹엇습니다. 맛 좋아요.)

107011 @ 밥, 밥은 안 행 먹어나고?(밥, 밥은 안 해서 먹엇엇고?)

107011 #2 밥은 안 행 먹어났수다. 옛날 막 밀체 먹을 때양, 거 툇범벅을 우리 어머니가.(밥은 안 해서 먹엇엇습니다. 옛날 마구 참밀의 걸겹질을 먹을 때요, 거 툇범벅을 어머니가.)

107011 @ 아, 이제는 툇밥덜 좀 먹는 거 닻더라고.(아, 이제는 툇밥들 좀 먹는 거 같더라고.)

107011 #2 요즘은 툇밥, 약, 약으로.(요즘은 툇밥, 약, 약으로.)

107011 @ 영양, 영양식으로.(영양, 영양식으로.)

107011 #2 예, 혈압약이엔 허영예 그 툇밥 이젠 제조허연 그냥 비우멍 먹게꾸리 나와십디다, 이젠. 나도 그거 누게 주난 두어 번 행 먹어봤수다. 곳지 아이협디다, 곳지 아니허여.(예, 혈압약이라고 해서 그 툇밥 이젠 제조해서 그냥 부으면서 먹게 나왔습디다, 이젠. 나도 그거 누구 주니까 두어 번 해서 먹어봤습니다. 곳지 않습디다, 곳지 않아.)

107012 @ 패밥<sup>176</sup> 먹어봄디가? 패밥.(‘패밥’ 먹어봤습니까? 패밥.)

107012 #2 패밥은 먹어 보지도 아이허고 들어보지도 아이헛수다.(패밥은 먹어 보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헛습니다.)

107012 @ 그 저 뭐 닻아, 녀패.(그 저 뭐 같아, 녀패.)

107012 #2 녀패?(녀패?)

107012 @ 녀패, 녀패.(녀패, 녀패.)

107012 #2 녀패.(녀패.)

107012 @ 녀패, 녀패밥 아니라.(녀패, 녀패밥이 아니야.)

107012 #2 녀패, 패엔 현 말은 안 들어 봤수다.(녀패, 패라고 한 말은 안 들어 봤습니다.)

107012 @ 거난 녀패께, 녀패.(그러니까 녀패께, 녀패.)

107012 #2 녀패, 바당에 녀패, 거 옛날 저 무시거 밀체 먹을 때 녀패 해당은예.(녀패, 바다에 녀패, 거 옛날 저 무엇 참밀의 걸겹질 먹을 때 녀패 해다가요.)

107012 @ 녀패 맛 좋읍니다게.(녀패 맛 좋읍니다.)

107012 #2 예, 그거양 ㄱ루 허텅 죽도 쭈민 맛 좋곡.(예, 그거요 가루 흘어서 죽도 쭈면 맛 좋고.)

107012 @ 아, 죽이 좋아, 그건.(아, 죽이 좋아, 그건.)

---

176) ‘패밥’은 보리쌀에 패를 섞어서 지은 밥이다.

107012 #2 그건 경 허영 먹어봤수다.(그건 그렇게 해서 먹어봤습니다.)

107012 @ 밥은 안 먹고, 보고양?(밥은 안 먹고, 보고요?)

107012 #2 예. 파, 파리롱허게 허영 짐 낭 국 끌리민양, 그건 먹어봤수다.(예. 파, 파르스름하게 해서 짐 나서 국 끓이면요, 그건 먹어봤습니다.)

107013 @ 그다음에 국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가?(그다음에 국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7013 #2 이제는 해도 옛날엔 국 허젠 허든 늬삐국 끌영 먹곡, 콩국 끌영 먹곡, 늬멸국 웬장 낱 끌영 먹고, 늬삐국 끌영 먹고, 옛날엔 봄 나민 보리밭디 강 ㄱ 세늬멸 캐당.(이제는 해도 옛날엔 국 하려고 하면 무국 끓여서 먹고, 콩국 끓여서 먹고, 나물국 된장 놔서 끓여서 먹고, 무국 끓여서 먹고, 옛날엔 봄 나민 보리밭에 가서 씬바귀 캐다가.)

107013 @ 무신 늬멸마씨?(무슨 나물요?)

107013 #2 ㄱ세늬멸.(션바귀.)

107013 @ ㄱ세늬물.(션바귀.)

107013 #2 ㄱ세늬멸. 보리밭디 옛날 드룻늬멸 막 낫수게.(션바귀. 보리밭에 옛날 들나물 마구 낫습니다.)

107013 @ 드룻늬물.(들나물.)

107013 #2 ㄱ세늬멸도 나곡 그냥 늬멸초록 허영 흐끔 푸리롱헌 거, 노리롱헌 거서 낫수다게, 그것도 해당.(션바귀도 나고 그냥 나물처럼 해서 조금 푸르스름한 거, 노르스름한 거 있었습디다, 그것도 해당.)

107013 @ 아, ㄱ세늬물.(아, 셤바귀.)

107013 #2 ㄱ세늬멸은 흐끔 씬니다.(션바귀는 조금 씬니다.)

107013 @ 처음 들업신디.(처음 듣고 잇는데.)

107013 #2 ㄱ세노멸 흐끔양 씨마씨. 예, 늬삐 이파리 비슷허면도.(션바귀 조금요 씨요. 예, 무 잎사귀 비슷하면서도.)

107013 @ 아.(아.)

107013 #2 경해도 봄 나민 보리밭디 강 구덕 창 강 그거 캐어당 송키 옛이민 웬장 놓곡 허영 그거 국 끌리민 국물이 시커멍허여마씨. 경해도 옛영덜 못 먹엇수다, 옛날엔.(그래도 봄 나민 보리밭에 가서 바구니 차서 가서 그거 캐어다가 푸성귀 없으면 된장 넣고 해서 그거 국 끓이면 국물이 시커멍지요. 그래도 없어서들 못 먹엇습디다, 옛날엔.)

107014 @ 늬멸국에 대허영 흐번 곱아줍서. 늬멸국 어떻 끌립니까?(나물국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나물국 어떻게 끓입니까?)

107014 #2 늬멸국은 우린 웬장 놓곡 허영은에 늬멸국 끌영은에.(나물국은 우린 된장 넣고 해서 나물국 끓여서.)

107014 @ 늬멸 낱은에.(나물 놔서.)

107014 #2 늬멸 시청.(나물 씻어서.)



107014 @ 우영팟디 강.(터알에 가서.)

107014 #2 예게, 우영팟디 강 해당 시청, 웬장 낱 메리치 흥끔 농곡 허영 끌리 당 그 느멀 시청 막 하영 뇌근에 옛날엔 그걸 오죽 맛 좋게 먹었수가게. 국을 끌렁 웬장 낱 경 허민 맛 좋습니다게, 맛 좋아, 그거 허연 하영 옛날엔 그처럼 주로 경 허영 먹었수다게.(예, 터알에 가서 해다가 씻어서, 된장 뇌서 멀치 조금 넣고 해서 끓이다가 그 나물 씻어서 아주 많이 뇌서 옛날엔 그걸 오죽 맛 좋게 먹었습니까. 국을 끓여서 된장 뇌서 그렇게 하면 맛 좋습니다, 맛 좋아, 그거 해서 많이 옛날엔 것처럼 주로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107015 @ 콩느물국에 대허영 흥번 곶아줍서.(콩나물국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15 #2 콩느물국은 그냥 웬장 농곡 콩느물국, 그냥 콩느물 시청 뇌근에 끌리 민 그건 콩느물국이고, 콩국은 또 콩 갈앙은에.(콩나물국은 그냥 된장 넣고 콩나물국, 그냥 콩나물 씻어서 뇌서 끓이면 그건 콩나물국이고, 콩국은 또 콩 갈아서.)

107015 @ 그건 나중에 물어보쿠다. 저 뭐냐 콩느물은 집에서 키웠지양?(그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저 뭐냐 콩나물은 집에서 키웠지요?)

107015 #2 예, 집에서 시리에.(예, 집에서 시루에.)

107015 @ 시리에예.(시루에요.)

107015 #2 시리에 물 주멍 키와근에 옛날엔 상 먹는 게.(시루에 물 주면서 키워서 옛날엔 사서 먹는 게.)

107015 @ 그거 식게 때 거 콩느물을.(그거 제사 때 거 콩나물을.)

107015 #2 예, 집에서 키워.(예, 집에서 키워서.)

107015 @ 온돌방에 해근에.(온돌방에 해서.)

107015 #2 물 등갓당 낱 우에 잠바 하나 톱 더경 여기 물 영 받침에 영 뇌근에 물 드러 주멍 따시게 허영 키우멍 콩느물 허영 탕쉬<sup>177</sup>도 행 먹고.(물 단갓다가 뇌서 위에 잠바 하나 톱 덮어서 여기 물 이렇게 받침에 이렇게 뇌서 물 계속 주면서 따듯하게 해서 키우면서 콩나물 해서 ‘탕쉬’도 해서 먹고.)

107015 @ 콩느물은 잘 안 썩난게.(콩나물은 잘 안 썩니까요.)

107015 #2 안 풀고, 또 콩느물이 영양식품이엔 허여근에 경 허엿수게게, 이녁 집이 콩 간 것덜 시난.(안 팔고, 또 콩나물이 영양식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녁 집에 콩 간 것들 있으니까.)

107015 @ 이 식게 허젠 허민 꼭 해서, 이거.(이 제사 하려고 하면 꼭 했어, 이거.)

107015 #2 예, 그거 헛수다게.(예, 그거 했습니다.)

107015 @ 나도 잊어불지 안 허는디.(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107015 #2 옛날 콩느물이 맛 좋앗수다. 이제 거 닭지 아니허영, 고소허영.(옛날 콩나물이 맛 좋았습니다. 이제 거 같지 않아서, 고소해서.)

---

177)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찹쌀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나물이다.

107015 @ 아이, 건디 막 것도 키와근에 해 보민양.(아니, 그런데 막 것도 키워서 해 보면요.)

107015 #2 질경?(질겨서?)

107015 @ 질경계, 거 뭐냐 허면 막 불리우젠 행.(질겨서요, 거 뭐냐 하면 마구 불리려고 해서.)

107015 #2 불리우젠 막 이만씩.(불리려고 막 이만큼씩.)

107015 @ 뭐냐 경 해근에.(뭐냐 그렇게 해서.)

107015 #2 물 잘 준 건 부드럽곡, 물이 흐끔 죽영 준 거는.(물 잘 준 건 부드럽고, 물이 조금 적게 준 거는.)

107015 @ 요즘처럼 먹기 좋게만 해야 되는데 막 키와근에.(요즘처럼 먹기 좋게만 해야 되는데 마구 키워서.)

107015 #2 예. 쉰 뭐가 박삭 나게.(예. 수염 뭐가 뽁뽁이 나게.)

107015 @ 박삭 나게.(뽁뽁이 나게.)

107015 #2 예, 맞수다게. 호호호.(웃음)(예, 맞습니다. 호호호.(웃음))

107015 @ 모든 걸 불리젠만 해 놓으난.(모든 걸 불리려고만 해 놓으니까.)

107015 #2 맞수다게, 그거 좋아서 경 헛수가.(맞습니다, 그거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107016 @ 그다음에 늪뽀국에 대해서 알아줍서.(그다음에 뭇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16 #2 늪뽀국은 웬장 농곡 메리치 낱 끌리당 늪뽀 썰영 끌려 가민 낱 익으면 그것이 늪뽀국입주게, 이제 ㄴ찌 고기덜이나 사당 먹어젓수가? 경해도 스뭇 그걸 맛 좋게덜 먹었수게, 그땐.(뭇국은 된장 넣고 멸치 놔서 끓이다가 무 썰어서 끓여 가면 놔서 익으면 그것이 뭇국이지요, 이제까지 고기들이나 사다가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도 사뭇 그걸 맛 좋게들 먹었습니다, 그땐.)

107016 @ 것도 웬장 낱 끌령.(것도 된장 놔서 끓여서.)

107016 #2 웬장 낱 끌려야 맞습니다게. 그냥 물만 낱 소금 낱, 장물 낱 끌린 건 맛이 엇어마씨.(된장 놔서 끓여야 맞습니다. 그냥 물만 놔서 소금 놔서, 간장 놔서 끓인 것은 맛이 없어요.)

107016 @ 아, 게도 옛날은, 웬장은 국에 꼭 놔서.(아, 그래도 옛날은, 된장은 국에 꼭 냈어.)

107016 #2 예게, 예, 웬장은.(예, 예, 된장은.)

107016 @ 소금 놓는 경우는 엇엇어.(소금 넣는 경우는 없엇어.)

107016 #2 예, 웬장은, 웬장 겨울 보리 갈아불민 콩 삶양 웬장 티움이 큰 일로 잡았수게. 일 년 내내 먹을 거 삶양은에 티왕 장을 담아서난, 이젠 장 담암수가게, 산덜 먹엄수게. 호호호.(웃음)(예, 된장은, 된장 겨울 보리 갈아버리면 콩 삶아서 된장 티움이 큰 일로 잡았습니다. 일 년 내내 먹을 거 삶아서 티워서 장을 담았으니까, 이젠 장 담고 있습니다, 사서들 먹고 있습니다. 호호호.(웃음))

107017 @ 그다음에 콩국에 대허영 곁아줍서, 콩국.(그다음에 콩국에 대해서 말 해주십시오, 콩국.)

107017 #2 콩, 난양 이제도 콩국, 난 늙은 어떻게 허염신디 난 물 팔팔 끌려가민 콩가루 언 물에 카근에.(콩, 난요 이제도 콩국, 난 남은 어떻게야 하고 있는지 난 물 팔팔 끓여 가면 콩가루 언 물에 타서.)

107017 @ 카야 뒤어양.(타야 되어요.)

107017 #2 툇툇허게 강 팔팔 끌어 가민 그걸 놔근에 혼 번만 싹 젓어볼민 젓어 근에 그냥 이제 놔돌 막 하영 시청 딱 윗이 대기허여 두곡.(툇툇하게 가서 팔팔 끓여 가면 그걸 놔서 한 번만 싹 저어버리면 저어서 그냥 이제 나물 아주 많이 씻어서 딱 옆에 대기하여 두고.)

107017 @ 그 부꺼부난.(그 넘쳐버리니까.)

107017 #2 예, 경허민 그 콩가루 비운 후제, 불 습아가민 부끄잖아, 부끄민 왈락 부꺼볼민 먹을 것이 엇을 거난 그 불 천천이 부끄지 말게 솟뚜경 올양 그거 영 해가민 천천이 올라오겠거리 허영, 막 올라와가민 놔돌 푹 놓으민 것이 가라앉입니다게. 케민 또 천천이 불 습아가민 또 올라와마써, 또 올라와 가민 소금, 소금 우터레 소금으로 싹 서끄민양 싹 앉입니다게. 경 허여근에 밀에 잉경으로 탁 이 저 영 허영 놔두민양 콩국이 맛 좋습니다. 경 허연 먹어낫주마써. 이제도 우리 그렇게.(예, 그러면 그 콩가루 부운 후에, 불 때어가면 넘쳐버리잖아, 넘쳐버리면 갑자기 넘쳐버리면 먹을 것이 없을 거니까 그 불 천천히 넘치지 말게 솟뚜경 열어서 그거 이렇게 해가면 천천히 올라오겠지 해서 마구 올라와 가면 나물 푹 넣으면 그것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또 천천히 불 때어가면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 가면 소금, 소금 위로 소금으로 싹 섞으면요 싹 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에 잉결불로 탁 이 저 이렇게 해서 놔두면요 콩국이 맛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었었지요. 이제도 우리 그렇게.)

107017 @ 아, 거난 옛날 이디 콩가루를 물에 카야 뒤 건디.(아, 그러니까 옛날 여기 콩가루 물에 타야 뒤 건데.)

107017 #2 물에 카야 두발두발<sup>178)</sup> 험니다게.(물에 타야 ‘두발두발’ 합니다.)

107017 @ 아이, 게난 콩가루를 그냥 서턴.(아니, 그러니까 콩가루를 그냥 섞어서.)

107017 #2 그냥 서턴.(그냥 섞어서.)

107017 @ 그냥 서터부니까.(그냥 섞어버리니까.)

107017 #2 맛엇입니다게.(맛없습니다.)

107017 @ 아이, 거난 거 뒤 비린내 난게, 콩 비린내 난.(아니, 그러니까 뒤 비린내 나요, 콩 비린내 나서.)

107017 #2 아, 아.(나, 아.)

107017 @ 그 잘 안 서꺼져부니까.(그 잘 안 섞어버리니까.)

107017 #2 아, 우린 경 아니허연 꼭 물에 카근에.(아, 우린 그렇게 안 해서 꼭

178) ‘두발두발’은 콩국을 끓였을 때 순두부처럼 된 상태를 말한다.

물에 타서.)

107017 @ 경 해야 돼어마씨.(그렇게 해야 되어요.)

107017 #2 물 끌어 가민 그거 비왕은에 또 막 또 올라오젠 해 가민 느물 낵 또 그다음에 올라오젠 해 가민 젓진 말아야마씨.(물 끓어 가면 그거 부어서 또 마구 또 올라오려고 해 가면 나물 놔서 또 그다음에 올라오려고 해 가면 젓지 말아야.)

107017 @ 느물덜도 농곡 저 늻삐도 썰어 놓지양?(나물들도 넣고 저 무도 썰어 놓지요?)

107017 #2 예게, 늻삐도 놓니다만은 요즘은양 늻삐 낵, 옛날엔 느물도 농곡 늻삐도 조금 농곡 허른 맛 좋아마씨. 게민 젓질 말아야 것이 위에 부각허게 허영 두부ㄱ찌양 두발두발 맛 좋주. 젓어볼민 헛사저불영 콩국이 맛이 엇어마씨. 이제도 우린 콩국 끓일 땐 그처럼 합니다.(예, 무도 넣습니다만 요즘은요 무 놔서, 옛날엔 나물도 넣고 무도 조금 넣고 하면 맛 좋아요. 그러면 젓질 말아야 그것이 위에 부각하게 해서 두부같이요 두발두발 맛 좋지. 저어버리면 헤벌어져 버려서 콩국이 맛이 없어요. 이제도 우린 콩국 끓일 때 것처럼 합니다.)

107017 @ 잘 탕 해야주게.(잘 타서 해야지요.)

107017 #2 푸달푸달<sup>179</sup>), 딱 뜨른 두부 그저 뭐 식으로 영 떠지게.(‘푸달푸달’, 딱 뜨면 두부 그저 뭐 식으로 이렇게 떠지게.)

107017 @ 두부처럼, 떡 맹글 때 식으로.(두부처럼, 떡 만들 때 식으로.)

107017 #2 그처럼 헤사 맛 좋습니다. 우린 이제도 그처럼 허영 먹읍수다.(그처럼 해야 맛 좋습니다. 우린 이제도 그처럼 해서 먹고 있습니다.)

107017 @ 거 퍼렁헌 느물 놔야.(거 퍼런 나물 놔야.)

107017 #2 예, 게고 느물도 하영 놔사마씀, 콩국엔.(예, 그리고 나물도 많이 놔야, 콩국엔.)

107017 @ 계난.(그러니까.)

107017 #2 이제도 콩국 끓리민양 맛 좋아마씨.(이제도 콩국 끓이면 맛 좋아요.)

107017 @ 이 저 콩국은 저 겨울에 먹는 겨우다게.(이 저 콩국은 저 겨울에 먹는 것입니다.)

107017 #2 예게, 이제 콩 새 콩 나민 바싹 물이왕 ㄱ루 빵 낵당.(예, 이제 콩 새 콩 나면 바싹 말려서 가루 빵아 낵다가.)

107017 @ 이 콩국은 눈 올 때 바싹 추운, 추울 때 먹어야.(이 콩국은 눈 올 때 바싹 추운, 추울 때 먹어야.)

107017 #2 미깡 탈 때 콩국 끌어주민양 놓덜 잘 먹읍니다.(글 딸 때 콩국 끓여 주면요 놓들 잘 먹읍니다.)

107017 @ 최고, 최고. 이 저 여름에는 아이, 아이 먹고.(최고, 최고. 이 저 여름에는 아니, 아니 먹고.)

107017 #2 여름엔 기자 냉국이 최고마씨. 오이 냉국이 최고우다게.(여름엔 그저

179) ‘푸달푸달’은 가루 따위를 넣고 끓일 때 국물이 몹지 않고 꽤 건 모양이다.

냉국이 최고요. 오이 냉국이 최고입니다.)

107017 @ 웨, 웨, 물웨.(외, 외, 물외.)

107017 #2 물웨.(물외)

107017 @ 나도 이번에 물웨를 좀 가니까 아, 거 하영 으는 겁디다, 거.(나도 이번에 물외를 좀 가니까 아, 거 많이 여는 겁디다, 거.)

107017 #2 막 하영 나옵니다. 곧 날 땀 맛이 좋은디양, 것도 하도 우려먹어 가난 요즘은 먹어지질 안 험수다. 그거에 웬장 짝영 밥만 먹어도 밥 흔 사발 먹어집니다.(아주 많이 나옵니다. 곧 날 땀 맛이 좋은데요, 그것도 하도 우려먹어 가니까 요즘은 먹질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된장 짝어서 밥만 먹어도 밥 한 사발 먹을 수 있습니다.)

107017 @ 옛날은, 옛날은 그거 저.(옛날은, 옛날은 그거 저.)

107017 #2 이제도마씨.(이제도요.)

107017 @ 나 옛날 학교에도 거 웨 하나하고 웬장 난에 점심 도시락으로 썬 가 낫수다게.(나 옛날 학교에도 거 외 하나하고 된장 놔서 점심 도시락으로 싸서 갔었습니다.)

107017 #2 아이고, 옛날 말을 무사 험이짱? 난 우리 아기덜 최고 반찬 해 주는 게, 득새기, 계란 반찬이나벳기 안 해 줘 봤수다.(아이고, 옛날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난 우리 아기들 최고 반찬 해주는 게, 달걀, 계란 반찬이나밖에 안 해 줘 봤습니다.)

107018 @ 그다음에양 호박입국에 대허영 곁아줍서.(그다음에요 호박입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18 #2 호박입국은양 난 옛날식으로 끌렁 먹어집니다게. 호박입을 끓어당 영대에, 대에 영 짹짹허민 그 즐거리 다 벳겨져마씨. 그 이파리에 가시 닳은 거 싹 벳겨지고 허민.(호박입국은요 난 옛날식으로 끓여서 먹습니다. 호박입을 끓어다가 이렇게 대에, 대에 이렇게 짹짹하면 그 즐거리 다 벳겨져요, 그 잎사귀에 가시 같은 거 싹 벳겨지고 하면.)

107018 @ 그거 벳경.(그거 벳겨서.)

107018 #2 소쿠리 놔근에 막 그거 찌지명 물을 주멍 퍼렁헌 물 막 나도록 빨아 마씨.(소쿠리 놔서 마구 그거 찌으면서 물을 주면서 퍼런 물 마구 나도록 빨아요.)

107018 @ 아, 그추룩 해야 돼어?(아, 이처럼 해야 돼어?)

107018 #2 경 해불어사에 맛 좋읍니다게, 경 아이 허믄 국 끓인 국물이 퍼렁허 영 맛어십니다게. 게믄 그 손으로 찌지명 막 허영 막 물을 주멍양, 게믄 그 호박입 물이 시퍼렁헌 거 막 나옵니다.(그렇게 해버려야 맛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국 끓인 국물이 파래서 맛없습니다. 그러면 그 손으로 찌으면서 마구 해서 마구 물을 주면서요, 그러면 그 호박입 물이 시퍼런 거 마구 나옵니다.)

107018 @ 막 나오지.(마구 나오지.)

107018 #2 게믄 경 허민 그거 물 팔팔 메리치 낱 끝이다근에 그거 호박입 막

영 영 허영 영 영 찌지명 물 빠져가명 탁 놓으민, 또 콩국 끓이듯이 끓어 가가민  
저 밀가루 짓 타근에, 타근에 그거 경 우터레 허영 과랑케 끓이민양 거 막 맛 좋아  
마씨. 경 허영.(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거 물 팔팔 멀치 놔서 끓이다가 그거 호박잎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찢으면서 물 빠져가면서 탁 놓으면, 또 콩국 끓  
이듯이 끓어 가가면 저 밀가루 짓 타서, 타서 그거 그렇게 위로 해서 과랑케 끓이  
면요 거 아주 맛 좋아요. 그렇게 해서.)

107018 @ 거 저 소금 놓지양?(거 저 소금 넣지요?)

107018 #2 그거 소금.(그거 소금.)

107018 @ 그 저.(그 저.)

107018 #2 훤은 소금.(굵은 소금.)

107018 @ 나도 요번에 우리 집사름이 끝연에.(나도 요번에 우리 아내가 끓여  
서.)

107018 #2 맛 좋습니다.(맛 좋습니다.)

107018 @ 그거 허연에 우리 저 체베기 조금씩 헨에.(그거 해서 우리 저 수제비  
조금씩 해서.)

107018 #2 아, 저, 즈베기, 수제비?(아, 저, 수제비, 수제비?)

107018 @ 예.(예.)

107018 #2 경 해도 좋고, 그냥 밀가루 카근에.(그렇게 해도 좋고, 그냥 밀가루  
타서.)

107018 @ 아, 그거 좋습니다.(아, 그거 좋습니다.)

107018 #2 그추룩 허영 계난 밀가루양, 막 영 허영 흐끔 두툽허게 칸에 비우민  
영 즈베기 쥌쥌허게 나옵니다. 경허민 그자 소금 흐끔 놓으민양 잘도 베지근허게  
코시롱힙니다.(그처럼 해서 그러니까 밀가루요, 마구 이렇게 해서 조금 두텁게 타서  
부으면 이렇게 수제비 자잘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저 소금 조금 넣으면요 잘도  
비지근하게 고소합니다.)

107018 @ 아침에 나 데우지 말앙 냉으로 주렌 힙니다.(아침에 나 데우지 말고  
냉으로 주라고 합니다.)

107018 #2 예, 예.(예, 예.)

107018 @ 그냥 식은 것이 맛이십니다.(그냥 식은 것이 맛있습니다.)

107018 #2 맞수다게, 여름이난.(맞습니다, 여름이니까.)

107018 @ 예.(예.)

107018 #2 거 호박입국은 잘도 맛 좋습니다. 요새 사름덜 호박입국 끓이지 못힙  
니다게.(거 호박잎국은 잘도 맛 좋습니다. 요새 사람들 호박잎국 끓이지 못합니다.)

107018 @ 학교 갈 때도 그거 혼 사발 해 주난, 밥에 헨에.(학교 갈 때도 그거  
한 사발 해 주니까, 밥에 해서.)

107018 #2 맞수다게, 호박입국은 그추룩 허고, 또 호박입은 경 민딱 다듬앙은에  
웬장에 밥 쌍 먹어도 맛 좋습니다.(맞습니다, 호박잎국은 그처럼 하고, 또 호박잎은

그렇게 모두 다듬어서 된장에 밥 싸서 먹어도 맛 좋습니다.)

107018 @ 예, 웬장에. 아, 거 저 호박잎은 지금 끊지 말렌 허더라고.(예, 된장에. 아, 거 저 호박잎은 지금 끊지 말라고 하더라고.)

107018 #2 무사마씨?(왜요?)

107018 @ 호박 안 은텐.(호박 안 연다고.)

107018 #2 아, 아, 무사 안 읍니까게, 읍니다.(아, 아, 왜 안 엽니까, 엽니다.)

107018 @ 경 안 허는가?(그렇게 안 하는가?)

107018 #2 안 험니다. 어떻 안 해마씨.(안 합니다. 어떻게 안 해요.)

107018 @ 심 엇은에 호박잎 트다불민.(힘 없어서 호박잎 뜯어버리면.)

107018 #2 끄트머리, 호박잎은양 끄트머리 것이 연허고 호박잎이 잘 험주게, 호박잎 드리 허멍 먹어도 어떻 안 험니다.(끄트머리, 호박잎은요 끄트머리 것이 연허고 호박잎이 잘 하지요, 호박잎 계속 하면서 먹어도 어떻게 안 합니다.)

107018 @ 호박 안 은텐 허멍, 경해도 호박잎 툐아도 묘종 하나에 요번에 보난 호박 열하나 올앗더라고.(호박 안 연다고 하면서, 그래도 호박잎 뜯어도 묘종 하나에 요번에 보니까 호박 열하나 열엇더라고.)

107018 #2 늦지 아이 헛수가? 요새 막 호박덜 익언.(늦지 않았습니까? 요새 막 호박들 익어서.)

107018 @ 익언, 익언에.(익어서, 익어서.)

107018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18 @ 익어신디양 장마전에 막 햇빛 나부난 호박잎이 짝 죽어부네.(익었는데요 장마져서 막 햇빛 나버리니까 호박잎이 짝 죽어버리네.)

107018 #2 아, 호박잎도 늙어 가가민 쥬 썬근에양 못 먹읍니다게, 파랑헌 때.(아, 호박잎도 늙어 가가면 재를 썬서요 못 먹읍니다, 파랄 때.)

107018 @ 아, 게메 장마전에 막 입이 독헌고라.(아, 글썬 장마져서 아주 잎이 독한지.)

107018 #2 이전인 호박잎 나도 먹고 해신디, 요새도 우리 밧은 요쪽 흔 메틀 끌 령 먹을 거 이십디다, 파랑허연. 이신디 흥끔 서 가불민 호박잎이 쥬 썬 헤양허영양 못 먹읍니다.(이전엔 호박잎 나도 먹고 했는데, 요새도 우리 밧은 요쪽 한 며칠 끌 여서 먹을 거 있습니다, 파래서. 있는데 조금 있어 가면 호박잎이 재를 썬서 하에서 못 먹읍니다.)

107018 @ 아, 호박은 잘 으는 거라, 그거.(아, 호박은 잘 여는 거야, 그거.)

107018 #2 겐디 이젠 옛날ㄴ썬 잘 먹어지질 안 험수다게.(그런데 이젠 옛날같이 잘 잘 먹지를 앓고 있습니다.)

107018 @ 우리도양 호박 헤근에 아파트에.(우리도요 호박 해서 아파트에.)

107018 #2 장시 허여?(장시 해?)

107018 @ 아이, 아는 사름덜 하나씩 영 주민 막 종양.(아니, 아는 사람들 하나씩 이렇게 주면 아주 좋아서.)

107018 #2 지꺼정.(기꺼워서.)  
 107018 @ 지꺼정은에양.(기꺼워서요.)  
 107018 #2 아, 호호호.(웃음)(아, 호호호.(웃음))  
 107018 @ 요번에.(요번에.)  
 107018 #2 맞수다, 도시 사름덜은 사 먹읍주게.(맞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사 먹  
 습지요.)  
 107018 @ 나도.(나도.)  
 107018 #2 이젠 이디 저 갈치호박국 저 이제양 갈치 낱 국 끌리민 맛 좋습니  
 다.(이젠 여기 저 갈치호박국 저 이제요 갈치 낱서 국 끓이면 맛 좋습니다.)  
 107018 @ 저 그건 토종이 최고.(저 그건 토종이 최고.)  
 107018 #2 예, 호박은 갈치국에 제일 맛 좋습니다.(예, 호박은 갈치국에 제일 맛  
 좋습니다.)  
 107018 @ 그 저 거에는 호박입은 안 튼지양, 그 저 애호박, 마디호박.(그 저 거  
 에는 호박입은 안 뜯지요, 그 저 애호박, 마디호박.)  
 107018 #2 마디호박은 데평은에 무청이나 먹주.(마디호박은 데워서 무쳐서나 먹  
 지.)  
 107018 @ 그거 저.(그거 저.)  
 107018 #2 그거 익으면 맛엇입니다게.(그거 익으면 맛없습니다.)  
 107018 @ 호박입 안 튼지양?(호박입 안 뜯지요?)  
 107018 #2 예, 그 애호박은 안 먹읍니다.(예, 그 애호박은 안 먹읍니다.)  
 107018 @ 토종 호박이라야.(토종 호박이라야.)  
 107018 #2 예, 우리 이제 영 막 줄 번어가는 호박이라야.(예, 우리 이제 이렇게  
 마구 기는줄기 번어가는 호박이라야.)  
 107018 @ 토종게.(토종요.)  
 107018 #2 예. 그 애호박이엔 현 그거는 어린 때에 데평 무쳐 먹는 건 맛 좋고,  
 저런 호박은 익어야 맛 좋고, 경 허는 거 아니우파?(예. 그 애호박이라고 한 그거는  
 어릴 때에 데워서 무쳐 먹는 건 맛 좋고, 저런 호박은 익어야 맛 좋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07019 @ 그다음에 묵국<sup>180</sup>)에 대허영 곱아줍서, 묵국.(그다음에 ‘묵국’에 대해  
 서 말해주십시오, ‘묵국’.  
 107019 #2 묵국은 계난 난 이제도 묵국은 묵국 허영 먹어집니다. 빼다귀 사당  
 빼다귀 사당은에 초불 낱 막 퀘우당 그거 ㅋ큔 시청 물 다 비왕 ㅋ큔 시청, 또 새  
 로 딸리민 물이 뿌영헉니다, 빼다귀, 경 허여근에 그거 문딱 빼 털어튀 몸 놓고 그  
 거 또 ㅁ멸카루 시민 더 좋아마씨. ㅁ멸카루, 호박입국에덜 놓는, 그것도 카 놓곡  
 메운 고추 두어 개 썰어놓곡 허민양 그거 좋습니다.(‘묵국’은 그러니까 난 이제도  
 ‘묵국’은 ‘묵국’ 해서 먹어집니다. 빼다귀 사다가 빼다귀 사다가 애벌 낱서 막 끓이

180) ‘묵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이다.



다가 그거 깨끗이 씻어서 물 다 부어서 깨끗이 씻어서, 또 새로 달이면 물이 부었습니다. 뼈다귀, 그렇게 해서 그거 모두 뼈 털어워서 모자반 놓고 그거 또 메밀가루 있으면 더 좋아요. 메밀가루, 호박잎국에들 놓는, 그것도 타 놓고 매운 고추 두어 개 떨어놓고 하면요 그거 좋습니다.)

107019 @ 잔치집이 하영 허지 안 험니까양?(잔치집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7019 #2 옛날 잔치집 도새기 잡으면 그처럼 헤낫는디, 고기 삶아난 국물에 그냥 몸 떨어낫 그처럼 허영 끌렁 먹어십주. 요새 사름덜 그거 기름 드각드각한<sup>181)</sup> 거 먹어집니까?(옛날 잔치집 돼지 잡으면 것처럼 했었는데, 고기 삶았던 국물에 그냥 모자반 떨어낫서 것처럼 해서 끓여서 먹었습지요. 요새 사름들 그거 기름 ‘드각드각한’ 거 먹을 수 있습니까?)

107019 @ 옛날 수에 터진 거허고.(옛날 순대 터진 거하고.)

107019 #2 예. 수에 삶아난 거허고, 수에 삶아난 국물에 몸국 끌린 건 맛좋습니다.(예. 순대 삶았던 거하고, 순대 삶았던 국물에 ‘몸국’ 끓인 건 맛 좋습니다.)

107019 @ 아, 그거 맛 좋아마씨. 수에 그.(아, 그거 맛 좋아요. 순대 그.)

107019 #2 이제도 막 저 잔치 때 막 생각허영 끌리는 사름은 빼 사당 딸렁 몸국 그처럼 끌리멍 내남수게. 다마네기 떨어 농곡 저 미나리 사당 흥끔 농곡, 저 대파 농곡 그처럼 허영 짓 농곡 허영.(이제도 마구 저 잔치 때 아주 생각해서 끓이는 사름은 빼 사다가 달여서 ‘몸국’ 것처럼 끓이면서 내놓고 있습니다, 양파 떨어 넣고 저 미나리 사다가 조금 넣고, 저 대파 넣고 것처럼 해서 많이 넣고 해서.)

107019 @ 저 파보단 저 뭐가 좋지 안 험니까?(저 파보다는 저 뭐가 좋지 않습니까?)

107019 #2 미나리.(미나리)

107019 @ 패마농?(쪽파?)

107019 #2 패마농도게.(쪽파도요.)

107019 @ 쪽파?

107019 #2 쪽파 이제 뭐 허는 사름은 이제.(쪽파 이제 뭐 하는 사름은 이제.)

107019 @ 이제 싱겁지양?(이제 심고 있지요?)

107019 #2 이제사 싱거, 이제 안 싱근 사름이 핫수다게, 양, 그거허고.(이제야 싱어, 이제 안 심은 사름이 많습니다, 예, 그거하고.)

107019 @ 어제께 아침이 간.(어제께 아침에 가서.)

107019 #2 싱급디가?(심었습니까?)

107019 @ 저 패마농, 먹을 거 좀 싱건.(저 쪽파, 먹을 거 좀 심었어.)

107019 #2 하, 나도 씨만 헤단 놔된 안 헨, 안 싱건 그냥 잇수다게.(하, 나도 씨만 헤다가 놔뒤서 안 했어, 안 심어서 그냥 있습니다.)

107019 @ 계난 울로 요만큼 헨에.(그러니까 요기로 요만큼 해서.)

107019 #2 그건양 메어 똥 싱그민 먹고 또 메어 똥 싱그민 먹곡 험니다게.(그건

181) ‘드각드각하다’는 돼지고기 삶아 난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요 매어 뒤서 심으면 먹고, 또 매어 뒤서 심으면 먹고 합니다.)

107019 @ 겐 그 세우리허고, 꽤마농 싱그고.(그래서 그 부추하고, 쪽파 심고.)

107019 #2 세우리사 뭐 갈양만 내불믄, 그냥 메 허는 냥 나는 거난.(부추야 뭐 갈아서만 내버리면, 그냥 모종 하는 대로 나는 거니까.)

107019 @ 꽤마농도 마찬가지로 아니우파?(쪽파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107019 #2 꽤마농은 메영 물리와사 허주, 세우리 그냥 싱경만 내불민 내년이고 가고.(쪽파는 매어서 말려야 하지, 부추는 그냥 심어서만 내버리면 내년이고 가고.)

107019 @ 저 꽤마농은 씨로 크는 거 아니우파예?(저 쪽파는 씨로 크는 거 아닙니까?)

107019 #2 예게, 꽤마농은 씨로 허는 거.(예, 쪽파는 씨로 하는 거.)

107019 @ 그거 커 가민 새 거 나지양?(그거 커 가면 새로운 거 나지요?)

107019 #2 이제 싱그민 막 납니다. 이제 싱그민양 팔월 멩질 때 브듯허게.(이제 심으면 마구 납니다. 이제 심으면요 팔월 멩질 때 바듯이.)

107019 @ 금방 싹 나불어.(금방 싹 나버려.)

107019 #2 난 콧대사니 싱글 때에 콧대사니 읍이 싱경 놔두민양.(난 마늘 심을 때에 마늘 옆에 심어서 놔두면요.)

107019 @ 아, 영 고랑예?(아, 이렇게 고랑예?)

107019 #2 예, 싱경 놔두민 이만씩 허영.(예, 심어서 놔두면 이만씩 해서.)

107019 @ 고랑예?(고랑예?)

107019 #2 경 헤영 해당 먹곡 험니다.(그렇게 해서 해다가 먹고 합니다.)

107020 @ 생선국에 대허영 곱아줍서.(생선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20 #2 난.(난.)

107020 @ 식계 때 허지 안 험니까예?(제사 때 하지 않습니까?)

107020 #2 식계 때 갱국 끌리민 생선 큰 거 이런 거 사당 문딱 창지영 그 비늘 이영 다 벗겨뵤 그거 솥양 가시 문딱 털어뵤.(제사 때 갱 끓이면 생선 큰 거 이런 거 사다가 모두 창자랑 그 비늘이랑 다 벗겨뵤서 그거 삶아서 가시 모두 떨어뵤서.)

107020 @ 털어근예.(떨어서.)

107020 #2 예, 가시 털어뵤 무수 철예. 무수 철엔 무수 낱 끌리곡, 무수 철 넘으면 미역 낱 끌리곡, 경 허여근예 갱국을 끌려근예 경 허연 먹엇수다.(예, 가시 떨어뵤서 무 철예. 무 철엔 무 놔서 끓이고, 무철 넘으면 미역 놔서 끓이고, 그렇게 해서 갱을 끓여서 그렇게 해서 먹엇습니다.)

107020 @ 우리 집이는 늣뻬 낱 허기도 허고.(우리 집에는 무 놔서 하기도 하고.)

107020 #2 예, 늣뻬.(예, 무는.)

107020 @ 그다음예.(그다음예.)

107020 #2 늣뻬 철인 뻬 늣뻬 놔사 시원험니다.(무 철인 뻬 무 놔야 시원합니다.)

107020 @ 그 저 메역 낱 헐 때도 있고.(그 저 미역 놔서 할 때도 있고.)

107020 #2 예, 계난.(예, 그러니까.)

107020 @ 메역허고 늪뼤을 또 둘 다 낱 허더라고.(미역하고 무를 또 둘 다 놔서 하더라고.)

107020 #2 우린 늪뼤허고 미역은 둘 다 낱 해도 돼고, 늪뼤 놀 땐 늪뼤만 낱 허고, 또 미역 놀 땐 미역만 낱 허고, 늪뼤 낱 헐 게 철 땐 더 맛이 좋아마씨, 씨원허영.(우린 무하고 미역은 둘 다 놔서 해도 되고, 무 넣을 땐 무만 놔서 하고, 무 놔서 한 게 철 땐 더 맛이 좋아요, 시원해서.)

107020 @ 여기 옥돔을 생선이엔 허지양?(여기 옥돔을 생선이라고 하지요?)

107020 #2 예게, 옥돔을, 계난 이 저 바닷고기 싱싱헌 건 다 생선이엔 험수게.(예, 옥돔을, 그러니까 이 저 바닷고기 싱싱헌 건 다 생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7020 @ 아, 거난 바닷고기 싱싱헌 건?(아, 그러니까 바닷고기 싱싱헌 건?)

107020 #2 다 생선이엔 험니다.(다 생선이라고 합니다.)

107020 @ 게 여기 옥돔을 솔라니엔 험니까? 솔레기엔 험니까?(그래 여기 옥돔을 ‘솔라니’라고 험니까? ‘솔레기’라고 험니까?)

107020 #2 우린 여기서 저 갯국 허젠 허문 돔 같은 거 사당양, 생선은 큰 거 안 낱니다. 제주도 장애나.(우린 여기서 저 갯 하려고 하면 돔 같은 거 사다가요, 생선은 큰 거 안 낱니다. 제주도 장애나

107020 @ 아, 계난 옥돔을 여긴 솔라니엔 험니까?(아, 그러니까 옥돔을 여긴 ‘솔라니’라고 험니까?)

107020 #2 그냥 옥돔이엔 험니다.(그냥 옥돔이라고 합니다.)

107020 @ 옥돔?(옥돔?)

107020 #2 돔이엔, 돔.(돔이라고, 돔.)

107020 @ 옥돔양?(옥돔요?)

107020 #2 예, 옥돔이엔, 경 행 그거.(예, 옥돔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107020 @ 솔라니엔은 안 험구나?(‘솔라니’라고는 안 하고 있구나?)

107020 #2 솔라니엔은 안 험니다.(‘솔라니’라고는 안 합니다.)

107020 @ 우리 동넨 솔라니엔 허여.(우리 동넨 ‘솔라니’라고 해.)

107020 #2 우린 옥돔 사당은예.(우린 옥돔 사다가.)

107020 @ 성산포 쪽엔 솔레기엔 허는디.(성산포 쪽엔 ‘솔레기’라고 하는데.)

107020 #2 여긴양.(여긴요.)

107020 @ 여긴 그냥 옥돔?(여긴 그냥 옥돔?)

107020 #2 예게. 옥돔 잡아근예, 생선은 크지 안 허영 컷자 요거 하나만이 허민 갯국을 허질 못허니까.(예, 옥돔 잡아서, 생선은 크지 않아서 커야 요거 하나만큼 하면 갯을 하질 못하니까.)

107020 @ 벤자리로도 하영 허지양, 벤자리?(벤자리도 많이 하지요, 벤자리?)

107020 #2 벤자리는예, 갯국 잘 안 험니다. 그건 이 마에 흐끔 슬짝 그때만.(벤

자리는요, 갱 잘 안 합니다. 그건 이 장마에 조금 살짝 그때만.)

107020 @ 아, 꿩기 맛 좋던 혜근에.(아, 고기 맛 좋다고 해서.)

107020 #2 벤자리양, 이 마에 막 슬치는 거 아니우파게? 경 허영 허는디 우린 제사 때나 뭐 때나 저 돔 사다근에.(벤자리는요, 이 장마에 아주 살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린 제사 때나 뭐 때나 저 돔 사다가.)

107020 @ 돔 사당?(돔 사다가?)

107020 #2 우린 켤당덜이 하 노난 족족 허영 먹질 못합니다.(우린 친척들이 많아 놓으니까 적게 해서 먹질 못합니다.)

107020 @ 아, 거난 빼도 다 추리고?(아, 그러니까 빼도 다 추리고.)

107020 #2 빼, 가지까지 문딱 털어탕양 미역국을 끓이나 무수국을 끓이나 허민양 먹으멍 가지 하나 다듬을 디 엇어마씨.(빼, 가지까지 모두 떨어뒤서 미역국을 끓이나 무국을 끓이나 하면요 먹으면서 가지 하나 다듬을 데 없어요.)

107020 @ 아, 그거 공 때문에.(아, 그거 공 때문에.)

107020 #2 계난 그거 너무 민작허게.(그러니까 그거 너무 반드럽게.)

107020 @ 아, 우린 저 그냥 빼 채 다 해볼어.(아, 우린 저 그냥 빼 채 다 해버려.)

107020 #2 아, 그냥 너무 민작허게 삶으른 빼 못 털영 먹고 해부난.(아, 그냥 너무 반드럽게 삶으면 빼 못 떨어져 먹고 해버리니까.)

107020 @ 빼 걸리른 걸리는 거고.(빼 걸리면 걸리는 거고.)

107020 #2 어느 정도 삶으민양, 막 큰 낭푼이 허영 영 흐끔씩 수갈로 떼멍.(어느 정도 삶으면요, 아주 큰 양푼 해서 이렇게 조금씩 수저로 떼면서.)

107020 @ 언제 그걸 다 헐 말이우파?(언제 그걸 다 할 말입니까?)

107020 #2 아, 갱국 경 허멍.(아, 갱 그렇게 하면서.)

107020 @ 식게 출리젠 허곡, 그거 빼 다 추리곡.(제사 차리려고 하고, 그거 빼 다 추리고.)

107020 #2 경해도 우린 경 헛수다. 게문 먹으멍 하나 걸리질 안 험니께. 호호.(웃음)(그래도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먹으면서 하나 걸리질 않습니다. 호호.(웃음))

107021 @ 메역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줍서.(미역국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21 #2 아, 미역국은 예를 들어 게영국은 그추룩 허영 끌리고, 또 게영국 아녕 미역만 낱 국 끌렁 먹을 땐 된장 풀어놓게 나물국 끌리듯이 그추룩 허영 먹엄수게. 그거벧기.(아, 미역국은 예를 들어 갱은 것처럼 해서 끓이고, 또 갱 안 해서 미역만 놔서 국 끓여서 먹을 땐 된장 풀어놔서 나물국 끓이듯이 것처럼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107021 @ 메역도 보난에 여기 돌메역하고 육지 메역이 틀립디다양.(미역도 보니까 여기 돌미역하고 육지 미역이 다릅디다.)

107021 #2 하고 난 그건 잘 모르쿠다.(하고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07021 @ 여기 것이 훨씬 난 좋아 베어.(연기 것이 훨씬 난 좋아 봐어.)

107021 #2 안 좋아 베어?(안 좋아 봐어.)

107021 @ 아니 좋아마씨.(안 좋아요.)

107021 #2 나는 여기 해녀덜 아는 아이덜 하난양 그냥 바당이서 그냥 채취허영  
씻지 아녕 그대로 냉동을 시겨마씨. 비니루에 흐끔씩 흐끔씩 담양.(나는 여기 해녀  
들 아는 아이들 많으니까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채취해서 씻지 않아서 그대로 냉동  
을 시켜요. 비닐에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107021 @ 아, 나도 옛날은.(아, 나도 옛날은.)

107021 #2 그거 그 전에 냉동시기든 그냥 빨민 곧 바당이서 해운 미역이나 마  
찬가지 돼어마씨. 바당 냄새도 나고, 경 허여근에 먹읍니다.(그거 그 전에 냉동시기  
면 그냥 빨면 곧 바다에서 해운 미역이나 마찬가지로 되어요. 바다 냄새도 나고, 그렇  
게 해서 먹읍니다.)

107021 @ 아, 이 메역이 좋아마씨.(아, 이 미역이 좋아요.)

107021 #2 예.(예.)

107021 @ 우리도 혼 오 년 전이만 해도 메역은 실피 먹엇수다게, 큰형수가 이  
저 해녀 상군이엇어. 겐 줌네질 허단 돌아가셔불언.(우리도 한 오 년 전에만 해도  
미역은 실컷 먹었습니다. 큰형수가 이 저 해녀 상군이엇어. 그래서 해녀질 하다가  
돌아가셔 버렸어.)

107021 #2 아, 이젠 나도.(아, 이젠 나도.)

107021 @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7021 #2 줌네 허는 아이 알아지는데 그 미역 날 철엔 해당 그대로 영 싹 허  
영 냉동시경 놔뒀은에, 일 년 놔뒀도에 생생허여마씨.(해녀 하는 아이 알겠는데 그  
미역 날 철엔 해당 그대로 이렇게 싹 해해서 냉동시켜서 놔뒀서, 일 년 놔뒀도  
생생해요.)

107021 @ 아, 그거 취급주게. 여기 메역덜을 먹어야.(아, 그거 최고지요. 여기  
미역들을 먹어야.)

107021 #2 맛, 맛 이십주.(맛, 맛있습지요.)

107021 @ 아, 대정<sup>182)</sup> 가근에 바당 쌀 때라근에.(아, 대정 가서 바다 쌀 때는.)

107021 # 바당 쌀 때 해도예, 그 해녀덜은 벤벤허민양.(바다 쌀 때 해도요, 그  
해녀들은 아주 무거우면요.)

107021 @ 곁에 건 막 즐아양?(곁에 건 아주 잘아요?)

107021 #2 예, 즐아노민 경 임시 행 왕 먹음벳기, 놔뒀당은 제사 때에 못 먹읍  
니다.(예, 잘아 놓으면 그렇게 임시 해서 와서 먹음밖에, 놔뒀다가는 제사 때에 못  
먹읍니다.)

107021 @ 다 세어불고.(다 쇠어 버리고.)

---

182) '대정'은 여기서는 서귀포시 대정을 상모리 앞바다를 일컫는다.

107021 #2 예, 해녀덜은 지픈 바당에 강 허난에 맛 좋암주만은.(예, 해녀들은 깊은 바다에 가서 하니까 맛 좋지만.)

107022 @ 그다음에 여름철 뉘민 냉국, 냉국에 대해서 한번 곱아줍서.(그다음에 여름철 되면 냉국, 냉국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22 #2 냉국계 그냥.(냉국요 그냥.)

107022 @ 냉국도 여러 가지 잇지 안 허우짜?(냉국도 여러 가지 잇지 않습니까?)

107022 #2 물웨 타당은에 뉘장.(물외 따다가 된장.)

107022 @ 물웨 냉국도 잇고.(물외 냉국도 잇고.)

107022 #2 물웨 냉국도 허고.(물외 냉국도 하고.)

107022 @ 한치 냉국도 잇고.(한치 냉국도 잇고.)

107022 #2 한치 여기 한치 사당 냉국 행 먹는 사름이 어디 잇수가? 한친 식당에나 강은에 한치 물웨 상 먹는 건, 집이서 한치 사당 물웨 먹는 사름은 엇입니다.(한치 여기 한치 사다가 냉국 해서 머근 사람이 어디 잇습니까? 한치 식당에나 가서 한치 물회 사서 먹는 건, 집에서 한치 사다가 물회 먹는 사름은 없습디다.)

107022 @ 이제 한치도 안 남덴 허웨.(이제 한치도 안 나고 있다고 하되.)

107022 #2 한치 막 올린 빗낫덴 험디다.(한치 아주 올해는 비쌌다고 합디다.)

107022 @ 막 빗난.(아주 비싼.)

107022 #2 한치 요번이 우리 집아방<sup>183</sup>이영 물웨 먹으레 가난 만오천 원입디다.(한치 요번에 우리 ‘집아방’이랑 물회 먹으러 가니까 만오천 원입디다.)

107022 @ 아이고, 한치 안 남덴마씨.(아이고, 한치 안 나고 있다고요.)

107022 #2 이디도 게난 막 빗낫덴 험디다게. 게 오이 썰어놔근에 뉘장 양념허여근에 그거 허영 냉국 허영 떡국, 경 헛수게.(여기도 그러니까 아주 비쌌다고 합디다. 그래 오이 썰어놔서 된장 양념해서 그거 해서 냉국 해서 먹고, 그렇게 했습디다.)

107022 @ 게난 이 냉국 허민 물웨 냉국양?(그러니까 이 냉국 하면 물외 냉국요?)

107022 #2 물웨 냉국, 오이 냉국 최고우다게.(물외 냉국, 오이 냉국 최고입디다.)

107022 @ 옛날 그 우리.(옛날 그 우리.)

107022 #2 또 수박 그 뉘장 양념허여근에 수박?(또 수박 그 된장 양념해서 수박?)

107022 @ 수박도 행 먹어?(수박도 해서 먹어?)

107022 #2 냉국으로 아녕 수박 영 썰영 수박에 밥 비병 밥 먹어봅서. 반찬 엇이 혼 사발 후딱 험디다.(냉국으로 안 해서 수박 이렇게 썰어서 수박에 밥 비벼서 밥 먹어보십시오. 반찬 없이 후딱 합디다.)

183) ‘집아방’은 집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07022 @ 옛날 우리 저 밧디 가면은 물웨 냉국, 그 저.(옛날 우리 저 밧에 가면은 물외 냉국, 그 저.)

107022 #2 냉국은 물웨 수갈로 착착 끈영.(냉국은 물외 수저로 착착 끊어서.)

107022 @ 물 정 강 그다음에 물웨 수꾸락으로 삭삭삭 끈영 거기 웬장 버무렁 물 놓민 물웨 냉국이라.(물 저서 가서 그다음에 물외 숟가락으로 삭삭삭 끊어서 거기 된장 버무리서 물 넣으면 물외 냉국이야.)

107022 #2 무사 아이파게, 이제도.(왜 아닙니까, 이제도.)

107022 @ 거 칼도 엇인 때난 수꾸락으로.(거 칼도 없는 때니까 숟가락으로.)

107022 #2 맞수다게. 호호호.(웃음)(맞습니다. 호호호.(웃음))

107023 @ 그런 것도 하영 헨 먹엇수다. 그다음에양 성계국에 대허영 혼번 곶아 줍서, 성계국.(그런 것도 많이 해서 먹엇습니다. 그다음에요 성계국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23 #2 성계국은양, 성계국도 잘 알양 끌리민 맛 좋고, 아니 알양 끌리면 씩니다. 성계국 끌릴 땐 절대 뚜껍 더끄지 말아야마씨.(성계국은요, 성계국도 잘 알아서 끓이면 맛 좋고, 아니 알아서 끓이면 씩니다.)

107023 @ 성계를?(성계를?)

107023 #2 성계, 계난 성계가 만약에 오래 먹젠 허민 냉동실에 놀 거 아니우파? 막 놓민 거 풀리지 말양 냉동 채 팔팔 국거리만 끌리당 그거에 맞추양 톡 비우민양 냉동 풀어지명 톡톡톡톡 하나씩 문딱 털어집니다. 털민 그거 막 뭐허민 미역.(성계, 그러니까 성계가 만약에 오래 먹으려고 하면 냉동실에 놓을 거 아닙니까? 마구 넣으면 그거 풀리지 말고 냉동 채 팔팔 국거리만 끓이다가 그거에 맞추어서 톡 부으면 냉동 풀어지면서 톡톡톡톡 하나씩 모두 떨어집니다. 떨어면 그거 마구 뭐하면 미역.)

107023 @ 메역?(미역?)

107023 #2 메역 썰어낱 그 또 저.(미역 썰어놔서 그 또 저.)

107023 @ 메역귀는 안 돼지양?(미역귀는 안 되지요?)

107023 #2 예게, 메역 썰어놔근에 그 저 해물 다시다 흐끔 놓민양 맛 좋읍니다.(예, 미역 썰어놔서 그 저 해물 다시다 조금 넣으면 맛 좋습니다.)

107023 @ 해물 다시다 놔야 돼어.(해물 다시다 놔야 되어.)

107023 #2 예.(예.)

107023 @ 그냥 성계만으로는 맛이 엇어.(그냥 성계만으로는 맛이 없어.)

107023 #2 해물 다시다 놔야마씨. 그냥 춤 아니 허민양 맛 엇입니다. 아명 손맛 손맛 해도양 흐끔 놀 걸 놔야마씨. 우리 큰일 치를 때 국 끌일 땐양 그처럼 허영 허민 해물 다시다 흐끔 농곡 미원, 미원은 하영 놓민 맛이 글러붙어마씨. 해물 다시다 쪼끔 낮게 농곡 미원은 쪼끔만 놓민양 맛이 잘도 좋읍니다게.(해물 다시다 놔야. 우리 큰일 치를 때 국 끓일 땐요 것처럼 해서 하면 해물 다시다 조금 넣고 미원, 미원은 많이 넣으면 맛이 글러 버려요. 해물 다시다 조금 낮게 넣고 미원은 조금만

넣으면 맛이 좋습니다.)

107023 @ 겐디 우리 집사름은 미원은 일절 안 놔.(그런데 우리 아내는 미원은 일절 안 놔.)

107023 #2 안 놓지양, 겐디 우리 큰일 땀 약간 씩니다, 해물 다시다 흐끔 놓고 그거 약간 놓민양 아멩해도 맛이 틀립니다게. 큰일 치름은 흐끔 맛이 나아주, 가정에는 해물 다시다만 놔도 충분합니다. 양을 하영 낱 끌리니까 괜찬여는디 그레 약간 놔야 맛이 더 이십니다. 그추록 허영 경 행 성계국은 끌렁 먹엇수게.(안 넣지요, 그런데 우리 큰일 땀 약간 습니다. 해물 다시다 조금 넣고 그거 약간 넣으면요 아무래도 맛이 다릅니다. 큰일 치를 때는 조금 맛이 나아지, 가정에는 해물 다시다만 놔도 충분합니다. 양을 많이 놔서 끓이니까 괜찮은데 그리 약간 놔야 맛이 더 있습니다. 그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계국은 끓여서 먹었습니다.)

107023 @ 보말국<sup>184</sup>)에 대해서 한번 글아줍서.(‘보말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23 #2 보말국도 아까 보말국은 참기름 낱 삭삭삭 메역이영 낱 보말 까근에 참지름에 보깡 물 놔근에게, 거기도 다시다나 흐끔 놓곡게, 장물 놓민 그것이 보말국.(‘보말국’도 아까 ‘보말국’은 참기름 놔서 삭삭삭 미역이랑 놔서 고등 까서 참기름 볶아서 물 놔서요, 거기도 다시다나 조금 넣고요, 간장 넣으면 그것이 ‘보말국’.)

107023 @ 보말국에도 메역 놔야지양?(‘보말국’에도 미역 놔야지요?)

107023 #2 예게, 게른 맛 좋습니다, 것도. 우리도 해녀덜 어떤 땀 잡아다 주민행 먹고.(예, 그러면 맛 좋습니다, 것도. 우리도 해녀들 어떤 때 잡아다 주민행 먹고.)

107023 @ 이젠 보말들이 었어.(이젠 고등들이 없어.)

107023 #2 이젠 막 잡아 보말 칼국수 허는 디 허는 따문예, 이젠 보말도 잘 못 잡게 험니다게. 게도 해녀덜 물에 들영 흐 번씩 잡아지민 보냅니다.(이젠 마구 잡아서 고등 칼국수 하는 데 하는 때문에, 이젠 고등도 잘 못 잡게 합니다. 그래도 해녀들 물에 들어서 한 번씩 잡으면 보냅니다.)

107023 @ 이번엔 녀패국에 대해서 한번 글아줍서.(이번엔 녀패국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23 #2 녀패? 바당에 녀패, 녀패도양.(녀패? 바다에 녀패, 녀패도요.)

107023 @ 녀패 괜찮으지예.(녀패 괜찮지요.)

107023 #2 녀패 그 바당이서 쫄르민 그 돌에 밀영, 밀어야 됩니다.(녀패는 그 바다에서 자르면 그 돌에 밀어서, 밀어야 됩니다.)

107023 @ 무사 밀어?(왜 밀어.)

107023 #2 부드럽게 미는 거주게. 거 막 흐끔 억셉니다. 허영 와근에 여기 왕쭈양, 쭈양 아까 식으로 물 팔팔 끌려가갠 그거 메리치도 놓곡 그거 놓곡 허영 그것도 짓 낱 끌려야 맛 좋아마씨. 므말궤루나 밀가루나 짓 낱 끌립니다.(부드럽게 미는 거지요. 거 막 조금 억셉니다. 해서 와서 여기 와서 삶아서, 삶아서 아까 식으

184) ‘보말국’은 고등으로 끓인 국이다.



로 물 팔팔 끓여 가가면 그거 멀치도 넣고 그거 넣고 해서 그것도 많이 놔서 끓여야 맛 좋아요. 메밀가루나 밀가루나 많이 놔서 끓습니다.)

107023 @ 아, ㅁ멀ㄱ루나 밀가루, ㅈ<sup>185</sup> 낱?(아, 메밀가루나 밀가루 많이 놔서?)

107023 #2 예, 밀가루나, 그 ㅈ 낱 끝이민양 것도 막 맛 좋습니다. ㅁ국초록 막 맛 좋아, ㅁ국은 부드러운디 그건 ㅎ끔 익세면서도 맛 좋아마씨. 이젠 옛날ㄱ찌 그거 ㅎ영.(예, 밀가루나, 그 많이 놔서 끓이면요 것도 매우 맛 좋습니다. ‘ㅁ국’처럼 매우 맛 좋아. ‘ㅁ국’은 부드러운데 그건 조금 익세면서도 맛 좋아요. 이젠 옛날같이 그거 해서.)

107023 @ ㅁ패는 소금 놔야지양?(예, 밀가루나, 그 매우 많이 놔서 끓이면 그것도 아주 맛 좋습니다. ‘ㅁ국’처럼 아주 맛 좋아서, ‘ㅁ국’은 부드러운데 그건 조금 익세면서도 맛 좋아요. 이젠 옛날같이 그거 해서.)

107023 #2 예게, 소금 낱 끌러사 험니다.(예, 소금 놔서 끓여야 합니다.)

107023 @ ㅁ장 놓민 안 ㄹ고.(ㅁ장 넣으면 안 되고.)

107023 #2 예, 그건 소금이나 옛날 ㅈㅁ, 이젠, 옛날엔 ㅈㅁ 간장만 낱 먹어도 맛이 좋안게양 요즘은양 ㅈㅁ 간장만 낱 먹으난, 간장 냄새 난 듯허연 소금 논 거만이 못험디가게.(예, 그건 소금이나 옛날 ㅈㅁ에, 이젠, 옛날엔 ㅈㅁ에 간장만 놔서 먹어도 좋았는테요 요즘은요 ㅈㅁ에 간장만 놔서 먹으니까, 간장 냄새가 난 듯해서 소금 넣은 거만큼 못험디까.)

107023 @ 가시리국 ㅎ 먹어봘디가?(ㅍ가사리국 해서 먹어봘디가?)

107023 #2 가시리 그건 안 ㅎ 먹어보고, 가파도<sup>186</sup>, 요 ㅎ 오 년 전이 가파도 간 보난에.(ㅍ가사리 그건 안 해서 먹어보고, ‘가파도’, 요 한 오 년 전에 가파도 가서 보니까.)

107023 @ 가시리 반찬 ㅎ 먹어실 거라.(ㅍ가사리 반찬 해서 먹었을 거야.)

107023 #2 가시리 요만씩 허연에 하나에 오천 원씩 풀암시난 막 상 가렌 허난 우리 구경 ㅈ단 하나씩 산 완에 보끄난양 맛 좋읍디다게.(ㅍ가사리 요만큼씩 해서 하나에 오천 원씩 팔고 있으니까 마구 사서 가라고 하니까 우리 구경 ㅈ다가 하나씩 사서 와서 ㅁ으니까 맛 좋읍디다.)

107023 @ 국은 안 ㅎ 보고양?(국은 안 ㅎ 보고요?)

107023 #2 국은 안 ㅎ 보고. 그거 영 가시리 영 풀 썩은에.(국은 안 ㅎ 보고. 그거 이렇게 풀 썩서.)

107023 @ ㅁ지 ㅁ랏주게.(ㅁ지 ㅁ랏지요.)

107023 #2 난 ㅈ디 그거양 ㅈㅁ 완에 탁 물에 시천 물 ㅈ ㅁ 기름에 ㅈㅈㅈㅈ 허연 양념허난양 ㅈ들ㅈ들ㅈ들 허연 건 맛 좋읍디만은, 국은 안 ㅎ 먹어봘수다.(난 그런데 그거요 ㅈㅁ에 와서 탁 물에 ㅈ어서 물 ㅈ 빼서 기름에 ㅈㅈㅈㅈ 해서 양념하

185) ‘ㅈ’은 여기서는 ‘매우 많이’의 뜻이다.

186) ‘가파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이다.

니까요 꼬들꼬들꼬들 해서 건 맛 좋습디다만, 국은 안 해서 먹어봤습니다.)

107023 @ 가시리국도 끌렁 먹읍디다게, 계란 나도.(푯가사리국도 끓여서 먹읍디다, 그러니까 나도.)

107023 #2 가파도 간.(가파도 가서.)

107023 @ 가파도 초등학교 옆이 정식집이 가난 저 이거 보간에.(가파도 초등학교 옆에 정식집에 가니까 저 이거 볶아서.)

107023 #2 예, 예, 보까십디게양?(예, 예, 볶았습지요?)

107023 @ 예.(예.)

107023 #2 아, 나도 거기 간 보끈 거 흔 번 먹어보고 집이 완 그처럼 보끄난 맛 좋읍디다.(아, 나도 거기 가서 볶은 거 한 번 먹어보고 집에 와서 것처럼 볶으니까 맛 좋읍디다.)

107023 @ 맛 좋더라고.(맛 좋더라고.)

107023 #2 굿지 아이헙디다게. 집에서도 시청은에 물 빠주왕 기름에 낱 보깡 양념허민양 먹을만 헙디다.(굿지 아니헙디다. 집에서도 씻어서 물 빼줘서 기름에 놔서 볶아서 양념하면 먹을만 헙디다.)

107023 @ 거기서 가시리 반찬헌 거 흔 번 먹어보고.(거기서 푯가사리 거 한 번 먹어보고.)

107023 #2 예.(예.)

107023 @ 그다음에 저 시흥리<sup>187)</sup>?(그다음에 저 ‘시흥리’?)

107023 #2 예.(예.)

107023 @ 그 어촌계 헛집 조개로 죽 만드는 디, 거기 가난 가시리 반찬 나와십디다게.(그 어촌계 헛집 조개로 죽 만드는 데, 거기 가니까 푯가사리 반찬 나왔습디다.)

107023 #2 난 가파도 간에 먹어반, 가파도 우리 시어멍네 친족덜 하난 나 이거 풀암시난 언니 이거 상 갑센 허난 어떻 어떻 아는 사름이난 상 먹읍센 허난 흔 번 상 보깡 먹어본 후젠 사 보질 안 헛수다. 옛날에 우리 어린 때엔 거 사당 풀 췌 이 도비 헛집주게.(난 가파도 가서 먹어봤어, 가파도 우리 시어머니네 친족들 많으니까 나 이거 팔고 있으니까 언니 이거 사서 가시라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아는 사람이니까 사서 먹으시라고 하니까 한 번 사서 볶아서 먹어본 후에는 사 보질 안 헛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엔 그거 사다가 풀 췌서 이 도배 헛습지요.)

107023 @ 그다음에양 프래 알아지지에? 프래.(그다음에요 파래 알 수 있지요? 파래.)

107023 #2 파래, 바당에 파래.(파래, 바다에 파래.)

107023 @ 파래국에 대해서 글아줍서.(파래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23 #2 파래, 파래국은양 굴 사단에, 굴 사단에 파래 낱 국 끌리난 맛 좋고, 난 파래, 튀김, 튀김 가루에 허연 무천 튀기난 거 막 맛 좋읍니다.(파래, 파래국은요

---

187) ‘시흥리’는 서귀포시 성산을 시흥리이다.

굴 사다가, 굴 사다가 파래 뇌서 국 끓이니까 맛 좋고, 난 파래, 튀김, 튀김 가루에 해서 무쳐서 튀기니까 거 아주 맛 좋습니다.)

107023 @ 프레엔 험니까?('프레'라고 합니까?)

107023 #2 파래, 파래.(파래, 파래.)

107023 @ 파래예?(파래요?)

107023 #2 파래, 메생이엔도 허던가?(파래, 매생이라고도 하던가?)

107023 @ 메생이는 아니라.(매생이는 아니야.)

107023 #2 아니라양, 파래가 맞아.(아니예요, 파래가 맞아.)

107023 @ 메생이는 저 전라도 근방에 나는 거.(매생이는 전 전라도 근방에 나는 거.)

107023 #2 그냥 그거 허연 굴 흐끔 산 완에 끌렁 먹으난에.(그냥 그거 해서 굴 조금 사서 와서 끓여서 먹으니까.)

107023 @ 그거 비슷할 거우다, 메생이영.(그거 비슷할 것입니다, 매생이랑.)

107023 # 맛 좋습디다, 맛 좋아.(맛 좋습디다, 맛 좋아.)

107023 @ 물훤, 물훤에 대해서 흐끔 글아줍서. 한치 물훤, 자리 물훤.(물회, 물회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십시오. 한치 물회, 자리 물회.)

107023 #2 저 자리 물훤 나 맛 좋게 해집니다.(저 자리 물회는 나 맛 좋게 해집니다.)

107023 @ 자리 물훤.(자리 물회.)

107023 #2 자리도 문딱 손질허여근에 자리.(자리도 모두 손질해서 자리.)

107023 @ 자리 뭐냐 저 비늘.(자리 뭐냐 저 비늘.)

107023 #2 비늘 거시곡 가시 찢르곡 행 머리 찢라 두고 허여 텅은에 자리도예, 칼로 느슬게 허영 막 즘질게 가시를 억세지 안 허게 비슷비슷하게 영 썰어근에 난, 늪덜은 어떻게 허는지 몰라도 난 곧 자리를 썰면 참기름 잊지예, 참기름에 된장에 거 자리를 맛썩 무쳐마씨. 맛썩 무침 식초 두 방울만 뇌, 경 해서 거 자리가 부드러웁니다게. 경 허영 된장 양념 허여근에게 그거 물 농곡 식초 농곡, 그 참기름이 뇌 야마씨, 자리도예, 경 행 먹어봅서, 맛 좋습니다.(비늘 거스르고 가시 자르고 해서 머리 잘라 두고 해뉘서 자리도요, 칼로 날카롭게 해서 마주 자잘하게 가시를 억세지 않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썰어서 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난 곧 자리를 썰면 참기름 잊지요, 참기름에 된장에 거 자리를 맛있게 무쳐요. 맛있게 무쳐서 식초 두 방울만 뇌, 그렇게 해야 거 자리가 부드러웁니다. 그렇게 해서 된장 양념 해서 그거 물 넣고 식초 넣고, 그 참기름 뇌야 해요, 자리도요, 그렇게 해서 먹어보십시오, 맛 좋습니다.)

107023 @ 나도.(나도.)

107023 #2 물웨 썰어 농곡 미니리 흐끔 썰어 농곡 꿇입 흐끔 썰어 농곡 허영.(물외 썰어 넣고 미니리 조금 썰어 넣고 깻잎 조금 썰어 넣고 해서.)

107023 @ 요번에 저 일허단에 집사름안티 야, 저 모슬포<sup>188</sup>) 강 자리 물훤나 먹

영 집이 가게, 거기 가니까 저번이 가난 디 좇지 못허연. 그 저 항구식당<sup>189</sup>)?(요번에 저 일하다가 아내한테 야, 저 모슬포 가서 자리 물회나 먹어서 집에 가게, 거기 가니까 저번에 갔던 데 찾지 못해서. 그 저 항구식당?)

107023 #2 예, 항구식당도 잘 멘들아 줍니다.(예, 항구식당도 잘 만들어 줍니다.)

107023 @ 항구식당 가니까 맛이 아니더라고.(항구식당 가니까 맛이 아니더라고.)

107023 #2 겐디 자리 물회도양 너무 설탕 많이 놓지 말앙 약간만 낡 맛나게양, 웬장 양념 잘허여근에 오이 썰어 놓곡 미나리 약간 썰어 놓곡 허든 맛 좋습니다.(그런데 자리 물회도요 너무 설탕 많이 넣지 말고 약간만 놔서 맛나게요, 된장 양념 잘해서 오이 썰어 넣고 미나리 약간 썰어 넣고 하면 맛 좋습니다.)

107023 @ 계난 거기가 아니라, 그다음에.(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107023 #2 거기 다음 갈 때랑 그 항구식당 알녁웬이 보민 쌍둥이식당이라고 잇수다.(거기 다음 갈 때랑 그 항구식당 아래편에 보면 쌍둥이식당이라고 있습니다.)

107023 @ 아.(아.)

107023 #2 거기가 물회 취급주게.(거기가 물회 최고지요.)

107023 @ 항구식당 아이더라고.(항구식당 아니더라고.)

107023 # 예, 그 쌍둥이식당에 가야 최고우다.(예, 쌍둥이식당에 가야 최고입니다.)

107023 @ 보목리<sup>190</sup>) 갓을 때, 초기에 그 저.(보목리 갓을 때, 초기에 그 저.)

107023 #2 겐디 그 보목리는 자리가 맛이 엇넨 허여.(그런데 그 보목리는 자리돔이 맛이 없다고 해.)

107023 @ 아이, 믿음이 잇고양, 아까같이 잘 썰영은에 허민, 거기는.(아니, 믿음이 잇고요, 아까같이 잘 썰어서 하면, 거기는.)

107023 #2 잘 썰영.(잘 썰어서.)

107023 @ 거기는 이 사발로 안 나오고 통째로 낭푼이에 영.(거기는 이 사발로 안 나오고 통째로 양푼에 이렇게.)

107023 #2 아.(아.)

107023 @ 나오난 거 거리멍 영 먹으니까양.(나오니까 거 뜨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107023 #2 좋읍디강? 계난 자리 물웬예, 자리 싱싱하게끄름 영 해야주, 자리 너무 익혀불어도 맛이 엇어마씨. 겐디 자리 물회 잘 허든양 자리 물회 진짜 맛십니다.(좋읍디까? 그러니까 자리 물회는요, 자리 싱싱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자리 너무 익혀버려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자리 물회 잘 하면요 자리 물회 진짜 맛있습니다.)

107023 @ 올웬 한치 안 낡넨 허영 한치물웬 못 먹어보고.(올해는 한치 안 난다)

188) '모슬포'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이다.

189) '항구식당'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포구에 있는 식당 이름이다.

190) '보목리'는 서귀포시 보목동이다.

고 해서 한치물회는 못 먹어보고.)

107023 #2 한치물회 허긴 험수다. 그래도 빗나마씨.(한치물회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싸요.)

107023 @ 그 저 냉동헌 거 닳아.(그 저 냉동헌 거 같아.)

107023 #2 아니 길람십디다, 어항에, 어항에.(아니 기르고 있습니다, 어항에, 어항에.)

107023 @ 비싸주, 비싸.(비싸지, 비싸.)

107023 #2 만오천 원이우다, 흔 그릇에.(만오천 원입니다, 한 그릇에.)

107023 @ 와.(와.)

107023 #2 겐디 잘 한치 많이 놓질 아니허여. 겐디 시에보단은 많이 놔마씨. 시에 강 한치 물회 먹어신디 진짜 맛어십디다. 무신거 요멘헌 거 몇 점 놓지도 아니허고양.(그런데 잘 한치 많이 놓지를 아니해. 그런데 시에보다는 많이 놔요. 시에 가서 한치 물회 먹었는데 진짜 맛없습디다. 무엇 요만한 거 몇 점 넣지도 아니하고요.)

## 죽류

107024 @ 오늘은 저 죽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오늘은 저 죽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7024 #2 예.(예.)

107024 @ 그 죽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강?(그 죽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7024 #2 죽 종류는 우리 옛날 거 팯죽, 콩죽, 팥죽, 유죽, 또 우리 옛날엔 모인 좁쌀 낱, 노란 좁쌀, 그것도 낱 죽 썩 먹어나고 호박죽.(죽 종류는 우리 옛날 거 팔죽, 콩죽, 참깨죽, 들깨죽, 또 우리 옛날엔 메진 좁쌀 놔서, 노란 좁쌀, 그것도 나서 죽 썩서 먹었었고 호박죽.)

107024 @ 아.(아.)

107024 #2 게 그것벳기 더 잇수가?(그래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107024 @ 아, 거난.(아, 그러니까.)

107024 #2 뭐 요 해변 그트민 전복죽도 행 먹곡, 뿔 허주만은 여기는 웃드르<sup>191)</sup>라부난예 그런 건 엇고마씨.(뭐 요 해변 같으면 전복죽도 해서 먹고, 뿔 하지는 만은 여기는 '웃드르'라 버리니까 그런 건 없고요.)

107025 @ 그 흰죽 알아지시예?(그 흰죽 알지요?)

107025 #2 흰죽은예, 옛날 감기몸살 걸리민 흰죽이라도 썩 먹으렌 허영 해 흰죽 썩 먹엇수다. 지금도 흰죽 썩 먹읍니다, 지금도.(흰죽은요, 옛날 감기몸살 걸리면 흰죽이라도 썩서 먹으라고 해서 거의 흰죽 썩서 먹엇습디다. 지금도 흰죽 썩서 먹읍니다, 지금도.)

107025 @ 게 흰죽 썩 때 어떻 허여마씨?(그래 흰죽 썩 때 어떻게 해요?)

191)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이다.

107025 #2 우린양 흰죽 쓸 때에 쓸을 흔 서너니 불 막 행광, 쌀을 막 손으로요, 그거를 막 밀어가면 그 쌀물이 보양게 나오민 그걸로 쓸은 쪼겐허게 농곡 물은 많이 놔근에 오래오래 젓으멍 썬가면예 물이 풀풀헌 게 맛있어마씨. 경 허여근에 아픈 사름 정도 썬 주고 해봤수다.(우린요 흰죽 쓸 때에 쌀을 한 서너 벌 마구 행구어서, 쌀을 마구 손으로요, 그거를 마구 밀어가면 그 쌀물이 보양게 나오면 그걸로 쓸은 조그맣게 넣고 물은 많이 놔서 오래오래 저으면서 썬가면 물이 풀풀헌 게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 그렇게도 썬서 주고 해봤습니다.)

107025 @ 나룩쌀로 헛수강? 산디쌀로 헛수강?(볍쌀로 했습니까? 발벼쌀로 했습니까?)

107025 #2 아이고게, 나룩쌀 시민 나룩쌀이 맛 좋읍주게. 산디쌀이, 산디쌀을 아멩헤도게 모영 쪼락집니다게.(아이고, 볽쌀 있으면 볽쌀이 맛 좋읍지요. 발볍쌀이, 발볍쌀을 아무래도 뺏어요.)

107025 @ 계난에 우선 쓸을 씻어?(그러니까 우선 쌀을 씻어서?)

107025 #2 쓸을 처음에 물만 서너 불 헤 나민 어느 정도 굶인물은 다 시쳐질 거 아니우파? 경허른 손으로 쓸을 막 영 밀어 가가면양 거기서 쌀물이 나와마씨, 햐양게 나오민 그거 허영 젓으면서 죽 썬가면 풀풀헌 게 맛 좋읍니다게.(쌀을 처음에 물만 서너 벌 헤 나면 어느 정도 구정물은 다 씻어질 거 아넵니까? 그러면 손으로 쌀을 마구 이렇게 밀어 가가면 거기서 쌀물이 나와요, 햐양게 나오면 그거 해서 저으면서 죽 썬가면 풀풀헌 게 맛 좋읍니다.)

107025 @ 계난 초불 물은 비와불지양?(그러니까 애벌 물은 부어버리지요?)

107025 #2 시칠 때에 초불 물 비우곡, 두불 물 비우곡, 시불 물 비와난 다음엔 막 쓸만 손으로 밀어 가가면 거기가 쓸물 보양게 나옵니다게. 그때에 물 놔근에 썬는 거라마씨, 흰죽이라고.(씻을 때 애벌 물 붓고, 두벌 물 붓고, 세벌 물 부어난 다음엔 마구 쌀만 손으로 밀어 가가면 쌀물 보양게 나옵니다. 그때에 물 놔서 썬는 거예요, 흰죽이라고.)

107025 @ 쓸 그 저 뭐냐 흰죽 쓸 때 막 부꺼불지 안 헵니까양?(쌀 그 저 뭐냐 흰죽 쓸 때 마구 끓어 넘쳐 버리지 않습니까?)

107025 #2 흰죽 쓸 땐 두경 올양은에 젓으멍 썬가면 부끄지 아이 헵니다. 두경을 단양 썬은 안 뵈주게. 열여근에 젓으면서 썬야 뵈니까. 이거 배 아픈 사름덜도 열 나근에 밥 못 먹켄 허른 흰죽덜 썬 아픈 사름 주로 드러십주게, 경 헤근에.(흰죽 쓸 땐 두경 열어서 저으면서 썬가면 끓어 넘치지 않습니다. 두경을 단아서 썬서는 안 되지요. 열어서 저으면서 썬야 되니까. 이거 배 아픈 사름덜도 열 나서 밥 못 먹겠다고 하면 흰죽들 썬서 아픈 사름 주로 드러십주게, 그렇게 해서.)

107025 @ 흰죽엔 소금 안 놓지양?(흰죽엔 소금 안 넣지요?)

107025 #2 흰죽에 소금은 안 낵 그냥 물로 풀풀 허는 따른 그대로 행 먹고, 또 싱겁덴 허른 또 이녁대로 소금 흐끔 낵 먹는 사름 식곡, 주로 소금 아니 놔근에양, 그 물을 먹켄 풀풀허게 그냥 썬사 헵니다게.(흰죽에 소금은 안 놔서 그냥 물로 팔팔

하는 때문 그대로 해서 먹고, 또 싱겁다고 하면 또 이녀대로 소금 조금 놔서 먹는 사람 있고, 주로 소금 안 놔서요, 그 물을 먹으려고 팔팔하게 그냥 썬야 합니다.)

107025 @ 거난 소금 놓니깁? 장을 놓니깁?(그러니까 소금 넣습니까? 간장을 넣습니까?)

107025 #2 아이고, 소금 놓주, 장물은 안 놓니다. 장물 놓는 건 생선이나, 생선 죽이나 썰 때는 소금으로, 장물로 간을 허고 경 아니힐 땐 아무 간도 아니 해봤수다.(아이고, 소금 넣지, 간장은 안 넣습니다. 간장 넣는 건 생선이나, 생선죽이나 썰 때는 소금으로, 간장으로 간을 하고 그렇게 안 할 땐 아무 간도 안 해봤습니다.)

107026 @ 그다음에 조죽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그다음에 좁쌀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7026 #2 예.(예.)

107026 @ 조죽 썰 때는 모인조로 험니까?(좁쌀죽 썰 때는 메조로 합니까?)

107026 #2 모인조로만.(메조로만.)

107026 @ 모인조로?(메조로?)

107026 #2 예, 노랑조라고 허영은에 모인조 좁쌀이 십니다, 노랑게양.(예, 노랑조라고 해서 메조 좁쌀이 있습니다, 노랑게요.)

107026 @ 차조는?(차조는?)

107026 #2 차, 차조는 죽 안 썬니다. 밥에 놔 가지고 보리밥 할 때에 뜸 들이젠 그 위에 놔 가지고 허엿주. 죽은 그걸로 안 썬수다.(차, 차조는 죽 안 썬니다. 밥에 놔 가지고 보리밥 할 때에 뜸 들이려고 그 위에 놔 가지고 하엿지. 죽은 그걸로 안 썬수다.)

107026 @ 저 모인조 죽 썰 땐 좁쌀만 놔마씨?(저 메조 죽 썰 땐 좁쌀만 놔요?)

107026 #2 예게, 좁쌀만 놔.(예, 좁쌀만 놔서.)

107026 @ 좁쌀만.(좁쌀만.)

107026 #2 예, 흰쌀이영 놔근에 쭈면은 고소허게 맛 좁주마는 우리 할 때, 이제는 조죽덜 안 썰 먹으난 해도 옛날엔 쌀 엇이민양 쌀 흐끔 농곡 그거 ㄴ찌 놔도 괜 찬여마씨. 게도 주로 옛날엔 모인 죽이든 모인 죽, 뜨로 썰 없는 사람 못 살 때에 그거 썰 먹어십주. 이젠 그거 썰 먹는 사람 엇입니다.(예, 흰쌀이랑 놔서 쭈면은 고소허게 맛 좋지만 우리 할 때, 이제는 좁쌀죽들 안 썬서 먹으니까 해도 옛날엔 쌀 없으면 쌀 조금 넣고 그거 같이 놔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로 옛날엔 메진 죽이면 메진 죽, 살 없는 사람 못 살 때에 그거 썬서 먹었습지요. 이젠 그거 썬서 먹는 사람 없습니다.)

107026 @ 거난 조죽은 어떻 할 때 쭈는 거라마씨?(그러니까 좁쌀죽은 어떻게 할 때 쭈는 거지요?)

107026 #2 조죽도 마찬가지로 시치믄 막 곳인물 하영 납니다게. 경허믄 이제.(좁쌀죽도 마찬가지로 씻으면 아주 구정물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107026 @ 아픈 사람 잇일 때에?(아픈 사람 있을 때에?)

107026 #2 예, 경 허여근에 그거 우리 난 우리 시어머니 아플 때에 그거 미음이라고예, 아과근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에 그거예 확 초불 물, 두어불 물 행구와똥 막 낱 썩 가든 그것이 쌀죽보다도 풀풀허영예, 체로, 막 썩낱 체로 걸르든 물이 풀 풀힌 게 맛 좋습니다게. 경 해근엔 아픈 어른덜은 쌀죽보단 그 미음이엔 허영예 그 게 더 고소해근에 썩 드러났수다.(예, 그렇게 해서 그거 우리 난 우리 시어머니 아플 때에 그거 미음이라고, 아과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에 그거요 확 애벌 물, 두어 벌 물 행귀뒤서 마구 놔서 썩 가면 그것이 쌀죽보다 팔팔해서요, 체로, 마구 썩 놔서 체로 거르면 물이 팔팔한 게 맛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픈 어른들은 쌀죽보다는 그 미음이라고 해서 그게 더 고소해서 썩서 드렸었습니다.)

107026 @ 거난 조도 씻어근에?(그러니까 조도 씻어서?)

107026 #2 줍쌀도 시쳐야 험주.(줍쌀도 씻어야 하지.)

107026 @ 죽도마씨?(죽도요?)

107026 #2 예, 예.(예, 예.)

107026 @ 너무, 너무 즈질안게.(너무, 너무 잘아서요.)

107026 #2 즈질아도예, 그거 시치민 뜨지 안 허영양 글라앗입니다.(잘아도요, 그거 씻으면 뜨지 않아서 가라앉습니다.)

107026 @ 글라앗아마씨?(가라앉아요?)

107026 #2 글라앗양, 경 헤사 죽이 흐끔 말짱허주, 줍쌀은예 시치든 거멍허여마씨. 미음 그추룩 허연 많이 썩 봤수다.(가라앉아야, 그렇게 해야 죽이 조금 말끔하지, 줍쌀은요 씻으면 거메요. 미음 것처럼 해서 많이 썩 봤습니다.)

107026 @ 무신거 따른 거 놓는 건 엇수가? 놓는 건 없지양?(무엇 다른 거 넣는 건 없습니까? 넣는 건 없지요?)

107026 #2 조, 조죽은 그냥 아프지 안 현 사람 우리가 썩 먹젠 허여근에 험 땀예, 옛날 늑덜 잇지 아니허파?(조, 줍쌀죽은 그냥 아프지 않은 사람 우리가 썩서 먹으려고 해서 할 때는요, 옛날 마물 잇지 않습니까?)

107026 @ 아, 늑덜도 놔마씨?(아, 나물도 놔요?)

107026 @ 늑덜 칼로 썰지 아니허영 손으로 막 무지렁 놓든예, 뭉탕뭉탕 늑덜 맛 좋습니다. 경도 험 썩 먹어났수다, 옛날.(나물 칼로 썰지 않아서 손으로 마구 무질러서 넣으면요, 뭉텅뭉텅 나물 맛 좋습니다. 그렇게도 해서 썩서 먹었었습니다, 옛날.)

107026 @ 아.(아.)

107026 #2 불르젠, 할망덜, 옛날에.(불리려고, 할머니들, 옛날에.)

107026 @ 불리젠 허는 거주.(불리려고 하는 거지.)

107026 #2 예, 예.(예, 예.)

107026 @ 계난 조금만이 놓는 것이 아니고 늑덜도?(그러니까 조금만 넣는 것이 아니고 나물도?)

107026 #2 예, 늑덜 많이 놔근에양 죽 썩근에 그땀 옛날엔 간장 난 간을 헤십



주, 죽에.(예, 나물 많이 놔서요 죽 썬서 그땐 옛날엔 간장 놔서 간을 했습지요, 죽에.)

107027 @ 그다음에 팏죽, 팏죽에 대허영 한번 곁아줍서.(그다음에 팔죽, 팔죽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27 #2 팏죽은양 팏을 흔 두어 불 확 시경 이제난 압력솥이 성 막 솥뜨른 텀주마는 옛날엔 압력솥 었엇수게. 었으른 솥디 낵 솥앙, 소쿠리 잇지양, 구멍 난 소쿠리, 소쿠리에 낵 그 저 국자로 막 영 영 영 데기명 물 내려 가가민 그것이 밍기 데기명 웃어집니다. 경 허영 쓸 놔근에 팏죽은 그추록 허연 썬 먹엇수다.(팔죽은요 한 두어 별 확 잇어서 이제니까 압력솥이 있어서 마구 삶으면 되고 잇지만 옛날엔 압력솥 없엇습니다. 없으면 솥에 놔서 삶아서, 소쿠리 잇지요, 구멍 난 소쿠리, 소쿠리에 놔서 그 저 국자로 마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무르면서 물 내려 가가면 그것이 밀어 주무르면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쌀 놔서 팔죽은 것처럼 해서 썬서 먹엇습니다.)

107027 @ 거난 팏죽 쓸 때, 동짓날도 팏죽 썬 먹지 안 험니까?(그러니까 팔죽 쓸 때, 동짓날도 팔죽 썬서 먹지 않습니까?)

107027 #2 예, 동짓날을 그추록 행 팏죽 썬다 새알 잇지양? 쌀 물에 당갓다가 저 떡집이 강 곁아당 새알, 새알 만들앙 낵 동지 때 그튼 때 그추록도 허영 먹곡예.(예, 동짓날을 것처럼 해서 팔죽 썬다 새알 잇지요? 쌀 물에 당갓다가 저 떡집에 갈아서 갈아다가 새알, 새알 만들어서 와서 동지 때 갈을 때 것처럼도 해서 먹어요.)

107027 @ 무사 동지 땐 팏죽 썬 먹어신고양?(왜 동지 땐 팔죽 썬서 먹엇는지요?)

107027 #2 모르쿠다, 동지 때도 영, 우린 아는 말이우파게? 옛날 어른덜 곤는 거 보민 아기 동지 때는 죽 썬 먹지 안 허곡, 어른 동지 때는 그추록 허영 거 죽을 먹으면 옛날 할망덜은 꼭 어긔담<sup>192)</sup>에 간에 죽을 썬민 우리 먹기 전에 간에 뿌립디다. 게난 그걸 무사 경 험수젠 허난 이 감기 걸리지 말렌 독감 예방으로 그거 경 험젠 허연게 우린 의미 몰라마씨. 옛날 어른덜 말허는 거 들음뿐입주.(모르겠습디다, 동지 때도 이렇게, 우린 아는 말입니까? 옛날 어른들 말하는 거 보면 아기 동지 때는 죽 썬서 먹지 않고, 어른 동지 때는 것처럼 해서 거 죽을 먹으면 옛날 할머니 들은 ‘어긔담’에 가서 죽을 썬면 우리 먹기 전에 가서 뿌립디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잇습니까 하니까 이 감기 걸리지 말라고 독감 예방으로 그거 그렇게 하고 잇다고 하던데 우린 의미를 몰라요. 옛날 어른들 말하는 거 듣기뿐이지.)

107027 @ 그 저 영장 나민 사둔덜 팏죽 썬 오지 안 험니까양?(그 저 영장 나민 사둔들 팔죽 썬서 오지 않습니까?)

107027 #2 예, 팏죽 썬 갑니다게, 팏죽 썬. 그건 비린<sup>193)</sup>가심으로 허연 옛날에

192) ‘어긔담’은 거릿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목의 양옆 담이다.

193) ‘비리다’는 꺼림칙한 송장이나 마소 등 동물이 죽은 것은 보고 몸이 더러워지다는 뜻이다.

팟죽을 썼고, 사돈 돌아가시면 사돈덜이 왕 팟죽 썰 맥여십주게.(예, 팔죽 썰서 갑니다, 팔죽 썰서. 그건 ‘비린’ 가슴으로 해서 옛날에 팔죽을 썼고, 사돈 돌아가시면 사돈들이 와서 팔죽 썰서 먹었습지요.)

107027 @ 그 성복제 전이.(그 성복제 전에.)

107027 #2 예, 게난 그것이 비린 가슴으로 팟죽을 썰 맥엇덴 험니다.(예, 그러니까 그것이 ‘비린’ 가슴으로 팔죽을 썰서 먹었다고 합니다.)

107027 @ 옛날 거민 저 성복허기 전이덜.(옛날 그러면 저 성복하기 전에들.)

107027 #2 예.(예.)

107027 @ 허영 왕, 게난 이제는 팟죽 쑤는 디 별로 엇고.(해서 와서, 그러니까 이제는 팔죽 쑤는 데 별로 없고.)

107027 #2 아이고, 이제도 쑤니다.(아이고, 이제도 쑤니다.)

107027 @ 이제도마씨?(이제도요?)

107027 #2 예, 이제도, 이제도 쑤니다.(예, 이제도, 이제도 쑤니다.)

107027 @ 이젠 팟죽 대신 라면?(이젠 팔죽 대신 라면?)

107027 #2 라면 허는 사름도 셔도예, 사돈 혼 사름은 꼭 팟죽 썰 오랜 허영 그걸 맥입니다. 라면, 담배 ㄴ쁜 거, 상제 한 단예.(라면 하는 사람도 있어도요, 사돈 한 사람은 꼭 팔죽 썰서 오라고 해서 그걸 먹입니다. 라면, 담배 같은 거, 상제 많은 데는요.)

107027 @ 이젠 담배 안 허여.(이젠 담배 안 해.)

107027 #2 아이고, 이쪽더렌 이제도 허는 사름도 싯수다. 흐끔 특이허게 허는 사름은, 게 아니허민 라면 열 개짜리나 다섯 개짜리나 혼 무끔씩 싯수다게, 그것덜 테우곡, 그추록 험니다, 이레. 팟죽은 비린 가슴이엔 허여근에 그걸 어디서 사돈네 집이서 들어오지 안 허민 본주에서라도 혼 말치<sup>194</sup> 썰수게. 이렌 경 험니다.(아이고, 이쪽으론 이제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하는 사람은, 그래 앓으면 라면 열 개짜리나 다섯 개짜리나 한 묶음씩 있습니다, 그것들 태우고, 그처럼 합니다, 이리. 팔죽은 ‘비린’ 가슴이라고 해서 그걸 어디서 사돈네 집에서 들어오지 앓으면 본주에서라도 한 ‘말치’ 쑤고 있습니다. 이리로는 그렇게 합니다.)

107027 @ 옛날 보민 그 저 뭐냐, 팟죽 그, 옛날 뭐팡? 물 정 뎡이는 것고라.(옛날 보면 그 저 뭐냐, 팔죽 그, 옛날 뭐입니까? 물 져서 다니는 것더러.)

107027 #2 옛날 팟죽 말아 물 정 다니는 거마씨?(옛날 팔죽 말고 물 져서 다니는 거요?)

107027 @ 팟죽 안네 물 정 뎡기는 거, 물, 물병이냐?(팔죽 안에 물 져서 다니는 거, 물, 물병이냐?)

107027 #2 아니, 팟죽 안네 물병은 안 놓고예, 팟죽 썰 갈 때 사돈네 집이 술 혼 뎡 꼭 가정 강은예.(아니, 팔죽 안에 물병은 안 넣고요, 팔죽 썰서 갈 때 사돈네 집에 술 한 되 꼭 가져서 가서.)

194) ‘말치’는 한 말 드는 크기의 솔이다.

107027 @ 아, 계난.(아, 그러니까.)

107027 #2 상더레 올령 절 험니다게.(상으로 올려서 절 합니다.)

107027 @ 풋죽 담을 때, 그때 옛날게 물 질어당 먹은 거 뭐우파?(팔죽을 담을 때, 그때 옛날요 물 질어다가 먹은 거 뭐입니까?)

107027 #2 허벅<sup>195</sup>.(‘허벅’.)

107027 @ 예, 허벅, 허벅.(예, 허벅, 허벅.)

107027 #2 허벅으로.(허벅으로.)

107027 @ 허벅에 담양.(허벅에 담아서.)

107027 #2 사둔네 집이 당흔 사둔네 집인 허벅으로 두 께 정 가고, 또 가지 사둔, 만약에 조케네 집이나 사둔 죽영 흐끔 영 먼 사둔은 흔 허벅 정 가고, 당흔 사둔은 두 허벅 정 가고 경 헛수다. 흔 바리, 죽 흔 바리 행.(사둔네 집에 당 사둔네 집에는 허벅으로 두 개를 저서 가고, 또 가지 사둔, 만약에 조카네 집이나 사둔 죽어서 조금 이렇게 먼 사둔은 한 허벅 저서 가고, 당 사둔은 두 ‘허벅’ 저서 가고 그렇게 헛수다. 한 바리, 죽 한 바리 해서.)

107027 @ 예.(예.)

107027 #2 예, 경 헛나수다.(예, 그렇게 헛엇수다.)

107027 @ 옛날은 그 저 쉼 질메로 행은에 가서양?(옛날은 그 저 소 길마로 해서 갔어요?)

107027 #2 예, 옛날에 경 허곡, 또 이젠 차 시난 현디 차 엇일 땐 구루마에 실령 가곡, 구루마, 또 경운기 실 땐 경운기에 실령 가곡 경 헛수다.(예, 옛날에 그렇게 하고, 또 이젠 차 있으니까 하는데 차 없을 땐 마차에 실어서 가고, 마차, 또 경운기 있을 땐 경운기에 실어서 가고 그렇게 헛수다.)

107027 @ 계난 그때는 사둔집에서 사둔 돌아가섯덴 허민 흐루종일 풋죽 쑤는 거 닳아.(그러니까 그때는 사둔집에서 사둔 돌아가섯다고 하면 하루종일 팔죽 쑤는 거 같아.)

107027 #2 예게, 사둔 죽엇젠 또 무슨걸 연락을 오민 풋 사당은에 죽 쑤는 게 일이라 나십주. 호호.(웃음)(예, 사둔 죽었다고 또 무엇을 연락을 오면 팔 사다가 죽 쑤는 게 일이었습지요. 호호.(웃음)

107027 @ 죽 썬근에 그거 실러가고.(죽 썬서 그거 실어가고.)

107027 #2 예, 이젠 저 어디, 화순<sup>196</sup>은 썬 풀암수게.(예, 이젠 저 어디, 화순은 썬서 팔고 있습니다.)

107027 @ 아, 예. 계난 메경도 현덴 험니다.(아, 예. 그러니까 맡겨서도 안다고 합니다.)

107027 #2 이젠, 이젠 메견덜 험수게.(이젠, 이젠 맡겨서들 하고 있어요.)

107027 @ 아, 이젠, 성복제는 풋죽 먹는 것도 잘 없어, 보니까.(아, 이젠, 성복

195)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다.

196) ‘화순’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를 말한다.

제는 팔죽 먹는 것도 잘 없어, 보니까.)

107027 #2 도시렌 어떻 험신디사양, 촌엔양 비린 가심이렌 허영 만약에 이 동네 사돈이 이시민 이 동네 사돈은 꼭 풋죽 썩 가곡, 또 어디서 쓸 데 엇이민예 본주에서 쭉고, 이젠 사름덜이 간세허영 풋죽 쭉젠덜 아니허영 아까 말따나 라면, 라면으로 왕 주로 테웁니다게, 게도.(도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요, 촌에는노 ‘비린’ 가슴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동네 사돈이 있으면 이 동네 사돈은 꼭 팔죽 썩서 가고, 또 어디서 쓸 데 없으면요 본주에서 쭉고, 이젠 사람들이 게올러서 팔죽 쭉려고들 안 해서 아까 말처럼 라면, 라면으로 와서 주로 테웁니다, 그래도.)

107027 @ 라면허고 저 그 안에 봉봉 하나 담양.(라면하고 저 그 그 안에 봉봉 하나 담아서.)

107027 #2 예게, 경해도, 경 허게 댜민 본주에서 흔 흔 솟은 씹니다게.(예,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본주에서 한 한 솟은 씹니다.)

107028 @ 예, 콩죽에 대허영 곶아줍서, 콩죽.(예, 콩죽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28 #2 콩죽은 콩 물이왕은에 방앗간에 강 곶아오믄 콩가루 잇지 안 험니까? 콩가루 이시민 그거 쓸 흔 사발이면 콩가루도 흔 사발, 경 허영 그거 쓸에 막서꺼마씨.(콩죽은 콩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곶아오면 콩가루 잇지 않습니까? 콩가루 있으면 그거 쌀 한 사발이면 콩가루도 한 사발, 그렇게 해서 그거 쌀에 마구 섞어요.)

107028 @ 음.(음.)

107028 #2 게믄 물 팔팔 끌어 가가민 그레 흐끔씩 흐끔씩 놓으멍.(그러면 물 팔팔 끌어 가가면 그리 조금씩 조금씩 놓으면서.)

107028 @ 쓸도 놔마씨?(쌀도 놔요?)

107028 #2 예게, 콩죽은 쓸러레 서경 ㄴ찌 낱 씹니다게.(예, 콩죽은 쌀로 섞어서 같이 놔서 씹니다.)

107028 @ 아, 거, 콩가루만 놓지 아니허영?(아, 거, 콩가루만 넣지 않아서?)

107028 #2 아이고, 콩가루만 놓지 안 허고 쌀이영 ㄴ치. 쌀에 콩가루에 서팅 물 팔팔 끌어 가가민 그거 흐끔씩 병덩이지지 말게양 그거 젓으멍 허믄 콩죽이 제라허게 맞은, 콩죽이 더 맛 좋습니다. 호호,(웃음) 고소한 게.(아이고, 콩가루만 넣지 않고 쌀이랑 같이. 쌀에 콩가루에 섞어서 물 팔팔 끌어 가가면 그거 조금씩 덩어리지지 말게 그거 저으면서 하면 콩죽이 제대로 맞은, 콩죽이 더 맛 좋습니다. 호호,(웃음) 고소한 게.)

107028 @ 게난 옛날 보믄 이 콩죽은 막 부끄곡.(그러니까 옛날 보면 이 콩죽은 마구 끓여 넘치고.)

107028 #2 콩죽 부꺼도양, 부끄게 험수가게, 젓으멍 두경 올양 쭉는 따믄.(콩죽 끓여 넘쳐도요, 끓여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저으면서 두경 열어서 쭉는 따믄.)

107028 @ 풋죽은 안 부끄고.(팔죽은 안 끓여 넘치고.)

107028 #2 풋죽도 안 부꺼도 풋죽도 두경 올양 젓으멍 놀지 말게 젓곡, 콩죽도

다 혈 때까지 짓읍니다.(팔죽도 안 끊어 넘쳐도 팔죽도 뚜껑 열어서 저으면서 눈지 말게 짓고, 콩죽도 다 할 때까지 짓읍니다.)

107028 @ 옛날 말 들어보민 어떤 사름안틴 콩죽 주곡, 어떤 사람안틴 팯죽 주곡 그런 말이 잇어.(옛날 말 들어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콩죽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팯죽 주고 그런 말이 잇어.)

107028 #2 아이고, 옛날에 그 말은 이녁 손지 막 아까운 손진 팯죽을 주고, 또 미운 손진 콩죽을 줬젠 험니다. 팯죽만 먹은 손지는 막 얼굴에 것 보고 뭐엔 험니까? 봉뎡이<sup>197)</sup>, 봉뎡이, 여기 막 하근거 일어나는 거, 그처럼 피부가 안 좋곡, 콩죽 먹은 아인 막 살쩍에 보그락허게.(아이고, 옛날에 그 말은 이녁 손자 아주 아까운 손자는 팯죽을 주고, 또 미운 손자는 콩죽을 줬다고 험니다. 팯죽만 먹은 손자는 마구 얼굴에 것 보고 뭐라고 험니까? ‘봉뎡이’, ‘봉뎡이’. 여기 마구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거, 것처럼 피부가 안 좋고, 콩죽 먹은 아이는 아주 살찌서 보드랍게.)

107028 @ 거 버즘 아닌가, 버즘?(거 버짐 아닌가, 버짐.)

107028 #2 버즘 아니고, 팯죽은 먹으민, 영양이 엇어.(버짐 아니고, 팯죽은 먹으면, 영양이 없어.)

107028 @ 엇수다, 엇어마씨.(없읍니다, 없어요.)

107028 #2 얼굴이 그 막 무슨 막 봉뎡이 닳은 거 일어난데 험니다게. 게난 아까운 손지는 얼굴에 그처럼만 허고, 미운 손진 콩죽만 쥘 놔두난 막 살찌고 고왔젠, 옛날 어른덜 말이 잇어마씨.(얼굴이 그 마구 무슨 마구 ‘봉뎡이’ 같은 거 일어난다고 험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손자는 얼굴에 것처럼만 하고, 미운 손자는 콩죽만 쥘 놔두니까 아주 살찌고 고왔다고, 옛날 어른들 말이 잇어요.)

107028 @ 거난 콩죽은 언제 하영 먹어마씨?(그러니까 콩죽은 언제 많이 먹어요?)

107028 #2 콩죽은양, 콩이 이제 가을 냥 콩을 꺼꺼근에 두드렁 장만허지 안 험니까? 장만허른 겨울에 바싹 물리와, 이 메주 삶을 때 ㄱ튼 때에 콩 곶아당 겨울에 막 추워근에 눈 온 날 ㄱ튼 날은 해 콩죽 쥘 먹엇수다게.(콩죽은요, 콩이 이제 가을 나서 콩을 꺾어서 두드려서 장만하지 않읍니까? 장만하면 겨울에 바싹 말려, 이 메주 삶을 때 같은 때에 콩 곶아다가 겨울에 아주 추워서 눈 온 날 같은 날은 거의 콩죽 쥘서 먹엇읍니다.)

107028 @ 음, 콩죽, 거난 겨울에양?(음, 콩죽, 그러니까 겨울에요?)

107028 #2 예, 겨울에 주로 쥘 먹엇수다.(예, 겨울에 주로 쥘서 먹엇읍니다.)

107028 @ 콩죽을.(콩죽을.)

107028 #2 예.(예.)

107028 @ 팯죽도 게민 거의 겨울에?(팔죽도 그러면 거의 겨울에?)

107028 #2 예게.(예.)

107028 @ 겨울이나 동지 때.(겨울이나 동지 때.)

---

197) ‘봉뎡이’는 잘 못 먹어서 버짐처럼 살갓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107028 #2 예게. 풋죽도 겨울, 콩죽도 겨울, 여름엔 경 죽덜을 경 안 쏘디다게.  
(예. 팔죽도 겨울, 콩죽도 겨울, 여름엔 그렇게 죽들을 그렇게 안 쏘디다.)

107029 @ 그 믰죽 먹어봅디가?(그 메밀죽 먹어봤습니까?)

107029 #2 믰죽 죽 썩 먹읍니다게. 믰죽 아픈 사름 곤썩 낵 죽 쑤당 네중에  
믰죽 흥끔 낵도 쑤고, 믰죽만도 낵 쑤곡양, 믰죽도 죽 막 썩 먹으믄 맛 좋아  
마씨.(메밀쌀 죽 썩서 먹읍니다. 메밀쌀 아픈 사름 흰쌀 낵서 죽 쑤다가 나중에 메  
밀쌀 조금 낵서도 쑤고, 메밀쌀만도 낵서 쑤고요, 메밀쌀도 죽 마구 썩서 먹으면 맛  
좋아요.)

107029 @ 믰 믰튼 경우는 믰 꼴아당은예?(메밀 같은 경우는 메밀 갈아다  
가?)

107029 #2 믰을예, 이 저 겨울에, 가을에 장만힙니다게. 경 허면은 바싹 물리  
왕 겨울 나민 할망덜 심심허민 겨울에, 이제난 겨울에 헛주만은, 옛날엔 보리만 갈  
아불민 일이 엇엇수다게. 일 엇으민 겨울엔 믰 간 사름덜은 옛날 손으로 믰는 믰  
레가 잇지 아이허파? 그거에 허영 푸는체에 평 또 믰는체로 친 건, 내린 건 그 알  
러레, 것 보고 뭇엔 힙니까? 범벅행 먹는 거, 것 보고?(메밀을요, 이 저 겨울에, 가  
을에 장만힙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싹 말려서 겨울 나면 할머니들 심심하면 겨울에,  
이제니까 겨울에 헛지만은, 옛날엔 보리만 갈아버리면 일이 없었습니다. 일 없으면  
겨울엔 메밀 간 사름들은 옛날 손으로 가는 맷돌이 잇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서 키  
에 까블러, 또 가는체로 친 건, 내린 건 그 아래로, 그것보고 뭇라고 합니까? 범벅  
해서 먹는 거, 그것 보고?)

107029 @ 아, 갑자기 잊어불언.(아, 갑자기 잊어버렸어.)

107029 #2 나도 잊어불엇수다. 그 그걸로 행 범벅행 먹곡, 믰죽은 꼴아당 즈  
베기도 행 먹곡, 죽도 썩 먹곡, 저 청묵<sup>198)</sup>도 쑤곡 경 헛수게, 거 청묵은 베찰리에  
낵근에 물 등갓당 그레 낵 딸렁 청묵은 그쑤룩 허영 만들고 경 아니허믄 믰레 갓당  
믰루로 헌 건 물에 강 그거 딸렁 그자 믰죽 만들고 경 헤십주게.(나도 잊어버렸습  
니다. 그 그걸로 해서 범벅해서 먹고, 메밀쌀은 갈아다가 수제비도 해서 먹고, 죽도  
썩서 먹고, 저 ‘청묵’도 쑤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 ‘청묵’은 베자루에 낵서 물 담갓  
다가 그리 낵서 달여서 ‘청묵’은 것처럼 해서 만들고 그렇게 안 하면 맷돌 갓다가  
가루로 한 건 물에 타서 그거 달여서 그저 메밀죽 만들고 그렇게 했습지요.)

107029 @ 그 옛날 보믄 저 애기 난 사름안티?(그 옛날 보믄 저 애기 난 사름한  
테?)

107029 #2 애기 난 사름안틴 믰죽루 먹으민 피가 삭넨 허영, 미역 농곡 즈베  
기에, 물락, 그 물락허게 카근에.(애기 난 사름한테는 메밀가루 먹으면 피가 삭는다  
고 해서, 미역 넣고 수제비요, 물렁, 그 물렁하게 타서.)

107029 @ 그 즈베기구나, 즈베기.(그 수제비구나, 수제비.)

107029 #2 즈베기, 그거 허여근에.(수제비, 그거 해서.)

198) ‘청묵’은 메밀쌀을 물에 불려 그 앙금으로 썩 묵을 말한다.

107029 @ 죽이 아니고양?(죽이 아니고요?)

107029 #2 예, 아기 어머님들 주로 먹었습니다.(예, 아기 어머니들 주로 먹었습니다.)

107029 @ 계란 꺾죽은 찰도 넣고?(그러니까 메밀죽은 쌀도 넣고?)

107029 #2 그 아기 어머님 주는 거는 찰로 안 하고, 그레 골아당 그루로. 그루로 미역 농곡, 찹지름 농곡 허영, 아기 어머한테.(그 아기 어머니 주는 거는 쌀로 안 하고, 맷돌 갈아다가 가루로 미역 넣고, 찹지름 넣고 해서, 아기 어머니한테.)

107029 @ 아니, 보통 꺾죽은?(아니, 보통 메밀죽은?)

107029 #2 꺾죽은 찰만 넣 끌리고.(메밀죽은 쌀만 넣어서 끓이고.)

107029 @ 아, 찰도 넣고.(아, 쌀도 넣고.)

107029 #2 찰만, 꺾죽만.(쌀만, 메밀쌀만.)

107029 @ 아, 꺾죽만.(아, 메밀쌀만.)

107029 #2 그거 넣 주로 썰 먹고.(그거 넣 주로 썰서 먹고.)

107030 @ 그다음에 녹죽?(그다음에 녹두죽?)

107030 #2 녹죽도 죽 썰 먹었습니다.(녹두도 죽 썰서 먹었습니다.)

107030 @ 녹죽도 죽, 풋이나 비슷한 거냐.(녹두도 죽, 팔이나 비슷한 거냐.)

107030 #2 예, 녹두에, 팔팔 물 끓여 빨리 확 흔들지 아니하면 녹두는, 그 딱딱한 것이 있어마썸게. 그 물, 물같이엔 허영.(예, 녹두는, 팔팔 물 끓여서 빨리 확 흔들지 않으면 녹두는, 그 딱딱한 것이 있어요. 그 물 물같이라고 해서.)

107030 @ 꺾죽?(꺾죽?)

107030 #2 아니, 녹두가예 일지 아니하면 딱딱한 것이 하나씩 셔마썸. 계란 그건예, 물 팔팔 끓일 때, 그거를 잘하면 다 익곡, 경 아니하면 딱딱한 것이 이셔마썸.(아니, 녹두가예 일지 않아서 딱딱한 것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예, 물 팔팔 끓일 때, 그거를 잘하면 다 익고, 그렇게 안 하면 딱딱한 것이 있어요.)

107030 @ 나도 먹당은에 이빨 상하면, 죽 먹으멍.(나도 먹다가 이빨 상했어, 죽 먹으면서.)

107030 #2 예, 이빨 상한 안 험니다만은 계도 딱딱한 것이 있어 녹죽이 더 맛 좋습주게.(예, 이빨 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딱딱한 것이 있어서 녹죽이 더 맛 좋습지요.)

107030 @ 풋보단양?(팔보다는요?)

107030 #2 풋보다.(팔보다.)

107030 @ 아멩해도, 계란 녹죽은 잘 안 썬고, 아, 저 무신거 많이 썬, 이 저 어디냐? 삼계탕집, 삼계탕에 녹두 넣.(아무래도, 그러니까 녹죽은 잘 안 썬고, 아, 저 무엇 많이 썬, 이 저 어디냐? 삼계탕집, 삼계탕에 녹두 넣.)

107030 #2 예, 썬디 이젠 압력솥이 신 때문에 익지 안 허지 안 허영 잘 익어마썸. 옛날엔 솥만 썬는 때문 물같이엔 허영 하나씩 딱딱한 것 셋주만은 이젠 압력솥이 솥이면예, 다 익습니다게. 썬디 녹두가 풋만이 하영 남수가게? 갈민 흐끔 갈민

손으로 타근에 다 장만허는 따문 잘, 녹두 이젠 농사 잘 아니허여마씨.(예, 그런데 이젠 압력솔이 있기 때문에 익지 안 하지 않아서 잘 익어요. 옛날엔 솔에만 불을 때는 때문 물갈이라고 해서 하나씩 똑똑한 것 있었지만 이젠 압력솔에 삶으면요, 다 익습니다. 그런데 녹두가 팔만큼 많이 나고 있습니까? 갈면 조금 손으로 따서 다 장만하는 때문 잘, 녹두 이젠 잘 안 해요.)

107030 @ 게난 녹디가 보난에 익어가민 거 타야 헐 거 아니우짱?(그러니까 녹두가 보니까 익어가면 거 따야 할 거 아닙니까?)

107030 #2 예, 익으면 타야 돼는 거.(예, 익으면 따야 되는 거.)

107030 @ 거멍허면은.(거메면.)

107030 #2 예, 맞수다게.(예, 맞습니다.)

107030 @ 거멍허민 타야 돼고.(거메면 따야 되고.)

107030 #2 그거 영 탕 물리우멍 마께에 두드렁 장만허고 이젠 경 험수게.(그거 이렇게 따서 말리면 방망이에 두드려서 장만하고 이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7030 @ 거난 그 손, 사름 손이 하영 들어가는 거.(그러니까 그 손,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거.)

107030 #2 예, 손도 하영 들어가곡, 빗남도 허곡, 이젠 잘 안 갈압수다. 쪼금 그자 우영팻디 혼 고지 갈양 그자 그런 식으로나 갈앗주.(예, 손도 많이 들어가고, 비싸기도 하고. 이젠 잘 안 갈고 있습니다. 쪼금 그저 터알에 한 이랑 갈아서 그저 그런 식으로나 갈았지.)

107030 @ 게난 옛날 나도 이 녹디 타레 텅겨봤수다만 아침에 가근에 타야 웨어.(그러니까 옛날 나도 이 녹두 따러 다녀봤습시다만 아침에 가서 따야 돼.)

107030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30 @ 낮에 거 막 벨라져불어.(낮에 거 마구 드러나 버려.)

107030 #2 영 영 허른 뿌사져불영, 찰찰찰.(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서져 버려, 찰찰찰.)

107030 @ 뿌사져불영은에.(부서져 버려서.)

107030 #2 오그라지멍 벨라정.(휘어지면서 드러나 버려.)

107030 @ 아침 세백이 가근에.(아침 새벽에 가서.)

107030 #2 까져불영, 까져불영.(까져버려서, 까져버려서.)

107030 @ 그 이 녹딘 학교 다니멍도 하영 탄 먹엇수다게, 초등학교 때.(그 이 녹두는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따서 먹엇습니다, 초등학교 때.)

107030 #2 예, 맛 좋읍니다게.(예, 맛 좋습니다.)

107030 @ 퍼렁헌 때.(퍼런 때.)

107030 #2 흐끔 익은 건 비린내 나고, 흐끔 얼랑얼랑헌<sup>199)</sup> 건 맛 좋고. 호호호.(웃음)(조금 익은 건 비린내 나고, 조금 ‘얼랑얼랑한’ 건 맛 좋고. 호호호.(웃음)

107030 @ 타근에 학교 강오멍 막 먹어났수다.(따서 학교 오가면서 마구 먹엇엇

199) ‘얼랑얼랑하다’는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이다.



습니다.)

107030 #2 그거 옛날 우리 세대에 난 사람, 촌에 산 사람은 안 먹어본 사람이 옛일 겨우다.(그거 옛날 우리 세대에 난 사람, 촌에 산 사람은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07030 @ 녹디, 그다음에 멘네드래, 드래.(녹두, 그다음에 목화다래, 다래.)

107030 #2 예, 감저 싱경 놔두민 다 파먹어볼고.(예, 고구마 심어서 놔두면 다 파먹어 버리고.)

107030 @ 감저 파오고.(고구마 파오고.)

107030 #2 보리, 콩. 호호호.(웃음)(보리, 콩. 호호호.(웃음))

107031 @ 그다음에 득죽 먹어봤지양? 득죽.(그다음에 닭죽 먹어봤지요? 닭죽.)

107031 #2 득죽 안 먹어 본 사람이 어디 잇수가?(닭죽 안 먹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7031 @ 득죽에 대허영 곁아줍서.(닭죽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31 #2 득죽은.(닭죽은.)

107031 @ 흰죽 식으로 이진, 막걸리 놔근에 득 막 찢어 놓는 거 아니?(흰죽 식으로 이진, 막걸리 놔서 닭 마구 찢어 놓는 거 아니?)

107031 #2 어디 막걸리 흰죽에 놓니까?(어디 막걸리 흰죽에 놓니까?)

107031 @ 아, 득죽.(아, 닭죽.)

107031 #2 득죽, 득죽에 무신 막걸리를 놔.(닭죽, 닭죽에 무슨 막걸리를 놔?)

107031 @ 아, 막걸리가 아니고 흰죽, 흰죽.(아, 막걸리가 아니고 흰죽, 흰죽.)

107031 #2 예, 그 득을 막 삶아 나민 득이 다 익으면 득 건져된 그 득 삶아난 물에 찰을 시쳐 놔근에 죽을 썰십주게, 경 허연 먹어십주.(예, 그 닭을 마구 삶아 나면 닭이 다 익으면 닭 건져워서 그 닭 삶았던 물에 쌀을 씻어 놔서 죽을 썰습지요, 그렇게 해서 먹었습지요.)

107031 @ 거난 꿩이는 거 뭐? 앞에 그 득.(그러니까 고기는 거 뭐? 앞에 그 닭.)

107031 #2 이제난 득고기, 득 혼 마리씩 먹엄십주만은 옛날에사 득 혼 마리 잡으면 열 식구면 열 식구, 이녀 식구는 다 죽이라도 혼 사발씩 골고루 먹젠 허민 거 문딱 찢어 놔근에 서방이나 요 득다리 하나 쥐뿔, 다 찢어 놔근에 죽 썰 먹어십주.(이제니까 닭고기, 닭 한 마리씩 먹고 있지만 옛날에야 닭 한 마리 잡으면 열 식구면 열 식구, 이녀 식구는 다 죽이라도 한 사발씩 골고루 먹으려고 하면 거 모두 찢어 놔서 서방이나 요 닭다리 하나 쥐뿔이, 다 찢어 놔서 죽 썰서 먹었습지요.)

107031 @ 계난 득다리는 죽에 놓지 안 험디다양?(그러니까 닭다리는 죽에 넣지 않습디다?)

107031 #2 득다리는게, 시부모 신 사람은 예를 들영 우리만 먹으렌 죽 혼 사발 놓고, 시부모신디레 하나 가져강 먹읍센 시아방이나 시어멍이나 시민 보내불곡 허민 득다리 하나벧긴 더 허쿠가? 그건 서방이나 주젠 아이덜은 놀개기, 가슴팍덜이

영 막 뜯어 뇌근에 죽 썩 죽으로 혼 사발씩 쥐십주게.(닭다리논요, 시부모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만 먹으라고 죽 한 사발 놓고, 시부모에게 하나 가져가서 먹으 십사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있으면 보내버리고 하면 닭다리 하나밖에 더 하겠습 니까? 그건 서방이나 주려고 아이들은 날개기, 가슴팍들이랑 마구 뜯어 뇌서 죽 썩 서 죽으로 한 사발씩 줬습지요.)

107031 @ 가슴팍도 주주, 전부.(가슴팍도 주지, 전부.)

107031 #2 예게. 식구 한 딴 가슴팍도 죽아근에.(예, 식구 많은 데는 가슴팍도 적어서.)

107031 @ 제일 맛있인 거라, 가슴팍이.(제일 맛없는 거야, 가슴팍이.)

107031 #2 예게. 맛어십니다.(예, 맛없습니다.)

107032 @ 맛도 엇고. 쟁이죽 헨 먹어봘디가? 쟁이죽.(맛도 없고. 게죽 해서 먹 어봘습니까? 게죽.)

107032 #2 바당에 쟁이마씨?(바다에 게요?)

107032 @ 예.(예.)

107032 #2 예게.(예.)

107032 @ 여긴 쟁이엔 험니까?(여긴 ‘쟁이’라고 험니까?)

107032 #2 예, 우리 여기 촌에선 쟁이엔 험니다, 쟁이.(예, 우리 여기 촌에선 ‘쟁 이’라고 험니다, 게.)

107032 @ 아, 아.(아, 아.)

107032 #2 게, 게.(게, 게.)

107032 @ 아, 우리 가까운 디라도 쟁이.(아, 우리 가까운 데라도 ‘쟁이’.)

107032 #2 쟁이?(게?)

107032 @ 쟁이, 쟁이.(게, 게.)

107032 #2 우리 쟁이 잡이레 가게, 쟁이 잡으레 가게. 요즘은 잡으레 가는 사람 도 엇고, 어린 땐 나가 직접 죽은 안 썩봐신디 우리 어머니 해 노난 그거 허연 늘 체 오난에 막 마께에 뺏안 그거 싹 물로 걸런에.(우리 게 잡으러 가게, 게 잡으러 가는 사람도 없고, 어릴 땐 내가 직접 죽은 안 썩봤는데 우리 어머니 해 놓으니까 그거 해서 날 채 오니까 마구 방망이에 뺏아서 그거 싹 물로 걸러서.)

107032 @ 베로 영 짜지양? 물.(베로 이렇게 짜지요? 물.)

107032 #2 옛날엔 베로 찻주만은 그때 당시에도 뭐 걸를 즈진체<sup>200</sup> 시민 그거 에 확 걸런에 딸란에 죽 썩난 맛 좋은 겁디다, 것도.(옛날엔 베로 찻지만 그때 당시 에도 뭐 거를 ‘즈짐체’ 있으면 그거에 확 걸러서 따라서 죽 썩니까 맛 좋은 겁디다, 것도.)

107032 @ 아, 즈진체로?(아, ‘즈짐체’로?)

107032 #2 예, 맛 줍디다, 그것도.(예, 맛 좋습디다, 그것도.)

107032 @ 게난 이 밀물 쟁인 아니고?(그러니까 이 밀물 게는 아니고?)

200) ‘즈짐체’는 가루나 액체를 거를 때 사용하며, 구멍이 아주 작은 체이다.

107032 #2 그건 무슨 강인철인 모르고.(그건 무슨 개인지는 모르고.)

107032 @ 저 바당에 거 아니우파?(저 바다에 거 아닙니까?)

107032 #2 바당이 꺼마씨, 바당이 꺼. 예, 바당이 강 돌 일리멍 잡구렌 허명양, 경 잡았수다.(바다에 거요, 바다에 거. 바다에 가서 돌 일으키면 잡았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107032 @ 이 존존헌 거.(이 자잘한 거.)

107032 #2 존존헌 거 허연 먹어봤수다.(자잘한 거 해서 먹어봤습니다.)

107033 @ 이 웨에 그 저 썩죽 헨 먹어봅디가?(이 외에 그 저 썩죽 해서 먹어봤습니까?)

107033 #2 썩, 썩죽은 아니헨 먹어보고, 썩으로 이 저 무수 놓고 허명양, 찌개 비습칙이 그건 허연 먹어봤수다.(썩, 썩죽은 안 해서 먹어보고, 썩으로 이 저 무수 무 놓고 해서요, 찌개 비슷하게 그건 해서 먹어봤습니다.)

107033 @ 썩죽은 잘 안 해양?(썩죽은 잘 안 해요?)

107033 #2 난 진짜 썩죽은, 무수 썰어 놓곡 허여근에, 국초록 허여근에양 그거 감기에 좋넨 허명 옛날 우리 어머니 허는 식으로 우리도 그자 경만 행 먹는 거카부 덴 헛주, 죽은 안 썩 먹어봤수다, 난.(난 진짜 썩죽은, 무 썰어 놓고 해서, 국처럼 해서요 그거 감기에 좋다고 하면서 옛날 우리 어머니 하는 식으로 우리도 그저 그렇게만 해서 먹는 걸까 봐 헛지, 죽은 안 썩서 먹어봤습니다, 난.)

107033 @ 게메 이 썩죽은 나도 먹어보지 아니해서마씨.(글쎄 이 썩죽은 나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107033 #2 나도 먹어보질 안 헛수다.(나도 먹어보질 않았습디다.)

107033 @ 귀헌 것 같에.(귀한 것 같아.)

107033 #2 썩엿은 헨 먹어봤수다, 썩엿은.(썩엿은 해서 먹어봤습니다, 썩엿은.)

107033 @ 썩엿은 헨 먹어받예.(썩엿은 해서 먹어봤어요.)

107033 #2 예, 이 나 이제도 썩엿허고 노리, 노리엔 해점찌. 지다리엿은양 일 년 에 헛 번씩은 해져마씨. 썩은 저 중문<sup>201)</sup> 썩 장에 강 사다근에 허고, 지다린 저 동광<sup>202)</sup>엿 아이안티 부탁허영.(예, 이 나 이제도 썩엿허고 노루, 노루라고 하고 있네. 오소리엿은요 일 년에 한 번씩은 해요. 썩은 저 중문 썩 장에 가서 사다가 하고, 오 소리는 저 동광에 아이한테 부탁해서.)

107033 @ 광평<sup>203)</sup>이나, 어디 동광.(광평이나, 어디 동광.)

107033 #2 저, 부탁허믄양 요즘은 저 지다리도 막 빗나서 흥끔 큰돈 백이라마 씨.(저, 부탁하면요 요즘은 저 오소리도 아주 비싸서 조금 큰돈 백이에요.)

107033 @ 그게 최곱주게, 지다리.(그게 최고지요, 오소리.)

107033 #2 지다리 흥끔 허민 돈 백이라. 나 썩죽은 헛 번도 안 먹어봤수다.(오 소리 조금 하면 돈 백이야. 나 썩죽은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201) '중문'은 서귀포시 중문동이다.

202) '동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이다.

203) '광평'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이다.

107033 @ 젠디 이 웨에 죽 종류 엇수가?(그런데 이 외에 죽 종류 없습니까?)

107033 #2 아이고게, 이 웨에 죽 종류 바당에 생선도 허영 슸양.(아이고게, 이 외에 죽 종류 바다에 생선도 해서 삶아서.)

107033 @ 음, 생선죽.(음, 생선죽.)

107033 #2 그걸 문막 가시 털어뒸은에 죽 썬근에 아프민 환자덜 먹지 아니허여 가가문양 그거 허영 썬도 취 보고 그 웨엔 뒸 죽 엇일 거우다.(그걸 모두 가시 떨어 뒸서 죽 썬서 아프면 환자들 먹지 았아 가면요 그거 해서 썬서도 취 보고 그 외에 는 뒸 죽 없을 것입니다.)

107033 @ 유죽, 유죽.(들깨죽, 들깨죽.)

107033 #2 아이고, 유죽사 유죽이 제라허게 맛 좋은 거우다게.(아이고, 들깨죽이 야 들깨죽이 제대로 맛 좋은 것입니다.)

107033 @ 예, 유죽.(예, 들깨죽.)

107033 #2 예, 유죽은게 이제난 거핀 거 풀암주만은 옛날에 거핀 거 안 풀민 방 옛혹에 찍영 그거 베찰리에 썬.(예, 들깨죽은요 이제니까 거피한 거 팔고 있지만 옛날에 거피한 거 안 팔면 방아확에 찍어서 그 베자루에 썬서.)

107033 @ 물 짜지 안 험니까?(물 짜지 안 합니까?)

107033 #2 예, 그건 물 썬사 험니다.(예, 그건 물 썬야 합니다.)

107033 @ 그냥 허민.(그냥 하면.)

107033 #2 경 아니허민 비삭비삭 맛엇어마씨.(그렇게 안 하면 비삭비삭 맛없어 요.)

107033 @ 그 꺽테기 때문에.(그 꺽테기 때문에.)

107033 #2 그건 물로 썬사, 베찰리에 썬야. 그건 이제도 경, 우리 미깡 탈 때엔 유죽 썬 먹읍니다게. 이제 문막 거피영 나왓수게.(그건 물로 썬야, 베자루에 썬야. 그건 이제도 그렇게, 우리 굴 딸 때엔 들깨죽 썬서 먹읍니다. 이제 모두 거피해서 나웁니다.)

107033 @ 아, 이제도.(아, 이제도.)

107033 #2 예, ㄱ썬 거피영 나웁니다게.(예, 깨끗이 거피해서 나웁니다.)

107033 @ 거민 쌀 필요가 없네.(그러면 쌀 필요가 없네.)

107033 #2 쌀 필요가 엇어마씨. 이젠 쌀이영 그냥 서깁 죽 썬마씨.(쌀 필요가 없어요. 이젠 쌀이랑 그냥 썬어서 죽 썬요.)

107033 @ 아.(아.)

107033 #2 먹읍니다, 이제. 고사리 꺼플 때 ㄱ튼 때나.(먹읍니다, 이제. 고사리 꺽을 때 같은 때나.)

107033 @ 거 일헐 때 잘 먹언 잘험수다.(거 일할 때 잘 먹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107033 #2 양, 요즘은.(예, 요즘은.)

107033 @ 잘 먹어야 뒸어. 웨냐허문양 잘 먹지 안 허문양, 모든 병은 면역력이

잊어야 돼야마씨.(잘 먹어야 돼. 왜냐하면요 잘 먹지 안 하면, 모든 병은 면역력이 있어야 돼어요.)

107033 #2 맞수다.(맞습니다.)

107033 @ 잘 먹영 해야 돼야마씨. 애길 필요 잊어야마씨.(잘 먹어서 해야 돼요. 애길 필요가 없어요.)

107033 #2 이제 우리 이 나이에 안 먹꼭 애길 필요가 뭐가 있수가?(이제 우리 이 나이에 안 먹고 애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07033 @ 잊수다게.(없습니다.)

107033 #2 잘 먹당 죽어지민 가는 거주, 뭐.(잘 먹다가 죽으면 가는 거지, 뭐.)

107033 @ 우리 어멍, 아방 좋은 땅 잘 쫓텐 헐 사름이 잊어.(우리 어머니, 아버지 좋은 땅 잘 쫓다고 할 사람이 없어.)

107033 #2 나가 경허난예, 부모, 우리 부모덜은 경 안 헐 거 닻아도 경 헤실 텡 주. 켜디 나가 부모가 돼고 할망이 돼어 보난 나랑 먹지 아니허구대라 아기덜만 남 못 살아썬허지 말양 살아볼민 허영예, 먹을 것도 참 어떤 땐 아기덜 주젠 허영 중 가지긴<sup>204</sup> 험니다게.(내가 그러니까요, 부모,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한 거 같아도 그렇게 했을 테지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 보니까 나랑 먹지 아니하더라도 아기들만 남 못 산다 하지 말고 살아버리면 해요, 먹을 것도 참 어떤 땐 아기들 주려고 해서 아끼긴 합니다.)

107033 @ 예, 경해도 저 먹으멍 험서, 먹으멍.(예, 그래도 저 먹으면서 하세요, 먹으면서.)

107033 #2 게고 이젠 아기덜이 직장 다니멍 돈 벌어지난 먹을 것덜 막 사웁니다.(그리고 이젠 아기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지니까 먹을 것들 마구 사웁니다.)

107033 @ 게난 우리 어머니가 일만 일만 허다가 돌아가셨수다게.(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만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07033 #2 촌 사름은 다 마찬가지로.(촌 사름은 다 마찬가지.)

107033 @ 저, 남보단 헐 두 곱은 일허여. 동작이 막 빨아 노니까 예순일곱에 돌아가셨는데.(저, 남보다는 한 두 곱은 일해. 동작이 아주 빨아 놓으니까 예순일곱에 돌아가셨는데.)

107033 #2 빨리, 빨리도 돌아가셨수다양, 예순일곱.(빨리, 빨리도 돌아가셨습니다, 예순일곱.)

107033 @ 일만 허단에.(일만 하다가.)

107033 #2 게난 나도 이 동네 사름덜 우리 집이 왕 일 잘 안 해주젠 험니다.(그러니까 나도 이 동네 사름들 우리 집에 와서 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107033 @ 동작 빨라부난?(동작 빨라 버리니까?)

107033 #2 우리 집이 왕 일을 허젠 허든 못 견딘텐, 나가 동작이 빠르는 생이라 마씨.(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못 견딘다고, 내가 동작이 빠른 모양이에

204) ‘중가지다’는 ‘잠기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아끼다’의 의미로 쓰였다.

요.)

107033 @ 삼촌이 동작 빨라 부난 딱라가지 못허연 못허는 거주게.(삼촌이 동작 빨라 버리니까 따라가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요.)

107033 #2 예, 경 이제 농사 안 지난 해도양, ‘아이고, 이제 집이 가민 나 막 못 견딘다.’ 막 경 험니다게.(예, 그렇게 이제 농사 안 지니까 해도요, ‘아이고, 이제 집에 가면 나 아주 못 견딘다.’ 마구 그렇게 합니다.)

107033 @ 계난 우리 어머니도 다른 사름덜 안 와, 두 곱을 일을 해부니까, 검질 매는 것도양.(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 안 와, 두 곱을 일을 해버리니까, 김 매는 것도요.)

107033 #2 호호호,(웃음) 아니, 홉 올 때 우리도 천천히 허노넨 허영 홉이영 꺾 허노넨 해도 아멩해도 이녁 거는 서둘영은에 좀 빨리해지는 생이라마썸.(호호호,(웃음) 아니, 홉 올 때 우리도 천천히 하노라고 해서 홉이랑 같이 하노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녁 거는 서둘러서 좀 빨리해지는 모양이에요.)

107033 @ 계난 경 허여마썸. 것이 욱심이주, 욱심.(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것이 욱심이지, 욱심.)

107033 #2 예, 우리 죽은아덜 말마따나 어멍 욱심은 혼정도 엇어.(예, 우리 작은 아들 마처럼 어머니 욱심은 한정도 없어.)

107033 @ 계난, 게고양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뉘어마썸.(그러니까,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107033 #2 아이고, 스트레스 아니 발앙 살아집니까.(아이고, 스트레스 안 받아서 살아집니까.)

107033 @ 아, 경해도 쪼끔씩.(아, 그래도 조금씩.)

107033 #2 스트레스 막 발앙, 이젠 대답허당 뉘엔 곶으민 대답도 허여지곡, 싸와도 지곡 허는디 옛날에 우리 집이사름<sup>205)</sup>은 술도 아니 먹곡 허여도 성질이 너무 급허연양 뉘엔 대답헛당은 손이 착착 올라오는 따문.(스트레스 안주 받아서, 이젠 대답하다가 뉘라고 말하면 대답도 해지고, 싸워도 지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집이사름’은 술도 아니 먹고 해도 성질이 너무 급해서요 뉘고 대답했다가는 손이 착착 올라오는 때문.)

107033 @ 거난 여기 죽에 대행 나왔주만은 좀 한걸헛 뉘 죽도 썬 먹곡 허여근에.(그러니까 여기 죽에 대해서 나왔지만 좀 한가할 뉘 죽도 썬서 먹고 해서.)

107033 #2 양, 이제 우린 잘 먹언 잘 살암수다. 이젠 정심도 집이서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엇어, 뉘 허민 우리 집잇아방이 오라 나강 뉘 먹영 오게, 뉘 먹영 오게 허명양 요즘은 주로 나강 해 먹어집니다.(예, 이제 우린 잘 먹어서 잘살고 있습니다. 이젠 점심도 집에서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 뉘 하면 우리 ‘집잇아방’이 오라 나가서 뉘 먹어서 오게 하면서요 요즘은 주로 나가서 거의 먹어집니다.)

107033 @ 아이고, 사 먹는 것이 싸마썸, 이젠.(아이고, 사 먹는 것이 싸요.)

205) ‘집이사름’은 집의 사람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집잇아방’이라고도 한다.

107033 #2 집이 왕 일허당 발이영 막 버물민 들어올 생각허멍 오라 강 상 먹영 가게 허멍. 호호호.(웃음)(집에 와서 일하다가 발이랑 아주 더러우면 들어올 생각하면서 오라 가서 사서 먹어서 가게 하면서. 호호호.(웃음))

107033 @ 거 자리물회도 사 가근에 허젠 허민 돈은 더 들어봅니다.(거 자리물회도 사 가서 하려고 하면 돈은 더 들어버립니다.)

107033 #2 예게, 경헌디 이제난 산 먹엄십주만은 혼 멧 년 전인 사단 집이서 행 먹어십주, 집이서.(예, 그런데 이제니까 사서 먹고 있지만 한 몇 년 전에는 사다가 집에서 해서 먹었습지요, 집에서.)

107033 @ 아, 거난 아까 죽에 대해서 말허는디 저번에 혼번 저 어디냐, 종달리<sup>206</sup>) 그디 시흥<sup>207</sup>, 시흥, 시흥이 이신디 거기에 어촌계 횃집이 가면은 조개죽, 조개죽.(아, 그러니까 아까 죽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번에 한번 저 어디냐, 종달리 거기 시흥리, 시흥리, 시흥리가 있는데 거기에 어촌계 횃집에 가면은 조개죽, 조개죽.)

107033 #2 난 조개죽은 아니 헨 먹어봤수다.(난 조개죽은 안 해서 먹어봤습니다.)

107033 @ 아, 그 조개 종달리 바당에 조개들이 잇주마씨.(아, 그 조개 종달리 바다에 조개들이 있지요.)

107033 #2 그거 조개죽 맛 좋을 철이우다, 가시도 엇곡. 전복이나 마찬가지로 맛 좋을 겨우다게, 것도게.(그거 조개죽 맛 좋을 철입니다, 가시도 없고. 전복이나 마찬가지로 맛 좋을 것입니다, 것도요.)

107033 @ 조개죽, 조개죽도 잇고, 그다음에 전복죽도 행 먹어보지 안 헷수가? (조개죽, 조개죽도 잇고, 전복죽도 해서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107033 #2 예게. 전복죽사게 노다지 해야 먹주. 서방 아파도 전복죽 썬당 주곡게.(예, 전복죽이야 언제나 해야 먹지. 서방 아파도 전복죽 썬다가 주고요.)

107033 @ 오분재기죽은 어떻?(오분자기죽은 어떻게?)

107033 #2 오분재기죽이나 전복죽은 똑 ㄱ툽주.(오분자기죽이나 전복죽은 똑 같지.)

107033 @ 여기서는 오분재기를 바르엔 험니까?(여기서는 오분자기를 ‘바르’라고 합니까?)

107033 #2 옛날에는 오분재기, 오분재기 헤십주만은 요즘은 오분재기엔 안 허영 바르새끼엔도 허고.(옛날에는 오분자기, 오분자기 헷습지만 오분자기라고 안 해서 ‘바르새끼’라고도 하고.)

107033 @ 바르새끼.(오분자기.)

107033 #2 쫌헨 거, 그겁주게. 이제도 무신 전복은 해 사당 먹읍니다게.(조그만 거, 그거지요. 이제도 무슨 전복은 거의 사다가 먹습니다.)

107033 @ 전복죽양. 그다음에 보말도 죽 썬 먹지 안 험니까?(전복죽요. 그다음

206) ‘종달리’는 서귀포시 성산을 종달리를 말한다.

207) ‘시흥’은 서귀포시 성산을 시흥리를 말한다.

에 고등도 죽 썰서 먹지 않습니까?)

107033 #2 보말죽<sup>208</sup>, 보말죽도 맛 좋습니다.(‘보말죽’, ‘보말죽’도 맛 좋습니다.)

107033 @ 보말죽.(보말죽.)

107033 #2 예, 보말죽도 행 먹고. 게도 우리 촌이난예 여기 보말 잡으레 잘 안 잡니다게.(예, 보말죽도 해서 먹고. 그래도 우리 촌이니까 고등 잡으러 잘 안 잡니다.)

107033 @ 이제 보말 잡당은에 바당 지키는 사름덜 다올려마씨.(이제 고등 잡다가 바다 지키는 사람들 내쫓아요.)

107033 #2 다올려도양, 강 보말 잡는 거 다올렸당은 ㄱ만 내붙니깡?(내쫓아도요, 가서 고등 잡는 거 내쫓았다가는 가만히 내버립니까?)

107033 @ 아이고, 경해도.(아이고, 그래도.)

107033 #2 아이고, 해녀덜 너무 독허연양 보말 잡으레 강 막 가렌 해가문 이거 느네 조상 바당 사 낳은에 너네 험시냐 허문예, 보말은 잡는 거 뭐엔 안 험니다. 구제긴 못 잡아마씨. 요만헌 구제기, 요만헌 것도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건 잡앗당은 벌금이고.(아이고, 해녀들 너무 독해서요 고등 잡으러 가서 마구 가라고 해가면 이거 너희 조상 바다 사 놔서 너희 하고 있느냐 하면요, 고등은 잡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소라는 못 잡아요. 요만한 소라, 요만한 것도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건 잡았다가는 벌금이고.)

107033 @ 조쿠제기.(어린 소라.)

107033 #2 예, 그건 벌금이고예, 보말을 잡아도 뭐엔 안 험니다.(예, 그건 벌금이고요, 고등을 잡아도 뭐라고 안 합니다.)

107033 @ 아, 이젠 보말도 엇어마씨.(아, 이젠 고등도 없어요.)

107033 #2 보말도 얼마 엇고, 보말 잡으레 가도 안 험니다게, 이제들은.(고등도 없고, 고등 잡으러 가도 안 합니다, 이제들은.)

107033 @ 보말.(고등.)

107033 #2 보말, 보말 칼국수 먹어 봅서, 얼마나 맛 좋은지.(고등, 고등 칼국수 먹어 보십시오, 얼마나 맛 좋은지.)

107033 @ 보말.(고등.)

107033 #2 보말 칼국수는 진짜 맛 좋아마씨.(고등 칼국수는 진짜 맛 좋아요.)

107033 @ 그다음에 또 어신가? 호박죽?(그다음에 없는가? 호박죽?)

107033 #2 호박죽도 싯고.(호박죽도 있고.)

107033 @ 예, 호박죽.(예, 호박죽.)

107033 #2 호박, 호박죽은 호박 껍죽 문딱 벧경 솥양 그거 막 무르쥬영 쫄이영 낱 죽 뒬게.(호박, 호박죽은 호박 껍데기 모두 벗겨서 삶아서 그거 마구 짓무르게 주물러서 쌀이랑 놔서 죽 뒬게.)

107033 @ 호박죽.(호박죽.)

208) ‘보말죽’은 고등으로 끓인 죽이다.



107033 #2 예, 그거 웨엔 죽이엔 현 건 엇은 거 닭수다.(예, 그거 외에는 죽이라고 한 건 없는 거 같습니다.)

107033 @ 거의 엇인 거 닭네.(거의 없는 거 같네.)

107033 #2 예, 예. 호박죽도 썩 먹읍니다.(예, 예. 호박죽도 썩서 먹읍니다.)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다음에 범벅하고 제베기에 대해서 알아보쿠다. 범벅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수가?(그다음에 범벅하고 수제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범벅 종류는 어떤 것들 잇습니까?)

107034 #2 범벅 종류는 보리, 보리 옛날 보리.(범벅 종류는 보리, 보리 옛날 보리.)

107034 @ 보리범벅.(보리범벅.)

107034 #2 보리범벅, 모밀범벅 것벧기 엇은 거 닭다예. 또 강냉이, 강냉이범벅은 맛 좋읍네다.(보리범벅, 메밀범벅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옥수수, 옥수수범벅은 맛 좋읍니다.)

107034 @ 강냉이?(옥수수?)

107034 #2 옥수수범벅.(옥수수범벅.)

107034 @ 아, 강냉이.(아, 옥수수.)

107034 #2 예, 그거 범벅이 노랑현 게 그건 맛 좋아마씨.(예, 그거 범벅이 노란 게 그건 맛 좋아요.)

107034 @ 강냉이, 강냉이범벅.(옥수수, 옥수수범벅.)

107034 #2 그거 시 가지벧기 엇은 거 닭수다. 밀가루범벅은 나 아니 헨 먹어봤수다. 이저 모밀 는쟁이범벅허고.(그거 세 가지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밀가루범벅은 나 안 해서 먹어봤읍니다. 이 저 메밀 나깨범벅하고.)

107034 @ 아, 아까 믈밀 는쟁이.(아, 아까 메밀 나깨.)

107034 #2 는쟁이엔 곤젠 헛는데 생각이 안 난. 호호호.(웃음)(나깨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호호호.(웃음))

107034 @ 믈밀 는쟁이, 는쟁이 맞아.(메밀 나깨. 나깨 맞아.)

107034 #2 나도 생각이 안 나졌수다. 믈밀, 옛날엔 믈밀쿠루도 잘 사는 집이나 믈밀쿠루 낱 범벅헿 먹엇주. 해 는쟁이로 감저 막 하영 썰어낱 숲앙 네중엔 는쟁이 쿠루 낱 막 짓으면 범벅입주게. 경 헿 먹엇수게.(나도 생각이 안 났읍니다. 메밀, 옛날엔 메밀가루도 잘 사는 집이나 메밀가루 놔서 범벅해서 먹엇지. 거의 나깨로 고구마 아주 많이 썰어놔서 삶아서 나중엔 나깨가루 놔서 마구 저으면 범벅이지요. 그렇게 해서 먹엇읍니다.)

107034 @ 계난 보리밥 좀 남아도 범벅헿 먹어낫어양?(그러니까 보리밥 좀 남아도 범벅해서 먹엇엇지요?)

107034 #2 보리밥에 범벅은 아니헿 먹어보고 보리밥에 감전 막 썰어낱 감저밥

을 헨 먹어봤수다, 우리.(보리밥에 범벅은 안 해서 먹어보고 보리밥에 고구마는 마구 썰어놔서 고구마밥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우리.)

107034 @ 범벅, 보통 저 ㄹ멸로.(범벅, 보통 저 메밀로.)

107034 #2 ㄹ멸로, 는쟁이 범벅을 하영 헝 먹엇수다. 경 허영 옛날 남박에, 이만 현 남박에 평 내불민 먹을 거 잇일 때난 가명 혼 토막 끈영 떡곡, 오명 떡곡 경 헤나십주.(메밀로, 나께 범벅을 많이 해서 먹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 나무바가지에, 이만한 나무바가지에 떠서 내버리면 먹을 거 없을 때니까 가면서 한 토막 끊어서 먹고, 그렇게 했엇습지요.)

107034 @ 어떻 허연 옛날은 거 범벅을 헝 먹어신고예?(어떻게 해서 옛날은 거 범벅을 해서 먹엇는지요?)

107034 #2 아니, 이젠, 지금은 원 아니 먹읍니다. 옛날엔 뭐 굴른음식 먹을 게 잇엇수가? 보리밥만 먹어 노곡 허민, 베고프민 는쟁이 허영 가명 오명 그걸게 요새 ㄹ뜨면 간식으로 해 먹어십주, 간식으로. 경 허영 졸 잇은 사름은 범벅허영 ㄹ멸 막 하영 낱 국 끌영은에, 그거 베불르게 먹젠 정도 허연 먹어낫고마씨. 옛날에 주로 베고팡 하영 헝 먹엇수다게.(아니, 이젠 지금은 워낙 안 먹읍니다. 옛날엔 뭐 군음식 먹을 게 잇엇습니까? 보리밥만 먹어 놓고 하면, 베고프면 나께 해서 오가면서 그걸 요 요새 같으면 간식으로 해 먹엇습지요, 간식으로. 그렇게 해서 쌀 없는 사름은 범벅해서 나물 아주 많이 놔서 국 끓여서, 그거 배부르게 먹으려고 그렇게도 해서 먹엇엇고요. 옛날에 주로 배고파서 많이 해서 먹엇엇습니다.)

107034 @ 이제는 범벅을 헝 먹질 아니허여.(이제는 범벅을 해서 먹질 않아.)

107034 #2 헝 줄도 모르고 헝 먹젠도 생각도 안 헝니다게.(할 줄도 모르고 해서 먹으려고도 생각도 안 합니다.)

107035 @ 제베기, 여긴 제베기엔 헝니까? ㄹ베기엔 헝니까?(수제비, 여긴 ‘제베기’라고 합니까? ‘ㄹ베기’라고 합니까?)

107035 #2 ㄹ베기, ㄹ베기에.(수제비, 수제비요.)

107035 @ 난 경 생각헝니다게. 접양은에 현 건 제베기고, 줍아근에 노는 건 ㄹ베기고, 수꾸락으로 허는 건 수제비고.(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뜯어서 한 건 ‘제베기’고, 집어서 넣는 건 ‘ㄹ베기’고, 숟가락으로 하는 건 ‘수제비’고.)

107035 #2 호호호,(웃음) 그런 건 생각허여 보지 못허고. 우리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허는 거 보민 대죽 잇지 안 허파? 대죽, 대죽을 막 하영 싱경 그거 영거피해다근에양.(호호호,(웃음) 그런 건 생각해 보지 못허고. 우리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보면 수수 잇지 않습니까? 수수, 수수를 아주 많이 심어서 그거 이렇게 거피해다가요.)

107035 @ 대죽 ㄹ루?(수수가루?)

107035 #2 대죽 ㄹ루 허여근에 손으로 끈끈끈 쥐여근에 ㄹ베기를 허민 그렇게 출지고 맛 좋아마씨.(수수가루 해서 손으로 끈끈끈 쥐어서 수제비를 하면 그렇게 찰지고 맛 좋아요.)

107035 @ 아, 대죽ㄱ루로 제베기.(아, 수수가루 수제비.)

107035 #2 예, 옛날 저 흰 밧씩 갈아낫수게, 밧디. 경허민 그거 거퍼근에 곶아당 수제비 허젠 허민 흥끔 혜삭혜삭<sup>209</sup>사 혜신고라 손으로 끈끈끈 쥐어근에 그거 허연 즈베기 허연 먹어낫수다. 막 출지고 맛 좋아마씨.(예, 옛날 저 한 밧씩 갈았었습니다, 밧에. 그러면 그거 거피해서 갈아다가 수제비 하려고 하면 조금 ‘혜삭혜삭’이야 했는지 손으로 끈끈끈 쥐어서 그거 해서 수제비 해서 먹었었습니다. 아주 찰지고 맛 좋아요.)

107035 @ 대죽ㄱ루 허영양?(수수가루 해서요?)

107035 #2 예.(예.)

107035 @ 거 무신 즈베기엔 해야 되나, 거. 대죽즈베기?(거 무슨 수제비라고 해야 되나, 거. 수수수제비?)

107035 #2 무슨 즈베기엔 헐 거산디, 먹어나십주만은 무슨 즈베기. 호호호.(웃음)(무슨 수제비라고 할 거인지, 먹었었습니다만 무슨 수제비. 호호호.(웃음))

107035 @ 아, 옛날은.(아, 옛날은?)

107035 #2 대죽은 대죽ㄱ루난에 대죽즈베기가 맞을 거우다게.(수수는 수수가루니까 수수수제비가 맞을 것입니다.)

107035 @ 옛날 그 저 ㄱ루 허는 대죽 하영 싱거낫수다. 밧 안티 옆이, 밧 이염에.(옛날 그 저 가루 하는 수수 많이 심었었습니다. 밧 안에 옆에, 밧 옆에.)

107035 #2 거 보리, 보리.(거 보리, 보리.)

107035 @ 조, 조밧디.(조, 조밭에.)

107035 #2 예게, 조 갈안도 곶랑에 대죽을 낫수다.(예, 조 갈아도 곶랑에 수수를 낫습니다.)

107035 @ 그 예염에덜.(그 옆에들.)

107035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35 @ 보통 조밧디 저거 대죽 하영 갈아낫어.(보통 조밭에 저거 많이 갈았었어.)

107035 #2 경도 허고, 또 어떤 밧은 대죽만 감도 허고, 또 많어나고마씨. 게 허영 그거 거퍼근에 대죽범벅, 대죽떡도 허연 먹어나고.(그렇게도 하고, 또 어떤 밧은 수수만 갈기도 하고, 또 많았었고요. 그래 해서 그거 거피해서 수수범벅, 수수떡도 해서 먹었었고.)

107035 @ 대죽범벅도 있다.(수수범벅도 있다.)

107035 #2 예, 대죽범벅도 행 먹고, 대죽떡도 행 먹고, 경 헛수다.(예, 수수범벅도 해서 먹고, 수수떡도 해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107035 @ 아, 우린 그건 못 먹어보고양, 대죽에 대헌 건 저 뭐냐, 사당대죽 있지 안허우파?(아, 우린 그건 못 먹어보고요, 수수에 대한 건 저 뭐냐, 사탕수수 있지 않습니까?)

---

209) ‘혜삭혜삭’은 가루 성분으로 된 것이나 밥이 차진 기는 조금도 없고 아주 매진 모양이다.

107035 #2 사당대죽은 밧디 안 갈양 우영팟 신 사름덜 우영팟디 이빠이 갈민 아기덜 헤영 주젠 그거 맛 좋읍니다게, 영 들콥허난.(사탕수수는 밧에 안 갈아서 터 알 있는 사람들 터알에 가득히 가면 아기들 해서 주려고 그거 맛 좋읍니다, 이렇게 달콤하니까.)

107035 @ 거난 바당에 백중날.(그러니까 바다에 백중날.)

107035 #2 예, 그런 디 가젠 허민.(예, 그런 데 가려고 하면.)

107035 @ 그 물 맞이민 저 허멸 안 난데 허영은에, 그디 갈 때 사당대죽 먹어 십주. 므작으로 꺾창, 꺾창 가명.(그 물 맞으면 부스럼 안 난다고 해서, 거기 갈 때 사탕수수 먹었습지요. 마디로 끊어서, 끊어서 가면서.)

107035 #2 예.(예.)

107035 @ 벳겨 먹고.(벳겨 먹고.)

107035 #2 겐디 들밤이덜 고무뿔락허영 놀당 장광뒤에 튀어 강 늪이 대죽 막 비언에 질레 앓양덜 막 먹어낫주. 다 옛날에, 옛날엔예, 대죽, 뒷날 아침인 강 보민 황허게 비와볼민 누게 비어가시넌 허명덜 할망덜 막 웨어 나곡 경 헛수다.(그런데 달밤에들 고무줄놀이해서 놀다가 장독 뒤에 튀어 가서 남의 수수 마구 베어서 길에 앉아서 마구 먹었었지. 다 옛날에, 옛날엔요, 수수, 뒷날 아침에는 가서 보면 흰하게 베와 버리면 누구 베어갔느냐 하면서들 할머니들 마구 외어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107035 @ 경 웹만 헛주, 요즘 ㄴ찌 헛당은.(그렇게 외기만 헛지, 요즘 같이 헛다가는.)

107035 #2 큰 일 нама씨.(큰 일 나요.)

107035 @ 큰 일 나지.(큰 일 나지.)

107035 #2 예. 나는예 경헤도 그걸 경 뿔 허지 아이헛디다게.(예. 나는요 그래도 그걸 그렇게 뿔 하지 않습디다.)

107035 @ 옛날은 서립주, 서리, 이제는 도둑놈이고.(옛날은 서리지, 서리, 이제는 도둑놈이고.)

107035 #2 예, 아이고, 우리도 장광뒤에 튀어 간 비어단 먹어낫수다.(예, 아이고, 우리도 장독 뒤에 튀어 가서 베어다가 먹었었습니다.)

107035 @ 그다음에 저 밀ㄴ루 즈베기를 주로 행 먹어나지 안 헛수가?(그다음에 저 밀가루 수제비를 주로 해서 먹었었지 않습니까?)

107035 #2 밀가루 수제빈 맛 좋읍니다. 그건 막 수저로 카근에 수저로 떠 노문 예, 그것이 문들문들, 문들문들예, 윈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엇어마씨, 걸린 디가 하나도 엇이 경 허연 먹었수다. 그거에 감자 썰어 놓곡 허영 수제비 허민예 그렇게 맛 좋앗수다.(밀가루 수제비는 맛 좋읍니다. 그건 마구 수저로 타서 수저로 떠 놓으면요, 그것이 매끈매끈, 매끈매끈요, 윈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없어요, 걸린 데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거에 감자 썰어 넣고 해서 수제비 하면요 그렇게 맛 좋았습니다.)

107035 @ 아, 거난 지금도 하영 헛니다게.(아,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합니다.)

107035 #2 예, 지금 허여도 맛 좋아마씨.(예, 지금 해도 맛 좋아요.)

107035 @ 나는 그 이 밀가루, 우린 제베기엔 허는디, 이 그 안네 이 감저 낱, 지슬, 지슬, 지슬 놔근에.(나는 그 이 밀가루, 우린 수제비라고 하는데, 이 그 안에 감자 놔서, 감자, 감자, 감자 놔서.)

107035 #2 그거에 그거 허여근에 먹으민양, 우리 옛날 보리 훔틀 때에 놓 빌영 막 허민 감자 놓곡 그 밀가루 밀어 가지고예, 칼로 썰영 허민 사름덜이 옛날 못 먹을 때난 혼 말치<sup>210)</sup> 해도예, 그 정심때 다 먹읍디다.(그거에 그거 해서 먹으면요, 우리 옛날 보리 훔을 때 놓 빌어서 마구 하면 감자 넣고 그 밀가루 밀어 가지고, 칼로 썰어서 하면 사람들이 옛날 못 먹을 때니까 한 ‘말치’ 해도요, 그 점심 때 다 먹읍디다.)

107035 @ 옛날 우리 어머니 밧디 강 검질 멜 땀, 학교 강 와근에 제베기 행 놔두라, 허민 그날은.(옛날 우리 어머니 밧에 가서 김멜 땀, 학교 갔다 와서 수제비 해서 놔두라 하면 그날은.)

107035 #2 예, 옛날엔 즈베기도 경 밀가루 경 사당 므음대로 행 먹어졌수가? (예, 옛날엔 수제비도 그렇게 밀가루 그렇게 사다가 마음대로 해서 먹어졌습니까?)

107035 @ 아, 게난 밀가루 좀 잇엇수다게. 경 헨에 막 반죽해근에 이 수제비 큰 큰 허게 허면은 그 혼 사발에 제베기 세 개면은 가득해불어.(아, 그러니까 밀가루 좀 잇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구 반죽해서 이 수제비 큰 큰 하게 하면은 그 한 사발에 수제비 세 개면 가득해 버려.)

107035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35 @ 막 크게 허영, 옛날 밀가루가 왜 하시냐 허면 거 잇엇수다, 좋지 안헌 밀가루, 그거 저 뭐엔 허냐 허민.(아주 크게 해서, 옛날 밀가루가 왜 많으냐 하면 거 잇엇습니다, 좋지 않은 밀가루, 그거 저 뭐라고 하냐 하면.)

107035 #2 우리 동네.(우리 동네.)

107035 @ 질 다끝 때.(길 닙을 때.)

107035 #2 예게, 질 따끝 때 메칠 일허민 혼 마다리씩.(예, 길 닙을 때 며칠 일 하면 한 마대씩.)

107035 @ 미국에서 원조를 해줬주마씨.(미국에서 원조를 해줬지요.)

107035 #2 우리도 경 허연.(우리도 그렇게 해서.)

107035 @ 밀가루가 제베기 행 먹으민 뭐팡? 그거 찌각찌각허는 것이 있어. 귀찮은 거.(밀가루가 수제비 해서 먹으면 뭐입니까? 그거 찌각찌각하는 것이 있어. 귀찮은 거.)

107035 #2 게곡양, 경해도 무사 헤양케, 난 요 중산간 할 때에 그거.(그리고요, 그래도 왜 하얗게, 난 요 중산간 할 때에 그거.)

107035 @ 출역, 출역.(출역, 출역.)

107035 #2 출역으로 허민 그 거기 십장덜 나왕 우리 집서 정심 허영 맥엇수다

210) ‘말치’는 한 말 드는 크기의 솔이다.

게. 경 허민 저 밀가루 하영 주민 밀가루 멧 푸대 타당 잘 먹었수다게.(출역으로 하면 그 거기 십장들 나와서 우리 집서 점심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밀가루 많이 주면 밀가루 몇 포대 타다가 잘 먹었습니다.)

107035 @ 그뎨 제베기 하영 먹었수다.(그뎨 수제비 많이 먹었습니다.)

107035 #2 예, 그때 하영 먹었수다.(예, 그때 많이 먹었습니다.)

107035 @ 그거 다 미국 겁주.(그거 다 미국 거지요.)

107035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35 @ 우리 못 살 때.(우리 못 살 때.)

107035 #2 예, 진짜 그때 무사 경 맛 좋습니까.(예, 진짜 그때 왜 맛 좋습니까.)

107035 @ 거난 그때 미국서 밀가루 지원해 주난 하영 행 먹었주. 우리 학교 텡 일 때양, 그 저.(그러니까 그때 미국서 밀가루 지원해 주니까 많이 해서 먹었지. 우리 학교 다닐 때요, 그 저.)

107035 #2 우유, 우유.(우유, 우유.)

107035 @ 우유, 우유도 뵈 그 막 땅땅헌 거.(우유, 우유도 뵈 그 아주 딱딱한 거.)

107035 #2 아니, 그거 물 흐끔 낱 타민, 밥 거저 돼가민 양재기에 밥 우이 낱 허민 그거 판판허연 경 맛 좋았수다게. 우리도 경 헨 먹었수게.(아니, 그거 물 조금 낱서 타면, 밥 거의 돼가면 양재기에 밥 위에 낱서 하면 그거 판판해서 그렇게 맛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107035 @ 문딱 미국서 도와준 거주마씨.(모두 미국서 도와준 거지요.)

107035 #2 맞수다.(맞습니다.)

107035 @ 아이, 거난 우리나라도 잘 산 것이 멧 년 아이 뵈어.(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 산 것이 멧 년 안 뵈어.)

107035 #2 아이고, 이제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양.(아이고, 이제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요.)

107035 @ 더 험수다, 더 험서.(더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어.)

107035 #2 예, 요즘은 원 게도 우리도 요즘이나, 옛날에 곤밥 먹을 엄두가 어디 잇었수가?(예, 요즘은 원 그래도 우리도 요즘이나, 옛날에 흰밥 먹을 엄두가 어디 잇었습니까?)

107035 @ 거난 제주도 곤밥이 처음 실시뵈 것이 팔팔 올림픽 때부뵈.(그러니까 제주도 흰밥이 처음 실시뵈 것이 팔팔 올림픽 때부뵈.)

107035 #2 맞수다.(맞습니다.)

107035 @ 전두환 시절에.(전두환 시절에.)

107035 #2 겐디 우리나라도 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사업 헌 후로 진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사업 한 후로 진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107035 @ 맞수다.(맞습니다.)

107035 #2 살았수다. 경기도 요즘 대통령은 박정희 때문 경 해점젠 험수가양?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대통령은 박정희 때문 그렇게 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  
습니까?)

107035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7035 #2 박정희 딸은 가두와불고.(박정희 딸은 가뒀버리고.)

107035 @ 거난마썸, 아이고.(그러니까요, 아이고.)

107035 #2 여자 몸인디 내쳐주지 안 허영.(여자 몸인데 내쳐주지 않아서.)

107036 @ 그다음에 칼국수 헨 먹어봘디가?(그다음에 칼국수 해서 먹어봘습니  
까?)

107036 #2 예.(예.)

107036 @ 칼국수에 대허영 곶아줍서.(칼국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36 #2 칼국수는 반죽, 물 너무 하게 허민 안 뒀어마씨. 반죽을 탄탄하게 들  
양 병으로 그걸 막 밀어근에 탁탁 썰민 칼국수우다게.(칼국수는 반죽, 물 너무 많게  
하면 안 돼요. 반죽을 탄탄하게 말아서 병으로 그걸 마구 밀어서 탁탁 썰면 칼국수  
입니다.)

107036 @ ㄱ루 영 뿌러근에예?(가루 이렇게 뿌려서요?)

107036 #2 예, ㄱ루 부뜨지 말게, 부뜨지 말게.(예, 가루 붙지 말게, 붙지 말게.)

107036 @ 경 행 툃툃 썰영.(그렇게 해서 툃툃 썰어서.)

107036 #2 예, 경 해연 칼국수 헨 먹엇수다.(예,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107036 @ 칼국수 헨 때는 국물에 주로 무신거 놓니까?(칼국수 할 때는 국물에  
주로 무엇 넣습니까?)

107036 #2 칼국수 헨 때는양 제라허게 맛싣게 먹젠 허민 뒀지고기 잔잔허게 썰  
어 낡.(칼국수 할 때는요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돼지고기 잔잔하게 썰어  
놔서.)

107036 @ 아, 그것도 낡 먹어?(아, 그것도 놔서 먹어?)

107036 #2 예, 그거 놔근에 감자 놓곡 허민 더 맛 좋곡, 주로 옛날에 그거 고기  
낡 행 먹은 사름이 어디 잇수강? 메리치 다시다도 엇어근에 그냥 해 허영 먹어싣  
주. 경 해도 맛 좋양덜 헤싣주, 이제난 메리치도 낡 먹곡, 다시다도 낡 먹곡 험주,  
계란도 낡 먹고 험주만은 그때사 그런 것이 어디 잇엇수가?(예, 그거 놔서 감자 넣  
고 하면 더 맛 좋고, 주로 옛날에 그거 고기 놔서 해서 먹은 사름이 어디 있습니  
까? 멸치 다시다도 없어서 그냥 거의 해서 먹엇습지요. 그렇게 해도 맛 좋아서들  
험습지요, 이제니까 멸치도 놔서 먹고, 다시다도 놔서 먹고 하고 있지, 계란도 놔서  
먹고 하고 있지만 그때야 그런 것이 어디 잇엇습니까?)

107036 @ 패마농도 썰영 놓지양?(쪽파도 썰어서 넣지요?)

107036 #2 예, 패마농은 썰어 노른 고소허렌게.(예, 쪽파는 썰어 넣으면 고소하  
라고요.)

107036 @ 패마농.(쪽파.)

107036 #2 파 가튼 거.(파 같은 거.)

107036 @ 세우린 안 썰어 놓는구나양?(부추는 안 썰어 넣는군요?)

107036 #2 그땐 패마농 엇일 땐 여름엔 주로 세우리 썰어 놔십주.(그때 쪽파 없을 땐 여름엔 주로 부추 썰어 놔습지요.)

107036 @ 아, 세우리도 썰어 놔마씨?(아, 부추도 썰어 놔요?)

107036 #2 예, 세우리도 놔사 맛 좋습니다게, 고소허영. 육지 사름덜은 세우리엔 허른 몰라, 정구지엔 헤사 알주.(예, 부추도 놔야 맛 좋습니다, 고소해서. 육지 사름들은 ‘세우리’라고 하면 몰라, ‘정구지’라고 해야 알지.)

107036 @ 정구지.(부추.)

107036 #2 예.(예.)

107036 @ 육진예, 그 세우리, 정구지, 그다음에 솔이엔 험니다, 솔. (육진요, 그 부추, 부추, 그다음에 ‘솔’이라고 합니다, 부추.)

107036 #2 그 말은 못 들어봤수다.(그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107036 @ 이 표준어로는 부추.(이 표준어로는 부추.)

107036 #2 부추, 부추렌 험주게.(부추, 부추라고 하지요.)

107036 @ 부추렌 허고 제주도에서는 세우리, 저 경상도 저쪽에서는 정구지렌 허는 디가 있고, 저 경기도 쪽에 가면.(부추라고 하고 제주도에서는 ‘세우리’, 저 경상도 저쪽에서는 ‘정구지’라고 하는 데가 있고, 저 경기도 쪽에 가면.)

107036 #2 부추엔 허고.(부추라고 하고.)

107036 @ 아니, 솔, 솔.(아니, 부추, 부추.)

107036 #2 아, 솔 말은 안 들어봤수다.(아, 부추 말은 난 들어봤습니다.)

107036 @ 솔이엔도 허여.(‘솔’이라고도 해.)

107036 #2 아.(아.)

107036 @ 흔 글자 솔.(한 글자 ‘솔’.)

107036 #2 아.(아.)

## 김치

107037 @ 그다음에 김치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예. 김치 종류덜은 어떤 김치덜이 잇수가?(그다음에 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치 종류들은 어떤 김치들이 있습니까?)

107037 #2 나 해먹은 김치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무수김치, 갓김치, 그거나벳기 더 잇수가?(나 해먹은 김치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무김치, 갓김치,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107037 @ 저.(저.)

107037 #2 파김치, 파김치가, 제라허게 허민 파김치가 맛 좋습니다.(파김치, 파김치가, 제대로 하면 파김치가 맛 좋습니다.)

107037 @ 그다음에 세우리김치.(그다음에 부추김치.)



107037 #2 세우리김치.(부추김치.)

107037 @ 그다음에 늬빠김치.(그다음에 무김치.)

107037 #2 늬빠김치 아까 말허고.(무김치는 아까 말하고.)

107037 @ 아.(아.)

107037 #2 주로 그접주게, 그거.(주로 그거지요, 그거.)

107038 @ 그러면은 배추김치, 배추김치에 대해서 혼변 말해봅서.(그러면은 배추김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107038 #2 배추김치는데, 큰 거는 네, 네 도막에 갈랑, 소금에 절영, 그거 아침에 절이민 오늘 저녁에 흐끔 덜 절였다 허민 넬 아척이민 건정 그거 물 빠지민 고치ㄴ루에 옛날엔 그냥 물 끓여근에 고치ㄴ를 낵 그냥 헛주만은, 요즘덜은 경 험수가? 뭐 맛 좋게 행 먹젠 허민 조기 사당 딸렁 그거 걸렁 액젓 농곡, 세우젓 농곡 그추룩 허영, 마늘 막 하영 깡 다져 농곡, 그추룩 허여근에.(배추김치는데, 큰 거는 네, 네 도막에 갈라서, 소금에 절여서, 그거 아침에 절이면 오늘 저녁에 조금 덜 절였다 하면 내일 아침이면 건져서 그거 물 빠지면 고춧가루에 옛날엔 그냥 물 끓여서 고춧가루를 놔서 그냥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맛 좋게 해서 먹으려고 하면 조기 사다가 달여서 그거 걸려서 액젓 넣고, 새우젓 넣고 것처럼 해서, 마늘 아주 많이 까서 다져 넣고, 것처럼 해서.)

107038 @ 고추, 고추ㄴ루?(고추, 고춧가루?)

107038 #2 고치가루 농곡, 계난 그거 팔팔 끓영, 고기 허여근에 육수 딸렁 그거에 고치가루 당가근에 경 허연 김치 헨 먹엇수다.(고춧가루 넣고, 그러니까 그거 팔팔 끓여서, 고기 해서 육수 달여서 그거에 고춧가루 담가서 그렇게 해서 김치 해서 먹었습니다.)

107038 @ 거난 삼춘은 배추를 사당 험수가? 집이서 헨 먹엄수가?(그러니까 삼춘은 배추를 사다가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해서 먹고 있습니까?)

107038 #2 난 집이서 갈안 헨 먹엄수다.(난 집에서 갈아서 먹고 있습니다.)

107038 @ 갈앗수가? 지금.(갈았습니까? 지금.)

107038 #2 예, 지금 갈안에 요만씩 흘겨수다.(예, 지금 갈아서 요만큼씩 끓었습니다.)

107038 @ 아, 나도.(아, 나도.)

107038 #2 많이 컷수다.(많이 컷습니다.)

107038 @ 지난주에 모종 사단 마흔다섯 개 싱것수다.(지난주에 모종 사다가 마흔다섯 개 심었습니다.)

107038 #2 흐 판이가 백스물다섯 개 든덴, 백오십 갠가.(한 판이가 백스물다섯 개 든다고, 백오십 갠가.)

107038 @ 아, 거난 전부 안 헨. 그거허고 콜라비인가.(아, 그러니까 전부 안 했어. 그거하고 콜라비인가.)

107038 #2 아, 콜라비.(아, 콜라비.)

107038 @ 콜라비허고, 아, 거난 요번에 하나 배웠수다게.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먹는 건.(콜라비하고, 아, 요번에 하나 배웠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먹는 건.)

107038 #2 예.(예.)

107038 @ 땅에 들어가는 거, 빨리, 빨리 먹는 거는 그 씨로 심어야 되고, 씨로. (땅에 들어가는 거, 뿌리, 뿌리 먹는 거는 그 씨로 심어야 되고, 씨로.)

107038 #2 예, 예.(예, 예.)

107038 @ 거난 이 늣뻘 ㄱ튼 거.(그러니까 이 무 같은 거.)

107038 #2 씨로.(씨로.)

107038 @ 씨로 해야 되고.(씨로 해야 되고.)

107038 #2 예.(예.)

107038 @ 그다음에 위에 허는 것은, 위로 나온 것은 모종 사당 해도 된다는 거라.(그다음에 위에 하는 것은, 위로 나오는 것은 모종 사다가 해도 된다는 거야.)

107038 #2 아, 아니 난 저.(아, 아니 난 저.)

107038 @ 뿌리 허는 것은 씨로 뿌령 해야 웬덴.(뿌리 하는 것은 씨로 뿌려서 해야 된다고.)

107038 #2 무수는데, 그자 이녁 밧디 허영 기자 갈양 떡곡, 누물은예 나 모종 사당 나 경 험수다게.(무는요, 그저 이녁 밧에 해서 그저 갈아서 먹고, 나물은요 나 모종 사다가 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7038 @ 예, 모종. 예, 경 헌덴.(예, 모종. 예, 그렇게 한다고.)

107038 #2 아.(아.)

107038 @ 그 저 이 빨리로 허는 건 씨로 심어야 웬덴.(그 저 이 뿌리로 하는 건 씨로 심어야 된다고.)

107038 #2 아.(아.)

107038 @ 아, 거난 간 보니까 이 늣뻘 모종은 없어.(아,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 무 모종은 없어.)

107038 #2 예, 늣뻘 모종은 엇입니다.(예, 무 모종은 없습니다.)

107038 @ 거난 빨리 먹는 거난 씨로 해야 웬덴.(그러니까 뿌리 먹는 거니까 씨로 해야 된다고.)

107038 #2 아, 그래서 엇구나. 겐디 늣뻘밧마다 가는 사름도 씨로 허주, 모종으로 싱그는 사름 엇수다.(아, 그래서 없구나. 그런데 무밭마다 가는 사람도 씨로 하지, 모종으로 심는 사람 없습니다.)

107038 @ 계난마썸.(그러니까요.)

107038 #2 간낭 ㄱ튼 거, 누멸 ㄱ튼 거, 브로콜리나 문딱.(양배추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브로콜리나 모두.)

107038 @ 위에 꺼 먹는 거라.(위에 거 먹는 거야.)

107038 #2 예.(예.)

107038 @ 건 모종으로 헌텐.(건 모종으로 한다고.)

107038 #2 아, 들언보난 것도 의미가 잇수다.(아, 들어보니까 거도 의미가 있습니다.)

107038 @ 아, 계난 난 걸 하나 알앗수다. 계난 삼십 날은 늑빠허고, 여긴 보난 아까 시금치엔 헨게.(아, 그러니까 난 걸 하나 알앗습니다. 그러니까 삼십 일은 무하고, 여긴 보니까 시금치라고 하던데.)

107038 #2 계난 늑빠 싱급디가?(그러니까 무는 심었습니까?)

107038 @ 아직 씨 안 뿌련에.(아직 씨 안 뿌려서.)

107038 #2 다 찢 사웁디가?(다 씨는 사 왔습니까?)

107038 @ 아니, 사당 허젠.(아니, 사다가 하려고.)

107038 #2 아이, 나 하나 드리쿠다.(아니, 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7038 @ 아이, 아니우다.(아니, 아닙니다.)

107038 #2 아니, 나양 늑빠.(아니, 나요 무.)

107038 @ 미안허게.(미안하게.)

107038 #2 종자 허연 받은 씨허고, 받은 이제 안 헌 것도 잇수다게, 겐디 종묘사에서 온 거난예, 아덜 가져와신디 막 잘 헛젠 헤신디, 나 늑빠 많이 안 갈앙, 하영 헛자 먹어지지 안 허난, 요기서 그뜨민 요만이만 갈으난, 혼 짝이서 삼분의 일 정도 허연 갈안.(종자 해서 받은 씨하고, 받은 이제 안 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사에서 온 거니까요, 아덜 가져왔는데 아주 잘 했다고 했는데, 나 무 많이 안 갈아서, 많이 해도 먹지 안 하니까, 요기서 같으면 요만큼만 가니까, 한 짝에서 삼분에 일 정도 해서 갈았어.)

107039 @ 아, 아. 하하.(웃음) 그 열무, 열무김치에 대해서 혼번 말해봅서.(아, 아. 하하.(웃음) 그 열무, 열무김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107039 #2 난양, 열무김치, 여름에난 그초록 행 먹젠, 그거 삼삼허게 죽영, 삼삼허게 죽영 밀가루 풀 썬, 그 밀가루 풀 썬 거에서 저 익은 고추, 익은 고추 마늘이 영 허영 막 다져 놓곡, 배 하나 썰영 다져 놓곡, 양파 잇지 아니허파? 양파도 갈앙 은에 놓곡 허영, 거기 액젓이나 흐끔 놓곡 그 저 요즘 저 무슨것덜 많이 허지 안 헉니까? 메실 그거 흐끔 놓곡 허영, 물 많이 허영 양념허영양 그냥 놔두민 그것이 최고우다, 시원허영.(난요, 열무김치, 여름이니까 그처럼 해서 먹으려고, 그거 삼삼하게 죽여서, 삼삼하게 죽여서 밀가루 풀 썬서, 그 밀가루 풀 썬 거에 저 익은 고추, 익은 고추 마늘이랑 해서 마구 다져 넣고, 배 하나 썰어서 다져 넣고, 양파 잇지 않습니까? 양파도 갈아서 넣고 해서, 거기 액젓이나 조금 넣고 그 저 요즘 저 무엇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실 그거 조금 넣고 해서, 물 많이 해서 양념해서 그냥 놔두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시원해서.)

107039 @ 아, 거난 나도 여름 때 열무 갈아신디 아, 우리 집사름<sup>211)</sup>안티 간 열무씨 종묘사에 강 사오렌 허난예, 두 봉지를 사온 거라양, 아, 요멘헌 디 두 봉지를

211) '집사름'은 집사람인데, 여기서는 아내를 뜻한다.

뿌려부니까.(아, 그러니까 나도 여름 때 열무 같았는데 아,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열무 씨 종묘사에 가서 사 오라고 하니까, 두 봉지를 사 온 거야, 아, 요만한 데 두 봉지를 뿌려버리니까.)

107039 #2 열무씨는 좃게 뿌려야 합니다.(열무 씨는 좃게 뿌려야 합니다.)

107039 @ 아, 막 좃게 뿌리난양, 막 그냥.(아, 아주 좃게 뿌리니까요, 마구 그냥.)

107039 #2 막 흔 통에 막 나불엇구나.(마구 한 통에 마구 나버렸구나.)

107039 @ 흔 통에 막 나난애, 막 뽑아도 또.(한 통에 마구 나니까, 마구 뽑아도 또.)

107039 #2 계도 열무는예, 좃게 뺨영 이 대가 가늘어서 줍니다게.(그래도 열무는요, 좃게 뺨어서 이 대가 가늘어야 좋습니다.)

107039 @ 음.(음.)

107039 #2 가늘어서, 너무 굴그믐예, 몽칼몽칼<sup>212)</sup> 굴경, 열무씨는 막 바짝허게 해서 줍니다.(가늘어야, 너무 굵으면요, ‘몽칼몽칼’ 굵어서, 열무 씨는 아주 가깝게 해야 좋습니다.)

107039 @ 흔 번 장난으로 흔 번 해봤주마씨.(한 번 장난으로 한 번 해봤지요.)

107039 #2 그거 허영은에 여름엔 김치도 먹고.(그거 해서 여름엔 김치도 먹고.)

107039 @ 냉국에 괜찮읍디다, 냉국.(냉국에 괜찮읍디다, 냉국.)

107039 #2 그거 물 막 많이 낵.(그거 물 아주 많이 낵서.)

107039 @ 섭 낵은에, 썰은은에, 웬장 낵.(일 낵서, 썰어서, 된장 낵서.)

107039 #2 에에, 흐끔 쓰지 아이 험디가?(에에, 조금 쓰지 않읍디까?)

107039 @ 어떻 안 험디다.(어떻게 않읍디다.)

107039 #2 아, 여름에 냉국은 오이 갈아근에 뭐, 오이.(아, 여름에 냉국은 오이 갈아서 뭐, 오이.)

107039 @ 아, 물웨 갈앙.(아, 물외 갈아서.)

107039 #2 물웨, 물웨 최곱주게.(물외, 물외 최고지요.)

107039 @ 아, 물웨도 이번에는 잘 먹엇수다게.(아, 물외도 이번에는 잘 먹엇습니다.)

107039 #2 호호,(웃음)(호호,(웃음))

107039 @ 거난 딱 해보니까 가장 잘 되는 건 고치, 고치.(그러니까 딱 해보니까 가장 잘 되는 건 고추, 고추.)

107039 #2 물웨, 물웨. 올린 고치, 올리 난 다섯 판이 싱건 하나도 못해 먹엇수다.(물외, 물외. 올해는 고추, 올해는 난 고추 다섯 판이 심어서 하나도 못해 먹엇습니다.)

107039 @ 그 못헌 이유가 잇수과?(그 못한 이유가 잇읍디까?)

107039 #2 탄자병 걸련.(탄저병 걸려서.)

---

212) ‘몽칼몽칼’은 무가 아주 굵고 싱싱한 모양을 말한다.

107039 @ 고치는 갈아난 디 허믄 안 웨어.(고추는 갈았던 데 하면 안 돼.)  
 107039 #2 예, 맞수다. 그 말 맞수다.(예,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107039 @ 연작허민 안 웨어.(연작하면 안 돼.)  
 107039 #2 예, 예. 그 말 맞수다. 나 심어난 디 심언 미짱냥 잇어부난 약을 즐바로 못허는 디난 탄자병 걸리난 그냥 입사귀 털어져불언.(예, 예. 그 말 맞습니다. 나 심었던 데 심어서 굴나무 잇어 버리니까 약을 바르게 못하는 데니까 탄저병 걸리니까 그냥 잎사귀 떨어져 버려서.)  
 107039 @ 거난 영 바꾸와야 웨어, 고치.(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고추.)  
 107039 #2 예, 그 말은 맞수다.(예, 그 말은 맞습니다.)  
 107039 @ 거난 고치 가장 잘 웨엇고, 그다음에 애호박.(그러니까 고추 가장 잘 웨엇고, 그다음에 애호박.)  
 107039 #2 애호박은 잘 웹니다.(애호박은 잘 됩니다.)  
 107039 @ 아이, 저건 뭐 엄청. 애호박, 물웨.(아니, 저건 뭐 엄청나게. 애호박, 물외.)  
 107039 #2 물웨도 저거 막 무정헌 거.(물외도 저거 아주 무정한 거.)  
 107039 @ 그다음에 가지.(그다음에 가지.)  
 107039 #2 가지도 무정헌 거고.(가지도 무정한 거고.)  
 107039 @ 계난.(그러니까.)  
 107039 #2 가지냉국 행 먹으믄 맛 줍니다게.(가지냉국 해서 먹으면 맛 좋습니다.)  
 107039 @ 예.(예.)  
 107039 #2 가지도 막.(가지도 마구.)  
 107039 @ 가지도 삶아근에양?(가지도 삶아서요?)  
 107039 #2 예, 요덴씩 썰어근에 막 하영 삶양 그자 돼장 양념행 놔둬서.(예, 요만큼씩 썰어서 아주 많이 삶아서 그저 된장 양념해서 놔두고 있으면서.)  
 107039 @ 아, 그거 좋아.(아, 그거 좋아.)  
 107039 #2 그거 허여근에 물만 노민 먹을 거.(그거 해서 물만 넣으면 먹을 거.)  
 107039 @ 아, 나도 거 막 좋아합니다게.(아, 나도 거 아주 좋아합니다.)  
 107039 #2 우리도 그추룩 행 먹읍니다게, 여름에.(우리도 그처럼 해서 먹읍니다, 여름에.)  
 107039 @ 거난 딱 안 할 것은 두 가지. 방울토마토, 완전 생이 밥 돼불언.(그러니까 딱 안 할 것은 두 가지, 방울토마토, 완전 새 밥 돼버렸어.)  
 107039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39 @ 방울토마토 아니고, 그다음에 저 옥수수 할 것이 아닙니다.(방울토마토 아니고, 그다음에 저 옥수수 할 것이 아닙니다.)  
 107039 #2 옥수순 저 무슨것덜 다 뜯어먹어불언.(옥수수는 저 무엇들 다 뜯어먹어 버렸어.)

107039 @ 아니, 이만이 컷는디양 벳견 보니까 알이 두세 개밖에 없어.(아니, 이만큼 컷는데요 벳겨서 보니까 알이 두세 개밖에 없어.)

107039 #2 아.(아.)

107039 @ 하여간 뭐가 문제가 이십디다.(하여간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107039 #2 아.(아.)

107039 @ 거난 어떤 사름은 심은 후에 거기에 검질을 맨다든가 쪼끔 영 움직여 불른.(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은 후에 거기에 김을 맨다든가 조금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107039 #2 안 웬텐마씨?(안 된다고요?)

107039 @ 예, 안 웬텐.(예, 안 된다고.)

107039 #2 아, 아.(아, 아.)

107039 @ 옥수수는 가만이 빨리채 잇어야.(옥수수는 가만히 뿌리채 잇어야.)

107039 #2 아, 아, 것도 배울 말이어예.(아, 아, 그것도 배울 말이어요.)

107040 @ 예, 경 굽디다게. 그다음에양 물김치, 물김치 행 먹어봣디강? 물김치.(예, 그렇게 말합디다. 그다음에요 물김치, 물김치 해서 먹어봣습니까? 물김치.)

107040 #2 예게, 물김치.(예, 물김치.)

107040 @ 물김치에 대해영 혼번 곴아줍서.(물김치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40 #2 물김친 배추로도 행 먹곡, 아까 열무로도 행 먹곡, 배추는양, 그냥 저 죽여근에 이 물만 배도 썰어 놓곡, 고추도 썰어 놓곡, 양파도 썰어 놓곡 허여근에, 또 그 물김치도 저 풀 췌 놔사, 풀 췌 놔근에.(물김치는 배추로도 해서 해서 먹고, 아까 열무로도 해서 먹고, 배추는요, 그냥 죽여서 이 물만 배도 썰어 넣고, 고추도 썰어 넣고, 양파도 썰어 넣고 해서, 또 그 물김치도 저 풀 췌 놔야, 풀 췌 놔서.)

107040 @ 뭇로 풀 췌니까?(무엇으로 풀 췌니까?)

107040 #2 찹쌀가루로도 췌나, 그냥 멥쌀가루라도 췌근에 그거 막 허영 이만한 통에 양념허여근에양.(찹쌀가루로도 췌나, 그냥 멥쌀가루로도 췌서 그거 마구 해서 이만한 통에 양념해서요.)

107040 @ 아까 저 멥쌀이?(아까 저 멥쌀이?)

107040 #2 쓸게, 곤쌀, 곤쌀가루.(쌀요, 흰쌀, 흰쌀가루.)

107040 @ 멥쌀?(멥쌀?)

107040 #2 예, 곤쌀가루.(예, 흰쌀가루.)

107040 @ 곤쌀가루가 멥쌀이엔 험니까?(흰쌀가루가 멥쌀이라고 합니까?)

107040 #2 예, 곤쌀가루.(예, 흰쌀가루.)

107040 @ 아, 아.(아, 아.)

107040 #2 곤쌀가루, 그거 허여근에 그레 양념, 아 침, 양념허여근에, 고치가루 놓지말앙 그거에 그자 익은 고추 영 영 보기 좋게 곱게만 그추록 허영 썰영, 파만 썰어놔도 줍니다. 경 허근에 허민 물김칩주게.(흰쌀가루, 그거 해서 그리 양념, 아

참, 양념해서, 고춧가루 넣지 말고 그거에 그저 익은 고추 이렇게 이렇게 보기 좋게 곱게만 것처럼 해서 썰어서, 파만 썰어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물김치지요.)

107040 @ 계난 배추도 농곡, 열무도 농곡.(그러니까 배추도 넣고, 열무도 넣고.)

107040 #2 열무는 열무김치만 따로 해야 되고, 배추 그 물김치로 담젠 허민 그냥 절인 배추 그냥 그걸로 해야 되고, 계민 맛 좋습니다.(열무는 열무김치지만 따로 해야 되고, 배추 그 물김치로 담으려고 하면 그냥 절인 배추 그냥 그걸로 해야 되고, 그러면 맛 좋습니다.)

107040 @ 계난 그 물은 아까 그 저 맵쌀로 죽 쑤근에, 풀, 풀?(그러니까 그 물은 아까 그 저 맵쌀로 죽 쑤서, 풀, 풀?)

107040 #2 예, 풀 썩.(예, 풀 쑤서.)

107040 @ 풀 썩.(풀 쑤서.)

107040 #2 풀 썩 그게 막 얇게 풀영 하영 허영 물김치 허민게, 여름에 국 없이, 그거 국이나 마찬가지로라마씨. 경 허영 김치로도 먹곡, 국으로도 먹곡, 냉장고에 넣 먹으면양 잘도 시원허여마씨.(풀 쑤서 그게 아주 얇게 풀어서 많이 해서 물김치 하면요, 여름에 국 없이, 그거 국이나 마찬가지로지요. 그렇게 해서 김치로도 먹고, 국으로도 먹고, 냉장고에 놔서 먹으면요 잘도 시원해요.)

107040 @ 거 국수 삶양은에 그거 놓양 먹고.(거 국수 삶아서 그거 넣어서 먹고.)

107040 #2 예, 그거 저 열무김치 그추룩 만들아근에 국수 삶아근에 그거 허영 먹으면 열무.(예, 그거 저 열무김치 것처럼 만들어서 국수 삶아서 그거 해서 먹으면 열무.)

107040 @ 열무 국수 되는 겁주.(열무 국수 되는 거지.)

107040 #2 열무 국수 웹주게, 예, 그거 잘도 맛 좋습니다. 계난 고춧가루만 놓지 말양 그거에 익은 고추 썰어넣.(열무 국수 되지요, 예, 그거 잘도 맛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만 넣지 말고 그거에 익은 고추 썰어놔서.)

107040 @ 아, 거 뒤편은, 물김치는.(아, 거 뒤편은, 물김치는.)

107040 #2 저 열무김치 할 때는.(저 열무김치 할 때는.)

107040 @ 물김치는.(물김치는.)

107040 #2 예, 열무, 저 익은 고추영 파랑 고추영 막 썰와 놔근에 물을 그냥 영 색깔만 곱게.(예, 열무, 저 익은 고추랑 파랑 고추랑 마구 썰어 놔서 물을 그냥 이렇게 색깔만 곱게.)

107040 @ 아, 고춧가루는 놔서 안 된다.(아, 고춧가루는 놔서 안 된다.)

107040 #2 아니, 놔도 된다 지저분웹주게.(아니, 놔도 되는데 지저분하지요.)

107040 @ 아.(아.)

107040 #2 지저분허여, 놔도 된다 지저분허여. 우리 여름에 물김치를 당글 때에 익은 고추에 그것 막 빼져 놔근에 곱아넣 웹주. 고춧가루 넣 해 보지 아이 했수

다.(지저분해, 놔도 되는데 지저분해. 우리 여름에 물김치를 담글 때에 익은 고추에 그것 마구 빠져 놔서 갈아놔서 하지. 고춧가루 놔서 해 보지 않았습니까.)

107041 @ 그다음에 동지<sup>213</sup>김치 행 먹어봅디가?(그다음에 ‘동지김치’ 해서 먹어 봅디까?)

107041 #2 예, 동지김치도게 우리 그냥 동지 죽여근에 고춧가루 농곡 허영 패마 농 춤 저 콕대사니 빠져 농곡 허영 고춧가루 액젓에 무쳐근에 것도 맛 좋습니다. 그 추룩 동지김친 그추룩.(예, ‘동지김치’도요 우리 그냥 동지 죽여서 고춧가루 넣고 해서 쪽과 참 저 마늘 빠져 넣고 해서 고춧가루 액젓에 무쳐서 것도 맛 좋습니다. 것처럼 ‘동지김치’는 그러럼.)

107041 @ 게난 동지김친 배추에서 나온 것벳긴 안 험니까?(그러니까 ‘동지김치’는 배추에서 나온 것밖에 안 험니까?)

107041 #2 배추에서 나온 거난 파랑험니다게, 동지김치는. 경 허여근에.(배추에서 나온 거니까 파랬습니다, ‘동지김치’는. 그렇게 해서.)

107041 @ 늬빠에서 나온 건 안 돼고양?(무에서 나온 건 안 되고요?)

107041 #2 예, 액젓 농곡 허여근에양, 막 허여근에 냉장실에 가만이 놔 놔두면 여름 나도록 먹어집니다.(예, 액젓 넣고 해서요, 마구 해서 냉장실에 가만히 놔서 놔두면 여름 나도록 먹게 됩니다.)

107041 @ 게난 동지김치는 언제 동지가 나오니까?(그러니까 ‘동지김치’는 언제 동지가 나오니까?)

107041 #2 그거야 봄 나사마씨게, 봄 나사.(그거야 봄 나야, 봄 나야.)

107041 @ 맞아, 봄.(맞아, 봄.)

107041 #2 봄 나야 동지는. 게민 그거 막 하영 허영 냉장고 김치통에 담양 놔두면 여름 내도록 먹어집니다.(봄 나야 ‘동지’는. 그거 아주 많이 해서 냉장고 김치통에 담아서 놔두면 여름 내도록 먹게 됩니다.)

107041 @ 아, 것도 괜찮아마씨.(아, 그것도 괜찮아요.)

107041 #2 맛 좋습니다. 게난 너무 이만씩 긴 때 허지 말양, 요만씩 난 때에.(맛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만씩 긴 때 하지 말고, 요만씩 난 때에.)

107041 @ 쪼끔씩.(조금씩.)

107041 #2 예, 험 때에 허민.(예, 할 때에 하면.)

107041 @ 꽃 피기 전에예?(꽃 피기 전에요?)

107041 #2 꽃 피기 전에마씨, 꽃 피기 전에.(꽃 피기 전에요, 꽃 피기 전에.)

107041 @ 꽃 피기 전에 해야.(꽃 피기 전에 해야.)

107041 #2 꽃 피어불민 그 꽃이 비삭비삭<sup>214</sup> 맛 엇입니다, 꽃 피기 전에. 동지 사근에 요만씩만 허건 똑똑 거꺼근에.(꽃 피어버리면 그 꽃이 ‘비삭비삭’ 맛 없습니까. 꽃 피기 전에. 동지 사서 요만씩만 하건 똑똑 꺾어서.)

213) ‘동지’는 배추 따위에서 돌아난 아주 연한 장다리이다.

214) ‘비삭비삭’은 배춧잎이 옹골차지 못하여 먹을 때 맛없어 보이는 모양이다.



107041 @ 음.(음.)

107041 #2 그처럼 허믄 맛 좋습니다.(그처럼 하면 맛 좋습니다.)

107042 @ 그다음에 늬뻬김치?(그다음에 무김치?)

107042 #2 늬뻬김치는 통김친 허젠 허민 아까 나 곤는 식으로 물김치 담듯 통김친, 늬뻬 죽여근에.(무김치는 통김치는 하려고 하면 아까 나 말하는 식으로 물김치 담듯 통김치는, 무 죽여서.)

107042 @ 아이, 거난 늬뻬 썰어야 헐 거 아니우파?(아니, 그러니까 무 썰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7042 #2 썰지 말양 통김치는 그냥.(썰지 말고 통김치는 그냥.)

107042 @ 아, 늬뻬 그대로 통김치 허여?(아, 무 그대로 통김치 해?)

107042 #2 예, 경 허여근에 썰명예, 봄 나민 썰명 먹으면 맛 좋습니다.(예, 그렇게 해서 썰면서요, 봄 나면 썰면서 먹으면 맛 좋습니다.)

107042 @ 게민 거 무시거 같은 거네, 저.(그러면 거 무엇 같은 거네, 저.)

107042 #2 저, 짱아치, 짱아치가.(저, 장아찌, 장아찌가.)

107042 @ 중국, 중국집에서 나오는 거.(중국, 중국집에서 나오는 거.)

107042 #2 그 물, 물이 시원하게 허민양, 무수에 나온 물이 성, 썰명 먹으면양 그거 진짜 맛십디다게, 난 진짜.(그 물, 물이 시원하게 하면요, 무에 나온 물이 있어서, 썰면서 먹으면요 그거 진짜 맛있습디다, 난 진짜.)

107042 @ 아, 게난 통째로?(아, 그러니까 통째로?)

107042 #2 예, 통채로 무수 요멘씩 헐 거 통째로.(예, 통째로 무 요만큼씩 한 거 통째로.)

107042 @ 어떻 담아마씨?(어떻게 담았습니까?)

107042 #2 그거 시청 소금물에 흐끔 절영, 절엿당 그 물만 양념허는 거라마씨, 물만, 물만 양념허영 그거 건정 물로 확 시쳐뵤 그레 통통통통 드리청 딱 지들라근에 낱 놔두난양, 나도 그걸 무사 흐번 해 보리 요기.(그거 씻어서 소금물에 조금 절여서, 절엿다가 그 물만 양념하는 거지요, 물만, 물만, 양념해서 그거 건져서 물로 확 씻어뵤서 그리 통통통통 들이쳐서 딱 지질러서 놔서 놔두니까요, 나도 왜 한번 해 보리 요기.)

107042 @ 고추 ㄱ뵤 것덜도 놓지 안 허고양?(고추 같은 것들도 놓지 않고요?)

107042 #2 고치가 풀고추, 저 익은 고추는 썰어 놓곡, 그 양과도 흐끔 썰어 놓곡, 경 허영 헤난에 요깃 아이가 언니 왕 이거양 이거 잘도 맛이 시원허연 사다든 허연 나도 작년이 가이 빌연 당간 먹엇수다만은, 게고 늬뻬김치사게 썰어근에게 각두기로도 담곡, 나박김치로도 담곡.(고추가 풋고추, 저 익은 고추는 썰어서 넣고, 그 양과도 조금 썰어서 넣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요기 아이가 언니 와서 이거요 이거 잘도 맛이 시원해서 사다 달라고 해서 나도 작년에 그 아이 빌어서 담가서 먹엇습디다만, 그리고 무김치야 썰어서 각두기로도 담고, 나박김치로도 담고.)

107042 @ 겐디 썰영도 허지 안 허우파양?(그런데 썰어도 하지 않습니까?)

107042 #2 예게, 썰어근에, 김장헐 때에.(예, 썰어서 김장할 때에.)

107042 @ 거난.(그러니까.)

107042 #2 요만씩 뚜께, 요만씩 뚜께 허영 배추김치 혼 줘 놓곡, 무수김치 혼 줘 놓곡.(요만큼씩 두께, 요만큼씩 두께 해서 배추김치 한 줘 넣고, 무김치 한 줘 넣고.)

107042 @ 아.(아.)

107042 #2 김장헐 때, 김장에, 김장 김치 헐 때.(김장할 때, 김장에, 김장 김치 할 때.)

107042 @ 아, 거난 따로따로 허지 안 허고.(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지 않고.)

107042 #2 따로따로 안 허고. 혼 징, 혼 징, 혼 징 허난.(따로따로 않고. 한 층, 한 층, 한 층 하나까.)

107042 @ 아.(아.)

107042 #2 것도 막 맛 줍니다, 시원허영.(그것도 아주 맛 좋습니다, 시원해서.)

107042 @ 아, 그 칭으로 허영 허는구나.(아, 그 층으로 해서 하는구나.)

107042 #2 예, 한 징, 한 징, 한 징 놔근에 경 허영 먹고.(예, 한 층, 한 층, 한 층 놔서 그렇게 해서 먹고.)

107042 @ 아, 거 처음 듣는 얘기네.(아, 거 처음 듣는 얘기네.)

107042 #2 나박김치 ㄱ쁜 거, 깍두기 ㄱ쁜 거 ㄱ로ㄱ로 담양도 먹곡, 예, 경 험니다게.(나박김치 같은 거, 깍두기 같은 거 따로따로 담아서도 먹고, 예, 그렇게 합니다.)

107042 @ 아, 우리도 저 김치를 담으신디, 우린 아파트에 베란다에서 햇빛이 들어오지 안 험니까양? 햇빛이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니파양?(아, 우리도 저 김치를 담았는데, 우린 아파트에 베란다에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햇빛이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7042 #2 김치는 햇빛 없는 디 놔야마씨.(김치는 햇빛 없는 데 놔야.)

107042 @ 김치는 햇빛 없는 디?(김치는 햇빛 없는 데?)

107042 #2 김치는.(김치는.)

107042 @ 아, 장, 장이구나, 장.(아, 장, 장이구나, 장.)

107042 #2 예, 장은 햇빛 잇는 디 놔야 돼고, 김치는 일절 햇빛 없는 디 놔야 돼는 거마씨.(예, 장은 햇빛 잇는 데 놔야 되고, 김치는 일절 햇빛 없는 데 놔야 되는 거요.)

107042 @ 아, 김치는.(아, 김치는.)

107042 #2 김치는, 예, 어디 이추룩이라도 이추룩 현 햇빛 원 안 들어가는 디.(김치는, 예, 어디 이처럼이라도 이처럼 한 햇빛 전혀 안 들어가는 데.)

107042 @ 시원헌 디 놔야 돼겠네양? 경 험에 땅 판에 문곡 험구나.(시원한 데 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땅 파서 문고 하고 있구나.)

107042 #2 예, 예. 김치는 햇빛 없는 데 놔야마씨, 장은 햇빛 잇는 데, 없는 데

놓민 안 되고.(예, 예. 김치는 햇빛 없는 데 놔야 해요, 장은 햇빛 있는 데, 없는 데 놓으면 안 되고.)

107042 @ 고려불더라고.(끓아 버리더라고.)

107042 #2 고려불어마씨. 갓 쓰멍 안 됩니다. 햇빛 있어야.(끓아 버려요, 끝마지 쓰면서 안 됩니다. 햇빛 있어야.)

107042 @ 게네 그때 장이구나, 장 헐 때라서.(그래서 그때 장이구나, 잘 할 때라서.)

107042 #2 장은 고려불은 안 되고.(장은 끓아 버리면 안 되고.)

107042 @ 아, 거 다 고련에, 막 누룩이영 멩글안에.(아, 거 다 끓아서, 마구 누룩이랑 만들어서.)

107042 #2 장도 담글 때는 좀 짠짠하게, 처음에양 허야사주 이 소금물 싱거와불은 장은 그냥 고려불입니다. 콩 혼 말이민 소금도 혼 말 놔야마씨.(장도 담글 때는 좀 짠짠하게, 처음에 해야지 이 소금물 싱거워 버리면 장은 그냥 끓아 버립니다. 콩 한 말이면 소금도 한 말 놔야 해요.)

107042 @ 짓갈도 경 험디다, 짓갈도.(짓갈도 그렇게 합디다, 짓갈도.)

107042 #2 펠젯이나 자리젯이나.(멸치젯이나 자리젯이나.)

107042 @ 이 소금을 하영 안 놓면은 그 고기가 다 쳐져불고.(이 소금을 많이 안 놓으면 그 고기가 다 쳐져 버리고.)

107042 #2 예, 맞수다게.(예, 맞습니다.)

107042 @ 소금 하영 놓면은 고기가 그대로 잇꼭 헌데.(소금 많이 놓으면은 고기가 그대로 있고 헌데.)

107042 #2 건디 경 해도양 자리젯 ㄱ튼 거는 소금을 너무 하영 놔도 고기가 너무 굳영 맛이 엇고.(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자리젯 같은 거는 소금을 너무 많이 놔도 고기가 굳어서 맛이 없고.)

107042 @ 없고.(없고.)

107042 #2 어느 좀 짹짹허면서도 어느 정도 허여야.(어느 좀 짹짹허면서도 어느 정도 해야.)

107042 @ 고기 살 정도.(고기 살 정도.)

107042 #2 예, 고기가 맛십니다.(예, 고기가 맛있습디다.)

107042 @ 예.(예.)

107042 #2 경 현 따문 자리젯은 딱 이렇게 소금을 놓아근에 보면서 소금을 놔야.(그렇게 하기 때문 자리젯은 딱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보면서 소금을 놔야.)

107042 @ 그때 말허쿠다양, 게난 늬뻬짐치는 넓작넓작허게 허기도 하고.(그때 말하겠습디다, 그러니까 무김치는 넓적넓적하게 하기도 하고.)

107042 #2 두끼, 두끼, 흥끔 두껍게 허영.(두께, 두께, 조금 두껍게 해서.)

107042 @ 게난 깍두기 식으로도 허지 안 험니까?(그러니까 깍두기 식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107042 #2 깍두기 식으로 허는 건 그냥 통에 낱 담양 먹는 거고.(깍두기 식으로 하는 건 그냥 통에 놔서 담아서 먹는 거고.)

107042 @ 간단하게.(간단하게.)

107042 #2 예, 김장에 혼 징, 혼 징 묻는 거는 막 넙작넙작 손바닥만씩 썰어도 좋아마씨. 게민 김장 혼 징 농민 무수도 그렇게 허영 혼 징 농곡, 똑ㄱ튼 배추 양념 똑ㄱ치 무치명 그렇게 허믄 줍니다게.(예, 김장에 한 층, 한 층 묻는 거는 아주 넓 적넓적 손바닥만큼씩 썰어도 좋아요. 그러면 김장 한 층 넣으면 무도 그렇게 해서 한 층 넣고, 똑같은 배추 양념 똑같이 무치면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107043 @ 오늘은 과김치에 대허영 알아보쿠다.(오늘은 과김치에 대해서 알아보 겠습니다.)

107043 #2 예.(예.)

107043 @ 파허면은 저 이 그 당시는 저 패마농.(파하면은 저이 그 당시는 저 쪽파.)

107043 #2 예.(예.)

107043 @ 패마농, 저 김치에 대허영 곱아줍서.(쪽파, 저 김치에 대해서 말해주 십시오.)

107043 #2 패마농김치는예, 다듬아근에 절이민 질긴텅 허영 저 젓, 액젓 잊지양, 멸젓, 멸젓 그거에 양념, 멸젓에 양념, 고치가루 ㄱ튼 거, 마늘, 파김치엔 마늘 안 놓니다. 고치가루, 패, 설탕 약간 농곡, 그 저 액젓만 놔근에예, 경 허연 무치민 우 린 경 허연 먹엇수다게.(쪽파김치는요, 다듬어서 절이면 질기다고 해서 저 젓, 액젓 잊지요, 멸치젓, 멸치젓 그거에 양념, 멸치젓에 양념, 고춧가루 같은 거, 마늘, 파김 치엔 마늘 안 넣습니다. 고춧가루, 참깨, 설탕 약간 넣고, 그 저 액젓만 놔서요, 그 령게 해서 무치면 우린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107043 @ 게난 파김치는 고춧가루 안 허고.(그러니까 파김치는 고춧가루 앓고.)

107043 #2 고치가루를 놔야 헤마씨.(고춧가루를 놔야 해요.)

107043 @ 아, 고춧가루는 넣지양?(아, 고춧가루는 넣지요?)

107043 #2 예, 고치가루 농곡, 멸젓 액젓 농고.(예, 고춧가루 넣고, 멸치젓 액젓 넣고.)

107043 @ 액젓을.(액젓을.)

107043 #2 멸젓 담양은예.(멸치젓 담아서.)

107043 @ 액젓이 멸젓이파?(액젓이 멸치젓입니까?)

107043 #2 멸젓, 멸젓.(멸치젓, 멸치젓.)

107043 @ 멸젓이.(멸치젓이.)

107043 #2 예.(예.)

107043 @ 자리젓은 액젓이엔 안 허여?(자리젓은 액젓이라고 안 해?)

107043 #2 안 험니다, 그건 그냥 자리젓이엔 허주.(안 합니다, 그건 그냥 자리젓 이라고 하지.)

107043 @ 액젓은 멜젓.(액젓은 멸치젓.)

107043 #2 멜젓.(멸치젓.)

107043 @ 계난 그 여긴 짐끼엔 험니까? 김치엔 험니까?(그러니까 그 여긴 ‘짐끼’라고 험니까? ‘김치’라고 험니까?)

107043 #2 김치엔 험주게, 김치.(‘김치’라고 하지요, 김치.)

107043 @ 김치?(김치?)

107043 #2 예.(예.)

107043 @ 여긴 김치.(여긴 김치.)

107043 #2 옛날 어른 짐치엔도 허고 김치엔도 허고양 그자 불러지는 대로, 우리 옛날 할머니덜 말허는 거 보든 김치 험자, 짐치 험자 허든 어느 것이 정확헌 말인 철인 잘 모르쿠다게.(옛날 어른 김치라고도 하고 김치라고도 하고요 그저 부르는 대로, 우리 옛날 할머니들 말하는 거 보면 김치 했어, 김치 했어 하면 어느 것이 정확헌 말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107043 @ 아, 계난 영 돌아댱겨 보면은 이 김치는 표준어고, 짐끼엔도 허고.(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 김치는 표준어고, ‘짐끼’라고도 하고.)

107043 #2 예게, 맞수다게. 할망덜 짐치 시냐, 영 헤근에도 허곡.(예, 맞습니다. 할머니들 김치 있느냐, 이렇게 해서도 하고.)

107043 @ 짐치, 김치, 또는 짐끼엔도 허고.(‘짐치’, ‘김치’, 또는 ‘짐끼’라고도 하고.)

107043 #2 예. 짐치엔도 허고, 우린 그자 이젠 김치엔 허고, 저 성산 쪽덜 그쪽에 말광 여기 말도 또 틀립니다.(예. ‘짐치’라고도 하고, 구린 그더 이젠 ‘김치’라고 하고, 저 성산 쪽들 그쪽에 말과 여기 말도 또 다릅니다.)

107043 @ 경 험니다, 옛날 거 이 조선시대에 보면은 제주도를 세 개로 나뉘주 마씨.

107043 #2 예, 호호.(웃음)(그렇게 험니다, 옛날 거 이 조선시대에 보면은 제주도를 세 개로 나뉘지요.)

107043 @ 제주목<sup>215)</sup>, 계민 우리가 제주목은 제주시 쪽인디 그걸 우리 목안이엔 험주, 목안.(제주목, 그러면 우리가 제주목은 제주시 쪽인디 그걸 우리 목안이라고 하지, 목안.)

107043 #2 목안.(목안.)

107043 @ 목, 목안이 그 제주시 쪽이고. 저디 성읍<sup>216)</sup>.(목, 목안이 그 제주시 쪽이고. 저기 성읍.)

107043 #2 저쪽에 목은 뭐엔 험니까?(저쪽에 목은 뭐라고 험니까?)

107043 @ 저기는 저.(저기는 저.)

107043 #2 아이고, 아까 생각나져라만은.(아이고, 생각났었습니다만.)

215) ‘제주목’은 지역적으로 제주시 동 지역과 서쪽으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까지, 동쪽으로 조천읍, 구좌읍까지를 말한다.

216) ‘성읍’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말한다.

- 107043 @ 여기는 대정현<sup>217</sup>, 저기는 저.(여기는 ‘대정현’, 저기는 저.)
- 107043 #2 저기는 목안.(저기는 목안.)
- 107043 @ 성읍, 성읍을.(성읍, 성읍을.)
- 107043 #2 목안, 목안은 어디우파?(목안, 목안은 어디입니까?)
- 107043 @ 정의현<sup>218</sup>, 정의현.(‘정의현’, ‘정의현’.)
- 107043 #2 정의현 맞수다.(‘정의현’ 맞습니다.)
- 107043 @ 정의현, 대정현.(‘정의현’, ‘대정현’.)
- 107043 #2 예, 저쪽엔 정의가 맞수다. 호호호.(웃음)(예, 저쪽엔 정의가 맞습니다. 호호호.(웃음))
- 107043 @ 송당<sup>219</sup> 쪽은 정의, 이쪽은 대정현, 여기 저 바로 단산<sup>220</sup> 앞이.(송당 쪽은 정의, 이쪽은 대정현, 여기 저 바로 ‘단산’ 앞에.)
- 107043 #2 향교.(향교.)
- 107043 @ 대정향교 있지 안 허우파?(대정향교 있지 않습니까?)
- 107043 #2 예, 예, 맞수다.(예, 예, 맞습니다.)
- 107043 @ 저 정의현은 성읍에 있고.(저 ‘정의현’은 성읍에 있고.)
- 107043 #2 예.(예.)
- 107043 @ 저 제주목은 저 목관아지 행 저 관덕정에, 관덕정에.(저 ‘제주목’은 저 목관아지 해서 저 관덕정에, 관덕정에.)
- 107043 #2 예, 맞수다게. 호호.(웃음)(예, 맞습니다. 호호.(웃음))
- 107043 @ 게민 파허면은 여기서는 패마농양?(그러면 파하면은 여기서는 쪽파요?)
- 107043 #2 패마농.(쪽파.)
- 107043 @ 패마농?(쪽파?)
- 107043 #2 패마농.(쪽파.)
- 107043 @ 거난 패마농은 이제 싱그는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쪽파는 이제 심는 거 아십니까?)
- 107043 #2 이제 싱경은에 일월 혼 이월달 돼가면 패마농이 막 어랑어랑<sup>221</sup> 막 좋읍주게. 게민 그때덜, 해 혼 삼, 삼월달까지 패마농이 막 좋을 거우다. 그뻐 허여 근에 김치덜 많이 당강 먹읍니다게.(이제 심어서 일월 한 이월 돼가면 쪽파가 아주 ‘어랑어랑’ 아주 좋습지요. 그러면 그때들, 거의 한 삼, 삼월까지 쪽파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뻐 해서 김치들 많이 담가서 먹읍니다.)
- 107043 @ 거는 지금 파민 안 됩니까?(거는 지금 파면 안 됩니까?)
- 107043 #2 지금 팔 그 무신것이 이제사 흐끔씩 나난.(지금 팔 그 무엇이 이제야

217) ‘대정현’은 서귀포시 중문동, 대천동, 예레동과 안덕면, 대정읍 지역을 말한다.

218) ‘정의현’은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 중문동, 대천동, 예레동을 제외한 지역과 표선면, 남원읍, 성산읍 지역을 말한다.

219) ‘송당’은 제주시 조천읍 송당리를 말한다.

220) ‘단산’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북서쪽, 대정읍 인성리와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이다.

221) ‘어랑어랑’은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이다.

조금씩 나니까.)

107043 @ 아, 거난.(아, 거니까.)

107043 #2 어령 요멘씩 허영 즐아근에 행 먹어집니까게?(어려서 요만큼씩 해서 잘아서 해서 먹게 됩니까?)

107043 @ 요번에 나도 싱그난에 요멘씩 허연.(요번에 나도 심으니까 요만큼씩 했어.)

107043 #2 쪼그멘헌 거. 예, 그만씩 헌 거 우리 젓갈 허젠 허민 우리 메어당은 에 양념허젠.(조그마한 거. 예, 그만큼씩 한거 우리 젓갈 하려고 하면 우리 매어다가 양념하려고.)

107043 @ 그냥 트드민 안 돼지양?(그냥 뜯으면 안 되지요?)

107043 #2 트다도 어떻 허지 아이힙니다. 올라웁니다, 싹 올라와.(뜯어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올라웁니다, 싹 올라와.)

107043 @ 트다도?(뜯어도?)

107043 #2 예.(예.)

107043 @ 뿌리채 매지 말앙.(뿌리채 매지 말고.)

107043 #2 매지 말앙 그자 임시 흐끔 혼 멧 개 먹을 건 트다도 올라오는데 요즘덜은 경 험수가? 막 즈지갱이 싱것당 스까근에 뽑앙덜 양념도 허고.(매지 말고 그저 임시 조금 한 멧 개 먹을 건 뜯어도 올라오는데 요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좃게 심었다가 슈아서 뽑아서들 양념도 하고.)

107043 @ 계난 세우리는 그냥 비영.(그러니까 부추는 그냥 베어서.)

107043 #2 쥬디 세우리는 빔만 헤야 돼고마씨.(그런데 부추는 베기만 해야 되고요.)

107043 @ 예, 비여근에.(예, 베어서.)

107043 #2 비민 돌아나오고, 비민 돌아나오고, 계속 돌아웁니다게.(베면 돌아나오고, 베면 돌아나오고, 계속 돌아웁니다.)

107043 @ 패마농은 뿌리채 메영.(쪽파는 뿌리채 매어서.)

107043 #2 메여근에예.(매어서요.)

107043 @ 메여근엔 헤야 돼고.(매어서 해야 되고.)

107043 #2 트다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제라허게 올라오진 안 행예. 흐끔 올라오긴 힙니다.(뜯어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제대로 올라오진 안 해요.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107043 @ 계난 일 이월달에 패마농 메어근에 그다음엔.(그러니까 일 이월에 쪽파 매어서 그다음엔.)

107043 #2 패마농은 혼 사월달쪼미일 거우다.(쪽파는 한 사월일 것입니다.)

107043 @ 그거 허여근에 죽여야 될 거 아니우파? 소금물에 허영.(그거 해서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물에 해서.)

107043 @ 아니, 패마농김치예, 저 소금물에 죽이지 아녕 그냥 젓국에 고춧가루

양념, 양념 낱.(아니, 쪽파김치는요, 조 소금물에 죽이지 않아서 그냥 젓국에 고춧가루 양념, 양념 놔서.)

107043 @ 그냥 씻어 낱 다음에 그냥.(그냥 씻어 놔서 다음에 그냥.)

107043 #2 씻어 낱예. 그냥 무쳐야 파김치는 질기지 안 허영 부드와근에예, 경해야 맛스넨 험니다게.(씻어 놔서요, 그냥 무쳐야 파김치는 질기지 않아서 부드러워서요, 그렇게 해야 맛있다고 합니다.)

107043 @ 아, 거난 죽이지 안 허고.(아,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107043 #2 죽이지 안 험니다.(죽이지 않습니다.)

107043 @ 죽이지 안 허영. 거난 거 늬빼나 배추ㄴ치.(죽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나 배추같이.)

107043 #2 늬빼나 배추만 죽염십주게.(무나 배추만 죽이고 있지요.)

107043 @ 죽이지 안 허영?(죽이지 않아서?)

107043 #2 예, 또 제라허게 무수김치 압지롱허게 담양 먹는 사름은 죽이지 안 허영 그냥 지물에 해야 물이 나근에 시원허게 먹는 사름도 싯주만은 우린 항상 흐끔씩 죽영 그 물을 흐끔 빠좌뵙 험집니다게.(예, 또 제대로 무김치 알찍허게 담아서 먹는 사름은 죽이지 않아서 그냥 제물에 해야 물이 나서 시원허게 먹는 사름도 있지만 우린 항상 조금씩 죽여서 그 물을 조금 빼뵙서 험집니다.)

107043 @ 계난 이제 패마농은 씨로도 하영 나가지양?(그러니까 이제 쪽파는 씨로도 많이 나가지요?)

107043 #2 여기덜 씨로 허여근에 육지레 막 종자로 올라감수게, 패마농 씨는.(여기들 씨로 해서 육지로 마구 종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쪽파 씨는.)

107043 @ 저 김치를 안 해근에.(저 김치를 안 해서.)

107043 #2 예게, 패마농김친 그자 쪼끔 허여근에 양념 뵙로 허영 먹주 많인 안 험니다. 그때그때 쪼끔씩.(예, 쪽파김치는 그저 조금 해서 양념 무엇으로 해서 먹지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107043 @ 계난 이월달 돼민 그.(그러니까 이월 되면 그.)

107043 #2 예.(예.)

107043 @ 그 섭이 다 죽을 거 아니파양?(그 잎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107043 #2 이월달, 이젠예 옛날 닻지 아니허영 십이월달 돼가민 이파리가 거저 죽어마씨.(이월, 이젠요 옛날 같지 않아서 십이월 돼가면 잎사귀가 거의 죽어요.)

107043 @ 죽어.(죽어.)

107043 #2 죽어가민 이 동지만 지나믈예.(죽어가면 이 동지만 지나면요.)

107043 @ 거 파?(거 파?)

107043 #2 아니, 동지만 지나민 그것이 새싹이 올라옵니다, 패마농. 새싹 올라왕게 볼 나가민 막 쵸, 이만이 큼주게. 게민 그 종자로 메는 건 흔 사월쫼 돼믈 패마농 메곡, 우리 임시 해당 먹는 건 흔 이 삼월 나가믈양 막 이만이 좋으민 메어당은 예 김치를 허영 먹읍니다게. 요즘 막 패마농 싱글 철입주게.(아니, 동지만 지나면



그것이 새싹이 올라옵니다, 쪽파. 새싹 올라와서 봄 나가면 아주 커서, 이만큼 크지요. 그러면 그 종자로 매는 건 한 사월쯤 되면 쪽파 매고, 우리 임시 해다가 먹는 건 한 이 삼월 나가면요 아주 이만큼 좋으면 매어다가 김치를 해서 먹습니다. 요즘 막 쪽파 심을 철이지요.)

107043 @ 예, 저 나도 우리 스춘 패마농 씨 쥘게 싱것주마씨.(예, 저 나도 우리 사춘 쪽파 씨 줘서 심었지요.)

107043 #2 싱그난 이제 요멘씩 헤실 거우다.(심으니까 이제 요만큼씩 했을 것입니다.)

107043 @ 예, 그만큼 쥘, 그거 싱그고 이 저 파, 대파.(예, 그만큼 쥘어, 그거 심고 이 저 파, 대파.)

107043 #2 대파 메덜토 지금 막 놔실 거우다.(대파 모들도 지금 마구 놔을 것입니다.)

107043 @ 아, 난 그 전이 대파 메 뿌련에 요만씩 헤선게 아이 그 골 영 처근에.(아, 난 그 전에 대파 모 뿌려서 요만큼씩 했던데 아니 그 골 이렇게 처서.)

107043 #2 예.(예.)

107043 @ 툭툭 두드렁.(툭툭 두드려서.)

107043 #2 그레 밋밋밋 놔근에 툭툭 두드렁.(그리 밋밋밋 놔서 툭툭 두드려서.)

107043 @ 툭툭 헤근에 흑을 담아야 헐 건디.(툭툭 해서 흑을 담아야 할 것인데.)

107043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43 @ 몰란에, 하나씩 골갱이로 글그명 영 허난 안 웹디다게.(몰라서, 하나씩 호미로 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됩디다.)

107043 #2 싱것구나예. 그거양 목쟁이, 쟁이엔 험니까? 뤼엔 험니까? 쪽 허영.(심었군요. 그거요 곡쟁이, 팽이라고 합니까? 뤼라고 합니까? 쪽 해서.)

107043 @ 골 청.(골 처서.)

107043 #2 거 패마농을 이 식, 이 식으로 허영 쪽 허게 낡.(거 쪽파를 이 식, 이 식으로 해서 쪽 하게 놔서.)

107043 @ 옆으로 영 허여근에.(옆으로 이렇게 해서.)

107043 #2 영 놓으민 영 영 덮어만 놓으민 웹니다게, 패마농은. 게민 그자 올라 오른 하나씩 하나씩 메명.(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덮어만 놓으면 됩니다, 쪽 파는. 그러면 그저 올라오면 하나씩 하나씩 매면서.)

107043 @ 경 해야 돼는디 잘 몰란.(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107043 #2 호호호,(웃음) 어따 그거도 경험이우다.(호호호,(웃음) 어따 그거도 경험입니다.)

107044 @ 그다음에 쟁마농김치 헤봅디가?(그다음에 달래김치 헤봅디가?)

107044 #2 쟁마농, 쟁마늘김치도 헤봐십주게, 쟁마늘김치양, 쟁마농김치도 아까 저 쟁마농김치 마치 허는 식으로양 그거 그추록 허영 쟁마농김치, 쟁마농김치 익으

민 그것이 제라허게 새콤새콤 맛 좋고, 옛날에 우리 어린 때에 꿩마농김치 할 때엔 꿩마농, 보리왓디 강 꿩마늘 캐영 왕 걸 시청 또 ㄴ쿨 시청 또 소금물에 막 지들랐 당 여름엔 자리물훼에도 그거 앓양 떡곡, 무청도 떡곡 헛수게. 이젠 경 안 행 먹읍니다, 옛날은.(달래, 달래김치도 해봤습지요, 달래김치는요, 달래김치도 아까 저 쪽파김치같이 하는 식으로요 그거 것처럼 해서 쪽파김치, 달래김치는 익으면 그것이 제대로 새콤새콤 맛 좋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쪽파김치 할 때엔 쪽파, 보리밭에 가서 달래 캐어 와서 걸 씻어서 또 깨끗이 씻어서 또 소금물에 마구 지질렀다가 여름엔 자리물훼에도 그거 가져서 먹고, 무쳐도 먹고 했습니다. 이젠 굵게 안 해서 먹읍니다, 옛날은.)

107044 @ 꿩마농 하지 안 허지양? 밧디.(달래 하지 않지요? 밧에.)

107044 #2 하지 안 험니다게, 이젠. 보리 갈양은에 옛날 ㄴ찌 검질이 해야 것도 싣주마는, 이젠 보리 가는 사름이 어디 잇수가게? 꿩마늘도, 꿩마늘, 마늘 싱근 디 예, 진밧<sup>222)</sup>은 하나씩 납니다. 마늘 싱근 밧딘 보리 갈양 꿩마늘 엇업실 겨우다.(하지 않읍니다, 이젠. 보리 갈아서 옛날같이 김이 많아야 그것도 있지만, 이젠 보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달래도, 달래, 마늘 심은 데요, ‘진밧’은 하나씩 납니다. 마늘 심은 밧에는 보리 갈아서 달래 없을 것입니다.)

107044 @ 꿩마늘이엔 험구나.(‘꿩마늘’이라고 하고 있구나.)

107044 #2 예.(예.)

107044 @ 그냥 꿩마농이엔 안 허고.(그냥 ‘꿩마농’이라고 안 하고.)

107044 #2 예, 그거 옛날엔 그처럼 허영 자리물훼에도 낱 떡곡, 무청 먹으면, 향이 좋으난 그거, 이제도 꿩마늘 허여근에 꿩마농김치 ㄴ찌 행 먹으면, 꿩마농김치보다 더 맛 좋읍니다게.(예, 그거 옛날엔 그처럼 해서 자리물훼에도 놔서 먹고, 무쳐서 먹으면, 향이 좋으니까 그거, 이제도 달래 해서 쪽파김치같이 해서 먹으면, 쪽파김치보다 더 맛 좋읍니다.)

107044 @ 그 저 소낭밧 구석에가 잘 나.(그 저 소나무밭 구석에 잘 나.)

107044 #2 소낭밧 구석에, 꽃자왈 내창 닳은 디 잇지 아니허파양?(소나무밭 구석에, 꽃자왈 냇가 같은 데 잇지 않읍니까?)

107044 @ 그 물릇 잘 나는 디.(그 무릇 잘 나는 데.)

107044 #2 예, 예, 그 내창 닳은 디도 나무, 낭 밧테 꽃자왈에 그런 디 보문 복삭허게 낭 이 저 캐러 다니는 사름은 캐당 막 풀암수게, 시장이 강.(예, 예, 그 냇가 같은 데도 나무, 나무 밑에 꽃자왈에 그런 데 보면 뽁뽁하게 나서 이 저 캐러 다니는 사름은 캐다가 마구 팔고 잇어요, 시장에 가서.)

107044 @ 거난에 저 뭐냐 고사리 거끄레 나도 가나신디.(그러니까 저 뭐냐 고사리 꺾으러 나도 갔었는데.)

107044 #2 고사리 거끌 때 합니다.(고사리 꺾을 때 많읍니다.)

107044 @ 예, 예, 고사리 거끌 때 밧 예염에, 밧 예염에덜 줌 잇어.(예, 예, 고

222) ‘진밧’은 돌맹이가 없고 맨흠이 깔려잇는 밧이다.

사리 꺾을 때 밭 옆에, 밭 옆에들 좀 있어.)

107044 @ 그거 큰일 칩이덜 헐 때에 헛거리로 그거양 향으로 낱덜 떡곡, 그거 잘도 향이 존 거 아니우파게?(그거 큰일 집에들 할 때에 헛거리로 그거요 향으로 낱서들 먹고, 그거 잘도 향이 좋은 거 아닙니까?)

107044 @ 김치도 허주만은, 이 저 지지미도 행 먹고.(김치도 하지만은, 이 저 지지미도 해서 먹고.)

107044 #2 예, 그것도 행 떡곡, 이 휘 무칠 때도양, 이 큰일 때에 잔치 때 ㄱ똥 때 그거 농명 무칩니다게.(예, 그것도 해서 먹고, 이 회 무칠 때도요, 이 큰일 때에 잔치 때 같은 때 그거 넣으면서 무칩니다.)

107044 @ 거난 표준어론 이거 달래엔 험주게, 달래.(그러니까 표준어론 이거 달래라고 하지요, 달래.)

107044 #2 예, 달래, 맞수다게, 달래.(예, 달래, 맞습니다, 달래.)

107044 @ 제주도에선 썩마농.(제주도에서는 ‘썩마농’.)

107044 #2 썩마농.(달래.)

107044 @ 예, 썩마농양.(예, 달래요.)

107044 #2 겐디 이젯 아이덜은 썩마농이엔 안 허영 다 달래엔만 험주게.(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썩마농’이라고 안 해서 다 ‘달래’라고만 하고 있어요.)

107044 @ 경 험니다게.(그렇게 합니다.)

107044 #2 우리 세대는 이 썩마농이여, 썩마농이여 해도.(우리 세대는 이 달래여, 달래여 해도.)

107044 @ 게난 나가 이제 여기 온 이유가 제주어를 살리젠 허는 겁주게.(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제주어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요.)

107044 #2 아, 게난 우리 어린 때 시절엔 구덕 창 보리왔디 강 썩마농 캐레 가젠 허영 캐레 강 허고, ㄱ세느멸도 캐당 국 끌렁 떡곡, 경 해낫주.(아,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시절엔 바구니 차서 보리밭에 가서 달래 캐러 가겠다고 해서 캐러 가서 하고, 썩마귀도 캐다가 국 끓여서 먹고, 그렇게 했었지.)

107044 @ ㄱ세느멸마씨.(썩마귀요.)

107044 #2 ㄱ세느멸. 그냥 느멸도 나주만은 ㄱ세느멸이엔 현 건 이파리가 배추 이파피 ㄱ치 까릿까릿, 까릿까릿현 거.(썩마귀. 그냥 나물도 나지만 썩마귀라고 한 건 잎사귀가 배추 잎사귀같이 까슬까슬, 까슬까슬한 거.)

107044 @ 갯느멸인가?(갯인가?)

107044 #2 저 무슨거, 그것 보고 옛날엔 ㄱ세느멸이엔 험니다.(저 무엇, 그것 보고 옛날에 썩마귀라고 합니다.)

107044 @ 아, ㄱ세, 저 수웨.(아, 썩마귀, 저 썩마귀.)

107044 #2 아니, 그거 ㄱ세느멸은양 늣뻘 들어마씨.(아니, 그거 썩마귀는요 무 들어요.)

107044 @ 아.(아.)

107044 #2 늪뻘 흐끔 들민양, 옛날에 뭐 승키가 잇었수가? 그거 해당 쓴쓴헌 거 국 끌리민 경해도 반찬 엇이민 그걸 막 먹어나십주, 우리 어린 때엔.(무 조금 들면 요, 옛날에 푸성귀가 있었습니까? 그거 해다가 쓴쓴한 거 국 끓이면 그래도 반찬 없으면 그걸 마구 먹었습지요, 우리 어릴 때엔.)

107044 @ ㄹ세늬물.(쓱바귀.)

107044 #2 ㄹ세늬멸도 싯고 그냥 드룻늬물도 싯주마는, ㄹ세늬멸도 싯고 드룻늬 멸도 나마씨.(쓱바귀도 있고, 들나물 있지만, 쓱바귀도 있고 들나물도 나요.)

107044 @ 계난 그 썩마농, 봄.(그러니까 그 달래, 봄.)

107044 #2 봄이.(봄에.)

107044 @ 봄에.(봄에.)

107044 #2 예.(예.)

107044 @ 봄에 캐다근에.(봄에 캐다가.)

107044 #2 이월, 삼월 나가민 그거 막 캐레 다닙주.(이월, 삼월 나가면 그거 마 구 캐러 다니지.)

107044 @ 뿌리채 다 시칭 허지양?(뿌리채 다 씻어서 하지요?)

107044 #2 ㄹ세늬멸을 빨리채 해당근에 먹음도 허곡.(쓱바귀를 뿌리채 해다가 먹기도 하고.)

107044 @ 아니, 썩마농?(아니, 달래?)

107044 #2 썩마늘은 뿌리채만 빠지민 종주만은 그 우리 어린 때엔 칼 ㄹ정 강 툅툅 헨 오고 자왈엔 가민 뿌리채.(달래는 뿌리채만 빠지면 좋지만 그 우리 어릴 때 엔 칼 가져 가서 툅툅 해서 오고 덤불엔 가면 뿌리채.)

107044 @ 뽑양, 뿌리채.(뽑아서, 뿌리채.)

107044 #2 예, 뿌리채 빼언.(예, 뿌리채 빼어서.)

107044 @ 뿌리가 좋은 것덜 잇이난양.(뿌리가 좋은 것들 있으니까요.)

107044 #2 사름덜 그거 막 하영 캐당 께 버는 생입디다, 캐레 다니는 어른은.(사람들 그거 아주 많이 캐다가 께 버는 모양입디다, 캐러 다니는 어른은.)

107044 @ 아, 이젠 엇어마씨.(아, 이젠 없어요.)

107044 #2 자왈에덜 막 핫젠 험디다, 자왈에.(덤불에들 아주 많다고 함디다, 덤 불에.)

107044 @ 아이고, 자왈도 이젠.(아이고, 덤불도 이젠.)

107044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44 @ 거 캐레 탕이는 사름 숫자가 할 거우다.(거 캐러 다니는 사람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107044 #2 예.(예.)

107044 @ 썩마농 숫자보단.(달래 숫자보다는.)

107044 #2 저 그거 향이 좋아근에양.(저 그거 향이 좋아서요.)

107044 @ 바당에도 마찬가지. 궤기 나끄는 사람보단, 궤기보단은.(바다에도 마

찬가지. 고기 낚는 사람보다는, 고기보다는.)

107044 #2 사름이 하예. 호호호.(웃음)(사름이 많아요. 호호호.(웃음))

107044 @ 사름이 하, 사름이.(사름이 많아, 사름이.)

107044 #2 맞추다게.(맞습니다.)

107044 @ 계난 이제 평마농도 하우스 제베헬수게. 평마농만 가는 디가 있어.(그러니까 이제 달래도 하우스 재배하고 있습니다. 달래만 가는 데가 있어.)

107044 #2 게고 이 대정더렌 평마농 제베허는 디가 어실 겨우다.(그리고 이 대정으로는 달래 재배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107044 @ 계난 이 저 제주시 쪽더레 하영 험니다게.(그러니까 이 저 제주시 쪽으로 많이 합니다.)

107044 #2 예.(예.)

107044 @ 먹는 사름이 아멩헤도 제주시 쪽이 하나까.(먹는 사름이 아무래도 제주시 쪽이 많으니까.)

107044 #2 땅이 좋으난, 경도 험실 겨우다.(땅이 좋으니까, 그렇게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107044 @ 저 하우스에 뭐 허는 디도 이십디다, 고사리.(저 하우스에 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고사리.)

107044 #2 고사리덜은, 고사리덜은 하영 제베헬수게, 고사리덜은. 고사리덜은 하영 제베헬니다. 이 대정<sup>223)</sup>은 허는 디 엇어도양, 요 저 창천리<sup>224)</sup>레, 창천리레 육짓 분 고사리 제베헤노렌 험니다.(고사리들은, 고사리들은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들은. 고사리들은 많이 재배합니다. 이 대정은 하는 데 없어도요, 요 저 창천리로, 창천리로 육지 분 고사리 재배한다고 합니다.)

107044 @ 제주도 순수헌 사름은 안 허여.(제주도 순수한 사름은 안 해.)

107044 #2 육지 사름덜입주게, 육지 사름덜.(육지 사름들이지요, 육지 사름들.)

107044 @ 육지 사름덜이나 허주.(육지 사름들이나 하지.)

107044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44 @ 거난 평마농도 이제 죽이지 안 허영양, 소금으로.(그러니까 달래도 이제 죽이지 않아서요, 소금으로.)

107044 #2 예, 평마늘도 죽이지 안 허영 그냥 무쳐야 맞습니다게.(예, 달래도 죽이지 않아서 그냥 무쳐야 맛있습니다.)

107044 @ 그냥 무쳐예.(그냥 무쳐서요.)

107044 #2 저 임시 그때그때 허영은 먹젠 허믄.(저 임시 그때그때 해서 먹으려고 하면.)

107044 @ 평마농김치할 때 뭐 뭐 낵 험니까?(달래김치할 때 뭐 뭐 낵서 합니까?)

223) '대정'은 서귀포시 대정읍 전체 지역을 일컫는다.

224) '창천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를 말한다.

107044 #2 꿩마늘김치할 때, 즉시 버무령 먹는 거는 고추장 양념 새콤달콤하게 허영 참기름이나 흐끔 농곡 허영 거기서 확 버무령 그 자리에서 먹고, 김치 담는 거는 우리 패마농김치 담듯이양 액젓 흐끔 농곡 허여근에.(달래김치할 때, 즉시 버무려서 먹는 거는 고추장 양념 새콤달콤하게 해서 참기름이나 조금 넣고 해서 거기서 확 버무려서 그 자리에서 먹고, 김치 담는 거는 우리 쪽파김치 담듯이요 액젓 조금 넣고 해서.)

107044 @ 콤포대사니도 뽕앙 놓니깡?(마늘도 빵아서 넣습니까?)

107044 #2 안 놓니다. 그 저 꿩마늘허고, 그.(안 넣습니다. 그 저 달래하고, 그.)

107044 @ 아, 그 자체가 마농 성분이 잇이난에.(아, 그 자체가 마늘 성분이 잇으니까.)

107044 #2 예, 예. 그런 마늘.(예, 예. 그런 마늘.)

107044 @ 고치가루허고.(고춧가루하고.)

107044 #2 고치가루 놓고.(고춧가루 넣고.)

107044 @ 춤지름허고.(참기름하고.)

107044 #2 춤지름허곡 꽤, 꽤가 잇수다.(참기름하고 참깨, 참깨가 잇습니다.)

107044 @ 꽤.(참깨.)

107044 #2 설탕 약간 농곡 허여근에 경 허영 먹고.(설탕 약간 넣고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107045 @ 갓김치 해봣디게양?(갓김치 해봣디까?)

107045 #2 갓김치는 마찬가지로, 갓김친 죽여근에 그것도 젓국 놔근에 고추가루 농곡, 저 마늘 농곡 허여근에게 무치민 그게 갓김칩주게.(갓김치는 마찬가지로, 갓김치는 죽여서 그것도 젓국 놔서 고춧가루 넣고, 저 마늘 넣고 해서 무치면 그게 갓김치지요.)

107045 @ 이 갓이 드룽느멀이우파?(이 갓이 ‘드룽느멀’ 입니까?)

107045 #2 아니우다. 상추 닳아도예, 이만이 깃디다. 여기 우리 사돈님네 갈아근에 영 현 거 보난, 요정도 길어마씨.(아닙니다. 상추 갈아도요, 이만큼 깃디다. 여기 우리 사돈님네 갈아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요정도 길어요.)

107045 @ 아, 저, 불그룽현 거구나.(아, 저, 불그스름한 거구나.)

107045 #2 예, 불그룽허여근에 육지는 막 갓을 허영 갈양 갓김칠 막 크게 허주만은, 우리 제주도엔양 갓김치 허는 사람 별로 엇입니다.(예, 불그스름해서 육지는 마구 갓을 많이 갈아서 갓김치를 아주 크게 하지만, 우리 제주도엔 갓김치 하는 사람 별로 없습디다.)

107045 @ 이 제주도는 먹는 거에 경 신경 안 쓰주게.(이 제주도는 먹는 거에 그렇게 신경 안 쓰지요.)

107045 #2 예, 우린 이 나도 사돈님네 갈아근에 흐끔 쥬 헨 먹어봣수다만은 똑 상추닳으면서도양 이 키가 막 자랍디다, 그거.(예, 우린 이 나도 사돈님네 갈아서 조금 줘서 해서 먹어봣습디다만 똑 상추 같으면서도요 이 키가 아주 자랍디다, 그

거.)

107045 @ 거난 그디 거 갓김치 동지<sup>225</sup>도 행 먹읍니까?(그러니까 거기 거 갓김치 ‘동지’도 해서 먹읍니까?)

107045 #2 아, 갓김친 동지가 엇입디다.(아, 갓김치는 ‘동지’가 없습디다.)

107045 @ 아, 동지가 엇고.(아, 동지가 없고.)

107045 #2 동지 그자 요 이파리로 해야 과짜 올르는 겁디다게. 동지 사질 아이 헷디다. 게 요정도만 헤가민 다.(‘동지’가 그저 요 잎사귀로 해야 곤게 오르는 겁디다. ‘동지’ 서질 안 합디다. 그래 요정도만 헤가면 다.)

107045 @ 나중에 꽃도 안 꿍니까?(나중에 꽃도 안 꿍니까?)

107045 #2 꽃 필 때까지 안 봐봤수다만은 우리 허여 올 땐 대도 엇이 이파리도 이만이 과짜 올라와십디다.(꽃 필 때까지는 안 봐봤습디다만 우리 해서 올 땐 대도 없이 잎사귀도 이만큼 곤게 올라왔습디다.)

107045 @ 게도 꽃 필거라, 유채ㄹ찌.(그래도 꽃 필 거야, 유채같이.)

107045 #2 아멩헤도, 예, 필 거우다게, 아니 피진 안 허여, 그 꽃이 피어야만 종자를 앓기 때문에, 필 거우다게.(아무래도, 예, 필 것입디다, 아니 피진 안 해, 그 꽃이 피어야만 종자를 앓기 때문에, 필 것입디다.)

107045 @ 모든 이 식물 보니까 꽃을 거의 피여.(모든 이 식물 보니까 꽃을 거의 피여.)

107045 #2 예, 꽃 안 피는 건 종자를 앓힐 수가 엇수다게.(예, 꽃 안 피는 건 종자를 앓힐 수가 없습디다.)

107045 @ 아, 게난 우리가 꽃 안 피는 거 닻아도.(아, 그러니까 우리가 꽃 안 피는 거 같아도.)

107045 #2 다 꿍니다게, 다 피여, 다 피여, 느멸도게 동지 세왕 종자덜 해야만 씨 험수게게.(다 꿍니다, 다 피여, 다 피여, 나물도요 ‘동지’ 세워서 종자들 해야만 씨 하고 있습디다.)

107045 @ 이 저 씨는 잘 안 되는 거 같아마씨, 이 저 제주도 느멸덜은.(이 저 씨는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저 제주도 나물들은.)

107045 #2 겐디 종자 허는 건 나 생각에만 험수다만은 막 하영 익영, 누렁게 익영 허질 아니허고 그 종자는 흐끔 선 때에 헤사 제라헌 종자 되는 생이라마씨.(그런데 종자 하는 건 나 생각에만 하고 있습디다만 아주 많이 익어서, 누렁게 익어서 하질 앓고 그 종잔 조금 선 때에 해야 온전한 종자 되는 모양이에요.)

107045 @ 선 때마씨?(선 때요?)

107045 #2 예.(예.)

107045 @ 나허고 꼭 반대네양.(나하고 꼭 반대네요.)

107045 #2 웨냐른양.(왜냐하면요.)

107045 @ 익어근에 종카부덴.(익어서 좋을까 싶어서.)

---

225) ‘동지’는 배추 따위에서 돌아난 아주 연한 장다리이다.

107045 #2 게 어느 정도 익어도 막 까질 정도로 익히질 안 허영 흐끔 노리통헤 가민 종자를 허는 생입디다. 우리 꽤 가튼 건 막 익어근에 털어져야만 종자가 돼지 안 험수가? 겐디 녹말을 막 털어정, 우린 여기서 종 자허영 막 익혀근에 비영 털영, 또 허영 먹곡, 그냥 녹말로 갈앙 돼지 안 험수가? 제라헌 씨는 경 안 허는 생입디다.(그래 어느 정도 익어도 아주 까질 정도로 익히질 않아서 조금 노르스름해 가면 종자를 하는 모양입디다. 우리 참깨 같은 건 아주 익어서 떨어져야만 종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물을 마구 떨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종자 해서 마구 익혀서 베어서 떨어져서, 또 해서 먹고, 그냥 나물로 갈아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온전한 씨는 그렇게 앓는 모양입디다.)

107045 @ 아, 거난 물웨, 물웨도 막 익혀근에.(아, 그러니까 물외, 물외도 아주 익혀서.)

107045 #2 막 익혀근에.(아주 익혀서.)

107045 @ 해야주게.(해야지요.)

107045 #2 익형 우리 씨 영 허영 썩형, 썩혀근에 시쳐뵤 험수게. 경헌디 물웬 헌디 녹말 종자는 영 온 건 보민 녹말 종자가 쪼글쪼글헌 걸로 뵤은 뵤. 물웨는 막 썩혀야 뵤니다.(익혀서 우리 씨 이렇게 해서 썩혀서, 썩혀서 씻어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외는 하는데 나물 종자는 이렇게 온 건 보면 나물 종자가 쪼글쪼글한 것으로 봐서는 뵤. 물외는 막 썩혀야 뵤니다.)

107045 @ 썩혀근에.(썩혀서.)

107045 #2 경 허영 깨끗허게 시쳐 물리왓당 물웨 험수게, 우리도 경은 험수다 게. 호박도 막 익혀사만, 호박씨.(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렸다가 물외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호박도 아주 익혀야만, 호박씨.)

107045 @ 예, 아니 올린 호박은 과수원에 뽕족뽕족 나십디다게, 그거.(예, 아니 올해는 호박은 과수원에 뽕족뽕족 났습디다, 그거.)

107045 #2 호박 올리 막 잘 으는 해우다.(호박 올해 아주 잘 여는 해입니다.)

107045 @ 아, 거난 그거 사단에 담 예염에 간 싱것주마씨.(아, 그러니까 그거 사다가 담 옆에 가서 심었지요.)

107045 #2 예.(예.)

107045 @ 게난 호박 하나 심은 것에 호박 열세 개 올앗더라고.(그러니까 호박 하나 심은 것에 호박 열세 개 열었더라고.)

107045 #2 거 볍서. 호호호.(웃음)(거 보십시오. 호호호.(웃음))

107045 @ 겐 그거 씨 하나 허젠 험주마씨.(그래서 그거 씨 하나 하려고 하고 있어요.)

107045 #2 호박, 호박은양, 갑, 갑이 짹짹 난 호박이라야 맛십니다게.(호박, 호박은요, 갑, 갑이 짹짹 난 호박이라야 맛있습니다.)

107045 @ 갑이.(갑이.)

107045 #2 저추룩 헌 호박은 갑 신 호박만이 맛이 엇어마씨.(저처럼 한 호박은



갑 있는 호박만큼 맛이 없어요.)

107045 @ 아, 막 갑 잇인 호박도 싣고, 갑.(아, 마구 갑 있는 호박도 있고, 갑.)

107045 #2 갑이 신 거양, 움막움막허게 갑 신 호박이 맛 줍니다.(갑이 있는 거요, 움푹움푹하게 갑 있는 호박이 맛 좋습니다.)

107046 @ 예, 그다음에 세우리김치에 대해영 말해줍서.(예, 그다음에 부추김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46 #2 세우리김친, 난, 세우리김치도 마찬가지로. 그냥 죽이지 아니허영 액젓 농곡 고치가루 농곡, 다시다나 흥끔 농곡, 경 허여근에 세우리김치, 꽤마농김치나 마찬가지로마씨. 죽이고 뒤희고 허지 안 험니다.(부추김치는, 난, 부추김치도 마찬가지로. 그냥 죽이지 않아서 액젓 넣고 고춧가루 넣고, 다시다나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부추김치, 쪽파김치나 마찬가지지요. 죽이고 뒤희고 하지 않습니다.)

107046 @ 이젠 세우리를 부업으로 많이 허는 거 닻아마씨.(이젠 부추를 부업으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107046 #2 예게, 이젠 우리 제주도엔 세우리엔도 허고, 육지 정구지엔도 허고, 부추, 부추엔도 허고.(예, 이젠 우리 제주도엔 ‘세우리’라고도 하고, 육지 ‘정구지’라고도 하고, 부추, 부추라고도 하고.)

107046 @ 그 부추는 표준어마씨.(그 부추는 표준어요.)

107046 #2 우리 제주도는 그자 다 알아듣기 좋게 세우리, 세우리렌 허고.(우리 제주도는 그자 다 알아듣기 좋게 ‘세우리’, ‘세우리’라고 하고.)

107046 @ 경기도에서는 술이엔 험니다, 술.(경기도에서는 ‘술’이라고 합니다, ‘술’.)

107046 #2 아.(아.)

107046 @ 계난 네 가지라, 세우리, 정구지, 술, 부추.(그러니까 네 가지야, ‘세우리’, ‘정구지’, ‘술’, ‘부추’.)

107046 #2 부추. 호호호.(웃음)(부추. 호호호.(웃음))

107046 @ 거난.(그러니까.)

107046 #2 나도 부추엔 허고, 정구지엔 현 건 육지 강 부산 간 살명 그거 배왔주, 제주도에 실 땐 세우리, 세우리만 헛주, 정구지엔 말 들어보질 안 헛수다, 어릴 때. 호호호.(웃음)(나도 부추라고 하고, ‘정구지’라고 한 건 육지 가서 부산 가서 살면서 그거 배웠지, 제주도에 있을 땐 ‘세우리’, ‘세우리’만 헛지, ‘정구지’라고 말 들어보질 않았습디다, 어릴 때. 호호호.(웃음))

107046 @ 나 어릴 때 그 저 이 세우리 막 뵈양 이빨ㄱ치 이 치감에 좋덴 헤근에 이걸로 막 밀어났어.(나 어릴 때 그 저 이 부추 마구 뵈아서 이빨같이 이 치감에 좋다고 해서 이걸로 마구 밀었었어.)

107046 #2 예, 그거 니에 허영은에 막 좋덴도 허고, 그거 많이 먹으면 이 저 무슨거, 충, 배에 옛날엔 그 저 막 그 게우리.(예 그거 이에 해서 아주 좋다고 하고, 그거 많이 먹으면 이 저 무엇, 충, 배에 옛날엔 그 저 마구 그 회충.)

107046 @ 게우리, 게우리.(회충, 회충.)

107046 #2 게우리 닭은 거 이만씩 현 거, 충, 우리 어린 때 충 그런 거 선.(회충 같은 거 니마큼씩 한 거, 충, 우리 어릴 때 충 그런 거 있어서.)

107046 @ 그런 거 서낫주마씨.(그런 거 있었었지요.)

107046 #2 그걸 옛넌 험니다게, 세우리.(그걸 없다고 합니다, 부추.)

107046 @ 성분이, 뭐 잇인 것 닭은게마씨.(성분이, 뭐 있는 것 같아요.)

107046 #2 그걸 많이 먹어마씨.(그걸 많이 먹어요.)

107046 @ 게난 세우리짐끼는 보통 멧 월달에 담아마씨?(그러니까 부추김치는 보통 멧 월에 담아요?)

107046 #2 세우리김치는 아멧해도 게 봄부터 낭 여름 내내 이제 가을까지 막 나지 안 험니까게? 그건.(부추김치는 아무래도 그래 봄부터 나서 여름 내내 이제 가을까지 마구 나지 않습니까? 그건.)

107046 @ 아무 때라도.(아무 때라도.)

107046 #2 아무 때라도 크는 대로 허멍 먹엄십주게. 오랜 못 먹고, 즉시즉시 먹으멍 혼 메칠씩, 메칠씩 해서 거 오래 못 놔둡니다. 멜씩 허부렁.(아무 때라도 크는 대로 하면서 먹고 있습지요. 로래 못 먹고, 즉시즉시 먹으면서 한 며칠씩, 며칠씩 해서 거 오래 못 놔둡니다. 날름 해버려서.)

107046 @ 약허더라고예.(약하더라고요.)

107046 #2 예, 멜씩해가난 그때그때 그날 즉시즉시 버무리멍 먹어야 맛십니다게, 세우리는.(예, 날름해가니까 그때그때 그날 즉시즉시 버무리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부추는.)

107047 @ 거면은 앞에서도 말했주만은, 그 배추김치 담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줍서.(그러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배추김치 담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오.)

107047 #2 배추 캐당, 저 크민 네 도막에 잘르곡, 작으민 두 도막에 짤랑 소금에 절였다근에 그거 건정 물 빠추양 양념허여근에 버무리만 허민게 김칩주게.(배추 캐다가, 저 크면 네 도막에 자르고, 작으면 두 도막에 잘라서 소금에 절였다가 그거 건져서 물 빼어서 양념해서 버무리기만 하면요 김치지요.)

107047 @ 그 옛날 소금으로 허지 안 헤근에 바당물 퍼당 헤낫수가?(그 옛날 소금으로 하지 않아서 바닷물 퍼다가 했었습니까?)

107047 #2 예게, 우리, 난 요 작년 재작년인 바당 늬덜 저 바당 즈꼳디 사는 사람, 바당물로 절이난 간이 딱 웨렌 허난 나도 간 대충 그자 막걸리 통 닭은 걸로 질어당 그거만 푹푹 등그난양 싱그완양 안 웨킵디다게. 게난.(예, 우리, 난 요 작년 재작년엔 바다 남들 저 바다 곁에 사는 사람, 바닷물로 절이니까 간이 딱 뻤다고 하니까 나도 가서 대충 그자 막걸리 통 같은 걸로 길어다가 그거만 푹푹 담그니까 싱겨워서 안 되겠습디다. 그러니까.)

107047 @ 소금 좀 서꺼야지.(소금 좀 섞어야지.)

107047 #2 예, 서꺼야 웰 걸 난 경해도 웬텐 허연, 그 작년 재작년인 맛이 엇언, 너무 싱거우난, 혜신디 난 작년인 소금으로만 헨에 허여사 제라헙디다.(예, 섞어야 웰 걸 난 그래도 된다고 해서, 그 작년 재작년엔 맛이 없어서, 너무 싱거우니까, 했는데 난 작년엔 소금으로만 해서 해야 온전합디다.)

107047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47 #2 난 바닷물에 절연, 그말 들언 헛당, 김치 그 해에 맛엇언 못 먹엇수다, 저 옛날에.(난 바닷물에 절여서, 그말 들어서 했다가, 김치 그 해에 맛없어서 못 먹엇습니다, 저 옛날에.)

107047 @ 거 뭐허든 웰 거우다. 그 저 바닷물에 강은에 돌 지들좌근에.(거 뭐하면 될 것입니다. 그 저 바닷물에 가서 돌 지질러서.)

107047 #2 옛날에 돌 지들좌 막 그 바닷 물이 사는 사람은 헛수게. 경 혜신디 네중에 제라허게 들어보난 바닷물 질어당 다라에 낱 그 노멸 등그멍 소금 야씩야씩 쳐야만 웬텐 헨 걸 난 몰란에 경 혜져십디다.(옛날에 돌 지질러서 마구 그 바다 옆에 사는 사람은 헛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들어보니까 바닷물 길어다가 대야에에 놔서 그 나물 담그면서 소금 조금씩조금씩 쳐야만 된다고 한 걸 난 몰라서 그렇게 해졌습디다.)

107047 @ 늣뻘집긴 마찬가지로 아니우파?(무김치는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107047 #2 늣뻘김치도 마찬가지로마씨.(무김치도 마찬가지로지요.)

107047 @ 우선 그 늣뻘 혜낱.(우선 그 무 혜놔서.)

107047 #2 늣뻘 혜당 썰영, 늣뻘집친 오래 죽이지 말앙, 혼 그자 혼 시간이나 시간 반이나.(무 혜다가 썰어서, 무김치는 오래 죽이지 말고, 한 그저 한 시간이나 시간 반이나.)

107047 @ 그거 절영 잇영.(그거 절여서 씻어서.)

107047 #2 잇어근에 썰영, 그추룩 허여근에 양념은 배추 양념헨 거 버무령.(씻어서 썰어서, 그처럼 해서 양념은 배추 양념한 거 버무리서.)

107047 @ 그레 낱.(그리 놔서.)

107047 #2 예.(예.)

## 젓갈

107048 @ 그다음에 젓갈에 대허영 알아보쿠다양. 젓갈, 젓갈허면은 이 젓갈 종류는 제주도는 경 하지 안 허여마씨.(그다음에 젓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젓갈, 젓갈하면은 그 젓갈 종류는 제주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7048 @ 예, 자리젓허고, 멜젓허고, 자리젓, 멜젓베긴 난 맛보질 아니혜신디. 조기젓 ㄹ튼 것도 여긴 엇이난 담을 수가 엇어마씨.(예, 자리젓하고 멜치젓하고, 자리젓 멜치젓밖에는 난 맛보질 았았는데. 조기젓 같은 것도 여긴 없으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107048 @ 게우젓, 이제는 게우젓덜 담지 안 허우파?(‘게우젓’, 이제는 ‘게우젓’

들 답지 않습니까?)

107048 #2 저 게우젓<sup>226</sup>이엔 허든 저, 전복 똥 아이우꽈? 그것도 해녀덜이나 거기 허는 사름덜이나 지냥으로 헨 게우젓 담갓주, 우리 촌엔양 게우젓이 힘듭니다게.(저 ‘게우젓’이라고 하면 저, 전복 똥 아닙니까? 그것도 해녀들이나 격기 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대로 해서 ‘게우젓’ 담갓지, 우리 촌에는요 ‘게우젓’이 힘듭니다.)

107048 @ 거난 아가미젓은 안 해봣디강?(그러니까 아가미젓은 안 해봣디까?)

107048 #2 아가미젓은 난 안 해봣수다.(아가미젓은 난 안 해봣습니다.)

107048 @ 저 쟁이젓?(저 게젓?)

107048 #2 쟁이젓도 안 해보고, 여긴 바닷가 옆이 아니난 그거 허젠 해도 할 수가 엇입주게.(게젓도 안 해보고, 여긴 바닷가 옆에 아니니까 그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지요.)

107049 @ 게든 자리젓에 대해서 혼번 곶아줍서.(그러면 자리젓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49 #2 예, 자리젓은예, 자리 사당 다라레 비왕 우리 저 옛날엔 짝 두드리는 마께보고 무슨 마께엔 험니까?(예, 자리젓은요, 자리 사다가 대야에 부어서 우리 저 옛날엔 짝 두드리는 방망이 보고 무슨 방망이라고 합니까?)

107049 @ 덩드렁마께<sup>227</sup>(‘덩드렁마께’.)

107049 #2 덩드렁마께, 덩두렁마께보다 흐끔 족은 거 엇어마썸?(‘덩드렁마께’, ‘덩두렁마께’보다 조금 작은 거 없어요?)

107049 @ 거 서답마께.(거 빨랫방망이.)

107049 #2 서답마께 말고 동그스름헌 게 요만한 거 이십니다.(빨랫방망이 말고 동그스름한 게 요만한 거 있습니다.)

107049 @ 다, 다듬이.(다, 다듬이.)

107049 #2 다듬이보단 흐끔 굴거마씨. 그걸로 영 창지 독독독 까주앙 소금, 혼 말이민 소금 대승 혼 돼 딱 놓민양 싱겁도 아이허곡 짜도 아이허곡 막 맛십니다. 난 경 허영 당감수다게.(다듬이보다는 조금 굵어요. 그걸로 이렇게 창자 독독독 까줘서 소금, 한 말이면 소금 대승 한 돼 딱 넣으면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난 그렇게 해서 담고 있습니다.)

107049 @ 그 저 광목 두드리는 마께 닳다. 그건 좀 훑어, 광목 두드리는 거.(그저 광목 두드리는 방망이 같다. 그건 좀 굵어, 광목 두드리는 거.)

107049 #2 예, 요만이 쫄곡, 옛날 짝 두드려난.(예, 요만큼 짧고, 옛날 짝 두드렸으니까.)

107049 @ 아, 게난 저 암반 위에 놔근에.(아, 그러니까 저 안반 위에 놔서.)

107049 #2 암반, 덩드렁<sup>228</sup> 위에 놔 짝 두드리는 마께 잇습니다게.(안반, ‘덩드렁’ 위에 놔서 짝 두드리는 방망이 있습니다.)

226) ‘게우젓’은 전복의 내장으로 만든 것이다.

227)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다.

228) ‘덩드렁’은 표면이 탄탄하고 미끄덩하며 둥글넓적한 돌로 짚 따위를 두드리는 돌판이다.

107049 @ 그 짝게.(그 짝요.)

107049 #2 옛날 돌 우이 낱 그거.(옛날 돌 위에 놔서 그거.)

107049 @ 두드려야 부드럽고 험주마씨.(두드려야 부드럽고 하지요.)

107049 #2 예, 그 마개로 허여근에 독독독 창지 내왕 자리 혼 말이민 소금 혼 웨민예, 자리젓 맛 좋습니다.(예, 그 방망이로 해서 독독독 창자 내워서 자리 한 말 이면 소금 한 되면요, 자리젓 맛 좋습니다.)

107049 @ 아, 거난 누젠가 경 곤긴 험디다. 자리 혼 말에.(아,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하기는 합디다. 자리 한 말에.)

107049 #2 딱 혼 웨.(딱 한 되.)

107049 @ 혼 웨.(한 되.)

107049 #2 예.(예.)

107049 @ 여긴 혼 말이 멧 웨?(여긴 한 말이 멧 되?)

107049 #2 녀 웨가 혼 말 아이우파게?(녀 되가 한 말 아납니까?)

107049 @ 녀 웨가 혼 말.(녀 되가 한 말.)

107049 #2 녀 웨가 혼 말.(녀 되가 한 말.)

107049 @ 대승이 잇고, 소송이 잇지 안 허우파?(대승이 잇고, 소송이 잇지 않습니까?)

107049 #2 소송은 옛날 반 웨들이가 소송이엔 헤십주만은 이젠 옛날, 이젠 쓸 그튼 거 웨도 웨명 푸는 사름 멧 잇수가? 다 떠 가지고 허난 그자 자리 웨로 웬 거.(소승은 옛날 반 되들이가 소송이라고 했습지만 이젠 옛날, 이젠 쌀 같은 거 되 도 되면서 파는 사름 멧 잇습니까? 다 떠 가지고 하니까 그저 자리 되로 된 거.)

107049 @ 아이, 계난 자리 플레 멧기명.(아니, 그러니까 자리 팔러 다니면서.)

107049 #2 예, 웨로 웬 거 그거 혼 말이민 소금 딱 혼 웨. 난 해년마다 그추룩 허명 자리젓 담암수다게.(예, 되로 된 거 그거 한 말이면 소금 딱 한 되, 난 해마다 것처럼 하면서 자리젓 담고 잇습니다.)

107049 @ 이 자리 푸는 사름덜토 이 웨에 담을 때는 확 담아근에.(이 자리 파는 사름들도 이 되에 담을 때는 확 담아서.)

107049 #2 예, 영성허게.(예, 영성하게.)

107049 @ 중간에 막 비게 멧글아불고.(중간에 아주 비게 만들어버리고.)

107049 #2 영성허게.(영성하게.)

107049 @ 이거 막 하영 줍덴 허명 영 담는추룩 허고.(이거 아주 많이 주고 잇다고 하면서 이렇게 담고 잇는 것처럼 하고.)

107049 #2 예, 경 험니다게.(예, 그렇게 합니다.)

107049 @ 장사하는 사름들이 참.(장사하는 사름들이 참.)

107049 #2 예, 멧젓은 자리보단 소금 흐끔 덜 들곡.(예, 멧치젓은 자리보다는 소금 조금 덜 들고.)

107049 @ 거난에 자리젓 이제 소금 놔근에.(그러니까 자리젓 이제 소금 놔서.)

107049 #2 소금 낱.(소금 낱서.)

107049 @ 망데기에?('망데기'에?)

107049 #2 망데기<sup>229</sup>)에 낱 이젠 버랭이덜 안 켜주만은 옛날에 춤 쉬꼭리 앓앙 허는 디덜 잇어신디, 요즘덜은 버랭이덜 잘 안 입니다. 이젠 이추룩 방충망덜 싯꼭 허난 아, 안네 그튼 디 낱 딱허게 광목으로 싸근에 더경 놔두민양 어떠 아니허여마 씨.('망데기'에 낱서 이젠 벌레들 안 피고 있지만 옛날에 참 쉬꼭리 앓아서 하는 데 들 있었는데, 요즘들은 벌레들 잘 안입니다. 이젠 이처럼 방충망들 있고 하니까 아, 안에 같은 데 낱서 딱허게 광목으로 싸서 덮어서 놔두면 어떨지 않아요.)

107049 @ 옛날 닭지 아니헿 프리도 엇고게.(옛날 같지 않아서 파리도 없고요.)

107049 #2 예, 프리도 엇고게. 호호호.(웃음)(예, 파리도 없고요. 호호호.(웃음))

107049 @ 아, 옛날은 우리 어릴 땐 저 밥 우터 프리가 검영이라, 검영.(아, 옛날은 우리 어릴 땐 저 밥 위에 파리가 검어서, 검어서.)

107049 #2 아이고, 경허고 우리 어린 때만 해도 자리젓 강 꺼내레 강 보른 버랭이가 바글바글<sup>230</sup>) 헤낫수다.(아이고,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자리젓 가서 꺼내러 가서 보면 벌레가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107049 @ 아, 그것도 다 영 영 치우멍 먹엇수게.(아, 그것도 다 이렇게 이렇게 치우면서 먹었습니다.)

107049 #2 치우멍 먹어난마씨.(치우면서 먹었었어요.)

107049 @ 먹을 거 엇영 헿 때난.(먹을 거 없어서 할 때니까.)

107049 #2 아이고, 이젠 이제덜은 버랭이 하나 보였당은 먹지도 아이 합니다.(아이고, 이젠 이제들은 벌레 하나 보였다가는 먹지도 안 합니다.)

107049 @ 거난 소금에 따라근에 이 젓갈이 좀 다르덴 합니다.(그러니까 소금에 따라서 이 젓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107049 #2 그건 잘.(그건 잘.)

107049 @ 그 이 소금 하영 놓으면은 췌기가 싱싱허고.(그 이 소금 많이 놓으면은 고기가 싱싱하고.)

107049 #2 예, 경허난 간 맞게 헿수게.(예, 그러니까 간 맞게 하고 있습니다.)

107049 @ 예, 소금이 또 족으면.(예, 소금이 또 적으면.)

107049 #2 이 저 막 카져불고.(이 저 마구 부서져 버리고.)

107049 @ 이 췌기가 다 카져불고마씨.(이 고기가 다 부서져 버리고요.)

107049 #2 카져불고. 경허난양 혼 말에 딱 혼 돼, 물룩허게 혼 돼 놓면 카지지도 아니허꼭 자리젓 헤싸지지도 안 허꼭예 막 알맞게 맛 좋아마썸. 췌디 소금 족영 낫당은 물 돼불꼭, 또 단 내 나꼭 먹질 못합니다게.(부서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한 말에 딱 한 되, 뭉뚝하게 한 되 놓으면 부서지지도 않고 자리젓 헤벌어지지도 않고 아주 알맞게 맛 좋아요. 그런데 소금 적게 놔다가는 물 돼버리고, 단 내 나고 먹질

229) '망데기'는 중두리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용기이다.

230) '바글바글'은 벌레 따위가 아주 많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못합니다.)

107049 @ 그거 썩은 냄새 난양.(그거 썩은 냄새 나세요.)

107049 #2 예, 냄새 낭 먹질 못합니다. 흥끔 게도 소금 쪼끔 해야, 또 내여근에 이거 고기가 쪼금 탄탄해 뵈다 허믈예, 사이다로 확 시청 시쳐뒤근에 양념허민예, 어떠 아니허여마씨.(예, 냄새 나서 먹질 못합니다. 조금 그래도 소금 조금 많아야, 또 내어서 이거 고기가 쪼금 탄탄해 뵈다 하면요, 사이다로 확 씻어서 씻어뒤서 양념하면, 어땡지 앓아요.)

107049 @ 그 자리젓은 몇 월달에 담습니까?(그 자리젓은 몇 월에 담습니까?)

107049 #2 자리젓은예, 오월달에.(자리젓은요, 오월에.)

107049 @ 오월달에 담는구나. 아, 맞아.(오월에 담는구나. 아, 맞아.)

107049 #2 오월달에예.(오월에요.)

107049 @ 저 보리 헐 때.(저 보리 할 때.)

107049 #2 보리 헐 때, 보리 누릿누릿 익어갈 때가 자리가 쥘 살찐 덴 험니다 게.(보리 할 때, 보리 누릿누릿 익어갈 때가 자리가 쥘 살찐다고 합니다.)

107049 @ 예, 보리 헐 때.(예, 보리 할 때.)

107049 #2 예.(예.)

107049 @ 아이, 계난 우리도 좀 웃드른<sup>231</sup>디 저 대포<sup>232</sup>, 대포 근방에서양.(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좀 ‘웃드르’인테 저 대포, 대포 근방에서요.)

107049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49 @ 그 보리 헐 때 돼민 저녁에 이 자리 삼서, 자리 삼서 허멍.(그 보리 할 때 되면 저녁에 이 자리 사십시오, 자리 사십시오 하면서.)

107049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49 @ 막 돌아댕겨마씨.(마구 돌아다니면서.)

107049 #2 자리젓은 오월 보리 누릿누릿헐 때가 제일 살쪄 맛 좋덴 험니다.(자리젓은 오월 보리 누릿누릿할 때가 제일 살쪄서 맛 좋다고 합니다.)

107049 @ 그땐 저 자리 값도 보리로 준 거 닻아.(그땐 저 자리 값도 보리로 준 거 같아.)

107049 #2 경 헤십주게. 보통 자리 혼 돼민 보리 두 뵈 뎡 허던가, 어땡 어땡 헤십주, 이젠 돈 쥘 삼주만은, 옛날엔 돈이 잇엇수가? 보리 쥘 바팡덜예.(그렇게 험습지요. 보통 자리 한 되면 보리 두 되를 달라고 하든가, 어떻게 어떻게 험습지요, 이젠 돈 줘서 사고 잇지만, 옛날엔 돈이 잇엇습니까? 보리 줘서 바뀌서들.)

107049 @ 아, 예.(아, 예.)

107049 #2 그 사름덜은 양식허젠 바파가곡 경 헛수다게. 또 가파도<sup>233</sup> 춤웨 갈 아근에 이레 왕 막 보리 바파가곡, 경 헛수게, 물웨영.(그 사람들은 양식하려고 바뀌가고 그렇게 험습니다. 또 가파도 참외 같아서 이리 와서 마구 보리 바뀌가고, 그

231)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이다.

232) ‘대포’는 서귀포시 대포동을 말한다.

233) ‘가파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이다.

렇게 했습니다, 물외랑.)

107049 @ 아, 찰웨덜이 알아쨌어, 옛날 이 쉼뿔 프리롱헌 찰웨.(아, 찰외들이 알아쨌어, 옛날 이 소뿔 파르스름한 찰외.)

107049 #2 물락물락헌 거 오죽 맛 좋앗수가.(물렁물렁한 거 오죽 맛 좋앗습니까.)

107049 @ 예.(예.)

107049 #2 그거 이제도 씨 잇수다. 모슬포 사름덜 허여근에양 이제도 물락물락 맛 좋아마씨.(그거 이제도 씨 있습니다. 모슬포 사람들 해서 물렁물렁 맛 좋아요.)

107049 @ 우리 동네까지 폴레 와났수다. 그 저 가파도에서.(우리 동네까지 팔러 왔었습니다. 그 저 가파도에서.)

107050 #2 호호호.(웃음) 뿔젓은 이 가을에, 가을 뿔젓이 헤싸지지 아니허영 맛 좋곡, 뿔젓은.(호호호.(웃음) 뿔치젓은 이 가을에, 가을 뿔치젓이 헤벌어지지 앓고 맛 좋고, 뿔치젓은.)

107050 @ 거난 뿔은 언제 하영 듸니까?(그러니까 뿔치는 언제 많이 듸니까?)

107050 #2 이 가을에 하영 듸니다게, 가을에.(이 가을에 많이 듸니다, 가을에.)

107050 @ 이 뿔 한 디가 고등어 많이 들어온텐 험디다예.(이 뿔치 많은 데가 고등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07050 #2 고등어도 하영 들어왓실 겨우다게.(고등어도 많이 들어오고 잇을 것 입니다.)

107050 @ 뿔, 뿔 먹쟁덜 들어온데 허더라고.(뿔치, 뿔치 먹으려고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107050 #2 예, 이 저 모슬포 코로나 걸러부난, 요즘 계속 이제 막 뜰 때우다. 이제 앞으로 계속 뿔 뜰 때우다게.(예, 이 저 모슬포 코로나 걸러버리니까, 요즘 계속 뜰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뿔치 뜰 때입니다.)

107050 @ 계난 뿔도 마찬가지로 닥아, 이 저 소금간을 잘 헤야.(그러니까 뿔치도 마찬가지로 닥아, 이 저 소금간을 잘 헤야.)

107050 #2 저 뿔, 뿔도양 소금간을 잘헤야 헤싸지지 안 허영 그냥 뿔 원체 걸로 싯곡, 소금 죽영 놔볼민 문 카정 물 뿔어근에 그냥 국물로나 먹주, 그 뿔젓으론 못 먹읍니다게.(저 뿔치, 뿔치도요 소금간을 잘헤야 헤벌어지지 앓아서 그냥 뿔치 원체 걸로 잇고, 소금 적게 놔버리면 모두 부서져서 물 되어서 그냥 국물로나 먹지, 그 뿔치젓으로는 못 먹습니다.)

107050 @ 거난 이 소금간이 아주 중요허여.(그러니까 이 소금간이 아주 중요해.)

107050 #2 예, 소금간으로 맛싯곡 맛엇곡. 호호호.(웃음)(예, 소금간으로 맛있고 맛없고. 호호호.(웃음))

107050 @ 사름으로 가는 경우도 잇텐 험디다, 사름으로.(사람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107050 #2 그, 사람, 나 생각엔 사람으로 가는 게 소금간을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거기서.(그, 사람, 나 생각에는 사람으로 가는 게 소금간을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거기서.)

107050 @ 게메, 그거 닳아 베여.(글쎄, 그거 갈아 보여.)

107050 #2 예, 거기서 나오는 거 같으우다.(예, 거기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107050 @ 옛날은 저 이 사람 허면은.(옛날은 저 이 사람 하면은.)

107050 #2 아니, 어떤 사람은 허믄.(아니, 어떤 사람은 하면.)

107050 @ 소금 잘 돼곡.(소금 잘 되고.)

107050 #2 아니, 우리도 간 보민, 자리젓, 여긴 촌이난 이집 저집 놀레 가지 안 험니까게? 놀레 가민 가당 보민 자리젓, 어떤 집인 강 보민 막 소금 죽영 놓는 디도 싯곡, 너무 하영 놓는 디도 싯곡, 경 허여마씨. 호호호.(웃음)(아니, 우리도 간 보민, 자리젓, 여기는 촌이니까 이집 저집 놀러 가지 않습니까? 놀러 가면 가다가 보면 자리젓, 어떤 집에는 가서 보면 아주 소금 적게 넣는 데도 있고, 너무 많이 넣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요. 호호호.(웃음))

107050 @ 게난 소금 어느 정도 허느냐에 따라랑 허는 거라마씨.(그러니까 소금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107050 #2 예, 소금간에서 맛이 싯느냐 엇느냐가 잇는 거 같으우다.(예, 소금간에서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잇는 거 같습니다.)

107050 @ 옛날 저 멜은 여기 저 원담<sup>234</sup>, 원담에.(옛날 저 멸치는 저 ‘원담’, ‘원담’에.)

107050 #2 동일, 동일리<sup>235</sup> 날레<sup>236</sup> 알아집니까?(‘동일리’, ‘동일리’ ‘날레’ 알겠습니까?)

107050 @ 예.(예.)

107050 #2 날레 저 멜을 해 원 안에 들어왕 거려근에 이레 막 폴레 와십주게, 이젠 동일리 경도 아니허고, 이 모슬포 축항에 배로 강 거려다근에 멜 폴레 오지 안 험니다. 거기서 젓덜 담양 육지레 막 나강.(‘날레’ 저 멸치를 거의 ‘원’ 안에 두어 와서 떠서 이리 마구 팔러왔습지요, 이젠 동일리 그렇게도 앓고, 이 모슬포 축항에 배로 가서 떠다가 멸치 팔러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젓들 담아서 육지로 마구 나가서.)

107050 @ 이제는 멜 폴레 오지 안 허는구나예?(이제는 멸치 팔러 오지 않는군요?)

107050 #2 예, 오지 안 험니다, 이젠.(예, 오지 않습니다, 이젠.)

107050 @ 거난 이 원담, 동네마다 원담덜이 잇어마씨.(그러니까 이 ‘원담’, 동네마다 ‘원담’들이 잇어요.)

234) ‘원담’은 해변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원’이라고도 한다.

235) ‘동일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를 말한다.

236) ‘날레’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바닷가 지명 이름이다.

107050 #2 예, 동일리 날레옌 현 디 그디 셔근에.(예, 동일리 ‘날레’라고 하는 데 거기 있어서.)

107050 @ 계난 밀물 썩 들어오면은.(그러니까 밀물 썩 들어오면은.)

107050 #2 ㄴ찌 들어왓구나.(같이 들어오고 있구나.)

107050 @ 예, 그디 왕 원담 안에 잇다근에 물 썩 빠져불민 것덜.(예, 거기 와서 ‘원담’ 안에 있다가 물 썩 빠져 버리면 그것들.)

107050 #2 나가지, 나가지 못허영 거기서 거렴고예.(나가지, 나가지 못해서 거기서 뜨고 있고요.)

107050 @ 예.(예.)

107050 #2 동일리서 나깡 멧 번 갖다 쥬 뵈 헛주, 요즘은 엇는 쟁입디다.(동일리서 낚아서 멧 번 갖다 쥬서 뵈 헛지, 요즘은 엇는 모양입디다.)

107050 @ 이제는, 아, 사름 숫자가 하우다게, 쥬기 숫자보단.(이제는, 아,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고기 숫자보다는.)

107050 #2 경 허난 이제 바당으로 나가근에 배로덜 나깡 모슬포 도르무깡 멧천 개 놔근에 거기서 딱딱 허멍 육지레 막 보낸텐 헛디다.(그렇게 하나까 이제 바다로 나가서 배로들 낚아서 모슬포 드림통 멧천 개 놔서 거기서 딱딱 하면서 육지로 마구 보낸다고 헛디다.)

107050 @ 계난 이 배에서 이 쥬기는 사야 뵈겿테.(그러니까 이 배에서 이 고기는 사야 되겠더라고.)

107050 #2 썩니다게, 아멩허도.(썩니다, 아무래도.)

107050 @ 저번에 그 혼 오월 세 시 정돈가 고등어 배가 들어오더라고, 거난 산 고등어 거기 통이 이십디다게, 담아신디. 그중에 또 죽은 고등어덜이 있어.(저번에 그 한 오월 세 시 정도인가 고등어 배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산 고등어 거기 통이 있습니다, 담았는데. 그중에 또 죽은 고등어들이 있어.)

107050 #2 맞수다.(맞습니다.)

107050 @ 계난 이 죽은 고등어들을양, 옆에 바게쓰에 툽툽 담안게만은 그 바게쓰 하나에 죽은 거 만원, 아, 게네.(그러니까 이 죽은 고등어들을요, 옆에 양동이에 툽툽 담았는데 그 양동이 하나에 죽은 거 만원, 아, 그래서.)

107050 #2 사당 먹는 건 다 죽은 거 사 왕 먹엄십주, 산 거 먹읍니까.(사다가 먹는 건 다 죽은 거 사 와서 먹고 있습지요, 산 거 먹읍니까.)

107050 @ 아, 거난 그거 너무 하영 쥐부니까 사 오질 못허겁디다게.(아,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많이 쥐버리니까 사 오질 못하겿습니다.)

107050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50 @ 그거 바당이서 배 널 줄만 알민 경 헤근에 오민 뵈는디 거 헛 줄은 모르고게, 에이, 내볼라.(그거 바다에서 배 내는 줄만 알면 그렇게 해서 오면 되는데 그거 할 줄은 모르고요, 에이, 내버려라.)

107050 #2 그것도.(그것도.)

107050 @ 한 바게쓰에 만원마썸.(한 양동이에 만원요.)

107050 #2 창지 허영 시들시들 물리왕 튀기면양 고등어가 쥬 맛 좋습니다.(창자 해서 시들시들 말려서 튀기면요 고등어가 쥬 맛좋습니다.)

107050 @ 그렇주마썸.(그렇지요.)

107050 #2 무수 낱 쪼려도 고등어가 최고 맛 좋고.(무 놔서 조려도 고등어가 최고 맛 좋고.)

107050 @ 계란 죽였지만은 산 거, 그 산 거 오단에 죽은 거라마썸.(그러니까 죽였지만 산 거, 그 산 거 오다가 죽은 거지요.)

107050 #2 맞수다게. 고등어췌도 경 맛 좋은 겁디다, 난 고등어.(맞습니다. 고등어회도 그렇게 맛 좋은 겁디다, 난 고등어.)

107051 @ 아, 거난에 그 고등어 젓같은 어땡 담아뵈디가?(아, 그러니까 그 고등어 젓같은 어땡게 담아뵈디까?)

107051 #2 고등어 젓같은 안 담아뵈수다.(고등어 젓같은 안 담아뵈습니다.)

107051 @ 요즘은 줌 담는 모양이라양?(요즘은 줌 담는 모양이지요?)

107051 #2 고등어 젓갈 푸는 디가 엇입니다. 창난젓 ㄹ튼 건 폴아도, 고등어 젓갈 허영 푸는 딴, 갈치 젓갈은 담양 푸는 디 잇어마썸.(고등어 젓갈 파는 데가 없습니다. 창난젓 같은 건 팔아도, 고등어 젓갈 해서 파는 데는, 갈치 젓갈은 담아서 파는 데 잇어요.)

107051 @ 갈치 젓갈은.(갈치 젓갈은.)

107051 #2 예, 갈치젓갈은 저 아가미젓허꼭 그런 거는 담양 폴아도 고등어젓 푸는 딴 엇수다, 엇어.(예, 갈치젓갈은 저 아가미젓하고 그런 거는 담아서 팔아도 고등어젓 파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

107051 @ 이 아가미젓은 무슨 레기로 험니까?(이 아가미젓은 무슨 고기로 합니까?)

107051 #2 아가미젓은양, 그 저 조기덜 잇지양, 조기덜, 조기, 조기, 춤조기 그런 걸로덜 험 담는 썩입니다.(아가미젓은요, 그 저 조기들 잇지요, 조기, 조기, 참조기 그런 것으로들 해서 담는 모양입니다.)

107051 @ 아가미젓은?(아가미젓은?)

107051 #2 예, 예. 그거 허영 창지 내영 딱 험 때 그거 험다근에, 그런 걸로.(예, 예. 그거 해서 창자 내어서 딱 할 때 그거 험다가, 그런 것으로.)

107052 @ 그 쟁이젓은 안 험보고예?(그 쟁이젓은 안 험보고요?)

107052 #2 쟁이젓은 안 험뵈수다. 바다가 셔사 심어당 쟁이젓을 험주. 쟁디 늙은 거 들으난에 쟁이젓은 어땡 허연 험디겐 허난 간장에, 간장에 물에 그레 각양념 놔근에 끌영 그 쟁이 허영 ㄱ클 시청 그릇에 담양 탁 더운 때 비왕 험 놔두민 쟁이젓, 쟁이젓 그췌룩 담양 먹노넨 허는 말은 험디다만은 난 허여보진 안 험수다. 그췌룩 우리 저 큰 계장덜 잇지 아니허우파? 그거 담는 식으로, 양념허여근에 끌영. 그디 각종 양념덜 막 낱 끌영, 대파 ㄹ튼 거, 다마네기 무신거 낱 막 끌영 그자 뜨

신 때에 준준헌 쟁이 강 심어 올 거 아니우짜?(게젯은 안 해봤습니다. 바다가 있어야 잡아다가 게젯을 하지. 그런데 남 말하는 거 들으니까 게젯은 어떻게 해서 합디까 하나까 간장에, 간장에 물에 그리 각 양념 놔서 끓여서 그 게 해서 깨끗이 씻어서 그릇에 담아서 탁 더울 때 부어서 해서 놔두면 게젯, 게젯 것처럼 담아서 먹고 있다고 하는 말은 합디다만 난 해보지는 않았습디다. 것처럼 우리 큰 게장들 있지 않습디니까? 그거 담는 식으로, 양념해서 끓여서. 거기 각종 양념들 마구 놔서 끓여서, 대파 같은 거, 양파 무엇 놔서 마구 끓여서 그거 따듯할 때에 자잘한 게 가서 잡아 올 거 아릅디니까?)

107052 @ 바당쟁이, 바당에 강은에.(바닷게, 바다에 가서.)

107052 #2 예, 심영 왕 그레 탁 놔근에 이제는 옛주만은 여기 강이 다리 아픈 사름덜, 강이 저 가마리<sup>237)</sup>, 가마리레 가민 돌 일리민.(예, 잡아서 와서 그리 탁 놔서 이제는 없지만 여기 게 다리 아픈 사름들, 게 저 가마리, 가마리로 가면 돌 일으키면.)

107052 @ 저 동촌<sup>238)</sup>에마씨?(저 ‘동촌’에요?)

107052 #2 예, 표선<sup>239)</sup>이 가기 전에 가마리엔 현 디 잊지 안 허우짜? 그디 강 허영 담양 떡구렐 헨 험디다만은, 난 거기 저 굽벗은 떼레 가 왓수다만은 강이 잡으렐 안 가봤수다.(예, 표선에 가기 전에 가마리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디니까? 거기 가서 해서 담아서 먹었노라고 해서 합디다만, 난 거기 저 군부 떼러 가 왓습디다만 게 잡으려는 안 가봤습디다.)

107052 @ 이 민물 강이도 젓 답습디니까?(이 민물 게도 젓 답습디니까?)

107052 #2 그건 모르쿠다게. 게도 게난에 답을 거우다. 그거 게 종류니까.(그건 모르겠습디다. 그래도 그러니까 답을 것입디다. 그거 게 종류니까.)

107052 @ 아, 저 우리 동네도 이 생수천<sup>240)</sup> 잇인디 저 쟁이 하낫수다게.(아, 저 우리 동네도 이 ‘생수천’ 잇는데 저 게 많았었습디다.)

107052 #2 예, 그것도 다 담기 마련이우다.(예, 그것도 다 담기 마련입디다.)

107052 @ 장어도 하나고 쟁이도 하나신디, 이젠 전혀 엇어.(장어도 많았었고 게도 많았었는데, 이젠 전혀 없어.)

107052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52 @ 게난 요번에 어떤 사름이 민물 쟁일 잡아 왓텐 허는 거라. 민물 쟁이를 잡아 왓텐 허는 거라양.(그러니까 요번에 어떤 사름이 민물 게를 잡아 왓다고 하는 거야. 민물 게를 잡아 왓다고 하는 거야.)

107052 #2 음.(음.)

107052 @ 게 어디 강 잡아 읍디강? 허난에 저 감산리<sup>241)</sup> 그 저 안덕계곡, 화력

237) ‘가마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마리를 말한다.

238) ‘동촌’은 서귀포시 동쪽에 잇는 마을들을 일컫는데, 여기서는 ‘가마리’를 말한다.

239) ‘표선’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를 말한다.

240) ‘생수천’은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바닷가 쪽으로 흐르는 물이다.

241) ‘감산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를 말한다. 이 마을에 ‘안덕계곡’이 잇다.

발전소 그 바당허고 민물 사이에.(게 어디 가서 잡아 읍디까? 하니까 저 감산리 그 저 안덕계곡, 화력 발전소 그 바다하고 민물 사이에.)

107052 #2 내려가는 디.(내려가는 데.)

107052 @ 예, 강이가 하덴 허더라고, 거기.(예, 게가 많다고 하더라고, 거기.)

107052 #2 저 사름 거기 이십 년 근무허멍 핫덴 험수게.(저 사람 거기 이십 년 근무하면서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107052 @ 하하하.(웃음) 아, 거기 강이 한 모양이라마씨.(하하하.(웃음) 아, 거기 게 많은 모양이지요.)

107052 #22 아.(아.)

107052 #21 엄청 하.(엄청나게 많아.)

107052 #2 엄청 하 해도 흔 번 잡아 와 보지 안 헛수다.(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한 번 잡아 와 보지 않았습디다.)

107053 @ 하하하.(웃음) 아까 저 멸치젓허고 자리젓 만드는 방법 말허긴 헛수다 만은 흔 번 더 자리젓 만드는 방법?(하하하.(웃음) 아까 저 멸치젓하고 만드는 방법 말허기는 헛수다만 한 번 더 자리젓 만드는 방법?)

107053 #2 자리젓, 자리젓은양, 우리 사다근에 촌에 경 하영 사와 집니까, 하영. 옛날에 돈도 엇곡 허든 경 자리 두 말 살 뉘가 엇영 흔 말 사다근에 녁 뉘든 흔 말 입주. 그거 사다 낱 소금 흔 뉘 낱 그 자리 창지 다 영 두드렁 깨영 그 소금 놉근 에 단지에 담양 놉뉘 딱 그자, 자리젓은양 담아근에 두 달이민 먹읍디다, 두 달이민.(자리젓, 자리젓은요, 우리 사다가 촌에 그렇게 많이 사와 집니까, 많이. 옛날에 돈도 없고 하면 그렇게 자리 두 말 살 뉘가 없어서 한 말 사다가 녁 되면 한 말이 지. 그거 사다 놉서 소금 한 되 놉서 그 자리 창자 다 이렇게 두드려서 깨어서 그 소금 놉서 단지에 담아 놉뉘서 딱 그저, 자리젓은요 담아서 두 달이민 먹읍디다, 두 달이민.)

107053 @ 거난 단지에?(그러니까 단지에?)

107053 #2 예, 우리 옛날 망데기<sup>242)</sup> 잇지 아니허파게?(예, 우리 옛날 ‘망데기’ 잇지 않습디까?)

107053 @ 망데기.(‘망데기’.)

107053 #2 그런 거에 담양 헤사 맛 좋넨 허영양. 그런 거에 담으근에 먹어십주. 멸젓은 가을에 담아야 헤싸지지 아니허영 봄 낱 먹곡.(그런 거에 담아서 해야 맛 좋다고 해서요. 그런 거에 담아서 먹었습디지요. 멸치젓은 가을에 담아야 헤벌어지지 않아서 봄 나서 먹고.)

107054 @ 그 옛날 보민 출레<sup>243)</sup>, 반찬을 출레엔 허지 안 헛니까양?(그 옛날 보면 ‘출레’, 반찬을 ‘출레’라고 하지 않습디까?)

107054 #2 예, 예.(예, 예.)

242) ‘망데기’는 중두리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용기이다.

243) ‘출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이다.

107054 @ 무사 출레엔 헛수과?(왜 ‘출레’라고 했습니까?)

107054 #2 나 생각엔 출레엔 현 건 거 찝찝하게 허영 먹는 말로 출레, 출레 현 거 닭아마씨. 옛날엔 이제 닭지 아니허영 튀이든지 고등어도 사오민 묻엇당, 그 저 옛날 우리 콩꼬질에 꽤, 꽤 갈아난 그거에 밥 해당 잉경이영 허민 스몓 그레 막 불체 부뜨곡 허여도 그걸 털멍 찝찝허민게 밥 혼 수까락에 요멘이 허여근에 짜게 먹으난 그것이 출레엔 현 거 닭아마씨게, 기지양?(나 생각엔 ‘출레’라고 한 건 거 찝찝하게 해서 먹는 말로 먹는 말로 ‘출레’, ‘출레’ 한 거 같아요. 옛날엔 이제 닭지 않아서 튀이든지 고등어도 사 오면 묻엇다가, 그 저 옛날 콩각지에 참깨, 참깨 갈앗던 그거에 밥 한 숟가락에 요만큼 해서 잉결불이랑 하면 사몓 그리 마구 재 불고 해서도 그걸 떨면서 찝찝하면 밥 한 숟가락에 요만큼 해서 짜게 먹으니까 그것이 ‘출레’라고 한 거 같아요, 그렇지요?)

107054 @ 짜니까.(짜니까.)

107054 #2 짜니까.(짜니까.)

107054 @ 출레, 거난 이 것갈 이것들이 다 출레 닭아양.(‘출레’, 그러니까 이 것갈 이것들이 다 ‘출레’ 같아요.)

107054 #2 출레 닭아마씨, 옛날. 이제난 삼삼허게 허영 짜민 안 먹엄주만은 옛날엔 그걸 불리와근에 먹쟁 막 소금 기자 간을 막 하영 허영 짜게만 헤십주. 계민 자리 하나민 그 밥 혼 때 먹당 남겟구리.(‘출레’ 같아요, 옛날. 이제니까 삼삼하게 해서 짜면 안 먹고 있지만 옛날엔 그걸 불려서 먹으려고 마구 소금 그저 간을 아주 많이 해서 짜게만 했습지요. 그러면 자리 하나면 그 밥 한 끼니 먹다가 남게끔.)

107054 @ 남앗주, 자리젓 빨아 먹으멍.(남앗지, 자리젓 빨아 먹으면서.)

107054 #2 예, 경허난 그것이 출레엔 현 거 닭아마씨.(예, 그렇게 하니깐 그것이 ‘출레’라고 한 거 같아요.)

107054 @ 짜니까양?(짜니까요?)

107054 #2 짜니까.(짜니까.)

107054 @ 경 현 거 닭아베우다.(그렇게 한 거 같아 보입니다.)

107054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 장아찌와 회

107055 @ 그다음에 장아찌하고 회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장아찌는 저 뭐냐 허면은 지입주게, 지이.(그다음에 장아찌하고 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아찌는 저 뭐냐 하면 ‘지이’지요, 장아찌.)

107055 #2 지이.(장아찌.)

107055 @ 지이.(장아찌.)

107055 #2 느덜.(나물.)

107055 @ 거난에 이 마농지.(그러니까 이 마늘장아찌.)

107055 #2 마늘지.(마늘장아찌.)

107055 @ 마농지하고.(마늘장아찌하고.)

107055 #2 생기리, 생기리지이. 다마네기, 양파, 양파지이.(무말랭이, 무말랭이장아찌. 양파, 양파, 양파장아찌.)

107055 @ 예, 양파 그것도 있고, 그 양에.(예, 양파 그것도 있고, 그 양하.)

107055 #2 양에.(양하.)

107055 @ 양에지도 있고.(양하장아찌도 있고.)

107055 #2 양에지나 다마네기지나 우리 저 마늘지나 양념은 똑ㄴ습니다. 나, 나 허른 간장 허 사발, 물 허 사발, 저 화이트 식초 허 컵, 설탕 그거에 허 컵, 경 허영 놔근에 담으민양 들콤새콤허영 맛 좋습니다게. 우리 그처럼 허영 담양 먹엄수게.(양하장아찌나 양파장아찌나 우리 저 마늘장아찌나 양념은 똑같습니다. 나, 나 하면 간장 한 사발, 물 한 사발, 저 화이트 식초 한컵, 설탕 그거에 한 컵, 그렇게 해서 놔서 담으면 달콤새콤해서 맛 좋습니다. 우리 것처럼 해서 먹고 있어요.)

107055 @ 게난 마농지도 담지양?(그러니까 마늘장아찌도 담지요?)

107055 #2 마늘지도 그처럼 허곡, 다마네기, 양파도 그처럼 담아근에 먹곡.(마늘장아찌도 것처럼 하고, 양파, 양파도 것처럼 담아서 먹고.)

107055 @ 거난 마농지는 이 뭐게, 이 콥대사니.(그러니까 마늘장아찌는 이 뭐요, 이 마늘.)

107055 #2 예게.(예.)

107055 @ 콥대사니 이제 갈았지양?(마늘 이제 갈았지요?)

107055 #2 이제 심엄수게, 이제.(이제 심고 있어요, 이제.)

107055 @ 이제 심으난에 이제.(이제 심으니까 이제.)

107055 #2 그것도양, 스월, 스월.(그것도요, 사월, 사월.)

107055 @ 지 담글 때가 몇 월?(장아찌 담글 때가 몇 월?)

107055 #2 지 담을 땐 스월 허 중순쯤에 매기 전에.(장아찌 담을 땐 사월 한 중순쯤에 매기 전에.)

107055 @ 예, 조금 큰 때.(예, 조금 큰 때.)

107055 #2 예, 옛날 토종 마늘이라고 나옵니다. 저 신도<sup>244</sup>, 게문 그것이 마늘지 담는 것이 맛 좋덴 허영 허 스월 허 초부터 나올 겨우다.(예, 옛날 토종 마늘이라고 나옵니다. 저 신도리, 그러면 그것이 마늘장아찌 담는 것이 맛 좋다고 해서 한 사월 한 초부터 나올 것입니다.)

107055 @ 아, 그거, 그 마농이 좀 틀리더라고.(아, 그거, 그 마늘이 좀 다르더라고.)

107055 #2 예.(예.)

107055 @ 나 저 올렛길 걸으멍.(나 저 올렛길 걸으면서.)

107055 #2 예.(예.)

107055 @ 그 마농, 여기 것덜은, 구역리 것덜은 길쪽길쪽헌 건디.(그 마늘, 여기

244) '신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를 말한다.

것들은, 구역리 것들은 길쭉길쭉 한 것인데.)

107055 #2 예, 몽탕.(예, 몽탕.)

107055 @ 거기는 그 저 뭐냐, 그 뭐엔 허나 태역ㄴ치 길이가.(거기는 그 저 뭐냐, 그 뭐라고 하나 떼같이 길이가.)

107055 #2 ㄴ늘고.(가늘고.)

107055 @ 존즌헙디다게.(자잘합디다.)

107055 #2 예, 예. 비료 하영 놓으난 이젠 훑긴 훑읍니다만 뿌리를 메민양 뿌리가 톨그롱헙니다, 토종은.(예, 예. 비료 많이 놓으니까 이젠 굵긴 굵읍니다만 뿌리를 매면요 뿌리가 톨그스름합니다, 토종은.)

107055 @ 종류가 틀립주게.(종류가 다르지요.)

107055 #2 예, 경허난 그건 몰르지 아니허영 지 담으믄 맛 좋넨 신도서 막 갈앙은에 풀레 나웁니다.(예, 그러니까 그건 무르지 않아서 장아찌 담으면 맛 좋다고 신도리서 마구 갈아서 팔러 나웁니다.)

107055 @ 거난 이 마농지 담을 땀 그 마농 썰영.(그러니까 이 마늘장아찌 담을 땀 그 마늘 썰어서.)

107055 #2 요멘씩 썰영.(요만큼씩 썰어서.)

107055 @ 밀으로양?(밀으로요?)

107055 #2 예.(예.)

107055 @ 밀으로 썰어야 헐 거 아이우파?(밀으로 썰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7055 #2 아니, 우에ㄴ지 다 써는디 이파리 다 다듬아불민 마늘이 요만이 헙니다게. 게른 그거 썰어근에.(아니, 위에까지 다 써는데 잎사귀 다 다듬어버리면 마늘이 요만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썰어서.)

107055 @ 그 이파리는 지 안 담지예?(그 잎사귀는 장아찌 안 담지요?)

107055 #2 안 답읍니다게. 그건 버려볼곡.(안 답읍니다. 그건 버려버리고.)

107055 @ 아.(아.)

107055 #2 그거 그추룩 허영 담앙.(그거 것처럼 해서 담아서.)

107055 @ 그거 허여근에 썰어근에 이제 간장으로 담지양?(그거 해서 썰어서 이제 간장으로 담지요?)

107055 #2 간장이영 물이영.(간장이랑 물이랑.)

107055 @ 우리 저 조선간장은, 집이서 만든 간장은 맛이.(우리 저 조선간장은, 집에서 만든 간장은 맛이.)

107055 #2 아, 이젠 조선간장으로 안 헙니다. 다 푼는 거 헤다근에, 간장에 물에 식초 흐끔 놓곡, 또 설탕 놓곡.(아, 이젠 조선간장으로 안 합니다. 다 파는 거 헤다가, 간장에 물에 식초 조금 넣고, 또 설탕 넣고.)

107055 @ 사이다도 놓니까?(사이다도 넣습니까?)

107055 #2 처음 헐 때덜은 사이다 하나 간장 하나 놓는디, 이제덜은 사이다 놓는 사름도 싯수다만은 이젠 물허고 간장허고 식초허곡, 거기 양념허영 기자 팔팔



끌른 냥 툯 냥 놔두민양 그것이 들콰새콰허멍 맛 줍니다게.(처음 할 때들은 사이다 하나 간장 하나 넣는데, 이제들은 사이다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 물하고 간장하고 식초하고, 거기 양념해서 그저 팔팔 끓는 대로 툯 놔서 놔두면 그것이 달콰새콰하면서 맛 좋습니다.)

107055 @ 거난 우리 나 저 이 어릴 때.(그러니까 우리 나 저 이 어릴 때.)

107055 #2 우리 처음 지 담을 땐 사이다로 했주만은 이제 사이다로 잘 안 합니다.(우리 처음 장아찌 담을 땐 사이다로 했지만 이제 사이다로 잘 안 합니다.)

107055 @ 반찬이 딱 두 개라났수다게. 마농지허고 자리젯 두 개라났는데.(반찬이 딱 두 개였습니다. 마늘장아찌하고 자리젯하고 두 개였었는데.)

107055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55 @ 그 너무 지긋지긋하게 먹엇주마씨.(그 너무 지긋지긋하게 먹엇지요.)

107055 #2 옛날에 우리 아덜덜 고등학교 다닐 땐 제일 맛 존 반찬이 계란 반찬 입주게.(옛날에 우리 아들들 고등학교 다닐 땐 제일 맛 좋은 반찬이 계란 반찬이지요.)

107055 @ 것도 막 불리젠 세우리 막 썰어놔근에 독새기 하나에.(것도 마구 불리려고 부추 마구 썰어놔서 계란 하나에.)

107055 #2 저 우리 아덜 여기선 곤밥 쌍 보내집니까게, 보리밥을 늘 허영 계란이나 하나허곡 허영 영 보내난 우리 아덜, 어머니 곤밥 쌍 간 사람도 잇어, 호호,(웃음) 경 험디다.(저 우리 아들 여기선 흰밥 싸서 보내집니까, 보리밥을 늘 해서 계란이나 하나하고해서 이렇게 보내니까 우리 아들, 어머니 흰밥 싸서 간 사람도 잇어, 호호,(웃음) 그렇게 합니다.)

107055 @ 그다음에 저 그거 해근에 저 그것도 망데기에 담앗당양?(그다음에 저 그거 해서 저 그것도 '망데기'에 담앗다가요?)

107055 #2 저 마늘지마썸, 이제난 무슨 플라스틱 통이여 시난 그레, 옛날엔 똤 나마나 옹기나 망데기에 담앗수다게.(저 마늘장아찌요, 이제니까 무슨 플라스틱 통이여잇으니까 그리, 옛날엔 똤나마나 옹기나 '망데기'에 담앗습니다.)

107055 @ 옹기나 망데기에양. 반치 알아지쿠강? 반치.(옹기나 '망데기'예요. 파초 알겠습니까? 파초.)

107055 #2 반치 알아집니다, 양에 님은 거, 양에, 양에 크게 올라간 거 그거 반치.(파초 알겠습니다. 양하 같은 거, 양하, 양하 크게 올라간 거 그거 파초.)

107055 @ 아, 게난 그거 요즘 말로 허민 저.(아, 그러니까 그거 요즘 말로 하면 저.)

107055 #2 양에, 양에.(양하, 양하.)

107055 @ 아니, 바나나.(아니, 바나나.)

107055 #2 바나나, 그 저 옛날도 그거.(바나나, 그 저 옛날도 그거.)

107055 @ 그 바나나 비슷헌 거.(그 바나나 비슷한 거.)

107055 #2 예, 양에 합니다, 이만이 켱.(예, 양하 합니다, 이만큼 커서.)

107055 @ 이거 해근에 이것도 저.(이거 해서 이것도 저.)

107055 #2 톱으로 썰엉.(톱으로 썰어서.)

107055 @ 예.(예.)

107055 #2 거 양에 그거 맛 좋습니다.(거 양하 그거 맛 좋습니다.)

107055 @ 그거.(그거.)

107055 #2 그건 옛날에 이추록 담지 아니허영 옛날 조선간장에만 담았수게.(그건 옛날에 이처럼 담지 않아서 옛날 조선간장에 담았습니다.)

107055 @ 그거.(그거.)

107055 #2 게문 짹짹하게 맛 좋아마씨, 소왕소왕허고.(그러면 짹짹하게 맛 좋아요, 서벅서벅하교.)

107055 @ 장 안에 담아근에 놔두면은.(장 안에 담아서 놔두면은.)

107055 #2 예, 아이고 우리도 그거 우리 어머니 그거 옛날 우리 어린 때 담안 먹어난디, 게난 그것도 짹짹한 반찬이엔 이젠 그추록 담양 주면 먹도 아이헉디다.(예, 아이고 우리도 그거 우리 어머니 그거 옛날 우리 어릴 때 담아서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짹짹하니까 반찬이라고 이젠 것처럼 담아서 주면 먹도 않습디다.)

107055 @ 그거 저 뭐엔 허느냐 허문양 이 저 표준어로는.(그거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 저 표준어로는.)

107055 #2 반치, 반치.(파초, 파초.)

107055 @ 아이, 저 우리말로는 반친데 반치, 그 표준어로는 파초우다, 파초.(아니, 우리말로는 ‘반치’인데 ‘반치’, 그 표준어로는 파초입니다, 파초.)

107055 #2 아, 우린 판친가 뭐엔 헛수다만.(아, 우린 ‘판치’인가 뭐라고 했습니다만.)

107055 @ 판치? 반치.(‘판치’? ‘반치’.)

107055 #2 반치, 맞수다, 반치.(파초, 맞습니다, 파초.)

107055 @ 거 바나나영 비슷허우다.(거 바나나랑 비슷합니다.)

107055 #2 예, 맞수다게, 이제도 그거 신 집이 멧 집 잇수다.(예, 맞습니다, 이제도 그거 있는 집이 멧 집 있습니다.)

107055 @ 예, 이 저 담 예염에 싱것당 썰어근에.(예, 이 저 담 옆에 심었다가 썰어서.)

107055 #2 예, 이제도양 절간 ㄴ튼 던 가민양 그거 짱아치ㄴ치 담는 데가 잇수다.(예, 이제도요 절 같은 데는 가면요 그거 장아찌같이 담는 데가 있습니다.)

107055 @ 이것도 마농지허고 담는 건 비슷허지 안 허우파?(이것도 마늘장아찌하고 담는 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107055 #2 예게, 똑ㄴ튼니다게. 똑ㄴ튼 뭐 아이우파?(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뭐 아닙니까?)

107055 @ 그다음에 양에지.(그다음에 양하장아찌.)

107055 #2 양에지는 요즘 이거 담을 시기 아니우파?(양하장아찌는 요즘 이거 담을 시기 아닙니까?)

107055 @ 이 저 팔월 추석에 나옵니다게.(이 저 팔월 추석에 나옵니다.)

107055 #2 예, 이제, 이제 담을 거, 양에 그것도양 이 우리 마늘지 담는 식으로 그거 그처럼 담안덜 먹엄수게, 양옛근<sup>245</sup>).(예, 이제, 이제 담을 거, 양하 그것도 이 우리 마늘장아찌 담는 식으로 그거 것처럼 담아서들 먹고 있습니다, ‘양옛근’.)

107055 @ 똑 이거 저 팔월 추석에 탕쉬<sup>246</sup>로도 나오주게.(똑 이거 저 팔월 추석에 ‘탕쉬’로도 나오지요.)

107055 #2 예, 양옛근은양 향이 좋양 맛도 좋아마씨게. 이 연허게 허젠 허믄 그 꽃 피기 전에 허여사 소왕소왕허영 맛 좋곡, 꽃 핀 후젠.(예, ‘양옛근’은요 향이 좋아서 맛도 좋아요. 이 연하게 하려고 하면 그 꽃 피기 전에 해야 서벅서벅해서 맛 좋고, 꽃 핀 후에는.)

107055 @ 꽃 피믄 건 꺾난 거.(꽃 피면 건 끝난 거.)

107055 #2 꽃 핀 후젠 질겨근에 맛 엇입니다.(꽃 핀 후에는 질겨서 맛 없습니 다.)

107055 @ 꽃 피믄 안 뵈주게.(꽃 피면 안 되지요.)

107055 #2 예.(예.)

107055 @ 옛날 그 양에 허면은 초가집 밋테 그 초가 지슬<sup>247</sup>에.(옛날 그 양하 허면은 초가 밑에 그 초가 ‘지슬’에.)

107055 #2 초가집 밋테 그 초가 지슬에.(초가 밑에 그 초가 ‘지슬’에.)

107055 @ 지슬에 해근에.(‘지슬’에 해서.)

107055 #2 막 나근에 스뭇 집집마다, 이젠 양에도 별로 엇어마씨.(마구 나서 사뭇 집집마다, 이젠 양하도 별로 없어요.)

107055 @ 과수원에 해근에, 과수원 담 옆에.(과수원에 해서, 과수원 담 옆에.)

107055 #2 해도양 우리 심언 보난 이젠 검질 하나도 엇게 허젠 제초제 해부난 양, 제초제 허난에 거제 엇어졌수다.(해도요 우리 심어서 보니까 이젠 김 하나도 없 게 하려고 제초제 해버리니까, 제초제 하니까 거의 없어졌습시다.)

107055 @ 엇어전.(없어져서.)

107055 #2 엇입디다.(없습디다.)

107055 @ 옛날 거 촌에 지슬에 행 내불면은.(옛날 거 촌에 ‘지슬’에 해서 내버 리면.)

107055 #2 스뭇 이 저 일로 이만이 텃방해십주, 뵈.(사뭇 이 저 일로 이만큼 무 성했습지요, 뵈.)

107055 @ 베염덜도 잘 살앗수다, 뵈.(뵈들도 잘 살았습시다, 뵈.)

107055 #2 겐디 양에 신 딘 뵈이 잘 엇넨 허는디마씨.(그런테 양하 있는 데는

245) ‘양옛근’은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 이삭이다.

246)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찹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나물이다.

247) ‘지슬’은 여기서 초가 뒤쪽이나 옆 처마 밑에 그늘진 곳을 말한다.

뱀이 잘 없다고 하는데요.)

107055 @ 아, 경 허는가마씨.(아, 그렇게 하는가요.)

107055 #2 예, 양에 신 딴 뱀이 잘 안 간덴 합니다.(예, 양하 있는 데는 뱀이 잘 안 간다고 합니다.)

107055 @ 양에 녀새 때문인가?(양하 녀새 때문인가?)

107055 #2 모르쿠다게, 이 베염은 영, 이젠 뱀도 별로 엇어마씨.(모르겠습니다, 이 뱀은 이렇게, 이젠 뱀도 별로 없어요.)

107055 @ 농약 때문마씨.(농약 때문요.)

107055 #2 이젠양 우리도 여기 집 짓어놓난 뱀이 여기까지 스뵈트 와나신디 이젠 별로 엇어마씨.(이젠 우리 여기 집 지어놓으니까 뱀이 여기까지 사뵈트 왔었는데 이젠 별로 없어요.)

107055 @ 여기 겁난 것이 요 보성<sup>248</sup>)에서 거 우리 아버지가 그 향교에 저 장 이라낫수다게. 계난 그 장이라나신디 그때 무슨 향교에서 무슨 행사 잇던 헐 때, 여기서 버스 내린 저 걸어가는데, 야, 그 물기가 하노난양 베염덜이, 베염 엄청 보이데, 난 징그러워 가지고.(여기 겁난 것이 요 ‘보성리’에서 거 우리 아버지가 그 향교에 저 장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의였었는데 그때 무슨 향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할 때, 여기서 버스 내려서 저 걸어가는데, 야, 그 물기가 많으니까 뱀들이, 뱀 엄청나게 보이는데, 난 징그러워 가지고.)

107055 #2 이젠 베염덜이 별로 엇어마씨.(이젠 뱀들이 별로 없어요.)

107055 @ 농약 때문마씨, 농약. 그다음에 아까 모자반. 이 저 몫, 몫, 몫지도 합니까?(농약 때문요, 농약. 그다음에 아까 모자반. 이 저 모자반, 모자반, 모자반장아찌도 합니까?)

107055 #2 몫지, 몫치, 몫은양, 이젠, 옛날엔 우리 어린 땐 보민 그 장 담으민 몫 해당 물리와당 요 손추먹만씩 저 장 담은 더레 묻엇당 그 몫치 경 허여근에, 오죽 짤 거파게? 경 허영 그거 반찬으로 우리 어린 때도 먹어낫수다.(모자반장아찌, 모자반장아찌, 모자반은요, 이젠, 옛날에 우리 어릴 땐 보면 그 장 담으면 모자반 해다가 말렸다가 요 손주먹만큼씩 저 장 담근 데로 묻엇다가 그 모자반장아찌 그렇게 해서, 오죽 짤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반찬으로 우리 어릴 때도 먹엇었습니다.)

107055 @ 아, 그추룩 해근에 먹어낫구나.(아, 것처럼 해서 먹엇었구나.)

107055 #2 예, 예, 장 담아근에 허민양 바당이 강 몫 해당 물리왕, 바싹 물리왕.(예, 예, 장 담아서 하면요 바다에 가서 모자반 해다가 말려서, 바싹 말려서.)

107055 @ 물리운 거 낱.(말린 거 낱서.)

107055 #2 예, 손추먹만씩 허영 뵈뵈뵈 요만씩 허영 그 저 쉼장 그 쉼미 잇지 안허우파게? 그 알러레 속속속 묻엇당 봄 나민양 그거 하나씩 꺼내멍 게 무신 양념을 무쳤수가? 그냥 썰영 놓민게 그 짠 맛으로양 먹어낫수다게.(예, 손주먹만큼씩 해

248) ‘보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를 말한다.

서 빙빙빙 요만큼씩 해서 그 저 된장 그 케미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로 속속속 묻었다가 봄 나면요 그거 하나씩 꺼내면서 그래 무슨 양념을 무쳤습니까? 그냥 썰어서 놓면요 그 짠 맛으로 먹었었습니다.)

107056 @ 아까 저 마농지, 마농지양, 마농지에 대해서 말해주만은 혼 번 더 마농지 멩그는 법, 혼 번 더 글아줍서.(아까 저 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요, 마늘장아찌에 대해서 말했지만 한 번 더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 한 번 더 말해주십시오.)

107056 #2 마늘지 만드는 건, 이제 우리 이젠 가정이란 흐끔씩 허멍 먹엄주만은, 잔치 댐 허젠 허든 그걸 큰 반찬이엔 그 마늘 사당 아까 아주버니 말허듯이 사이다 혼 빙이민 웨간장도 혼 병, 또 설탕도 그에 따라 수가락으로 멧 개, 식초, 탄 식초 놓민 안웨고 화이트 식초 그거 경 허영 낱 모리, 모리 잔치민 오닐 허민 모린 익어근에 먹어집니다게. 그추룩 허연 먹어낫수다. 큰일 잔치 때엔 막 동네 사름덜이 강 모다강 험주게, 그추룩.(마늘장아찌 만드는 건, 이제 우리 이젠 가정이니까 조금씩 하면서 먹고 있지만, 잔치 때는 하려고 하면 그걸 큰 반찬이라고 그 마는 사다가 아까 아주버니 말하듯이 사이다 한 병이면 외간장도 한 병, 또 설탕도 그에 따라 수가락으로 멧 개, 식초, 탄 식초 넣으면 안 되고 화이트 식초 그거 그렇게 해서 놔서 모레, 모레 잔치면 오늘 하면 모레는 익어서 먹게 됩니다. 그처럼 해서 먹었었습니다. 큰일 잔치 때에는 마구 동네 사람들이 가서 모여가서 하지요, 그처럼.)

107057 @ 그다음에 그 저 휘 종류 있지 안 허우파양?(그다음에 그 저 회 종류 있지 않습니까?)

107057 #2 예.(예.)

107057 @ 휘, 휘.(회, 회.)

107057 #2 휘는 물휘팡? 강휘우팡?(회는 물회입니까? 강회입니까?)

107057 @ 계난 그 저 새끼휘<sup>249</sup>도 있고.(그러니까 그 저 '새끼회' 있고.)

107057 #2 새끼휘는 돼지새끼휘.(‘새끼회’는 ‘돼지새끼회’.)

107057 @ 자리휘도 있고.(자리회도 있고.)

107057 #2 예.(예.)

107057 @ 뭐 한치휘도 있고, 방어휘도 있고 현디, 그 새끼휘는.(뭐 한치회도 있고, 방어회도 있고 한테, 그 '새끼회'는.)

107057 #2 한치휘는.(한치회는.)

107057 @ 저 뭐냐 허면은 그거 닳은데 그 저 돼지 새끼.(저 뭐냐 하면은 그거 같은데 그저 돼지 새끼.)

107057 #2 예.(예.)

107057 @ 새끼봇 안네 잇는 것을 가정은에.(태 안에 잇는 것을 가져서.)

107057 #2 예, 예, 그거. 그거 허든 막 이젠, 옛날 저 모슬포 저 마늘 그는 디강 싹 글아당 행 먹읍디만은 옛날엔 그런 것이 엇어부난에 그거 칼로 막 난도질 허영, 난도질 허영 거기 계란 노린자도 멧 개 놓곡 베도 썰어 놓곡, 또 김도 귀근에

249) '새끼휘'는 돼지를 잡았을 때 태 안에 잇는 새끼를 잘게 다져 갖은 양념을 넣어 만든 물회이다.

농곡, 꽤마농, 아까 꽤마농도 그레 막 썰어 농곡 매운 고추도 흐끔 썰어 농곡, 고치 가루 농곡, 참기름 농곡 식초 농곡, 경허믄 것도 맛 줍니다게.(예, 예, 그거. 그거 하면 마구 이젠, 옛날 저 모슬포 저 마늘 가는 데 가서 싹 갈아다가 해서 먹습디다만 옛날엔 그런 것이 없어버리니까 그거 칼로 마구 난도질해서 거기 계란 노른자도 몇 개 넣고 배도 썰어 넣고, 또 김도 구워 넣고, 쪽파, 아까 쪽파도 그리 마구 썰어 넣고 매운 고추도 조금 썰어 넣고, 고춧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식초 넣고, 그러면 그것도 맛 좋습니다.)

107057 @ 아.(아.)

107057 #2 그 큰 잔치할 때 가민 새끼 벤 도새긴 그거 허영 허곡, 또 준베설 막 ㅋ쿨 시쳐낱 ㄹ찌 허영 혼 사발씩 먹읍니다게. 게믄 어뜬 사람은 혼 사발 더 드렌 허명양 그거 그처럼 허믄 시원하게 맛 좋은 생입디다게, 경덜 잘 먹영.(그 큰 잔치할 때 가면 새끼 벤 돼지는 그거 해서 하고, 또 작은창자 아주 깨끗이 씻어놔서 같이 해서 한 사발씩 먹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사발 더 달라고 하면서요 그거 것처럼 하면 것처럼 하면 시원하게 맛 좋은 모양입디다, 그렇게들 잘 먹어서.)

107057 @ 나도 이거 먹어봤수다만은.(나도 이거 먹어봤습디다만.)

107057 #2 그처럼 허믄 맛 좋아마씨.(그처럼 하면 맛 좋아요.)

107057 @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저 터미널 뒤에 합니다게, 터미널 뒤에.(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저 터미널 뒤에 합니다, 터미널 뒤에.)

107057 #2 아.(아.)

107057 @ 나가 겨우 사드려신디, 그거 잘 먹어마씨.(내가 겨우 사드렸는데, 그거 잘 먹어요.)

107057 #2 그거양, 노린, 계란, 저 계란 노린자 농곡, 미나리 시민 미나리도 흐끔 썰어 농곡, 그 쪽파 막 썰어 농곡 참기름 농곡, 베라도 흐끔 썰어 농곡, 김 꺾막 해 농곡 허민양 경 맛 좋은구라덜 잘 먹어마씨, 준베설이영 서터노민 혼 다라헤노민 뭐 그 시간에 잊어져뵙니다, 것도.(그거요, 노란, 계란, 저 계란 노른자 넣고, 미나리 있으면 미나리도 조금 썰어 넣고, 그 쪽파 마구 썰러 넣고 참기름 넣고, 베라도 조금 썰어 넣고, 김 구워서 마구 해 넣고 하면요 그렇게 맛 좋았는지 잘 먹어요, 작은창자랑 섞어서 한 대야 해 놓으면 뭐 그 시간에 잊어져 버립니다, 것도.)

107057 @ 하하하.(웃음) 자리회에 대헤영 곱아줍서.(하하하.(웃음) 자리회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57 #2 자리회는 사다근에 비닐 ㅋ쿨 거슬리고 읍 가시 다 잘르곡, 쫘지 다 잘르곡 허영 그 쫘을 잘 썰영 해야마씨. 뼈를 조금씩 조금씩 허게 잘 썰영 압주로 기 썰영 고추장 반, 웬장 반 서경 거기 마늘도 다져 농곡, 미나리도 농곡, 오이도 농곡, 베도 썰어 농곡 허영은에 식초 넣고 참기름이 들어가야 아다루 안 헌덴 허영 그처럼 아까 그 식으로 허민양 것도 맛 줍니다게, 시원이. 그처럼 허연 우리 먹어십주.(자리회는 사다가 비닐 깨끗이 거스르고 옆 가시 다 자르고, 꼬리 다 자르고 그 썬는 것을 잘 썰어서 해야. 뼈를 조금씩 조금씩 하게 잘 썰어서 알브스름하게 썰

어서 고추장 반, 된장 반 섞어서 거기 마늘도 다져 넣고, 미나리도 넣고, 오이도 넣고, 배도 썰어 넣고 해서 식초 넣고 참기름 들어가야 체 안 한다고 해서 것처럼 아까 그 식으로 하면요 것도 맛 좋습니다, 시원히. 것처럼 해서 우리 먹었습지요.)

107057 @ 나도 촌에 밧디 갓당 막 더우면은 이 볼목리<sup>250</sup>.(나도 촌에 밧에 갔다가 아주 더우면은 이 보목리.)

107057 #2 거기도 자리 나는 디우다.(거기도 자리 나는 데입니다.)

107057 @ 이 해녀의 집 잘허여.(이 해녀의 집 잘해.)

107057 #2 아.(아.)

107057 @ 거기는양 혼 사발씩 주지 안 허고, 이 낭퐁이에 영.(거기에는요 한 사발씩 주지 았고, 양퐁에 이렇게.)

107057 #2 여러 개 낳 떠 먹게끔양.(여러 개 놔서 떠 먹게끔요.)

107057 @ 거난 거기가 자리가 막 연합디다.(그러니까 거기가 자리가 아주 연합디다.)

107057 #2 켜 저, 가을엔 볼목리벧긴 자리 안 나난, 가시가 죽은덴 허영, 자리젓 허는 사람은 거기 꺼만 허는디, 우리 이 모슬포 사람덜은.(그래서 저, 가을엔 보목리밖에 자리 안 나니까, 가시가 작다고 해서, 자리젓 하는 사람은 거기 꺼만 하는 데, 우리 이 모슬포 사람들은.)

107057 @ 여긴 좀 췌어.(여긴 좀 세어.)

107057 #2 췌어도양, 거기 자리젓 안 허영 여기 가과도 것이 맛 좋넌 허멍 훑은 걸로만 험니다게. 우린 이만씩 험 걸로만 험수게.(세어도요, 거기 자리젓 았아서 여기 가과도 것이 맛 좋다고 하면서 굶은 걸로만 합니다. 우린 이만씩 한 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107057 @ 자기 지방이 좀.(자기 지방이 좀.)

107057 #2 자리는.(자리는.)

107057 @ 피알허는 겁주.(자랑하는 거지.)

107057 #2 예, 그추록 허영 먹읍니다. 물웁 그추록 허영 떡곡, 또 아까 허는 식으로 무시거 한치도, 한치물웁도 마찬가지로, 자리물웁도 마찬가지로, 양념은 똑ㄸ튼 양념이니까 기자 식초 놓곡, 참기름은, 또 웁만큼은 참기름이 들어가야 아다루 안 타근에.(예, 것처럼 해서 먹읍니다. 물회는 것처럼 해서 먹고, 또 아까 하는 식으로 무엇 한치도, 한치물회는 마찬가지로, 자리물회는 마찬가지로. 양념은 똑같은 양념이니까 그저 식초 넣고, 참기름은, 또 회만큼은 참기름이 들어가야 체 안 타서.)

107057 @ 저 뼈를 삭이는 거.(저 뼈를 삭이는 거.)

107057 #2 예, 어떻사 허는지 아다루 안 친덴 허영 꼭 참기름을 놔근에.(예, 어떻게야 하는지 체 안 친다고 해서 꼭 참기름을 놔서.)

107057 @ 모든 웁는 반드시 참기름은 들어가.(모든 회는 반드시 참기름은 들어가.)

250) '볼목리는' 서귀포시 보목리를 말한다.

107057 #2 예, 경 허근에 우리 시아주버니네가 유월 초하룻날 제사난양, 친족덜이 우리 많읍니다게, 자리물웬 헐 땐 꼭 우리 동세덜 나신더레만 허렌 허영 그추룩 허민 스뭇 자리물웬덜 맛 좋양양, 계난 이 양념을 잘허고, 자리물웬 싱거우민 맛이 어십니다, 자리물웬만큼은 간을 잘 맞아야.(예, 그렇게 해서 우리 시아주버니네가 유월 초하룻날 제사니까, 친족들이 우리 많읍니다, 자리물회 할 땐 꼭 우리 동서들 나에게만 하라고 해서 것처럼 하면 사뭇 자리물회들 맛 좋아서요, 그러니까 이 양념을 잘하고, 자리물회는 싱거우면 맛이 없읍니다, 자리물회만큼은 간을 잘 맞아야.)

107057 @ 웬장이 좋아야 돼고.(된장이 좋아야 되고.)

107057 #2 웬장허곡 고추장허곡 반반 서꺼야, 웬장만 놔도 어떻 미미허난 웬장 반 고추장 반 서꺼야 색도 곱곡 맛도 좋고. 호호호.(웃음)(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반반 섞어야, 된장만 놔도 어떻게 미미하니까 된장 반 고추장 반 섞어야 맛도 좋고. 호호호.(웃음))

107057 @ 맞수다게. 아, 나, 이 찹지름 나와가민 어머니 생각이 나.(맞읍니다. 아, 나, 이 찹지름 나와가면 어머니 생각이 나.)

107057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57 @ 옛날 살아계실 때는 일을 엄청 헛주마씨. 거면은 꽤를 혼두 밧 정도 같아.(옛날 살아계실 때는 일을 엄청나게 했지요. 그러면은 찹개를 한두 밧 정도 같아.)

107057 #2 맞수다게.(맞읍니다.)

107057 @ 경 행 이걸 다 털영 돌이왓당, 찹지름 빠근에.(그렇게 해서 이걸 다 떨어져서 말렸다가, 찹지름 빼서.)

107057 #2 아기덜신디 돈 보내고.(아가들에게 모두 보내고.)

107057 @ 아이덜신디 이거 두 뉘씩 다 가.(아이들에게 이거 두 되씩 다 가.)

107057 #2 맞수다게. 경 헤십주.(맞읍니다. 그렇게 했습지요.)

107057 @ 아, 건디 딱 돌아가난 찹지름 구경도 못허고. 아, 그때는 먹는 거는 걱정 안 헤낫주마씨.(아, 그런데 딱 돌아가니까 찹지름 구경도 못하고. 아, 그때는 먹는 거는 걱정 안 했었지요.)

107057 #2 맞수다게.(맞읍니다.)

107057 @ 그거 허영 자식덜 헤 주젠.(그거 해서 자식들 헤 주려고.)

107057 #2 나도 꽤 안 웰 땐 상이라도 아기덜 기름 빠멍 다 줘수게.(나도 찹개 안 될 때는 사서라도 기름 빼면서 다 주고 있어요.)

107057 @ 계난마씨.(그러니까요.)

107057 #2 젠 부모난.(그래서 부모니까.)

107057 @ 부모의 정이 바로 그런 거 잇인 거 같애.(부모의 정이 바로 그런 거 잇는 거 같아.)

107057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58 @ 이 계절에 따라 반찬덜이 틀리지 안 헉니까예?(이 계절에 따라 반찬  
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107058 #2 틀립주게.(다르지요.)

107058 @ 게난 봄에는 어떤 반찬덜 행 먹습니까? 봄에.(그러니까 봄에는 어떤  
반찬들 해서 먹습니까? 봄에.)

107058 #2 아까 아주버니 말했주만은, 봄에는 마늘지 행 낫당 지 주로 먹곡, 봄  
엔 별로 이 저 무슨저 채소가 별로 엇입니다게. 경허민 고사리 꺼경 놔뒀당도 솥양  
허영 먹곡.(아까 아주버니 말했지만, 봄에는 마늘장아찌 해서 뵈다가 장아찌 주로  
먹고, 봄에는 별로 이 저 무엇 채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고사리 꺾어서 놔뒀다  
가도 삶아서 해서 먹고.)

107058 @ 고사리 반찬으로예.(고사리 반찬으로요.)

107058 #2 예, 마늘지도 허영 낫당 먹곡.(예, 마늘장아찌도 해서 뵈다가 먹고.)

107058 @ 바당에 잇인 거?(바다에 잇는 거?)

107058 #2 바당에 잇인 건 멜도 물리왓당 행 먹곡.(바다에 잇는 건 멸치도 말렸  
다가 해서 먹고.)

107058 @ 멜 물리왕은에 반찬으로.(멸치 말려서 반찬으로.)

107058 #2 고등어도 지정은에게, 지정 먹곡. 고등어도 해당 물리왓당 행 먹곡게,  
튀기명도 먹곡, 경 꼭 시세에 따라 해 먹어집니까. 아무 거라도 닥치는 양 행 먹업  
주.(고등어도 지져서요, 지져서 먹고. 고등어도 해다가 말렸다가 해서 먹고요, 튀기  
면서도 먹고, 그렇게 꼭 시세에 따라 해 먹게 됩니까. 아무 거라도 닥치는 대로 해  
먹고 잇지.)

107058 @ 여름에는 보통 뭘 행 먹어마씨?(여름에는 보통 뭘 해서 먹어요?)

107058 #2 우린 여름에 웬장 양념 잘 헛당양 물웨 갈앙 물웨 냉국 주로 행 먹  
어집니다.(우리 여름에 된장 양념 잘 헛다가요 물외 갈아서 물외 냉국 주로 해서 먹  
게 됩니다.)

107058 @ 물웨.(물외.)

107058 #2 또 우미 솥아근에 우미 행 먹어지곡, 여름엔 뭘 고기반찬이 필요 엇  
어마씨. 그거 허여근에 웬장에.(또 우뭇가사리 삶아서 우뭇가사리 해서 먹게 되고,  
여름엔 뭘 고기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거 해서 된장에.)

107058 @ 고치도 찍영 먹고. (고추도 찍어서 먹고.)

107058 #2 고치도 찍영 먹곡, 그거 주로 험십주게.(고추도 찍어서 먹고, 그거 주  
로 하고 잇습지요.)

107058 @ 가을에는 어떻?(가을에는 어떻게?)

107058 #2 가을은 이제 현재가 가을 아이우파? 이때가양 승키가 제일 어렵수다  
게.(가을은 이제 현재가 가을 아닙니까? 이때가 푸성귀가 제일 어렵습니다.)

107058 @ 호박, 호박 무청 먹고.(호박, 호박 무쳐서 먹고.)

107058 #2 호박, 호박도양 하도 먹어노난양, 이젠 먹구정, 질련, 먹구정 아녕,

요새엔 난, 우리 하르방<sup>251</sup>)은 국 옛이민 밥 안 먹으난 아까 말따나 애호박 집인 옛  
어도 요만한 호박 사다 낫다근에 똥장찌개처럼 흐끔 두부나 사당 낫다근에 그거 찌  
게허멍 흐끔씩 안냄수다게. 승키가 요새 어려완, 느멸은 이제 갈안 요만이 느멸 옛  
날 그자 무씨 뽕 때는 스끄명도 먹어신디 요즘은 거 하나씩 하나씩 싱거노난, 이제  
요만이 커노난 뽑아불민 뉘 허카부텐.(호박, 호박도요 하도 먹어놓으니까, 이제 먹  
으려고, 질려서, 먹으려고 안 해서, 요새엔 난, 우리 ‘하르방’은 국 없으면 밥 안 먹  
으니까 아까 말처럼 애호박 집에는 없어도 요만한 호박 사다 낫다가 똥장찌개처럼  
조금 두부나 사다가 낫다가 그거 찌개하면서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푸성귀가  
요즘은 어려워져서, 나물은 이제 갈아서 요만큼 나물 옛날 그거 무 씨앗을 뿌릴 때는  
숙으면서 먹었는데 요즘은 거 하나씩 하나씩 심어 놓으니까, 이제 요만큼 커 놓으  
니까 뽑아버리면 뉘 할까 싶어서.)

107058 @ 우럭조림은 행 안 먹습니까?(우럭조림은 해서 안 먹습니까?)

107058 #2 무사 우럭도게.(왜 우럭도.)

107058 @ 우럭, 가을에?(우럭, 가을에?)

107058 #2 예게, 우럭조림 허여근에.(예, 우럭조림 해서.)

107058 @ 그다음, 그다음은?(그다음, 그다음은?)

107058 #2 우럭도 조림허영 먹곡, 갈치도 요즘게.(우럭도 조림해서 먹고, 갈치도  
요즘요.)

107058 @ 아, 갈치도.(아, 갈치도.)

107058 #2 갈치도 행 먹곡, 고기덜 요새엔 막 핫수다게, 감만 허민. 우럭이 제일  
초추헌 게 맛이 좋습니다.(갈치도 해서 먹고, 고기들 요새엔 아주 많습니다, 가기만  
하면, 우럭이 제일 깨끗한 게 맛이 좋습니다.)

107058 @ 우럭양.(우럭요.)

107058 #2 제일 초추허게 맛 좋아마씨.(제일 깨끗하게 맛 좋아요.)

107058 @ 뼈가 하, 뼈가.(뼈가 많아, 뼈가.)

107058 #2 뼈가 하도 빨아먹는 뭐가양 맛 좋아마씨.(뼈가 많아도 빨아먹는 뭐가  
요 맛 좋아요.)

107058 @ 대가리, 대가리 부분은 먹을 것이 없어.(대가리, 대가리 부분은 먹을  
것이 없어.)

107058 #2 예, 게도 그것이 제일 찰고기 아이우파?(예, 그래도 그것이 제일 찰  
고기 아닙니까?)

107058 @ 그다음 겨울에는 겨울엔 호박국 하영 행 먹고, 아이 저 뭐?(그다음  
겨울에는 겨울엔 호박국 많이 해서 먹고, 아니 저 뭐?)

107058 #2 겨울에는 무수 낵 무수국도 행 먹고, 또.(겨울에는 무 낵서 못국도  
해서 먹고, 또.)

107058 @ 거 뭐냐. 콩국, 콩국.(거 뭐냐. 콩국, 콩국.)

---

251)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07058 #2 콩국도 행 먹고, 녹말이영, 겨울나민 승키가 뭐 밧디 갈아노난 비삭 협주게. 무수도 하고.(콩국도 해서 먹고, 나물이랑, 겨울나면 푸성귀가 뭐 밧에 갈아 놓으니까 아주 많지요. 무도 많고.)

107058 @ 아, 겨울에 하마씨.(아, 겨울에 많아요.)

107058 #2 예게, 이제 녹말 같지 아이헛수가? 그거 봄 나도록 먹엄수게. 그뎨 녹말 허영 데평 초장 해영도 먹곡, 콩국도 끌영 먹곡, 뭐 겨울엔 그냥 녹말이 막 썬 엿수다, 썬여서.(예, 이제 나물 같지 았았습니까? 그거 봄 나도록 먹고 있어요. 그뎨 나물 해서 데쳐서 초장 해서도 먹고, 콩국도 끓여서 먹고, 뭐 겨울엔 그냥 나물이 마구 썬였습니다, 썬였어.)

107058 @ 그다음 겨울에는 바당에 가근에 무신거.(그다음 겨울에는 바다에 가서 무엇.)

107058 #2 여기 바당 잇수가, 바당 엿주.(여기 바다 있습니까, 바다 없지.)

107058 @ 아, 엿어도 어디 모슬포 쪽이나.(아, 엿어도 모슬포 쪽이나.)

107058 #2 모슬포 쪽에 가민 저 구제기 흐끔, 보름 물지 가민 촌사름은 구제긴 못 잡아도 보말은 잡아당 먹읍니다게.(모슬포 쪽에 가면 저 소라 조금 보름 무수기 가면 촌사름은 소라는 못 잡아도 고등은 잡아다가 먹읍니다.)

107058 @ 겨울에마씨?(겨울에요?).

107058 #2 예.(예.)

107058 @ 아, 겨울에.(아, 겨울에.)

107058 #2 이젠 잡게 험수강? 해녀덜이 하도 아가리 질렁.(이젠 잡게 하고 있습니까? 해녀들이 하도 입 질러.)

107058 @ 아, 거난마씨.(아, 그러니깐요.)

107058 #2 아이고, 독허연양 하도 경허난 더러왕 가지덜토 안 험니다. 호호.(웃음)(아이고, 독해서요 하도 그러니까 더러워서 가지들도 안 합니다. 호호.(웃음))

107058 @ 나도 저 하귀<sup>252</sup>)에서 혼 번 바다에 갓단 아이 거 멀리서 다울리난 와불엇주.(나도 저 '하귀'에서 한 번 바다에 갔다가 아니 거 멀리서 내쫓으니까 와 버렸지.)

107058 #2 아이고.(아이고.)

107058 @ 나중에 허면 저 선생 허는 사름이 완에.(나중에 하면 저 선생 하는 사람이 와서.)

107058 #2 아가리질허멍, 입이, 입이 녹실게 행.(입질하면서, 입이 날카롭게 해서.)

107058 @ 보말 잡아불엇텐 허믄.(고등 잡아 버렸다고 하면.)

107058 #2 겨울엔, 우리 집잇사름<sup>253</sup>)은 겨울엔 빼가 막 씹니다게, 농업 단지 웨 지 빼, 등빼 ㄱ든 거 사른 그거 만 원어치 사른 막 하영 쥐마씨, 그거 막 딸렁 고사

252)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를 말한다.

253) '집잇사름'은 집의 사람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집잇아방'이라고도 한다.

리 삶양 낫당 육개장 흐끔씩 흐끔씩 허명양, 육개장 끌영양 해 먹어집니다.(겨울엔, 우리 ‘집잇사름’은 겨울엔 뼈가 아주 씹니다. 농업 단지 돼지 뼈, 등뼈 같은 거 사면 그거 만 원어치 사면 아주 많이 줘요, 그거 마구 달여서 고사리 삶아서 냐다가 육개장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육개장 끓여서 거의 먹게 됩니다.)

107058 @ 육개장, 겨울에양.(육개장, 겨울에요.)

107058 #2 예, 그거 제일 줍니다. 겨울엔양 미나리덜도 좋곡양, 허민양.(예, 그거 제일 좋습니다. 겨울엔 미나리들도 좋고요, 하면요.)

107058 @ 미나리 허는 디 어디 잇수가?(미나리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107058 #2 아, 게, 사단 먹엄십주, 허는 디는 엇입니다.(아, 그래, 사다가 먹고 있습지요, 하는 데는 없습디다.)

107058 @ 아, 게, 옛날 여기 물통도 잇언게, 밋테 내려가다 보난.(아, 그래, 옛날 여기 물통도 있었는데, 밋테 내려가다 보니까.)

107058 #2 싯평<sup>254</sup> 논이 한, 막 하난디양, 겨울엔, 봄 나가민 셔도 겨울엔 엇어 마씨.(‘싯평’ 논이 많아서, 아주 많은데요, 겨울엔, 봄 나가면 엇어도 겨울엔 없어요.)

107058 @ 엇어?(없어?)

107058 #2 예. 사다근에 허영, 우린 우리 집잇아방 이 국 엇이 밥 안 먹는 따문 그거 허영 먹어집니다게.(예. 사다가 해서, 우린 우리 ‘집잇아방’ 이 국 없이 밥 안 먹는 따문 그거 해서 먹게 됩니다.)

## 장 담그기

107059 @ 장 담그는, 장은 언제 담그는 거우파?(장 담그는, 장은 언제 담그는 것입니까)

107059 #2 장은예, 동짓달에 메주 삶양, 퇴왕.(장은요, 동짓달에 메주 삶아서, 띄워서.)

107059 @ 계난 메주 삶으는 거는 동지.(그러니까 메주 삶는 거는 동지.)

107059 #2 동짓들.(동짓달.)

107059 @ 동짓들에.(동짓달에.)

107059 #2 예, 동짓들에 삶양, 그거 퇴왕, 선들 그믐날은 장 담아마씨. 담아 가지고 봄 나근에 거럼수게게.(예, 동짓달에 삶아서, 그거 띄워서, 선달 그믐날은 장 담아요. 담아 가지고 봄 나서 뜨고 있습니다.)

107059 @ 계난 동짓들에.(그러니까 동짓달에.)

107059 #2 삶양, 퇴왕.(삶아서, 띄워서.)

107059 @ 메주 삶아근에.(메주 삶아서.)

107059 #2 선들 그믐날.(선달 그믐날.)

107059 @ 퇴왕, 그거 퇴울 때 어디 걸어?(띄워서, 그거 띄울 때 어디 걸어?)

254) ‘싯평’은 서귀포시 대정읍 싯평리를 말한다.

107059 #2 그 이젠, 옛날엔 이 집 안네 막 걸엄주만은.(그 이젠, 옛날엔 이 집 안에 마구 걸고 있지만.)

107059 @ 처마 밋테.(처마 밑에.)

107059 #2 예, 요즘은예, 창고덜 종난 창고에덜 허여근에 짝에 허여근에 돌아매 나 경 안 허른 다마네기 푸대 잇지 아이허파? 그거에 허영은에 툃툃툃 돌아매영 헝 놔두민 거기서 물르멍 티우멍 허영 선들 우리 제주도엔, 육지 보민 대부분은 정월 보름날, 정월달에 담습디다만은, 우리 제주도엔 그자 아무 뭐 옛넨 허영 선들 그믐날 장 답습니다게.(예, 요즘은요, 창고들 좋으니까 창고에들 해서 짝에 해서 달아매 나 그렇게 안 하면 양파 포대 잇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서 툃툃툃 달아매어서 해서 놔두면 거기서 마르면서 띄우면서 해서 선달 우리 제주도엔, 육지 보면 대부분은 정월 보름날, 정월에 담습디다만, 우리 제주도엔 그자 아무 뭐 없다고 해서 선달 그믐날 장 답습니다.)

107059 @ 것도 날 보멍 허지양?(그것도 날 보면서 하지요?)

107059 #2 선들 그믐날은 날 안 봐마씨.(선달 그믐날은 날 안 봐요.)

107059 @ 선들 그믐.(선달 그믐.)

107059 #2 선들 그믐날은 해, 옛날 어른덜이 경 험디다게. 어두와 가가근 패랭이 툃 썩 가근에 소금물 아시날 곱앗당 해 질 무렵에 가근에 패랭이 툃 썩 가근에 툃툃 들이쳐볼렝 허영, 우리 난 그자 옛날 어른덜 곱으난예 그런 식으로 답아서마 씨. 육진 보민 솟도 농곡, 고추도 농곡, 경 허는디 우리 제주도엔 경 아녕 그자 소금물 곱앗다근에 메주 톱칼 시청 물리와근에 그날 저녁에 놀 꺼민 아침 시쳐근에 영 물 빠칭 툃툃툃 소금물 근 더레 향아리레 들이쳐, 경 허연 담앗수다.(선달 그믐날은 거의,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합디다. 어두워 가가면 패랭이 툃 썩서 가서 소금물 전날 갈앗다가 해 질 무렵에 가서 패랭이 툃 썩서 가서 툃툃 들이쳐 버리라고 해서, 우리 난 그자 옛날 어른들 말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았어요. 육지는 보면 술도 넣고, 고추도 넣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제주도엔 그렇게 안 해서 그자 소금물 갈앗다가 메주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그날 저녁에 넣을 거면 아침 씻어서 이렇게 물 빼줘서 툃툃툃 소금물 간 데로 향아리로 들이쳐, 그렇게 해서 담앗습니다.)

107059 @ 거난 그 물도 떠와야 뵈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그 물도 떠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7059 #2 계난 물은 소금물 곱습주, 미리 향아리레 받앙 놔둡주, 뵈.(그러니까 물은 소금물 갈지요, 미리 향아리로 받아서 놔두지, 뵈.)

107059 @ 여긴 어디 어디 가근에 물 떠왓수가?(여긴 어디 어디 가서 물 떠왓습니까?)

107059 #2 요 흥구물<sup>255</sup> 간 저 왓수게.(요 ‘흥구물’ 가서 저 왓습니다.)

107059 @ 흥구물?(‘흥구물’?)

107059 #2 흥구물이엔 현 디 요기 물통 잇수다. 요 신평 쪽더레 간 디, 그거 허

255) ‘흥구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사람들이 물을 길던 곳이다.

영 허벽<sup>256</sup>)에.('홍구물'이라고 하는 데 요기 물통 있습니다. 요 신평리 쪽으로 가는데, 그거 해서 '허벽'에.)

107059 @ 물 나는 디우파?(물 나는 데입니까?)

107059 #2 안 나는 디우다, 죽은 물.(안 나는 데입니다, 죽은 물.)

107059 @ 죽은 물?(죽은 물?)

107059 #2 예.(예.)

107059 @ 죽은 물도 장 담가?(죽은 물도 장 담가?)

107059 #2 게, 어떻 촌에서 어떻 됩니까.(그래, 어찌 촌에서 어찌 됩니까?)

107059 @ 죽은 물로 장 담가?(죽은 물로 장 담가?)

107059 #2 예, 그거 쳐다근에 이제는 이젠에 생수 뜨는 거 놔근에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엔 그 물 사당 헐 뒤가 뒤수가?(예, 그거 쳐다가 이제는 이젠요 생수 뜨는 거 놔서 합니다만, 그때 당시엔 그 물 사다가 할 뒤가 뒤습니까?)

107059 @ 우린 나는 물이 잇어났주마씨.(우린 나는 물이 있었었지요.)

107059 #2 예, 나는 물로 허믄 좋넨 험주게.(예, 나는 물로 하면 좋다고 하지요.)

107059 @ 아침이 세백이 가근에 그거 헤다근에 허더라고.(아침에 새벽에 가서 그거 헤다가 하더라고.)

107059 #2 우린, 여긴 그자 죽은 물 쳐다근에.(우린 여긴 그저 죽은 물 쳐다가.)

107059 @ 아.(아.)

107059 #2 소금물 혼 모리, 혼 사흘 전이 소금물을 허영 그거 딱 곶아얏여근에 그 선들 그믄날은 장 담앗수다게.(소금물 한 모레, 한 사흘 전에 소금물 해서 그거 딱 가라얏아서 그 선달 그믄날은 장 담앗습니다.)

107059 @ 거난 이 선들 그믄날은 이, 아닌 때는, 아닌 때는 날 봐야지양?(그러니까 이 선달 그믄날은 이, 아닌 때는, 아닌 때는 날 봐야지요?)

107059 #2 아닌 때는 날, 겐디 우리 이 동네선양 선들 그믄날은 무조건 장 담가, 장 삶은 사람은 그믄날 담쟁 그자 노력허영 그때 험니다게. 그루후엔 날사 뵤신디 안 뵤신디 모르고 선들 그믄날은 아무런 하자가 없넨 허영 해 질 무렵에랑 옛날 어른덜 패랭이 톱 쓰곡 허영 가근에 톱톱 들이쳐볼라 허멍, 겐 난 옛날 어른덜 곶으난 기자 그런 식으로만 장을 담아십주.(아닌 때는 날, 그런데 우리 이 동네서는요 선달 그믄날은 무조건 장 담다, 장 삶은 사람은 그믄날 다투려고 그저 노력해서 그때 합니다, 뒤날의 어느 때에 날이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고 선달 그믄날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해 질 무렵에 옛날 어른들 패랭이 톱 쓰고 해서 가서 톱톱 들이쳐 버리라 하면서, 그래서 난 옛날 어른들 말하니까 그저 그런 식으로만 장을 담앗습지요.)

107060 @ 그 장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수가?(그 장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56) '허벽'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다.

107060 #2 장 종류는게 된장, 간장, 고추장, 쌈장, 것벧기 더 잇수가?(장 종류는 된장, 간장, 고추장, 쌈장, 것밖에 더 잇습니까?)

107061 @ 아까 그 장 담그는 방법 말해수다만은 그 고추장 담가봄디강?(아까 그 장 담그는 방법 말했습시다만 그 고추장 담가봄디까?)

107061 #2 예.(예.)

107061 @ 그 고추장은 어떻 담가마씨?(그 고추장은 어떻게 담가요?)

107061 #2 옛날엔 고추장 담젠 허민 찹쌀, 찹쌀, 찹쌀 허여근에 오메기<sup>257</sup>ㄴ찌 쟁 오메기 만들앙 썬근에 허곡, 경 안 허른.(옛날엔 고추장 담으려고 하면 찹쌀, 찹쌀, 찹쌀 해서 ‘오메기’같이 썬서 ‘오메기’ 만들어서 썬서 하고, 그렇게 안 하면.)

107061 @ 뭘로 오메기를 멘들아마씨?(무엇으로 ‘오메기’를 만들어요?)

107061 #2 찹쌀로.(찹쌀로.)

107061 @ 찹쌀로예?(찹쌀로요?)

107061 #2 겐디 이젠 찹쌀 그냥 곶아당 경 험니다만 이젠 옛날ㄴ찌 안 담양 요즘은 된장, 된장 멧 키로, 고치가루 멧 키로, 옛물 멧 키로, 소주허고 설탕 그거만 낵 담습시다. 요즘은 고치가루에 허영, 옛날엔 찹쌀로 풀 썬근에 그걸 옛츄록 딸려 근에 고추장을 담아십주, 우리 어린 뎨, 겐디 요즘은 그츄록 담는 사름 엇입니다. 된장에 고치가루에 옛물에 그자 그츄록 허영 간단허게 담으멍 먹읍니다게.(그런데 이젠 찹쌀 그냥 갈아다가 그렇게 합니다만 이젠 옛날같이 안 담아서 요즘은 된장, 된장 멧 킬로그램, 고춧가루 멧 킬로그램, 옛물 멧 킬로그램, 소주하고 설탕 그거만 놔서 담습시다. 요즘은 고춧가루에 해서, 옛날엔 찹쌀로 풀 썬서 그걸 옛츄럼 달여 서 고추장을 담았습지요, 우리 어릴 뎨, 그런데 요즘은 그츄럼 담는 사름 없습시다. 된장에 고춧가루에 옛물에 그저 그츄럼 해서 간단허게 담으면서 먹읍니다.)

107061 @ 된장은 어떻 담급니까?(된장은 어떻게 감급니까?)

107061 #2 된장은 이제 그걸 장 담은 거 아이우파? 봄 나가민 그것 앳앙, 된장 께미 앳앙 막 무르쨌 향아리레 담아둬서 뎡 먹는 게 된장이라나십주.(된장은 이제 그걸 장 담근 거 아닙니까? 봄 나가면 그것 앳아서, 된장 께미 앳아서 마구 짓무르게 주물러서 향아리로 담아두면서 떠서 먹는 게 된장이었습지요.)

107061 @ 게난 그 된장을 이제.(그러니까 그 된장을 이제.)

107061 #2 꺼내영, 꺼내영 다라에 낵 막 무르쨌향 향아리레 낵 께뎡 놀렁.(꺼내 어서, 꺼내어서 대야에 놔서 마구 짓무르게 주물러서 향아리로 놔서 께뎡 놀려서.)

107061 @ 다른 향아리레 놓는 거 아니우파예?(다른 향아리로 놓는 거 아닙니까?)

107061 #2 예, 다른 향아리레, 장물 신 디 아니 다른 향아리레 놔근에 께뎡 놀렁 놔두민.(예, 다른 향아리로, 간장 있는 데 아니 다른 향아리로 놔서 께뎡 놀려 놔두면.)

257)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107061 @ 게민 웬장 건져볼민 장물 웨는 거.(그러면 된장 건져버리면 간장 되는 거.)

107061 #2 장물. 예, 예, 웬장 건져볼민 그건 장물이고. 웬장은 따로 막 웨미 지영 무르춰어근에 판 디 요런 디라도 놔근에 놔둔 게 웬장이고, 경 허연 먹어십주. (간장. 예, 예, 된장 건져버리면 그건 간장이고. 된장은 따로 마구 웨미 지어서 짓무르게 주물러서 판 데 요런 데라도 놔서 놔둔 게 된장이고, 그렇게 해서 먹었습지요.)

107062 @ 메주는 언제 쏘니까?(메주는 언제 쏘니까?)

107062 #2 동짓달에마씨.(동짓달에요.)

107062 @ 동지들, 건 날 안 봐?(동짓달, 건 날 안 봐?)

107062 #2 그건 날 안 봅니다, 동짓달, 아니 그건 날 봅니다. 우리 대부분은 득날이나 므날이나.(그건 날 안 봅니다, 동짓달, 아니 그건 날 봅니다. 우리 대부분은 닭날이나 말날이나.)

107062 @ 득날이나 므날.(닭날이나 말날.)

107062 #2 므날이나.(말날이나.)

107062 @ 므날은 물이지예?(말날은 말이지요?)

107062 #2 물, 물. 득날은 그 좇아먹는 거엔, 물을 깨끗한 거엔 허영 모날이나 득날이나, 경 허연, 자기 본명일도 안 삶곡.(말, 말. 닭 날은 그 쪼아먹는 거라고, 물을 깨끗한 거라고 해서 말날이나 닭날이나, 그렇게 해서, 자기 본명일도 안 삶고.)

107062 @ 그다음 메주 쭈면은.(그다음 메주 쭈면은.)

107062 #2 메주 쭈면은.(메주 쭈면은.)

107062 @ 그거 뺏아야 헐 거 아니우짜?(그거 빵아야 할 거 아닙니까?)

107062 #2 이 그때 당시에도 뺏지 아이헝디다. 푸대 잇지 안 허짜?(이 그때 당시에도 빵지 않습디다. 포대 잇지 않습니까?)

107062 @ 푸대에 담양 발로 밟아.(포대에 담아서 발로 밟아.)

107062 #2 예, 푸대에 담양, 비료 푸대 잇지 아이허짜? 비료 푸대 ㅋ쿨 시청 그게 디물양 신발 신영 그 우터레 상 바라바라 불라 가문 문짝 불랑 이젠 그뎨 문 불라지민 만드아근에 돌아멤수게, 그추룩 허연.(예, 포대에 담아서, 비료 포대 잇지 않습니까? 비료 포대 깨끗이 씻어서 그게 디밀어서 신발 신어서 그 위로 서서 바라바라 밟아 가면 몽땅 밟아서 이젠 그뎨 모두 밟아지면 만드어서 달아매고 있습니다, 그처럼 해서.)

107062 @ 옛날 멧돌에도 영 해낫어양?(옛날 멧돌에도 이렇게 했었지요?)

107062 #2 예게, 멧돌에도 옛날은 뺏는 사람은 뺏앗수다. 켄디 쉽게 허젠 허민 양 발로 밟는 게 제일 쉬와마씨.(예, 멧돌에도 옛날은 빵는 사람은 빵앗습니다. 그런데 쉽게 하려고 하면 발로 밟는 게 제일 쉬워요.)

107063 @ 그 장 담글 때 금기 사항 잇지 안 허우짜양?(그 장 담글 때 금기 사항 잇지 않습니까?)



107063 #2 금기 사항은 우리 해 보지 안 했수다.(금지 사항은 우리 해 보지 않았습시다.)

107063 @ 금기 사항 엿수까?(금지 사항 없습니까?)

107063 #2 엿수다, 엿어.(없습시다, 없어.)

107063 @ 금기 사항은 엿인디 그자 장 담는 날 아무 하자 엿이 장 맛 좋게 헤영 이 저 하자 엿이 담쟁 허난 선돌 그믐날, 선돌 그믐날허곡 장 삶는 날은 므날이나 득날이나 자기 본명일 피허영.(금지 사항은 없는데 그저 장 담그는 날 아무 하자 없이 장 맛 좋게 해서 이 저 하자 없이 담으려고 하니까 선달 그믐날, 선달 그믐날 하고 장 삶는 날은 말날이나 닭날이나 자기 본명일 피해서.)

107063 @ 이 금지 사항들이 좀 잇을 건디.(이 금지 사항들이 좀 잇을 건데.)

107063 #2 예, 예, 엿수다, 엿어.(예, 예, 없습시다, 없어.)

107063 @ 옛날 사름덜 보른 막 이런 거.(옛날 사람들 보면 막 이런 거.)

107063 #2 아이, 그건 저 신경 쓰는 거, 쉼날 ㄱ튼 날도 안 숲곡, 장 무사 그날 안 숲암수겐 허난 니치름<sup>258</sup>) 잘, 메주 잘 안 튼덴 그추룩 허연 그때 당시에 그날을 보는 겁주. 니치름 허는 따문.(아니, 그건 저 신경 쓰는 거, 소날 같은 날도 안 삶고, 장 왜 그날 안 삶고 있어요 하니까 ‘니치름’ 잘, 메주 잘 안 튼다고 그처럼 해서 그때 당시에 그날을 보는 거지요. ‘니치름’ 하는 따문.)

107063 @ 장도 꼭 그추룩 현다.(장도 꼭 그처럼 한다.)

107063 #2 예, 예, 경허난 장은 일 년 반찬이나 다름엿은 거 아니우파? 경 허난 그 득날은 예를 들영 그 벌거지도 쪼아 먹어불곡, 경 허여불곡 허난에 그런 날 피허여근에 험수게.(예, 예, 그러니까 장은 일 년 반찬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닭날은 예를 들어서 그 벌레도 쪼아 먹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날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 떡류

107064 @ 그다음에 이 떡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떡, 떡 멩그는 것도 상당히 중요헌 건디 그 떡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까?(그다음에 이 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시다. 떡, 떡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떡 종류는 어떤 것들 잇습니까?)

107064 #2 하이고, 이제 이제난 허주 옛날에 소상, 대상, 큰 식게, 죽은 식게할 때엔 시리떡을 허여근에 이젠 곤침떡만 침십주만은, 옛날엔 조침떡도 쳐십주. 겐 조침떡 우이 어려우난 곤쌀, 우에 곤쌀만 약간씩 입형 경허민 조침떡은 곤침떡 답지 아녕 치기가 막 거북합니다게, 이 저 잘 안 익영. 경 허영 그르침도 허곡, 경 허영 그건 시리떡으로 허여근에 큰 제만, 그추룩 허영 허곡, 딱로 절변, 술변<sup>259</sup>) 그건게 동그랑, 뱍작헌 떡, 두 개 부찌는 떡, 옛날 큰떡이엔 허영 허지 안 험니까? 그거 싯곡, 새미떡<sup>260</sup>) 싯곡, 므멀로 허영 네모나게 저 중궤<sup>261</sup>), 약궤<sup>262</sup>)엔 험니까, 그거 싯

258) ‘니치름’은 어린 아이나 소가 입에서 질질 흘리는 침이다.

259) ‘술변’은 반월형의 떡살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이다.

곡, 중괘, 약괘는 멩말로 허곡, 절편, 술변은 곤솔로 허고, 경 해십주.(하이고, 이제 이제니까 하지 옛날에 소상, 대상, 큰 재사, 작은 재사할 때엔 시루떡을 해서 이젠 흰쌀시루떡만 찌고 있지만 옛날엔 조시루떡도 찌습지요. 그러니까 조시루떡 위에 어려우니까 흰쌀, 위에 흰쌀만 약간씩 입혀서 그러면 조시루떡은 흰쌀시루떡 같지 않아서 찌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이 저 잘 안 익어서. 그렇게 해서 그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건 시루떡으로 해서 큰 제만, 것처럼 해서 하고, 따로 절편, ‘술변’ 그건요 둥글고, 납죽한 떡, 두 개 붙이는 떡, 옛날 큰떡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있고, ‘새미떡’ 있고, 메밀로 해서 네모나게 저 ‘중괘’, ‘약괘’라고 합니까, 그거 있고, ‘중괘’, ‘약괘’는 메밀로 하고, 절편, ‘술변’은 흰쌀로 하고, 그렇게 했습지요.)

107065 @ 그다음에양 시리떡에 대해서 한번 알아줍서. 시리떡, 시리떡 재료는 뭐 뭐라마씨?(그다음에요 시루떡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시루떡, 시루떡 재료는 뭐 뭐예요?)

107065 #2 시리떡 재료는 옛날은, 이제는 곤솔로만 물 등갓당 곶양 시리에 낱 썸십주, 징 징 징 징 허멍, 혼 요 혼 징 혈 만이 허민 쉬 그 우터레 낱 다음 징 놓 곡 다음 징 낱 풋쉬 낱 또 다음 징 놓곡 허멍 경 허멍 시리떡을 천에 내남십주.(시루떡 재료는 옛날은, 이제는 흰쌀로만 물 담갔다가 갈아서 시루에 놔서 찌고 있지요, 켜 켜 켜 켜 하면서, 한 요 한 켜 할 만큼 하면 소 그 위로 놔서 다음 켜 넣고 다음 켜 놔서 팔소 놔서 또 다음 켜 넣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루떡을 찌서 내 놓고 있지요.)

107065 @ 거난 시리떡 칠 때는 필요한 도구가 시리허고.(그러니까 시루떡 찌 때는 필요한 도구가 시루하고.)

107065 #2 시리, 시리.(시루, 시루.)

107065 @ 그다음?(그다음?)

107065 #2 시리벳기 엇고, 겨고 풋쉬.(시루밖에 없고, 그리고 팔소.)

107065 @ 풋쉬.(팔소.)

107065 #2 예.(예.)

107065 @ 거난 그 시리떡 멩글 때 풋쉬허고, 그다음에 그 시리 곶냥 막아야 될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그 시루떡 만들 때 팔소하고 그다음에 그 시루 구멍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7065 #2 곶냥 막는 건예, 늣삐 잇지 아이허파? 늣삐 저 동글동글허게 썰엉 특 구멍마다 툃툃툃툃 놔근예 경 헛수게.(구멍 막는 건요, 무 잇지 않습니까? 무 동그 랑게 썰어서 특 구멍마다 툃툃툃툃 놔서 그렇게 했습니다.)

260) ‘새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팔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261) ‘중괘’는 좁쌀가루나 메밀가루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이다.

262) ‘약괘’는 좁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구멍 다섯을 내고 기름에 지지거나 삶아낸 떡이다.

107065 @ 그다음에 그거 다 찌나면은 그 시리떡 칠 때는 사름덜 들어오지 못하게 허지 안 험니까양?(그다음에 그거 다 찌나면은 그 시루떡 찔 때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107065 #2 조침떡 칠 땐 자꾸 이 설어근에양 이 조침떡이 짐을 잘 아니 올르는 생이라마씨. 경 험 땐 경 헛주만은, 이젠 경 아니합니다. 이젠양 아무케라도 허민 익어마씨.(조시루떡 찔 땐 자꾸 이 설어서요 이 조시루떡이 짐을 잘 아니 올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할 땐 그렇게 했지만, 이젠요 아무렇게라도 하면 익어요.)

107065 @ 아, 거난 옛날은 이 저 들어오지 못하게 허여서.(아, 그러니까 옛날은 이 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107065 #2 그건 저.(그건 저.)

107065 @ 선뎐 허멍.(선다고 하면서.)

107065 #2 그 비린 사름은 들어오지 못하게 헛수다, 떡 선뎐, 겐디 이젠 그런 거 엇수다. 방엿간에 강 이젠 그 저 보일라 때영 광광 짐 올리는 따문, 이젠.(그 더러워진 사름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떡 선다고, 그런데 이젠 그런 거 없습디다. 방앗간에 가서 이젠 그 저 보일러 때어서 광광 짐 올리기 때문, 이젠 )

107065 @ 거난 시리떡 그게 다 치면은.(그러니까 시루떡 그게 다 찌면은.)

107065 #2 그냥 썰만 허민 다 시리떡입주게.(그냥 썰기만 하면 다 시루떡이지요.)

107065 @ 어퍼근에양?(옆어서요?)

107065 #2 예.(예.)

107065 @ 어떻 허면은.(옆어서 하면은.)

107065 #2 칼로 영 흐 빗<sup>263)</sup> 두 빗 영. 스겟귀, 귀영 딱 맞춰 나옵니다. 게문 그거 썰민 흐 빗 두 빗 되는 거.(칼로 이렇게 한 ‘빗’ 두 ‘빗’ 이렇게. 사개 귀, 귀랑 딱 맞춰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썰면 한 ‘빗’ 두 ‘빗’ 되는 거.)

107066 @ 그다음에 송편 해 볍디게양, 송편은 어떻 만듭니까?(그다음에 송편 해 봤지요, 송편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66 #2 송편은 ㄱ루, ㄱ루 갈아당 그걸 반죽허영, 반죽허영 요맨씩, 요맨씩 텃당 쟁, 찌민 그거 다 반죽으로 익을 거 아이우파? 그거 다라에 낱 막 손으로, 아, 그건 곤떡이여, 송편은 그냥 쟁 손으로 만들양 그 속에 쉬 담양 좁아근에 험 것이 송편, 그것이 송편. 손으로 만들양.(송편은 가루, 가루 갈아다가 그걸 반죽해서, 반죽해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뜯어서 찌서, 찌면 그거 다 반죽으로 익을 거 아닙니까? 그거 대야에 놔서 마구 손으로, 아, 그건 흰떡이야, 송편은 찌서 손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소 담아서 접어서 한 것이 송편, 그것이 송편. 손으로 만들어서.)

107066 @ 거난 송편은 험 때 그 안네 쉬는 뭐 놓니까?(그러니까 송편은 할 때 그 안에 소는 뭐 넣습니까?)

107066 #2 쉬는예, 꽤도 보까근에 쉬허곡, 녹두도 솥양 허곡, 풋도 솥양 허곡,

263)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날개이다.

보리콩도 삶양 허곡.(소는요, 참깨도 볶아서 소하고, 녹두도 삶아서 하고, 팥도 삶아서 하고, 완두도 삶아서 하고.)

107066 @ 보리콩이 완두콩이지양?(완두가 완두콩이지요?)

107066 #2 아니우다, 완두콩은 틀립니다.(아닙니다, 완두콩은 다릅니다.)

107066 @ 아.(아.)

107066 #2 보리콩은 그냥 우리 옛날 밧디 갈앙 타당 퍼렁헌 것이 보리콩이고, 완두콩은 틀립니다.(완두는 그냥 우리 옛날 밧에 갈아서 따다가 파랜 것이 완두이고, 완두콩은 다릅니다.)

107066 @ 그 거난에 곤살 곶아다근에, 더운 물 낱.(그 그러니까 흰쌀 갈아다가, 더운 물 놔서.)

107066 #2 뜨신 물 낱 막 반죽허영 쩡, 경 허여근에 그거 손으로 허민 끈닥끈닥 허민 그거 요덴씩 트드멍 만들멍 쉬 놔근에 헌 것이 송편이우다.(따뜻한 물 놔서 마구 반죽해서 찌서, 그렇게 해서 그거 손으로 하면 끈적끈적하면 그거 요만큼씩 뜯으면서 만들어서 소 놔서 한 것이 송편입니다.)

107066 @ 거난 그 반달 모양으로.(그러니까 그 반달 모양으로.)

107066 #2 예, 반달 모양으로 영 영 허민 나오니다게.(예,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오니다.)

107066 @ 반달 모양으로양?(반달 모양으로요?)

107066 #2 예, 예.(예, 예.)

107066 @ 경 행 다 헤근에 멩글아지면은.(그렇게 해서 다 해서 만들어지면은.)

107066 #2 쩡, 솟디 놔근에 쩡.(찌서, 솥에 놔서 찌서.)

107066 @ 솟디 놔근에.(솥에 놔서.)

107066 #2 쩡 내민 그때 다.(찌서 내면 그때 다.)

107066 @ 솟디 낱 찰 때 밧테 바닥은 무슨거?(솥에 놔서 찰 때 밑에 바닥은 무엇?)

107066 #2 바닥은 그냥 옛날.(바닥은 그냥 옛날.)

107066 @ 무신거 놓니까?(무엇 넣습니까?)

107066 #2 거 췌로 요렇게 동그스름허게 만든 거 이 저 영 밧테 농곡, 위에 영 농곡 들르게꾸리 허여근에 췌줄로 만들앙 거기 저 새 깔고 새도 영 혼 줌 깔곡, 또 광목천으로 영 허영 깔곡 허여근에.(거 쇠로 요렇게 동그스름허게 만든 거 이 저 이렇게 밑에 놓고, 위에 이렇게 놓고 들게끔 해서 쇠줄로 만들어서 거기 저 띠 깔고 띠도 이렇게 한 줌 깔고, 또 광목천으로 이렇게 해서 깔고 해서.)

107066 @ 광목으로 됩니까?(광목으로 합니까?)

107066 #2 예, 광목으로 허영.(예, 광목으로 해서.)

107066 @ 그 저 무신거 솔섭은 안 놔?(그 저 무엇 솔잎은 안 놔?)

107066 #2 솔섭 허는 거는 옛날 절편, 절편할 땐 솔섭 혼 줌 농곡 그거 영 농멍 찌신디 송편은 경 안 됩니다게.(솔잎 하는 거는 옛날 절편, 절편할 땐 솔잎 한 줌

놓고 그거 이렇게 놓으면서 쪼는데 송편은 그렇게 안 합니다.)

107066 @ 그 솔집 저 툇다다근에.(그 솔잎 저 뜯어다가.)

107066 #2 툇다당.(뜯어다가.)

107066 @ 그거 저 숲아근에 널었다근에.(그거 저 삶아서 널었다가.)

107066 #2 예, 그건 절변 할 때는 그거 혼 징, 그걸로 징 징 놓곡.(예, 그건 절편 할 때는 그거 한 켜, 그걸로 켜 켜 놓고.)

107066 @ 그다음에 경 해근에 이제 영 바닥에 놔근에 영.(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바닥에 놔서 이렇게.)

107066 #2 식혀.(식혀서.)

107066 @ 식히면은.(식혀서.)

107066 #2 식혀근에 허민 계민 나중에 기름 우으로만 부뜨지 말게 슬슬 불랑.(식혀서 하면 그러면 나중에 기름 위로만 붙지 말게 살살 발라서.)

107066 @ 춤, 춤기름?(참, 참기름?)

107066 #2 예, 불라근에 읍더레 툇툇툇 재민 그거 떡 다 췌 거마씨.(예, 발라서 옆으로 툇툇툇 재기면 그거 떡 다 췌 거지요.)

107067 @ 그다음에 빙떡<sup>264</sup>양, 여기 빙떡을 뭐엔 험니까?(그다음에 ‘빙떡’요, 여기 ‘빙떡’을 뭐라고 험니까?)

107067 #2 빙떡이엔 험니다게.(‘빙떡’이라고 험니다.)

107067 @ 여긴 빙떡?(여긴 ‘빙떡’?)

107067 #2 빙떡은, 빙떡은예 반죽을 잘 헤사.(‘빙떡’은, ‘빙떡’은요 반죽을 잘 해야.)

107067 @ 우리 동넨양 이 빙떡을 이 영빈이엔 허여, 영빈.(우리 동네는요 이 ‘빙떡’을 이 ‘영빈’이라고 해, ‘영빈’.)

107067 #2 아니, 여긴 빙떡이엔 험니다. 영빈이엔 안 허영 빙떡이엔, 빙떡 계민 그건.(아니, 여긴 ‘빙떡’이라고 험니다. ‘영빈’이라고 안 해서 ‘빙떡’이라고, ‘빙떡’ 그러면 그건.)

107067 @ 빙떡 재료는 어떤 것덜 잇수강, 므덜허고.(‘빙떡’ 재료는 어떤 것들 잇습니까, 메밀하고.)

107067 #2 므덜, 므덜ㄱ루게.(메밀, 메밀가루요.)

107067 @ 므덜ㄱ루.(메밀가루.)

107067 #2 므덜ㄱ루 놓곡 계란, 므덜ㄱ루 두 췌면 계란, 계란 딱 세 꺾주게.(메밀가루 넣고 계란, 메밀가루 두 췌면, 계란 딱 세 개지요.)

107067 @ 계란 어디 놓젠?(계란 어디 넣으려고?)

107067 #2 그 반죽에마씨.(그 반죽에요.)

107067 @ 아, 므덜ㄱ루 반죽에 계란을 놔?(아, 메밀가루 반죽에 계란을 놔?)

264) ‘빙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팔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이다. ‘영빈’이라고 하는 데도 있다.

107067 #2 계란을 놓든예, 그 므밀궤루가예 막 예민허영 이 훗을 때가 있어마썸. 계란을 놓민 훗으질 아니허영.(계란을 놓으면요, 그 메밀가루가요 아주 예민해서 이 훗러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계란을 놓으면 훗러 떨어지질 않아서.)

107067 @ 훗으는 것이 훗어지는 거지예?(훗러 떨어지는 것이 훗어지는 거지요?)

107067 #2 예, 잘허지 안 허영 헤싸정.(예, 잘하지 않아서 헤벌어져서.)

107067 @ 헤싸아지는 거예, 헤싸지는 거.(헤벌어지는 거요, 헤벌어지는 거.)

107067 #2 계란 그거 헤싸지지 말렌 그거 흐끔 놓곡 전분 가루예, 전분 가루 흐끔 놓곡, 식용유 쪼끔만 비와근에 반죽을 허여마썸. 반죽을 허여근에 지지민 막 곱게 나옵니다.(그러니까 그거 헤벌어지지 말라고 그거 조금 넣고 전분 가루요, 전분 가루 조금 넣고, 식용유 조금만 부어서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서 지지면 매우 곱게 나옵니다.)

107067 @ 옛날엔 그거 솟두경 우에 헛지 안 허우파예?(옛날에 그거 솟뚜경 위에 헛지 않습니까?)

107067 #2 옛날엔 솟두경으로 지저신디, 요즘은 전기 후라판덜 좋으난양 경 허영 지정 그냥 므밀궤루만 카근에 허민 어떤 땐 헤싸정 잘 안 텔 때가 있어마썸.(옛날엔 솟뚜경으로 지졌는데, 요즘은 전기 후라이팬들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저서 그냥 메밀가루만 타서 하면 어떤 때는 헤벌어져서 잘 안 텔 때가 있어요.)

107067 @ 계란 솟두경 우티 저 돛지름 불르명.(그러니까 솟뚜경 위에 저 돼지 기름 바르면서.)

107067 #2 늑삐로 불르명예, 옛날엔 경 헛수다.(무로 바르면서요,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107067 @ 늑삐로 불랏수가?(무로 발랐습니까?)

107067 #2 예, 늑삐로, 늑삐로 솟두경 불라근에, 솟두경에서 옛날에 해 빙을 지저십주.(예, 무로, 무로 솟뚜경 발라서, 솟뚜경에서 옛날에 거의 ‘빙’을 지졌습지요.)

107067 @ 그거 영 뭐냐 펠 때는 주걱, 주걱으로?(그거 이렇게 펠 때는 주걱, 주걱으로?)

107067 #2 사꾸.(국자.)

107067 @ 사꾸?(국자?)

107067 #2 사꾸, 사꾸, 국자.(국자, 국자, 국자.)

107067 @ 국자로양?(국자로요?)

107067 #2 국자로 그거 흐끔 낵 영 영 영 허명 곱게 허영.(국자로 그거 조금 낵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곱게 해서.)

107067 @ 가운데로부터 영 돌리지양?(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돌리지요?)

107067 #2 예, 그냥 영 비왕 영 영 영 헤가민 싹싹싹 이 저 걸러집니다.(예, 그냥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헤가면 싹싹싹 이 저 걸러집니다.)

107067 @ 크기가 정확헤야주기.(크기가 정확헤야지요.)

107067 #2 예, 계란 그 사꾸로 낱 딱 정확하게 떠압주, 짐작허멍, 그것이 빙떡, 호호호.(웃음)(예, 그러니까 그 국자로 와서 딱 정확하게 떠야지요, 짐작하면서, 그것이 ‘빙떡’, 호호호.(웃음))

107067 @ 그거 이제 헤근에.(그거 이제 해서.)

107067 #2 내낱.(내놔서.)

107067 @ 거 낼 땐 뭘 어떻 내어, 그거 뜨거울 건디?(거 낼 땐 뭘 어떻게 내어, 그거 뜨거울 건디?)

107067 #2 아니, 뜨거와도 영 허민 손으로 장갑 찌민 툽툽 들러집니다.(아니, 뜨거워도 이렇게 하면 손으로 장갑 끼면 툽툽 들러집니다.)

107067 @ 들렁은에 이제.(들러서 이제.)

107067 #2 돛베, 도마레 낱, 또 늬뻬 썰영 숲양.(도마, 도마로 와서, 또 무 썰어서 삶아서.)

107067 @ 늬뻬도, 이제 늬뻬 안네 무시거 놉니까?(무도, 이제 무 안에 무엇 넣습니까?)

107067 #2 늬뻬 숲양 건정 패마농 썰어근에 그거 후라이팬에 찰지름 낱 확 둘러근에 그레 농곡, 패 농곡.(무 삶아서 건져서 쪽과 썰어서 그거 후라이팬에 찰기름 놔서 확 둘러서 그리 넣고, 참깨 넣고.)

107067 @ 패ㄴ루양?(참깨가루요?)

107067 #2 예, 패ㄴ루 농곡 거기 소금간 허영 찰지름 농곡 허민 고소하게 맛 줍니다.(예, 참깨가루 넣고 거기 소금간 해서 찰기름 하면 고소하게 맛 좋습니다.)

107067 @ 그다음 그디 저 빙떡 우이 쪽 영 놔근에.(그다음 거기 저 ‘빙떡’ 위에 쪽 이렇게 놔서.)

107067 #2 쪽 놔근에 돌민, 돌민 뵈주게.(쪽 놔서 말면, 말면 되지요.)

107067 @ 예, 뵈양.(예, 말아서.)

107067 #2 예, 맛 줍니다게.(예, 맛 좋습니다.)

107067 @ 계란 이 빙떡 보니까 이 잔치 때도 요즘 많이 험디다, 이거.(그러니까 이 ‘빙떡’ 보니까 이 잔치 때도 요즘 많이 험디다, 이거.)

107067 #2 이젠양 맞춤 떡은 잘 안 먹곡, 빙떡은 허민 안 먹는 사름이 엇어마 씨. 빙떡 주로 험디다, 이디. 계민 동네 사름덜 이젠 식당에서 왕 밥 ㄴ튼 거 다 허기 때문 뵈 허는데 빙떡 지지레 동넛 어른덜이 강 앓양 놉니다게.(이젠요 맞춤 떡은 잘 안 먹고, ‘빙떡’은 하면 안 먹는 사름이 없어요. ‘빙떡’ 주로 험디다, 여기. 그러면 동네 사름들 이젠 식당에서 와서 밥 같은 거 다 하기 때문 뵈 허는데 ‘빙떡’ 지지레 동네 어른들이 가서 앓아서 놉니다.)

107068 @ 그다음에 상웨떡<sup>265)</sup> 알아지지양? 상웨떡.(그다음에 ‘상웨떡’ 알겠지요? ‘상웨떡’.)

265) ‘상웨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 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찢 떡이다.

107068 #2 상웨떡.(‘상웨떡’.)

107068 @ 상웨떡 그 저 뭐냐 허면은 그거 닳아, 그거 옛날 그 빵 잇일 때 그.  
(‘상웨떡’ 그 저 뭐냐 허면은 그거 같아, 그거 옛날 그 빵 없을 때.)

107068 #2 장빳디 강 태우는 거.(장지에 가서 태우는 거.)

107068 @ 방에 영 해근에, 밀가루 반죽해근에 막 카야 될 거 아니우파? 경 해근에 길죽길죽허게 빵 멩그라근에.(방에 이렇게 해서, 밀가루 반죽해서 마구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길죽길죽하게 빵 만들어서.)

107068 #2 태와, 그걸?(태워 그걸?)

107068 @ 그걸 만들앙 먹어보진 안 험디가?(그걸 만들어서 먹어보진 않습디까?)

107068 #2 그건 만들앙, 제사 때 만들어십주, 그건 기주떡 허영 영 빗<sup>266</sup>으로 이만씩 부각허게 허영 그걸.(그건 만들어서, 제사 때 만들었습지요, 그건 기주떡 해서 이렇게 ‘빗’으로 이만큼씩 부각허게 해서 그걸.)

107068 @ 거기 막걸리 ㄹ튼 거 낱은에.(거기 막걸리 같은 거 놔서.)

107068 #2 그건예, 저 막걸리도 농곡, 옛날 저 빵집이 가민 파우다엔 현 것이 잇수다.(그건요, 저 막걸리도 넣고, 옛날 저 빵집에 가면 파우다라고 한 것이 잇습니다.)

107068 @ 이스트?(이스트?)

107068 #2 파우다엔 현 거우다, 파우다.(파우다라고 한 것입니다, 파우다.)

107068 @ 파우다.(파우다.)

107068 #2 파우다, 그거 해여근에 드뜻이 물 데왕, 밀가루 혼 포민 그거 얼마 노렌 허는 양이 십니다. 그거 농곡, 막걸리 농곡 허영, 반죽을 잘 허영 그것도 너무 얇게 해도 안 돼고, 너무 뒤어도 떡이 튼튼허영 안 돼곡, 어느 정도 간 맞게 허영 놔뒤 온돌방에 담요 ㄹ튼 거라도 톱 더경, 이만이 부풀어 올르민 그거 썸 가지고 술병으로 밀어근에 도톰허게 딱딱 영 잘랑 썸민 빗 떡으로 뒤엇수다. 우리 제사 때 늘 헨 먹엇수게. 이젠 안 험니다, 이젠.(파우다, 그거 해서 따뜻이 물 데워서, 밀가루 한 포면 그거 얼마 넣으라 하는 양이 잇습니다. 그거 넣고, 막걸리 넣고 해서, 반죽을 잘해서 그것도 너무 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뒤어도 떡이 튼튼해서 안 되고, 어느 정도 간 맞게 해서 놔뒤서 온돌방에 담요 같은 거라도 톱 뒤어서, 이만큼 부풀어 오르면 그거 썸 가지고 술병으로 밀어서 도톰허게 딱딱 이렇게 잘라서 썸면 ‘빗’ 떡으로 뒤엇습니다. 우리 제사 때 늘 해서 먹엇습니다. 이젠 안 험니다, 이젠.)

107068 @ 이제는 빵집이 가민 그 닳은 것덜 하난.(이제는 빵집에 가면 그 같은 것들 많으니까.)

107068 #2 이젠 집이서 떡 만드는 것이 엇어, 옛날엔 다 만들멍 동네에 제사 때 에 썸 태웠수게. 이젠 안 태웁니다.(이젠 집에서 떡 만드는 것이 엇어, 옛날엔 다 만들면서 동네에 제사 때에 썸 태웠습니다. 이젠 안 태웁니다.)

---

266)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날개, 또는 그를 세는 말이다.



107068 @ 옛날엔 식게나 영장 댐 다 집이서 멩글앗수게.(옛날엔 제사나 영장 댐 다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107068 #2 예, 이제 우리 시집올 때만 해도 나 시집완 혼 이십 년은 그처럼 만 들안 테와서마씨. 이젠 떡 주는 사람이 엇입니다.(예, 이제 우리 시집올 때만 해도 나 시집와서 한 이십 년은 것처럼 만들어서 태웠어요. 이젠 떡 주는 사람이 없습 니다.)

107068 @ 예게, 옛날엔 떡이 막 귀했수게게.(예, 옛날엔 떡이 아주 귀했습니다.)

107068 #2 또 그거만 허민 배 불게, 이젠 쥐도 먹도 아이허고마씨.(또 그거만 하면 배 불게, 이젠 쥐도 먹도 않습니다.)

107068 @ 허는 집도 엇고, 옛날 우리 고모님이 저 애월 상가에 살아났수다게. (하는 집도 없고, 옛날 우리 고모님이 저 애월 상가리에 살았었습니다.)

107068 #2 음, 호호.(웃음)(음, 호호.(웃음))

107068 @ 계난 거 우리 할아버지 제사 때는 와, 그 색달리까지. 오면은 학교 강 은에 빨리 읍주게. 그 단 가정 오는 것이 뭐냐 허면은, 애월이 좀 잘 사니까 이 저 길쪽길쪽 저 빵, 빵에 풋 뇌진 빵, 좀 길쪽길쪽허게.(그러니까 거 우리 할아버지 제 사 때는 와, 그 색달리까지. 오면은 학교 가서 빨리 오지요. 그 단 가져서 오는 것 이 뭐냐 하면은, 애월이 좀 잘 사니까 이 저 길쪽길쪽 저 빵, 빵에 팔 넣은 빵, 길 쪽길쪽허게.)

107068 #2 빵.(빵.)

107068 @ 아, 그걸 가져오니까 그거 먹어보젠.(아, 그걸 가져오니까 그거 먹어 보려고.)

107068 #2 하도 맛 좋안.(하도 맛 좋아서.)

107068 @ 예.(예.)

107068 #2 맞수다.(맞습니다.)

107068 @ 그건 중문 쪽에선 안 봐나니까.(그건 중문 쪽에서 안 봤었으니까.)

107068 #2 그거 요초록 영 허영 속에 풋 농곡양, 맞수다, 잇엇수다.(그거 요처럼 이렇게 해서 속에 팔 넣고요,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107068 @ 거난에 그때는 중문보단 잘 살았어, 애월이, 애월 쪽이. 애월이 땅이 좀 좋읍주게.(그러니까 그때는 중문보다는 잘 살았어, 애월이, 애월 쪽이. 애월이 땅 이 좀 좋습지요.)

107068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68 @ 계네 그 상웨떡.(그래서 그 ‘상웨떡’.)

107068 #2 여기도 그 기주떡을, 여기선 기주떡이엔 험니다게.(여기도 그 ‘기주 떡’을, 여기선 ‘기주떡’이라고 합니다.)

107068 @ 상웨떡이엔 안 허영 기주떡?(‘상웨떡’이라고 안 해서 ‘기주떡’?)

107068 #2 기주떡.(‘기주떡’.)

107068 @ 아, 기주떡?(아, ‘기주떡’?)

107068 #2 기주떡. 그거 제사 혼 번 행 먹젠 허믄 기주떡 막 뒤흔 디덜은 포반씩, 혼 포도 허영 떡곡, 계민 다 테와근에 식게 넘으민 떡 하나 엇입니다.(‘기주떡’. 그거 제사 한 번 해서 먹으려고 하면 기주떡 아주 뒤흔 테들은 포반씩, 한 포도 해서 먹고, 그러면 다 태워서 제사 넘으면 떡 하나 없습니다.)

107068 @ 저거 ㄴ는대구덕<sup>267</sup>)으로 하나 했어.(저거 ‘ㄴ는대구덕’으로 하나 했어.)

107068 #2 예, 아이구, 옛날 소상 때도 집이서 떡 했수게, 경.(예, 아이고, 옛날 소상 때도 집에서 떡 했습니다, 그렇게.)

107069 @ 거난 이 저 떡도양 큰일 할 때마다 좀 틀러마씨. 식게 때 떡 종류 어떤 것덜이 잇수가? 식겿떡허고 이.(그러니까 이 저 떡도요 큰일 할 때마다 좀 달라요. 제사 때 떡 종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사떡하고 이.)

107069 #2 식게 때나 소상 때나 대상 때나 큰 식게는 절편, 술변<sup>268</sup>), 중궤<sup>269</sup>), 약궤<sup>270</sup>) 다 허고 그자 흥끔헌 식게덜은 저 새미떡<sup>271</sup>) 줍양 행 떡곡 경 했수다게. (제사 때나 소상 때나 대상 때나 절편, ‘술변’, ‘중궤’, ‘약궤’ 다 하고 그저 조그마한 제사들은 저 ‘새미떡’ 접어서 해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107069 @ 그 새미떡양?(그 ‘새미떡’요?)

107069 #2 예, 새미떡, 새미떡 허는 디는 절편, 술변 안 허영 단지 기자 간단히 게 허는 떡으로 새미떡 허고.(예, ‘새미떡’, ‘새미떡’ 하는 데는 절편, ‘술변’ 안 해서 단지 그저 간단하게 하는 떡으로 ‘새미떡’ 하고.)

107069 @ 계난 저 식게 때는 술벤, 절벤.(그러니까 저 제사 때는 ‘술벤’, 절편.)

107069 #2 식게 때, 소상 때 ㄴ튼 때는 절편, 송편 안 허영 그거 절편, 확 근지 못허쿠다.(제사 때, 소상 때 같은 때는 절편, 송편 안 해서 그거 절편, 확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107069 @ 술벤?(‘술벤’?)

107069 #2 술변, 중궤, 약궤.(‘술변’, ‘중궤’, ‘약궤’.)

107069 @ 중궤, 약궤.(‘중궤’, ‘약궤’.)

107069 #2 예, 그거 허영 큰 시부모 ㄴ튼 거.(예, 그거 해서 큰 시부모 같은 거.)

107069 @ 식게 때도 중궤, 약궤 해낫수가?(제사 때도 ‘중궤’, ‘약궤’ 했었습니까?)

107069 #2 예, 저 큰 식게덜은 그거허곡, 소소한 식게덜은 새미 하나만 줍아근에 행 먹읍니다.(예, 큰 제사들은 그거하고, 소소한 제사들은 ‘새미’ 하나만 접어서

267) ‘ㄴ는대구덕’은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로 엮어 만든 큰 바구니이다.

268) ‘술변’은 반월형의 떡살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이다.

269) ‘중궤’는 좁쌀가루나 메밀가루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이다.

270) ‘약궤’는 좁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구멍 다섯을 내고 기름에 지지거나 삶아낸 떡이다.

271) ‘새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새미’라고도 한다.

해서 먹습니다.)

107069 @ 새미 하나만.(‘새미’ 하나만.)

107069 #2 예, 송편이나 새미나 흰 곳만 허영 떡국 경 햇수다게.(예, 송편이나 ‘새미’나 한 곳만 해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107069 @ 그때는 큰 식게, 작은 식게가 잇었수가?(그때는 큰 제사, 작은 제사가 있었습니까?)

107069 #2 예, 예, 경 햇수다게. 또 가마귀 모른 식게엔 흰 건 예를 들엉 혼자 살당 돌아가신 분 그든 딴 가마귀 모른 식게엔 허영 묵만도 지정 허영 떡국.(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 까마귀 모른 제사라고 한 건 예를 들어서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분 같은 데는 까마귀 모른 제사라고 해서 묵만도 지져서 해서 먹고.)

107069 @ 묵만 지정도 행 먹어났구나예.(묵만 지져서도 해서 먹었었군요.)

107069 #2 예.(예.)

107069 @ 거난 이제 식게 때는 묵, 묵 허고.(그러니까 이제 제사 때는 묵, 묵 하고.)

107069 #2 묵 허고.(묵 하고.)

107069 @ 그다음에 중괘, 약괘.(그다음에 ‘중괘’, ‘약괘’.)

107069 #2 중괘, 약괘, 절편, 술변, 중괘, 약괘, 그추룩 시리떡, 시리떡.(‘중괘’, ‘약괘’, 절편, ‘술변’, ‘중괘’, ‘약괘’, 그처럼 시루떡, 시루떡.)

107069 @ 그다음에 상웨떡?(그다음에 ‘상웨떡’?)

107069 #2 상웨떡도 허곡, 시리떡도 허곡.(‘상웨떡’도 하고, 시루떡도 하고.)

107069 @ 아, 시리떡도 허고.(아, 시루떡도 하고.)

107069 #2 큰 식게덜은 그 상웨떡이엔 흰 건 동네 늑누젠 허난 허는 거고.(큰 제사들은 그 ‘상웨떡’이라고 한 건 동네 나누려고 하니까 하는 거고.)

107069 @ 거난 여기서는 기주떡이엔 햄신게예.(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주떡이라고 하고 있네요.)

107069 #2 예, 여긴 기주떡, 그거허고 그 기주떡은 동네에 늑누젠 허곡.(예, 여긴 ‘기주떡’, 그거하고 그 ‘기주떡’은 동네에 나누려고 하고.)

107069 @ 동네 다 나뉘는가?(동네 다 나뉘습니까?)

107069 #2 다, 반은 다 줬수게. 흰 반에, 저 먼 반더렌 안 줘도 이녁 골목은 쪽 허게 데왔수다.(다, 반은 다 줬습니다. 한 반에, 저 먼 반으로는 안 줘도 이녁 골목은 쪽 하게 태웠습니다.)

107069 @ 막 그 떡 먹젠덜 기다리고.(막 그 떡 먹으려고들 기다리고.)

107069 #2 기다립니다다게.(기다립니다.)

107069 @ 기다리는 사름덜도 잇어.(기다리는 사람들도 잇어.)

107069 #2 예, 밤이 또 식게 먹어나민, 식게행 먹어나민 밤 열두 시 돼도 동네 밥 다 가져가곡 경 햇수다.(예, 밤에 제사 먹어나면, 제사해서 먹어나면 밤 열두 시 돼도 동네 밥 다 가져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107069 @ 어르신덜안티는 술도 줌.(어르신들한테는 술도 줌.)

107069 #2 술 혼 병 놓곡, 고기 혼 고지 주젠 허민 혼 고진 엇고 적갈 혼 점 빼 영 떡이영 놔근에 어르신신디 ㄴ져갓수게.(술 한 병 넣고, 고기 한 꼬챙이 주려고 하면 한 꼬챙이는 없고 적 한 점 빼어서 떡이랑 놔서 어르신에게 가져갔습니다.)

107069 @ 옛날은 저 뭐냐, 요 돛케기도 요 보말만씩 헛어, 보말만씩.(옛날은 저 뭐냐, 요 돼지고기도 요 고등만큼씩 헛어, 고등만큼씩.)

107069 #2 예게.(예.)

107069 @ 게난 돛케기 혼 근이민 식게 혼 번 헛댕 허난게.(그러니까 돼지고기 한 근이면 제사 한 번 했다고 하나까요.)

107069 #2 무사 아이파게? 그땐 돛케기 혼 점도 어른이난 먹엇주, 아이덜은 줬수가? 안 줬주.(왜 아십니까? 그땐 돼지고기 한 점도 어른이니까 먹엇지, 아이들은 줬습니까? 안 줬지.)

107069 @ 재수 엇이민 반, 반에 돛케기 엇어.(재수 없으면 반, 반에 돼지고기 없어.)

107069 #2 에깝게도 요멘씩 끈영 쥘, 쥐십주. 호호호.(웃음)(아깝게도 요만큼씩 끊어서 줬어, 줬습지요. 호호호.(웃음))

107069 @ 안 보여, 안 보여.(안 보여, 안 보여.)

107069 #2 호호호, 아이고.(호호호, 아이고.)

107069 @ 재수 엇이민 기름 하나 엇입니다, 기름 하나.(재수 없으면 기름 하나 없습시다, 기름 하나.)

107069 #2 호호호.(웃음) 아이고, 정말이우다.(호호호.(웃음) 아이고, 정말입니다.)

107070 @ 그다음에 상례 때 떡은 어떤 것덜이 잇수가? 저 거난 소상, 대상?(그다음에 상례 때 떡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 그러니까 소상, 대상?)

107070 #2 소상, 대상이나 식게, 큰 식게나 떡은 똑ㄴ타마씨. 저 시리떡, 중괘, 약괘, 절편, 술변, 중괘, 약괘 그거, 그거허곡 그 상웨떡이엔 현 건 동네 느냥, 동네에 느냥 하영 먹젠 현 거고, 올리는 건 시리떡, 절편, 술변, 중괘, 약괘, 이거는 상에 올리곡 허젠 역불 큰 걸로 허영 네중에 제사 끝나민 갈랑덜 먹고.(소상, 대상이나 제사, 큰 제사나 떡은 똑같아요. 저 시루떡, ‘중괘’, ‘약괘’, 절편, ‘술변’, ‘중괘’, ‘약괘’ 그거, 그거하고 그 ‘상웨떡’이라고 한 건 동네 나눠서, 동네에 나눠서 많이 먹으려고 한 거고, 올리는 건 시루떡, 절편, ‘술변’, ‘중괘’, ‘약괘’, 이거는 상에 올리고 하려고 일부러 큰 것으로 해서 나중에 제사 끝나면 갈라서들 먹고.)

107070 @ 겐디 중괘, 약괘는 상례 때허고, 묘제 때 올리는 거 아니우짱?(그런데 ‘중괘’, ‘약괘’는 상례 때하고, 묘제 때 올리는 거 아십니까?)

107070 #2 묘제 때도, 큰 식게 때도 우린 늘 허연 먹언.(묘제 때도, 큰 제사 때도 우린 늘 해서 먹엇어.)

107070 @ 중괘, 약괘를?(‘중괘’, ‘약괘’를?)

107070 #2 예, 켜 올렸수다.(예, 그래서 올렸습니다.)

107070 @ 나가 알기로는.(내가 알기로는.)

107070 #2 경, 경 안 허믄 요즘은 허젠 허민양 중궤, 약궤 잘 아녕 절변, 술변, 저 들 반착 떡허고, 곤떡 두 개 부찌는 거.(그렇게, 그렇게 안 하면 요즘은 하려고 하면 ‘중궤’, ‘약궤’ 잘 안 해서 절편, ‘술변’, 저 달 반쪽 떡하고, 흰떡 두 개 붙이는 거.)

107070 @ 음.(음.)

107070 #2 요즘더렌 간단허게.(요즘은 간단허게.)

107070 @ 거난 그 저 것이 절변입주.(그러니까 그 저 그것이 절편이지요.)

107070 #2 예, 계난 그거만 요즘은양 험니다게.(예, 그러니까 그거만 요즘은 합니다.)

107070 @ 그거 절변이고, 그 술섭 우티 반달 모양으로 현 것은 술변이고.(그거 절편이고, 그 술잎 위에 반달 모양으로 한 것은 ‘술변’이고.)

107070 #2 예, 예, 그거 반달, 반달, 요즘은 반달만이 현 거 그런 거 간단이 허는 사름도 십니다.(예, 예, 그거 반달, 반달, 요즘은 반달만큼 한 거 그런 거 간단히 하는 사름도 있습니다.)

107070 @ 거난 중궤는, 중궤는 므말로 헤근에.(그러니까 ‘중궤’는, ‘중궤’는 메밀로 해서.)

107070 #2 예.(예.)

107070 @ 네귀방장허게 헤근에.(네모반듯허게 해서.)

107070 #2 네모나게 허곡, 소롬허게 허곡.(네모나게 하고, 가름허게 하고.)

107070 @ 곁냥 네 개 영 뜰르곡.(구멍 네 개 이렇게 뚫고.)

107070 #2 곁망은 안 뜰릅니다.(구멍은 안 뚫습니다.)

107070 @ 그다음에 약궤는 좀 길쭉헌 거 닻고.(그다음에 ‘약궤’는 좀 길쭉헌 거 같고.)

107070 #2 예, 그 길쭉헌, 우리 밧으로 말허믄 멩에고.(예, 그 길쭉헌, 우리 밧으로 말하면 밧머리고.)

107070 @ 아, 계민.(아, 그러면.)

107070 #2 밧으로 말허민 멩에고.(밧으로 말하면 밧머리고.)

107070 @ 약궤가 멩에라?(‘약궤’가 밧머리아?)

107070 #2 예, 네모난 거는 밧 모양이고.(예, 네모난 거는 밧 모양이고.)

107070 @ 아.(아.)

107070 #2 또 들 반착은.(또 달 반쪽은.)

107070 @ 아, 거 처음 듣는 말이네.(아, 그거 처음 듣는 말이네.)

107070 #2 들 반착은 저 들이고, 저 동글락헌 건 헤고.(달 반쪽은 달이고, 저 동그란 건 헤고.)

107070 @ 아, 거난 절변은.(아, 그러니까 절편은.)

107070 #2 예, 예, 다 그거 의미가 잇는 거우다.(예, 예, 다 그거 의미가 잇는 것  
입니다.)

107070 @ 절벤은 해고.(절편은 해고.)

107070 #2 들 반착은.(달 반쪽은.)

107070 @ 솔벤은 달이고.(‘솔벤’은 달이고.)

107070 #2 저, 달이고.(저, 달이고.)

107070 @ 그다음에.(그다음에.)

107070 #2 네모난 거는 밧이고.(네모난 것은 밧이고.)

107070 @ 거난 중케는?(그러니까 ‘중케’는?)

107070 #2 밧이고.(밧이고.)

107070 @ 밧이고.(밧이고.)

107070 #2 또.(또.)

107070 @ 약케는?(‘약케’는?)

107070 #2 멩에고.(밭머리고.)

107070 @ 멩에고.(밭머리고.)

107070 #2 예, 거 다 의미가 잇는 거우다.(예, 거 다 의미가 잇는 것입니다.)

107070 @ 이, 나 이거 처음 잘 들엄수다.(이, 나 이거 처음 잘 듣고 있습니다.)

107070 #2 나도 우리 시아버님이 사람이 막 좋곡, 글도 좋곡, 그런 거 유식헌  
어른이우다게. 게난 시아방안티 들어십주. 이진 무사 영 허렌 험수가 허난.(나도 우  
리 시아버님이 사람이 아주 좋고, 글도 좋고, 그런 거 유식한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들었습지요. 이진 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107070 @ 거난 다 이유가 잇어, 이유가.(그러니까 다 이유가 잇어, 이유가.)

107070 #2 예, 의미가, 그거.(예, 의미가, 그거.)

107070 @ 그거 의미가 다 잇는 거.(그거 의미가 다 잇는 거.)

107070 #2 잇는 거마썸게, 게난 그 소롬허게 므멸 떡으로 요렇게 헌 건, 이진  
멩에고, 게난 떡도 올릴 때에 시리떡 다음에, 그저 무신, 시리떡 다음, 네모난 걸 그  
저 시리떡 위에 깔아놔 그다음엔 들 반착을.(잇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름하게 메밀  
떡으로 요렇게 한 건, 이진 밧머리고, 그러니까 떡도 올릴 때에 시루떡 다음요, 그  
저 무슨, 시루떡 다음, 네모난 걸 그 저 시루떡 위에 깔아놔서 그다음에 달 반쪽  
을.)

107070 @ 그 순서가 잇어, 순서가.(그 순서가 잇어, 순서가.)

107070 #2 순서가예, 질 우에 동글락헌 거, 그거 질 우에 놓니께. 게난 그걸 우  
리 시아버님이 이거 영 영 허고 영 영 허는 거여 허멍 시겨줍디다게. 경 허연 알아  
십주. 호호호.(웃음)(순서가요, 쥬 위에 동그란 거, 그거 쥬 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아버님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시켜줍디다. 그렇게 알았습지요. 호호호.(웃음))

107070 @ 게민 저 침떡은 뵤고, 게민 침떡은?(그러면 저 시루떡은 뵤인가, 그러

면 시루떡은?)

107070 #2 침, 침떡은 그, 그거.(시, 시루떡은 그, 그거.)

107070 @ 이유가 잇일 거라, 이유가.(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107070 #2 그것도 이유가 잇어양, 그 말은 안 들었수다, 난.(그것도 이유가 있어  
요, 그 말은 안 들었습니다, 난.)

107071 @ 그다음에 설기떡 알아지쿠가?(그다음에 백설기 알겠습니까?)

107071 #2 설기떡.(백설기.)

107071 @ 이것이 새미떡인가?(이것이 '새미떡'인가?)

107071 #2 설기떡이 새미떡 닮수다양.(백설기가 '새미떡' 같습니다.)

107071 @ 설기떡이.(백설기가.)

107071 #2 예, 게 떡이엔 현 게 그거하고 송편하고벧긴 더 잇수가?(예, 그래 떡  
이라고 한 게 그거하고 송편하고밖에는 더 잇습니까?)

107071 @ 예, 거난에 새미떡 닮아 베어양. 게민 그 새미떡에 대허영 혼번 곶아  
줍서. 재료가 뭐우파? 새미떡.(예, 그러니까 '새미떡' 같아 봐어요. 그러면 그 '새미  
떡'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재료가 뭐입니까? '새미떡'.)

107071 #2 새미떡은게 곤쫄 물 등강 곶아당 반죽 막 쨍 송편 허듯이 그 저 새  
미는 요추룩 현 거 안반 큰 거 셔낫수다.('새미떡'은요 흰쌀 물 담가서 갈아다가 반  
죽 마구 쨍서 송편 하듯이 그 저 '새미'는 요처럼 한 거 안반 큰 거 잇었습니다.)

107071 @ 거난 어떤 모양으로 쉐긴 거우파? 새미떡은.(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쉐긴 것이니까? '새미떡'은.)

107071 #2 저 모릅니깡? 그 저.(저 모릅니까? 그 저.)

107071 @ 둥근 달?(둥근 달?)

107071 #2 둥근 달그쨍 끈어 낱.(둥근 달같이 끊어 놔서.)

107071 @ 아, 그 저 당에 갈 때 허는 건가?(아, 그 저 당에 갈 때 하는 건가?)

107071 #2 당에 갈 땐 동글락하게 만들양 가고, 저 우리 주전자 잇지양, 주전자  
뚜껑으로 딱 땡 그 두 개 딱 모이민 반달 모양입주게, 그것이 새미. 경 그 속에 담  
은 것이 새미, 똑똑 줍양.(당에 갈 땐 동그랗게 만들어서 가고, 저 우리 주전자 잇  
지요, 주전자 뚜껑으로 딱 떠서 그 두 개 딱 모이면 반달 모양이지요, 그것이 '새  
미'. 그렇게 그 속에 담은 것이 '새미', 똑똑 접어서.)

107071 @ 주전자 뚜껑으로 영 찰른 거.(주전자 뚜껑으로 이렇게 자른 거.)

107071 #2 예, 찰랑.(예, 잘라서.)

107071 @ 그거 달 모양 아니우파? 그거.(그거 달 모양 아닙니까? 그거.)

107071 #2 달 모양, 게난 그거 두 개 부쨍, 그 속에 쉬 담양 허믄.(달 모양, 그  
러니까 그거 두 개 붙여서, 그 속에 소 담아서 하면.)

107071 @ 그 저 호떡, 호떡 닮은 거네예.(그 저 호떡, 호떡 같은 거네요.)

107071 #2 예, 그추룩 허는 거마씨예. 호떡 아니, 호떡은 넘작허주게. 겐디 새미  
는 반달 모양, 영 허민 포개지주게, 쉬 담양.(예, 것처럼 하는 거지요. 호떡 아니, 호

떡은 넓적하지요. 그런데 ‘새미’는 반달 모양, 이렇게 하면 포개지지요, 소 담아서.)

107071 @ 아, 거난 송편보다 막 큰 거구나.(아, 그러니까 송편보다 아주 큰 거구나.)

107071 #2 예, 송편보단 큰 거.(예, 송편보다는 큰 거.)

107071 @ 막 큰 거.(아주 큰 거.)

107071 #2 큼주게.(크지요.)

107071 @ 아.(아.)

107071 #2 송편은 동글락허게 요멘씩 허곡, 새미는 요렇게 소름.(송편은 동그략게 요만큼씩 하고, ‘새미’는 요렇게 가름.)

107071 @ 아, 게난 반달 모양 생긴 것이 옛날 헛고, 동글락헌 건 이제야 만드는 거.(아, 그러니까 반달 모양 생긴 것이 옛날 헛고, 동그란 건 이제야 만드는 거.)

107071 #2 예, 게난 새미 주전자 뚜껑으로 툇툇툇 잘라놔근에 그 속에 쉬 담앙 영 영 영 찌서 찢니께, 게난 새미떡 헛 때엔 새미떡허고 시리떡만 헛도 올린다는 말이우다. 큰 식계에는 아까초록 절편, 솔변, 중괘, 약괘 다 허고.(예, 그러니까 ‘새미’는 주전자 뚜껑으로 툇툇툇 잘라놔서 그 속에 소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찌서 찢니다, 그러니까 ‘새미떡’ 할 때엔 ‘새미떡’하고 시루떡만 해서도 올린다는 말입니다. 큰 제사는 아까처럼 절편, ‘솔변’, ‘중괘’, ‘약괘’ 다 하고.)

107072 @ 그다음에 인절미 멩글안 먹엇지양?(그다음에 인절미 만들어서 먹엇지요?)

107072 #2 은절미 만들안 먹어십주게.(인절미 만들어서 먹엇습지요.)

107072 @ 인절미.(인절미.)

107072 #2 은절, 은절미가 이제 손으로 만들앙 동글락허게 옛날 할망당<sup>272)</sup>에 가젠 허민 그것이 인절미 아이우파?(인절, 인절미가 이제 손으로 동그략게 옛날 ‘할망당’에 가력고 하면 그것이 인절미 아넵니까?)

107072 @ 그거는 확실히 인절미양?(그거는 확실히 인절미요?)

107072 #2 은절미 막.(인절미 마구.)

107072 @ 인절미는 요즘 뉘파, 개역 놓고 잘라근에, 개역 놓곡 헛 게 인절미 아닌가?(인절미는 요즘 뉘입니까, 미숫가루 넣고 잘라서, 미숫가루 넣고 한 게 인절미 아닌가?)

107072 #2 चु쌀, चु쌀.(잡쌀, 잡쌀.)

107072 @ चु쌀 우티, 그 저 우에.(잡쌀 위에, 그 저 위에.)

107072 #2 그 저 찌근에 막 영 허여근에 잘랑.(그 저 찌서 마구 이렇게 해서 잘라서.)

107072 @ 예, 잘랑.(예, 잘라서.)

107072 #2 요멘씩 잘라근에 헛 거 맞수다양.(요만큼씩 잘라서 한 거 맞습니다.)

107072 @ 그것이, 양.(그것이, 예.)

272) ‘할망당’은 마을을 맡아 지킨다는 여신을 모신 곳을 말한다.



107072 #2 그거 이제도 헨 먹엄십주게. 썩떡도 그처럼 허영 떡곡.(그거 이제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썩떡도 것처럼 해서 먹고.)

107072 @ 그 당에 갈 때 동글락헌 거 떡 이름은 모르크라, 잊어불엇져.(그 당에 갈 때 동그란 거 떡 이름은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107072 #2 나도 그거 잊어불고.(나도 그거 잊어버리고.)

107072 @ 그 소금 엇인 떡.(그 소금 없는 떡.)

107072 #2 소금 엇인 떡.(소금 없는 떡.)

107072 @ 므멀허고 곤썰ㄴ루 행.(메밀하고 흰쌀가루 해서.)

107072 #2 곤썰ㄴ루로, 그것이 맛 좋게, 우리도.(흰쌀가루로, 그것이 맛 좋게, 우리도.)

107072 @ 아이, 거 소금 엇인 떡.(아니, 거 소금 없는 떡.)

107072 #2 할망당에 우리도 늘 다녀낫수다게.(‘할망당’에 우리도 늘 다녔었습니다.)

107072 @ 거 맛 좋지 안 험니다, 소금 엇인 떡이난.(거 맛 좋지 않습니다, 소금 없는 떡이니까.)

107072 #2 게도 이젠 밧디 나물 싱글 때양 판 건 든 거 놓민 안 먹어도 그건 행 가민 잘 먹읍니다게. 그거 보고, 손으로 만든 거, 동글락허곡.(그래도 이젠 밧에 나물 심을 때요 판 건 단 거 안 먹어도 그건 해서 가면 잘 먹읍니다. 그거 보고, 손으로 만든 거, 동그랑고.)

107072 @ 아, 게난 알아나신디 이제 원 잊어불어신게.(아, 그러니까 알았었는데 이제 원 잊어버렸어.)

107072 #2 아이고, 나도 모르쿠다게. 아녀 가난 어디.(아이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안 해 거니까 어디.)

107072 @ 맞수다게. 나도 일 년에 혼 번 해 가난.(맞습니다. 나도 일 년에 한번 해 가니까.)

107072 #2 아, 아까 저 그 무슨 떡이 그것이 맞아베엄수다.(아, 아까 그 무슨 떡이 그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107072 @ 인절미?(인절미?)

107072 #2 은절미, 은절미만 강 만들어 오라, 오라 허여근에.(인절미, 인절미만 가서 만들어 오라, 오라 해서.)

107072 @ 아, 인절미는 이제도 막 멩글양 먹어양.(아, 인절미 이제도 마구 만들어서 먹어요.)

107072 #2 아이, 게도 저기 썩 놓곡 만들안, 봄인 제허영 먹지 아니헨 ㄴ만이 냉동실에 잇수다. 혼번도 안 먹어봤지양. 나 주지도 안 헛수다, 진짜. 셔 저기, 호호호.(웃음)(아니, 그래도 저기 썩 넣고 만들어서, 봄에는 제사해서 먹지 않아서 가만히 냉동실에 있습니다. 한번도 안 먹어봤지요. 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있어 저기, 호호호.(웃음))

107073 @ 그다음에 절편에 대해서 알아줍서.(그다음에 절편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73 #2 절편?(절편?)

107073 @ 절벤, 절벤.(절편, 절편.)

107073 #2 절변이 아까게.(절편이 아까요.)

107073 @ 절변, 절변.(절편, 절편.)

107073 #2 절변, 슬변 현 것이 절변이 그거주게.(절편, ‘슬변’ 한 것이 절편이 그거지요.)

107073 @ 그거는 아까 말했주만은 곤쌀ㄱ루 있어야 되고.(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흰쌀가루 있어야 되고.)

107073 #2 예, 곤쌀ㄱ루로 만든 거, 곤쌀ㄱ루로 저 이추록 만들앙, 옛날에 절변본<sup>273</sup>이 잇엇수다.(예, 흰쌀가루로 만든 거, 흰쌀가루로 저 이처럼 만들어서, 옛날에 ‘절변본’이 있었습시다.)

107073 @ 게 영 찍는 거.(그래 이렇게 찍는 거.)

107073 #2 찍는 거, 그걸로 허영 문딱 툃툃 찍영, 그것이 솔섭 놈근에 찌는 거 마씨. 그것이, 그거 허여근에 솔섭 징 징 놈근에 찌는 거, 그거.(찍는 거, 그걸로 해서 모두 툃툃 찍어서, 그것이 솔잎 놈서 찌는 거지요, 그것이. 그거 해서 솔잎 켜 켜 놈서 찌는 거, 그거.)

107073 @ 거난 절변허고 슬변은 이 솔섭 물리왓다근에.(그러니까 절편하고 ‘슬변’은 이 솔잎 말렸다가.)

107073 #2 예.(예.)

107073 @ 거 놈근에 찌는 거고.(거 놈서 찌는 거고.)

107073 #2 게고 솔섭을 낱 찌면, 왜 찌는고 허난, 게 아니른 새도 좋곡, 그 솔, 송진 것도 먹는 거니까 사름에 좋덴 허연 깨끗헌 거엔 허연, 그걸 놓게 쁘 거우다.(그리고 솔잎을 놈서 찌면, 왜 찌는고 하니까, 게 아니면 띠도 좋고, 그 솔, 송진 것도 먹는 거니까 사름에 좋다고 해서 깨끗헌 거라고 해서, 그걸 놓게 된 것입니다.)

107073 @ 그거 반드시 식게 꺾나난 다음에는 또 시청은에 물리왕 놈두고 했어.(그거 반드시 제사 끝난 다음에는 또 씻어서 말려서 놈두고 했어.)

107073 #2 예, 예, 경 허는 거우다게.(예,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7073 @ 거난 이 절변 보면은 이 대정 쪽허고 시에 쪽은.(그러니까 이 절편 보면은 이 대정 쪽하고 시에 쪽은.)

107073 #2 틀려양.(달라요.)

107073 @ 이 동글락허게 멩글앙 두 개를 영 부찌는 디, 두 개를 부찌근에 영.(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데,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107073 #2 놀령.(놀러서.)

107073 @ 그 찍는 거를 뤼엔 현다만은.(그 찍는 거를 뤼라고 한다만.)

273) ‘절편본’은 원형의 떡인 절편을 만드는 떡살이다.

107073 #2 저 영.(저 이렇게.)

107073 @ 앞뒤로.(앞뒤로.)

107073 #2 앞뒤로 찍는다, 겐디 시에렌 웨, 웨로.(앞뒤로 찍는데, 그런데 시에로는 외, 외로.)

107073 @ 웨, 웨, 하나, 하나.(외, 외, 하나, 하나.)

107073 #2 하나, 하나.(하나, 하나.)

107073 @ 거 시에 가 잘 살아나신디, 우리 집이 절편은 거의 다 두 겐디.(거 시에 가 잘 살았었는데, 우리 집에 절편은 거의 다 두 개인데.)

107073 #2 시에는 하나로 허곡, 여기는 꼭 두 개로 허고.(시에는 하나로 하고, 여기는 꼭 두 개로 하고.)

107073 @ 모양도 없어, 저 시에 거는.(모양도 없어, 저 시에 거는.)

107073 #2 겐디 그걸 들었수가게. 이유가 뭐우겐 들질 안 헐.(그런데 그걸 들었습니까. 이유가 뭐입니까 듣지를 았았어.)

107073 @ 시에는 헐나라.(시에는 하나야.)

107073 #2 예, 헐나 맞수다, 헐나.(예, 하나 맞습니다, 하나.)

107073 @ 헐나벳기 엇인 거.(하나밖에 없는 거.)

107073 #2 예, 하나, 압곡.(예, 하나, 았고.)

107073 @ 거 찍는 것도 엇고.(거 찍는 것도 없고.)

107073 #2 예, 맞수다, 시엔 하나가 맞수다. 이렌양 하나 허는 사름이 엇수다.(예, 맞습니다, 시엔 하나가 맞습니다. 이리로는요 하나 하는 사름이 없습디다.)

107073 @ 그 동네가 잘 살아실 건디.(그 동네가 잘 살았을 것인데.)

107073 #2 꼭 두 개 부쩌근에 요만씩 허게 허영 두 개 부짱 꼭 눌르민양.(꼭 두 개 붙여서 요만큼씩 하게 해서 두 개 붙여서 꼭 누르면요.)

107073 @ 예.(예.)

107073 #2 웨어마씨, 호호호.(웃음)(돼요, 호호호.(웃음))

107073 @ 아이, 이제는 떡 만드는 디서 것도 다 멩급디다.(아니, 이제는 떡 만드는 데서 것도 다 만듭디다.)

107073 #2 다 경 만듭디다. 이젠 게난 집이서 떡 허는 사름이 엇입디다게.(다 그렇게 만듭디다. 이젠 그러니까 집에서 떡 하는 사름이 없습디다.)

107073 @ 예.(예.)

107073 #2 다 돈만 쥘 놔두민 착착 허영.(다 돈만 쥐서 놔두면 착착 해서.)

107073 @ 우리도 이 큰 식게는 절편, 솔벤 험주게.(우리도 이 큰 제사는 절편, '솔벤' 하지요.)

107073 #2 예게, 우리도 꼭 시하르방 식게허고 시어멍, 시아방 식게는 꼭 그거 험니다.(예, 우리도 꼭 시할아버지 제사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사는 꼭 그거 험니다.)

107073 @ 건디 요즘 아이덜은 절편, 솔벤 안 먹어.(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절편,

‘솔벤’ 안 먹어.)

107073 #2 맛어진 거옌게. 요즘 찹쌀 ㄱ튼 거 맛 좋은 거나 허믄 하나 먹어도 안 먹읍니다.(맛없는 거라서요. 요즘 찹쌀 같은 거 맛 좋은 거나 하면 하나 먹어도 안 먹읍니다.)

107073 @ 나 이거 가져오면은 솔벤, 절편은 쪼끔 달라야, 쫄 달라야 씹는 맛이 있어.(나 이거 가져오면은 ‘솔벤’, 절편은 조금 말라야, 쫄 말라야 씹는 맛이 있어.)

107073 #2 호호호,(웃음) 들킴허영양.(호호호,(웃음) 달콤해서요.)

107073 @ 예.(예.)

107073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74 @ 그다음에 솔벤, 솔벤에 대해서 말해줍서. 이거 저 이것도 영 쪼근에 영 밀어근에.(그다음에 그 ‘솔벤’, ‘솔벤’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이거 저 이것도 이렇게 쪼서 이러헤 밀어서.)

107074 #2 밀어근에.(밀어서.)

107074 @ 영 반달 모양으로 영 쫄로 쫄 것이 잇어났어.(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쇠로 된 것이 있었어.)

107074 #2 예, 그거.(예, 그거.)

107074 @ 그거 허영.(그거 해서.)

107074 #2 영 쪼어근에, 탁탁 쪼으민 반달 모양 나옵니다. 경허민 그거 솔섭에 낱 쪼만 허영 쪼민 떡이 다 쫄 겁주.(이렇게 쪼어서, 탁탁 쪼으면 반달 모양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솔잎에 놔서 쪼기만 해서 쪼면 떡이 다 된 거지요.)

107074 @ 그 우티 찹지름 불르곡.(그 위에 찹기름 바르고.)

107074 #2 예, 찹기름 그자 다 불라마씨. 찹기름은, 곤떡에 대허영은 찹기름 쫄 불라.(예, 찹기름 그저 다 발라요. 찹기름은, 흰떡에 대해서는 찹기름 쫄 발라.)

107074 @ 거난 그 저 안반에서 멩글지양?(그어니까 그 저 안반에서 만들지요?)

107074 #2 예, 요런 안반에서.(예, 요런 안반에서.)

107074 @ 안반. 아이고, 이거 안반 좋은 거 잇네, 이거.(안반. 아이고, 이거 안반 좋은 거 잇네, 이거.)

107074 #2 예, 이 안반 허영 저런 저런 다듬이 시민양 저 다듬이로 밀민 막 잘 밀어집니다.(예, 이 안반 해서 저런 저런 다듬이 있으면요 저 다듬이로 밀면 아주 잘 밀어집니다.)

107074 @ 이거 낱은 무슨 낱이우짜?(이거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107074 #2 무슨 낱산디 모르쿠다. 우리 하르방<sup>274</sup> 어디 간에 만들어 와선게.(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르방’ 어디 가서 만들어 왔던데.)

107074 @ 거난 안반 좋은 건게.(그러니까 안반 좋은 거네요.)

107074 #2 만들어 온 지가 우리 하르방 혼 오 년 웨어실 거라, 어디 대정골 그 배 만드는 공장에 간에 만들어 오구렌 허명, 경 만들어 와십디다게.(만들어 온 지가

274)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우리 ‘하르방’ 한 오 년 됐을 거야, 어디 대정골 그 배 만드는 공장에 가서 만들어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왔습디다.)

107075 @ 아이, 좋은 건계. 그다음에 웃기떡 알아지지양? 웃기떡에 대해서 글아 줘서.(아니, 좋은 거네요. 그다음에 웃기떡 알지요? 웃기떡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75 #2 웃지떡이엔 현 건, 건 계란.(웃기떡이라고 한 건, 건 계란.)

107075 @ 계란, 저.(계란, 저.)

107075 #2 계란 지저근에 것도 그냥 동글락허게 허믄양, 꽃 모양으로.(계란 지저서 것도 그냥 동그렇게 하면요, 꽃 모양으로.)

107075 @ 기름떡이주, 기름떡, 웃기떡이 기름떡.(기름떡이지, 기름떡, 웃기떡이 기름떡.)

107075 #2 예. 기름떡으로 허주만은 여긴 기름떡으로 아녀근에 계란으로 허영 영 웃직, 웃직이엔 험니다.(예. 기름떡으로 하지만 여긴 기름떡으로 안 해서 계란으로 해서 이렇게 웃기떡, 웃기떡이라고 합니다.)

107075 @ 웃직, 웃직.(웃기떡, 웃기떡.)

107075 #2 계란으로 지집니다.(계란으로 지집니다.)

107075 @ 계란 그 저 절변 우에 놓는 거 아니우파양?(그러니까 그 저 절편 위에 놓는 거 아닙니까?)

107075 #2 예, 절변 우에 영 툃툃, 젤 우에.(예, 절편 위에 이렇게 툃툃, 젤 위에.)

107075 @ 얹지랑헌 거, 그거 닻아.(얹직한 거, 그거 같아.)

107075 #2 예, 예, 겐디 여긴 웃직 계란으로 해 지집니다.(예, 예, 그런데 여긴 웃기떡 계란으로 많이 지집니다.)

107075 @ 계란으로 지정 어떤 사람은 고사리도 영 낱 지지곡, 경 아니헌 사람은 꽃 모양 영 허영, 영 허게 허영도 지지고. 경 허영 웃직으로 놓니다.(계란으로 지저서 어떤 사람은 고사리도 이렇게 놔서 지지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꽃 모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해서도 지지고, 그렇게 해서 웃기떡으로 놓습니다.)

107075 #2 큰 식게 땀 웃직은 무조건 지저야마씨.(큰 제사 땀 웃기떡은 무조건 지저야지요.)

107075 @ 웃직.(웃기떡.)

107075 #2 웃직 꼭 지집니다, 우리도.(웃기떡 꼭 지집니다, 우리도.)

107076 @ 이 고사허고 아까 말헤신디 그 당에 가지고 가는 떡, 그거 저 뉘네.(이 고사하고 아까 말했는데 그 당에 가지고 가는 떡, 그거 뉘네.)

107076 #2 돌레떡<sup>275</sup>, 돌레떡.(‘돌레떡’, ‘돌레떡’.)

107076 @ 돌레떡, 다데<sup>276</sup>?(‘돌레떡’, ‘다데’?)

107076 #2 돌레떡, 돌레떡이엔 험니다.(‘돌레떡’, ‘돌레떡’이라고 합니다.)

275)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동그렇게 만든 떡이다.

276) ‘다데’는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는 동글납작한 떡이다.

107076 @ 예, 돌레떡.(예, ‘돌레떡’.)

107076 #2 돌레떡, 거 손으로 영 영 영 허멍 만들앙, 동글락허게 만들아근에.  
(‘돌레떡’, 거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서, 동그략게 만들어서.)

107076 @ 거 어떻 멩급니까? 그거.(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

107076 #2 게 그것도 저 곤쫄 물 등강 곶아당.(그래 그것도 저 흰쌀 물 담가서  
갈아다가.)

107076 @ 마찬가지로, 건 손으로만 만들지?(마찬가지, 건 손으로만 만들지?)

107076 #2 건 손으로만 만들아근에 물에 낱, 팔팔 끌으는 물에 들이청 슻읍니  
다. 경 허영 식혀근에 아무것도 아니 무청, 기름도 아니 무청.(건 손으로만 만들어  
서 물에 놔서, 팔팔 끓는 물에 들이쳐서 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혀서 아무것도 안  
무쳐서, 기름도 안 무쳐서.)

107076 @ ㄹ루, ㄹ루는 그거 아니우짱? ㄹ뎨 ㄹ루허곡 쫄 ㄹ루허곡 허더라고.(가  
루, 가루는 그거 아닙니까? 메밀가루하고 쌀가루하고 하더라고.)

107076 #2 예, ㄹ뎨 ㄹ루로도 만들앙 가져가는 사름 싯곡, 쫄 ㄹ루도 만들앙 가져  
가는 사름 싯곡 경 험니다. 이젠 할망당에 안 다닙니다게, 이젠. 아무도 안 다닙니  
다.(예, 메밀가루로도 만들어서 가져가는 사람 있고, 쌀가루로도 만들어서 가져가는  
사람 있고 그렇게 합니다. 이젠 ‘할망당’에 안 다닙니다, 이젠. 아무도 안 다닙니다.)

107076 @ 아, 우리 동넨.(아, 우리 동네는.)

107076 #2 다니는 거 닻읍니까?(다니는 거 같습니까?)

107076 @ 우린 흐 멨 년 전까지는 나이 드신 분덜 다녔선게 이 젊은 사름덜은  
잘 안 뎡기는 거 닻아마씨.(우린 한 몇 년 전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 다니고 있던데  
이 젊은 사름들은 잘 안 다니는 거 같아요.)

107076 #2 아이고, 이 저 이 동넨 흐 사름도, 나도양 저 우리 아이덜 고등학교  
뎡일 때까지 다녔수다. 대학 다니기 시작허난 이 동네 사름 전체가 안 다녀가난양,  
길이 거기 자왈 돼불언마씨.(아이고, 이 저 이 동넨 한 사름도, 나도요 저 우리 아  
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다녔습니다. 대학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동네 사름 전  
체가 안 다녀가니까요, 길이 거기 덤불 돼버렸어요.)

107076 @ 자왈 돼불언.(덤불 돼버렸어.)

107076 #2 목장이난.(목장이니까.)

107076 @ 아, 계난 마을마다 당이 잇어.(아, 그러니까 마을마다 당이 있어.)

107076 #2 예게, 우리 구역린 두 밧디 잇수다. (예, 우리 구역리는 두 밧에 있습  
니다.)

107076 @ 집으로 웬 디우파?(집으로 된 데입니까?)

107076 #2 아니, 그냥 냥, 냥 아래 그자 거기 제단초록 돌 쌓아진 디.(아니, 그  
냥 나무, 나무 아래 그저 거기 재단처럼 돌 쌓아진 데.)

107076 @ 우린 집으로 웬 디.(우린 집으로 된 데.)

107076 #2 아이, 우린 집 안 웬 디마씨. 계난 이젠양 막 곳자왈 웨언 거길 알젠,

젊은 아이덜에 몇 번.(아니, 어린 집 안 된 데요. 그러니까 이젠요 마구 곳자왈 되어서 끼 알려고, 젊은 아이들 몇 번.)

107076 @ 좃이레 텡염구나예.(좃으러 다니고 있군요.)

107076 #2 몇 번 왕 나 그리켜도렌 허연 나 몇 번 가리켜줬수다.(몇 번 와서 나가리켜달라고 해서 나 몇 번 가리켜줬습니다.)

107076 @ 그거 저.(그거 저.)

107076 #2 할망당 흐끔 그리켜줍센 허연.(‘할망당’ 조금 가리켜줍쇼라고 해서.)

107076 @ 거 민속 연구하는 사름덜 막 좃이레 텡입니다.(거 민속 연구하는 사름들 마구 좃으러 다닙니다.)

107076 #2 젊은 아이덜.(젊은 아이들.)

107076 @ 예.(예.)

107076 #2 아가씨덜 닳은, 계난.(아가씨들 같은, 그러니까.)

107076 @ 거 대학생덜이주게.(거 대학생들이지요.)

107076 #2 아, 켜 몇 번 완 올 여름 노인정에 시민 와근에 흐끔 가리켜 줍센 허민 몇 번 가르켜 줘수다.(아, 그래서 몇 번 와서 올해 여름 노인정에 있으면 와서 조금 가리켜 주세요 하면 몇 번 가리켜 줘습니다.)

107076 @ 우리도 단계가 이 정도 단계가 뉘엇수다. 옛날엔 혀뜨헌 디만 돌아텡 기기도 헛주만은.(우리도 단계가 이 정도 단계가 뉘엇수다. 옛날엔 허무맹랑한 데만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107076 #2 켜 허연 올 여름도 두 번이나 왕 거기 행 갔어. 간 보난 난 안 들어 갓수다게, 자왈 시난 요기, 요 낭 아래 가렌, 간 보난 이 저 췌췌헌 돌도 싣고, 거기 험벽덜 옛날엔 종이 지전이엔 허영 험벽이영 지전이영 돌아매십주. 그것도 싣수덴, 이제도.(그렇게 해서 올해 여름도 두 번이나 거기 해서 갔어. 가서 보니까 난 안 들어 갓습니다, 덩불 잇으니까 요기, 요 나무 아래 가라고, 가서 보니까 편편한 돌도 잇고, 거기 형겘들 옛날엔 종이 지전이라고 해서 형겘이랑 지전이랑 달아매엇습지요. 그것도 잇습니다고, 이제도.)

107076 @ 거난 당이 막 뉘헌 디가양, 여기보다는 저디가 많이 뉘헌 디가 잇어.(그러니까 당이 아주 뉘헌 데가요, 여기보다는 저디가 많이 뉘헌 데가 잇어.)

107076 #2 어디?(어디?)

107076 @ 동촌, 김녕<sup>277</sup>) 근방.(동촌, 김녕리 근방.)

107076 #2 아.(아.)

107076 @ 그다음에 한동<sup>278</sup>).(그다음에 한동리.)

107076 #2 음.(음.)

107076 @ 이 근방덜이, 그다음에 선흘<sup>279</sup>), 이 동쪽덜이 조금.(이 근방들이, 그다음에 선흘리, 이 동쪽들이 조금.)

277) ‘김녕’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를 말한다.

278) ‘한동’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를 말한다.

279) ‘선흘’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를 말한다.

107076 #2 동쪽더레가 어지럽지 안 허우짜? 쟈디 우리 대정<sup>280)</sup> 사름 이 저 가마리<sup>281)</sup> ㄹ튼 디, 토산<sup>282)</sup> ㄹ튼 디 동쪽더레 메뉴리 잘 안 허여 완수게, 이제도, 이제도.(동쪽으로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정 사름 이 저 가마리 같은 데, 토산리 같은 데 동쪽으로 며느리 잘 잘 안 해 읍니다, 이제도, 이제도.)

107076 @ 음.(음.)

107076 #2 이제도 경 험니다.(이제도 그렇게 합니다.)

107076 @ 음, 경 허지, 토산은 옛날 베염 뒤희지.(음, 그렇게 하지, 토산리는 옛날 뱀 뒤희지.)

107076 #2 예, 계난 동쪽더렌 해 싯넌 허명양 동쪽 메뉴리 잘 안 허쟁 험니다.(예,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많이 있다고 하면서요 동쪽 며느리 잘 안 하려고 합니다.)

107076 @ 이 동쪽이양 박헌 동네우다게.(이 동쪽이요 박한 동네입니다.)

107076 #2 질 박헌 디.(젤 박한 데.)

107076 @ 이 저.(이 저.)

107076 #2 성산 쪽이 질 박허여마씨.(성산 쪽이 젤 박해요.)

107076 @ 모살뵈디덜 막 갈아노니까 그 밥에도 그냥 모살이 막 들어가고.(모래 받들 마구 갈아 놓으니까 그 밥에도 그냥 모래가 마구 들어가고.)

107076 #2 또 저 성산 쪽더렌양 농사도 잘 안 뵈니까게.(또 성산 쪽으로요 농사도 잘 안 됩니다.)

107076 @ 안 뵈고게, 지금 저 어디우짱? 저 월정<sup>283)</sup>, 월정 지금은 뭐 해변가 흔 평에 천만 원이엔 헨 게만은 옛날 거 월정 살 디우짜? 그 모살이나 막 불리곡헌 디.(안 되고요, 지금 저 어디입니까? 저 월정리, 월정리 뭐 해변가 한 평에 천만 원이라고 하던 게만은 옛날 거 월정리 살 데입니까? 그 모래나 막 불리고 하는 데.)

107076 #2 질 살기 좋은 단양, 이 대정<sup>284)</sup>이 질 살기 좋은 디우다.(젤 살기 좋은 데는요, 대정이 젤 살기 좋은 데입니다.)

107076 @ 대정허고 저 어디게, 애월<sup>285)</sup>.(대정하고 저 어디요, 애월.)

107076 #2 애월 쪽더레 한림<sup>286)</sup> 쪽더레 쪽 가도양, 게도 그 중에 이 대정이 이 지슬도 놓민 잘 뵈지 뵈이든지 여기는 각 곡식을 잘 뵈수게.(애월 쪽으로 한림 쪽으로 쪽 가도요, 그래도 그 중에 이 대정이 이 감자도 놓으면 잘 뵈지 뵈이든지 여기는 각 곡식을 잘 되고 있어요.)

107076 @ 대정.(대정.)

107076 #2 예, 또 저 애월 쪽더렌양 밧덜이 쥌쥌허우게, 밧덜이 널르질 안 허우

280) '대정'은 서귀포시 대정을 전체 지역을 말한다.

281) '가마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마리를 말한다.

282) '토산'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를 말한다.

283) '월정'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를 말한다.

284) '대정'은 서귀포시 대정을 전체를 말한다.

285) '애월'은 제주시 애월읍 전체를 말한다.

286)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 전체를 말한다.



다.(예, 또 저 애월 쪽으로는요 밭들이 자잘하지요, 밭들이 넓질 않습니다.)

107076 @ 애월, 경해도 거 애월 좀 쳐.(애월, 그래도 애월 좀 쳐.)

107076 #2 겐디 이 대정만인 못허우다. 대정이 최고우다, 최고.(그런데 이 대정만큼 못합니다. 대정이 최고입니다, 최고.)

107076 @ 이 대정 여긴 해도 우리 동넨 별로 별 볼 일 없어.(이 대정 여긴 해도 우리 동넨 별로 별 볼 일 없어.)

107076 #2 그 동네도 이 대정만인 못허여.(그 동네도 이 대정만큼은 못해.)

107076 @ 못허여.(못해.)

107076 #2 이 저 화순<sup>287</sup>도 땅값[깎] 빗난다, 빗난다 해도양, 대정만이 못 합니다. 아니, 땅이 족수다.(이 저 화순리도 땅값 비싸다, 비싸다 해도요, 대정만큼 못합니다. 아니, 땅이 작습니다.)

107076 @ 아니, 화순도 둘 한 디라.(아니, 화순리도 둘 많은 데야.)

107076 #2 저 땅이 족수게.(저 땅이 작습니다.)

107076 @ 중문면에서는 우리 동네가 가장 넓수다.(중문면에서는 우리 동네가 가장 넓습니다.)

107076 #2 거기가 토질은 제일 좋을 거우다.(거기가 토질은 제일 좋을 것입니다.)

107076 @ 그디가양 지금 천백 고지 거기 휴게소가 색달<sup>288</sup> 산 일번지라.(거기가요 지금 천백 고지 거기 휴게소가 색달 산 일번지야.)

107076 #2 아, 경허난 앞으로 깎 하영 받아먹쿠다.(아, 그러니까 앞으로 값 많이 받아먹겠습니다.)

107076 @ 아이고, 또 허뜩헌 것들은 다 들어왔수게.(아이고, 또 허무맹랑한 것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107076 #2 게 경허난.(그래 그러니까.)

107076 @ 쓰레기 매립장, 하수 종말 처리장.(쓰레기 매립장, 하수 종말 처리장.)

107076 #2 게, 어떠한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이번 그 저 무슨거 막 텔레비에 나옴디다.(그래, 어떠한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이번 그 저 무엇 막 텔레비전에 나옴디다.)

107076 @ 아이고, 거난양.(아이고, 그러니까요.)

107076 #2 그건 들어오지 못허게 해야 됩니다.(그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07076 @ 아이, 거난 힘이 엇어노니까.(아니, 그러니까 힘이 없어 놓으니까.)

107076 #2 호호호.(웃음) 게 그건 들어오지 못허게 해야 되는 거.(호호호.(웃음) 그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107076 @ 그런 디, 힘 엇인 디만 좇아 땡겜수게게.(그런 데, 힘 없는 데만 찾아

287) '화순'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를 말한다.

288) '색달'은 서귀포시 색달동을 말한다.

다니고 있습니다.)

107076 #2 텔레비에 나오멘, 텔레비에, 호호호.(웃음)(텔레비전에 나오네, 텔레비전에, 호호호.(웃음))

107076 @ 힘 잇인 딘 안 가메.(힘 있는 데는 안 가요.)

107076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76 @ 힘 엇어노난.(힘 없어 놓으니까.)

107076 #2 호호호.(웃음) 게도 게 허긴 헤사 헐 겨우다게.(호호호.(웃음) 그래도 하긴 해야 할 것입니다.)

107076 @ 나도 제대해근에 저런 디 강 머리떠 들렁 뭐 허카?(나도 제대해서 저런 데 가서 둘러서 뭐 할까?)

107076 #2 아무 디라도 강 밥벌이만 해도. 그 퇴직허영 나사민 아무 디라도 강 뭐 허겄다는 마음만 가져도 좋은 겨우다.(아무 데라도 가서 밥벌이만 해도. 그 퇴직해서 나사민 아무 데라도 가서 뭐 하겄다는 마음만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107076 @ 아이고, 이 퇴직허면은 서울은 나이 들면은 돈 엇곡 허면은 제일 먼저 가는 직장이 어디냐, 아파트 경비원.(아이고, 퇴직하면은 서울은 나이 들면은 돈 없고 허면은 제일 먼저 가는 직장이 어디냐, 아파트 경비원.)

107076 #2 그거만 헤져도 좋수다게.(그거만 헤져도 좋습니다.)

107076 @ 아파트 경비원.(아파트 경비원.)

107076 #2 그거만 헤져도 좋아마씨.(그거만 헤져도 좋아요.)

107076 @ 그다음에 그 동네 청소, 제주시도 보민 청소허는 하르방덜이 있어. 겐 얼마 받느넌 허니까 그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근에 삼십만 원 받넌.(그다음에 그 동네 청소, 제주시도 보면 청소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 그래서 얼마 받느냐고 하니까 그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삼십만 원 받는다고.)

107076 #2 흔 들?(한 달?)

107076 @ 예.(예.)

107076 #2 에이고.(에이고.)

107076 @ 그것도 엇어근에 못 험수게.(그것도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107076 #2 게난, 으따 선생님이랑 퇴직허건 연금으로 돌려근에 흔 뺨에 받지 말양.(그러니까 아따 선생님이랑 퇴직허건 연금으로 돌려서 한 번에 받지 말고.)

107076 @ 아, 난 연금으로 허젠마씨.(아, 난 연금으로 하려고요.)

107076 #2 연금으로 헤사주 흔꺼번에 받아불민양, 돈은 신더레 강 써지곡, 절대 안 되는 겨우다.(연금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받아버리면요, 돈은 있는 곳으로 가서 써지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107077 @ 예, 그다음에양 굿떡<sup>289)</sup>에 대해서 흔번 곱아줍서, 굿떡. 굿할 때도 떡, 이거 저.(예, 그다음에요 ‘굿떡’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굿떡’. 굿할 때도 떡, 이거 저.)

---

289) ‘굿떡’은 굿을 할 때 제물로 올리는 떡을 말한다.

107077 #2 굿할 때도 소금, 소금.(굿할 때도 소금, 소금.)

107077 @ 돌레떡.(‘돌레떡’.)

107077 #2 예, 굿할 때는양, 코시떡은 동글락허면서도 영 요기 흐끔 오므록허게, 옛날 코시덜 헤나지 안 헛수가?(예, 굿할 때는요, 고사떡은 동그라면서도 이렇게 요기 조금 오므라지게, 옛날 고사들 했었지 않습니까?)

107077 @ 예, 코시. (예, 고사.)

107077 #2 코시떡은 흰떡 허영 요 손 두 개 톱 놀렁 오므록허게 허곡, 그게 돌레떡입주게. 그 할망당에 가는 거초록.(고사떡은 흰떡 해서 요 손 두 개 톱 놀려서 오므라지게 하고, 그게 ‘돌레떡’이지요. 그 ‘할망당’에 가는 거처럼.)

107077 @ 예.(예.)

107077 #2 굿떡은 그추룩 허영 하영 헛수다.(‘굿떡’은 것처럼 해서 많이 했습니 다.)

107077 @ 굿떡양.(‘굿떡’요.)

107077 #2 예, 소금 안 낱.(예, 소금 안 낱서.)

107077 @ 이젠 굿떡 잘 안 허지양?(이젠 ‘굿떡’ 잘 안 하지요?)

107077 #2 일절, 굿허는 사람이 엇입니다, 이젠.(일절, 굿하는 사람이 없습니 다, 이젠.)

107077 @ 여기 아직도 귀양풀이 험니까?(여기 아직도 ‘귀양풀이’ 험니까?)

107077 #2 구항풀이<sup>290)</sup> 험니다.(‘구항풀이’는 험니다.)

107077 @ 귀양풀이 허여마씀?(‘귀양풀이’ 해요?)

107077 #2 예, 구항풀이양, 이제도 구항풀이 안 허영 이젠 심방덜이 엇어 가고 허난 아녕 사십구재로 허는 디덜이 하영 허곡, 또 웬만헌 사람은 사십구재도 아이 허곡, 구항풀이도 아니 허곡, 그날 강 문으민 그자 그날 식계, 식계 문딱 거기서 고 허영 와 불영.(예, ‘구항풀이’요, 이제도 ‘구항풀이’는 안 해서 이젠 무당들이 엇어 가고 하니까 안 해서 사십구재로 하는 데들이 많이 하고, 또 웬만한 사람은 사십구 재도 안 하고, ‘구항풀이’도 안 하고, 그날 가서 문으면 그저 그날 제사, 제사 모두 거기서 고힐서 와 버려.)

107077 @ 상제 옷도 그날 그냥.(상제 옷도 그날 그냥.)

107077 #2 그날 거기서 다 태왕 와 불영.(그날 거기서 다 태워서 와 버려서.)

107077 @ 불테와근에.(불태워서.)

107077 #2 불테왕 와 불곡 경 험젠 험수게.(불태워서 와 버리고 하고 있다고 하 고 있습니다.)

107077 @ 거 너무 섭섭허지 안 험가, 거.(거 너무 섭섭하지 않은가, 거.)

107077 #2 무사 아이우파게? 아기 낱 키왕 스뭇 공부시기곡 허영 놔두른 그거 경 허른 안 되는 겁주.(왜 아놔니까? 아기 낱아서 키워서 사뭇 공부시키고 해서 놔 두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290) ‘구항풀이’는 사람이 죽어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치르는 곳이다. ‘귀양풀이’라고도 한다.

107077 @ 모든 것을 꺾내불영은에.(모든 것을 꺾내버려서.)

107077 #2 예, 다 꺾내불영, 거 경 허는 게 아니우다. 옛날도 뭐가 시난 조상을 잊지말게 허영 다 자식덜 베와주쟁 다 식게 멩질 허는 거 아니우파? 난 그거 너무 섭섭해 베여마씨.(예, 다 꺾내버려서,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도 뭐가 있으니까 조상을 잊지 말게 해서 자 자식들 보여주려고 다 제사 명절 하는 거 아닙니까? 난 그거 너무 섭섭하게 보여요.)

107077 @ 거난 자식덜안티 잘 곱서.(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잘 말하십시오.)

107077 #2 아고, 난양.(아이고, 난요.)

107077 @ 나라근에 잘해 드라 해근에.(날랑은 잘해 달라 해서.)

107077 #2 아니, 난양 진짜 저 서방 잇주만은 일 년에 세 번은 시아방네 산소에 가마씨. 저 단오날 가곡, 저 그날이 무슨 날이우파?(아니, 난요 진짜 저 서방 있지만 일 년에 세 번은 시아버지네 산소에 가요. 저 단옷날 가고, 저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107077 @ 청명.(청명.)

107077 #2 청명날, 청명날 처음 가곡. 그다음엔 단오날 가곡, 벌초날 가곡, 세 번은 꼭 가마씨, 계난.(청명, 청명 처음 가고, 그다음엔 단옷날 가고, 벌초하는 날 가고, 세 번은 꼭 가요, 그러니까.)

107077 @ 자식덜 데령 감수가?(자식들 데려서 가고 있습니까?)

107077 #2 예, 계난.(예, 그러니까.)

107077 @ 아, 거난 베와줘야 돼어, 베와줘야 돼.(아,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107077 #2 계난 올린양, 난 갈 적마다 서방 앞이서 곤주, 술허곡 과일허곡 허영 갑주, 강, 올리부턴양 메누리덜이양 지네가 허영 가켄 허연.(그러니까 올해는요, 난 갈 적마다 서방 앞에서 말하지, 술하고 과일하고 해서 가지요, 가서, 올해부터는요 며느리들이 자기네가 해서 가겠다고 해서.)

107077 @ 거난 베와주는 거.(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107077 #2 죽은메누리린 공동묘지 저 시하르방 산에 허영 놀 거 허곡, 큰메누리린 우리 시아주버니 산에, 거기 좌전이난 허여 낫고양. 올리부턴양 다 허연 와십디다. 계난 나 아이고 착허텐 헤십주.(작은며느리는 공동묘지 저 시할아버지 묘에 해서 놓을 거 하고, 큰며느리는 우리 시아주버니 묘에, 거기 좌전이니까 해서 낫고요. 올해부터는요 다 해서 왔습디다. 그러니까 나 아이고 착하다고 했습지요.)

107077 @ 계도 잘 험수다게. 그추룩 베와줘야 돼어.(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것처럼 보여줘야 돼.)

107077 #2 베와줘야, 그디 아이고 니네 이제부턴 어머니 신경 안 쓰켜이 허난, 예, 우리 허쿠다, 영 험디다게.(보여줘야, 거기 아이고 너희 이제부터는 어머니 신경 안 쓰겠다고 하니까, 예, 우리 하겠습니까, 이렇게 합디다.)

107077 @ 하하하,(웃음) 잘 험신게게.(하하하,(웃음) 잘하고 있네요.)

107077 #2 그거양 아기덜, 아, 부모 스뭇 이제까지 빼가 빠지게 허영 그거 경허른 됩니까.(그거요 아기들, 아, 부모 사뭇 이제까지 빼가 빠지게 해서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까.)

107077 @ 마농도 왕 싱겨주곡 허는디, 거 해야지 그거.(마늘도 와서 심어주고 하는데, 거 해야지 그거.)

107077 #2 우리 죽어볼문 모르쿠다만은 아직까지진 경 험수다.(우리 죽어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7077 @ 아이, 게 살아 잇일 때 잘 가르쳐 놔둬서.(아니, 그래 살아 있을 때 잘 가르쳐서 놔두십시오.)

107077 #2 예, 예, 이젠 앞으로 안 험직허여마씨.(예, 예, 이젠 앞으로 안 할 것 같아요.)

107077 @ 아, 아.(아, 아.)

107077 #2 우리 메누리만 험니까게, 딴 사름덜이 아니헤가든 나도 안 허켜 허여근에.(우리 며느리만 험니까, 딴 사람들이 안 헤가면 나도 안 하겠어 해서.)

107077 @ 아, 그거, 험직허게 허여근에, 꼭 허렌 험서. 나도 항상 경 곱암수다. 꼭 허라, 모든 걸.(아, 그거, 할 것 같게 해서, 꼭 하라고 하십시오. 나도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하라, 모든 걸.)

107077 #2 게 아덜안틴 곱아십주. 야, 혼 멧 년은 우리 두갓만 다녀십주. 아덜은 직장 서 부난 가도 못허고마씨.(그래 아들한테는 말했습지요. 야, 한 몇 년은 우리 부부만 다녔습지요. 아들은 직장 있어 버리니까 가도 못하고요.)

107077 @ 아이고, 거, 결석행이라도 오게.(아이고, 거, 결석해서라도 오게.)

107077 #2 야, 니네 우리 영 허는디 니넨 어떻 험 거냐 허난, 어떻게 안 헤가민 우리 다니쿠다. 영 험게 올리덜은 다덜 갑디다.(야, 너희 우리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할까, 어머니네 안 헤가면 우리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들은 다들 갑디다.)

107078 @ 그거 잘 가르침수다. 그 이외에양 다른 종류 떡덜은 엇수가?(그거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요 다른 종류 떡들은 없습니까?)

107078 #2 다른 떡 종류는 요즘은 도나쓰도 허영 떡곡, 찰쌀모찌덜토 허영 떡곡, 그거 웨엔 엇수다게. 무신거 실 말이우파?(다른 떡 종류는 요즘은 도넛도 해서 먹고, 찰쌀모찌들도 해서 먹고, 그거 외엔 없습니다. 무엇 있을 말입니까?)

107078 @ 어디 저 미짱 타레 갈 때 떡 험 가진 안 험니까?(어디 저 곱 따러 갈 때 떡 해서 가진 안 험니까?)

107078 #2 안 험니다. 미짱 타레 갈 때 요즘 간식덜 떡으로 안 헤근에 바나나도 사당 하나씩 테우곡, 그뻬 감철이난 감덜토 사당 하나씩 테우곡, 경 험니다.(안 합니다. 곱 따러 갈 때 요즘 간식들 떡으로 안 해서 바나나도 사다가 하나씩 테우고, 그뻬 감 나는 철이니까 감들도 사다가 하나씩 테우고, 그렇게 합니다.)

107078 @ 아, 요번에 멧 년 전까지는 풋죽덜 막 유행험터라고.(아, 요번에 멧

년 전까진 팔죽들 아주 유행했더라고.)

107078 #2 풋죽은양, 아침 세백이 조반덜 아니 먹엉 오난 흐룬 풋죽, 흐룬 우동, 흐룬 꿔죽, 흐룬 콩죽 경 허멍 맥염수다, 나도.(팔죽은요, 아침 새벽에 조반들 안 먹어서 오니까 하루는 팔죽, 하루는 우동, 하루는 참깨죽, 하루는 콩죽 그렇게 하면서 먹이고 있습니다, 나도.)

107078 @ 아, 거난 이거 튀직허영 미깡 타레 텅겨야커라, 그거 얻어먹젠 허믄.(아, 그러니까 이거 퇴직해서 굴 따러 다녀야겠어, 그거 얻어먹으려고 하면.)

107078 #2 호호호.(웃음) 경 험수다. 아침 조반덜 아니 먹엉 읍니다게.(호호호, (웃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반들 안 먹어서 읍니다.)

107078 @ 예.(예.)

107078 #2 겐 나도 해년마다 험수다게. 흐변은 우동 삶양 주곡, 흐변은 풋죽 삶양 주곡, 흐변은 유죽 삶양 주곡, 경 허멍, 난.(그래서 나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우동 삶아서 주고, 한번은 들깨죽 삶아서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난.)

107078 @ 언제 거 주인은 일 할 거라?(언제 거 주인은 일 할 거야?)

107078 #2 계난 아침 여기서 다섯 시만 웨민 가근에 죽을 썬시민 놉덜도 어둑커니 읍니다. 어둑커니 왕 그 죽 썬 거 먹엉 미깡덜 탐수게. 나도 해년마다 경 험수다.(그러니까 아침 여기서 다섯 시만 되면 가서 죽을 썬고 있으면 놉들도 어둑할 때 읍니다. 어둑할 때 와서 그 죽 썬 거 먹어서 굴들 따고 있습니다. 나도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7078 @ 아, 거난양.(아, 그러니까요.)

107078 #2 올리만 안 할 거, 올리만.(올해만 안 할 거, 올해만.)

107078 @ 아, 거난 웨 이런 말 허냐 허면은, 우리 형이 미깡 허는디 풋죽 썬질 못 허니까 빵 ㄱ튼 거 사단 준 모양이라.(아,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나 하면은, 우리 형이 굴 하는데 팔죽 썬질 못하니까 빵 같은 거 사다가 준 모양이야.)

107078 #2 아침인 빵 안 먹읍니다.(아침에는 빵 안 먹읍니다.)

107078 @ 아, 거난에 뭐 풋죽을 썬 줘야지 이 빵이냐고 허멍 막 불만헤렌.(아, 그러니까 뭐 팔죽을 썬서 줘야지 이 빵이냐고 하면서 마구 불만했다고.)

107078 #2 아침인 빵덜 안 먹엉, 안 먹으민양 흰죽이라도, 꼭 밥을 허던가 우동을 삶던지 그 종류로 허곡, 오후 간식은 바나나나 감이나 그거 하나씩 해당 줍니다.(아침에는 빵들 안 먹어서, 안 먹으면 흰죽이라도, 꼭 밥을 하든가 우동을 삶든지 그 종류로 하고, 오후 간식은 바나나나 감이나 그거 하나씩 해다가 줍니다.)

107078 @ 계난 나가 지금 이 미깡 탈 때 떡은 안 험신가 험에 물어본 겁주.(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굴 딸 때 떡은 안 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거지요.)

107078 #2 떡은 아침이 떡 행, 계민 낮에 ㄱ튼 때, 우리 하르방 강 지지는 건 무신 떡? 저 사람 잘 사당 먹는 거. 호떡, 호떡.(떡은 아침에 떡 해서, 그러면 낮에 갈을 때, 우리 '하르방' 가서 지지는 건 무슨 떡? 저 사람 잘 사다가 먹는 거. 호떡, 호떡.)

107078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7078 #2 낮이 ㄴ쁜 땀 호떡 강 상 읍니다, 낮이 ㄴ쁜 땀, 가다 오다.(낮에 같을 땀 호떡 가서 사서 읍니다, 낮에 같을 땀, 가다 오다.)

107078 @ 어디 저.(어디 저.)

107078 #2 모슬포 가사.(모슬포 아야.)

107078 @ 가야 협주게, 그건.(가야 하지요, 그건.)

107078 #2 모슬포 가사, 호호호.(웃음)(모슬포 가야, 호호호.(웃음))

107078 @ 아, 게, 요즘은, 올린 미강?(아, 그래, 요즘은, 올해는 굴?)

107078 #2 밧데기로 풀아부난.(밭채로 팔아버리니까.)

107078 @ 아, 게난 얼마에 팔았수가?(아,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습니까?)

107078 #2 푸는 건 작년인 삼식 맥이곡 칠만오천 원 줬수다.(파는 건 작년엔 세끼 먹이고 칠만오천 원 줬습니다.)

107078 @ 삼식 맥이고?(세끼 먹이고?)

107078 #2 저녁만 안 맥여.(저녁만 안 먹여.)

107078 @ 뭐 농사짓는 사람 뭐 남는 것이 없겠네.(뭐 농사짓는 사람 뭐 남는 것이 없겠네.)

107078 #2 게난양 올린 밧데기로 풀아불엇수다.(그러니까요 올해는 밧채로 팔아버렸습니다.)

107078 @ 아이고, 거 잘했수다.(아이고, 그거 잘했습니다.)

107078 #2 칠만오천 원.(칠만오천 원.)

107078 @ 칠만오천 원, 거 큰 거라.(칠만오천 원, 거 큰 거야.)

107078 #2 차 몰양 온 아인 칠만오천 원 주곡, 차비 요쪽 모슬포 아이덜 빌언 허난에 차비 이만 원씩 주곡.(차 몰아서 온 아인 칠만오천 원 주고, 차비 요쪽 모슬포 아이들 빌어서 하니까 이만 원씩 주고.)

107078 @ 거 어떠튼 흥 시간에 만 원 아니우파게?(거 어떻게든 한 시간에 만 원 아납니까?)

107078 #2 아이고, 모르쿠다, 난, 원.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난, 원. 아이고.)

107078 @ 거 말덜 막 굴멍.(거 말들 마구 말하면서.)

107078 #2 미룻 미강이난 젊은 아이덜은 잘 탑니다만은 나이 든 어른덜은양 잘 허도 못허고.(미리 굴이니까 젊은 아이들은 잘 탑니다만 나이 든 어른들은요 잘 하도 못하고.)

107078 @ 흥 백오십 관은 타야 그 일당 줄 거 아니?(한 백오십 관은 따야 그 일당 줄 거 아니?)

107078 #2 저장 민영 절대 백오십 관 못 탑니다.(저장 믿어서 절대 백오십 관 못 탑니다.)

107078 @ 못 타?(못 따?)

107078 #2 막 잘 타사 백삼십 관, 백이십 관 그자 경 탑디다.(아주 잘 타야 백삼십 관, 백이십 관 그저 그렇게 탑니다.)

107078 @ 그 찌르지 말아야 됩니까예.(그 찌르지 말아야 됩니까요.)

107078 #2 예.(예.)

107078 @ 게도 서툰 사름덜은 막 찢러부럼실 거라게.(그래도 서툰 사름들은 마구 찢러버리고 있을 거야.)

107078 #2 질르난게 비왕 갈 때 보든 막 썩음도 허고 험수게.(찌르니까 부어서 갈 때 보면 막 썩기도 하고 있습니다.)

### 소와 고물

107079 @ 그다음에 소와 고물에 대해서 말허쿠다양.(그다음에 소와 고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107079 #2 무슨 소와 고물?(무슨 소와 고물?)

107079 @ 소는 그 저 이 말 듣지 말고 저 뭐짱? 그 저, 뭘엔 해야 돼어, 그 저, 쫓을 뭘엔 허여? 떡에 놓는 쫓을?(소는 그 저 이 말 듣지 말고 저 뭐입니까? 그 저, 뭐라고 해야 돼, 그 저, 팔을 뭐라고 해? 떡에 놓는 팔을?)

107079 #2 쉬, 쉬.(소, 소.)

107079 @ 쉬, 쉬.(소, 소.)

107079 #2 호호호.(웃음) 난.(호호호.(웃음) 난.)

107079 @ 소, 소가 표준언데, 쉬.(소, 소가 표준언데, 소.)

107079 #2 무슨 소 말을.(무슨 소 말을.)

107079 @ 쉬.(소.)

107079 #2 쉬, 쉬, 호호호.(웃음)(소, 소, 호호호.(웃음))

107080 @ 쉬에 대해서 말씀해줍서.(소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07080 #2 예.(예.)

107080 @ 그 쉬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수가?(그 소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습니까?)

107080 #2 쉬는양, 쫓도 잇곡, 녹두도 잇곡, 께도 잇곡, 보리콩도 잇곡, 개역, 옛날엔 개역도 허곡, 콩 보깡 콩쉬도 잇곡 그거우다게.(소는요, 팔도 있고, 녹두도 있고, 참깨도 있고, 완두도 있고, 미숫가루, 옛날엔 미숫가루도 하고 콩 볶아서 콩소도 있고 그거입니다.)

107080 @ 그 떡에 따라근에 쉬도 좀 틀리지 안 험니까?(그 떡에 따라서 소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107080 #2 여름에 허는 건양, 콩 보깡 콩쉬 허는 건 빨리 쉬지 말랭 경 허영 콩쉬를 여름엔 허는 거고.(여름에 하는 건요, 콩 볶아서 콩소 하는 건 빨리 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콩소를 여름엔 하는 거고.)

107080 @ 무사 경 허여?(왜 그렇게 해?)



107080 #2 곤떡에 ㄱ튼 디도 새미 즈을 때, 송편 즈을 때, 그걸 놓면 별로 쉬질 안 험주게. 콩 보깡 마른 거난(흰떡에 같은 데도 '새미' 즈을 때, 송편 즈을 때, 그걸 넣으면 별로 쉬질 안 하지요. 콩 볶아서 마른 거니까.)

107080 @ 콩쉬로.(콩소로.)

107080 #2 예, 콩쉬로 허곡, 겨울 ㄱ튼 맨 해 풋쉬, 녹두쉬 그걸 주로 험수게, 겨울에.(예, 콩소로 하고, 겨울 같은 맨 거의 팔소, 녹두소 그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107080 @ 뭐냐, 송편 ㄱ튼 디 요즘은 설탕도 놓데.(뭐냐, 송편 같은 데 요즘은 설탕도 놓데.)

107080 #2 옛날엔 설탕도 꽤에 서꺼근에 놓니다게. 놓는 사람덜은, 요즘은.(옛날엔 설탕도 참깨에 섞어서 넣습니다. 놓는 사람들은, 요즘은.)

107080 @ 꽤에 설탕을예.(참깨에 설탕을요.)

107080 #2 그거보단도 보리콩 갈아본 거 삶양 설탕에 무쳐, 무쳐 그거 해 놓니다.(그거보다도 완두 갈아버린 거 삶아서 설탕에 무쳐서, 무쳐서 그거 많이 넣습니다.)

107081 @ 이 떡에 얽힌 속담 잇수가?(이 떡에 얽힌 속담 있습니까?)

107081 #2 떡에 얽힌 속담은 생일, 아이덜 돌잔치엔 필수 저 대죽떡을 험수게.(떡에 얽힌 속담은 생일, 아이들 돌잔치엔 필수 저 수수떡을 하고 있어요.)

107081 @ 돌잔치 때마씨?(돌잔치 때요?)

107081 #2 대죽, 대죽, 대죽떡은 이거 무사 영 험수가 허난.(수수, 수수, 수수떡은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까.)

107081 @ 생일날? 아, 그건 처음 듣는 거여.(생일? 아, 그건 처음 듣는 거야.)

107081 #2 그거양, 대죽, 생일잔치할 때 아이덜 잡귀를 뭐허지 말렌 허영 대죽떡을 험니다. 무사 경 험신고 들으난 그거 옛날부터도 그거 하나의 방법이엔 허영 대죽떡은 꼭 허엿수다.(그거요, 수수, 생일잔치할 때 아이들 잡귀를 뭐하지 말라고 해서 수수떡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들으니까 그거 옛날부터도 그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수수떡은 꼭 하였습니다.)

107081 @ 대죽꺾데기가 별경 허난인가?(수수꺾데기가 별경게 하나까인가?)

107081 #2 예, 그것이 꺾인 것이 그레 얼르질 못헌텐마씨.(예, 그것이 꺾은 것이 그리 눈에 띄질 못한다고요.)

107081 @ 경 허여근에 대죽떡을 생일 때엔 꼭 대죽떡 필수 험니다. 나도 우리 손지 생일 때에 대죽떡 험 생각은 아니허고, 우리 육지 어른입주게. 완 반 대죽떡 안 헤시난 당장 대죽떡 멧기렌 험양 대죽떡 급히 헤단 올려놔수다. 난 몰란에 아니 해신디, 호호호.(웃음)(그렇게 해서 수수떡을 생일 때엔 꼭 수수떡을 필수 합니다. 나도 우리 손자 생일 때에 수수떡을 할 생각은 앓고, 우리 육지 어른이지요. 와서 봐서 수수떡 안 했으니까 당장 수수떡을 맡기라고 해서요 수수떡 급히 헤다가 올렸었습니다. 난 몰라서 안 했는데. 호호호.(웃음))

107081 @ 아이, 대죽떡도 허고, 우리 동넨 대죽떡 허는 거 안 봐봤어.(아니, 수수떡도 하고, 우리 동넨 수수떡 하는 거 안 봐봤어.)

107081 #2 생일 때만게, 생일 때만. 아, 돌잔치에만.(생일 때만요, 생일 때만. 아, 돌잔치에만.)

107081 @ 이 떡 헐 때 금기 사항, 아까 시리떡 헐 때.(이 떡 할 때 금기 사항, 아까 시루떡 할 때.)

107081 #2 아이고, 이젠 금기 사항 잊수다.(아이고, 이젠 금기 사항 없습니다.)

107081 @ 양?(예?)

107081 #2 잊어마씨. 옛날엔 저 조침떡 칠 때에 막 설어근에 익지 아니허민 부정헌 사름 왔져, 뭇헌 사름 왔져, 경 허는디 이젠양 설지 아니허여마씨. 떡 강 방엿간에 강 다 허는 따문. 흐끔도 이제 실수 아니허여마씨.(없어요. 옛날엔 저 조시루떡 찢 때에 아주 설어서 익지 않으면 부정헌 사람 왔어, 뭇헌 사람 왔어, 그렇게 하는데 이젠요 설지 않아요. 떡 가서 방앗간에 가서 다 하는 때문. 조금도 이제 실수 않아요.)

107081 @ 그거 사름 왔덴 거 설곡 허는 거 아이라.(그거 사람 왔다고 거 설고 하는 거 아니야.)

107081 #2 옛날 그 조침떡은예, 물, 불.(옛날 그 조시루떡은요, 물, 불.)

107081 @ 불이 문제라, 불.(불이 문제야, 불.)

107081 #2 옛날엔 이젠 낭불이 가스불이주만은 옛날엔 검질불로도 솜양 헛수게, 낭불 잊은 사름은.(옛날엔 이젠 나무불이 가스불이지만 옛날엔 검질불로도 불을 때어서 했습니다, 나무불 없는 사름은.)

107081 @ 거난에 이쪽으로 막 솜아불은 이쪽은 막 설주게.(그러니까 이쪽으로 마구 불을 때어버리면 이쪽은 아주 설지요.)

107081 #2 예, 경 허난에 옛날엔 골고루 솜젠 해도 불체가 메여 가민 골고루 못 갈 거 아이라마씨. 불 탓이라마씨, 옛날엔.(예, 그렇게 하니가 옛날엔 골고루 불을 때려고 해도 재가 모여 가면 골고루 못 갈 거 아니예요. 불 탓이에요, 옛날엔.)

107081 @ 음, 불 탓, 불 탓, 사름 탓이 아니고, 불 탓.(음, 불 탓, 불 탓, 사람 탓이 아니고, 불 탓.)

107081 #2 불 탓.(불 탓.)

107081 @ 불 탓이지 이거.(불 탓이지, 이거.)

107081 #2 경헌디 어떤 사름은 불솜을 때도 보민 잘 솜지 못허영 어중구랑허게 솜는 사름도 십니다게. 그걸 영 강알을 헤쓰멍 솜아야.(그런데 어떤 사름은 불땀 때도 보민 잘 불때지 못해서 어지간하게 때는 사름도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솜 밑을 헤치면서 때야.)

107081 @ 헤쓰멍 잘 솜아야 헐 건디.(헤치면서 잘 때야 할 것인데.)

107081 #2 허지 못허영. 호호호.(웃음)(하지 못해서. 호호호.(웃음))

107081 @ 그런, 그런 사름덜이 합니께.(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습디다.)

107081 #2 맞수다게.(맞습니다.)

### 별식

107082 @ 그다음에 수에마썸, 수에, 그 잔치할 때 보민 수에 허지 안 험니까?  
이젠 안 험주만은.(그다음에 순대요, 순대, 그 잔치할 때 보면 순대 하지 않습니까?  
이젠 안 하고 있지만.)

107082 #2 저 수에는예 베설 짜지 안 허영 문딱 뒤집영.(저 순대는 창자 짜지  
안 해서 모두 뒤집어서.)

107082 @ 그 죽은 베설로 허지양?(그 작은 창자로 하지요?)

107082 #2 큰 베설이영, 죽은 베설이영.(큰 창자랑, 작은 창자랑.)

107082 @ 큰 베설로?(큰 창자로?)

107082 #2 다 험니다.(다 합니다.)

107082 @ 아, 다 험니까?(아, 다 합니까?)

107082 #2 다 허영 허민 그걸 처음엔 밀가루로 막 시칭, 시칭.(다 해서 하면 그  
걸 처음엔 밀가루로 마구 씻어서, 씻어서.)

107082 @ 거난 처음엔 밀가루로 시치고, 그다음은?(그러니까 처음엔 밀가루로  
씻고, 그다음은?)

107082 #2 그다음엔 커피 놔근에 또 막 흔 번 무르쥬영, 또 시칭 그 제일 마지  
막엔 우유, 우유 낱 그 똥내 나지 말게, 우유 낱 시칭 그 ㄱ루.(그다음엔 커피 놔서  
또 마구 한 번 짓무르게 주물러서, 또 씻어서 그 제일 마지막엔 우유, 우유 놔서 그  
똥내 나지 말게, 우유 놔서 씻어서 그 가루.)

107082 @ 모욕까지 험구나게, 우리 동넨 밀가루하고 커피.(모욕까지 하고 있군  
요, 우리 동넨 밀가루하고 커피.)

107082 #2 커피 낱.(커피 놔서.)

107082 @ 커피 냄새가 안 난덴.(커피 냄새가 안 난다고.)

107082 #2 겐디 커피 해도 냄새 나마썸. 우유 낱 허민 냄새가 해 제거됩니다게.  
경 허영 허민 ㄱ멸, ㄱ멸ㄱ루 허여근에 미역귀<sup>291)</sup> 잇지 안 허우파? 도새기 미역귀  
허영.(그런데 커피 해도 냄새 나요. 우유 놔서 하면 냄새가 거의 제거됩니다. 그렇  
게 해서 하면 메밀, 메밀가루 해서 ‘미역귀’ 잇지 않습니까? 돼지 ‘미역귀’ 해서.)

107082 @ 예.(예.)

107082 #2 그거 막 다져놓곡.(그거 마구 다져놓고.)

107082 @ 메역, 메역 식으로 웬 거양?(미역, 미역 식으로 된 거지요?)

107082 #2 예, 예.(예, 예.)

107082 @ 메역귀.(‘미역귀’.)

107082 #2 그거 막 다져놓곡, 또 저 무슨거 꽤마농.(그거 마구 다져놓고, 또 저  
무엇 쪽과.)

291) ‘미역귀’는 돼지를 잡았을 때 창자 옆에 미역귀처럼 생긴 내장을 말한다.

107082 @ 피, 피.(피, 피.)

107082 #2 피 농곡, 패마농 썰어 농곡, 잡채 잊지양, 잡채 삶아근에 그거 막 썰어 농곡, 경 허영 그레 소금 농곡, 경 허영 담양 삶으민게 순댓주게.(피 넣고, 쪽파 썰어 넣고, 잡채 있지요, 잡채 삶아서 그거 마구 썰어 넣고, 그렇게 해서 그리 소금 넣고, 그렇게 해서 담아서 삶으면 순대지요.)

107082 @ 거난 이거 ㄱ득해근에 삶아부니까.(그러니까 이거 가득해서 삶아버리니까.)

107082 #2 ㄱ득허민 안 돼어.(가득하면 안 돼.)

107082 @ 이거 다 터져볼더라고.(이거 다 터져버리더라고.)

107082 #2 안 됩니다.(안 됩니다.)

107082 @ 거난.(그러니까.)

107082 #2 영 허민 흘랑흘랑허게 허영.(이렇게 하면 헐렁헐렁하게 해서.)

107082 @ 삼분에 이 정도.(삼분의 이 정도.)

107082 #2 예, 경 흘랑흘랑허게, 영 문직으민 뽕뽕허게 허지 말양 흘랑흘랑허게 헤사 그 ㄱ덜ㄱ루도 피어납주, 경 헤사 허주. 뽕뽕헛당은 다 터정 먹을 거 엇입니다.(예,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만지면 뽕뽕하게 하지 말고 헐렁헐렁하게 해야 그 메밀가루도 피어나지요, 그렇게 해야 하지. 뽕뽕했다가는 다 터져서 먹을 거 없습니다.)

107082 @ 다 터져불언, 아이, 거 다 터져불언. 나 처음에 ㄱ득 담앗단 문딱 터져불언.(다 터져버렸어, 아니, 거 다 터져버렸어. 나 처음에 가득 담았다가 모두 터져버렸어.)

107082 #2 맞수다게. 게난 영 허민 들랑들랑허게, 굴랑굴랑헐<sup>292)</sup> 정도로 담아서 주, 뽕뽕허게 담양은 ㄱ득허게 허영은 삶아감은 팡팡 터져불어마씨. 또 많이 놓지 말양 삶아서 허고.(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말랑말랑하게, ‘굴랑굴랑할’ 정도로 담아야지. 뽕뽕하게 담아서는 가득하게 해서는 삶아가면은 팡팡 터져버려요. 또 많이 넣지 말고 삶아야 하고.)

107082 @ 거난 그 피 옆이 문으난에 삶아 난 다음에 그 물로 허여근에 ㅁ국<sup>293)</sup>.(그러니까 그 피 옆에 문으니까 삶아 난 다음에 그 물로 해서 ‘ㅁ국’.)

107082 #2 ㅁ 농곡, ㅁ을 농곡 허여근에 국 끌러봅서, 맛 좋습니다.(모자반을 넣고, 모자반을 넣고 해서 국 끓여 보십시오, 맛 좋습니다.)

107082 @ 거 잔치 전날덜 쨌당덜 모영.(거 잔치 전날들 친척들 모여서.)

107082 #2 예, 그거 허여근에 혼 말치<sup>294)</sup>덜 허영 먹엇수게.(예, 그거 해서 한 ‘말치’들 해서 먹었습니다.)

107083 @ 두부 멩글아 ㅁ디게양?(두부 만들어 보았습니까?)

107083 #2 두부, 두부는 물 등그는, 옛날 허는 방식은, 여기 간수가 엇어부난,

292) ‘굴랑굴랑허다’는 물체가 착 달라붙지 않고 부풀어서 들썩이는 모양이다.

293) ‘ㅁ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이다.

294) ‘말치’는 한 말 드는 크기의 솔이다.

옛날 그 콩 물 등장 돌궤에 곶앙, 그거 삶앙, 삶앙, 삶아근에 간수 쳐 가민 그.(두부, 두부는 물 담그는, 옛날 하는 방식은, 여기 간수가 없어 버리니까, 옛날 그 콩 물 담가서 맷돌에 갈아서 그거 삶아서, 삶아서, 삶아서 산수 쳐 가민 그.)

107083 @ 간수가 그 저 소금 노는 거.(간수가 그 저 소금 넣는 거.)

107083 #2 소금물입주게.(소금물이지요.)

107083 @ 아, 간수.(아, 간수.)

107083 #2 간수가. 게고 영 헤 가가민 그거 영 흐끔씩 비우명 영 영 젓어 가민 콩 곶앙 딸린 물이 두부궤 투발투발<sup>295</sup>) 간수 쳐가민 나와마썸, 거. 흐끔 서 가민 투발투발허민 영 네모나게 현.(간수가. 그리고 이렇게 해 가면 그거 이렇게 조금씩 부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어 가면 콩 갈아서 달인 물이 두부같이 ‘투발투발’ 간수 쳐가면 나와요, 거. 조금 있어 가면 ‘투발투발’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한.)

107083 @ 상자.(상자.)

107083 #2 거 상자 궤든 거 만들앙 거기 가제험벽 곶앙, 가제험벽 곶앙 그걸 그레.(거 상자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거즈 깔아서, 거즈 깔아서 그걸 그리.)

107083 @ 가제험벽?(거즈?)

107083 #2 가제험벽, 옛날 시레광목<sup>296</sup>), 아기 기저귀 허는 천 잊지 아니허우파? 그거 영 허영.(거즈, 옛날 ‘시레광목’, 아기 기저귀 하는 천 잊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107083 @ 그걸 가제, 가제엔 험니까?(그걸 거즈, 거즈라고 합니까?)

107083 #2 예, 예, 그거 허여근에 그레 영 콩물 삶은 걸, 두발두발헌 걸 다 낱 그거 헤난 궤든 요렇게 코짱게 낱, 영 허여근에 딱 지들황 놔뵤 물 빠지민 두부가 되는 겁주게, 썰만 허든. 나 두부 공장에 오 년 살았수다.(예, 예, 그거 해서 그리 이렇게 콩물 삶은 걸, ‘두발두발’한 걸 다 놔서 그거 했던 끝에는 요렇게 가지런하게 놔서, 이렇게 해서 딱 지질러서 놔뵤서 물 빠지면 두부가 되는 거지요, 썰기만 하면. 나 두부 공장에 오 년 살았습니다.)

107083 @ 게난 건강험신게마썸, 두부 하영 먹엇지양.(그러니까 건강하네요, 두부 많이 먹엇지요.)

107083 #2 게 두부 공장 다닐 때사 두부 먹어십주게.(그레 두부 공장 다닐 때야 두부 먹엇습지요.)

107083 @ 두부 하영 먹으난 얼굴도 곱닥허고.(두부 많이 먹으니까 얼굴도 곱고.)

107083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7083 @ 나도 두분 좋아험니다게.(나도 두부는 좋아합니다.)

107083 #2 그거 두부보다도양.(그거 두부보다도.)

107083 @ 두부가 최고, 최고.(두부가 최고, 최고.)

295) ‘투발투발’은 두부를 만들 때 순두부처럼 되어 가는 모양이다.

296) ‘시레광목’은 아기 기저귀 감을 하는 얇은 천이다.

107083 #2 두부 간수 허여근에 그거 현 거, 두발두발현 거 초장 허영 낱 그거 먹어봅서, 그것이 제라허게 맛 줍니다.(두부 간수 해서 그거 한 거, ‘두발두발’한 거 초장 해서 놔서 그거 먹어보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맛 좋습니다.)

107084 @ 요즘 저 멧묵, 멧묵에 대해서 좀 알아줍서.(요즘 저 메밀묵, 메밀묵에 대해서 좀 말해주십시오.)

107084 #2 쏘묵, 쏘묵, 쏘묵이짱?(쏘묵, 쏘묵, 쏘묵입니까?)

107084 @ 저 뭐 청묵<sup>297</sup>이 아니고, 그냥 멧묵 지진 거.(저 뭐 ‘청묵’이 아니고, 그냥 메밀묵 지진 거.)

107084 #2 지진 것사게 멧묵<sup>3</sup>루 곶앙 저 물에 카근에 지짐만 허른 멧묵입주.(지진 거야 메밀가루 갈아서 저 물에 타서 지지기만 하면 메밀묵이지요.)

107084 @ 멧묵에 뭐 다른 거 서끄지도 안 험니까?(메밀에 뭐 다른 거 섞지도 않습니까?)

107084 #2 안 서꿍니다. 다른 거 서끄민 맛이 옛입니다게, 멧묵은. 경 허영 지저근에 내영 영 썰민게 그냥 제사상에도 올리곡.(안 섞습니다. 다른 거 섞으면 맛이 없습니다, 메밀묵은. 그렇게 해서 지저서 내어서 이렇게 썰면 그냥 제사상에도 올리고.)

107084 @ 묵으로.(묵으로.)

107084 #2 묵으로, 경 허곡. 청묵은 멧묵<sup>3</sup>로 허영 베찰리에 낱 막 밀어가가면 여기가 풀풀현 물 나옵니다. 이거 흐끔 허영 놔똥 물 흐끔 낱 그추룩 서끄명 허영.(묵으로, 그렇게 하고. ‘청묵’은 메밀<sup>3</sup>로 해서 베자루에 놔서 마구 밀어가면 여기가 풀풀한 물 나옵니다. 이거 조금 해서 놔똥서 물 조금 놔서 그처럼 섞으면서 해서.)

107084 @ 게난 멧묵<sup>3</sup>루를.(그러니까 메밀가루를.)

107084 #1 멧묵<sup>3</sup>로.(메밀<sup>3</sup>로.)

107084 #2 멧묵<sup>3</sup>로, 청묵은 멧묵<sup>3</sup>로 허곡, 멧묵 그냥 묵은 멧묵<sup>3</sup>루로 쭈곡, 경 허는 겨우다.(메밀<sup>3</sup>로, ‘청묵’은 메밀<sup>3</sup>로 하고, 메밀 그냥 묵은 메밀가루로 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7084 @ 아, 거난 멧묵은 멧묵<sup>3</sup>루로.(아, 그러니까 메밀묵은 메밀가루로.)

107085 #2 청묵은 멧묵<sup>3</sup>로, 그냥 묵은, 그냥 묵 쭈는 건 멧묵<sup>3</sup>루로 경 허는 거 아니우파?(‘청묵’은 메밀<sup>3</sup>로, 그냥 묵은, 그냥 묵 쭈는 건 메밀가루로 그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107086 @ 개역에 대해서 흐번 알아줍서.(미숫가루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86 #2 개역은 보리 보짱, 곶앙, 이제난 허주, 옛날엔 사까린 낱 곶앙 허민 그것이 개역이고, 보리 보짱, 솥뚜경에. 옛날에 솥뚜경이 아니고 도로무짱 뚜경으로 덜 낱 보짱수게.(미숫가루는 보리 볶아서, 갈아서, 이제니까 하지, 옛날엔 사까린 놔서 갈아서 하면 그것이 미숫가루고, 보리 볶아서, 솥뚜경에. 옛날에 솥뚜경이 아니

297) ‘청묵’은 메밀<sup>3</sup>을 자루에 담아 물에 눌러서 나온 맑은 물로 쭈어서 만든 묵이다.

고 드럼통 뚜껑으로들 놔서 볶았습니다.)

107086 @ 아, 솥뚜껑에서도 보깎어.(아, 솥뚜껑에서도 볶았어.)

107086 #2 예.(예.)

107086 @ 엇인 사람은.(없는 사람은.)

107086 #2 예, 그 저 도르무깡 딸라근에.(예, 그 저 드럼통 뚫어서.)

107086 @ 도르무깡은 그때 뭐 아무나 잇었수가?(드럼통은 그때 뭐 아무나 있었 습니까?)

107086 #2 예, 예, 경 허여근에.(예, 예, 그렇게 해서.)

107086 @ 엇인 사람은.(없는 사람은.)

107086 #2 그거 농곡 사까린 놔근에, 이젠 방앗간에 들암주만은 옛날은 그레에 굴양 거기 체로 쳐 경 허영 먹었수게.(그거 놓고 사까린 놔서, 이젠 방앗간에 달리고 있지만 옛날은 맷돌에 갈아서 거기 체로 쳐서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107086 @ ㄴ는체로.(가는체로.)

107086 #2 예.(예.)

107086 @ 그 저 개역 그 보리 헤난 다음에 할 거 아니우파양?(그 저 미숫가루 그 보리 했던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107086 #2 보리 영 장만허영 바삭 물리왕.(보리 이렇게 장만해서 바삭 말려서.)

107086 @ 보통 망종 때 허지 안 헉니까예? 망종 때.(보통 망종 때 하지 않습니까? 망종 때.)

107086 #2 예게, 망종 때 돼 가민 거제 돼 갑니다.(예, 망종 때 돼 가면 거의 돼 갑니다.)

107086 @ 거난 이제 일허젠 허난에.(그러니까 이제 일하려고 하니까.)

107086 #2 비만, 옛날엔.(비만, 옛날엔.)

107086 @ 저 비와 가민 개역을 해서, 그땐.(저 비와 가면 미숫가루를 했어, 그 땐.)

107086 #2 먹을 거 엇어노난 비만 오민 한결할 때엔 그 개역을 헤십주.(먹을 거 없어 놓으니까 비만 오면 한가할 때엔 그 미숫가루를 했습지요.)

107086 @ 계난 옛날은 비와 가민 초가집이난, 이 연기가 팡팡 납주게, 이 개역 허젠.(그러니까 옛날은 비와 가면 초가니까, 이 연기가 팡팡 나지요, 이 미숫가루 하려고.)

107086 #2 게고 옛날엔 손님이 오민 뵈 줄 거 엇이민 개역만 쥐십주게.(그리고 옛날엔 손님이 오면 뵈 줄 거 없으면 미숫가루만 줬습지요.)

107086 @ 계난 개역도 보리 개역이 잇고, 콩 개역이 잇지 안 허우파?(그러니까 미숫가루도 보리 미숫가루가 잇고, 콩 미숫가루가 잇지 않습니까?)

107086 #2 보리 개역에 콩 보깡 흐끔 서꺼십주게.(보리 미숫가루에 콩 볶아서 조금 섞었습지요.)

107086 @ 아, 보리.(아, 보리.)

107086 #2 예, 콩 개역만 허여근에 물에 강 못 먹읍니다.(예, 콩 미숫가루만 해서 물에 타서 못 먹읍니다.)

107086 @ 아, 보리하고 콩을 서깁?(아, 보리하고 콩을 섞어서?)

107086 #2 서깁. 보리가 하곡 콩은, 보리가 혼 말이민 콩 혼 돼 내지 노낭마냥 허영, 고스롱허게 허젠 경 허연 해십주.(섞어서. 보리가 많고 콩은, 보리가 한 말이면 콩 한 되 내지 넣으나 마나 해서, 고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했습지요.)

107087 @ 그다음에 지지미에 대허영 혼번 곶아줍서.(그다음에 지지미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87 #2 지지미에 대허영은 고구마 철엔 고구마 파다근에 밀가루 반죽허여근에 고구마 허멍 튀기민 고구마 튀김이고, 감자도 그추록 허민 그추록 허는 거고, 경 허멍 먹어십주. 무신 뜯 튀김이 십니까? 돛지름 낱도 막 튀경 먹었수게. 옛날엔, 이제ㄴ찌 저 식용유가 어디 잇수가? 돛 잡을 땀.(지지미에 대해서는 고구마 철엔 고구마 파다가 밀가루 반죽해서 고구마 하면서 튀기면 고구마 튀김이고, 감자도 것처럼 하면 것처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먹었습지요. 무슨 뜯 튀김이 있습니까? 돼지 기름 놔서도 마구 튀겨서 먹었습니다. 옛날엔, 이제같이 저 식용유가 어디 있습니까? 돼지 잡을 땀.)

107088 @ 그다음에양 오메기술<sup>298</sup>에 대허영 곶아줍서.(그다음에 ‘오메기술’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88 #2 오메기술은양 좁쌀로만.(‘오메기술’은요 좁쌀로만.)

107088 @ 우선 오메기<sup>299</sup>를 멩글아야 될 거 아니우파양?(우선 ‘오메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7088 #2 오메기술은양 좁쌀을, 좁쌀을 곶아당.(‘오메기술’은요 좁쌀을, 좁쌀을 곶아다가.)

107088 @ 오메길 멩글아야 될 거 아니우파예?(‘오메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7088 #2 예, 물 팔팔 끌영 물, 선 물로 반죽을 허민 그것이 게살게살<sup>300</sup> 헤릅니다게. 게문 물 팔팔 끌린 물 허여근에 그 ㄴ루에 놔근에 반죽을 잘해영 영 고망을 내왕, 고망 나게 그걸 만들양.(예, 물 팔팔 끓여서 물, 차가운 물로 반죽을 하면 그것이 ‘게살게살’ 해버립니다. 그러면 물 팔팔 끓인 물 해서 그 가루에 놔서 반죽을 잘해서 이렇게 구멍을 나와서, 구멍 나게 그걸 만들어서.)

107088 @ 그 손으로 팡 고망 멘들앗수가?(그 손으로 파서 구멍 만들었습니까?)

107088 #2 예, 여기에 반죽허민게 요만만 끈으민게 영 영 영 만들앗수다. 경 허영 솟디 쩡 그거 꺼내영 그걸 누룩 낱 막 물르게 쩡, 너무 물러도 안 돼고, 너무 텃텃해도 안 돼고, 그자 어느 정도 이녁이 손짐작으로 허여근에 누룩에 허영. 요런 향

298) ‘오메기술’은 좁쌀로 만든 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발효시킨 제주 전통술을 말한다.

299)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300) ‘게살게살’은 가루 성분으로 된 것이나 밥이 차진 기는 조금도 없고 아주 매진 모양이다.



아리에 낱 이불 툇 더깁 뉘두민양 혼 사흘 셔 가민 불탁불탁불탁<sup>301)</sup> 술ㄴ찌 켈니다.(예, 여기에 반죽하면 요만큼만 끓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에 썬서 그거 꺼내어서 그걸 누룩 뉘서 막 뉘게 썬서, 너무 뉘어도 안 되고, 너무 텅텅해도 안 되고, 그저 어느 정도 이녁이 손집작으로 해서 누룩에 해서. 요런 향아리에 뉘서 이불 툇 덮어서 뉘두면 한 사흘 있어 가면 ‘불탁불탁 불탁’ 술같이 끓습니다.)

107088 @ 아.(아.)

107088 #2 켈민 그뉘 두불 또 ㄴ를 낱 뉘뉘당 그런 식으로 허영, 또 두불 허여 노는 거. 혼뉘 더 얹게 켈 허영 놓으면 그것이 오메기술이 뉘영 또 청주 앓일 사람은 그거 먹지 말아근에 고만이 낱 뉘두민 청주로 뜨르곡, 켈 아니헌 사람은 그거 켈민 그거 들어 혼 사발씩 거렁 먹고.(끓으면 그뉘 두벌 또 가루를 뉘서 뉘뉘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두벌 해서 놓는 거. 조금 더 얹게 그렇게 해서 놓으면 그것이 ‘오메기술’이 되어서 또 청주 가질 사람은 그거 먹지 말고 가만히 뉘서 뉘두면 청주로 뜨르고, 그렇지 앓은 사람은 그거 끓으면 그거 들어 한 사발씩 떠서 먹고.)

107088 @ 켈난 그 우에 켜는 뉘라마썬?(그러니까 그 위에 켜는 뉘지요?)

107088 #2 우에 켜는 청주.(위에 켜는 청주.)

107088 @ 청주는 그냥 술 같은 거 아니꽈양?(청주는 그냥 술 같은 거 아닙니까?)

107088 #2 술ㄴ찌 영 밀켈허는 거고, 오메기술은 그자 청주를 안 빼젠 허민, 켈만 허민.(술같이 이렇게 맑은 거고, ‘오메기술’은 그저 청주를 안 빼려고 하면, 끓기만 하면.)

107088 @ 탁베기 것이?(탁주 것이?)

107088 #2 탁베기 식으로 그냥 그레 켈란 혼 판이 탁 들이켈 뉘두민양 켈란도 노린자 다 안 익웁니다. 혼자는 그거 술에서 익으면 그거 하나가 우리 집잇사람<sup>302)</sup> 헐 때 켈 험디다게. 그거 하나 까 놓곡 허여근에 혼 사발씩, 거기도 참기름.(탁주 식으로 그냥 그리 켈란 한 판이 탁 들이켈서 뉘두면요 켈란도 노린자 다 안 익웁니다. 혼자는 그거 술에서 익으면 그거 하나가 우리 ‘집잇사람’ 할 때 그렇게 험디다. 그거 하나 까 넣고 해서 한 사발씩, 거기도 참기름.)

107088 @ 그걸 탁베기엔 허지양?(그걸 탁주라고 하지요?)

107088 #2 예, 그레 참기름도 사이다로 하나 놓곡 허영 뉘두민양, 그것이 익으면 켈 맛 쉘디다게.(예, 그리 참기름도 사이다로 하나 넣고 해서 뉘두면요, 그것이 익으면 그렇게 맛 좋웁니다.)

107088 @ 켈난 오메기술은 이 푸달푸달헌 건 탁베기고?(그러니까 ‘오메기술’은 이 켈썬한 건 탁주고?)

107088 #2 예, 켈 앓정 뜨른 건 청주고.(예, 그렇게 앓혀서 뜨른 건 청주고.)

301) ‘불탁불탁불탁’은 술이 익어서 끓는 모양이다.

302) ‘집잇사람’은 집에 사람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07088 @ 맑은 거양?(맑은 거요?)

107088 #2 예, 경 허영달 이젠 그거 허는 사름덜 엇입니다. 우리 세대ㄷ진 허여 서마씨. 이젠 안 합니다, 안 허여.(예, 그렇게 해서들 이젠 그거 하는 사람들 없습니 다. 우리 세대까지는 했어요. 이젠 안 합니다, 안 해.)

107089 @ 순다리 하영 헨 먹었지양?(‘순다리’ 많이 해서 먹었지요?)

107089 #2 이제도 순다린<sup>303</sup> 헨 먹엄수다게.(이제도 ‘순다리’는 해서 먹고 있습 니다.)

107089 @ 순다리 거 어떻 멩급니까? 그거.(‘순다리’ 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

107089 #2 밥 허여근에게 누룩 찌근에 여름엔 오늘 저녁이 헿 놔두민 듯날 낮 웨민 먹읍니다.(밥해서 누룩 찌서 여름엔 오늘 저녁에 해서 놔두면 뒷날 낮 되면 먹 습니다.)

107089 @ 계난 그 옛날은 이 보리밥.(그러니까 그 옛날은 이 보리밥.)

107089 #2 보리밥도 허영.(보리밥도 해서.)

107089 @ 보리밥도 그 저 쉬영.(보리밥도 그 저 쉬어서.)

107089 #2 쉬어사.(쉬어야.)

107089 @ 쉼 듯할 때, 쉬어, 아이고 쉼 듯할 때가 아이고 그냥 밥을 못 먹영 쉬 어불민 텃겨불기 아까완 순다릴 허연 먹어십주게. 겐디 이젠 경 헿수가, 이젠 허영 직시 허염수게. 경 쉼밥이 어디 잇수가?(쉼 듯할 때, 쉬어, 아이고 쉼 듯할 때가 아 이고 그냥 밥을 못 먹어서 쉬어버리면 던져버리기 아까워서 ‘순다리’를 해서 먹었습 지요. 그런데 이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젠 해서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쉼밥이 어디 있습니까?)

107089 @ 겐디 곤쌀로는 안 웨지양?(그런데 흰쌀로는 안 되지요?)

107089 곤쌀로도, 곤밥이 더 맛 줍니다게.(흰쌀로도, 흰밥이 더 맛 좋습니다.)

107089 @ 아, 경 허여마씨. 난 저 보리밥벳기 안 웨카부덴.(아, 그렇게 해요. 난 저 보리밥밖에 안 될까 싶어서.)

107089 #2 아니, 곤밥이 더 맛 줍니다.(아니, 흰밥이 더 맛 좋습니다.)

107089 @ 옛날 저 보리밥벳기 엇이난애.(옛날 저 보리밥밖에 없으니까.)

107089 #2 옛날엔 그 순다리 허여근에 밥 쉬영 데껴불기 아까왕 순다릴 허영 먹어십주, 이젠 그냥 밥 허멍 순다리 멩글양 먹으면 맛 줍니다.(옛날엔 그 ‘순다리’ 해서 밥 쉬어서 던져버리기 아까워서 ‘순다리’를 해서 먹었습지요, 이젠 그냥 밥하 면서 ‘순다리’ 만들어서 먹으면 맛 좋습니다.)

107089 @ 계난 무르게 해야 헿 거 아니우파양?(그러니까 묽게 해야 할 거 아닙 니까?)

107089 #2 예.(예.)

107089 @ 누룩, 누룩.(누룩, 누룩.)

107089 #2 누룩은양 이젠.(누룩은요 이젠.)

303) ‘순다리’는 쉼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이다.

107089 @ 밥 이제 해근에 누룩만 놔마씨, 물 안 해근에.(밥 이제 해서 누룩만 놔요, 물 안 해서.)

107089 #2 물도 하영 농곡, 누룩 뒀 죽만이, 처음에 밥 허영 막 무르쥬영, 물 노민 뒀죽만이 헐 때에 누룩 낱, 또 그거 막 녹읍니다게, 게 밥도, 게민 거기 설탕 노민 순다리마씨.(물도 많이 넣고, 누룩 된 죽만큼, 처음에 밥해서 마구 짓무르게 주물러서, 물 넣으면 된 죽만큼 할 때에 누룩 놔서, 또 그거 마구 녹읍니다, 그래 밥도, 그러면 거기 설탕 넣으면 ‘순다리’지요.)

107089 @ 계난 이 저 어디 보난에 서귀포 쪽 그 올렛길 걸으멍 보난에 서귀포 쪽은 관광객덜안티 순다리를 풀암서.(그러니까 이 저 어디 보니까 서귀포 쪽 그 올렛길 걸으면서 보니까 서귀포 쪽은 관광객들한테 ‘순다리’를 팔고 있어.)

107089 #2 아, 순다리 그추룩 허영.(아, ‘순다리’ 그처럼 해서.)

107089 @ 다른 지역은 엇인디.(다른 지역은 없는데.)

107089 #2 아.(아.)

107089 @ 서귀포 지역은.(서귀포 지역은.)

107089 #2 그거 허영양 큰 체로 탁 솟더레 낱 걸리민예, 텃텃허게 맛 줍니다. 냉장고에 낱 놔두민 잘도 시원허여마씨.(그거 해서요 큰 체로 탁 솔으로 놔서 거르면요, 텃텃허게 맛 좋읍니다. 냉장고에 놔서 놔두면 잘도 시원해요.)

107089 @ 나도 이거 옛날 보리 헐 때 하영 먹엇수다, 이거.(나도 이거 보리 할 때 많이 먹엇읍니다, 이거.)

107089 #2 보리 헐 때 옛날 보리 홀트젠 허민.(보리 할 때 옛날 보리 훑으려고 하면.)

107089 @ 그 주전지에 담아 가근에.(그 주전자에 담아 가서.)

107089 #2 예, 보리쌀 확 고리<sup>304</sup>에 거평, 향아리로 하나씩 허멍 보리 홀트멍 먹엇수다, 옛날에.(예, 보리쌀 확 ‘고리’에 거피해서, 향아리로 하나씩 하면서 보리 훑으면서 먹엇읍니다, 옛날에.)

107089 @ 아, 거난게 그때 먹을 거 엇일 때난게.(아, 그러니까 그때 먹을 거 없을 때니까.)

107089 #2 그거만 먹어십주.(그거만 먹엇습지요.)

107089 @ 이 순다리가 들코롬허난.(이 ‘순다리’가 달콤하니까.)

107089 #2 그뎨, 이젠 설탕이나 낱 먹는다 그뎨 사카린덜 낱 먹엇수게.(그뎨, 이젠 설탕이나 놔서 먹는다 그뎨 사카린들 놔서 먹엇읍니다.)

107089 @ 당원 아니우짜? 당원.(당원 아닙니까? 당원.)

107089 #2 당원도 기고, 사카린도 기고.(당원도 그렇고, 사카린도 그렇고.)

107089 @ 사카린.(사카린.)

107089 #2 놓으멍 먹엇수다.(넣으면서 먹엇읍니다.)

107089 @ 당원, 당원. 나도 옛날 당원 맛 좋으난 당원이영 행 약ㄴ짜 막 빨아떡

---

304) ‘고리’는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이다.

어났수다, 먹을 거 엇이난.(당원, 당원. 나도 옛날 당원 맛 좋으니까 당원이랑 해서 약같이 마구 빨아먹었었습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107089 #2 이거 경 허영 그 시대가 어느 시대산디. 호호호.(웃음)(이거 그렇게 해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호호호.(웃음))

107090 @ 누룩 멩글아 볍디게양?(누룩 만들어 봤습니까?)

107090 #2 예.(예.)

107090 @ 누룩은 어떻 멩급니까?(누룩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90 #2 옛날엔 보리 까까냥 막물로 누룩을 만들어십주만은, 요즘은양 보리쌀 요즘은 폽니다. 보리쌀 강 방앗간에 강은에 혼 불 확 내리와당 누룩 만드는 건, 물 질게 허민 안 돼어마씨. 막 마르게 허여야마씨. 마르게 허영 요만현 사발 시민 낱 그거 막 놀렁, 놀러근에 요즘은 짝 허여근에 막 짝을 많이 낱 징 징 허영양 혼 메 칠 시민 것이 별겅게 툽니다. 별겅게 트민 플리우민게 그게 누룩입주게.(옛날엔 보리 깎아 나서 맨 마지막 것으로 누룩을 만들었습지만, 요즘은요 보리쌀 요즘은 팝니다. 보리쌀 가서 방앗간에 가서 한 벌 확 내려다가 누룩 만드는 건, 물 질게 하면 안 돼요. 막 마르게 해야 해요. 마르게 해서 요만한 사발 있으면 놔서 그거 마구 놀러서, 놀러서 요즘은 짝 해서 막 짝을 많이 놔서 켜 켜 해서요 한 며칠 있으면 그것이 별겅게 툽니다. 별겅게 트면 말리면 그게 누룩이지요.)

107090 @ 아.(아.)

107090 #2 게든 그거 뵈아근에.(그러면 그거 빵아서.)

107090 @ 누룩 그 저 곰팡이덜 피지양?(누룩 그 저 곰팡이들 피지요?)

107090 #2 게난 그 빨강케 피민 누룩이 막 좋은 거고.(그러니까 빨강케 피면 누룩이 아주 좋은 거고.)

107090 @ 아, 빨강허게 피민.(아, 빨강케 피면.)

107090 #2 좋은 거고.(좋은 거고.)

107090 @ 누룩이 좋은 거고.(누룩이 좋은 거고.)

107090 #2 시커멓케 피민 잘 안 웬 거마썸. 거난 터도 그건 순다리 해도 거멍허 난, 게난 그 누룩 만들 때엔 물을 막 몰르게, 경 허민 빨강케 트민 그것이 누룩이 잘 툽 거마씨.(시커멓케 피면 잘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터도 그건 ‘순다리’ 해도 거메니까, 그러니까 그 누룩 만들 때엔 물을 막 마르게, 그렇게 하면 빨강케 트면 그것이 누룩이 잘 툽 거지요.)

107090 @ 그거 저 누룩도 집안이 막 저 화목허민 누룩이 잘 돼고, 옛날에.(그거 저 누룩도 집안이 아주 저 화목하면 누룩이 잘 되고, 옛날에.)

107090 #2 그 말은.(그 말은.)

107090 @ 서로가 싸와가면은.(서로가 싸워가면은.)

107090 #2 아.(아.)

107090 @ 이거 누룩이 안 웬덴 허더라고.(이거 누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107090 #2 겐디 난 이거 처음 듣는 말이우다게.(그런데 난 이거 처음 듣는 말입

니다.)

107090 @ 아, 게, 농사도 마찬가지로야, 밭디 가근에 미짱냥안티 영 좋게 영 대해 주면은.(아, 그래, 농사도 마찬가지로요, 밭에 가서 끝나무한테 이렇게 좋게 이렇게 대해주면은.)

107090 #2 잘 올곡.(잘 열고.)

107090 @ 잘 올고, 강은에 막 싹곡 해 가면은 미짱도 잘 안 툴덴 허여.(잘 열고, 가서 마구 싸우고 해 가면은 굴도 잘 안 된다고 해.)

107090 #2 아이고, 그건 거짓말이우다.(아이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107090 @ 아니, 그거 정말.(아니, 그거 정말.)

107090 #2 아니, 우리 밭디 가민 일덜 못해 가민 두가시가 맨날 싸와집니다.(아니, 우리 밭에 가면 일들 못해 가면 부부가 맨날 싸워집니다.)

107090 @ 아이, 아이, 게난양.(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107090 #2 아, 싸울 일 무사 엇입니까게? 건 아니 아니.(아, 싸울 일 왜 없습니까? 건 아니.)

107090 @ 경 끝더라고.(그렇게 말하더라고.)

107090 #2 아니, 그건 말장시 소리우다. 우리 우리가 잘 살아지난 나가 곧는 말 입주게, 호호호.(웃음)(아니, 그건 말쟁이 소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잘 살아지니까 내가 말하는 말이지요, 호호호.(웃음))

107090 @ 농사짓는 건 미짱냥덜이 다 알아.(농사짓는 건 끝나무들이 다 알아.)

107090 #2 아이, 건 거짓말이우다, 그건 말장시 말, 호호호.(웃음) 건 아니.(아니,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말쟁이 말, 호호호.(웃음) 건 아니.)

107091 @ 그다음에 엇 종류양, 엇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수가?(그다음에 엇 종류요, 엇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7091 #2 난 엇, 시집완, 처녀 댜 엇도 어떻 헐 줄 몰란마씨. 시집완 엇 해본 건 득엇<sup>305</sup> 해보고양, 꿩엇<sup>306</sup> 해보고, 돼지엇<sup>307</sup> 해보고, 저 무슨거 지다리엇<sup>308</sup> 해보고 것뻬기 안 해봤수다.(난 엇, 시집와서, 처녀 댜 엇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시집와서 엇 해본 건 ‘닭엇’ 해보고요, ‘꿩엇’ 해보고, ‘돼지엇’ 해보고, 저 무엇 ‘오소리엇’ 해보고 그것밖에 안 해봤습니다.)

107091 @ 하영 해신게마씨. 마농엇<sup>309</sup>은 안 해봄디가?(많이 했네요. ‘마늘엇’은 안 해봤습니까?)

107091 #2 마농엇은 안 해봤수다. 마늘은 흑마늘.(‘마늘엇’은 안 해봤습니다. 마늘은 흑마늘.)

107091 @ 득엇? (‘닭엇’?)

305) ‘득엇’은 닭고기를 넣어서 곤 엇을 말한다.

306) ‘꿩엇’은 꿩고기를 넣어서 곤 엇을 말한다.

307) ‘돼지엇’은 돼지고기를 넣어서 곤 엇을 말한다.

308) ‘지다리엇’은 오소리고기를 넣어서 곤 엇을 말한다.

309) ‘마농엇’은 마늘을 넣어서 곤 엇을 말한다.

107091 #2 득엿은 해봣수다.(‘답엿’은 해봣습니다.)

107091 @ 꿩엿?(‘꿩엿’?)

107091 #2 꿩엿도 해보고.(‘꿩엿’도 해보고.)

107091 @ 이 마농엿은 아무것도 엿일 때게.(이 ‘마늘엿’은 아무것도 없을 때요.)

107091 #2 마늘엿은 안 해보고. 호호호.(웃음) 마늘엿은 안 해봣수다.(‘마늘엿’은 안 해보고. 호호호.(웃음) ‘마늘엿’은 안 해봣습니다.)

107091 @ 이 마농엿 먹으면 냄새가 좋지 아니하여. 그 엿 멩글 땀 뵈 우선?(이 ‘마늘엿’ 먹으면 냄새가 좋지 않아. 그 엿 만들 땀 뵈 우선?)

107091 #2 엿 만들 때엔.(엿 만들 때엔.)

107091 @ 골, 골 놔야지양?(엿기름, 엿기름 놔야지요?)

107091 #2 예, 저 난 이젠 곤쌀로만, 줍쌀로만 햄수다만은, 옛날에 줍쌀로만 해 해십주게. 줍쌀엿.(예, 저 난 이젠 흰쌀로만, 찹쌀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줍쌀로만 거의 했습지요. 줍쌀엿.)

107091 @ 줍쌀이 줍 낫지양?(줍쌀이 줍 낫지요?)

107091 #2 예, 예, 줍쌀엿은 먹으면 답지곡<sup>310</sup>), 또 저 줍쌀엿은 허민 답지질 안 해마씨. 혼 사발을 먹어도 답지질 안 허영, 줍쌀엿은 먹으면양 막 답집니다. 너무 튼튼하여근에양 답지는데 요즘은 곤쌀 석 뒤민 줍쌀 혼 뒤, 왜 줍쌀을 왜 놓는가 허니 줍쌀은 노민 엿이 고와마씨.(예, 예, 줍쌀엿은 먹으면 ‘답지고’, 또 저 찹쌀엿은 하면 ‘답지질’ 안 해요. 한 사발을 먹어도 ‘답지질’ 않아서, 줍쌀엿은 먹으면요 아주 ‘답집니다’. 너무 튼튼해서 ‘답지는데’ 요즘은 흰쌀 석 되면 줍쌀 한 뒤, 왜 줍쌀을 왜 놓는가 하니 줍쌀은 뒤으면 엿이 고와요.)

107091 @ 음.(음.)

107091 #2 흰쌀만 허영은 곱질 아녀. 경 허영 그게 곱게 허젠 남수다만은 그거 밥 꼬득꼬득허게 밥을 허영, 쓸 혼 말이민 저 골 두 뒤, 두 뒤 허여근에 찹통 큰 거에 허영 물 하영 허영 들허게 허영 영 허영 놔두민 오닐 아침이 밥허영 그 골 허영 놔두민 오후 혼두 시, 세 시쯤 뒤민 보글보글 딱신디 놔사 보글보글 하나씩 부글레기 올라옵니다게. 게민 그거 짜근에 딸리민 엿이주게, 그거 딸렁.(흰쌀만 해서는 곱질 않아. 그렇게 해서 그게 곱게 하려고 뒤고 있습니다만 그거 밥 꼬들꼬들허게 밥을 해서, 쌀 한 말이면 저 엿기름 두 뒤, 두 뒤 해서 찹통 큰 거에 해서 물 많이 해서 달콤허게 해서 이렇게 해서 놔두면 오늘 아침에 밥해서 그 엿기름 해서 놔두면 오후 한두 시, 세 시쯤 되면 보글보글 따듯한데 놔야 보글보글 하나씩 거품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 짜서 달이면 엿이지요, 그거 달여서.)

107091 @ 땀 시간 걸립니깁? 엿 만들젠 허민.(땀 시간 걸립니깁? 엿 만들려고 하면.)

107091 #2 아이고, 오후 혼 세 시쯤에 그거 뒤어가가민 네 시쯤에 딸리기 시작해가민 그날.(아이고, 오후 한 세 시쯤에 그거 뒤가면 네 시쯤에 달이기 시작해가면

310) ‘답지다’는 먹은 것이 잘 삭지 아니하여 가슴속이 칸칸허게 괴로워 못 견디다는 뜻이다.

그날.)

107091 @ 낭불, 낭불로 할 때.(나무불, 나무불로 할 때.)

107091 #2 그날 다 못 딸려마씨.(그날 다 못 달여요.)

107091 @ 스물네 시간 딸리는 거네예.(스물네 시간 달이는 거네요.)

107091 #2 거 다 못 딸령 듯날 혼 열 시갓진 딸려야 다 딸려집니다. 또 아시날 밥 허영 아침부터 딸린 때엔, 그날 듯날 하루민 다 웨곡, 어두와강 딸리기 시작허민 듯날까지 딸려사 다 됩디다. 그처럼 헨 딸린 헨 먹엇수다.(거 다 못 달여서 뒷날 한 열 시까지는 달여야 다 달여집니다. 또 전날 밤 해서 아침부터 달인 때엔, 그날 뒷날 하루면 다 되고, 어두워가서 달이기 시작하면 뒷날까지 달여야 다 됩니다. 것처럼 해서 달여서 해서 먹엇습니다.)

107091 @ 그 저 불은 저 재미용허게 행은에? 막 크게 달게 허지 안 행.(그 저 불은 저 약하게 해서? 아주 크게 달게 하지 않아서.)

107091 #2 처음에 헤영 케영 막 짓을 때까진 막 달게 허곡, 반 정도 딸릴 때까진 달게 헤사마씨, 게난 거저 웨어갈 때만 천천히 흐끔 허는 거주, 막 그거 막 좇차야 될 따문, 불은 막 저 달게 헤삽니다.(처음에 해서 끓어서 마구 저을 때까진 아주 달게 하고, 반 정도 달일 때까진 달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거의 되어갈 때만 천천히 조금 하는 거지, 막 그거 아주 좋아들게 해야 되기 때문, 불은 막 저 달게 해야 합니다.)

107091 @ 말치<sup>311)</sup>레 헤근에양.(‘말치’로 해서요.)

107091 #2 예, 이젠 가스 솟디 허여근에 딸림십주만은, 그뎨 말치 허영.(예, 이젠 가스 솥에 해서 달이고 있지만, 그뎨 ‘말치’ 해서.)

107091 @ 이젠 가스 솟도 따로 나옵니까?(이젠 가스 솥도 따로 나옵니까?)

107091 #2 아니우다게, 그냥 찜통으로 험수게. 솟 큰 거 엇으난, 찜통으로, 난 찜통으로 헛수다. 혼 말들이 찜통으로. 그처럼 허영 엇 딸리민, 뭐 설탕을 놓카, 뭐 꿀만 놓으민 엇이 들헉주게.(아닙니다, 그냥 찜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솥 큰 거 없으니까, 찜통으로, 난 찜통으로 헛습니다. 한 말들이 찜통으로. 것처럼 해서 엇 달이면, 뭐 설탕을 넣을까, 뭐 엇기름만 넣으면 엇이 달콤하지요.)

107091 @ 골은 저 보리로만 허지양?(엇기름은 저 보리로만 하지요?)

107091 #2 맥주보리로만.(맥주보리로만.)

107091 @ 맥주보리로만양. 다른 보린 안 웨고양, 쌀보리도 안 웨고.(맥주보리로만. 다른 보린 안 되고, 쌀보리도 안 되고.)

107091 #2 쌀보리로 안 허영 우린 맥주보리로만 헛수다.(쌀보리로 안 해서 우린 맥주보리로만 헛습니다.)

107091 @ 쌀보리도 웨긴 헉니까? 골.(쌀보리도 되긴 합니까?)

107091 #2 난 쌀보리론 안 놔뵈수다, 맥주보리로만 놔.(난 쌀보리로는 안 놔뵈습니다, 맥주보리로만 놔서.)

311) ‘말치’는 한 말 정도의 분량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한 말들이 솥의 의미로 쓰였다.

107091 @ 맥주보리로만양?(맥주보리로만요?)

107091 #2 계란 골이 저 섭이 잘 나민 옛도 맛 좋곡, 섭이 잘 안 나민 맛엇입니  
다.(그러니까 옛기름이 저 잎이 잘 나면 옛도 맛 좋고, 잎이 잘 안 나면 맛없습니  
다.)

107091 @ 그 저 골 나민 새싹 영 돈을 거 아니우파양?(그 저 옛기름 나면 새싹  
이렇게 돈을 거 아납니까?)

107091 #2 예게, 새싹.(예, 새싹.)

107091 @ 그거 허영.(그거 해서.)

107091 #2 새싹 요몹씩 날 때에.(새싹 요만큼씩 날 때에.)

107091 @ 물리와야 돼지예?(말라야 되지요.)

107091 #2 요만씩만 날 때엔 물리와야 돼어마씨. 너무 나게 허지 말앙 꼭 요만  
씩 허게 뽕족뽕족 나온 거, 요 정도 돼믄 물리와사.(요만큼씩만 날 때엔 말려야 돼  
요. 너무 나게 하지 말고 꼭 요만큼씩 하게 뽕족뽕족 나온 거, 요 정도 되면 말려  
야.)

107091 @ 아, 계란 보리싹이 좋긴 현 것 같에.(아, 보리싹이 좋긴 한 것 같아.)

107091 #2 예.(예.)

107091 @ 요즘 저 보면은양 보리싹 난 거.(요즘 저 보면요 보리싹 난 거.)

107091 #2 막 풀암수게.(마구 팔고 있습니다.)

107091 @ 아, 저 곶아근에 뭐허면은 뭐 만병통치엔 허더라고, 만병통치약이엔.  
(아, 저 같아서 뭐하면은 뭐 만병통치라고 하더라고, 만병통치약이라고.)

107091 #2 요즘은 그걸로 슬덜토 빼고.(요즘은 그걸로 살들도 빼고.)

107091 @ 보리 저 영 끈어근에 곶아근에 먹으면.(보리 저 이렇게 끊어서 같아  
서 먹으면.)

107091 #2 그거 막덜 허영 풀암수게. 거짓말입니다, 그건 말쟁이 말, 호호호,(웃  
음) 건 아니.(그거 마구들 해서 팔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말쟁이 말, 호호  
호.(웃음) 건 아니.)

## 기타

107092 @ 그다음에양 마지막으로 이 구역리에서 동네 사름덜허고 ㄴ찌 헤 먹엇  
던 음식 잇수강?(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구역리에서 동네 사름들하고 같이 해  
먹엇던 음식 잇습니까?)

107092 #2 우린양.(우린요.)

107092 @ 노인회라든가 부인회에서라든가 ㄴ찌덜 행 먹은 음식?(노인회라든지  
부인회에서라든가 같이들 해서 먹은 음식?)

107092 #2 노인회에서덜은 떡국덜은 우리 노인회에서 일 년에 두어 번씩 행 먹  
읍니다게. 또 우리 집잇아방 노인회장 쓴 때엔 이 저 여름에 독 잡앙 먹는 날 ㄴ튼  
때 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행 먹을 땐 노인회에서 행 떡곡, 게고 미안혈 때 이 어



버이날 ㄱ튼 땀, 뭘 할 땀 우리 집잇아방이 강 전북 혼 준준헌 거 몇 키로만 사오  
렌 허영 그거 행도 안네곡, 그거 웨에는 요즘덜은양 촌 할망덜도 하도 입이 높아노  
난예, 허지렁헌 거 헤 쫓자양 먹질 안 험니다, 요즘덜은.(노인회에서서는 떡국들은 우  
리 노인회에서 일 년에 두어 번씩 해서 먹습니다. 또 '남편' 노인회장 할 때엔 이  
저 여름에 닭 잡아서 먹는 날 같은 때 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해서 먹을 땀 노인  
회에서 해서 먹고, 그리고 미안할 때 이 어버이날 같은 땀 뭘할 땀 우리 '남편'이  
가서 전북 한 자잘한 거 몇 킬로그램만 사 오라고 해서 그거 해서도 드리고, 그거  
외에는 요즘은 촌 할머니들도 입이 높아 놓으니까, 헛된 거 해줘도 먹질 안 합니다,  
요즘들은.)

107092 @ 이젠 농촌 어르신덜이 잘 먹어.(이젠 농촌 어르신들이 잘 먹어.)

107092 #2 예.(예.)

107092 @ 이 옛날 닭지 아니허연예.(이 옛날 같지 않아서.)

107092 #2 맞수다게, 경허민.(맞습니다, 그러면.)

107092 @ 이젠 도시에서가 더 못 먹읍수다게.(이젠 도시에서가 더 못 먹고 있  
습니다.)

107092 #2 이젠, 어떤 때엔 독 서너 마리 사당 죽덜토 썰 안네고, 그추룩 해주  
명 다르게 뭘헌 건 엇수다.(이젠, 어떤 때엔 닭 서너 마리 사다가 죽들도 썰서 드리  
고, 그처럼 해주면서 다르게 뭘헌 건 없습니다.)

107092 @ 청년회에서 무신거 안 험니까?(청년회에서 무엇 안 험니까?)

107092 #2 청년회에서는예 어버이날, 어버이날 행사험니다. 게고 경로잔치.(청년  
회에서는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행사험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107092 @ 설, 설 때허곡?(설, 설 때하고?)

107092 #2 예, 그거 두 번은.(예, 그거 두 번은.)

107092 @ 세배, 합동 세배.(세배, 합동 세배.)

107092 #2 예, 그거 두 번은 어버이날허고 경로잔치는 청, 부녀회에서 험니다.  
(예, 그거 두 번은 어버이날하고 경로잔치는 청, 부녀회에서 험니다.)

107092 @ 거의 비슷비슷헌게마씨.(거의 비슷비슷하네요.)

107092 #2 예, 그것벳기 떡, 노인 할망덜이 허지렁헌 거, 식계떡이라도 허여근에  
노인덜 먹읍센 가져가민 입덜 노팡.(예, 그것밖에 떡, 노인 할머니들이 헛된 거, 제  
사떡이라고 해서 노인들 먹으십사라고 가져가면 입들 높아서.)

107092 @ 안 먹어?(안 먹어?)

107092 #2 안 먹영, 맛 좋은 거나 두어 개 먹당 내불븐 그디서 험니다, 쉬어.(안  
먹어서, 맛 좋은 거나 두어 개 먹다가 내버리면 거기서 험니다, 쉬어.)

107092 @ 아이고, 입덜 노팍구나.(아이고, 입들 높았구나.)

107092 #2 기자 입덜 노팍수다.(그저 입들 높았습니다.)

107092 @ 옛날은 엇영 못 먹어신디.(옛날은 없어서 못 먹었는데.)

107092 #2 옛날엔 엇영, 아이고.(옛날엔 없어서, 아이고.)

## 8. 주생활

### 구조

108001 @ 그 집을 짓어난 경험 잇수가?(그 집을 지엿던 경험 잇습니까?)

108001 #1 뭐 나 목수라 집 짓게. 하하하.(웃음)(뭐 나 목수야 집 짓게. 하하하.  
(웃음)

108001 @ 아니, 계난 옛날 본 거라도.(아니, 그러니까 옛날 본 거라도.)

108001 #1 아, 게, 집 짓는 거 보긴 했주게.(아, 그래, 집 짓는 거 보긴 했지요.)

108001 @ 음, 그거 한번 집 짓는 거 알아줍서.(음, 그거 한번 집 짓는 거 말해  
주십시오.)

108001 #1 아, 겐디, 우리 아버진 목시 아니라도, 저 우리 아버지가 영 저 사삼  
사건 때 우에 뭐는 우리가 했주마는 담 다는 거 그튼 것은 아버지가 다 해서. 자갈  
로, 자갈로 영 해근에 흑 농곡 흑 농곡 해근에 담을 다앗수다. 진짜로 다.(아, 그런  
데, 우리 아버진 목수 아니라도, 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 사삼사건 때 위에 뭐  
는 우리가 했지만 담쌓는 거 같은 것은 아버지가 다 했어. 자갈로 이렇게 해서 흑  
놓고 흑 놓고 해서 담을 쌓았습시다. 진짜로 다.)

108001 @ 이거 집양 어느 펜이 잇어났수가?(이거 집요 어느 편에 잇었습니까?)

108001 #1 이 우에.(이 위에.)

108001 @ 이 우에.(이 위에.)

108001 #2 중간에, 우에.(중간에 위에.)

108001 @ 멧 칸짜리 집?(멧 칸짜리 집?)

108001 #1 스칸.(사간.)

108001 #2 스간, 스간집.(사간, 사간집.)

108001 @ 스칸집양.(사간집요.)

108001 #2 스간집.(사간집.)

108001 @ 아, 경허민 잘 살아났수다양, 스칸집이믄.(아, 그러면 잘 살았었습니  
다, 사간집이믄.)

108001 #1 아, 잘 사는 게 아니고 그추룩 헨 집을 지엿주마씨, 우리 아버지가.  
(아, 잘 사는 게 아니고 것처럼 해서 집을 지엿지요, 우리 아버지가.)

108001 @ 보통 삼칸인디.(보통 삼간인디.)

108001 #1 예, 우리 아버지가.(예, 우리 아버지가.)

108001 #2 우리 아버진, 완 보난 스간집을 물려줍디다게.(우리 아버진, 와서 보  
니까 사간집을 물려줍디다.)

108002 @ 스칸집양. 그 당시양 보면은 집 종류덜 잇지 안 허우짜? 초가집이다,  
뭐?(사간집요. 그 당시 보면 집 종류들 잇지 않습니까? 초가다, 뭐?)

108002 #1 다 초가집계, 무신. 스투뜨집이 어디 셔? 다 초가집. 계난 스간, 삼간, 이간.(다 초가요, 무슨. 슬레이트집이 어디 있어? 다 초가. 그러니까 사간, 삼간, 이간.)

108002 @ 계난에 기와집은 엇어났수가?(그러니까 기와집은 없었습니까?)

108002 #1 기와집?(기와집?)

108002 #2 ○○이 하르방네 하나 셔난.(○○이 할아버지네 하나 있었어.)

108002 #1 ○○이네 그때 기와집?(○○이네 그때 기와집?)

108002 #2 ○○이네 하나 셔났수다.(○○이네 하나 있었습니다.)

108002 #1 그것도 그루후에라. 그때 당신 기와집 엇어서.(그것도 그 후에야. 그때 당신 기와집이 없었어.)

108002 @ 계난 초가집 헐 땐 흑집이지양? 돌집이 아니라.(그러니까 초가 할 땐 흑집이지요? 돌집이 아니라.)

108002 #1 어, 어, 흑집.(어, 어, 흑집.)

108002 @ 흑집양.(흑집요.)

108002 #1 흑집.(흑집.)

108002 @ 나중에 저 스투트 헐 때는 돌집으로, 돌집양?(나중에 저 슬레이트 할 때는 돌집으로, 돌집요?)

108002 #1 예. 아이, 계난 돌집이고 흑집이고 간에 우리 므을은 전부 초가집이 어신디 칠십 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헐에 백 프로 짝 지붕 개량 헐수다.(예. 아니, 그러니까 돌집이고 흑집이고 간에 우리 마을은 전부 초가였는데 칠십 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해서 백 퍼센트 짝 지붕 개량 헐했습니다.)

108002 @ 계난 새마을 사업 헐 때 전부 스투뜨집으로.(그러니까 새마을 사업 할 때 전부 슬레이트집으로.)

108002 #1 스투트 완전히 백 프로. 그땐 나가 책임자였었어.(슬레이트 완전히 백 퍼센트. 그땐 내가 책임자였었어.)

108002 @ 그땐 전부 초가집, 저, 노래도 잊지 안허우파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그땐 전부 초가, 저, 노래도 잊지 않습니까? 초가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108002 #1 그때 우리 동네같이 백 프로 헐 디가 없었어.(그때 우리 동네같이 백 퍼센트 한 데가 없었어.)

108002 #2 그땐 이 사람이 이장 당시라.(그땐 이 사람이 이장 당시야.)

108002 #1 맞수다. 나가 이장 헐 때난. 경 헐 그때 청수리<sup>312</sup>가 북군에서 일등, 이 남군에선 구역리<sup>313</sup>가 일등. 우리 자주 마을, 자립 마을로 헤 가지고 전기도 그 당시.(맞습니다. 내가 이장 할 때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청수리가 북군에서 일등, 이 남군에선 구역리가 일등. 우리 자주 마을, 자립 마을로 헤 가지고 전기도 그 당

312) '청수리'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를 말한다.

313) '구역리'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를 말한다.

시.)

108002 #2 빨리 들어왔어.(빨리 들어왔어.)

108002 #1 청수 걸고, 구역리 걸고, 판 디 일반 전기 안 들어온 때. 우리 동네 건 후에 신평리<sup>314</sup>)라든지 중산간 걸었지. 제일 빨리 걸어서.(청수리 걸고, 구역리 걸고, 판 데 일반 전기 안 들어온 때. 우리 동네 건 후에 신평리라든지 중산간 걸었지. 제일 빨리 걸었어.)

108003 @ 그다음에 집채에 보면은 혼 마당 안네 그 안거리하고 밧거리 잇어낫수게양. 안거리하고 밧거리, 그거양 다른 집은 잇어낫수가?(그다음에 집채에 보면은 한 마당 안에 그 안채하고 바깥채 잇었었지요. 안채하고 바깥채, 그거요 다른 집은 없었습니까?)

108003 #1 잇어낫어게. 그 옆에 쉼막 잇고, 웨양간.(없었어. 그 옆에 외양간 잇고, 외양간.)

108003 @ 거난에 웨양간. 쉼막, 쉼막. 쉼막 짓어나고.(그러니까 외양간. 외양간, 외양간. 외양간 지어나고.)

108003 #1 예.(예.)

108003 @ 게문 보통 세 개네양?(그러면 보통 세 개네요?)

108003 #1 예.(예.)

108003 @ 안거리, 밧거리. 쉼막.(안채, 바깥채, 외양간.)

108003 #1 밧거리 잇는 딴 잇고 잇인 딴, 옛날 저 상동<sup>315</sup>) 잇일 때는 밧거리도 하신디 사삼사건이 잇어노니까 겨우 사는 집만 지었어. 여기 이 동네를 부여할 때는. 여기 임시 사삼사건으로 불 태와부니까 여기 한 멧 가구 살아난, 대여섯 가구, 계단 여기 살단 조금 뭐허민 올라가젠. 경 험 살단 보난 동네가 웨어분 거.(바깥채 잇는 데는 잇고 없는 데는, 옛날 저 '상동' 잇을 때는 바깥채도 많았는데 사삼사건이 잇으니까 겨우 사는 집만 지었어. 여기 이 동네를 부여할 때는. 여기 임시 사삼사건으로 불태워 버리니까 여기 한 멧 가구 살았던, 대여섯 가구,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조금 뭐하면 올라가려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동네가 돼버린 거.)

108003 @ 그 저 무신거 잇인 집은 잇어낫수가? 문간채, 그 저 들어가는 문 읍이 집덜 잇는 디.(그 저 무엇 잇는 집은 없었습니까? 문간채, 그 저 들어가는 문 옆에 집들 잇는 데.)

108003 #2 대문 크게 들양 나무로 그자, 막 허연.(대문 크게 달아서 나무로 그저, 마구 해서.)

108003 #1 그건 엇고.(그건 없고.)

108003 #2 그건 엇엇수다.(그건 없었습니다.)

108003 #1 여기는 그런 집을 못 지언. 임시 헤근에 올라가젠 대충 지엇단 올라가지 못했주게.(여기는 그런 집을 못 지었어. 임시 해서 올라가려고 대충 지엇다가

314) '신평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를 말한다.

315) '상동'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윗동네를 말한다.

올라가지 못했지요.)

108003 @ 그거 잘 사는 집 웨론 엇어낫어예, 문간채. 계난 영 문 들어가고 옆이 저 뭐냐 조그만허게 짓어근예.(그거 잘 사는 집 외로는 없었어요, 문간채. 그러니까 이렇게 문 들어가고 옆에 저 뭐냐 조그마하게 지어서.)

108003 #1 거 뭐냐, 이런 알드르<sup>316</sup> 같은 딴 헤신디 웃드르<sup>317</sup> 이 불태완 다 해부난게, 몰라 상동 잇일 때 그런 집이 잇일런지 몰라도 불 태와부니까 여긴 내려 완 가짜로 집을 지으멍 영 짓어다근예 올라가젠 허단 쪼금 시간이 돼 가니까 집도 좀 크게 짓고 아, 스투프도 올리고 했지, 뭐 어망저망 살단 올라가젠 허단 못 올라 간 거지.(거 뭐냐, 이런 ‘알드르’ 같은 데는 했는데 ‘웃드르’는 이 불태워서 다 해버 리니까요, 몰라 ‘상동’ 있을 때 그런 집이 있을는지 몰라도 불태워버리니까 여긴 내 려와서 가짜로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지었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쪼금 시간이 돼 가니까 집도 좀 크게 짓고 아, 슬레이트도 올리고 했지, 뭐 올망졸망 살다가 올라가 려고 하다가 못 올라간 거지.)

108003 @ 거는 그 저 안거리, 밧거리 잇고, 그다음에 문간채가 저 모커리주, 모 커리. 모커리도 엇어낫지양, 모커리.(거는 그 저 안채, 바깥채 잇고, 그다음에 문간 채가 저 겘채지, 겘채. 겘채도 잇었었지요, 겘채.)

108003 #1 엇엇수다게.(없었습니다.)

108003 @ 케민 그 안거리는 주로 누게 살앗수가?(그러면 그 안채는 주로 누구 살앗습니까?)

108003 #1 게 집주인 살주 누게가 살아.(그래 집주인 살지 누구 살아.)

108003 #2 아, 게, 어머니, 아버지.(아, 그래, 어머니, 아버지.)

108003 #1 할망, 하르방, 어머니, 아버지 살아십주.(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살았습지요.)

108003 #2 어머니, 아버지 살앗주마씨. 밧거리는 아기덜 살고.(어머니, 아버지 살았지요. 바깥채는 아기들 살고.)

108003 @ 안거리는 어멍, 아방 살고, 밧거리는 아이덜 살고.(안채는 어머니, 아 버지 살고, 바깥채는 아이들 살고.)

108003 #1 밧거리는 아이, 계난 시집 장게라도 가민 딱로 사는 거고, 경 안 허 른 어멍 아방허고 ㄴ찌 살아십주. 어디 아기덜을 딱로 살려게.(바깥채는 아니, 그러 니까 시집 장가라도 가면 따로 사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습지요. 어디 아기들을 따로 살려요.)

108003 @ 계난 안거리허고 밧거리는 영 정면으로 보이게 멩글아양? 옆이로 영 현다든가, 무사 그추룩 집 짓엄신고?(그러니까 안채하고 바깥채는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옆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왜 그처럼 집 짓고 있습니까?)

108003 #1 건 모르주. 보통 이런 쉼막 ㄴ튼 건 옆으로 지어신디 안팎거리는 봐

316) ‘알드르’는 아래쪽에 있는 들이라는 뜻에서, 해변 또는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317)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이다.

지게 지어서.(건 모르지. 보통 이런 외양간 같은 건 옆으로 지었는데 안채와 바깥채는 봐 지게 지었어.)

108003 @ 보이게끔.(보이게끔.)

108003 #2 알넉거리<sup>318</sup>, 우넉거리<sup>319</sup> 그런 식으로.(‘알넉거리’, ‘우넉거리’ 그런 식으로.)

108003 @ 거난 옛날 보든 정제는 서로 안 보게끔, 정제는 마주 안 보게끔 만든 덴 허더라고, 안거리, 맞거리.(그러니까 옛날 보면 부엌은 서로 안 보게끔, 부엌은 마주 안 보게끔 만든다고 하더라고, 안채, 바깥채.)

108003 #2 예, 경 험나게. 정제는 동쪽으로 내우는 사람 짓고, 서쪽으로 내우는 사람 짓고, 그건 이 집에 위치에 따라근에.(예, 그렇게 합니다. 부엌은 동쪽으로 내는 사람 있고, 서쪽으로 내는 사람 있고, 그건 이 집의 위치에 따라서.)

108003 #1 집 위치에 따라.(집 위치에 따라서.)

108003 #2 화장실 ㄱ튼 디는 보통 뒤편 디는 서쪽으로.(화장실 같은 데는 보통 뒤편 디는 서쪽으로.)

108003 #1 예, 것도 위치에 따라.(예,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108003 @ 거난 이 밧 잇이민 보통 옛날 집덜 보면 가운데 짓엇어양? 옆, 옆이 강 짓지 아니허여근에, 가운데. 옛날 그 저 산터들도 보면은 밧 가운데 강 보통 허주마씨.(그러니까 이 밧 있으면 보통 옛날 집들 가운데 지엇어요? 옆, 옆에 가서 짓지 않고, 가운데. 옛날 그 저 밧자리들도 보면은 밧 가운데 가서 보통 하지요.)

108003 #1 거난 산이나 집이나 반반허게 짓쟁 허는 거주, 경 허단 보난 그런 거주.(그러니까 묘나 집이나 반반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지.)

108003 @ 옛날은 밧도 싸고 허난 뒤편 거 아니라예?(옛날은 밧도 싸고 하니까 뒤편 거 아니에요?)

108003 #1 예게, 산도 마찬가지로. 계난 가운데 앞젓주, 이제 ㄱ찌 비싸시민 누게가 그디 짓어.(예, 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운데 앞혔지, 이제같이 비쌌으면 누구가 거기 지어.)

108003 @ 계난 집터나 산터나 헌텐 허더라고.(그러니까 집터나 밧자리나 한다고 하더라고.)

108003 #1 예, 산터 좋은 디 집터 좋고, 집터 좋은 디 산터가 좋고. 지금도 산 앓아난 디 집터로도 좋아. 명당자리는 집터나 산터 꼭 같에.(예, 밧자리 좋은 데 집터 좋고, 집터 좋은 데 밧자리가 좋고. 지금도 묘 앓았던 데 집터로도 좋아. 명당자리는 집터나 밧자리 꼭 같아.)

108003 @ 거는 삼칸집 허든 칸이 세 개 아니우파양?(거는 삼칸집 하면 칸이 세 개 아닙니까?)

318) ‘알넉거리’는 여러 채로 이루어진 집에서 본채의 아래편에 위치한 집이다.

319) ‘우넉거리’는 여러 채로 이루어진 집에서 본채의 위편에 위치한 집이다.

108003 #1 계, 방, 마루, 부엌, 삼 칸이고.(그래, 방, 마루, 부엌, 세 칸이고.)

108003 @ 방, 마루, 부엌. 사 칸은?(방, 마루, 부엌. 네 칸은?)

108003 #1 스 칸은 방 두 개, 마루, 부엌. 경 험 스 칸.(네 칸은 방 두 개, 마루, 부엌. 그렇게 해서 네 칸.)

108003 @ 방 두 개, 계난 방 방.(방 두 개, 그러니까 방 방.)

108003 #1 마루, 부엌.(마루, 부엌.)

108003 @ 방은 부엌 두 개 합니까?(방은 붙여서 두 개 합니까?)

108003 #1 아니, 틀려. 방.(아니, 달라. 방.)

108003 #2 동, 서넙, 이 가운데 마루, 또 요런 뒤에 정제, 호호호.(웃음)(동, 서넙, 이 가운데 마루, 또 요런 뒤에 부엌, 호호호.(웃음))

108003 @ 옛날 말로 험서.(옛날 말로 하세요.)

108003 #1 예, 계난 스 칸에 계 방 두 개, 부엌, 마루, 경 험 스 칸.(예, 그러니까 네 칸에 그래 방 두 개, 부엌, 마루, 그렇게 해서 네 칸.)

108003 @ 정제, 마루.(부엌, 마루.)

108003 #1 경 험 스 칸.(그렇게 해서 네 칸.)

108003 @ 하하하.(웃음)

108003 #1 삼 칸은 방 하나, 부엌 하나, 마루 하나, 경 험 삼 칸. 이 칸은 저 뭐 부엌 하나, 방 하나, 경 험 허고.(세 칸은 방 하나, 부엌 하나, 마루 하나, 그렇게 해서 세 칸. 두 칸은 저 뭐 부엌 하나, 방 하나, 그렇게 해서 하고.)

108004 @ 계민 삼칸집 짓는 과정 한번 돌아봅서. 거 보면은.(그러면 삼칸집 짓는 과정 한번 말해주십시오. 거 보면은.)

108004 #1 아니, 계난 집 짓는 과정은 똑ㄱ튼디.(아니, 그러니까 집 짓는 과정은 똑같은데.)

108004 @ 계난 기둥, 기둥이 몇 개라? 삼칸집허민.(그러니까 기둥, 기둥이 몇 개야? 삼칸집하면.)

108004 #1 아니, 저 칸만 틀린 것뿐이지게.(아니, 저 칸만 다른 것뿐이지.)

108004 @ 계난 칸마다 기둥은 잇어야 할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칸마다 기둥은 잇어야 할 거 아십니까?)

108004 #1 거야 당연허지게.(거야 당연하지요.)

108004 #2 지둥 잇수게.(기둥 있습니다.)

108004 @ 예, 지둥. 지둥 우에는 무신걸 올려놓니까?(예, 기둥. 기둥 위에는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108004 #1 포게, 포.(보요, 보.)

108004 @ 포, 포 우에는?(보, 보 위에는?)

108004 #1 서리.(서까래.)

108004 @ 포 우에 상ㄱ루.(보 위에 용마루.)

108004 #1 아, 거 포 우에 상ㄱ루지, 포 낱 상ㄱ루 낱.(아, 거 보 위에 용마루지,

보 와서 용마루 나서.)

108004 @ 상마루 낱.(용마루 나서.)

108004 #1 그다음 그 저 서리.(그다음 그 저 서까래.)

108004 @ 서리덜, 서리덜 걸청.(서까래들, 서까래들 걸쳐서.)

108004 #2 또 그 우엔 것 보고 뵈이엔.(또 그 위엔 것 보고 뵈라고.)

108004 @ 거 뵈엔 한다마는 준준헌 낭덜 영 여꺼근에.(거 뵈라고 한다마는 자  
잘한 나무들 이렇게 엮어서.)

108004 #1 예, 여깁.(예, 엮어서.)

108004 @ 풀 뵈이젠.(풀 먹이려고.)

108004 #1 경 안 허믄 집 뵈라져불주게. 경 해사 새를 더끄나 뵈을 더끄주.(그  
렇게 안 하면 집 무너져버리지. 그렇게 해야 띠를 더거나 뵈을 더지.)

108004 #2 빠지카부덴, 호호.(웃음)(뵈질까 싶어서, 호호.(웃음))

108004 #1 그 너덜헌 것만 해결허민 것 탁 떨어지지 아니허여. 허허허.(웃음) 거  
떨어지지 아니허게 뵈 허젠 허난 그 여꺼근에 해낭 앙토도 허고 그거 허는 거주.(그  
너덜거리는 것만 해결하면 그것 탁 떨어지지 았아. 허허허.(웃음) 거 떨어지지 았게  
뵈 하려고 하니까 그 엮어서 해놔서 앙토도 하고 그거 하는 거지.)

108004 @ 거난에 이 저 옛날 보면은 삼칸집, 정제 옆이 보면은, 정제 았이 죽은  
구들이 하나 잇어났어양?(그러니까 그 저 옛날 보면 삼칸집 부엌 옆에 보면, 부엌  
았에 작은 방이 하나 잇었었지요?)

108004 #1 어, 쳇방<sup>320</sup>, 쳇방.(어, ‘쳇방’, ‘쳇방’.)

108004 @ 무신거마씨?(무엇요?)

108004 #1 쳇방.(‘쳇방’.)

108004 @ 쳇방.(‘쳇방’.)

108004 #1 삼칸집이고 스칸집이고 쳇방은 따로 잇어.(삼칸집이고 사칸집이고  
‘쳇방’은 따로 잇어.)

108004 @ 정지에 들어가는 옆이.(부엌에 들어가는 옆에.)

108004 #1 으으, 쳇방.(아아, ‘쳇방’.)

108004 @ 조그만헌 거.(조그마한 거.)

108004 #1 쳇방.(‘쳇방’.)

108004 @ 거기 뵈 옛날 보리 떨어다근에 놓기도 허고.(거기 뵈 옛날 보리 떨어  
서 놓기도 하고.)

108004 #1 거긴 쳇방.(거긴 ‘쳇방’.)

108004 #2 쳇방이 아니고 고폡.(‘쳇방’이 아니고 고폡.)

108004 @ 아니, 아니, 고폡은 저 마리, 마리 쪽에 잇더라고.(아니, 아니, 고폡은  
저 마루, 마루 쪽에 잇더라고.)

---

320) ‘쳇방’은 마루와 부엌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부엌 들어가는 입구 옆에 조그마  
한 방을 일컫는 것으로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다.



108004 #1 쳇방이엔 현 게 있어, 부엌더레 가는 사이에.(‘쳇방’이라고 한 게 있어, 부엌으로 가는 사이에.)

108004 @ 예, 들어가는 디.(예, 들어가는 데.)

108004 #1 부엌광 마리 사이에, 그게 쳇방.(부엌과 마루 사이에, 그게 ‘쳇방’.)

108004 @ 그게 쳇방. 그 쳇방 앞에 물팡<sup>321</sup> 놔놔주게.(그게 ‘쳇방’. 그 ‘쳇방’ 앞에 물팡 놔놔지.)

108004 #1 으으.(아아.)

108004 @ 그 앞에 저 정지에 들어가는 쪽에, 물팡.(그 앞에 저 부엌에 들어가는 쪽에, ‘물팡’.)

108004 #2 물팡 놔근에 허벅<sup>322</sup>.(‘물팡’ 놔서 ‘허벅’.)

108004 #1 거 팡<sup>323</sup>에 낳.(거 ‘팡’에 놔서.)

108004 @ 그다음에 정지에서 붙치덜 놓는 디 잊지 안 허우파? 옛날 붙치 놓는 바로 옆이는 장팡뒤 들어가는 디 있고. 장팡뒤<sup>324</sup>도 정지에서 들어가야 뵈 거 아니 우파?(그다음에 부엌에서 재들 놓는 데 잊지 않습니까? 옛날 재 놓는 바로 옆에는 ‘장팡뒤’ 들어가는 데 있고, ‘장팡뒤’도 부엌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8004 #2 장팡뒤는 이 부엌에 이 문 말아 저쪽에 문이 하나 있어십주.(‘장팡뒤’는 이 부엌에 이 문 말고 저쪽에 문이 하나 있었습지요.)

108004 @ 예, 조그만헌 문이 잇었어, 장팡뒤 왔다갔다 허는.(예, 조그마한 문이 있었어, ‘장팡뒤’ 오가는.)

108004 #2 예, 왔다갔다 허는 디 글로 허고, 또 부엌으로 나가는 디 바로 이 앞에 허벅 놓는 팡, 물 저 오민 허벅 놓는 팡, 거기 놓곡 경 헤십주.(예, 오가는 데 거기로 하고, 부엌으로 나가는 데 바로 이 앞에 ‘허벅’ 놓는 ‘팡’, 물 저 오면 ‘허벅’ 놓는 ‘팡’, 거기 놓고 그렇게 했습지요.)

108004 @ 계난 그 옆이는 가운데는 마루.(그러니까 그 옆에는 가운데는 마루.)

108004 #2 마루고, 또 방, 방.(마루고, 또 방, 방.)

108004 @ 계난 방 하나 있고, 그 방 두에는 거기 고평이 있고. 그다음에 방 저쪽에는 저 뵈팡?(그러니까 방 하나 있고, 그 방 뒤에는 거기 고평 있고, 그다음에 방 저쪽에는 저 뵈니까?)

108004 #2 굴묵<sup>325</sup> 짓는 디.(‘굴묵’ 때는 데.)

108004 @ 굴묵 짓는 디.(굴묵 때는 데.)

108004 #1 굴묵 짓는 디, 건 아냐, 아냐.(굴묵 때는 데, 건 아냐, 아냐.)

108004 #2 굴묵게. 굴묵, 굴묵.(‘굴묵’요. ‘굴묵’, ‘굴묵’.)

108004 @ 그 저 마리 앞에 그 저 마리 닳은 건 뵈엔 헨다만은?(그 저 마루 앞

321)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놓아 두는 대(臺)이다.

322)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볼록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이다.

323) ‘팡’은 짐을 지고 부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놓인 넓직한 큰 돌 따위이다.

324) ‘장팡뒤’는 장독을 놓아두는 자리의 뒤쪽이다.

325)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에 그 저 마루 같은 건 뭐라고 한다만은?)

108004 #1 난간.(틔마루.)

108004 #2 난간, 난간.(틔마루, 틔마루.)

108004 @ 아, 난간 잇고.(아, 틔마루 잇고.)

108004 #2 여기 이 이런 디 난간.(여기 이런 데 틔마루.)

108004 @ 그때 난간은 무슨 낭으로 헛수가?(그때 틔마루는 무슨 나무로 헛습니까?)

108004 #1 아, 게, 걸터앉곡, 앉앙근에.(아, 그래, 걸터앉고, 앉아서.)

108004 #2 옛날엔 난간 낭은 이제 근젠 허난 뉘헌디.(옛날에 틔마루 나무는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뉘헌데.)

108004 @ 제밤낭.(구슬жат밤나무.)

108004 #2 그 낭 영 반 쪼개근에 대패질 허영 툃툃툃 뉘주게.(그 나무 이렇게 반 쪼개서 대패질 해서 툃툃툃 뉘지.)

108004 #1 앉아근에 우리도.(앉아서 우리도.)

108004 @ 낭게, 마리에 놓는 낭이 잇엇주게.(나무, 마루에 놓는 나무가 있었지.)

108004 #1 맞아, 거난.(맞아, 그러니까.)

108004 @ 무신 낭으로 췌져만은게.(무슨 나무로 쓰였는데.)

108004 #1 아니, 저 낭이 시민 좋은 낭으로 헛주.(아니, 저 나무가 있으면 좋은 나무로 헛지.)

108004 @ 제밤낭?(구슬жат밤나무?)

108004 #2 돛박낭도 췌고.(돛박나무도 췌고.)

108004 #1 아이, 저 제밤낭이고 굴무기낭 ㄱ든 것 헛주만은.(아니, 저 구슬жат밤 나무고 느티나무 같은 것 헛지만.)

108004 @ 굴무기낭, 마리 헤실 거여.(느티나무, 마루 했을 거야.)

108004 #1 그런 낭이 엇이민게 아무거로라도 헤십주게. 굴무기야 마리 험 때 다 뉘주만은, 굴무기가 경 쉬와서게.(그런 나무가 없으면 아무거로라도 헛습지요. 느티 나무야 마루 할 때 다 뉘지만, 느티나무가 그렇게 쉬웠어요.)

108005 @ 그 집 짓젠 허믄 그 지둥 밧테 놓는 걸 뉘렌 험니까?(그 집 지으려고 하면 그 기둥 밑에 놓는 걸 뉘라고 합니까?)

108005 #1 주춧돌.(주춧돌.)

108005 @ 주춧돌양.(주춧돌요.)

108005 #1 예.(예.)

108005 @ 주춧돌은 멧 개를 놔야 뉘어? 삼칸집인 경우.(주춧돌은 멧 개를 놔야 돼? 삼칸집인 경우.)

108005 #1 건 삼 칸, 스 칸, 하나 차이 잇일 거라, 짓도. 한 칸 차이면.(건 세 칸, 네 칸, 하나 차이 있을 거야, 짓도. 한 칸 차이면.)

108005 @ 지둥 올리젠 허믄.(기둥 올리려고 하면.)

108005 #1 그러니까 혼 칸이 더 실 철이주.(그러니까 한 칸이 더 있을 철이지.)

108005 @ 거난 그 주춧돌이.(그러니까 그 주춧돌이.)

108005 #1 칸마다 주춧돌이 있어야 헐 거난에.(칸마다 주춧돌이 있어야 할 거니까.)

108005 @ 거난 주춧돌은 어떻 멘듭니까?(그러니까 주춧돌은 어떻게 만듭니까?)

108005 #1 거 돌로 멘드는 거주, 돌로.(거 돌로 만드는데, 돌로.)

108005 @ 돌챙이 빌어당, 집이서 안 만들ampus가?(돌장이 빌어다가, 집에서 안 만들고 있습니까?)

108005 #1 경 허나 경 아니허민 이 저 자연석을 영 납작하고 영 현 거.(그렇게 하나 그렇게 안 하면 이 저 자연석을 이렇게 납적하고 이렇게 한 거.)

108005 @ 네귀방장헌 거.(네모반듯한 거.)

108005 #1 예. 그런 거 봉가당도 허고, 게 거의 다 다듬양 낫주게. 경해도 그거 지둥이엔 현 건, 거 지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안 허여게? 든든한 것도게.(예. 그런 거 주워다가도 하고, 그래 거의 다 다듬어서 낫지. 그래도 그거 기둥이라고 한 건,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않아요? 단단한 것도.)

108005 #2 돌, 돌 깨는 메로 그거 곱닥허게 다시령, 툭툭툭 놔십주.(돌, 돌 깨는 메로 그거 곱게 다듬어서, 툭툭툭 낫습지요.)

108005 #1 옛날 그 만리장성도 놔신디, 그런 정도 못허여.(옛날 그 만리장성도 낫는데, 그런 정도 못해.)

108005 @ 그다음에 지둥, 지둥이 있어야 돼고.(그다음에 기둥, 기둥이 있어야 되고.)

108005 #1 지둥은 낭으로.(기둥은 나무로.)

108005 @ 예, 지둥. 게난 지둥 보면은 혼 네 개는 있어야 될 거 닻아예.(예, 기둥. 그러니까 기둥 보면은 한 네 개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108005 #1 아, 맞아, 맞아.(아, 맞아, 맞아.)

108005 @ 네 개예.(네 개요.)

108005 # 지금 ㄱ뜨른 숙대낭 좋앗주만은 그때는 숙대낭이 엇어서.(지금 같으면 삼나무 좋았지만 그때는 삼나무가 없어서.)

108005 @ 정제허고 마리 사이에 지둥 두 개 놓곡.(부엌하고 마루 사이에 기둥 두 개 놓고.)

108005 #1 돼나마나 소낭, 그때 당시엔.(되나마나 소나무, 그때 당시엔.)

108005 @ 예, 그다음에 방허고 고평, 마리 사이에 지둥 두 개 놓곡.(예, 그다음에 방하고 고평, 마루 사이에 기둥 두 개 놓고.)

108005 #1 거 지둥 엇이민 멜라정 안 돼어, 다 지둥 있어야주.(거 기둥 없으면 무너져서 안 돼, 다 기둥 있어야지.)

108005 @ 켜 이젠게 지둥 철근으로 다 험주만은, 그땐 낭으로.(그래서 이젠 기둥 철근으로 다 하고 있지만, 그땐 나무로.)

108005 #1 계난 이젠 낭으로 안 허여.(그러니까 이젠 나무로 안 해.)

108005 @ 그다음에 포, 포 잊지 안허우파양?(그다음에 보, 보 있지 않습니까?)

108005 #1 예, 건 큰 걸로 해야 돼어.(예, 건 큰 것으로 해야 돼.)

108005 @ 그 지동에 걸치는 거, 포 올려놓고.(그 기동에 걸치는 거, 보 올려놓고.)

108005 #1 낭 질긴 걸로 해야 되고. 두꺼운 걸로 해야 되고, 질긴 걸로 해야 되고.(나무 질긴 것으로 해야 되고. 두꺼운 것으로 해야 되고, 질긴 것으로 해야 되고.)

108005 @ 우리도 그 저 스투트 더끄젠 허난 저 어디 초가집덜이 낭이 좋덴 허더라고, 저 호근리<sup>326</sup>.(우리도 그 저 슬레이트 덮으려고 하니까 저 어디 초가들이 나무가 좋다고 하더라고, 저 호근리.)

108005 #1 아, 계난 옛날은 다 그런 굴무기 같은 거 좋은 낭덜 다 헛주마씨.(아, 그러니까 옛날은 다 그런 느티나무 같은 거 좋은 나무들 다 했지요.)

108005 @ 계난 그 호근리가 낭 좋덴 허연에 거기 간 초가집 허나 산, 초가집 허나 산 거기 간에 지동힐 거허고 포 힐 거허고, 상무루 힐 걸 그걸 가져와서. 켜에 그걸 이용헨에 집을 짓어십주마씨.(그러니까 그 호근리가 나무 좋다고 해서 거기 가서 초가 하나 사서, 초가 하나 사서 거기 가서 기동 할 거하고 보 할 거하고, 용마루 할 걸 가져와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집을 지었습지요.)

108005 #1 계난 것도 아무나 못 엇어가, 아방 무서와근에.(그러니까 것도 아무나 못 가져가, 아버지 무서워서.)

108005 #2 옛날 그때는 한라산에 강 쉼 구루마 이끌영 멧 날 메칠 살명 집 짓 쟁 허민 그 한라산에 강 낭 비어다가 해 헛수다.(옛날 그때는 한라산에 가서 소 달구지 이끌어서 멧 날 며칠 살면서 집 지으려고 하면 그 한라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거의 했습니다.)

108005 #1 것도 구루마 짜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차, 거 낭 허젠 허민 한라산에 강 못 허민, \*\* 낭을 못 허여, 탁탁 끈어져. 그 질긴 낭으로 허젠 허민 한라산에 강 해 와야 돼어.(것도 마차 짜는 것도 마찬가지야. 마차, 거 나무 하려고 하면 한라산에 가서 못 하면, \*\* 나무를 못 해, 탁탁 끊어져. 그 질긴 나무로 하려고 하면 한라산에 가서 해 와야 돼.)

108005 @ 여기서는 구루마를 마차엔 험니까?(여기서는 ‘구루마’를 ‘마차’라고 합니까?)

108005 #1 구루마엔 허주.(마차라고 하지.)

108005 @ 아니, 표준어로?(아니, 표준어로?)

108005 #1 달구지.(달구지.)

108005 @ 마차엔 험니깡? 달구지엔 험니까?(‘마차’라고 합니까? ‘달구지’라고 합니까?)

326) ‘호근리’는 서귀포시 호근동을 말한다.

108005 #1 거 마차가 맞은디 달구지엔 현 건 거 일본 때 써나지 안 헤신가?(거 마차가 맞는데 달구지라고 한 건 거 일본 때 썼지 않았는가?)

108005 @ 아, 게난 이것 때문에.(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108005 #2 여기선 그때 당시에 철 구루마, 고무 구루만데.(여기선 그때 당시에 철 마차, 고무 마차인데.)

108005 #1 거 구루마가 일본말일 거라.(거 ‘구루마’가 일본말일 거야.)

108005 @ 구루마가, 구루마가 일본말 맞수다.(‘구루마’가, ‘구루마’가 일본말 맞습니다.)

108005 #1 맞아, 구루마가 일본말.(맞아, ‘구루마’가 일본말.)

108005 #2 구루마 저 철 구루마, 고무 구루마.(마차 저 철 마차, 고무 마차.)

108005 #1 철 구루만게 췌로.(철 마차는요 쇠로.)

108005 @ 이 구루마를 표준어로 달구지엔 허느냐, 마차엔 허느냐, 이게.(이 ‘구루마’를 표준어로 달구지라고 하느냐, 마차라고 하느냐, 이게.)

108005 #2 달구지엔 허는 말은 안 들어봤수다.(달구지라고 하는 말은 안 들어봤습니다.)

108005 #1 아니, 달구지엔 현 거는 췌가 끝은 달구지고, 말이 끝면 마차엔 허지 안 헛수가? 난 그 생각벳기.(아니, 달구지라고 한 거는 소가 끝면 달구지고, 말이 끝면 마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 생각밖애.)

108005 @ 그것이 맞아 뵈우다. 아, 거난에 영 좇아보니까 마차는 말, 말 맞아, 거니까 마차엔 현 거 닻아.(그것이 맞아 뵈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좇아보니까 마차는 말, 말 맞아, 그러니까 마차라고 한 거 같아.)

108005 #1 예, 경 현 거 닻아.(예, 그렇게 한 거 같아.)

108005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8005 @ 그다음에 이 도리 알아지쿠가? 도리. 그거 잘 모르지양? 도리, 도리.(그다음에 이 도리 알겠습니까? 도리. 그거 잘 모르지요? 도리, 도리.)

108005 #2 아니, 무신걸 저 도리 뇌근에 해야 헌덴 말 들어났수다.(아니, 무엇을 저 도리 뇌서 해야 한다는 말 들었었습니다.)

108005 @ 도리가 저 뭔가? 포에서 상마루 올라갈 때 꺾는 나무.(도리가 저 뭔가? 보에서 용마루 올라갈 때 끼우는 나무.)

108005 #1 고작<sup>327</sup>, 고작이렌 허주, 고작.(‘고작’, ‘고작’이라고 하지, ‘고작’.)

108005 @ 고작마씨?(‘고작’요?)

108005 #1 고작.(‘고작’.)

108005 @ 고작?(‘고작’.)

108005 #1 예, 고작.(예, ‘고작’.)

108005 #2 그 저 고망 파근에 꼭 끼와근에 영 세와 낱 그 우에 또 낱 박젠 허

---

327) ‘고작’은 나뭇가지나 대 등으로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방 안의 벽 같은 데에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거는 데 쓰는 걸이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문.(그 저 구멍 파서 꼭 끼워서 이렇게 세워 놔서 그 위에 또 나무 박으려고 하면.)

108005 @ 고작 세왕양, 고작. 서까래 알지양? 서리, 서리가 서까래 아니?('고작' 세워요, '고작'. 서까래 알지요? '서리', '서리'가 서까래 아니?)

108005 #1 서리, 아, 서리, 서리. 거 서까래렌 안 허영 서리렌 허주.(서까래, 아, 서까래, 서까래. 거 '서까래'라고 안 해서 '서리'라고 하지.)

108005 @ 서리, 서리, 건 주로 저 어디 소낭빳디 강.(서까래, 서까래, 건 주로 저 어디 소나무밭에 가서.)

108005 #1 어, 소낭빳디 강 해당.(어, 소나무밭에 가서 해당.)

108006 @ 서리, 그다음에 아까 곶앗주만은, 옛날은 흑으로 다 허지 안 헛수강 계? 옛날 저 흑, 흑질 허여근에 쉼로 밧 갈아근에 거기에 보리낭 ㄱ쁜 거 막 놔근 에, 동네 사름덜 물 질어당 거기 놔근에.(서까래,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옛날은 흑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저 흑, 흑질해서 소로 밧 갈아서 거기에 보릿짚 같은 거 마구 놔서, 동네 사람들 물 길어다가 거기 놔서.)

108006 #2 보리낭 작두에 낱 막 썰영, 불량.(보릿짚 작두에 놔서 마구 썰어서, 밟아서.)

108006 @ 썰영, 불량근에.(썰어서, 밟아서.)

108006 #2 그레 물 노멍 막 떡 찌듯 쩍.(그리 물 넣으면서 마구 떡 찌듯 쩍서.)

108006 #1 산디찍이 더 질겨, 겐디 그게 힘들거든, 게난 보리낭으로 허는 거라. 보리낭보단 산디찍이 낫주, 더 질겨.(밭벧짚이 더 질겨, 그런데 그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보릿짚으로 하는 거야. 보릿짚보다는 밟벧짚이 낫지, 더 질겨.)

108006 @ 게난 동네 사름덜 그때 다 모여서.(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108006 #2 예.(예.)

108006 #1 아, 다 모였주.(아, 다 모였지.)

108006 @ 이 저 허벽으로 다 물 쳐다근에, 수눌음으로.(이 저 '허벽'으로 다 물 쳐다가, 품앗이로.)

108006 #2 경 헛수다게.(그렇게 했습니다.)

108006 #1 경 헤낫수다. 물 부영.(그렇게 했었습니다. 물 부어서.)

108006 @ 경 헤근에.(그렇게 해서.)

108006 #2 그거 오줌 받아난 오줌항<sup>328</sup>에 거까지 다 비완 헛수다.(그거 오줌 받았던 '오줌항'에 거까지 다 부어서 했습니다.)

108006 @ 거난 이제 이 지둥허고 지둥 사이에 그 켜쨌헛 낭으로 헤근에 끈으로 무꺼근에 거기 흑질 허지 안 헛수가양?(그러니까 이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그 자잘한 나무로 해서 끈으로 묶어서 거기 흑질하지 않았습니까?)

108006 #2 거 여꺼근에, 여꺼근에.(거 엮어서, 엮어서.)

108006 @ 여꺼근에 허는 건 뭐 허는 겨우짜?(엮어서 하는 건 뭐 하는 것입니까?)

328) '오줌항'은 거름으로 쓸 오줌을 담아두는 항아리이다.

108006 #2 계난 구멍 요기 영 요만한 거 여꺼근에.(그러니까 구멍 요기 이렇게 요만한 거 엮어서.)

108006 @ 여꺼근에.(엮어서.)

108006 #2 무사 간테기, 간테기.(왜 외, 외.)

108006 #1 간테기.(외.)

108006 @ 간테끼?(외?)

108006 #1 예, 간테기, 간테기.(예, 외, 외.)

108006 @ 아, 거난에.(아, 그러니까.)

108006 #2 방에도 이런 디.(방에도 이런 데.)

108006 @ 다 해사 협주.(다 해야 하지요.)

108006 #2 간테기, 간테기.(외, 외.)

108006 @ 경 해근에 이제 흑질허영.(그렇게 해서 이제 흑질해서.)

108006 #1 간테기, 간테기.(외, 외.)

108006 @ 예, 멘짝허게 불량.(예, 평평하게 발라서.)

108006 #1 거 간테기.(거 외.)

108006 #2 간테기가 맞아. 호호호.(웃음)(외가 맞아. 호호호.(웃음))

108006 #1 간테기 영 허영, ㄴ는 낭으로 영 허영 여끄는 거.(외 이렇게 해서, 가는 나무로 이렇게 해서 엮는 거.)

108006 @ ㄴ는 낭으로.(가는 나무로.)

108006 #1 채와근에 무꺼근에 영, 흑질 허고.(채워서 묶어서 이렇게, 흑질하고.)

108006 @ 그때 그 저 뭐짱? 짝으로 노 꼬아근에 영 영 무끄지 안 헛수가양?(그때 그 저 뭐입니까? 짝으로 노 꼬아서 이렇게 이렇게 묶지 않았습니까?)

108006 #2 짝으로 노 꼬양 간테기 여껏주예.(짝으로 노 꼬아서 외 엮어서요.)

108006 @ 여껏지.(엮었지.)

108006 #1 간테기, 간테기.(외, 외.)

108006 #2 예, 간테기. 아니, 게 낭 요멘씩 놓으멍 여끄는 건 배 ㄴ늘게 깎양 간테기를 여꺼 놔사 그레 꼭 부짱 거 아이우꽈?(예, 외. 아니, 그레 나무 요만큼씩 놓으면서 엮는 건 참바 가늘게 꼬아서 외를 엮어 놔야 그리 꼭 붙일 거 아닙니까?)

108006 @ 음, 거난에 경 해근에 흑 불르주.(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흑 발라서.)

108006 #2 예, 손으로 흑 짱 불르른 저 세멘 불른 것보다 더 곱게덜 불립니다.(예, 손으로 흑 짱 바르면 저 시멘트 바른 것보다 더 곱게들 바릅니다.)

108006 #1 맞아, 간테기, 간테기. 이 서리헌 트망이 다 간테기주.(맞아, 외, 외. 이 서까래 한 틈이 다 외지.)

108006 #2 아, 맞아, 문딱 간테기.(아, 맞아, 모두 외.)

108006 @ 지금 아직 뭐 스투트집 잇수다만은 그것도 다 우에 서까래, 서리 헤 여근에 거기도 다 흑으로 불라, 여꺼근에.(지금 아직 뭐 슬레이트집 잇습시다만 그

것도 다 위에 서까래, 서까래 해서 거기도 다 흙으로 발라, 엮어서.)

108006 #2 여경 안으로 한 번 짝 붙랏수게.(엮어서 안으로 한 번 짝 붙랏습니다.)

108006 #1 집도 그 기와집 그튼 데 좋은 데는 서리 해근에 앙토 짝 해근에.(집도 그 기와집 같은 데 좋은 데는 서까래 해서 앙토 짝 해서.)

108006 @ 예, 경 허연.(예, 그렇게 해서.)

108006 #1 해 노른 보기 좋아, 완전 좋아.(해 놓으면 보기 좋아, 완전히 좋아.)

108006 @ 마리에도 이 낭덜 다 보이게 헨에 그레 뭐냐 백회?(마루에도 이 나무들 다 보이게 해서 그리 뭐냐 백회?)

108006 #1 예.(예, 백회.)

108006 @ 백회로.(백회로.)

108006 #1 경 허른 완전 보기 좋아마씨.(그렇게 하면 완전 보기 좋아요.)

108006 @ 흑질 해난 다음 백회로 짝 맥연에 허니까.(흑질 했던 다음 백회로 짝 칠해서 하니까.)

108006 #1 예, 알암신게마씨.(예, 알고 있네요.)

108006 @ 하얗허게.(하얗게.)

108006 #1 그건 보기 좋아마씨, 그거 허민 보기 좋아마씨.(그건 보기 좋아요, 그거 하면 보기 좋아요.)

108006 @ 예.(예.)

108006 #1 양옥집쯤 저리 가라라.(양옥집쯤 저리 가라야.)

108006 @ 예.(예.)

108006 #1 지금도 그추룩만 지으민.(지금도 것처럼만 지으면.)

108006 @ 계난 영 탱이단 보난양.(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요.)

108006 #1 그런 집 엷을 걸.(그런 집 없을 걸.)

108006 @ 저 어디냐 해안도로 같은 데 커피 허는 디 보니까 이 저 스투트집 산에 거기서덜 카페덜 만들엄더라고, 여기도 보난, 서광<sup>329</sup>도 보난.(저 어디냐 해안도로 같은 데 커피 하는 데 보니까 이 저 슬레이트집 사서 거기서들 카페들 만들고 있더라고, 여기도 보니까, 서광리도 보니까.)

108006 #2 이젠예, 창고도.(이젠요, 창고도.)

108006 @ 창고에, 창고에덜 헨에.(창고에, 창고에들 해서.)

108006 #2 예.(예.)

108006 #1 거난 지금도 영 서리, 서리 영 허여근에 앙토 백회를 붙라노민 진짜 양옥집 저리 가라야.(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서까래, 서까래 이렇게 해서 앙토 백회를 붙라놓으면 진짜 양옥집 저리 가라야.)

108006 @ 아이고, 시원허고양.(아이고, 시원하고요.)

108006 #1 시원도 허곡, 웨국 사름 와도 야.(시원도 하고, 외국 사람 와도 야.)

329) '서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를 말한다.



108006 @ 계난 옛날 사람덜도 거길 흑으로 한다는 게 대단헌 거라. 요즘도 보민게 제일 좋은 집이 황토집 아니우파? 황토, 황토 불량은에.(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거길 흑으로 한다는 게 대단한 거야. 요즘도 보면 제일 좋은 집이 황토집 아녜니까? 황토, 황토 발라서.)

108006 #1 으게.(아.)

108006 @ 계난 흑이 이 사람 몸하고 호흡이 되는 모양이라, 계난 흑집 살민 건강허덴.(그러니까 흑이 이 사람 몸하고 호흡이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흑집 살면 건강하다고.)

108006 #1 계난 세멘은 거 독이 잇잖아, 독.(그러니까 시멘트는 거 독이 잇잖아, 독.)

108006 @ 음.(음.)

108006 #1 세멘에 독이 잇이난, 계난 흑은 그런 게 없지.(시멘트에 독이 잇으니까, 그러니까 흑은 그런 게 없지.)

108006 #2 여기도 황토집 하나 실 거우다.(여기도 황토집 하나 있을 것입니다.)

108006 #1 어디?(어디?)

108006 #2 문○○ 어멍네 앞 밧거레. 문○○ 어멍네 밧거레 초집, 거기.(문○○ 어머니네 앞 바깥채. 문○○ 어머니네 바깥채 초가, 거기.)

108006 #1 아, 거긴 황토집은 아이고, 뭐야 돌집 잇주.(아, 거긴 황토집은 아니고, 뭐야 돌집 잇지.)

108006 #2 돌집 셔도 그거 흑 불량 헌 집일 거우다.(돌집 잇어도 그거 흑 발라서 한 집일 것입니다.)

108006 @ 이제 흑집덜 엇어.(이제 흑집들 엇어.)

108006 #2 그 집 하나 잇수다.(그 집 하나 있습니다.)

108006 #1 그 췌끄만 거, 막살이 트더불지 아니허영.(그 조그만 거, 오막살이 뜯어버리지 않아서.)

108006 @ 이제는 옛날 거 그대로 놔둬시민.(이제는 옛날 거 그대로 놔뒀으면.)

108006 #2 양, 우리 폴아분 집도 흑집 아이파게?(예, 우리 팔아버린 집도 흑집 아녜니까?)

108006 #1 계난.(그러니까.)

108006 #2 잇수게게. 아이고, 스투튼 더꺼전 잇어도예, 혁집 잇수다.(있습니다. 아이고, 슬레이트는 덮어져 잇어도요, 흑집 있습니다.)

108006 #1 스투뜨 더꺼집뿐.(슬레이트 덮어집뿐.)

108006 @ 계난 우에 다 흑으로 더뻗구나.(그러니까 위에 다 흑으로 덮었구나.)

108006 #1 아니, 스투뜨 더뻗주, 스투뜨.(아니, 슬레이트 덮었지, 슬레이트.)

108006 @ 아니, 계난 흑으로 허여난 다음에 스투뜨 더뻗 거 아니?(아니, 그러니까 흑으로 했던 다음에 슬레이트 덮은 거 아니?)

108006 #2 우에는.(위에는.)

108006 #1 아, 거 있어.(아, 거 있어.)

108006 #2 읊어도 문딱 흑으로 우리 시아방.(옆에도 모두 흑으로 우리 시아버지.)

108006 #1 거 양토흑으로 다 해서. 양토흑으로 다 뉘서, 그거.(거 양토로 다 했어. 양토로 다 뉘어, 그거.)

108006 #2 돌맹이 하나 마리에.(돌맹이 하나 마루에.)

108006 @ 양토가 영 발르는 거 아니?(양토가 이렇게 바르는 거 아니?)

108006 #2 혁으로, 혁으로.(흑으로, 흑으로.)

108006 #1 아니, 우이 흑질헌 거, 우에도 깨끗하게 흑질헌 거.(아니, 위에 흑질한 거, 위에도 깨끗하게 흑질한 거.)

108006 #2 우에도 문짝 불란.(위에도 몽땅 발라서.)

108006 @ 그거 양토양?(그거 양토요?)

108006 #1 예, 양토.(예, 양토.)

108006 #2 우리 살아난 집 가보민 잇구나.(우리 살았던 집 가보면 있구나.)

108006 #1 가보민 잇일 거라, 그거, 우리 살아난 집이.(가보면 있을 거야, 그거, 우리 살았던 집에.)

108006 #2 하이고, 그거 뿡 왕, 울어져, 그거 돌맹인 요만씩 헌 거 하나 낱 흑 혼 징 놓곡.(아이고, 그거 봐서 와서, 울어져, 그거 돌맹인 요만큼씩 한 거 하나 놔서 흑 한 켜 놓고.)

108006 #1 아니, 그거는 옛날이주만은, 계난 우에 흑질해낫주, 위에다.(아니, 그거는 옛날이지만, 그러니까 위에 흑질했었지, 위에다.)

108006 @ 흑으로?(흑으로?)

108006 #1 예, 서리 헌 트망으로, 깨끗하게.(예, 서까래 한 틈으로, 깨끗하게.)

108006 @ 계난 그땐 이 흑을 영 손으로 허연 올렛주게.(그러니까 그땐 이 흑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올렸지.)

108006 #1 올러근에 싹.(올려서 싹.)

108006 #2 밋테선 요만씩 허영 올리른게, 불르곡.(밑에서 요만큼씩 해서 올리면, 바르고.)

108006 #1 영 메기젠 허민 얼마나 힘든 거라게. 그거 다 헛다니까.(이렇게 칠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거야. 그거 다 헛다니까.)

108006 #2 우리 시아버지가 야속해난 어른이난양 다시.(우리 시아버지가 야속했던 어른이니까 다시.)

108006 @ 나도 그 호근리 간 낭 사 온 거 이 뭐파? 이거 포허고 포 사이에 가운데 걸치는 낭이 뭐더라, 그것을양 나 대패로 다 벗겄수게. 둥글락허게 벗기난 아, 우리 아버지, 야, 그런 거 절간ㄴ찌 둥글락허게 벗기는 거 아니여, 네귀방장허게 벗기렌, 경 해낫수다게.(나도 그 호근리 가서 나무 사 온 거 이 뭐입니까? 이거 보하고 보 사이에 걸치는 나무가 뭐더라, 그것을요 나 대패로 다 벗겄습니다. 둥그렇게

벗기니까 아, 우리 아버지, 야, 그런 거 절같이 동그랗게 벗기는 거 아니야, 네모반  
듯하게 벗기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8007 @ 계민 이제 구들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구들. 구들 보면은 구들 종류  
도 있지 안 허파? 구들 종류. 큰 구들, 작은 구들.(그러면 이제 방에 대해서 알아보  
겠습니다. 방. 방 보면은 방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방 종류. 큰 방, 작은 방.)

108007 #1 에에, 그건 마찬가지로우다게.(에에, 그건 마찬가지로입니다.)

108007 @ 그냥 구들.(그냥 방.)

108007 #1 계난 스간집은, 스간집은 구들 두 개, 삼간집은 구들 하나, 이런 식으  
로 허주. 구들 큰 거, 작은 거 허지 안 험니다.(그러니까 사간집은, 사간집은 방 두  
개, 삼간집은 방 하나, 이런 식으로 하지. 방 큰 거, 작은 거 하지 않습니다.)

108007 @ 큰 구들, 작은 구들양.(큰 방, 작은 방요.)

108007 #1 그런 건 이녁 생각대로 크게 허젠 허민 크게 허는 거, 족게 허젠 허  
민 족게 허는 거고, 그거.(그런 건 이녁 생각대로 크게 하려고 하면 크게 하는 거,  
작게 하려고 하면 작게 하는 거고, 그거.)

108007 @ 그다음에 구들에 무신거 이런 시렁도, 놓는 거?(그다음에 방에 무엇  
이런 시렁도, 놓는 거?)

108007 #1 백장.(벽장.)

108007 @ 시렁은 엇어났수가?(시렁은 없었습니까?)

108007 #1 백장이엔 허주, 백장.(벽장이라고 하지, 벽장.)

108007 @ 음, 백장, 백장.(음, 벽장, 벽장.)

108007 #2 이불 엇어놓곡 허는 디.(이불 엇어놓고 하는 데.)

108007 @ 백장 허민 무신거 놔?(백장 하면 무엇 놔?)

108007 #1 이불 놓주게.(이불 놓지.)

108007 @ 이불허고?(이불하고?)

108007 #2 궤.(궤.)

108007 #1 주로 궤허고 이불 낫주.(주로 궤하고 이불 낫지.)

108007 @ 이불허고 궤양.(이불하고 궤요.)

108007 #1 이제 ㄹ찌 옷이 어디 셔? 그냥 궤 하나허고 이불 허민 다 들어갓주.  
(이제같이 옷이 어디 있어? 그냥 궤 하나하고 이불 하면 다 들어갓지.)

108007 @ 그 저 구들 허면은 정지에서 옛날은 그런 거 엇엇주만은 정지에 불  
떨 거 아니우파양? 큰구들에.(그 저 방 허면은 부엌에서 옛날은 그런 거 없었지만  
부엌에 불 떨 거 아닙니까? 큰방에.)

108007 #2 굴묵 짓는 거.(‘굴묵’ 때는 거.)

108007 @ 불 때면은 그 백장 옆이는 뭐엔 험니까? 따듯헌 디.(불 때면은 그 벽  
장 옆에는 뭐라고 합니까? 따듯한 데.)

108007 #1 안자리.(아랫목.)

108007 #2 안자리.(아랫목.)

108007 @ 안자리, 음, 안자리양. 그다음에 베꼈디는?(아랫목, 음, 아랫목요. 그다음에 바깥에는?)

108007 #2 밧자리.(윗목.)

108007 #1 거 베꼈디는 밧자리.(거 바깥에는 윗목.)

108007 @ 밧자리, 음, 밧자리. 안자리, 밧자리.(윗목, 음, 윗목. 아랫목, 윗목.)

108007 #2 안자리는 시부모 실 땀 시부모 눅정, 밧자린 아기덜 어릴 때 눅꼭, 경 헤십주게, 옛날엔.(아랫목은 시부모 있을 땀 시부모 눅혀서, 윗목은 아기들 어릴 때 눅고, 그렇게 했습지요, 옛날엔.)

108007 @ 이거 표준어로는양 아랫목, 아랫목, 윗목이엔 험니다게.(이거 표준어로는 아랫목, 아랫목, 윗목이라고 합니다.)

108007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8007 @ 계난 이 제주도 말로는 안자리, 밧자리. 아, 거 안자리, 밧자리 경 큰 사람이 별로 엇어.(그러니까 이 제주도 말로는 ‘안자리’, ‘밧자리’. 아, 거 ‘안자리’, ‘밧자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엇어.)

108007 #1 겨고 여기 저 이젠 무신겨 엇주만은 두지라고 엇어, 두지.(그리고 여기 저 이젠 무엇 없지만 뒤주라고 엇어, 뒤주.)

108007 @ 두지?(뒤주?)

108007 #1 예.(예.)

108007 @ 거 저 쓸 노는 거 아니?(거 저 쌀 넣는 거 아니?)

108007 #2 쓸 노는 거.(쌀 넣는 거.)

108007 @ 쓸 노는 거, 그거는 고팡에 이신 거.(쌀 넣는 거, 그거는 고팡에 있는 거.)

108007 #1 게메, 거 큰 낭으로 멘들양, 옛날 광이 엇이니까.(글쎄, 거 큰 나무로 만들어서, 옛날 광이 없으니까.)

108007 @ 예, 그건 고팡에 놓는 거.(예, 그건 고팡에 놓는 거.)

108007 #1 두지, 두지라.(뒤주, 뒤주야.)

108007 @ 두지. 낭으로 헤근에, 것도 웬만한 집은 엇어났어.(뒤주. 나무로 해서, 것도 웬만한 집은 없었어.)

108007 #1 아, 거난 워낙 부젧집이나 셔낫주.(아, 그러니까 워낙 부젧집이나 있었지.)

108007 #2 우리 시아방은 살레도 문딱 그추룩 헨 짠 싯고, 두지도 짠 싯디다.(우리 시아버지는 살강도 모두 것처럼 해서 짜서 있고, 뒤주도 짜서 있습니다.)

108007 @ 그거 다 물어볼 겨우다, 거난에 살레. 요즘 저 어디냐 저 노형<sup>330</sup> 쪽에 보난에 살레식당도 이선게만은.(그거 다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강. 요즘 저 어디냐 저 노형 쪽에 보니까 ‘살레식당’도 있던데만.)

108007 #1 아, 게, 덕수<sup>331</sup>에도 살레, 이디 살레 잇수다게.(아, 그래, 덕수에도

330) ‘노형’은 제주시 노형동을 말한다.

‘살레’, 여기 ‘살레’ 있습니다.)

108007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8007 #1 그거 살레, 살레 그 말 뿐 딴 살레 헛 거주게.(그거 살강, 살강 그 말 본떠서 ‘살레’ 한 거지.)

108008 @ 그런 디 많아. 그 이젠 마루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마루는 옛날 주로 뭘로 사용했수가? 마리에서 뭘 허연?(그런 데 많아. 그 이젠 마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루는 주로 옛날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마루에서 뭘 해?)

108008 #1 아, 여름이게 마리에서 짐자곡게. 거의 다 방에 자지 안 행 마리에서 갖주게.(아, 여름에 마루에서 잠자고. 거의 다 방에 자지 않아서 마루에서 잤지.)

108008 @ 여름엔양, 시원허니까.(여름엔요, 시원하니까.)

108008 #1 시원허니까 앓양 노는 것도.(시원하니까 앉아서 노는 것도.)

108008 @ 거고 저 옛날 식게 험 때도 마리에서 헛지양?(그리고 저 옛날 제사 할 때도 마루에서 헛지요?)

108008 #1 아니, 식게는 저.(아니, 제사는 저.)

108008 #2 마리에, 제삿상 벌이민 마리에 해 앓양.(마루에, 제사상 벌이면 마루에 거의 앉아서.)

108008 #1 아니, 제삿상은 아니고.(아니, 제사상은 아니고.)

108008 @ 제삿상 벌일 때 마리에서 안 험니까?(제사상 벌일 때 마루에서 안 합니까?)

108008 #1 아니, 아니, 안 허여, 방에서.(아니, 아니, 안 해, 방에서.)

108008 #2 우린 방에서 험니다.(우린 방에서 합니다.)

108008 @ 아, 아.(아, 아.)

108008 #1 방에서 허주, 마리에 제삿상 안 벌여.(방에서 하지, 마루에 제사상 안 벌여.)

108008 @ 우린 이 저 마리에서 흘립니다게.(우린 이 저 마루에서 차립니다.)

108008 #2 기우파?(그렇습니까?)

108008 @ 마리에서 상 차령.(마루에서 상 차려서.)

108008 #2 우린 안방에 상, 제삿상 출려뵈 여기덜 앓양 친척덜 오민, 제삿상 딱 벌여뵈 저녁 싹 출령 앓양 먹영, 제사 끝나민 그자 거기서 과일덜이나 떡곡 허여근에 헤어집니다. 우린 무사 경 험시냐 물어보난에 이 귀신은 딱뜻헌 디 안 온덴 허여근에 마리에서.(우린 안방에 상, 제사상 차려뵈서 여기들 앉아서 친척들 오면, 제사상 딱 벌여뵈서 저녁 싹 차려서 앉아서 먹어서, 제사 끝나면 그저 거기서 과일들이나 먹고 해서 헤어집니다. 우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귀신은 딱뜻헌 데 안 온다고 해서 마루에서.)

108008 #2 여기 우린 방에서 모십니다.(여기 우린 방에서 모십니다.)

108008 @ 아, 것도 집안마다 다 틀리구나. 게고 켜당덜은 여기 앓양 식게 때꺼

---

331) ‘떡수’는 서귀포시 떡수리이다.

지, 이젠 당일 제사덜을 허난 초저녁이 햐주만은, 일단 톱 열두 시 돼어야만 제살 지넵니다게. 게문 그때까지 저녁은 여기 왕 먹곡, 제사 지나문 거기서 그자 술이나 혼 잔 허고 과일덜이나 먹영 헤어집니다게.(아, 그것도 집안마다 다 다르구나. 그리고 친척들은 여기 앉아서 제사 때까지, 이젠 당일 제사들을 하니까 초저녁에 하고 있지만, 일단 톱 열두 시 돼야만 제사를 지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녁은 여기 와서 먹고, 제사 지나면 거기서 그저 술이나 한 잔 하고 과일들이나 먹어서 헤어집니다.)

108008 @ 옛날 저 마리에서 현 장소가 제일 널브난 마리에서 현 거 님아.(옛날 마루에서 한 장소가 제일 넓으니까 마루에서 한 거 같아.)

108008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8008 @ 옛날엔 방도 하도 족아노난.(옛날엔 방도 하도 작아 놓으니까.)

108008 #2 방이 정말 췌끄만 헛수게.(방이 정말 조금만 했습니다.)

108008 @ 하이고, 그런 디 멧 식구 사는 거 보민 참 그때 생각허면은.(하이고, 그런 데 멧 식구 사는 거 보면 참 그때 생각하면은.)

108008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8008 @ 거난 이제 마리 ㄱ뎡 디 보면은, 미싱도 마리에 놔놋지양?(그러니까 이제 마루 같은 데 보면은, 재봉틀도 마루에 놔놋지요?)

108008 #2 예게.(예.)

108008 @ 미싱도 방에 놓젠 허민 족아부니까.(재봉틀도 방에 놓으려고 하면 작아 버리니까.)

108008 #2 미싱 나 저 부엌이 님수게, 저거 봅서.(재봉틀 나 저 부엌에 님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108008 @ 게난. 미싱, 아, 미싱도 잇구나.(그러니까. 재봉틀, 아, 재봉틀도 잇구나.)

108008 #2 예, 부엌에 님수게. 호호호.(웃음)(예, 부엌에 님습니다. 호호호.(웃음))

108008 @ 게도 미싱이 막 좋은 미싱인 거 님수다.(그래도 재봉틀이 아주 좋은 재봉틀인 거 같습니다.)

108008 #2 저건 영업용 미싱이우다.(저것은 영업용 재봉틀입니다.)

108008 @ 게메, 막 좋은 거 님아.(글쎄, 아주 좋은 거 같아.)

108008 #2 저거, 영업, 영업용 미싱.(저거, 영업, 영업용 재봉틀.)

108008 @ 이제 썬져마썬?(이제 썬져요?)

108008 #2 예, 썬집니다.(예, 썬집니다.)

108008 @ 지금도, 뭘 할 때 썬니까?(지금도, 뭘 할 때 썬니까?)

108008 #2 아, 게도 저거 옷덜 일복 치져지민 대충 저기서 줌도 허영 입엄십주게.(아, 그래도 저거 옷들 일복 찢어지면 대충 저기서 주기도 해서 입고 있습지요.)

108008 @ 음, 거 마리에서 옛날 저 화리 저.(음, 거 마루에서 옛날 저 화로 저.)

108008 #2 화리 불 살랑.(화로 불 살려서.)

108008 @ 뭐냐 저 솥에 불 살라근에.(뭐냐 저 솥에 불 살려서.)

108008 #2 경 행 마리에 제사 땀 큰 화리, 난 시집완 보난 정동화리 이만헌 거 선에 그자 겨울나민 그 불을 솥으로 허영 매날 살려십주.(그렇게 해서 마루에 제사 땀 큰 화로, 난 시집와서 보니까 정동화로 이만한 거 있어서 그저 겨울나면 그 불을 솥으로 해서 땀날 살렸습지요.)

108008 @ 그다음에 그 거기에 여름 땀 줌도 자고, 마리에서.(그다음에 그 거기에 여름 땀 줌도 자고, 마루에서.)

108008 #2 예게. 마리에, 여름엔 모기장 쳐근에 해 마리에서 잡니다게.(예. 마루에, 여름엔 모기장 쳐서 거의 마루에서 잡니다.)

108008 @ 예, 모기장 청양. 나도 옛날 살아난 거 생각납수다.(예, 모기장 쳐서요. 나도 옛날 살았던 거 생각나네요.)

108008 #2 마리에 해 자십주.(마루에 거의 잤습지요.)

108008 @ 그다음에 그 마리는 저 뭘로, 낭으로 만들었지양? 옛날에.(그다음에 그 마루는 저 무엇으로, 나무로 만들었지요? 옛날에.)

108008 #2 옛날 마리허민 그 낭 한라산에 강 해당 쟈영 대패로 영 밀영, 마리난 마리우파게? 구멍이 송송송 나고 경 현 마리를 헤쳐십주. 거기에 감물 들영.(옛날 마루하면 그 나무 가서 해다가 쟈어서 대패로 이렇게 밀어서, 마루니까 마루입니까? 구멍이 송송송 나고 그렇게 한 마루를 했었습지요. 거기에 감물 들여서.)

108008 @ 아, 거기에 색깔 들영.(아, 거기에 색깔 들여서.)

108008 #2 색깔 나게.(색깔 나게.)

108008 @ 아, 널 우티. 게든 이 저 마리엔 낭, 마리에 낭 요만씩 허지 안 험니까? 여기 가운데 이신 거 귀클이엔 험니까?(아, 널 위에. 그러면 이 저 마루엔 나무, 마루에 나무 요만큼씩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거 귀틀이라고 험니까?)

108008 #1 예, 밋테 거 귀클.(예, 밑에 거 귀틀.)

108008 @ 귀클에 영 맞대영, 귀클양.(귀틀에 이렇게 맞대어서, 귀틀요.)

108008 #2 예.(예.)

108008 @ 귀클 놔근에 낭을 영 영 끼우는 거 아니우파? 귀클양. 거난 그 마리 밋테는?(귀틀 놔서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거 아닙니까? 귀틀요. 그러니까 그 마루 밑에는?)

108008 #2 돌.(돌.)

108008 @ 돌덜 낵.(돌들 놔서.)

108008 # 돌 낵.(돌 놔서.)

108008 #2 돌도 경 험니다게, 아까 말마따나 새 새 새 돌도 경 놓곡.(돌도 그렇게 험니다, 아까 말마따나 사이 사이 사이 돌도 그렇게 놓고.)

108008 # 계난 거 굴랑굴랑<sup>332</sup> 허른 뉘어게, 낭이 멧 년 가? 돌이 완전 뭐 허

주.(그러니까 그거 ‘굴랑굴랑’ 하면 돼, 나무가 몇 년 가? 돌이 완전 뭐 하지.)

108008 @ 돌로양, 그 돌도 산에 가근에 거기 남직현 돌덜 가져왕 놓는 거양.(돌로요, 그 돌도 산에 가서 거기 놓을 것 같은 돌들 가져와서 놓는 거요.)

108008 #1 예게, 여기 저 기둥 닮은 거, 뭐 주춧돌 닮은 거 해당.(예, 여기 저 기둥 같은 거, 뭐 주춧돌 같은 거 해다가.)

108008 #2 그거 해당 돌 깨는 도치로 문딱 크쟁케 허영.(그거 해다가 돌 깨는 도치로 모두 가지런하게 해서.)

108008 #1 경 안 허문게 그거 꼭 그트질 안 허주게.(그렇게 안 하면 그거 꼭 같지 않지.)

108008 @ 흥글흥글허여근에.(흔들흔들해서.)

108008 #1 다 맞추양.(다 맞추어서.)

108009 @ 그다음에 고팡에 대허영 물어보쿠다양, 고팡. 삼촌네는 저 이 고팡에 식계혈 때 거기 저 무신거 놓니까?(그다음에 고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팡. 삼촌네는 저 이 고팡에 제사할 때 무엇 놓습니까?)

108009 #2 아, 안 놓니다.(아, 안 놓습니다.)

108009 #1 안 놔.(안 놔.)

108009 @ 안칠성<sup>333</sup>이엔 허영.(‘안칠성’이라고 해서.)

108009 #2 안 놓니다게.(안 놓습니다.)

108009 @ 안 허여마씨?(안 해요?)

108009 #2 우린 그런 거 엇수다.(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108009 #1 이 동네 그런 거 엇어.(이 동네는 그런 거 없어.)

108009 #2 저 기자 문전상<sup>334</sup> 하나 놓주양, 거 일절 엇수다게.(저 그저 ‘문전상’ 하나 놓지요, 거 일절 없습니다.)

108009 #1 그런 거 아니허고, 또 여긴 문전상이엔 현 건.(그런 거 앓고, 또 여긴 ‘문전상’이라고 한 건.)

108009 @ 아, 문전상은 놓고?(아, ‘문전상’은 놓고?)

108009 #2 예, 문전상은 놓니다, 이제도 문전상은 놓니다.(예, ‘문전상’은 놓니다, 이제도 ‘문전상’은 놓니다.)

108009 @ 우린 고팡에 그거 놓니다게.(우린 고팡에 그거 놓니다.)

108009 #2 그건 안, 안칠성이엔 허영, 이렌 그런 것이 엇수다.(그건 안, ‘안칠성’이라고 해서, 이리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108009 @ 옛날 우리 조상덜 계속 노니까.(옛날 우리 조상들 계속 놓으니까.)

108009 #1 광에 놓는 건 저 어디 우영팻디도 강은에 느람지<sup>335</sup> 영 해근에.(광에 놓는 건 저 어디 터알에도 가서 ‘느람지’ 이렇게 해서.)

332) ‘굴랑굴랑’은 물체가 착 달라붙지 않고 부풀어서 들썩이는 모양이다.

333) ‘안칠성’은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을 말한다. 집 안인 고팡에 있는 경우가 많다.

334) ‘문전상’은 마루방의 문을 관장하는 신이다.

335) ‘느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108009 @ 아, 그런 건 없고.(아, 그런 건 없고.)

108009 #1 그런 것이 거의 비슷하게 허여.(그런 것이 거의 비슷하게 해.)

108009 @ 우린 그런 거 없고 옛날부터 영 내려오난에.(우린 그런 거 없고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108009 #2 예, 안칠성이엔 노는 디가.(예, ‘안칠성’이라고 놓는 데가.)

108009 @ 지금, 지금도 놔마썸.(지금, 지금도 놔요.)

108009 #1 아, 거는 바깥디도.(아, 거는 바깥에도.)

108009 #2 아, 그거 ○○이네 집 하나 놔.(아, 그거 ○○이네 집 하나 놔.)

108009 #1 다 밧칠성<sup>336</sup>은 우영팟디 허곡, 안칠성은 고평에 맞아.(다 ‘밧칠성’은 터알에 하고, ‘안칠성’은 고평에 맞아.)

108009 #2 아, 안칠성.(아, ‘안칠성’.)

108009 @ 우리 멩질 때나 식게 때는 꼭 거 험니다게.(우리 멩질 때나 제사 때는 꼭 거 합니다.)

108009 #2 밖에 가근에 허영 차룽착라도 허영 낭.(밖에 가서 해서 채룽짝이라도 해서 놔서.)

108009 @ 본상 워로 그 문전상허고 그거.(본상 외로 그 ‘문전상’하고 그거.)

108009 #2 맞수다게, 허는 집, 여긴 우리 동네 ○○이네 집이.(맞습니다, 하는 집, 여긴 우리 동네는 ○○이네 집에.)

108009 #1 아이고, 옛날에 우리 동네 하르방 하난 스몛 문 병 걸런 죽언, 난 재게 죽어불젠 직장 텡길 때 무신거 걸런 허난에 큰 수구렁이 뱀이난 그거 잡아단 먹으난 좋아불언. 좋아불언, 죽음이랑 마랑.(아이고, 옛날에 우리 동네 할아버지 많으니까 사몛 모두 병 걸려서 죽었어, 난 재우 죽어버리려고 직장 다닐 때 무엇 걸려서 큰 수구렁이 뱀이니까 그거 잡아다가 먹으니까 좋아 버렸어. 좋아 버렸어, 죽음이랑 마랑.)

108009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8009 #1 재게 죽어불젠, 하하하,(웃음) 게난 그런 게 어디 있어?(재우 죽어버리려고, 하하하.(웃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108009 @ 맞수다게.(맞습니다.)

108009 #1 가치가 엇어.(가치가 없어.)

108009 @ 게난 물어보쿠다. 고평에 두지 놓고.(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고평에 뒤주 놓고.)

108009 #1 예, 그다음 향.(예, 그다음 독.)

108009 @ 그다음에 향.(그다음에 독.)

108009 #2 향아리도 양쪽으로 짝 낭 보리 비민 물리왕 딱 담아두곡, 조도 마찬가지로. 향아리도 낭.(향아리도 양쪽으로 짝 놔서 보리 베면 말려서 딱 담아두고, 조도 마찬가지로요. 향아리도 놔서.)

336) ‘밧칠성’은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을 말한다. 집 밖인 터알에 있는 경우가 많다.

108009 @ 그 후엔 도라무통 ㄴ쁜 거 ㄴ져단 헛주만은, 그땐 도라무통이 어디 셔.(그 후엔 드럼통 같은 거 가져다가 했지만, 그땐 드럼통이 어디 있어.)

108009 @ 향아리로양.(향아리로요.)

108009 #1 그 향아리가 제일 좋긴 허고게.(그 향아리가 제일 좋긴 하고.)

108009 #2 우리 도로무깡보다도 더 큰 향아리도 잇수다게. 이제도 잇수다.(우리 드럼통보다도 더 큰 향아리도 있습니다. 이제도 있습니다.)

108009 @ 아, 옛날 거멍헌 거라양.(아, 옛날 거먼 거야.)

108009 #1 아니, 거멍헌 건 물, 물향이고.(아니, 거먼 건 물, 물독이고.)

108009 #2 붉은, 붉은 향아리마씨.(붉은, 붉은 향아리요.)

108009 @ 옛날 거 우린 거멍허더라고.(옛날 거 우린 거멍더라고.)

108009 #1 거멍헌 건 물향아리.(거먼 건 물향아리.)

108009 #2 건 물향아리로 쓰고.(건 물향아리로 쓰고.)

108009 #1 거멍헌 거 막 큰 거라?(거먼 거 아주 큰 거야?)

108009 @ 예, 막 큰 거.(예, 아주 큰 거.)

108009 #1 경 큰 거 셔? 쟈디 그건 다 물향아리.(그렇게 큰 거 있어? 그런데 그 건 다 물향아리.)

108009 @ 이젠 다 엇어젼수다.(이젠 다 없어졌습시다.)

108009 #1 그거 엇어져불언, 그거 시민 좋은디.(그거 없어져 버렸어, 그거 있으면 좋은데.)

108009 #2 그거 물향아리, 물 노민 물 산텐 허는 거 아니우파?(그거 물향아리, 물 넣으면 물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08009 @ 아이고, 거 옛날 옛장시덜 그 영 영 보멍 가져가불엇어.(아이고, 거 옛날 옛장수들 그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가져가 버렸어.)

108009 #1 우린 그 물향아리 하나 잇어. 거 나 제우 하나 빙가완.(우린 그 물향아리 하나 잇어. 거 나 겨우 하나 주워왔어.)

108009 #2 우린양 도로무깡만이 큰 향아리 서너니 개 잇수다.(우린요 드럼통만 큼 큰 향아리 서너 개 있습니다.)

108009 @ 거 뭐팡? 이 뵈으는 거 뭐라?(거 뭐입니까? 이 빵는 거 뭐야?)

108009 #1 방에톡.(방아확.)

108009 #2 방에톡.(방아확.)

108009 @ 예, 방에톡. 아, 그것도 어떤 집 가니까 그걸 유리 우티 탁 난에, 그 응접실에, 아, 그거 허난 막 좋안게. 그런 것덜 옛날 옛장시덜 다 가져가불언, 다 가 전 도망가불언.(예, 방아확. 아, 그것도 어떤 집 가니까 그걸 유리 위에 탁 놔서, 그 응접실에, 그거 하니까 아주 좋던데. 그런 것들 옛날 옛장수들 다 가져가 버렸어, 다 가져서 도망가 버렸어.)

108009 #1 다 가져갓주게. 거 돈 벌엇지, 그놈덜.(다 가져갔지. 그거 돈 벌엇지, 그놈들.)

108009 @ 예.(예.)

108009 #1 남방에, 남방에.(나무절구, 나무절구.)

108009 #2 남방에, 돌방에도 잇고.(나무절구, 돌절구도 잇고.)

108009 #1 돌방에 요만한 거, 꿰 뺏곡 그런 거.(돌절구 요만한 거, 참깨 빵고 그런 거.)

108009 @ 예.(예.)

108009 #1 저 무신 조그만한 거, 뺏으는 거.(저 무슨 조그마한 거, 빵는 거.)

108009 @ 지금 옛장시덜양 골동품 허는 사름덜이 거의 옛날 옛장시 출신덜이라.(지금 옛장수들요 골동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옛날 옛장수 출신들이야.)

108009 #1 어어, 맞아, 가이덜.(어어, 맞아, 그아이들.)

108009 @ 거 딱 오면은.(그거 딱 오면은.)

108009 #1 그런 거만 봐.(그런 거만 봐.)

108009 @ 이 쉐막 ㄱ튼 디 어디 무신거 어신가 해근에.(이 외양간 같은 데 어디 무엇 없는가 해서.)

108009 #2 도고리 같은 거.(함지박 같은 거.)

108009 @ 예, 그거 싹 행 가져가불어.(예, 그거 싹 해서 가져가 버려.)

108009 #1 우리 집이도 이 옛날 저 무신거 잇지, 방에 찍는 거. 남방에 말고. 돌로 만든 거.(우리 집에도 이 옛날 저 무엇 잇지, 방아 찍는 거. 나무절구 말고. 돌로 만든 거.)

108009 @ 돌로 만든 거?(돌로 만든 거?)

108009 #1 거 얼른 들르지도 못허여.(거 얼른 들르지도 못해.)

108009 @ 아, 그런 거양, 요즘 우리가 좋으니까 우티 짝 깔안에. 차 마실 때 그거.(아, 그런 거요, 요즘 우리가 좋으니까 위에 짝 깔아서. 차 마실 때 그거.)

108009 #1 우리도 요디 셔.(우리도 요기 있어.)

108009 @ 계난 그런 것덜이 옛날 뭐라, 사발 ㄱ튼 거양, 사발도 옛날 고팡에 낫주게.(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 뭐야, 사발 같은 거요, 사발도 옛날 고팡에 낫지.)

108009 #2 맞수다게, 경 해난.(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108009 #1 겐디 옛날 사발덜.(그런데 옛날 사발들.)

108009 #2 이젠양.(이젠요.)

108009 #1 이만씩 현 사발이랏주.(이만큼씩 한 사발이었지.)

108009 @ 커, 막 커.(커, 아주 커.)

108009 #1 예게.(예.)

108009 @ 옛날 일 허젠 허든 보리밥을 그냥 엄청 먹언에.(옛날 일 하려고 하면 보리밥을 엄청나게 먹어서.)

108009 #1 낭퐁이 밥 먹엇주게.(양퐁 밥 먹었지.)

108009 @ 먹을 것이 엇이니까.(먹을 것이 없으니까.)

108009 #1 늦그릇이고 그냥 사기그릇이고 다 이만씩.(늦그릇이고 그냥 사기그릇

이고 다 이만씩.)

108009 @ 막 커. 거난 딱 하나 쓸 거 이십디다, 옛날 그릇 중에.(아주 커. 그러니까 딱 하나 쓸 거 있습디다, 옛날 그릇 중에.)

108009 #1 뭇이 쓸 거?(뭇이 쓸 거?)

108009 @ 종재기.(종지.)

108009 #1 아, 종재기.(아, 종지.)

108009 @ 종재기는 녀동베기 헐 때.(종지는 녀동내기 할 때.)

108009 #1 맞아, 녀동베기 헐 때, 노는 거주.(맞아, 녀동내기 할 때, 노는 거지.)

108009 @ 녀동베기 헐 때 종재기 하나.(녀동내기 할 때 종지 하나.)

108009 #1 그것도 우리 집이 셔. 난 옷을 좋아하는 때문에.(그것도 우리 집에 있어. 난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108009 @ 것이 최고라, 옛날 종재기양, 장물 놔난 거.(그것이 최고야, 옛날 종지요, 간장 놔던 거.)

108009 #2 그 종재기양 전기선 감는 거까지 감양 놔뒀수다게.(그 종지요 전기선 감는 거까지 감아서 놔뒀습니다.)

108009 #1 우린 그거 딱 있어, 나 옷을 좋아하는 때문에.(우린 그거 딱 있어, 나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108009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8009 #1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8009 #2 매날 비온 날은 옷 놀레 감수게.(맨날 비 오는 날은 옷 놀러 가고 있습니다.)

108009 #1 저 감산리<sup>337</sup>, 열리<sup>338</sup>영 저 옷덜 엄청 잘 노는 사름덜 있어.(저 감산리, 예례리랑 저 옷들 엄청나게 잘 노는 사람들 있어.)

108009 @ 그디 옷도양.(거기 옷도요.)

108009 #1 완전 사기 옷덜토 잇고.(완전 사기 옷들도 잇고.)

108009 @ 사기 옷이 하우다게, 겐디 옷은 술 흔 잔 먹어야 혀는 건디.(사기 옷이 많습디다, 그런데 옷은 술 한 잔 먹어야 하는 건데.)

108009 #1 아니. 술은 안 먹고.(아니, 술은 안 먹고.)

108009 #2 술 안 먹어도게 경 취미 혀영 매날 갑니다.(술 안 먹어도 그렇게 취미 해서 맨날 갑니다.)

108009 @ 아니, 뭐 무신 꾀발이엔 헤근에.(아니, 뭐 무슨 기운이라고 해서.)

108009 #1 겐디 그 말은 맞은디, 우리 기가 좋아.(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 우리 기가 좋아.)

108009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8009 #1 절대 늑안티 기죽지 안 해.(절대 남한테 기죽지 않아.)

337) '감산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이다.

338) '열리'는 서귀포시 예례동을 말한다.

108009 @ 따는 편이우짜? 일르는 편이우짜?(따는 편입니까? 잃는 편입니까?)

108009 #1 일르지게, 돈 허영 딸 놈이 어디 있어. 겐디 우린 기죽진 안 허여.(있지요, 돈 해서 딸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린 기죽지는 않아.)

108009 @ 아이고게, 그런 거 허명 따는 맛이 있어야.(아이고, 그런 거 하면서 따는 맛이 있어야.)

108009 #1 백에 혼 번은 따지, 허허.(웃음) 백에 혼 번은 따긴 따지. 허허.(웃음)(백에 한 번은 따지, 허허.(웃음) 백에 한 번은 따긴 따지. 허허.(웃음))

108009 @ 탄 사름은 본전게.(탄 사람은 본전.)

108009 #1 백에 혼 번은 따고.(백에 한 번은 따고.)

108009 #2 옛날엔 크게 놀디만은, 이젠 돈 오만 원 ㄱ정 강 일러도 오만 원 따도 오만 원.(옛날엔 크게 놀디다만, 이젠 돈 오만 원 가져서 가서 잃어도 오만 원 따도 오만 원.)

108009 #1 옛날에 상갓집 다닐 때는 열다섯 번을 연타 이겼어. 부두노조는 큰상제, 한전은 작은상젠디, 난 우리 한전팀, 나 대표로 헨 열다섯 번 이기니까 그디 월급 싹 다.(옛날에 상갓집 다닐 때는 열다섯 번을 연타 이겼어. 부두노조는 큰상제, 한전은 작은상제인데, 난 우리 한전팀, 나 대표로 해서 열다섯 번 이기니까 거기 월급 싹 다.)

108009 #2 게 어디 붙디가?(그래 어디 버렸습니까?)

108009 #1 혼 번도 안 줘. 아, 게난 그땐 한전팀덜이 난 오만 원 난 열다섯 번 놀았주만은, 탄 아이덜은 십만 원, 이십만 원, 막 돈 따 보젠.(한 번도 안 줘어. 아, 그러니까 한전팀들이 난 오만 원 놔서 열다섯 번 놀았지만, 탄 아이들은 십만 원, 이십만 원 마구 돈 따 보려고.)

108009 @ 그 돈이민 밧 멧 게 살 건디.(그 돈이면 밧 멧 개 살 건데.)

108009 #1 저거 따시믄 밧 멧 개 샅지.(저거 땀으면 밧 멧 개 샅지.)

108009 #2 돈 십 원도 안 ㄱ져와십디다. 호호호.(웃음)(돈 십 원도 안 가져왔습디다. 호호호.(웃음))

108009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8009 #1 그때 신평<sup>339</sup> 간 오백만 원 일른 때 아니우짜? 그 전이.(그때 신평리 가서 오백 원 잃을 때 아닙니까? 그 전에.)

108009 @ 거 부침 탄 헨 거주게.(그거 부침 타서 한 거지.)

108009 #1 아이, 나 거 놀안.(아니, 나 거 놀았어.)

108009 @ 논 사름이 돈은 쪼끔 더 가져갑디다만은, 부치는 것덜.(논 사람이 돈은 쪼끔 더 가져갑디다만, 부치는 것들.)

108009 #1 아니, 부치는 놈덜이, 난 오만 원 난 놀았주만은, 부치는 놈덜, 한전 놈덜 돈덜 하지 안 해서게. 십만 원, 이십만 원 다 경 해주. 거 열다섯 번이니까 돈 이 얼마라, 그 당시 밧 혼 파니 사지.(아니, 부치는 놈들이, 난 오면 오만 원 놔서

339) '신평'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를 말한다.

놀았지만, 부치는 놈들, 한전 놈들 돈들 많지 않아. 십만 원, 이십만 원 다 그렇게 했지. 그거 열다섯 번이니까 돈이 얼마야, 그 당시 밭 한 이랑 사지.)

108009 @ 아이, 게 이상헌 방향으로 가불엇져.(아니, 그래 이상헌 방향으로 가 버렸어.)

108009 #1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8010 @ 그다음엔 정제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이 정제 허면은 솟양, 솟도 그 당시는 혼 멧 개 낫수가?(그다음엔 부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부엌 하면은 솔요, 솔도 그 당시는 한 멧 개 낫습니까?)

108010 #1 아이, 거 말치<sup>340</sup>, 말치.(아니, 거 ‘말치’, ‘말치’.)

108010 @ 솟, 제일 큰 거부터 조로록.(솔, 제일 큰 거부터 줄줄이.)

108010 #1 거 말치도, 대말치, 소말치.(거 ‘말치’도, ‘대말치’, ‘소말치’.)

108010 @ 대말치 놈 난 다음엔?(‘대말치’ 놈 난 다음엔?)

108010 #2 소말치.(‘소말치’.)

108010 #1 중말치, 소말치.(‘중말치’, ‘소말치’.)

108010 #2 소말치 놈 그다음 중말치 놈.(‘소말치’ 놈서 그다음 ‘중말치’ 놈서.)

108010 @ 게난 천천이양, 대말치.(그러니까 천천히요, ‘대말치’.)

108010 #2 중말치.(‘중말치’.)

108010 @ 중말치.(‘중말치’.)

108010 #1 그다음은 거.(그다음은 거.)

108010 #2 소말치.(‘소말치’.)

108010 #1 아, 거 뭐엔 현다.(아, 그거 뭐라고 한다.)

108010 @ 소말치.(‘소말치’.)

108010 #2 또 작은 헤끄만헌 거.(또 작은 조그마한 거.)

108010 #1 헤끄만헌 거 뭐엔 현다만은.(조그마한 거 뭐라고 한다마는.)

108010 @ 그거 저 뭐 죽.(그거 저 뭐 작.)

108010 #1 그거 잊어불엇네.(그거 잊어버렸네.)

108010 @ 거난 밥허는 거 잇고.(그러니까 밥하는 거 잇고.)

108010 #2 예, 밥허는 건 큰말치, 소말치, 다음에 밥허는 거, 다도테기<sup>341</sup>.(예, 밥하는 건 ‘큰말치’, ‘소말치’, 다음에 밥하는 거, ‘다도테기’.)

108010 @ 다도테기.(‘다도테기’.)

108010 #1 어어, 다도테기.(어어, ‘다도테기’.)

108010 @ 다도테기 그다음에.(‘다도테기’ 그다음에.)

108010 #2 웅조리.(웅달솔.)

108010 @ 웅조리.(웅달솔.)

108010 #2 웅조리가 질 끄트머리에.(웅달솔이 켈 끄트머리에.)

340) ‘말치’는 한 말 드는 크기의 솔을 말한다.

341) ‘다도테기’는 용적이 두 되 드는 크기의 솔이다.

108010 #1 제일 꼬트머리.(제일 꼬트머리.)

108010 #2 계난 이제ㄴ짜 세멘이나 헤시민 하나씩 툃툃 노멍 놔실 건디.(그러니까 이제같이 했으면 하나씩 툃툃 놓으면서 놔을 건데.)

108010 @ 그 숏 노는 것을 뉘엔 허지, 그거? 돌 세 개 영 허영, 숏덕?(그 숏 놓는 것을 뉘라고 하지, 그거? 돌 세 개 이렇게 해서, 붓돌?)

108010 #2 숏덕, 숏덕, 숏덕이우다게.(붓돌, 붓돌, 붓돌입니다.)

108010 #1 숏덕 맞아.(붓돌 맞아.)

108010 @ 숏덕예, 숏덕.(붓돌요, 붓돌.)

108010 #2 세 개.(세 개.)

108010 #1 세 개, 네 개라게.(세 개, 네 개야.)

108010 #2 아니, 숏 하나 세우젠 허민 세 개주게.(아니, 숏 하나 세우려고 하면 세 개지.)

108010 @ 숏덕 세 개.(붓돌 세 개.)

108010 #2 요기 하나, 양옆이 두 개.(요기 하나 양옆에 두 개.)

108010 @ 양옆에예.(양옆에요.)

108010 #2 경 허영 질 두엔 요만이 허게 불체.(그렇게 해서 쉐 뉘엔 요만큼 하게 재.)

108010 @ 불치.(재.)

108010 #2 불치 밀리고.(재 밀리고.)

108010 @ 밀리는 디.(밀리는 데.)

108010 #2 예, 경 헛수다.(예, 그렇게 했습니다.)

108010 @ 그 불치 밀리는 디도 막 컷주게.(그 재 밀리는 데도 아주 컷지.)

108010 #2 막 컷수다.(아주 컷습니다.)

108010 #1 경허고 이 저 온돌 허는 집인 바로 그냥.(그리고 이 저 온돌 하는 집엔 바로 그냥.)

108010 #2 온돌은 그르후에 현 거고.(온돌은 그 후에 한 거고.)

108010 @ 옛날 온돌 엇어서.(옛날 온돌 없었어.)

108010 #2 엇엇수다게.(없었습니다.)

108010 #1 무사게 우리 저 \*\*왓 살 때 온돌.(왜요 우리 저 \*\*밭 살 때 온돌.)

108010 #2 아, 거기, 그거는 우리 막 개방된 후에.(아, 거기, 그거는 우리 아주 개방된 후에.)

108010 @ 아, 옛날은양, 정제. 방이 엇어노니까.(아, 옛날은요, 부엌. 방이 없어 놓으니까.)

108010 #2 돌 시 개만 낵.(돌 세 개만 놔서.)

108010 @ 불치만 놓고. 그때 농사짓으멍 경 헛수게게.(재만 놓고. 그때 농사지 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8010 #2 예.(예.)

108010 @ 게고 저 큰방은 저 굴목<sup>342)</sup> 진엇지, 굴목에서.(그리고 저 큰방은 저 ‘굴목’ 때엇지, ‘굴목’에서.)

108010 #2 굴목 진곡. 저 부엌 영 허영 안터렌 솟덕 시 개 뇌근에.(‘굴목’ 때고. 저 부엌 이렇게 해서 안으로는 붓돌 세 개 뇌서.)

108010 @ 옛날은양 거 뭇로도 하영 헤낫수다게, 어린아이덜 때문에. 그 저 곱을 락허멍. 아이, 저 무시것과? 거 밥 헤 먹는 거 뭇엔 험니까?(옛날은요 거 무엇으로도 해서 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 저 숨바꼭질 하면서, 아니, 저 무엇입니까? 거 밥헤 먹는 거 뭇라고 험니까?)

108010 #2 혁밥.(소꿉질)

108010 #1 혁밥.(소꿉질.)

108010 @ 양?(예?)

108010 #2 혁밥.(소꿉질.)

108010 @ 혁밥. 그 저 놀 옆이 왕 허거든, 요놈들.(소꿉질. 그 저 가리 옆에 와서 하거든, 요놈들.)

108010 #1 어어, 맞아.(어어, 맞아.)

108010 @ 경 허는 이 저 살루는 축허멍 성냥 하나 허영은에 싹 태와불곡.(그렇게 하는 이 저 불 살리는 척하면서 성냥 하나 해서 싹 태워버리고.)

108010 #2 맞수다게.(맞습니다.)

108010 #1 숨을 게 엇어노난게.(숨을 게 없어 놓으니까.)

108010 @ 아, 거 헛밥이엔 허는구나, 헛밥.(아, 거 ‘혁밥’이라고 하는구나, 소꿉질.)

108010 #1 옛날 어린아이덜 허는 거 보난, 장난헐 게 엇어노난. 하하하.(웃음)  
(옛날 어린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장난할 게 없어 놓으니까. 하하하.(웃음))

108010 @ 거난 이제 여자, 남자 일허는 것도 틀러, 여자덜은 영 불 숨는 척허곡.(그러니까 이제 여자, 남자 일하는 것도 달라, 여자들은 이렇게 불 때는 척하고.)

108010 #1 느랑 여자 허라.(너랑 여자 해라.)

108010 #2 나랑 아방허곡, 아기허곡 허멍, 호호호.(웃음)(나랑 아버지하고, 아기하고 하면서, 호호호.(웃음))

108010 @ 경 허멍 불 하영 살루아불엇주게.(그렇게 하면서 불 많이 살려버렸지.)

108010 #1 게난 옛날엔 헐 게 엇어노니까, 보는 건 그거벳기 못 봤거든, 경 허난. 하하하.(웃음)(그러니까 옛날엔 할 게 없어 놓으니까, 보는 건 그거밖에 못 봤거든, 그렇게 하니까. 하하하.(웃음))

108010 @ 그다음에 솟, 불치 노는 디, 그다음에 그 저 살레가 잇고예.(그다음에 솟, 재 놓는 데, 그다음에 그 저 ‘살레’이 잇고요.)

108010 #2 예.(예.)

342)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108010 @ 살레, 살레 옆이 항 낫지양? 물항.(‘살레’, ‘살레’ 옆에 독 낫지요? 물독.)

108010 #2 살레 옆이 물항.(‘살레’ 옆에 물독.)

108010 @ 물항, 살레 옆이.(물독, ‘살레’ 옆에.)

108010 #2 예, 예.(예, 예.)

108010 @ 물항.(물독.)

108010 #2 예.(예.)

108010 @ 그다음에 물항 옆에 조그만 문으로 장 거리레 가는 디?(그다음에 물독 옆에 조그만 문으로 간장 뜨러 가는 데?)

108010 #2 장팡뒤<sup>343</sup>.(장독대.)

108010 @ 장팡뒤가 잇고.(장독대가 있고.)

108010 #2 장팡뒤, 예.(장독대, 예.)

108010 @ 살레는 그릇 시치민 대냥 우에.(‘살레’는 그릇 씻으면 대나무 위에.)

108010 #2 질 밋테.(젤 밑에.)

108010 @ 밋테난게 그릇 시친 거 놓고.(밑이니까 그릇 씻은 거 놓고.)

108010 #2 대나무로 짜근에 물 빠지게 그레 어핏수다.(대나무로 짜서 물 빠지게 그리로 얹었습니다.)

108010 @ 어프고.(얹고.)

108010 #2 대장테<sup>344</sup>, 이제 ㄹ뜨른 다라 ㄹ튼 거 헛주만은 옛날엔 다라가 어디 잇수가? 굵은 대장테 허영 요만한 설거지허는 대장테, 그릇 싯영 그레 어핏수다.(‘대장테’, 이제 같으면 대야 같은 거 했지마는 옛날엔 대야가 어디 있습니까?, 굵은 ‘대장테’ 해서 요만한 설거지하는 ‘대장테’, 그릇 씻어서 그리로 얹었습니다.)

108010 @ 어프고.(얹고.)

108010 #2 예. 무신 뭐 따끌 정도 돼잇수가? 불체 올라도 그렇게 허면서 살았수다.(예. 무슨 뭐 닦을 정도 되었습니까?, 재 올라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108010 @ 그다음에 그 우에는 낭으로 웬 문 행은에.(그다음에 그 위에는 나무로 된 문 해서.)

108010 #2 예, 예.(예, 예.)

108010 @ 거기에.(거기에.)

108010 #2 살레, 살레 짜근에.(‘살레’, ‘살레’ 짜서.)

108010 @ 반찬덜 놓곡.(반찬들 넣고.)

108010 #2 질 아렌 문 안 허고, 중간엔 문 허영. 먹어난 음식 ㄹ튼 거, 반찬 ㄹ튼 거 그레 놔근에 더꺼십주.(젤 아래에는 문 안 하고, 중간에는 문 해서. 먹었던 음식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그리로 놔서 닫았습지요.)

108010 @ 더끄고 제일 우티는 저 이 켜ㄹ루 ㄹ튼 거.(닫고 젤 위에는 저 깻가

343) ‘장팡뒤’는 장독을 넣어두는 자리의 뒤쪽이다.

344) ‘대장테’는 커다란 옹기로 된 대야를 말한다.

루 같은 거.)

108010 #2 예, 예.(예, 예.)

108010 @ 고치ㄴ루 ㄴ튼 거.(고춧가루 같은 거.)

108010 #2 양념, 양념통덜.(양념, 양념통들.)

108010 @ 예, 통덜 ㄴ근에 허고.(예, 통들 ㄴ서 하고.)

108010 #2 예. 경 헛수다게.(예, 그렇게 했습니다.)

108010 @ 그다음에 찻방<sup>345</sup>양, 저 마리레 가는 디, 방 옆이 찻방도 잇어났지 양?(그다음에 ‘찻방’, 저 마루로 가는 데, 방 옆에 ‘찻방’도 있었지요?)

108010 #1 어, 어.(어, 어.)

108010 @ 조그만허게.(조그마하게.)

108010 #1 찻방도 마루주게, 마루방이라, 마루방.(‘찻방’도 마루지요, 마루방이야, 마루방.)

108010 @ 아, 찻방양.(아, ‘찻방’요.)

108010 #2 이제도 마리레 들어가곡, 부엌으로 들어가곡 잇수다게.(지금도 마루로 들어가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8010 #1 계난 것도 저 방으로 허지 안 허고 마루ㄴ치 널로 허영.(그러니까 그것도 저 방으로 하지 않고 마루같이 널로 해서.)

108010 @ 찻방 잇고. 그 대말치에서 그 콩.(‘찻방’잇고, 그 ‘대말치’에서 그 콩.)

108010 #1 옛, 옛도 허곡 콩도 솥곡. 주로 콩 솥고, 장, 장 담그젠 허민.(옛, 옛도 하고 콩도 삶고, 주로 콩 삶고, 장, 장 담그려고 하면.)

108010 @ 장 담젠 허민, 게고 저 쉼 벅이젠.(장 담그려고 하면, 그리고 저 소 먹이려고.)

108010 #1 콩 솥양 쉼, 쉼출 솥고.(콩 삶아서 소, 소꼴 삶고.)

108010 #2 쉼출 솥고.(소꼴 삶고.)

108010 #1 그런 거주, 대충.(그런 거지, 대충.)

108010 @ 거난 가운데 그거 아까 다도테기, 다루테기가 밥허는 거.(그러니까 가운데 그거 아까 ‘다도테기’, ‘다루테기’가 밥하는 거.)

108010 #2 밥허는 거, 다도테기.(밥하는 거, ‘다도테기’)

108010 @ 그다음에.(그다음에.)

108010 #2 웅조리.(웅달술.)

108010 @ 웅조린 반찬 멩그는 거고.(웅달술은 반찬 만드는 거고.)

108010 #2 예, 계난 웅조리솥을 질 ㄴ트머리에 ㄴ방 반찬 허고.(예, 그러니까 웅달술을 제일 ㄴ트머리에 ㄴ서 반찬 하고.)

108010 @ 크기, 크기로 헛어, 크기로. 국 끌리는 건 뭐라? 국 끌리는 것도 따로 해서.(크기, 크기로 헛어, 크기로. 국 끓이는 건 뭐야? 국 끓이는 것도 따로 해서.)

108010 #2 국 끌리는 건 계난 다도테기 다음에 국 끌리는 솥.(국 끓이는 건 그

345) ‘찻방’은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이다.

러니까 ‘다도테기’ 다음에 국 끓이는 술.)

108010 #1 다도테기 다음에.(‘다도테기’ 다음에.)

108010 #2 요만이 현 거 그레 앓정 그거 헛주마씨.(요만큼 한 거 그리로 앓혀서 그거 헛지요.)

108010 #1 밥 다음에 헛주.(밥 다음에 헛지.)

108010 #2 그다음엔 옹조리 앓저근에 반찬허고.(그다음엔 옹달술 안쳐서 반찬허고.)

108010 @ 이 보통 솟이 다섯 개 놔야. (이 보통 솟이 다섯 개 놔야.)

108010 #2 예. 맞수다게.(예, 맞습니다.)

108010 @ 그다음에 재덜 막 하난에 거 뭐짱? 물로 헤근에 짝 수세미 ㄴ튼 거. (그 다음에 재들 아주 많으니까 그거 뭐입니까? 물로 해서 짝 수세미 같은 거.)

108010 #2 예, 짝으로 헤낫수다.(예, 짝으로 했었습니다.)

108010 @ 그땐 짝으로 헤근에 솟두쟁이 영 돌르고, 그다음에 밥 부꺼난 디도 그걸로.(그때는 짝으로 해서 솟뚜쟁 이렇게 두르고, 그다음에 밥 끓어 넘쳐난 데도 그걸로.)

108010 #1 수세미 엇을 때난게.(수세미 엇을 때니까.)

108010 @ 막 돌르고.(막 두르고.)

108010 #2 그걸로 솟 우에 밥헤 나민 막 시쳐십주.(그걸로 솟 위에 밥헤 나면 마구 씻었습지요.)

108010 @ 예.(예.)

108010 #1 짝이 질기니까.(짝이 질기니까.)

108010 #2 짝으로 영.(짝으로 이렇게.)

108010 @ 예, 경.(예, 그렇게.)

108010 #2 이젠 행주로 햄주만은 그땐 짝으로 헛수게.(이젠 행주로 하지마는 그땐 짝으로 했습시다.)

108010 @ 예, 게난 저 그릇 시칠 때도 짝으로.(예, 그러니까 저 그릇 씻을 때도 짝으로.)

108010 #1 문딱 짝으로 헤낫어.(모두 짝으로 했었어.)

108010 #2 짝으로.(짝으로.)

108010 @ 짝으로.(짝으로.)

108010 #2 이젠 옛날에도 수세미영 ㄴ튼 거 옛날에 셔낫수다.(이젠 옛날에도 수세미와 같은 거 옛날에 있었습시다.)

108010 #1 스가워.(수세미외.)

108010 #2 스가워엔 허영 그건 막 깨끗헌 집이 그런 거 허영 허고, 경 매집이 엇영, 것도.(수세미외라고 해서 그건 아주 깨끗헌 집에 그런 거 해서 하고, 그렇게 매집에 없어서, 그것도.)

108011 @ 그다음에 문설주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우선 그 문에 대한 건디, 문

에 대한 건디 우선 그 문 맹글젠 허믄 여기 돌쩌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우파양?(그 다음에 문설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문에 대한 건데, 문에 대한 건데 우선 그 문 만들려고 하면 여기 돌쩌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8011 #1 아, 돌절귀.(아, 돌쩌귀.)

108011 @ 예, 그 돌쩌귀.(예, 그 돌쩌귀.)

108011 #1 옛날엔 이런 문 있어, 영 올앙 허는 거.(옛날에는 이런 문 있어,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거.)

108011 #2 영 올라근에 더끄곡, 영 올앙 영 더끄곡.(이렇게 열어서 닫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닫고.)

108011 @ 돌쩌귀양?(돌쩌귀요.)

108011 #1 돌절귀.(돌쩌귀.)

108011 @ 거 돌쩌귀엔 허지양?(그거 돌쩌귀라고 하지요?)

108011 #1 돌절귀, 돌철귀.(돌쩌귀, 돌쩌귀.)

108011 @ 돌철귀?(돌쩌귀?)

108011 # 예.(예.)

108011 @ 돌철귀. 그 돌철귀가 있고 그다음에 문지방, 문지방 있지 안 허우파양? 문지방.(돌쩌귀. 그 돌쩌귀가 있고 그다음에 문지방, 문지방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

108011 #1 예. 문지방도 영 허믄 영 특지와근에, 특지왕 특 더끄민 더꺼지게 넘어오지 못허게 경 해났어. 더꺼지게. 영 이중으로 특지왕.(예. 문지방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턱져서, 턱져서 특 닫으면 닫게 넘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어. 닫게. 이렇게 이중으로 턱져서.)

108011 @ 옛날엔 이레 더끄는 문이라양.(옛날에는 이리로 닫는 문이에요.)

108011 #1 다 더끄는 문.(다 닫는 문.)

108011 @ 밀문은 엇고.(미닫이문은 없고.)

108011 #1 아이, 밀문은 엇고.(아, 미닫이문은 없고.)

108011 @ 더끄는 문.(닫는 문.)

108011 #2 다 더끄는 문이우다게. 창살 허영 창오지 불르곡.(다 닫는 문입니다. 창살 해서 창호지 바르고.)

108011 #1 또 방문도 더끄는 문으로 저 돌철귀로 영 두 개 영 허민 올라근에, 문이 무신 요만이 행.(또 방문도 닫는 문으로 저 돌쩌귀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면 열어서, 문이 무슨 요만큼 해서.)

108011 @ 그다음에 그 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쿠다. 우선 그 문을 돌아야 될 거 아니우파양? 계난에 방에 들어갈 때는 창문이엔 험니까? 방에, 구들에 들어갈 때. (그다음에 그 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문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에 들어갈 때는 창문이라고 합니까? 방에, 구들에 들어갈 때.)

108011 #2 창문계.(창문.)

108011 #1 창문 맞추.(창문 맞지.)  
108011 @ 창문양.(창문이요.)  
108011 #1 이거 여긴 지겟문. 창문은 저쪽이 창문이고.(이거 여기는 지겟문. 창문은 저쪽이 창문이고.)  
108011 #2 저 작은 문이 창문.(저 작은 문이 창문.)  
108011 #1 어, 베꼈디 신 것이 창문. 이건 지겟문.(어, 바깥에 있는 것이 창문. 이건 지겟문.)  
108011 @ 지겟문. 저 마리에서 방에 들어가는 것은 지겟문, 지겟문양.(지겟문. 저 마루에서 방에 들어가는 것은 지겟문, 지겟문이요.)  
108011 #1 지겟문.(지겟문.)  
108011 @ 거난 마리에서 방에 들어가는 문은 그 지겟문.(그러니까 마루에서 방에 들어가는 문은 그 지겟문.)  
108011 #1 지긋문.(지겟문.)  
108011 @ 예?(예?)  
108011 #2 지긋문?(지겟문?)  
108011 #1 지긋문.(지겟문.)  
108011 @ 지긋문.(지겟문.)  
108011 #1 예, 절로 창문.(예, 저리로 창문.)  
108011 @ 지긋문.(지겟문.)  
108011 #1 저 앞으로 창문.(저 앞으로는 창문.)  
108011 @ 그다음에 정제에서 장팡뒤로 가는 문은 뭐엔 험니까?(그다음에 부엌에서 장독대로 가는 문은 뭐라고 험니까?)  
108011 #1 정제에서 장팡뒤로 가는 문? 그건 뭐 지긋문, 창문 아니라.(부엌에서 장독대로 가는 문? 그건 뭐 지겟문, 창문 아니야.)  
108011 @ 건 잘 몰르고양. 그다음에(그건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108011 #2 울로 들어오는 건 대문.(여기로 들어오는 건 대문.)  
108011 @ 음.(음.)  
108011 #2 마리로 들어오는 건 대문.(마루로 들어오는 건 대문.)  
108011 @ 마리로 들어오는 건 대문. 마리로 들어오는 건 대문.(마루로 들어오는 건 대문. 마루로 들어오는 건 대문.)  
108011 #1 마리로 들어오는 건 대문.(마루로 들어오는 건 대문.)  
108011 #2 계난 거 장팡뒤에 가는 문은 장팡뒤에 가근에.(그러니까 그거 장독대에 가는 문은 장독대에 가서.)  
108011 @ 작은 문이엔 허는가?(작은 문이라고 하는가?)  
108011 #1 예, 거 작은 문이엔 험니다.(예, 그거 작은 문이라고 험니다.)  
108011 #2 장팡뒤에 강 문 울양 간장 거려 오라, 영 허주. 문 이름이 엇어.(‘장팡뒤’에 가서 문 열어서 간장 떠 오라, 이렇게 하지. 문 이름이 엇어.)

108011 @ 그냥 죽은 문이주예. 그다음에 마리에 정제레 가는 문은 잊지 안 허 우짱? 마리 가운데 해근에 정제레.(그냥 작은 문이지요. 그다음에 마루에 부엌으로 가는 문은 있지 않습니까? 마루 가운데 해서 부엌에.)

108011 #1 것도 문 이름이 엇어. 그자 이 지겟문허고 창문.(그것도 문 이름이 없어. 그저 지게문하고 창문.)

108011 @ 고팡더레 가는 건 고팡문?(고방으로 가는 건 고방문?)

108011 #1 아, 건 고팡문. 건 고팡문이엔 허여.(아, 그건 고방문. 그건 고방문이라고 해.)

108011 #2 고팡문.(고방문.)

108011 @ 그다음에 마리 뒤에도 조그만 문 잊어나지 안 헛수가?(그다음에 마루 뒤에도 자그만 문 있었지 않았습니까?)

108011 #2 창문, 창문.(창문, 창문.)

108011 @ 건 뒷문?(그건 뒷문?)

108011 #2 창문.(창문.)

108011 @ 창문? 마리에서 뒤로.(창문? 마루에서 뒤로.)

108011 #2 예, 뒤, 뒷창문. (예, 뒤, 뒷창문.)

108011 @ 뒷창문?(뒷창문?)

108011 #2 예.(예.)

108011 @ 뒷창문, 뒷창문.(뒷창문, 뒷창문.)

108011 #2 예.(예.)

108011 @ 그다음에 저 어디 저.(그다음에 저 어디 저.)

108011 #2 양, 이 방더레 가는 문이 지겟문?(예, 이 방으로 가는 문이 지게문?)

108011 #1 지긋문.(지게문.)

108011 #2 지긋문, 대문, 창문. 그것이 맞아뵈우다.(지게문, 대문, 창문. 그것이 맞아 보입니다.)

108011 @ 뒷창문.(뒷창문.)

108011 #2 예. 저 창문 저 뒷창문 올라게.(예. 저 창문 저 뒷창문 열어라.)

108011 @ 굴목<sup>346</sup> 때레 가는 문은?('굴목' 때러 가는 문은?)

108011 #2 그건 굴목문, 굴목문이주게.(그건 '굴목문', '굴목문'이지요.)

108011 @ 굴목문.('굴목문'.)

108011 #2 굴목문 올라 보라, 거기 저 멩텅이 시냐 허멍 경 헛주게.('굴목문' 열어 보라, 거기 저 망태기 있냐 하면서 그렇게 했지.)

108011 #1 경 허연 창고엔 봉창문.(그렇게 해서 창고에는 봉창문.)

108011 @ 거난 이 옛날 이 창문, 대문은 이 저 마리에 들어가는 문이고, 낭으로 만 만들었지양?(그러니까 이 옛날 이 창문, 대문은 이 저 마루로 들어가는 문이고, 나무로만 만들었지요?)

346)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8011 #2 예, 예.(예, 예.)

108011 @ 낭, 낭문.(나무, 나무문.)

108011 #2 예, 낭.(예, 나무.)

108011 #1 대문은 이거고라 대문이엔 저 베꼈다.(대문은 이것더러 대문이라고 저 바깥에.)

108011 @ 낭문.(나무문.)

108011 #1 이문간, 이문간 문도 대문이엔 헛어.(문간채, 문간채 문도 대문이라고 헛어.)

108011 @ 저 어디냐, 저 이 지겟문은 저.(저 어디냐, 저 이 지계문은 저.)

108011 #1 마리에서 방더레 가는 거.(마루에서 방으로 가는 거.)

108011 @ 이거 창오지로 문 불르고?(이거 창호지로 문 바르고?)

108011 #2 예, 문쌀. 문쌀 허영.(예, 문살. 문살 해서.)

108011 @ 문쌀 허영 창오지로 불르고?(문살 해서 창호지로 바르고?)

108011 #2 예, 예.(예, 예.)

108011 @ 굴목더레 가는 것도 낭으로만 허고?('굴목'으로 가는 것도 나무로만 하고?)

108011 #2 낭으로만 행 그냥 영 더퍼 가지고.(나무로만 해서 그냥 이렇게 덮어 가지고.)

108011 @ 계난 정제로 가는 문도 낭으로만 웬 문양.(그러니까 부엌으로 가는 문도 나무로만 된 문요.)

108011 #2 정젧문, 굴목문. 경 헤십주.(부엌문, '굴목문'. 그렇게 했습지요.)

108011 #1 고평문.(고방문.)

108011 #2 고평문.(고방문.)

108011 @ 계난 방에 들어가는 것만 창오지로 문을 불랏구나예.(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는 것만 창호지로 문을 발랏군요.)

108011 #2 예, 예, 경 헛수다게.(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108011 @ 다 낭으로 웬 문이고.(다 나무로 된 문이고.)

108011 #2 예.(예.)

##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돈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역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

##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4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모사전송:**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